

軍史

Military History

2016. 3. 제98호

- 660년 소정방의 백제 공격로에 대한 군사학적 연구
- 文獻資料를 통해 본 고대 · 고려시대의 名將
- 1376년 鴻山 전투의 意義와 戰場에 대한 재고찰
- 전투력 요소로 본 이순신의 전투준비태세와 초기전투 승리 요인
- 조선의 왕권과 숙종초기 도체찰사부
- 해유문서를 통해 본 18세기 서북진의 군비 실태
- 1·28 상하이사변과 윤봉길의거의 한중공동항전
- 1950년대 한국군의 미국 군사유학 시행과 그 영향
- 1950년대 전시납북자 귀환 교섭과 한국정부의 대응
- 러시아 내전기 적군(赤軍) 기병의 형성과 운용
- 미국-스페인전쟁과 미디어의 풍자 이미지에 나타난 팽창주의, 반(反)제국주의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軍史

第 98 號
2016. 3.



· 편 _ _ _ _

國防部 軍史編纂研究所

Contents | 2016. 3. 제98호

1	▶ 660년 소정방의 백제 공격로에 대한 군사학적 연구	이재준
37	▶ 文獻資料를 통해 본 고대 · 고려시대의 名將	전호수
75	▶ 1376년 鴻山 전투의 意義와 戰場에 대한 재고찰	임형수
105	▶ 전투력 요소로 본 이순신의 전투준비태세와 초기전투 승리요인	이경식
161	▶ 조선의 왕권과 숙종초기 도체찰사부	김종수
203	▶ 해유문서를 통해 본 18세기 서북진의 군비 실태	김효경 · 이해은
241	▶ 1·28 상하이사변과 윤봉길의거의 한중공동항전	이재령
285	▶ 1950년대 한국군의 미국 군사유학 시행과 그 영향	김민식



軍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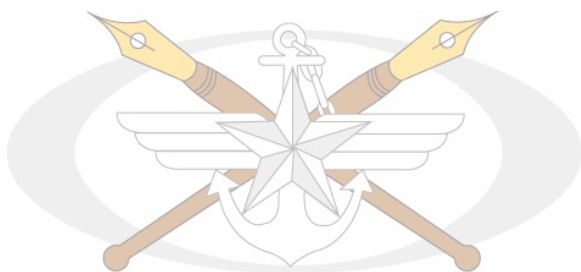


Contents | 2016. 3. 제98호

323	▶ 1950년대 전시납북자 귀환 교섭과 한국정부의 대응	황선익
361	▶ 러시아 내전기 적군(赤軍) 기병의 형성과 운용	이정하
395	▶ 미국-스페인전쟁과 미디어의 풍자 이미지에 나타난 팽창주의, 반(反)제국주의	석화정

부 록

1. 연구소 등정	433
2. 자료기증 및 자료이용 안내	435
3. 신간 도서 소개	437
4. 『軍史』誌 投稿案内	440
5. 연구윤리예규	443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본 저작물은 정부예산으로 발간하였으므로 기관(부대) 자산으로 영구보존하시기 바라며, 보관이 불가능할 경우 당 연구소로 회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60년 소정방의 백제 공격로에 대한 군사학적 연구

이 재 준*

1. 머리말
2. 백강과 기벌포에 대한 종래의 제 학설
3. 군사학적 고찰과 문헌검토
4. 맺음말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1. 머리말

660년 당나라 소정방은 13만 대군을 이끌고 서해를 건너 백제를 침공하였다. 『구당서』에 소정방은 성산으로부터 바다를 건너 熊津江口(웅진강구)¹⁾에 이르러 江口(강구)를 지키는 백제군을 격파하고 곧장 백제의 왕도로 가서, 신라군과 함께 공격함으로써 의자왕의

* 영남대학교 군사문제연구소 연구원

1) 熊津江口 (『舊唐書』 卷83 列傳 第33 蘇定方); 熊津口 (『新唐書』 卷220 列傳 第145 百濟); 熊津江口 (『資治通鑑』 卷200 唐紀16)

항복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 웅진강구에 대해 『삼국사기』에는 白江(백강) 또는 伎伐浦(기벌포)²⁾로 기록하고 있다. 한편 663년 백제부흥운동 시에 唐(당) 수군이 백제를 지원하는 倭(왜)의 선단을 크게 패퇴시킨 지역을 중국 측 사료에는 白江口(백강구)³⁾로 기록하고 있고, 일본 측 사료에는 白村江(백촌강)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와 같이 660년 소정방이 백제를 침공하기 위하여 들어온 지역이 웅진강구, 웅진구, 기벌포, 백강 등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663년 왜군과 당군이 전투를 벌인 곳이 백강구 또는 백촌강이라 하여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웅진강구, 웅진구, 백강, 기벌포, 백강구, 백촌강으로 표기되는 지역은 분명 백제의 관문이었거나 군사상 중요한 지역 또는 격전지였다고 할 수 있겠다. 따라서 그 위치가 어디인가가 주요한 연구대상이 되어 왔다. 그러나 지금까지 수많은 연구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그 위치에 대하여 여러 가지 설이 제기되고 있는 등 통일된 견해가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이유는 사료가 영성함은 물론 기록되어 전해지는 지명도 여러 가지여서 혼란스러우며, 1300여년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 지명과 지형의 많은 변천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지금까지의 연구가 대부분 역사지리학적 방법이나 음운학적 방식에 의한 유사지명 찾기 등 문헌에 의한 방법에만 치중하였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어떤 위치를 비정하고자 한다면 그 위치가 갖는 본질부터 살펴보아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연구는 비정하고자 하는 위치가 갖는 본질은 주요 논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본다. 위치가 갖는 본질

2) 白江/伎伐浦/熊津江口 (『三國史記』 百濟本紀 義慈王 20年); 伎伐浦(新羅本紀 太宗武烈王 7年); 依(伎伐浦 (券42 列傳 第2 金庾信 中); 熊津口 (券44 列傳 第4 金仁問).

3) 白江/白江口로 동일(『舊唐書』 券84 列傳 第34 劉仁軌 / 券199 上 第149 東夷百濟; 『新唐書』 券108 列傳 第33 劉仁軌 / 券220 列傳 第145 東夷 百濟; 『資治通鑑』 券201 唐紀17)

이라고 하면, 『삼국사기』에 기록된 백강이나 기벌포는 防者(방자)의 입장에서 말하는 위치이며, 중국 측 사료에 기록된 웅진강구나 웅진구는 唐(당) 소정방군의 공격로 상에 있으며 唐軍(당군)의 상륙지점이자 백제군과 싸운 장소로 攻者(공자)의 입장에서 말하는 위치이다.

따라서 전적지의 위치비정은 문헌에 의한 고찰과 병행하여, 당시의 백제의 방어계획이나 당군의 침공계획 등 전투행위의 본질을 함께 고찰 하여야 한다. 이에 본고는 종래의 백강, 기벌포에 대한 제학설을 알아본 연후에, 현장 답사결과를 가지고 군사학적인 지형분석 방법을 통해 그 위치를 비정하고자 한다. 비정된 위치에 대해서는 사료분석을 통해 추가적으로 검증을 하도록 할 것이다. 다만 위치비정에 있어 논란이 되고 있는 웅진강과 백강이 동일한 강인지 아니면 별개의 강인지, 다시 말해 660년 백제도성 함락시의 백강과 663년 주류성 함락시의 백강이 동일한 강인지의 여부는 논외로 하고자 한다. 단지 660년 소정방의 백제 침공로에 대하여만 군사적인 측면에서 당시의 병법이나 전략전술적인 측면 등을 고려한 지형분석을 통하여 그 위치를 비정하고자 한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 백강과 기벌포에 대한 종래의 제 학설

가. 종래의 제학설

백강, 기벌포에 대한 연구는 일본인 학자들에 의하여 일찍이 연구되었다. 먼저 津田左右吉(진전좌우길)은 “당군이 상륙한 기벌포는 「신라본기」에 ‘所夫里州 伎伐浦(소부리주 기벌포)’임을 볼 때 소부리는 부여일대이므로 기벌포는 부여 부근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김유신전」에 ‘蘇定方...等沿海入伎伐浦(소정방...등연해입기벌포)’라고 하였으므로 바다에 가까운 곳이다.”⁴⁾라고 하였다.

小田省吾(소전성오)는 “동진강구의 界火島(계화도)와 부안읍의 백제이름인 皆火(개화)가 음성 상 닮았다고 하여 백강구 및 기벌포는 동진강 하구이어야 한다.”⁵⁾고 주장하고 있다.

池內宏(지내굉)은 “기벌포는 백강지구와 같이 금강의 하류인 海口(해구)의 이름이고, 웅진강 및 백강과 그 범위를 같이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기벌포는 웅진강구 및 백강구와 같이 금강입구를 말하는 것이다.”⁶⁾라고 하였다.

今西龍(금서룡)은 “660년의 기벌포는 안정복의 『동사강목』에 ‘伎伐浦一名白馬江, 在今扶餘縣西五里(재금부여현서오리)’의 기사와 『삼국유사』의 ‘長岑又孫梁一作只火浦又白江(장암우손량일작지화포우백강)’이라 하였는데 장암은 부여군 관내의 場巖(장암)에 비정할 수 있고 손량은 세도면의 紗浪(사랭이)에, 지화포는 금강과 석성천이 만나는 곳의 남쪽지점인 猪浦(저포)와 비슷하므로 백마강 하류에 있는 古多津(고다진)⁷⁾인 것 같다. 한편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의 백강은 당의 사적에서 백강이라고 칭하는 곳과는 同名異水(동명이수)이다. 그러므로 660년 소정방의 백제도성 함락 시에 나타나는 백강은 현재의 부여 관내를 지나는 백마강이며, 663년

4) 津田左右吉, 「百濟戰役地理考」, 『朝鮮歴史地理』 第一卷, 1913, pp.169~175.

5) 小田省吾, 『朝鮮史大系 上世史』, 朝鮮史學會, 昭和 4年, 1929, pp.194~195.

6) 池內宏, 「百濟滅亡後の動亂及び唐·羅·日三國の關係」, 『滿鮮地理研究報告』 14, 1934, pp.140~146.

7) 고다진은 고려 때까지 명칭이며 조선시대에는 고다지원이라 하였는데 변하여 반조원이 되었다. 반조원은 지형이 굽(串)으로 되어 있어 원래는 굽지 또는 고다지라 하였음. (『한국지명총람』, 한글학회, 1974.

주류성 함락시의 백강(백촌강)은 만경강이나 동진강 외에 비교적 해수가 깊은 변산반도 남쪽 줄포·내포가 타당하므로 2개의 백강이 있다.”⁸⁾고 주장하고 있다.

輕部慈恩(경부자은)은 “당군이 일부러 금강으로 들어가는 것을 피하고 배를 전진시켜 80km를 남쪽으로 가서 백제군과 싸웠다는 것은 부자연한 일이다. 웅진강은 공주로부터 부여까지를 말하고, 백강은 부여에서 바다로 들어가는 곳까지의 사이를 부르던 이름이다. 따라서 백강은 현재 금강의 고칭으로 한산, 서천, 군산지방이며 백촌강과 같은 것”⁹⁾이라고 하였다.

한편 한국 학자들의 백강에 대한 의견으로 먼저 노도양은 “백강, 기벌포, 백강구를 지금의 금강하류로 보는데 동의하지만, 663년 『일본서기』의 백촌강을 백강과 이름이 비슷하다고 하여 동일시함은 잘못이다. 백촌강은 동진강이나 만경강이 아닌 부안서쪽을 흐르는 두포천을 말한다.”¹⁰⁾고 하였다.

김재봉은 “백제라는 국호는 직산·안성지방의 고 지명이므로 안성천이 백제강 또는 백강으로 불렸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백강, 백촌, 백촌강을 아산만에 주입하는 안성천과 안성천하구의 백석포에 비정한다.”¹¹⁾고 하고 있다.

전영래는 “기벌포는 지화포라고 하였는데 부안의 옛 이름이 界火

8) 今西龍, 「白江考」, 『百濟史研究』, 1934, pp.375~378.

9) 輕部慈恩, 「百濟都城及び百濟末期の戰跡に關する歴史地理研究檢討」, 『百濟遺跡の研究』, 吉川弘文館, 1971.

10) 노도양, 「百濟周留城考」, 『明知大論文集』12, 1979·1980, pp.23~29.

11) 김재봉, 『전의 주류성 고증』, 연기군, 1980, pp.34~35.

(계화)·戒發(계발)이며 지금도 계화도란 이름이 남아있고 갯벌이 길게 형성된다. 정방이 東岸(동안)으로 상륙하려면 강이 남에서 북으로 흘러야 하는데 그러한 강은 동진강밖에 없다. 또한 정방의 13만 대군을 만재한 1,900여 척의 대 선단이 덕물도에서 보급을 받았다는 치더라도 柴糧(시량)이 충분치 못했을 것이고, 여름철에 식수·채소류 등을 20여 일간이나 저장 비축이 불가능하며, 하선 즉시 전투가 어려워 상륙 후 충분한 휴식과 육상에서의 정비가 필요하였고, 적당 65명씩 타는 소범선 1,900여 척이 해상의 태풍을 피할 수 있는 곳으로 기벌포와 백강구, 즉 계화도와 동진강을 택했을 것이다.”¹²⁾라고 하였다.

이종학은 “소정방은 덕물도로부터 직통으로 웅진강구 좌측에 상륙한 것이 아니라 백강(기벌포)에 상륙하였다. 그것은 당군이 백강을 지나고 신라군이 탄현을 통과 했다는 보고를 받아 계백을 먼저 탄현에 파견한 것은 백강이 더 멀고 위험이 적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계백이 패하고 나서 군대를 모아 웅진강구에 포진시켰다. 따라서 당군의 교두보는 백강이며 웅진강과는 별개의 강이다. 소정방은 작전기지 또는 교두보의 관점에서 동진강, 즉 백강에 상륙하여 병사들의 휴식과 전투준비를 갖추고 난 후, 백제신라군이 치열한 전투를 치른 뒤 천천히 웅진강에 도착한 것이다.”¹³⁾라고 하였다.

도수희는 “백강은 泗泚(사비)의 별칭이었으며 백촌강과 백마강은 백강에서 파생한 보다 후대의 이칭일 것이다. 그러므로 백강이란 지명을 고정시킬 수는 없고 부여 사비를 방사원점으로 하여 보다

12) 전영래, 「三國統一戰爭과 百濟復興運動研究」, 『군사』4, 1982, pp.25~27.

_____, 『白村江에서 大野城까지』, 신아출판사, 1996, pp.30~31

13) 이종학, 「주류성·백강의 위치 비정에 관하여-군사학적 연구방법 고찰」, 『군사』 52, 2004. 『한국 군사사 연구』, 충남대학교 출판부, 2010, pp.247~252.

하류의 곳곳에 백강이 분포하는 것이다. 또다른 가설로는 熊=白(〈伯〉(大),長)으로 등식화 할 수 있다. 따라서 熊津〉白(伯)江錦江(錦水)으로, 熊津〉伎伐浦白(伯)江長岩岐浦~長浦로 보아 그 방사원점을 공주 웅진에 두어 있어 금강, 白(伯)江=白村江 등이 파생하므로 곳곳에 백강이 분포한 것이다.”¹⁴⁾고 하였다.

심정보는 “웅진강구 및 백강지구는 다 같이 현재의 금강하구에 해당한다. 장항읍 장암동, 손량 등은 『삼국유사』의 ‘長岩又孫梁一作只火浦又白江(장암우손량일작지화포우백강)’과 같으며, 지화포와 기벌포는 同音異寫(동음이사)이다. 그러므로 백강은 금강하구이며 기벌포는 장항이다.”¹⁵⁾고 하였다.

박성홍은 “기벌포는 임천에서 한산사이의 금강을 말하며 백마강의 범주에 속한다. 이 강은 『삼국사기』에 백강으로 나오는데, 이 백강과 달리 백촌강 전투가 벌어진 백강은 아산만과 삼교천이 합류하는 지점인 당진군 석문면과 고대면 일대가 백촌강=백강구이다. 또한 이 지방에 백사, 백석촌, 장암, 지벌포, 손량이라는 포구의 지명도 실존한다.”¹⁶⁾고 하였다.

서정석은 “『周書』 이래로 사비시대의 도읍지를 웅진으로 혼동하여 왕성이름을 따서 백강을 웅진강이라고 했다. 이에 중국에서 금강을 웅진강으로 부른 것과 달리, 부흥운동기간 왕성이었던 부안

14) 도수희, 「白·雄·泗沘·伎伐」에 대하여, 『百濟研究』14, 1983, pp.31~32.

15) 심정보, 「白江의 位置에 대하여」, 『韓國上古史學報』2, 韓國上古史學會, 1989.

_____, 「白江에 대한 研究現況과 問題點」, 『百濟文化』32, 公州大學百濟文化研究所, 2003. p.182.

16) 박성홍, 『흥주 주류성고』, 흥주문화원, 1989.

_____, 「내포지방의 고대사와 흥주 주류성과 당진 백촌강 연구」, 조양인쇄사, 2004.

주류성 옆의 동진강을 백제 사람들이 부르듯이 백강으로 기록할 수밖에 없었다.”¹⁷⁾고 하였다.

이도학은 “당나라 때 쓰인 『한원』에 웅진하의 근원은 나라 동쪽 경계에서 나오는데, 서남쪽으로 흘러 서울[國] 북쪽으로 100리를 지나며, 또 서쪽으로 흘러 바다에 들어간다고 하였듯이 웅진하는 금강의 통칭이다. 또 『삼국사기』에 당과 신라군대가 백강과 탄현을 지났다는 소식을 듣고 계백이 황산에 나갔으나 패전한 직후에 웅진구에서 당나라군대와 싸웠다. 두 기록을 비교해 보면 기벌포와 웅진구는 동일한 장소이지만 백강과는 무관한 것이라고 하여 기벌포와 웅진구는 금강하구이지만 백강은 동진강이다.”¹⁸⁾라고 하였다.

김영관은 “백강은 장암, 손량, 지화포 등으로 불렸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서천포영을 고려시대에 장암진성이었다고 하였으니 금강 하구의 서천지역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지화포 역시 기벌포의 한자식 표기임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소정방은 방어시설이 취약하고 상륙 후 진군하기가 편하며 신라군과 합군하기가 수월한 군산방면으로 상륙하였다.”¹⁹⁾고 하였다.

엄정용은 “백마강의 往津(왕진)으로부터 고다진(현 반조원)까지 흰모래가 많은 백사가 펼쳐져 있고, 부여 쪽에서 보이는 석성면의 파진산은 희여치라 하여 흰바위를 뜻하므로 백강으로 불렸을 것이다. 따라서 백강은 부여 근방 천정대로부터 반조원까지다. 또한 「백제본기」의 ‘이미 백강과 탄현을 지났다는 소식을 듣고 계백

17) 서정석, 「백제5방성의 위치에 대한 시고」, 『호서고고학』3, 2000.

18) 이도학, 『한국 고대사, 그 의문과 진실』, 김영사, 2001, pp.208~211.

19) 김영관 「나당연합군의 백제 공격로와 금강」, 『백제와 금강』, 서경문화사, 2007, pp.243~248.

장군을 보내’²⁰⁾를 ‘곧(已) 지날 것’으로 해석하여 부여근처의 반조원을 기벌포로 비정한다.”²¹⁾고 하였다.

나. 기존연구에 대한 검토

기존 연구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웅진강과 백강은 동일한 강으로서 백강을 금강하구로 보며 기벌포는 서천포, 장항, 군산 등으로 보는 견해이다. 두 번째는 웅진강과 백강이 서로 다른 별개의 강으로서 백강은 동진강이고 기벌포는 동진강 하구의 계화도라고 보는 견해이다. 세 번째는 660년 사비도성 함락시의 백강과 663년 주류성 함락시의 백강이 서로 다른 강으로서, 전자의 백강은 웅진강 하구이고 후자의 백강은 동진강, 만경강, 줄포, 내포, 두포천, 아산만 입구, 안성천 하구 등으로 보며 기벌포는 금강하류인 장항 등으로 보는 견해이다. 네 번째는 웅진 앞을 흐르는 강을 웅진강으로, 부여 앞을 흐르는 강을 백강으로 보는 견해로서 기벌포는 석성천과 금강이 만나는 고다진으로 보는 견해이다. 다섯 번째는 백촌강과 백마강은 후대의 명칭으로 백강을 어느 한 곳에 고정시킬 수 없고 곳곳에 백강이 분포한다는 의견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런데 백강과 기벌포에 대한 기존연구의 시발은 소정방의 백제 침공로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거의 대부분 연구가 663년 백제 부흥군을 지원하는 왜군과 당군이 싸웠던 백강을 규명하는 데서 출발하고 있다. 방법론적으로도 역사지리학적, 음운학적 방법 등 다양한 접근방식을 시도하고 있지만 오로지 문헌에 의한 연구뿐이었다. 더욱 아쉬운 것은 소정방의 상륙전투에 대한 戰域圖(전역

20) 又聞唐羅兵已白江·炭峴 遣將軍堵伯 (『三國史記』「百濟本紀」義慈王 20年)

21) 엄정용, 『백강-기벌포·탄현·주류성의 위치비정-』, 바다기획, 2011, pp.76~87.

도)를 제시한 연구가 지금까지 없었다는 것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기벌포 위치비정에 한하여 기존의 연구를 구분해 보면, 금강하구인 서천포 및 장항일대, 군산일대, 동진강의 계화도, 부여 근처의 고다진 등으로 구분되고 있다. 기벌포가 소정방이 실제 상륙한 지점인가 하는 문제는 검토가 되어야 하지만, 제기된 지역들에 대해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먼저 기벌포가 서천포 및 장항일대라는 견해에 대한 검토이다. 이 견해는 진전좌우길, 지내평, 경부자은, 이병도, 노도양, 심정보, 홍사준, 이도학, 서정석 등이 주장하고 있다. 이 설은 중국 측 사료의 웅진강구나 웅진구 는 현재 금강의 입구이며, 소정방이 좌안으로 올랐다는 데에²²⁾ 근거를 두고 있고, 『삼국유사』에 기록된 長岩(장암)이 현재 장항을 長岩洞(장암동)이라는 근거 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소정방이 7월 10일 신라군과 백제도성 남쪽 신라군과 만나기로²³⁾ 하고 7월 9일 웅진강구에 상륙하여 백제군과 전투를 하고 곧장 사비도성으로 진격하고 있다²⁴⁾는 기록 내용으로 볼 때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 서천이나 장항에서 부여까지는 직선거리로 34km이고 거리 왜곡률²⁵⁾을 고려하면 50km나 되기 때문이다. 고대군대의 일일 행군거리로는 도저히 갈 수 없는 거리이며 최소한 4일이 소요²⁶⁾되었을 것이다. 더군다나 부여 사비도성 남쪽에서

22) 定方出左涯昇山而陣與之戰 (『三國史記』, 「百濟本紀」義慈王 20年)

23) 定方謂法敏曰吾欲以七月十日至百濟南與大王兵會(『三國史記』, 「新羅本紀」太宗武烈王 7年)

24) 至熊津江口...定方升東岸...定方於岸上擁陣 水陸並進 飛檣 鼓譟 直趣眞都 (『舊唐書』 卷83 列傳 第33 蘇定方)

25) 도상에서 직선거리에 거리 왜곡률 1.472를 곱하면 도보로 갈 수 있는 실제거리가 나온다.(<http://blog.daum.net/cdh571/3245>)

26) 고대 군대의 하루 행군거리는 一舍라 하여 30리로 본다.(이병도역주, 『國譯三國史記』, 을유문화사, 1977. p.425)

중국고대 도량형 1리는 423.9m임(주 25)참조), ∴ 50km ÷ (1리거리 0.4239 × 30리) = 3.9일

신라군과 만나려면 큰 장애물인 웅진강을 도하하여야 하므로 도저히 하루 만에 갈수 있는 거리가 아니다.

다음은 기벌포를 동진강 하구나 계화도로 보는 견해이다. 이 견해는 소전성오, 전영래, 이종학 등이 주장하고 있다. 이 설은 소정방이 동안으로 올라 백제군과 싸웠다²⁷⁾는 기록에 부합되는 강은 남북으로 흘러야 하는데 그러한 강은 동진강밖에 없으며, 계화도가 음성상 지벌포와 유사하고 계화도에 진흙벌이 형성되어 있다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이종학은 작전기지 또는 교두보 관점에서 타당하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소정방이 상륙한 동안은 중국 측에서 보면 백제영역 전체를 동안으로 볼 수도 있으며, 기록에 나오는 갯벌은 웅진강 내륙 곳곳에 형성되어 있다. 당시에 당은 백제 침공 시 작전보안을 위해, 왜의 사신도 억류하는 등²⁸⁾의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굳이 대 선단이 기도를 노출시키며 금강입구를 지나 30여km까지 남진 했다가 다시 웅진강으로 들어왔다고 볼 수가 없다. 또한 7월 10일 사비도성 남쪽에서 신라군과 만나기로 한 당군이 충분한 휴식이나 재보급을 받기 위해서 7월 9일 동진강이나 계화도에 상륙했다는 것은 일정상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 논리이다. 한편 작전기지는 각종 작전이 계획되고 지원되는 지역이나 지원시설이 있는 곳이며, 교두보는 도하작전 시 주력부대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고 적절히 방어할 수 있으며 계속되는 공격의 발판을 제공하는 적측에 있는 지역이다.²⁹⁾ 그런데 충분한 휴식과 전투준비를 했다는 것을 작전기지 또는 교두보 개념으로 보는 것은 그 개념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휴식을 취한 후 천천히 웅진강에 진입했다고 하는 것은 7월 9일 당일 백제군과 전투를 치르고 있는

27) 주 24) 참조

28) 伊吉連博德書云 庚申年八月 百濟已平之後 九月十二日 旅客本國十九日 發自西京 十月十六日 還到東京 (『日本書紀』 卷26, 齊明天皇 6년)

29) 『함동·연합작전 군사용어사전』, 합동참모본부, 2010, p.43/74.

사료의 내용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7월 10일이면 신라군과 만나야 하는데 하루전날 동진강일대에서 상륙하여 전투했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본다.

세 번째는 군산설에 비정하는 견해이다. 군산설은 김영관 등이 주장하고 있다. 군산에 상륙할 경우 부여까지의 거리가 장항보다도 먼 65km나 되는데 하루 만에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니다. 중간에 논산천이나 석성천 등 하천이 육군에게는 장애물이 되며 곧장 도성으로 갔다는 사료내용에도 부적합하다.

네 번째는 기벌포를 고다진에 비정하는 견해이다. 고다진은 금강과 석성천이 만나는 지점으로 금서룡, 엄정용 등이 주장하고 있다. 이 견해는 앞서 제기한 안정복의 『동사강목』과 『삼국유사』의 기록에 근거하여 부여 가까이에서 찾으려는 것이다. 소정방이 상륙 후 전투를 하고 백제도성 남쪽으로 진격하는 일정과 병력운용 측면을 고려하면 타당성이 가장 높은 곳이라 판단이 된다. 하지만 소정방 군대가 상륙한 지점이 기벌포가 맞는지 검토가 되어야 한다.

3. 군사학적 고찰과 문헌검토

가. 백제의 방어전략과 기벌포

660년 백제가 치른 나당연합군과의 전투는 7월 9일 신라군과 황산벌 전투, 당나라 군대와 의 웅진강구 전투, 7월 12일 나당연합군의 사비도성 포위공격에 따른 왕성방어전투가 전부로 전해진다. 그리고 7월 13일 의자왕의 아들 용이 사비도성에서 항복하고 7월 18일에는 웅진성으로 피신했던 의자왕이 태자와 함께 사비도성으로 와서 항복하고 있다.³⁰⁾ 이를 보면 백제는 세 번의 전투에서

항산벌 전투를 제외하고 전투다운 전투를 하지 못하고 맥없이 패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백제가 나당연합군의 침략에 대응하여 어떻게 싸우겠다는 전략이나 싸울 의지조차도 없이 맥없이 주저앉은 것은 결코 아닐 것이다. 이에 백제의 방어전략을 살펴보고 당나라 군대를 막기 위한 백강 즉 기벌포의 위치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다. 다음은 백제가 어디서 어떻게 싸울 것인가에 대해 토의하고 대응하는 내용을 전하는 사료이다.

A-① 성충(成忠)이 임종상서에 말하기를 “무릇 군사를 쓸 때는 반드시 그 위치를 살펴 택해야 할 것인데, 상류에 자리 잡고 적을 끌어들인 뒤에야 가히 보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다른 나라 군사가 오면 육로로는 침현을 넘지 못하게 하고 수군은 기벌포 언덕에 오르지 못하게 하며 험난하고 좁은 길에 의거하여 적을 막아야 보전 할 수 있습니다.”³¹⁾

② 좌평 의직(佐平義直)이 말하였다. “당나라 군사는...물에 익숙지 못하므로 처음 육지에 내려서 기운이 안정치 못할 때 급히 치면..신라는 당나라 군사가 불리한 것을 보면...그러므로 당나라 군사와 먼저 승부를 결정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③ 달솔 상영(達率常永)이 말하였다. “그렇지 않습니다. 당나라 군사는 예봉을 감당하지 못할 것입니다...당나라 군대의 길을 막아 피로해지기를 기다리면서 먼저 신라를 쳐서 기세를 꺾은 후 형편을 보아 세력을 합하여 싸우면 나라를 보전 할 것입니다.”

④ 흥수(興首)가 말하였다. “당나라 군사는 수가 많고 군대 기율도 엄하고 분명합니다...백강(혹은 기벌포)과 탄현(혹은 침현은 우리나라 요충지여서 한명의 군사와 한 자루의 창으로 막아도 1만 명이 당해낼 수 없을 것입니다...당나라 군사는 백강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신라군사는 탄현을 넘지 못하게 하며, 대왕은 성을 여러 겹으로 막아 굳게 지키면서 적의 군량이 다 떨어지고 병사들이 피로해지기를 기다린 다음 힘을 합해 치면 반드시 깨뜨릴 것입니다.”

⑤ 대신들이 말하였다. “흥수는 오랫동안 잡혀 갇힌 몸으로...그의 말을

30) 『三國史記』, 「新羅本紀」太宗武烈王 7年.

31) 『三國史記』, 「百濟本紀」義慈王 16年.

쓸 수가 없습니다. 당군은 백강으로 들어오게 하여 물 흐름에 따라 배를 나란히 할 수 없게 하고, 신라군은 탄현으로 올라오게 하되 좁은 길을 따라 말을 나란히 할 수 없게 하는 것만 같지 못합니다. 이때 군사를 풀어 공격하면 마치 조롱속의 닭을 죽이고 그물에 걸린 물고기를 잡는 것과 같습니다.”

⑥ 왕이 그럴 듯하다 여겼다. 또 이미 당나라와 신라가 백강과 탄현을 지났다(혹은 곧 지날 것이라는) 말을 듣고 계백장군을 보내 결사대 5천 명을 거느리고 황산에 나아가 신라군사와 싸우게 하였다. 계백은 네 번 싸워 이겼으나...패하였다. 이에 군사를 모아 웅진강 입구를 막고 강변에 군사를 지키게 하였다. 정방이 왼편 물가로 나와 산에 올라가서 진을 치자 그들과 더불어 싸웠으나 우리 군사가 패하였다. 당나라 군사를 실은 배들은 밀물을 타고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아가며 북을 치고 떠들어 댔다. 정방이 보병과 기병을 거느리고 곧장 도성으로 나아가 30리(一舍)쯤 되는 곳에 머물렀다.³²⁾

사료 A-①~⑤는 백제의 방어전략 내지는 계획이며 사료 A-⑥은 실제 대응한 결과이다. 먼저 어디서 싸울 것인가에 대한 백제의 계획을 살펴보자. 사료 A-①은 656년 옥에 갇혀 죽어가면서 성충이 의자왕에게 올린 임종상서이다. 전쟁이 난다면 옥로로는 침현을 넘지 못하게 하고 수군은 기벌포 언덕에 오르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강의 상류에 위치하여 적을 끌어들이 싸워야 할 것을 전하고 있다. 사료 A-④는 고마미지현에 유배된 홍수의 답변으로 명칭만 탄현과 백강으로 달리 했을 뿐 성충과 같이 요충지에서 방어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사료 A-⑤는 홍수의 말은 믿을 수 없다며 백강과 탄현에 들어오게 한 뒤에 결전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다음 사료 A-②, ③은 어떻게 싸울 것인가를 토의하고 있다. 즉, 주 전투력을 당군과 신라군 중 어느 쪽에 먼저 집중 투입하여 전투할 것인지를 토의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성충과 홍수가 말한 침현과 기벌포 중 어느 곳에서 먼저 결전을 해야 하는지를 논의하고

32) 『三國史記』, 「百濟本紀」義慈王 20年.

있는 것이다. 결국 탄현(침현)과 기벌포(백강) 2개소를 결정적 장소로 보는 데는 백제의 모든 군신들이 이의가 없는 듯하다. 단지 탄현과 백강에 들어오게 하여 결전하느냐 아니면 들어오기 전에 결전하느냐의 차이와 주력을 어느 곳에 집중하여 방어하느냐의 차이였던 것이다.

이와 같이 토의된 내용을 보면 백제의 방어전략 내지는 방어계획을 다음과 같이 유추해 볼 수 있다. ‘방어목표는 왕성, 즉 도성이다. 도성을 보전하기 위하여 당군과 신라군을 각개격파 한다. 각개격파를 위한 최적의 장소는 탄현과 백강이다. 탄현과 백강은 나라의 요충지여서 가히 적을 막을 수 있다. 요충지에서 적을 지연시키면서 지치기를 기다린 다음 때를 보아 공격하여 나라를 방어한다’는 계획을 수립하였던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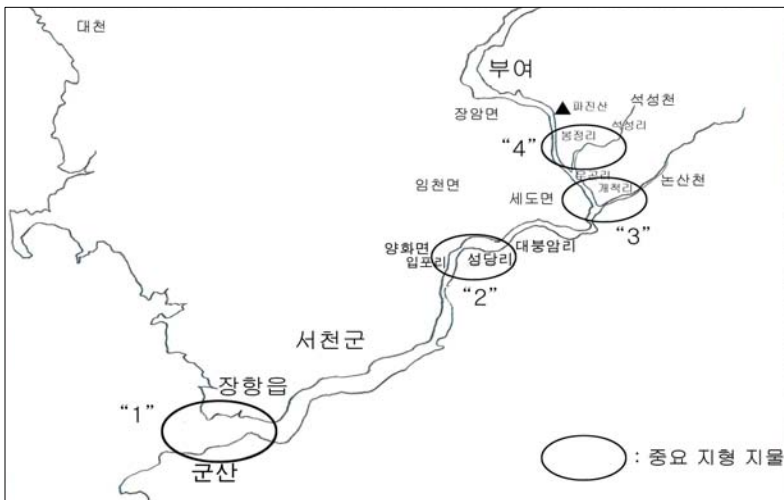
이러한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요충지로 선정된 탄현과 백강(기벌포)은 오늘날 중요지형지물로 볼 수 있다. 중요지형지물은 피아공히 확보 또는 통제함으로써 현저한 이점을 제공받는 국지 또는 지역이다.³³⁾ 중요지형지물을 선정하는 이유는 방어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지형을 선별하기 위함이며, 선정된 지형에 병력을 배치하여 효과적인 방어를 하기 위해서다. 백제는 신라군과 당군이 동시에 침략해 오는 상황에서 도성을 방어하기 위하여 탄현과 백강(기벌포)에 병력을 배치하기로 하였다. 탄현과 백강이 선정되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쳤을까? 오늘날 지형분석을 통한 계획수립의 방법으로 당나라 수군을 방어하기 위한 백강(기벌포)가 선정되는 과정을 판단해보고자 한다.

백제의 입장에서 수로를 통한 수군의 공격으로부터 도성을 방어하기 위해 중요지형지물로 고려할 수 있는 지역은 장항과 군산일대, 부여 양화면 입포리 일대, 금강과 논산천이 만나는 부여군 성동면

33) 김광석 편저, 『용병술어 연구』, 병학사, 1993. p.583.

일대(강경을 대안), 석성면 186고지의 파진산 일대 등으로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들은 강의 입구이거나 또는 강폭이 좁거나 방어하기에 유리한 지형 등으로 고려된 것이다. 이들을 비교분석하기 위하여 요도에 위치를 명기하여 검토해보고자 한다.

〈요도 1〉 중요지형지물 선정



위 요도에 명시된 중요지형지물에 대하여 방자 입장에서 분석(war game)을 통하여 최적의 장소를 선정해보자. 주요 분석내용은 고려된 지역에서 효율적인 방어를 위한 관측과 사계, 진지 편성 용이성, 점령시간, 저지 격멸 가능성, 적 지연효과, 당군과 신라군의 합군 저지도 등이다.

우선 지형 “1”인 장항과 군산일대는 침략해 오는 당나라 군대를 원거리에서 조기에 발견하여 격멸할 수 있고, 격멸에 실패하더라도 도성방어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는 매우 유리한 지형이다. 그러나 적보다 월등하거나 대등한 수군 없이는 침략군을 격멸하거나 저지하기에는 불가능한 장소이다. 왜냐하면 장항과 군산과의

양안 거리 즉 강폭이 5km가 넘기³⁴⁾ 때문이다. 당시의 무기체계를 고려할 때 수군 없이 양안에 배치된 군대로는 당군을 저지할 수가 없는 곳이다. 화살의 비거리는 겨우 145미터³⁵⁾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다. 좀 멀리 나간다는 노는 사거리가 220m여서³⁶⁾ 노를 사용하더라도 소강하는 당군을 저지할 수 없다. 따라서 지형 “1”은 왕도로부터 원거리에 있어 지연효과 가능성이나 양군의 합군을 저지하기에는 용이하나, 도성으로부터 원거리로 진지를 점령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며, 바닷가로서 갯벌이 넓고 길어 진지를 편성하기에도 매우 부적합할 것이다. 또한 금강의 폭과 당시 무기체계를 고려 시 저지격멸 가능성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지형이다.

지형 “2”는 양화면 입포리 일대는 강폭이 갑자기 좁아지고 직각으로 꺾이는 곳으로 물살이 빨라지므로 당나라 군대를 수상에서 저지하기에 비교적 용이한 지역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입포리 일대에는 병력을 배치할 수 있지만 건너편 대붕암리 쪽에는 갯벌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성당리 방면 강가로 병력을 배치할 경우 협조된 공격이 어려울 것이므로 진지편성이 불리하다. 또한 중앙군대를 입포리에 배치하려면 사비도성에서 도강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어 진지점령 시간 면에서 불리한 지점이다.

지형 “3”은 금강과 논산천이 만나는 부여군 성동면 우곶리 및 개척리 야산 일대와 대안의 세도면 장산리 야산은 당나라 군대를 양안에서 협격으로 저지하기에 용이한 장소이다. 그러나 이 지역으로 당군이 상륙한다면 곧바로 육상으로 사비도성으로 진격할 수 있는 지역으로 지연효과 가능성은 떨어지나, 당군이 지천인 논산천 쪽으로

34) 1918년 조선총독부에서 발행된 1:5만 지도에서 보면 양안 거리가 4km이며 군산지역은 섬들로 구성되어 있다.

35) 정진명, 『한국의 활쏘기』, 학민사, 2003, p.31.

36) 삼국시대의 노는 사거리가 220m였다.(임용환, 『전쟁과 역사』, 삼국편, 해안, 2002. p.60)

우회하여 성동면이나 광석면 쪽에서 신라군과 만나는 것을 저지할 수 있는 지형이기도 하다. 진지점령 시간은 왕도로부터 약 14키로 이격되어 있어 급박한 상황에서 병력을 배치하기에 용이할 수 있고 갯벌이 짧고 산이 형성되어 있어 진지편성에도 용이하다. 따라서 사비도성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확보되고 지켜져야 하는 곳이다.

지형 “4”는 석성면 파진산 일대로 인근에서는 비교적 높은 186미터의 산악이며, 사비도성으로 이르는 주요 도로를 통제는 물론 감제 관측할 수 있고 또 산 아래는 강폭이 좁아 방어에 유리한 지형이다. 왕도와의 거리도 10킬로서 짧은 시간에 진지를 점령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산악이 있어 저지격멸 가능성도 양호한 곳이다. 하지만 파진산 앞쪽의 하봉정리와 석성리 일대는 포구 형태로 되어 있어 진지편성 시 유휴 병력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왕도와 거리가 너무 가까워 지연효과가 현저히 떨어지며 탄현으로 접근하고 있는 신라군과의 합군 저지에도 매우 불리한 지역이다. 이 지역을 당군에게 내어 준다면 사비도성이 바로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 이를 표로 만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표 1〉 중요지형지물 선정 분석표

구 분	관측과 사계	진지편성 용이성	진지점령 시간	저지격멸 가능성	지연효과 가능성	당·라합군 저지도	순위
지형 “1”	—	×	×	×	○	○	4
지형 “2”	—	×	×	△	△	○	3
지형 “3”	—	○	△	○	×	△	1
지형 “4”	—	△	○	○	×	×	2

이상에서 볼 때 고려된 지형 “3”이 도성방어를 위해 가장 중요한 중요지형지물로 선정될 수 있다. 즉, 금강과 논산천이 만나는 부여군 성동면 우곤리와 개척리 야산 일대에 주병력을 배치하여 당군을 저지 또는 격멸하며, 논산천으로 우회하여 신라군과의 합군을 저지

또는 자연시켜야 한다. 따라서 본고는 백제가 지키고자 했던 기벌포의 위치를 성동면 우근리와 개척리라고 본다.

다음은 선정된 지역이 과연 타당한지를 사료의 기록내용을 통해 검증해 보고자 한다. 사료 A-①에서 성충은 강의 상류에 위치하여 적을 끌어 들인 연후에 라고 하였다. 상류에 해당되는 지역은 지형 “3”과 “4”이다. 사료 A-④에서 홍수는 백강이 나라의 요로로서 장부 한사람의 단창으로도 만 명을 당해 낼 수 있다며 당병이 백강에 들어서지 못하도록 이야기하고 있다. 여기서 백강의 요로라 함은 강폭이 좁아지는 지역일 것이므로 장항이나 군산지역은 될 수가 없다. 강의 폭이 좁아지는 지역은 지형 “2”, “3”, “4”가 해당이 된다.

그러면 백강은 과연 어느 곳인지가 규명 되어야 한다. 『삼국사기』의 백강에 대한 최초의 기록은, 웅진에 도읍하고 있던 501년에 백가가 동성왕을 죽이고 502년 가림성에 근거하여 반란을 일으키자 무령왕이 백가의 목을 베어 백강에 던졌다는 기록이다.³⁷⁾ 이 기록에 의하면 백강은 가림성 근처이어야 하므로 현재 부여군 세도면과 임천면 일대일 것이다. 가림성은 현재 임천의 성흥산성³⁸⁾이기 때문이다. 또한 소정방이 백제를 칠 때 갑자기 비바람이 닥치자 백마를 미끼로 하여 용을 낚았다 하여 조룡대라 하고, 강을 백마강이라고 하였다³⁹⁾는 전설기록도 백강이 부여지방임을 나타내고 있다. 전설에서 유래한 백마강은 부여지방, 정확하게는 천정대로부터 반조원까지 흐르는 강에 대해 500여 년간 불러 지던 명칭이었다.⁴⁰⁾

사료 A-⑤에서는 대신들이 홍수의 ‘당군이 백강에 들어오지

37) 『三國史記』, 「百濟本紀」東城王 23年/武寧王 元年.

38) 『新增東國輿地勝覽』 卷17 林川郡 建置沿革條.

39) 『世宗實錄 地理志』 忠淸道 公州牧 扶餘縣條.

40) 엄정용, 앞의 책, p.76.

못하게 하라’는 것은 믿을 수 없다며, 오히려 백강에 들어오게 하여 물 흐름에 따라 배들이 서로 돌리지 못하도록 하게 한 후 공격하여야 한다고 한 기록에서 강폭이 좁은 곳임을 추정할 수 있다. 즉, 지형 “2”, “3”, “4”가 해당 될 수 있다.

사료 A-⑥에서는 계백이 죽은 뒤에 군사를 모아 웅진구에서 당군과 싸웠다고 하고 있다. 내용상으로 보아 시간적으로 사비도성에서 멀지 않은 곳임을 나타내고 있다. 사비도성에서 멀지않은 곳에 있는 강은 부여근처를 흐르는 강일 것이며 백마강이다. 문제는 사료 A-⑥의 ‘又聞唐羅兵已白江·炭峴’를 지금까지 많은 연구자들처럼 ‘당군이 이미(已) 백강과 탄현을 지났다’로 해석하면 설명이 곤란하다. 왜냐하면 이미 통과한 것으로 보면 부여근처에서 찾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은 앞서 제기한 엄정용의 ‘곧(已) 지날 것’이 타당한 해석⁴¹⁾이라고 판단한다. 이상과 같이 사료 A-①~⑥을 모두 충족하는 장소는 지형 “3”이나 지형 “4”이다.

그런데 앞서 중요지형지물 선정 분석표와 대비시켜 보면 지형 “3”이 공통분모가 되며 기벌포라고 여겨진다. 즉, 백제인이 전하였을 『삼국사기』 「백제본기」를 기본으로 하고, 장소의 본질에 맞는 방자 입장에서의 군사학적인 지형분석 결과 기벌포를 성동면 개척리와 우곤리 일대로 비정하고자 한다.

나. 소정방의 침공전략과 웅진구

성산을 출발한 당나라 소정방은 물길을 따라 동쪽으로 내려오고, 6월 21일 태종 무열왕이 태자 법민에게 병선 100척을 거느리고 덕물도에 가서 정방을 맞이하도록 하였다. 정방은 태자에게 ‘나는

41) 엄정용, 앞의 책, p.30.

수로로 가고 태자는 육로로 가서 7월 10일 백제 남쪽에서 신라군과 만나 도성을 치기로 한다'고 하였다. 이 후 정방은 7월 9일 웅진강구(웅진구, 기벌포)에 상륙하여 백제군을 대파하고 곧장 사비도성 남쪽 20여리가 못 미치는 지점에 도착하였다.⁴²⁾ 소정방은 백제를 침략하기 위한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실천한 것으로 보인다. 침공 일정은 기록상 명확해 보인다. 그러나 어떤 루트로 들어왔는지는 의견이 분분하다. 상륙하여 백제군과 싸웠다는 지역이 사료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상륙지점을 알아보기 위하여 소정방의 백제 침공전략을 알아보고 웅진강구(웅진구) 즉 기벌포의 위치를 비정해 보고자 한다. 다음은 소정방의 백제 침공 시 상륙전투와 기동에 관한 기록을 전하는 사료들이다.

B-① 정방이 성산으로부터...웅진강 어귀에 이르자 적이 강에 의거하여 지키고 있었다. 정방이 동쪽지역으로 상륙하여 적과 대전을 벌였다...돛을 올린 범선이 바다를 덮고 잇따라 도착하였다...조수가 밀려들자...전선이 꼬리를 물고 강으로 들어갔다. 정방이 진을 지키다가 수륙양면으로 함께 진격하여 곧장 진도로 가 20리 못 미치는 지점에 나아갔다.⁴³⁾

② 정방이 웅진구에 이르자 적이 강의 물가를 지키고 있었다. 정방이 왼쪽지역으로 상륙하여...정방이 기병과 보병을 좌우로 인솔하여 곧장 진도성으로 달려 나아갔다.

③ 백제가 웅진구를 지키고 있었다 정방이 공격하자 오랑개는 대패하였다. 천자의 군대가 조류를 타고 돛을 올려 나아가서 진도성 30리 지점에 멈추었다.⁴⁴⁾

④ 백제가 웅진의 강어귀에 의거하여 저항하였다...정방이 수로와 육로를 이용하여 한꺼번에 진격하여 곧장 백제의 도성을 향해 나아갔다....20리 채 안 되는 곳에 이르렀다.⁴⁵⁾

42) 『三國史記』, 『新羅本紀』 太宗武烈王 7年; 列傳 金庾信 傳; 『舊唐書』; 『新唐書』; 『資治通鑑』 등.

43) 『舊唐書』 卷83 列傳 第33 蘇定方.

44) 『新唐書』 卷111 列傳 第36 蘇定方/卷220 列傳 第145 東夷 百濟.

45) 『資治通鑑』 卷200 唐紀16 顯慶5年.

C-① 정방이 범민에게 말하기를 “나는 7월 10일 백제 남쪽에 이르러 대왕의 군대와 만나 의자의 도성을 파하고자 한다.... 이날 정방은 김인문 등과 함께 기벌포에 도착하여 백제군을 만나 (혹은 역으로) 공격하여 대패시켰다. 유신 등이 당나라 진영에 이르자... 약속 기일보다 늦었다고 하여 신라 독군 김문영을 군문에서 목 베려 하였다.”⁴⁶⁾

② 정방이 태자에게 말하기를 ‘나는 해로로 가고 태자 등은 육로로 가서 7월 10일 백제왕도 사비성에서 만나자’ ...정방과 김인문 등이 바다로부터 기벌포로 들어섰는데 해안이 진흙이어서 빠져서 나아갈 수가 없으므로 버드나무 자리를 깔고 군사를 진군시켜 신라군과 합세하여 백제를 멸하였다.⁴⁷⁾

③ 당나라 군사를 인도하여 웅진구에 이르니 적군이 강가에 군사를 배치하고 있었다. 싸워서 이기고 승세를 타서 도성에 들어가 멸하였다.⁴⁸⁾

사료 B-①~④는 소정방이 침공 시 백제군은 웅진강구에 상륙하여 백제군을 대파하고 조수를 타고 곧장 백제의 도성 남쪽에 도착하고 있는 것을 기록하고 있다. 내용상으로 보아 소정방은 강가를 지키는 백제군을 격파하고 당일 백제 도성남쪽에 도착하고 있다. 단지 B-②, ③에서는 웅진강구가 웅진구로 바뀌어 있다. 그런데 사료 C-①에서 이날(是日)은 계백장군이 김유신과 황산벌에서 전투를 벌인 날이다. 이날은 또한 사료 B-①~④와 같이 소정방이 상륙하여 백제군과 전투를 벌인 날이다. 이때 백제군의 선전으로 신라군은 약속기일에 늦었음을 사료 C-①에서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사료 C-②, ③에서 소정방은 해로로 이동하였고 진흙 벌을 통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역으로 종합 해석하면 다음과 같은 소정방의 공격 전략을 설명할 수 있다. “공격목표는 의자의 도성이다. 목표에 대한 공격을 위해 7월 10일 사비도성 남쪽 20리 지점⁴⁹⁾에 집결지를 선정한다.

46) 『三國史記』, 「新羅本紀」, 太宗武烈王 7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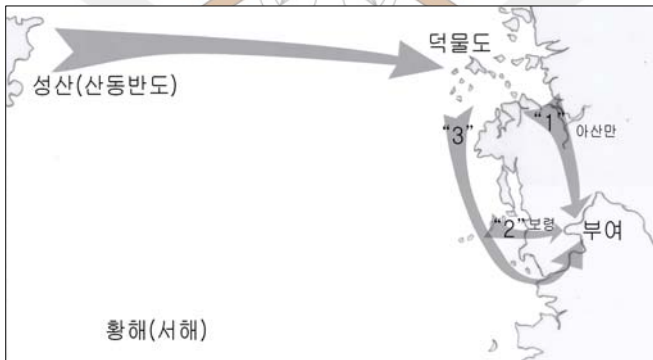
47) 『三國史記』 卷42 列傳 第2 金庾信 中.

48) 『三國史記』 卷44 列傳 第4 金仁問.

집결지에서 당나라군과 신라군이 만나 함께 공격한다. 집결지까지 기동은 전투력을 최대한 보존하기 위하여 하루 전인 7월 9일까지 해로로 이동한다. 7월 9일 상륙지점은 적의 예상 저항과 어떤 지체시간을 고려하여 최대한 가까운 곳에 선정 되어야 한다. 상륙 후에는 1일 밖에 시간이 없으므로 집결지⁵⁰⁾까지 신속하게 기동하여야 한다. 따라서 신속한 기동을 위하여 승하선 없이 수군과 육군이 나란히 병행 진격하여 집결지에 도착한다.”

이러한 전략을 수행하기 위한 접근로⁵¹⁾를 판단해 보자. 우선 덕물도에서 부여로 접근하기 위한 접근로는 먼저 최단거리 접근로로는 아산만~송악~유구읍~신평~정산~부여에 이르는 접근로 “1”을 고려할 수 있다. 두 번째는 보령시 웅천읍~주산~미산면~홍산~부여에 이르는 접근로 “2”를 고려할 수 있으며, 세 번째는 현재의 금강 수계를 따라 곧장 부여로 들어가는 접근로 “3”이 고려될 수 있다.

〈요도 2〉 예상 접근로



49) 고대 도량형표를 이용 20리 안되는 지점은 8.5킬로 이내인 지점이어야 하는데 15만여의 군사가 들어가기에 가능한 장소는 석성면 정각리 일대로 추정된다.

50) 부대가 차후 행동을 개시하기 위하여 집결하는 장소로 전투편성을 완료하고 명령을 하달하는 장소이다.(김광석 편저, 앞의 책, p.618)

51) 특정규모의 부대가 중요지형지물 또는 목표까지 이르는 진로(김광석 편저, 앞의 책 p.540.)

현대적인 개념으로 본다면 당연히 단거리 접근로인 “1”이나 “2”가 고려될 수 있다. 그러나 고대 일일 육로 행군거리가 지극히 제한된 상태에서 해로나 강수로를 제쳐놓고 접근로 “1”, “2”를 택할 리 없다. 또한 결과론적이기는 하지만 앞서 추정한 소정방의 백제 공격 전략에 따른다면 당군의 접근로는 금강을 따라 곧바로 부여로 들어가는 접근로 “3”이 될 수밖에 없다. 접근로 “3”을 택하여야 전투력을 보존하며 최대한 집결지 가까이까지 양호한 수로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접근로 “3”은 사료 C-②에서 소정방이 태자에게 말한 “吾由海路 太子等陸行(오유해로 태자등육행)”에서도 입증되고 있다.

그러면 접근로 “3”에서의 상륙지점인 웅진구는 어떻게 계산되었나왔을까? 상륙지점은 일반적으로 적의 배비가 약하고 접안이 용이하여야 하며 상륙부대를 엄호하는 엄호부대 등이 충분히 전개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상륙 후 차후 작전인 집결지까지 기동을 위해 곧바로 진격할 수 있는 종격실 능선 등이 있어야 한다. 한편 소정방의 백제공격 전략대로 적의 저항을 고려한 어떤 지체시간이 반드시 소요 될 것이므로 고대 하루 진격거리⁵²⁾보다도 훨씬 짧은 거리를 기동하도록 선정되어야 한다. 이렇게 선정될 수 있는 지역으로 금강이 석성천과 만나는 지역의 봉정리나 석성리(“a”)나 논산천과 만나는 지역의 우곤리나 개척리(“b”) 등이 고려될 수 있다. 그러나 기존 연구자들은 웅진강구라는 기록이나 기벌포의 음운학적 유사성에 집착하여 서천지역(“c”) 군산지역(“d”) 계화도지역(“e”) 등을 비정하였다.

52) 주 26)에 의거 고대 군대의 일일 행군거리는 12.7km로 계산함.

〈요도 3〉 예상 상륙지역



이들 비정된 위치를 포함하여 당군 입장에서 장단점에 의한 분석 방법⁵³⁾에 의해 검토해 보고자 한다.

〈표 2〉 상륙지점 선정 분석표

구 분	단 점	장 점	순 위
상륙 “a”	엄호부대 공간 다소 협소	집결지까지 약 8km의 양호한 기동로 형성, 장애물 없음	1
상륙 “b”	석성천을 도하 또는 우회해야 함	실패 시 논산천 방향으로 상륙하여도 집결지 도착가능	2
상륙 “c”	금강을 도하해야 하며, 부여까지 50km를 하루 만에 갈 수 없음.		—
상륙 “d”	논산천과 석성천, 산북천을 도하 해야 함. 고대 군산은 지금과 달리 여러 개 섬이었음.		—
상륙 “e”	고대선박의 기동은 노에 의존하므로 원거리 선회는 전투력보존에 불합리. 덕물도 1차 기항지 외에 2차 기항지로 계화도까지 갔다 올 필요가 없음.		—

53) 지형분석 시 시간이 충분하면 요소에 의한 비교분석을 하지만, 시간이 없거나 비교가 명확히 구분이 되면 장단점에 의한 방법을 사용하기도 한다.

이상에서 볼 때 “c” “d” “e” 지점으로 7월 9일 상륙하여서는 하선한 육군이 7월 10일에 부여 남쪽 20리 지점까지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니어서 고려대상이 될 수 없다. 상륙 “a” “b”가 집결지까지 정해진 시간에 도달하기 위한 최적의 상륙장소가 될 것이다. 그런데 “b”는 석성천을 도하하거나 우회하여야 하는 단점이 있는 반면 상륙 “a”는 상륙 후 신라군과 만나기로 한 집결지까지 기동이 용이한 장점이 있다. 따라서 소정방의 상륙지점은 정확하게는 봉정리 석성리 일대가 소정방이 상륙한 웅진강구 내지는 웅진구라고 판단한다.

다음은 판단된 지점이 타당한지 여부를 사료의 기록내용을 통해서 검증해 보고자 한다. 사료 B-①, ②의 東岸(동안)이나 左岸(좌안)의 방향에서 중국은 조선을 바다 동쪽에 있는 나라라 하여 海東(해동) 또는 海左(해좌)라고 부르며, 조선 시대에도 관념적으로 부산 동래 수영을 경상우수영으로, 여수에 있는 수영을 전라좌수영이라고 하였으므로 동쪽과 왼쪽은 표현상의 차이일 뿐⁵⁴⁾으로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 그런데 석성면 봉정리와 석성리의 지역은 중심이 약 4km 폭이 2km의 포구 형태로 되어 있다. 만조 시에는 포구 역할을 하며 간조 시에는 벌이 형성되는 지역이다⁵⁵⁾. 당군 입장에서 보면 소강하면서 상륙하기 위하여 이 지역의 오른쪽으로 방향을 선회하여 상륙하면 사료 B-①, ②와 같이 동안으로 오른 것이며, 좌안으로 오른 것이 된다.

사료 B-①~④에서 수군과 육군이 곧장 진도로 달려갔다는 기록은 중간에 어떤 장애물이 없었기 때문에 가능할 일이다. 따라서 장항이나 군산에 상륙할 경우 중간에 금강을 도하해야 하므로 사비

54) 김영관, 앞의 논문, p.244.

55) 1918년 조선 총독부 발행 1:5만 조선반도 전도에서 확인할 수 있음.

도성까지 하루 만에 갈 수도 없으며 곧장 진도로 갔다는 기록에는 부합되지 않는다. 금강이 논산천과 만나는 지점에 상륙 시에도 석성천을 도하 하여야 하는 다소의 어려움이 있다. 그러므로 곧장 진도로 달려갔다는 사료내용에 부합되는 지점은 금강이 석성천과 만나는 봉정리 석성리 일대라고 판단된다.

문제는 사료 B-①, ④에 기록된 웅진강구는 현대적 의미로 보면 웅진강이 금강이라고 볼 때 웅진강구는 당연히 금강의 해구인 서천이나 군산이 된다. 많은 연구자들이 혼돈 하는 부분도 이 부분이다. 고대에 불렸던 웅진강의 범위가 명시되어 있다면 웅진강구는 쉽게 규명될 것이다. 그러나 기록된 사료로는 웅진강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강구를 오늘날 개념으로 바다에 닿은 곳으로 보는 것은 무리이다.

고대에 웅진강구라 불렸던 사료의 다른 내용을 분석해보자. “용삭원년(661년) 3월 도침이 부성에 있는 유인원을 포위하자 인궤가 신라군을 출동시켜 함께 싸우니 도침 등이 웅진강구에 두 개의 책을 세워 관군에게 저항하였다. 인궤가 사면으로 협격하니 책안으로 들어가려다 물이 막히고 다리가 좁아 물에 빠지고 전사한 자가 1만 이었다. 이에 도침이 포위를 풀고 임존성으로 물러났다”⁵⁶⁾는 기록을 보면 양책을 세운 곳은 아마도 부여부성을 포위한 부흥군을 지휘하는 지휘부 내지는 부흥군의 근거지였을 것이다. 그러므로 웅진강구의 위치는 부여에서 가까운 곳임에 틀림이 없다. 부흥군의 포위선이나 지휘부 또는 근거지가 부여부성으로부터 50km나 이격된 서천의 장항이나 군산에 위치할리 없기 때문이다. 또한 ‘물이 막고 다리는 좁다’라고 기록된 부분에서, 고대에 4~5km가 되는 장항과 군산에 다리가 있었으리라고 생각할 수가 없다.

56) 劉仁願留鎮於百濟府城 道琛等引兵圍之...新羅兵合勢以救仁願...道琛等於熊津江口兩柵以拒官軍 仁軌與新羅兵四面夾擊之 賊衆退走入柵 阻水橋狹(『舊唐書』 卷199 列傳 第149 東夷 百濟)

웅진강의 범위를 알 수 있는 다른 기록을 보자. 고려 태조 23년(940년)에 웅주를 공주로 바꾸고 강의 명칭도 웅진강에서 공주강으로 바뀌 불렸다.⁵⁷⁾ 웅진강은 공주부근을 흐르는 금강의 백제시대 명칭으로 상류는 금강진으로 부터 웅진(곰나루)을 지나 탄천까지를 일컫는다고 한다.⁵⁸⁾ 웅진강의 범위가 탄천까지라고 볼 때 웅진강구는 서천 장항이나 군산이 아니라 당연히 부여부근에서 찾아야 한다.

한편 사료 B-②, ③에서는 웅진강구가 웅진구로 기록되고 있다. 이것은 웅진강구나 웅진구가 동일한 장소임을 말하고 있다. 그러면 『신당서』에서만 왜 웅진구로 표기 되었을까? 『구당서』를 기본으로 하였을 『신당서』의 찬자가 ‘江(강)’字(자)를 누락시켰다고 보기에는 석연치가 않다. 웅진강구가 전부 웅진구로 바뀌어 있기 때문이다. 분명 어떤 근거가 있어 웅진구로 바꾸었을 것이다. 웅진강구라고 보기 보다는 웅진구가 적합할 것으로 판단하여 바뀌 기록한 것은 아닐까? 즉, 소정방이 상륙한 곳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강구인 서천이나 군산이 아닌 곳이어서 웅진구로 바뀌 기록한 것은 아닐까? 그게 아니라면 강구의 개념이나 표현이 일반적으로 오늘날 생각하는 바다로 들어가는 위치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추측 할 수 있다.

다음은 중국 측 사료가 아닌 신라 측 사료 C-①~③의 내용과 부합여부를 검토해 보겠다. C-①에서 정방은 기벌포에 도착하여 백제군을 만나 역으로 공격(逆擊)하여 대패시켰다고 하고 있다. 물론 逆擊(역격)에서 ‘逆(역)’字(자)의 뜻에 ‘마주하다’라는 뜻도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 거의 모든 연구자들은 이 부분을 간과하였거나 마주하다 또는 맞서 싸웠다고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국 측

57) 八曰, 車峴以南, 公州江外, 山形地勢, 並趨背逆(『高麗史節要』 第1券 太祖26年(943) 訓要 第8條)

58) 엄정용, 앞의 책, p.63.

사료에서 역격이라는 표현은 쉽게 찾아 지지가 않는다. 그러면 역으로 공격했다는 ‘逆擊(역격)’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가? 이는 목표에 대한 공격방향에 거슬러 뒤에 있는 적을 공격하였다는 이야기가 된다. 이에 역격했다는 상황은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먼저 앞에서 백제조정에서 판단한 기벌포를 금강과 논산천이 만나는 지역으로 판단한 바 있다. 백제군은 우곶리와 개척리 일대에 배치되어 있었는데 정작 소정방은 이로부터 4km를 더 거슬러 올라가 봉정리 석성리 일대로 상륙한 것이다. 상륙 후 당군은 봉정리 석성리 일대로부터 개척리 우곶리 일대로 공격한 것이다. 공격 방향으로 보면 사비도성 방향이 아닌 역방향이 되며 역격이 되는 것이다. 요도로 보면 다음과 같다.

〈요도 4〉 백제군의 배치와 당군의 상륙전투



그러면 어떻게 백제군이 배치된 지역을 쉽게 통과하였을까? 사료 B-①~④에서 당군은 백제군을 격파하고 나서 조류를 타고 진격

하였으므로 전투가 끝나는 시간이나 사비도성으로의 진격을 개시한 시간은 만조가 시작되는 시간일 것이다. 따라서 상륙 및 전투시간은 아마도 간조 시간대인 오후 2시 전후한 시간이며, 집결지 도착 시간은 만조 시간인 저녁 8시경으로 추정된다.⁵⁹⁾ 간조시간에 논산천 일대에 형성되었을 벌로 인하여 백제군은 방어에 불리하였고 당군의 통과는 용이했을 것이다. 당군의 통과를 쉽게 허용한 백제군의 방어상 허점은 사료 A-⑥의 계백이 죽고 나서 병력을 모아 웅진구를 막았다는 기록에서 시간상으로도 병력배비가 불비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당군은 바로 간조시간대에 갯벌이 형성된 백제군 배치지역인 기벌포를 통과하였기에 백제군의 공격을 극복할 수 있었다. 그리고 석성천 일대에 형성된 갯벌에 버드나무 자리를 깔고 상륙했던 것이다.

한편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해안의 갯벌에 버드나무 자리를 깔고 상륙했다”는 C-②기록을 이유로 기벌포를 해안으로 비정하고 있다. 현지답사 간 만난 주민 유병학⁶⁰⁾ 씨는 옛날에는 강경포구는 물론 봉정리 일대도 갯벌이 형성되어 있었다고 전한다. 또한 논산천과 석성천이 금강과 만나는 지역 일대는 조선총독부의 1910년대 지도에는 泥濘(이녕)이 명확히 도식되어 있다. 한편 지금은 제방으로 물이 차지 않고 있지만 논산천과 금강이 만나는 강경포구 일대의 들판은 마치 바다처럼 보인다. 처음 이 지역을 지나는 사람들은 비닐하우스가 많은 이 지역을 바다로 착각하기도 한다. 따라서 제방이 없고 수량이 지금보다는 풍부했을 660년경의 환경은 바다나 다름없었을 것이다. 이러한 연유로 료 C-②의 ‘沿海入伎伐浦 海岸

59) 2015년 음력 7월 9일 장항지역 조석예보가(01:44(212m)▼, 07:14(599m)▲, 14:01(182m) ▼, 19:52(586m)▲)이므로 1300년 전인 당시에도 같을 것이다.(국립해양조사원)

60) 부여군 규암면에 거주하는 86세의 주민으로 현재도 간척지에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泥濘(연해입기벌포 해안이녕)’로 기록된 것은 아닌가 한다.

이와 같이 당군의 접근로 및 상륙지점에 대한 군사학적인 지형분석과 사료 분석내용을 비교하여 금강과 석성천이 만나는 지역 일대가 중국 측 사료에 기록된 웅진강구 내지는 웅진구라고 판단한다. 즉, 소정방은 공격자의 입장에서 신라군과 만나기로 한 집결지까지의 도착시간을 역으로 계산하고, 상륙 후의 장애물이나 이동거리를 고려하여 상륙지점을 선택하였을 것이다. 또한 이 지역 일대는 파진산에서 가까운 골짜기 있는데 겉에서 보기와는 달리 안쪽으로 갈수록 깊고 넓어 소정방이 1만 명의 군사를 숨겨 두었다는 군장동 전설이⁶¹⁾ 전해 내려오고 있다. 따라서 사료에 기록된 웅진강구 또는 웅진구를 석성면 봉정리와 석성리 일대로 비정하고자 한다.

4. 맺음말

백제는 7세기 동아시아의 한 축을 담당하는 강력한 국가였다. 그러한 백제의 도성이 나당연합군의 공격을 받고 7월 13일 함락되고 의자왕은 18일에 항복하고 말았다. 7월 11일 나당연합군이 사비도성 남쪽 20리가 못되는 정각리 일대에 집결한 후 왕성에 대하여 포위공격을 개시한지 3일만이였다.

신라와 신라가 끌어들이던 당시 중국을 통일한 동아시아의 거대한 국가 당과의 전쟁으로 백제는 허무하게 무너졌다. 그 중에 백제가 13만의 소정방 당군과 어떻게 싸웠는가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사료의 제한으로 당시 전투상황을 복원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61) 부여군 석석면 군장동에 관련된 전설로 『新增東國輿地勝覽』에 수록되어 있다. (황인덕, 「백제패망」 전설들로 본 백제사, 백제사 의식, 『백제연구』 24, 1994. pp.230~231)

이에 우선 전쟁지역을 먼저 규명하고자 한 것이다. 즉, 전투 장소는 전쟁사 연구에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이므로 기벌포의 위치와 소정방의 공격로에 대한 위치를 비정하고자 한 것이다. 그 이유는 지금까지 많은 연구에도 불구하고 소정방의 백제 침공로 즉 상륙지점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었으며, 여러 가지 설이 난무하여 혼선을 주고 있는 실정이었기 때문이다. 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연구방법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보았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종전의 방법과 다른 방법으로 접근하고자 하였다. 다른 방법이란 바로 비정하고자 하는 위치에서 행하여진 전투행위의 본질에 접근하는 방법이다. 즉, 본질에 접근하는 과정 속에서 답을 얻고자 하였다.

찾고자 하는 위치는 백제 측에서 보면 당군의 진입을 저지하고자 했던 백강의 기벌포이며, 당 측에서 보면 대군이 상륙하여 백제군을 격멸하고 백제의 도성을 공격하기 위한 교두보적인 지역으로 웅진강구 또는 웅진구이다. 행위의 본질로 구분해 보면 『삼국사기』가 전하는 기벌포는 방어하였던 곳이고, 중국 측 사료가 전하는 웅진강구 또는 웅진구는 상륙 또는 공격하였던 곳이다. 행위의 주체가 防者(방자)와 攻者(공자)로 나뉘어 있는 것이다.

방자와 공자는 서로 상충되는 목표 달성을 위해 계획을 수립한다. 방자의 계획수립에는 병력배치를 위한 중요지형지물을 어디로 할 것인가가 포함되며, 공자의 계획수립에는 접근로와 상륙지점 등을 어디로 할 것인가가 포함된다. 이러한 위치를 선정하기 위하여 공자와 방자는 여러 장소를 고려하되, 고려된 여러 지역에 대하여 War game을 통하여 최적의 장소를 선정하게 된다. 이 과정은 계획수립을 위한 지형분석 과정이다. 지형분석을 통하여 최적의 장소로 선정된 지역에 방자는 병력을 배치하고, 고려되었으나 제외된 지역에는 장애물 등 최소한의 배비를 한다. 공자는 지형분석을

통하여 선정된 접근로와 상륙지점 등에 대하여 정해진 시간까지 어김없이 도달하거나 목표를 달성해야 하는 것이 기본이다. 이러한 과정이 고대에도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양자 모두 명운을 건 싸움에서 이 정도의 사고는 오늘날과 같이 공통되게 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러한 지형분석을 통한 계획수립 과정을 통해 위치를 비정하고자 하였다. 먼저 백제의 방어 전략을 알아보고, 병력배치를 위한 중요지형지물 분석을 실시함은 물론 사료와의 부합여부를 통해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와 마찬가지로 唐(당)에 대해서도 전쟁결과를 통해 그들의 침공전략을 도출해 내고, 목표에 이르기 위한 접근로 및 상륙지점에 대한 지형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선정되거나 고려된 지역에 대하여 사료의 내용을 가지고 검증하고자 하였다.

검토결과 백제는 금강과 논산천이 만나는 개척리와 우곤리 일대의 백강(기벌포)에 병력을 배치하여 당군을 저지하고자 하였다. 반면 소정방은 금강을 주접근로로 하여 백제의 허를 찌르며 병력이 배치된 기벌포를 지나 백제군의 4km 후방인 금강과 석성천이 만나는 봉정리와 석성리 일대의 웅진강구(웅진구)에 상륙하여 백제군을 후방에서 공격한 셈이 되었다.

본문에서 다루지 못한 전쟁성패의 원인은 추후에 다루어야 하겠으나 개략적으로 본다면 다음과 같다. 백제의 입장에서는 전쟁준비를 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 병력동원을 다하지 못하였다. 또한 기벌포에 병력배치 시기를 상실한 점과, 수군의 존재여부는 알 수 없지만 수군으로 하여금 지금의 장항이나 군산 등 원거리에서 저지를 하지 못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반면 소정방은 사전 철저한 준비와 신라와의 연합 및 양공작전 그리고 대군의 성세 등을 들 수 있다.

이상과 같이 백제와 당과의 전쟁에 대한 일면을 검토하면서 전쟁사에서 중요한 전투지역에 대하여 군사학적인 측면에서 계획수립을 위한 지형분석 방법을 통하여 그 위치를 비정하고자 하였다. 결국 전투위치에 대한 위치비정은 역사지리학적 방법이나 음운학적 방법 등 어느 한 분야의 연구로는 완성될 수 없고 사료에 바탕을 둔 군사학적인 연구가 병행되어야 하며, 비정하고자 하는 위치가 갖는 본질에 접근함으로써 비로소 가능하다는 것을 제언하고 싶다.

[원고투고일: 2015.12.30, 심사수정일: 2016.2.16, 게재확정일: 2016.2.19.]

주제어 : 소정방, 防者(방자), 攻者(공자), 웅진강구(웅진구), 백강, 기벌포, 중요지형지물, 접근로, 상륙지역, 逆擊(역격).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ABSTRACT>

Military Geographical Study on Su Dingfang's Path of Attack on to Baekje in AD 660

Lee, Jae-joon

The main purpose of this paper is to research for locating the landing spots and defensive positions of Baekje while Su Dingfang of Tang Dynasty invaded into the country in AD 660. While Chinese historical sources show that Su Dingfang entered into Baekje through Ungjin Gang Gu or Ungjin Gu which means 'Ungjin River mouth', Korean historical sources such as 'Samguk Sagi', History of the Three Kingdoms, indicates it was Gibulpo or Baek River. In this case of Su Dingfang's attack on Baekje, Gibulpo or Baek River in Samguk Sagi was area where Baekje forces tried to defend. On the other hand, Ungjin Gang Gu or Ungjin Gu recorded in Chinese sources was Tang forces' landing area to attack Baekje. In this context, this paper examines each place reflected by different points of view - the defense and the offen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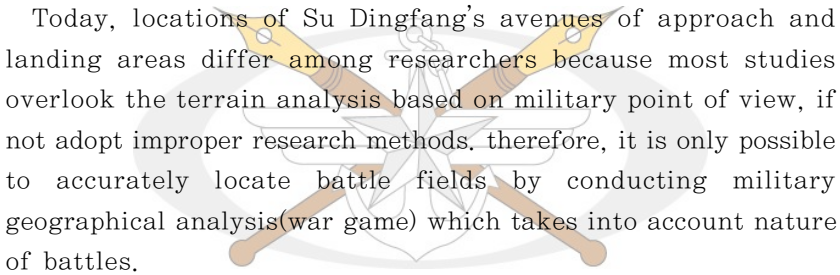
The defense carries out terrain analysis(war game) to develop strategy to defend against its enemy, which entails identifying key terrains, and deploying combat forces. Baekje must have done the same tactics in its own time. This study concludes that Baekje forces were sent out to an area around Gaechuk-ri and Ugon-ri, where Geum River and Nonsan Stream met - as stated Baek River or Gibulpo written in the historical source.

The offense also is conducted by terrain analysis(war game) to formulate attack strategy, which involves selecting avenues of approach, landing and assembly area. This study finds that Tang

forces cruised along Geum River to enter Baekje. They landed on area around Bongjeong-ri and Seoksung-ri, where Geum River and Seoksung Stream met - indicated as Ungjin Gang Gu or Ungjin Gu according to the historical source - and struck down the opponent from the back. The avenues of approach and landing area were the most efficient path to their assembly point.

To conclude, Baek River or Gibulpo in which Baekje formed a defense line, and Ungjin Gang Gu or Ungjin Gu where Su Dingfang touched down are two different locations. These areas are close to each other, but in fact, Su Dingfang passed Baekje's disposition, landed on Ungjin Gang Gu or Ungjin Gu, and launched an attack from the back.

Today, locations of Su Dingfang's avenues of approach and landing areas differ among researchers because most studies overlook the terrain analysis based on military point of view, if not adopt improper research methods. therefore, it is only possible to accurately locate battle fields by conducting military geographical analysis(war game) which takes into account nature of battles.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Key Words : Su Dingfang, the Defense, the Offense, Ungjin Gang Gu,
Baek River, Gibulpo, Key Terrains, Avenues of Approach,
Landing Area, Strike from the Back

文獻資料를 통해 본 고대·고려시대의 名將

전 호 수*

1. 머리말
2. 古代의 名將 구성과 그 특징
3. 高麗時代의 名將 구성과 그 특징
4. 맺음말

1. 머리말

인류의 역사는 보다 풍요롭고 평화로운 삶을 향한 진보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때로는 그 성과가 전쟁과 파괴의 과정에서 이루어지기도 한다는 아이러니한 진실을 포함하고 있기도 하다. 우리 역사에서만 보더라도 고대국가의 성립·발전과정에서 수많은 약탈과 정복을 통해 성장의 동력을 마련한 측면이 적지 않았고, 반면에 임진왜란에서와 같이 전쟁의 발발 가능성을 회피한 경우에는 혹독한 시련을 겪기도 했다. 그 결과 건국 시조라든가 국가 중흥의 인물들은 흔히 전쟁 영웅인 경우가 허다함도 어렵지 않게 발견할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전문관

수 있으며, 오히려 일찌기 ‘적국이나 외침이 없는 나라가 도리어 망한다’¹⁾라고 하는 역설적 진리가 갈파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

이에 따라 국가의 운영이나 회사의 경영에도 최고의 지침서로 병법서가 한 자리를 차지해온 것은 이미 오래 전부터 일이다. 또한 인생 수양의 고전 목록에서도 병법서는 앞자리에 당당히 그 이름을 올리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사회정치적 위기의식이 고조될 때면 전쟁영웅이라든가 병법서에 대한 관심은 가히 폭발적으로 증대되었다. 우리의 최근세사에서는 제국주의적 침략이 고조되던 근대 초기에 그러했고, IMF 경제위기를 경험하면서 위기극복의 리더십을 전쟁 영웅에서 찾아보려는 시도가 적지 않았다.²⁾ 승전의 名將들이 보여준 위기극복의 리더십을 통해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탐색해보고자 하는 시대의식의 소산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전쟁 영웅 내지 명장의 선정 원칙 내지 객관적 기준 등에 대한 고민은 거의 이루어진 바가 없지 않았나 생각된다. 그 결과 오히려 역사적 사실과는 동떨어진 인물 현상이나 역사 해석이 이루어지기도 하면서 학문적·대중적 인식을 호도하는 경우도 적지 않게 발견되고 있음이 사실이기도 하다.³⁾ 이에 따라 필자는 현전하는 고문헌자료, 즉 역대의 名將傳 또는 名將錄 상의 수록 인물을 비교·분석하는 역사적 방법론을 통해 조선

1) 『孟子』「告子」下, “出則 無敵國外患者 國恒亡(밖으로는 적국이나 외환이 없다면 그런 나라는 언제나 망한다).”

2) 필자도 소속 기관의 과업으로서 조선시대의 명장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개관해본 바 있다.

① 출처, 『한국 군사인물연구 -조선편 I-』, 2011,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② 출처, 『한국 군사인물연구 -조선편 II-』, 2013,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3) 이와 관련해서는 다음의 논고가 참조된다.

① 이장희, 「임란중 인물사연구의 현황과 과제」, 『한국인물사연구』 창간호, 2004, 한국인물사연구회.

② 줄고, 「임란순국 이영남 장군 갈장류의 재구성적 고찰」, 『중원문화론총』 11, 2007, 충북대 중원문화연구소.

③ 김도형, 「책머리에」, 『서애 류성룡의 학문과 계승』, 2015, 연세대 서애학술연구원.

시대 명장 인식상의 객관성·보편성의 검출 가능성, 다시말해 인물 선정상의 공통된 원칙 내지 기준의 확보 가능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본 바 있다.⁴⁾

본고는 그 후속편으로서 이미 조선시대 명장 분석에서 활용했던 4종의 고문헌, 즉 『海東名將傳』·『大東掌攷』·『典故大方』·『文獻便考』⁵⁾ 등에 수록된 古代·高麗時代 명장의 구성 및 특징에 대해 살펴보고, 그 바탕 위에서 오늘날 명장 선정의 객관적 근거 자료로서 활용 가능성에 대해 다시금 검토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기왕의 조선시대 명장 분석에서 전개했던 방식과 마찬가지로 위 4종의 문헌자료에서 수록하고 있는 인물들에 대해 전체적인 총괄 대비표를 작성한 다음, 그 대비표 상에 나타나는 특성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먼저 개별 인물의 수록 빈도, 즉 수록 문헌수에 의거한 인물 구성에 대해 살펴보고, 다시 그 수록 빈도에 바탕하여 문헌간 계통성 여부 등을 검토하게 될 것이다. 특히, 문헌간 계통성 여부와 관련해서는 기왕의 조선시대 명장편에서 추론되었던 黨色別 系統性의 문제도 재확인해보고자 한다.

한편, 기왕의 조선시대 명장편에서는 위 4종의 문헌에 수록된 인물의 공통성에 중점을 두어 논의를 진행했던 것과는 달리, 본고

4) 줄고, 「古文獻을 통해본 朝鮮時代 名將」, 『軍史』 94, 2015,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5) 이들 4종의 문헌자료에 대한 기본적인 해제 및 비교 분석은 ‘줄고, 앞 논문, pp.77~98 참조. 본래는 『海東名臣錄』을 포함하여 5종의 문헌을 분석대상으로 삼았으나, 『해동명신록』이 조선시대 인물전에 해당하므로 본고에서는 자연히 논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또한 기왕의 조선시대 명장 분석에서는 각 문헌의 발간시점에 주목하여 『문헌편고』(1923년, 이장훈 간행)를 『전고대방』(1924년, 강효석 출간)보다 앞서는 자료로 설정했으나, 실제로는 『전고대방』의 경우 그 출간 시기가 늦었을 뿐 실상은 이미 1910년대 초반에 편찬되어 舊知識이나 老學者들에게는 상식적 참고서적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본고에서는 『문헌편고』보다 시기적으로 앞선 저작으로 설정했다. 즉, 본고에서는 기왕의 『문헌편고』·『전고대방』의 순서가 아니라, 『전고대방』·『문헌편고』의 순서로 관련 논의를 진행하게 된다. 한편 필자의 ‘앞 논문’을 이용하게 될 경우, 특별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출처를 밝히지 않기로 한다.

에서는 그 차별성에 주목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이미 조선시대 명장 분석에서 확인되었듯이 문헌별 인물 선정의 공통성·동일성 등 수록 빈도의 다소와 관련해서는 戰功·軍功의 대소 및 戰爭·戰鬪의 규모와 밀접한 연관성이 기대되는 일반적인 예상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는 점, 무엇보다도 각각의 명장전 또는 명장록⁶⁾도 기본적으로 하나의 시대의식의 산물임을 알 수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문헌별 수록 인물의 편차는 그 공통성에 주목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차별성을 중심으로 논의하는 것이 보다 유의미한 분석치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기왕의 조선시대 명장 분석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명장 내지 전쟁 영웅에 대한 관심과 논의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역사 서술에서 주요 주제의 하나였던 만큼, 수많은 전기물과 연구성과를 축적하고 있다.⁷⁾ 또한 그 관심과 성과가 진전될수록 새로운 인물이 발굴되고 다양하고 심화된 논의도 전개될 것이다. 그러나 개별 인물 중심의 분산적인 논의를 포괄하는 방식, 특히, 통사적 명장전 내지 명장록에 바탕하여 그 인물 선정의 객관성·보편성 여부를 검증하는 논의는 아직 진행된 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된다.⁸⁾ 따라서 기왕의 조선시대의 명장에 대한 문헌비교적 해명의 후속편으로 고대·고려시대의 명장에 대한 논의도 본고에서 처음 시도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6) ‘명장전’과 ‘명장록’의 구분은 개별 인물의 전기를 모아놓은 경우에는 ‘명장전’, 단지 인물 명단만을 수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명장록’으로 구분할 수 있다. 즉, 『해동명장전』은 ‘명장전’에 해당되고, 『대동장고』·『전고대방』·『문헌편고』는 ‘명장록’에 해당한다(줄고, 앞 논문, p.75 주 6) 참조).

7) 軍을 중심으로 편찬된 명장전으로는 다음의 자료가 참조된다.

- ① 국방부 정훈국, 『韓國歷代名將傳』, 1955, 국방부.
- ② 해군본부 정훈감실, 『水軍名將傳』, 1962, 해군본부.
- ③ 해군본부 정훈감실, 『海戰名將傳』, 1976, 해군본부.
- ④ 육군본부 군사연구실, 『한국의 명장』, 1978, 육군본부.

8) 전쟁기념관이 2012년 6월에 개최한 ‘전쟁기념관의 호국인물 선정과 운영에 대한 종합적 고찰’도 이러한 난맥상에 대한 고민의 산물로 이해된다.

일정한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본고와 같이 문헌비교적 방법론으로는 하나의 경향성을 알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곧 개별 인물에 대한 총체적인 평가와 직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한계점도 미리 지적해야 할 듯하다. 본고와 같은 논의를 통해서 향후 名將에 대한 분석이든, 또다른 주제의 인물상에 대한 해명이든간에 보다 다각적이고 균형적인 방식에 의거한 고찰에 하나의 디딤돌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보고자 한다.

2. 古代의 名將 구성과 그 특징

앞서 언급했듯이, 본고에서 古代에 활약한 명장 또는 전쟁 영웅에 대한 논의를 살펴보고자 하면서 분석대상으로 삼게 될 자료는 기왕의 조선시대 명장 분석에서 다룬 바 있는 『해동명장전』·『대동장고』·『전고대방』·『문헌편고』 등 네 종류의 문헌이다. 이들 4종의 문헌에 대한 기본적인 해제는 기왕의 조선시대 명장편에서 다룬 바 있지만, 논리 전개에 필요상 최소한의 서지사항만을 편찬시기가 앞서는 순서로 제시해보면, 다음의 <표 ①>과 같다.

<표 ①> 분석대상 명장전·명장록 기본구성 대비표

문헌명칭 \ 항목구분	편저자	편찬시기	권수구성	인물구성
해동명장전	홍양호	1794년(정조 16)	6권3책	9명
대동장고	홍경모	1821년(순조 21)경	13책(13권)	7명
전고대방	강효석	1910년대	4권1책	13명
문헌편고	이장훈	1923년	1책	13명

앞의 <표 ①>과 같이, 편찬 시기순으로는 洪良浩(1724~1802)가 저술한 『해동명장전』이 1794년(정조 16)으로 가장 앞서고, 다음으로 약 30년 뒤인 1821년(순조 21)경에 『대동장고』가 편찬되었는데, 편저자인 洪敬謨(1774~1851)는 『해동명장전』을 편찬한 洪양호의 직손자이다. 『전고대방』과 『문헌편고』는 각각 1년의 차이를 두고 1924년과 1923년에 간행되었는데, 시기상으로 현대적 간행물에 해당되지만 그 체제 및 내용은 조선후기에 간행된 각종 인물전 또는 인물록의 항목 설정과 동일하므로⁹⁾ 실질적으로는 고문헌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한 자료들이다. 편찬자는 각각 당시 언론출판인으로 활동했던 姜敷錫과 李章薰이다. 특히, 강효석은 『전고대방』 뿐만이 아니라 『大東奇聞』과 『東國戰亂史』의 편찬자이기도 하다. 각 문헌의 고대편의 수록 인물은 『해동명장전』이 9명, 『대동장고』가 7명, 『전고대방』과 『문헌편고』는 똑같이 13명이다.

각각의 문헌이 수록하고 있는 인물의 면면을 原典에서 구성하고 있는 편차대로 제시해보면, 『해동명장전』의 경우 ‘金庾信·張保臯·鄭年·沈那·素那·扶芬奴·乙支文德·安市城主·黑齒常之’의 순서로 등재하고 있다. 편차 방식을 살펴보면 각 인물을 수록하기에 앞서 해당 국가명, 즉 신라·고구려·백제의 순서로 왕국명을 밝힌 다음에 개별 인물을 소개하고 있다. 나라별로는 신라가 김유신부터 소나까지 5명, 고구려가 부분노·을지문덕·안시성주(양만춘)¹⁰⁾의

9) 『전고대방』, 『문헌편고』 등의 기본적인 체제와 내용은 18세기 후반 이후에는 대체로 정형화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논고를 준비할 계획이다.

10) ‘양만춘’을 가리키는데, 『해동명장전』과 『대동장고』에서는 ‘안시성주’라고만 표기했고, 『전고대방』에서는 ‘楊萬春’, 『문헌편고』에서는 ‘梁萬春’으로 표기하여姓의 한자가 다르다. 그런데 『해동명장전』의 본문 서두에서 ‘其名或曰 楊萬春也’라고 한 것에 주목해보면, 본래는 ‘楊萬春’으로 볼 수 있을 듯하다. 한편 조선시대에 ‘안시성주 양만춘’이 명장으로 인식되어가는 과정에 대한 논의로는 다음의 논고 등이 참조된다.

① 김세호, 「연행을 통해 되살아난 安市城과 梁萬春/楊萬春」, 『한문학보』 31,

3명, 백제는 흑치상지 1명뿐이다. 또한 정년과 소나는 각각 장보고와 심나의 부록 인물로 한 항목에서 다루고 있으며, 안시성주 양만춘의 경우에는 ‘안시성주’로만 등재하고 있다. 또 한 가지 주목되는 사항은 백제의 경우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삼국각축기 또는 삼국통일전쟁기의 인물이 아니라 멸망 이후 唐나라에서 활동한 ‘흑치상지’, 이를테면 遺民 將帥를 대표 명장으로 선정하고 있는 점이다.

다음으로 『대동장고』의 수록 인물을 살펴보면 역시 개별 인물을 등재하기에 앞서 해당 국가명, 즉 신라·고구려·백제의 순으로 국명을 밝힌 다음에 각 인물을 배열하고 있다. 그 면면을 살펴보면, ‘김유신·장보고·심나·소나·을지문덕·안시성주·흑치상지’ 등 7명으로 앞서 살펴본 『해동명장전』에서 ‘정년과 부분노’가 탈락된 것 외에는 구성 인물이 동일하다. 따라서 기왕의 조선시대 명장 분석에서와 마찬가지로 『해동명장전』과 『대동장고』의 인물 구성은 사실상 동일한 것¹¹⁾으로 보아도 무리가 없을 듯하다. 이러한 인물 구성은 미리 언급하자면, 두 문헌 편찬자의 학문성향이나 봉당적 입장이 少論-南人系로 규정될 수 있었던 데에 따른 결과라고 볼 수 있을 듯하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측면에서 『전고대방』과 『문헌편고』의 인물 구성에서도 위와 같은 특성이 확인될 수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먼저 『전고대방』의 수록 인물을 마찬가지로 원전의 순서대로 제시해보면, 역시 먼저 각각의 국가명 아래에 개별 인물을 수록하고

2014, 우리한문학회.

② 남재철, 「안시성주의 성명 ‘양만춘’ 고증(1)」, 『동아시아고대학』 35, 2014, 동아시아고대학회.

③ 김락기, 「17~19세기 고구려 안시성 인식과 ‘成上拜」, 『역사민속학』 42, 2013, 한국역사민속학회.

11) 줄고, 앞 논문, p.90. 참고로 『해동명장전』과 『대동장고』의 조선시대 명장 구성을 살펴보면, 전자가 24명, 후자가 21명인데 후자의 수록 인물은 전자와 동일한 가운데, 전자에서 3명을 제외한 면면으로 구성되었다.

있다. 즉, 신라·고구려·백제의 순서로 ‘김유신·金巖·任強首¹²⁾·居漆夫·丕寧子·金春秋¹³⁾·金伯淨¹⁴⁾·金仁問·을지문덕·溫達·楊萬春·階伯·斯紀¹⁵⁾’ 등 13명을 등재하고 있다. 국가별로는 신라가 김유신부터 김인문까지 8명, 고구려는 ‘을지문덕·온달·양만춘’으로 3명, 그리고 백제가 ‘계백·사기’ 등 2명으로 구성되고 있다. 그런데 『전고대방』의 이러한 인물 구성은 『문헌편고』에서도 그대로 반복되고 있다.

즉, 『전고대방』에서는 ‘名將錄’이라는 항목으로 인물 명단을 작성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문헌편고』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명칭인 ‘海東名將錄’이라는 항목 아래 왕조별로 같은 수의 13명의 인물 명단을 제시하고 있다. 또 그 인물 구성이나 편차 방식도 모두 『전고대방』과 동일함은 물론 개별 인물에 대한 細註 형식의 略傳도 내용이 동일하다. 따라서 『전고대방』과 『문헌편고』는 명장 구성에 관한 사실상 하나의 문헌으로 보아도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있다. 그 까닭은 앞서 『해동명장전』과 『대동장고』의 경우와 같이 학문성향이나 黨色上의 공통성으로 규정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즉, 『해동명장전』과 『대동장고』를 소론-남인계의 명장전으로 재규정할 수 있었듯이, 『전고대방』과 『문헌편고』도 西人-老論系의 名將錄으로 재확인할 수 있을 듯하다.¹⁶⁾

미리 그 단적인 예를 들어보자면, 『전고대방』과 『문헌편고』에서는 신라의 명장으로 『해동명장전』과 『대동장고』의 5명보다 많은

12) 『전고대방』과 『문헌편고』에서 모두 잘 알려진 이름인 ‘強首’ 대신에, ‘任強首’로姓을 밝혀 적고 있다.

13) 신라의 제29대 국왕 ‘太宗武烈王’의 實名이다. 『전고대방』과 『문헌편고』에서 모두 왕명인 ‘태종무열왕’이 아닌 실명인 ‘김춘추’로 표기하고 있다.

14) 신라의 제26대 국왕 ‘眞平王’의 實名이다. 『전고대방』과 『문헌편고』에서 모두 왕호인 ‘진평왕’이 아닌 실명인 ‘김백정’으로 표기하고 있다.

15) 앞선 문헌, 즉 『해동명장전』과 『대동장고』에서 수록된 인물은 한글로, 새로운 인물인 경우에는 한자로 표기했다. 이하, 동일하다.

16) 줄고, 앞 논문, p.97 참조.

8명으로 구성하고 있지만, 국왕인 ‘김춘추와 김백정’, 즉 ‘태종무열왕과 진평왕’을 王號가 아닌 實名으로 표기하고 있음을 주목해볼 수 있다. 이는 편찬자가 특별히 어떤 사유를 명기하지 않은 한 매우 異例的인 표기방식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두 문헌이 서인-노론계의 저술로 규정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다시말해 그 학문성향에서 유학적 명분론 내지 정통론의 유산이 다른 당색보다 강고하게 잔존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비판적인 입장을 취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국왕을 臣僚인 장수들과 동일하게 취급하는데 그치지 않고, 王名도 아닌 개인 성명을 사용해 표기¹⁷⁾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그 까닭을 ‘태종무열왕과 진평왕’의 두 인물 자체에 대한 평가라기보다는 소론-남인, 특히 南人, 즉 嶺南勢力에 대한 서인-노론의 봉당적 인식의 반영으로 해석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즉, 기본적으로는 고구려·백제의 인물 수요를 훨씬 뛰어넘는 신라 중심의 인물 구성을 통해 역사적 사실로서의 객관성을 확보하면서도, 영남 세력의 자긍심의 근거로 기능하였을 신라계통의 인물상에 대해서는 화이론적 명분론에 의거하여 매우 비판적인 자세를 취한 것이 아닌가 생각해볼 수 있을 듯하다.

이제 위와 같은 문헌해제적 분석을 바탕으로 인물 구성의 공통성과 차별성 및 그 선정 기준의 통일성·보편성 등 보다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 앞서 살펴본 네 종류의 문헌 즉 『해동명장전』·『대동장고』·『전고대방』·『문헌편고』에서 수록하고 있는 명장 구성의 내용을 시대순으로 재구성하여 하나의 총괄 대비표로 제시해보면, 다음의 <표 ②>와 같다.

17) 이를테면, ‘궁예·견훤’ 등과 같이 객관적으로는 국왕이었지만, 전통시대의 역사서술에서는 군주로 평가받지 못한 경우와 대비해볼 수 있다. 특히, 조선 중기이후로는 화이론적 예교의식이 이념화되고 있었다는 점을 주목해볼 수 있다. 다만, 그 구체적 실체에 대해서는 별도의 논고를 마련해볼 계획이다.

〈표 ②〉 문헌자료 수록 古代 名將 총괄 대비표

순번	인 명	해동명장전 (1794)	대동장고 (1817경)	전고대방 (1910년대)	문헌편고 (1923)	수 록 문헌수
1	부분노扶芬奴	○				1
2	사기斯紀			○	○	2
3	거칠부居柒夫			○	○	2
4	온달溫達			○	○	2
5	을지문덕乙支文德	○	○	○	○	4
6	김백정金伯淨(진평왕)			○	○	2
7	양만춘楊萬春	○	○	○	○	4
8	심나沈那	○	○			2
9	비령자丕寧子			○	○	2
10	김유신金庾信	○	○	○	○	4
11	계백階伯			○	○	2
12	김춘추金春秋			○	○	2
13	소나素那	○	○			2
14	임강수任強首(強首)			○	○	2
15	김인문金仁問			○	○	2
16	흑치상지黑齒常之	○	○			2
17	김암金巖			○	○	2
18	장보고張保臯	○	○			2
19	정년鄭年	○				1
소 계		9명	7명	13명	13명	

먼저, 위의 〈표 ②〉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위 4종의 문헌에서 수록하고 있는 인물의 총수는 중복된 경우를 제외하면 모두 19명이다. 이들 19명을 다시 수록 빈도, 즉 수록문헌수의 다과를 기준으로 재분류하면, 4종의 문헌에서 모두 수록하고 있는 인물은 ‘김유신·을지문덕·양만춘’ 등 세 명이고, 3종의 문헌에 수록된 인물은 한 명도 없다. 또 2종의 자료에서 수록하고 있는 인물은 ‘사기·거칠부·온달·김백정·심나·비령자·계백·김춘추·소나·임강수·김인문·흑치상지·김암·장보고’ 등 14명으로 가장 많고, 나머지 1종의 문헌에서만 수록하고 있는 인물은 ‘부분노와 정년’ 등 2명이다. 이를 다시 의미 있는 분석치를 가질 수 있는 층차로 구분해본다면, 4종의 문헌에서 수록하고 있는 인물군과 2종 이하의 문헌에 등재된 인물군으로 분류할 수 있을 듯하다.

다음으로 위와 같은 각 개별 인물의 수록 빈도의 편차에는 어떤 객관적 기준이 파악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을 듯하다. 앞서 서두에서 언급했듯이, 기왕의 조선시대 명장 분석의 경우 일반적인 예상과 다르지 않게 그 수록 빈도의 다과에는 戰功·軍功의 대소 및 戰爭·戰鬪의 규모와 밀접한 연관성을 맺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고대의 인물 구성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해볼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인 논의를 위해 수록 빈도의 순위순으로 전공·군공을 제시하여 하나의 총괄 대비표를 작성해보면, 다음의 <표 ③>과 같다.

<표 ③> 고대 명장 戰功·軍功 총괄 대비표

순번	수록 문헌수	전공·군공/전쟁·전투	인 명	비고
1	4종	高隋전쟁 살수대첩	을지문덕	4
2		高唐전쟁 안시성전투	양만춘	4
3		신라 삼국통일 원훈	김유신	4
4		백제 근초고왕대 고구려정벌	사기	2
5	2종	신라 진흥왕대 영토확장	거칠부	2
6		고구려 평원왕대 舊戰殉國	온달	2
7		신라 3국통일 기반확립(수/당과 통교)	김백정(진평왕)	2
8		신라 선덕여왕대 羅濟전쟁 사성전투	심나	2
9		신라 진덕여왕대 나제전쟁 순국용장	비령자	2
10		나제전쟁 황산벌전투(총절)	계백	2
11		나당연합 결성 주역	김춘추(태종무열왕)	2
12		나당전쟁 아달성전투 분전순국	소나	2
13		신라 삼국통일전쟁 외교전담	임강수(강수)	2
14		태종무열왕 제2차/삼국통일전쟁 주역	김인문	2
15		백제 遺將/唐將으로 명성	흑치상지	2
16		통일신라 병법가/김유신 손자	김암	2
17		통일신라 완도청해진 창설	장보고	2
18	1종	주몽/유리왕대 행인국병합/선비족정벌	부분노	1
19		완도 청해진 경영	정년	1

위의 <표 ③>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수록 빈도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인물들, 즉 4종의 문헌에 모두 등재된 인물인 ‘을지문덕·양만춘·김유신’ 등 3명은 오늘날에도 고대사를 대표하는 전쟁

영웅하면 떠올릴 수 있는 명장이듯이, 전공·군공의 대소나 전쟁·전투의 규모면에서 2종 이하의 문헌에서만 선정되고 있는 인물들과 뚜렷한 층차를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4종의 문헌에서 수록하고 있는 인물들은 을지문덕이나 양만춘의 경우처럼 중국의 통일왕조인 隋나라와 唐나라의 국왕이 친정한 전투에서 대승을 거둔 지휘관이거나, 김유신의 경우처럼 신라·고구려·백제의 3국이 世紀를 달리하며 치른 통일전쟁을 승리로 장식한 元勳에 해당하는 인물이다. 또한 전쟁의 배경이나 영향면에서 이들이 승전한 전투는 모두 당시 동북아에 중국 중심의 일원적 국제질서의 수립을 꿈꾸었던 통일제국인 수·당의 침입을 격퇴한 일대 대첩이었거나, 신라·고구려·백제가 명운을 걸고 대치했던 통일국가 건설을 위한 전쟁이었다.¹⁸⁾

부연하여 말하자면, 을지문덕이 승전한 薩水大捷은 612년(영양왕 23) 1백만이 넘는 대군을 동원하여 고구려를 침공하고도 3개월이 넘도록 遼河 유역의 遼東城을 함락시키지 못하자, 30만 5천명의 별동대를 조직하여 직접 평양성을 공격하게 했던 수나라 煬帝의 침입을 살수, 즉 오늘날의 청천강 유역에서 대파했던 전투였다. 또 양만춘이 대승을 거둔 안시성전투는 645년(보장왕 4) 당나라 太宗이 친정한 전투에서 88일간 唐軍의 충공세를 물리치고 고구려 정벌을 좌절시킨 일대 접전이었다. 김유신은 굳이 설명할 필요도 없이 한반도를 둘러싼 고대 3국의 패권전쟁 및 羅唐戰爭에서 최종 승리하여 통일신라의 성립에 가장 크게 기여한 명장으로서, 단지

18) 고구려의 對중국전쟁 및 삼국통일전쟁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로는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한국정신문화연구원)의 해당 항목을 들 수 있다. 항목별로는 「살수대첩」(서영대, 11권, p.27, 1989), 「麗隋戰爭」(노태돈, 15권, p.158, 1990), 「안시성전투」(서영대, 14권, p.502, 1990), 「麗唐戰爭」(노태돈, 15권, pp.102~103, 1990), 「삼국통일」(임병태, 11권, pp.290~294, 1989), 「김유신」(노명호, 4권, pp.799~800, 988) 등이다. 한편 한국 군사사 전반에 대한 최근의 종합적인 정리로는 ‘『한국군사사』(개설~15권), 2012, 육군본부’가 참조된다.

3국을 통합하였다는 측면만이 아니라 이후 정립되는 ‘동국문화’를 건설하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측면도 충분히 인식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렇기에 이들 세 명의 명장 중에서도 단연 비중있게 다뤄지고 있는 인물이 김유신인 까닭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¹⁹⁾

반면에 2종 이하의 문헌에서 수록되고 있는 인물들은 ‘거칠부·온달·김백정(진평왕)·계백·김춘추(태종무열왕)·임강수(강수)·김인문·흑치상지·장보고’ 등과 같이 전공이나 군공·행적 등이 잘 알려져 있는 인물도 있지만, ‘사기·심나·비령자·소나·김암’ 등과 같이 일반적으로는 그 이름조차 낯설은 인물도 적지 않은 실정이다. 특히 ‘斯紀’와 같은 인물은 1종의 문헌에서만 수록된 ‘부분노’나 ‘정년’ 보다도 그 전공이나 군공이 뚜렷하지 않는 인물에 해당한다. 즉, 『전고대방』과 『문헌편고』의 지문에서는 ‘智勇振世’라고 하고 있지만, 『해동명장전』이나 『三國史記』列傳에서 그 행적은 백제 近肖古王 때 태자였던 近仇首王에게 고구려의 내부 정보를 알려 주고 향도 역할을 수행했던 사항만이 기술되고 있을 뿐이다.

또한 그 군공·행적에서도 강수나 김암처럼 직접적으로 전쟁·전투와 연계되지 않는 인물도 있고, 흑치상지처럼 당나라에서 활동한 百濟의 遺民 將帥에 해당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등 다양한 구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를테면, 개별 인물의 문헌수록 빈도의 다과를 기준으로 그 특성을 살펴보면, 기왕의 조선시대의 명장 분석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일반적으로 그 층차가 전공·군공의 대소나 전쟁·전투의 규모와 밀접한 연계성을 보여줄 것이라는 예상이 다시 한 번 확인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끝으로, 이제 2종 이하의 문헌에만 수록되고 있는 인물들의 차별

19) 이를테면, 『해동명장전』(1911, 조선광문회 연활자본)의 경우 ‘을지문덕·양만춘’이 각각 ‘1면반·2면’ 정도의 지문으로 서술되고 있는데 대하여, ‘김유신’은 무려 ‘7면’에 걸쳐 서술하고 있다. 또한 『전고대방』과 『문헌편고』에서도 김유신에 대한 설명은 을지문덕과 양만춘 두 사람에 대한 지문을 합한 것보다 분량이 많다.

성을 검토하여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학문성향이나 당색별 명장 인식의 차이점 등에 대해 검토해보기로 하자. 앞서 문헌해제적 분석에서 살펴보았듯이, 위 4종의 문헌은 각각 『해동명장전』과 『대동장고』를 소론-남인계열의 명장전으로, 『전고대방』과 『문헌편고』를 서인-노론계의 명장록으로 규정할 수 있었다. 그런데 다음의 <표 ④>에서 드러나고 있듯이, 2종 이하 문헌의 수록 인물 중에서 위의 두 계통의 자료는 상호 교차적으로 중복되는 인물들이 전혀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그 만큼 명장 인식상의 차이도 뚜렷할 것으로 예상해볼 수 있다. 구체적인 논의를 위해 앞선 경우들과 마찬가지로 2종 이하의 문헌에서만 수록되고 있는 인물들을 총괄하는 대비표를 작성해보면, 다음의 <표 ④>와 같다.

<표 ④> 2종 이하 수록 고대 명장 총괄 대비표

순번	인 명	해동명장전 (1794)	대동장고 (1817경)	전고대방 (1910년대)	문헌편고 (1923)	수 록 문헌수
1	사기斯紀			○	○	2
2	거칠부居柒夫			○	○	2
3	온달溫達			○	○	2
4	김백정金伯淨(진평왕)			○	○	2
5	심나沈那	○	○			2
6	비령자不寧子			○	○	2
7	계백階伯			○	○	2
8	김춘추金春秋			○	○	2
9	소나素那	○	○			2
10	임강수任强首(强首)			○	○	2
11	김인문金仁問			○	○	2
12	흑치상지黑齒常之	○	○			2
13	김암金巖			○	○	2
14	장보고張保皋	○	○			2
15	부분노扶芬奴	○				1
16	정년鄭年	○				1
소 계		6명	4명	10명	10명	

우선, 위의 <표 ④>에서 드러나는 특징은 앞서 언급했듯이, 『해동명장전』·『대동장고』와 『전고대방』·『문헌편고』의 두 계통으로

구분되는 문헌 사이에 교차적으로 중복되어 수록된 인물이 전혀 없다는 점이다. 특히, 『전고대방』과 『문헌편고』의 두 문헌은 등재 인물이 완전히 일치하고 있고, 『해동명장전』과 『대동장고』도 ‘부분노·정년’의 2명이 『해동명장전』에서만 더 선정되고 있는 점을 제외하면, 인물 구성이 동일하다. 즉, 중복되는 인물을 제외하면 모두 16명으로 구성되고 있는데, 이 가운데 6명은 『해동명장전』과 『대동장고』에서만 등재되고 있는 인물이고, 나머지 10명은 『전고대방』과 『문헌편고』에서만 선정되고 있다. 따라서 두 계통의 문헌 사이의 명장 인식에서도 뚜렷한 차별성이 파악될 수 있지 않을까 예상해볼 수 있다.

먼저 『해동명장전』·『대동장고』와 『전고대방』·『문헌편고』의 두 계통의 문헌별 인물 구성의 면면을 살펴보면, 전자의 6명은 ‘부분노·심나·소나·흑치상지·장보고·정년’ 등이고, 후자의 10명은 ‘거칠부·사기·비령자·온달·김백정(진평왕)·김춘추(태종무열왕)·계백·임강수(강수)·김인문·김암’ 등으로 서로간에 전혀 교차되고 있는 인물이 없다. 한편 인물 구성상의 특성을 살펴보면, 전자의 경우 시기적으로 고대 3국의 건국기부터 통일신라 말기에 이르기까지 전시대적인 구성이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에, 후자의 경우는 대체로 삼국통일전쟁기에 활약한 인물들로 제한되고 있다. 즉, 전자의 경우 고구려 건국기에 활약한 인물인 ‘부분노’에서부터 통일신라 말기의 인물인 ‘정년’에 이르기까지 고대시기 전반에 걸쳐서 인물 선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에, 후자의 경우는 전체 10명 중에서 김유신의 손자로서 병법가로 활약한 ‘김암’을 제외하면 나머지 9명은 모두 ‘나제전쟁에서 나당전쟁에 이르는 3국통일전쟁’ 과정에서 활약한 인물들이다.

또다른 측면에서 보자면, 후자의 문헌, 즉 『전고대방』·『문헌편고』의 경우 국가별로는 신라 7명(총 8명)·고구려 1명(총 3명)·백제

2명(총 2명)으로 구성되어, 대체적으로 균형적인 인물 선정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반면에 『해동명장전』과 『대동장고』의 인물 구성은 신라 5명(총 6명)·고구려 0명(총 2명)·백제 1명(총 1명)으로 구성하고 있지만, 백제의 인물로 선정된 ‘흑치상지’의 경우 당나라에서 명성을 떨친 유민 장수임을 고려한다면 반드시 백제의 인물로 볼 수만도 없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그가 당나라로 망명하기 이전에는 백제 유민의 부흥운동을 진압하는데 기여한 주요 인물의 한 사람이었다는 점을 상기한다면, 백제의 명장으로 1명만을 선정하면서 과연 손색없는 인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다. 특히, 그 편찬자인 홍양호와 홍경모가 모두 당대의 석학이었다는 점에서, 두 사람이 ‘계백’ 등 『삼국사기』 열전에 수록된 백제의 인물들에 대한 정보가 없었을 리도 만무하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그런 측면에서 『해동명장전』과 『대동장고』, 특히 『해동명장전』의 명장 구성은 특정한 경향성이 개재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겠다.

이에 따라 『해동명장전』의 인물 구성을 좀 더 상세히 분석해보면, 삼국통일전쟁에서 신라의 장수로 활약한 ‘심나·소나’를 제외하면 대체로 대중국 관계에서 활약한 인물들로 구성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즉, ‘흑치상지·장보고·부분도·정년’ 등 나머지 4명은 직접 중국에서 활약한 유민장수이거나 대중국 전쟁 및 교역관계에서 명성을 떨친 인물들이다. 그런 측면에서 논의를 확대하여 보자면, 앞서 살펴본 4종의 문헌에서 모두 선정하고 있던 인물인 ‘을지문덕·양만춘·김유신’도 對隋·對唐戰爭 및 羅唐戰爭 등 對中國戰爭에서 맹활약했던 대표적 명장들이었음을 알 수 있다.

『해동명장전』에서 대중국 전쟁 및 교류관계에서 맹활약했던 인물들이 다수 선정된 것은 숙종 이후 전개되었던 일련의 영토 확정 및

군비 강화와 연관된 시대성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을 듯하다. 즉, 숙종대에 있었던 울릉도 쟁계 및 백두산 쟁계 등 두 차례의 영토 확정 과정에서 소론-남인계는 매우 진취적이며 적극적인 외교 정책을 추진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울릉도 쟁계 과정에서 소론의 영수였던 南九滿은 對日外交의 안정을 명분으로 안용복을 월경죄로 처형하려는 조정의 일반론에 대응하여, 안용복이 국가 차원에서 쉽게 해결하지 못했던 울릉도의 영유권과 어업권을 직접 일본에 건너가 해결한 것은 하나의 快事로 여겨야 함이 마땅함을 주장하여 유배형으로 감형을 이끌어냈다. 또한 당시 남인 실학의 종주였던 星湖 李瀾도 안용복을 영웅호걸로 칭송하여 마땅함을 주장하면서 그의 행적을 기록으로 남겨 보전할 수 있도록 하였다.²⁰⁾

이렇듯 당시 소론-남인계의 지도자들은 영토 및 국방 문제에 대해서 매우 진취적이며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 이러한 바탕 위에서 『해동명장전』의 편찬자로서 소론계의 대석학이었던 홍양호의 경우 북방 관련 활동과 관심을 경험하게 되면서 일련의 대중국관계 문제와 인물들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지 않았을까 생각된다. 즉, 홍양호는 일찍이 경흥부사를 지낸 경험을 바탕으로 『北塞記略』을 저술한 이래, 정조의 관북지역 개발을 뒷받침하여 『北道陵寢志』·『興王肇乘』 등을 편찬하는 등 북방 문제에 많은 경험과 관심을 쏟고 있었다.²¹⁾ 따라서 자연히 북방 개척이나 대중국관계에서 활약한 인물들에 대해서도 새롭게 재조명할 필요성을 절감하지 않았을까 판단된다. 이를테면, 태조 이성계의 사적을 재건하면서 그와 함께 고락을 같이했던 李之蘭을 조선시대의 첫 번째 명장으로 새롭게 부각시켰듯이, 고구려 건국 초기의 인물인 ‘부분노’를 고대편 명장의 첫머리에 발굴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추론해볼 만하다.

20) 줄지, 『한국 군사인물연구-조선편 I-』, 「평민어부 안용복」, pp.343~345 참조, 2011,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1) 줄지, 앞 논문, p.87.

이렇듯 『해동명장전』이나 『대동장고』에서는 편찬자인 홍양호와 홍경모가 봉당적 학문성향 및 관료생활의 경험에 바탕하면서 당대의 시대성에 부응하여 대중국관계에서 활약한 명장들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다면, 『전고대방』과 『문헌편고』의 경우는 그 인물 선정에서 볼 수 있듯이 상당히 다각적이고 균형적인 시각을 견지하고자 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우선 인물 구성에서 신라 7명(총 8명)·고구려 1명(총 3명)·백제 2명(총 2명)으로 구성하여, 전반적으로 균형을 이루고자 했던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해동명장전』의 인물 구성이 삼국통일전쟁 과정에서 활약한 인물로는 신라의 장수인 ‘심나·소나’만을 선정하고 있었던 반면에, 『전고대방』과 『문헌편고』에서는 羅麗戰爭을 대표하는 고구려 장수로 새로이 ‘온달’ 1명을 수록하고, 羅濟戰爭을 대표하는 백제의 장수로서 ‘계백·사기’ 등 2명을 새롭게 등재함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해동명장전』의 인물 구성이 뚜렷한 경향성을 보여주었던 것과는 달리, 『전고대방』과 『문헌편고』에서는 단지 전쟁 영웅에만 국한하지 않고 ‘태종무열왕·김인문·강수’ 등과 같이 군사외교적 방면에서 활약한 인물 뿐만이 아니라, ‘김암’과 같이 병법가로 활약한 인물도 포함하는 등 다양한 인물 구성을 보여주는 것도 주목해 볼 수 있다. 다만, 이렇듯 다각적이고 균형된 시각과 다양한 인물 구성을 전개한 裏面에는 전체의 인물 구성이 기본적으로 삼국간의 쟁패 및 통일과정의 인물들로 제한되고 있다든가, 진평왕과 태종무열왕을 왕호 대신 실명으로 표기하는 방식으로 反南人的인 政派性을 드러내는 서인-노론계의 보수적 학문성향도 마땅히 지적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인물 구성에서 살펴지듯이 反老論的 政派性을 보이기는 『해동명장전』도 마찬가지라는 점에서, 『전고대방』과 『문헌편고』의 인물 구성을 보다 다각적이고 균형적인 인물 선정의 결과로 보아도 좋을 듯하다.

3. 高麗時代의 名將 構成과 그 특징

우선 앞서 살펴본 古代의 명장 분석에서와 마찬가지로, 위 4종의 문헌자료, 즉 『해동명장전』·『대동장고』·『전고대방』·『문헌편고』의 인물 구성을 중심으로 논리 전개에 필요상 최소한의 사항만을 문헌구성을 보완하는 측면에서, 편찬시기가 앞서는 순서로 제시해 보면, 다음의 <표 ⑤>와 같다.

<표 ⑤> 분석대상 명장전·명장록 기본구성 대비표

문헌명칭 \ 항목구분	편찬시기	편수명	항목명	인물구성
해동명장전	1794년	권1~권4	海東名將傳 ²²⁾	22명
대동장고	1821년	제12책 별편	名將攷	24명
전고대방	1910년대	권2	名將錄	22명
문헌편고	1923년	해동명장록	海東名將錄	22명

위의 <표 ⑤>와 같이, 각 문헌의 편찬체제를 살펴보면 『해동명장전』은 6권 3책의 편목 중에서 ‘권1’부터 ‘권4’에 이르기까지 고려시대 인물을 수록하고 있는데, ‘권1’에서는 백제의 ‘흑치상지’에 뒤이어 ‘유금필·강감찬·양규·윤관’ 등 4명을 수록하고 있고, ‘권 2~3’은 온전히 고려시대 명장편에 해당하며, ‘권4’의 경우는 ‘최영’ 1인만이 고려시대의 명장이다. 『대동장고』는 모두 13책의 편차 중에서 제12책을 別篇과 外篇으로 구성하고 있는데, 명장록인 ‘명장고’는 그 중에서 별편의 제6번째 항목에 배정하고 있다. 『전고대방』은 4권 1책의 권수 중에서 ‘권2’의 제5번째 항목에서 ‘공신록’에 뒤이어 ‘명장록’을 편성하고 있다. 『문헌편고』는 1책으로 구성되어

22) 항목명이 없으므로, 책명으로 대체했다.

따로이 편수 구분은 없고 직접 항목명만을 설정하고 있는데, ‘해동명장록’은 모두 26항목 중에서 제6번째에 ‘湖堂故事 附清白吏錄’에 뒤이어 편차되고 있다.

각각의 문헌의 인물 구성은 『해동명장전』이 22명, 『대동장고』가 24명, 『문헌편고』와 『전고대방』은 똑같이 22명을 수록하고 있다. 각 문헌별로 인물 구성의 면면을 原典의 수록 순서대로 살펴보면, 『해동명장전』은 ‘庾黔弼·姜邯贊·楊規·尹瓘·吳延寵·金富軾·趙冲·金就礪·朴犀·宋文胄·金慶孫·李子晟·金方慶·韓希愈·元冲甲·安祐·金得培·李芳實·鄭世雲·安遇慶·鄭地·崔瑩’ 등의 차례로 22명을 기술하고 있다. 다음으로 『대동장고』에서는, ‘유금필·徐熙·강감찬·양규·智蔡文·윤관·오연충·김부식·조충·김취려·박서·김경손·이자성·김방경·한희유·원충갑·안우·김득배·이방실·정세운·안우경·최영·정지·崔雲海’ 등의 순서로 24명을 배열하고 있다.

『대동장고』의 인물 구성을 『해동명장전』과 비교해보면, 우선 전체 수록 인물 중에서 3명의 차이가 있음을 살펴볼 수 있는데, 우선 ‘유금필~윤관’의 사이에 ‘徐熙·智蔡文’이 추가되고 있다. 또 이후의 명단에서는 ‘박서’ 다음에 ‘송문주’가 탈락되는 대신에, ‘최영·정지’ 다음에 ‘崔雲海’가 새로이 등재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렇듯 『해동명장전』과 『대동장고』를 대비해보면 인물 구성에서 전체 延人員으로는 4명, 즉 ‘서희·지채문·송문주·최운해’ 등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그 총원에서 『대동장고』가 『해동명장전』의 22명 보다 2명이 많은 24명으로 구성되고 있기 때문에 ‘서희·지채문·최운해’ 중에서 2명을 추가 선정된 인원으로 본다면, 실제의 차이는 1명에 그치게 된다. 또한 인물의 수록 순서나 방식 등도 사실상 일치성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앞서 고대의 명장편에서와 같이, 고려시대 명장의 인물구성에서도 『해동명장전』과 『대동장고』는 동일

한 문헌으로 보아도 별반 무리가 없다고 할 수 있다. 나아가 두 문헌을 앞서 고대의 명장 분석에서와 같이, 학문성향이나 봉당적 측면에서 소론-남인계의 명장전으로 규정하는 데에도 별반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헌간 계통성은 앞서 고대편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고대방』과 『문헌편고』의 사이에서도 확인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전고대방』과 『문헌편고』의 수록 인물을 살펴보면, 앞서 고대편에서와 마찬가지로 구성 인원이나 수록 순서, 細註 형식의 略傳 내용이 모두 동일함을 살펴볼 수 있다. 즉, 『전고대방』에서 선정하고 있는 22명의 명단을 原典의 수록 순서별로 그 면면을 살펴보면, ‘申崇謙·유금필·양규·金樂·윤관·강감찬·오연충·康極·文冠·拓俊京·지채문·서희·김취려·김방경·조충·박서·김경손·김부식·정세운·한희유·안우·최영’ 등이다. 그런데 이러한 인물 구성이 『문헌편고』에서도 그대로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그 배경으로는 앞서 고대 명장의 분석에서도 살펴봤듯이, 언뜻보자면 두 문헌의 간행 시기가 1924년과 1923년으로 1년밖에 차이 나지 않는 점을 주목해볼 수 있겠지만, 보다 직접적으로는 학문성향이나 黨色上의 계통성으로 이해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즉, 『해동명장전』과 『대동장고』를 소론-남인계의 명장전으로 재확인할 수 있었듯이, 『전고대방』과 『문헌편고』도 서인-노론계의 명장록으로 재규정할 수 있음이 고려시대의 명장 구성에서도 재확인되는 것이라고 하겠다.

이를테면, 기왕의 조선시대 명장 분석에서나 앞서 고대 명장편에서도 재차 확인되었듯이, 위 4종의 문헌을 『해동명장전』과 『대동장고』를 하나의 계통, 즉 소론-남인계의 명장전으로 규정할 수 있고, 『전고대방』과 『문헌편고』를 또하나의 계통, 즉 서인-노론계의

명장록으로 구분해볼 수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그 인물 선정의 공통성이나 차별성 또는 그 선정 기준의 통일성·보편성 등에 대해서도 앞서 살펴본 것과 대동소이한 분석치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볼 수 것이다. 다만, 고려시대의 경우 고대나 조선시대, 특히 조선시대와 대비하면 전 기간에 걸쳐 외침과 반란이 끊이지 않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보다 다양한 양상을 내포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 『해동명장전』·『대동장고』·『전고대방』·『문헌편고』 등 각각의 문헌에서 수록하고 있는 명장 구성의 내용을 시대순으로 재구성하여 하나의 총괄 대비표로 제시해보면, 다음의 <표 6>과 같다.

<표 6> 문헌자료 수록 高麗時代 名將 총괄 대비표

순번	인 명	해동명장전 (1794)	대동장고 (1817경)	전고대방 (1910년대)	문헌편고 (1923)	수 록 문헌수
1	신송겸申崇謙			○	○	2
2	김락金樂			○	○	2
3	유금필庾黔弼	○	○	○		4
4	서희徐熙		○	○	○	3
5	양규楊規	○	○	○	○	4
6	지채문智蔡文		○	○	○	3
7	강감찬姜邯贊	○	○	○	○	4
8	윤관尹瓘	○	○	○	○	4
9	오연총吳延寵	○	○	○	○	4
10	문관文冠			○	○	2
11	강극康極			○	○	2
12	척준경拓俊京			○	○	2
13	김부식金富弼	○	○	○	○	4
14	조충趙冲	○	○	○	○	4
15	김취려金就礪	○	○	○	○	4
16	박서朴犀	○	○	○	○	4
17	송문주宋文冑	○				1
18	김경손金慶孫	○	○	○	○	4
19	이자성李子晟	○	○			2

20	김방경金方慶	○	○	○	○	4
21	원충갑元冲甲	○	○			2
22	한희유韓希愈	○	○	○	○	4
23	정세운鄭世雲	○	○	○	○	4
24	김득배金得(溥)培 ²³⁾	○	○			2
25	안우安祐	○	○	○	○	4
26	이방실李芳實	○	○			2
27	안우경安遇慶	○	○			2
28	최영崔瑩	○	○	○	○	4
29	정지鄭地	○	○			2
30	최운해崔雲海		○			1
소 계		22명	24명	22명	22명	

먼저, 각각의 문헌별로 인물 구성을 살펴보면, 『해동명장전』이 22명, 『대동장고』가 24명, 『전고대방』이 22명, 『문헌편고』가 마찬가지로 22명이다. 이를 다시 중복된 인물을 제외하면 모두 30명으로 집계된다. 이제 이 30명을 대상으로 수록 빈도, 즉 수록문헌수의 비교 우위 등을 바탕으로 인물 선정의 객관성·보편성 등의 검토해볼 순서이다. 먼저 4종의 문헌에서 모두 수록하고 있는 인물을 살펴보면 ‘유금필·양규·강감찬·윤관·오연충·김부식·조충·김취려·박서·김경손·김방경·한희유·정세운·안우·최영’ 등 모두 15명에 달하고 있다. 이는 전체 수록 인물 총 30명의 과반수, 즉 50%에 해당하는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높은 일치성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상대적으로 앞서 살펴본 고대 명장 구성의 경우 전체 인원 19명 중에서 3명, 즉 약 16%, 기왕의 조선시대 명장 구성의 경우는 총 49명 중에서 5명,²⁴⁾ 즉 10% 정도의 일치율을 보였던 것과 비교하면, 가히 절대적이라고 할만한 수치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이다. 다만, 그 숫자가 많은 타인지는 몰라도 위의 15명 가운데 ‘유금필

23) 『해동명장전』에서는 ‘金得培’로 표기하고 있는데, 『대동장고』에서는 ‘金溥培’로 표기하였다.

24) 줄고, 앞 논문, p.101.

· 양규 · 강감찬 · 윤관 · 오연충 · 김부식 · 조충 · 김취려 · 박서 · 김방경 · 정세운 · 최영' 등 12명은 대체로 그 이름이 잘 알려져 있는 반면에, '김경손 · 한희유 · 안우' 등과 같이 그 이름이 다소 생소한 인물들도 없지 않음을 살펴볼 수 있다.

다음으로 3종의 문헌에서 수록하고 있는 인물을 살펴보면, 앞서 4종의 문헌에서 모두 수록된 인물이 전체의 과반을 차지했던 탓인지는 몰라도 '서희 · 지채문'의 2명에 그치고 있다. 특히, 이들 두 명은 『해동명장전』에서는 선정된 바 없다가 『대동장고』에서 처음 수록된 이후 계속해서 『전고대방』과 『문헌편고』에서도 선정되고 있다는 점에서, 앞서 살펴본 두 계통의 명장 구성, 즉 소론-남인계와 서인-노론계로 구분되는 명장 인식의 공통성을 확인해볼 수 있는 계기적 사례로 판단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그런데 두 사람이 『대동장고』에서 처음 선정된 이후 당색을 달리하는 두 문헌, 즉 『전고대방』과 『문헌편고』에서도 지속적으로 수록된 까닭은 기본적으로 그 전공 · 군공이 재평가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즉, 서희는 잘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麗遙1次戰爭에서 탁월한 외교능력을 발휘한 이후에는 전투지휘관으로서도 뚜렷한 전공을 쌓았으며, 지채문도 서경전투 및 顯宗을 호종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공헌을 세웠던 인물이기 때문이다.

계속해서 2종 이하의 문헌에서 선정되고 있는 인물들을 살펴보면, 먼저 2종의 문헌에 수록된 인물들은 '신승겸 · 김락 · 문관 · 강극 · 척준경 · 이자성 · 원충갑 · 김득배 · 이방실 · 안우경 · 정지' 등 11명으로 구성되고 있다. 이들 가운데 '이자성 · 원충갑 · 김득배 · 이방실 · 안우경 · 정지' 등 6명은 『해동명장전』과 『대동장고』에 수록된 인물이고, 나머지 5명, 즉 '신승겸 · 김락 · 문관 · 강극 · 척준경' 등은 『전고대방』과 『문헌편고』에서만 선정하고 있는 인물들이다. 즉, 위의 4종의 문헌에서 당색을 달리하는 두 계통의 문헌에

서로 교차적으로 수록되고 있는 인물이 전혀 없음을 살펴볼 수 있다.

또한 『전고대방』과 『문헌편고』에서 선정되고 있는 5명이 모두 고려 전기의 인물들인 반면에, 『해동명장전』과 『대동장고』에서 수록하고 있는 6명은 모두 고려 후기에 해당하는 인물들이라는 차이 점도 주목된다. 마지막으로, 1종의 문헌에서만 선정하고 있는 인물은 ‘송문주·최운해’ 등 2명이다. 이들 두 명, 특히 송문주의 경우 그 명성이 없지 않았음에도 각각 『해동명장전』과 『대동장고』에서 한 차례씩 선정되고 있을 뿐인데, 최운해의 경우는 고려말 뿐만 아니라 조선 초기까지 활약한 인물이라는 점을 고려해볼 수 있겠지만, 송문주의 경우는 ‘박서’에 부록 인물로 기술되었던 까닭이 작용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²⁵⁾

한편 위의 총 30명의 고려시대 명장들은 시기적으로는 고려 건국기에 활약한 인물부터 고려 말 또는 조선 초기에 활약한 인물까지 전 시대에 걸쳐 고른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앞서 살펴보았듯이, 2종 이하의 문헌에서만 선정된 13명의 경우 『해동명장전』과 『대동장고』에서 수록하고 있는 8명이 모두 고려 후기의 인물인 반면에, 『전고대방』과 『문헌편고』에서 수록하고 있는 5명은 모두 고려 전기의 인물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²⁶⁾

그러면 이제 이러한 기초적 분석들이 갖는 의미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개별 인물의 수록 빈도가 우위를 차지하는 순으로 그 전공·군공을 포함하여 하나의 총괄표로 제시해보면, 다음의 <표 ⑦>과 같다.

25) 『해동명장전』에서 ‘부록 인물’로 수록된 인물 중에서 『대동장고』에서 탈락된 인물로는 고대의 경우는 ‘정년·소나’ 중에 ‘정년’ 1명, 고려시대의 경우는 ‘송문주·김득배·이방실’ 3명 중에 ‘송문주’ 1명, 조선시대의 경우는 ‘유정·영규·김응해·유형’ 4명 중에 ‘김응해·유형’의 2명이다.

26) 이에 따라 의도적이었던 그렇지 않은 간에 오늘날의 입장에서 보자면, 고려시대에 활약한 명장들을 서로 시기를 달리하면서 상호 보완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표 ⑦〉 고려시대 명장 전공·군공 총괄 대비표

순번	수록문헌수	전공·군공/전쟁·전투	인 명	수 록 문헌수
1	4종	후삼국통일전쟁(전공)	유금필	4
2		여요1차전쟁(분투전사)	양규	4
3		여요전쟁 귀주대첩	강감찬	4
4		동북9성개척(원수)	윤관	4
5		동북9성개척(부원수)	오연충	4
6		묘청반란진압	김부식	4
7		고종대 거란격퇴	조충	4
8		고종대 거란격퇴	김취려	4
9		여몽전쟁 귀주전투	박서	4
10		여몽전쟁/이연년반란진압	김경손	4
11		삼별초진압/일본정벌	김방경	4
12		일본정벌/합단격퇴	한희유	4
13		기철주살/홍건적격퇴	정세운	4
14		기철주살/홍건적격퇴	안우	4
15		홍건적격퇴/홍산대첩	최영	4
16	3종	군사외교/영토확장	서희	3
17		여요2차전쟁(현종 호종)	지채문	3
18		후삼국통일전쟁(충절)	신승겸	2
19	2종		김락	2
20		여진정벌(윤관/오연충)	문관	2
21		여진정벌(윤관/오연충)	강극	2
22		이자겸반란진압	척준경	2
23		여몽전쟁/이통반란진압	이자성	2
24		합단격퇴 원주전투	원충감	2
25		홍건적 격퇴	김득배	2
26		홍건적 격퇴	이방실	2
27		홍건적격퇴/김용반란진압	안우경	2
28		왜구격퇴 관음포대첩	정지	2
29	1종	여몽전쟁 죽주전투	송문주	1
30		왜구 격퇴	최운해	1

앞서 고대편의 명장 분석이나 기왕의 조선시대 명장 인식에서도 살펴볼 수 있었듯이, 수록 빈도의 우열은 일반적 예상과 다르지 않게 戰功·軍功의 대소 및 戰爭·戰鬪의 규모와 밀접한 연관성을 맺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특성은 고려시대의 명장 구성

에서도 마찬가지로 위의 <표 ⑦>에서 드러나듯이, 4종 또는 3종의 문헌에서 수록되고 있는 인물들은 2종 이하의 문헌에서 수록되고 있는 인물들과 충분히 차이가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다만, 고려시대의 경우 전 시기에 걸쳐 외침과 반란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에 명장 구성에서도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이면서 동일한 전쟁·전투에 인물들이 중복적으로 선정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일부 인물의 경우는 그 전공이나 군공이 충분히 평가되지 못한 인물도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예를 들면, 고려말 왜구 격퇴과정에서 활약한 인물 중에서 『해동명장전』과 『대동장고』에서만 수록하고 있는 ‘정지’와 같은 경우는 정치적 지위를 배제하면 4종의 문헌에서 모두 선정되고 있던 ‘최영’과 비교해도 전공 자체로만은 크게 뒤지지 않는다고 할 수도 있다.

또다른 인물을 들어보자면, 高宗代 蒙古 침입을 격퇴하고 李延年의 반란군을 진압하는 전공을 세웠던 ‘金慶孫’이라든가, 삼별초 진압·일본 정벌·합단 격퇴 등에서 맹활약했지만 상대적으로 이름이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인물인 ‘韓希愈’ 등과 비교할 경우는 쉽사리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할 수도 있다. 더욱이 麗蒙戰爭 과정에서 서북면병마사 朴犀 휘하에서 龜州戰鬪를 승리로 이끌고 뒤이어 竹州戰鬪에서 승전하였던 ‘宋文胄’와 같은 경우는 『해동명장전』에서만 명장으로 선정되기에는 그 전공·군공을 충분히 평가받지 못한 측면도 있다고 생각해볼 만한 듯하다.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볼 때 4종 또는 3종 이상의 문헌에서 선정되고 있는 인물들과 2종 이하의 문헌에서 등재되고 있는 인물들 사이에는 전공·군공의 대소 및 전쟁·전투의 규모를 연계해볼 때 일정한 차이를 확인해볼 수 있다. 특히, 오늘날의 인물 평가와 전근대 왕조시대의 인물 평가에는 일정한 차이가 있음도 고려되어야 할 듯하다. 예를 들자면, 고려 건국기에 활약한 인물 중에서 4종의

문헌에서 모두 수록하고 있는 ‘庾黔弼’과 2종의 문헌에서만 선정된 ‘申崇謙·金樂’의 경우를 비교해보면, 세 사람 모두 당대를 대표하는 명장이라고 할 수 있지만, 특히 ‘신승겸’의 경우는 어떤 측면에서는 ‘유금필’보다 그 명성이 더욱 잘 알려져 있다고도 할 수 있겠지만, 전공·군공 자체만으로는 ‘유금필’과 뚜렷한 층차가 있음이 사실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유금필’이 고려의 후삼국통일전쟁 과정에서, 특히 후백제와의 전투에서 혁혁한 전공을 쌓은 장수였다면, ‘신승겸·김락’은 전공도 뛰어났지만 927년(태조 10) 大邱 公山戰鬪에서 위기에 빠진 太祖 王建을 구출하고 전사한 ‘忠節’로써 더욱 현창된 경우라고 할 수 있다.²⁷⁾ 또다른 사례를 보자면, 예종대 여진 정벌 및 동북9성 개척 과정에서 활약한 인물로서 4종의 문헌에서 모두 선정하고 있는 ‘尹瓘·吳延寵’과 2종의 문헌에서만 선정된 ‘文冠·康極’의 경우를 비교해볼 수 있을 듯하다. 위의 네 명의 장수 모두 여진 정벌 및 동북9성 개척 과정에서 뛰어난 전공을 쌓았지만, 윤관과 오연총이 ‘각각 원수와 부원수’로서 전쟁·전투를 주도했다면, 문관과 강극은 그 휘하의 ‘좌군병마사’ 또는 ‘병마판관’으로 활약하였다. 즉,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공·군공 및 전쟁·전투 자체와 연계해보면 4종의 문헌에서 선정하고 있는 인물들과 2종의 문헌에서만 수록된 인물들 사이에는 일정한 층차가 있음이 충분히 확인된다고 할 수 있다.

고려시대에 활약한 인물의 행적과 관련해서는 앞서 4종의 문헌이 편찬되기까지 나름대로 충분한 평가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볼 수

27) ‘신승겸’에 대한 주요 연구로는 다음의 논고가 참조된다.

- ① 민병하, 「신승겸과 공산동수 전투」, 『군사』 29, 1994, 국방군사연구소.
- ② 이학주, 「신승겸 설화의 영웅적 형상화 연구」, 『강원민속학』 20, 2006, 강원도민속학회.
- ③ 이재범, 「신승겸의 생애와 사후 추숭」 『사림』 44, 2013, 수선사학회.

있는 측면이 있다. 특히, 현전하는 자료와 연계하여 추론해본다면, 조선의 건국 전후부터 이루어진 고려시대사에 대한 정리 작업에 주목해볼 수 있을 듯하다. 즉, 조선왕조는 전대사의 교훈과 새로운 왕조 개창의 정당성을 선양하기 위하여 건국 직후부터 고려시대사의 편찬에 많은 노력을 경주하였다. 그 결과 많은 진통과 노력 끝에 1451년(문종 1)에 기전체 정사로 『高麗史』, 1452년(문종 2) 편년체로 『高麗史節要』가 편찬되었다. 뒤이어 1476년(성종 6) 삼국시대사로서 『三國史節要』를 완성하고, 이러한 일련의 성과들을 모아 1486년에는 『東國通鑑』을 편찬했다.

이로써 조선왕조로서는 일단 역대 왕조에 대한 일련의 평가 작업을 마무리한 셈으로서, 이 과정에서 당대에 활동했던 수많은 인물들에 대한 평가도 어느 정도 충분한 평가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기전체 사서인 『고려사』의 편찬에 많은 시간과 우여곡절이 있었던 것은 ‘本紀-世家-列傳’으로 이어지는 특유의 위계적 인물 평가의 고뇌가 개재된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²⁸⁾ 따라서 이 과정에서 고려시대에 전반에 걸쳐 외침과 반란을 극복해낸 주요 장수들에 대해서도 일정한 층차를 이루는 평가가 이루어졌을 것이다.

이제 마지막으로 2종 이하의 문헌에만 수록되고 있는 인물들의 차별성을 검토하여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학문성향이나 당색별 명장 인식의 차이점 등에 대해 검토해보고자 한다. 다음의 <표 ⑧>

28) 『고려사』 및 『고려사절요』의 인물 평가에 대한 주요 연구로는 다음의 논고가 참조된다.

- ① 김난옥, 「『고려사절요』 卒記의 기재방식과 성격」, 『한국사학보』 48, 2012, 고려사학회.
- ② 윤훈표, 「조선조의 《고려사》 열전 정리를 통해 본 역사 바로 세우기」, 『동방학지』 171, 2015, 연세대 국학연구원.
- ③ 강문식, 「조선 초기 지식인들의 고려시대 인식 : 《고려사》와 《고려사절요》」, 『나라경제』 143, 2015, 한국개발연구원.

에서 볼 수 있듯이, 2종 이하 문헌의 수록 인물 중에서 위의 두 계통의 자료는 전혀 중복되는 인물들이 없다는 점에서, 그만큼 명장 인식에도 분명한 차이점이 개재돼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인 논의를 위해 앞선 경우들과 마찬가지로 해당 인물에 대해 총괄적인 대비표를 제시해보면, 다음의 <표 ⑧>과 같다.

<표 ⑧> 2종 이하 수록 고려시대 명장 총괄 대비표

순번	인명	해동명장전 (1794)	대동장고 (1817경)	전고대방 (1910년대)	문헌편고 (1923)	수록 문헌수
1	신승겸			○	○	2
2	김락			○	○	2
3	문관			○	○	2
4	강극			○	○	2
5	척준경			○	○	2
6	이자성	○	○			2
7	원충갑	○	○			2
8	김득배	○	○			2
9	이방실	○	○			2
10	안우경	○	○			2
11	정지	○	○			2
12	송문주	○				1
13	최운해		○			1
소계		7명	7명	5명	5명	

먼저, 위의 <표 ⑧>을 통해 볼 수 있듯이, 2종의 문헌에서 선정되고 있는 인물들의 전체 면면은 ‘신승겸·김락·문관·강극·척준경·이자성·원충갑·김득배·이방실·안우경·정지’ 등 11명이다. 이들 가운데 『해동명장전』과 『대동장고』에 수록된 인물은 ‘이자성·원충갑·김득배·이방실·안우경·정지’ 등 6명이고, 『전고대방』과 『문헌편고』에 선정된 인물들은 ‘신승겸·김락·문관·강극·척준경’ 등 5명이다. 그리고 앞서 언급했듯이, 위의 두 계통의 문헌, 즉 소론-남인계의 명장전으로 규정했던 『해동명장전』·『대동장고』와 서인-노론계의 명장록으로 규정했던 『전고대방』·『문헌편고』의

인물 구성에는 전혀 연계성이 없음을 확인해볼 수 있다. 즉, 서로 당색을 달리하는 두 계통의 문헌에서 교차적으로 선정하고 있는 인물이 발견되지 않는다. 한편 1종의 문헌에서만 수록된 인물로서는 ‘송문주’와 ‘최운해’를 각각 『해동명장전』과 『대동장고』에서 선정하고 있다.

『해동명장전』과 『대동장고』에서 선정하고 있는 인물들을 살펴보면, ‘이자성·원충갑·김득배·이방실·안우경·정지’ 등 6명 모두 외침에 대응하여 전투지휘관으로 활약한 인물들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이들은 우연인지는 몰라도 시기적으로 몽고 침입 이후부터 고려말의 왜구 격퇴 과정에서 활약했던 전투 지휘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李子晟과 元冲甲은 蒙古의 强盛 및 그 여파에 따른 哈丹의 침입을 격퇴하는데 맹활약했던 인물들이고, 金得培와 李芳實은 紅巾賊 격퇴에 공헌한 장수들이다. 또 安遇慶과 鄭地도 각각 고려말의 홍건적 및 倭寇 격퇴에서 대승을 거두었던 인물들이다. 또한 각각 1종의 문헌에 수록되고 있는 宋文胄나 崔運海는 물론, 『대동장고』에서 처음 선정되어 이후 『전고대방』과 『문헌편고』에서도 연속적으로 수록되었던 ‘徐熙·智蔡文’도 모두 전투 지휘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서희의 경우 외교전략가로 잘 알려져 있지만, 麗遙1次戰爭에서의 외교 담판 이후 전투지휘관으로서도 탁월한 전공을 쌓았던 인물이다. 따라서 『해동명장전』과 『대동장고』의 명장 구성은 4종·3종의 문헌에 선정되고 있던 인물들과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탁월한 전공·군공을 세웠던 전투지휘관을 명장으로 선정하고 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대동장고』에서 『해동명장전』에 선정된 ‘송문주’를 대신해서 ‘최운해’를 선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앞서 『해동명장전』에서와 같이 北方 問題에 대한 관심뿐만이 아니라, 순조대 이후 고조되고 있던 異樣船 출몰에 따른 위기의식이 일정하게

반영된 측면이 아닌가 추정해볼 수 있을 듯하다.

반면에 『전고대방』과 『문헌편고』에서 수록하고 있는 ‘신승겸·김락·문관·강극·척준경’ 등 5명은 그 인적 구성이 일률적이지 않음을 살펴볼 수 있다. 즉, 申崇謙과 金樂이 무공도 뛰어났지만 예종이 두 사람을 기려 ‘悼二將歌’를 지었듯이 태조 왕건을 구출하고 대신 순국했던 ‘忠節’의 상징으로 더 잘 알려진 인물이었다면, 文冠과 康極은 전형적인 전투지휘관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또 拓俊京은 반란을 진압하여 王室을 보호한 인물에 해당된다. 이를테면, 전투 지휘관이면서도 국왕을 위해 전사하거나 왕실을 보호했던 인물에도 일정한 배려를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앞서 고대편의 명장 구성에서도 살펴볼 수 있었듯이, 『전고대방』과 『문헌편고』의 인물 구성은 『해동명장전』·『대동장고』에서와 같이 직접 전쟁·전투에 참여한 지휘관 뿐만이 아니라, 보다 다각적이고 균형적인 명장의 구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규정할 수 있을 듯하다.

4. 맺음말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이상으로 기왕에 조선시대 명장 연구에서 활용한 바 있던 4종의 고문헌, 즉 『海東名將傳』(홍양호, 1794년)·『大東掌攷』(홍경모, 1821년경)·『典故大方』(강효석, 1910년대)·『文獻便考』(이장훈, 1923년) 등에 수록된 고대·고려시대 명장의 구성 및 그 특징에 대해 살펴보고, 그 바탕 위에서 오늘날 명장 선정의 객관적 근거자료로서 활용 가능성에 대해 검토해 보았다. 구체적인 논의는 기왕의 조선시대 명장 연구에서와 마찬가지로 먼저 위 4종의 문헌자료에 수록된 인물들에 대해

전체적인 총괄 대비표를 작성한 다음, 그 대비표에 바탕하여 개별 인물의 수록 빈도, 문헌간 계통성 여부 및 수록 인물의 특성 등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고대·고려시대의 명장 분석에서도 기왕의 조선시대 명장 연구에서 검출되었던 것과 동일한 특징들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

먼저, 위 4종의 고문헌, 즉 『해동명장전』·『대동장고』·『전고대방』·『문헌편고』의 수록 인물은 고대의 경우 각각 9명·7명·13명·13명이었으며, 중복된 인물을 제외하면 모두 19명이었다. 특히, 『전고대방』과 『문헌편고』는 인원수뿐만이 아니라 인물 구성도 동일하였다. 고려시대의 명장은 각각 22명·24명·22명·22명이 수록되었으며, 중복된 인물을 제외하면 모두 30명이었는데, 『전고대방』과 『문헌편고』의 경우는 또다시 인원수뿐만이 아니라 인물 구성이 동일하였다. 그런데 『해동명장전』과 『대동장고』의 인물 구성도 그 편차가 각각 1명과 2명의 차이에 불과하여 사실상 인물 구성이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었다. 따라서 위 4종의 문헌은 『전고대방』과 『문헌편고』를 하나의 동일 계통으로, 그리고 『해동명장전』과 『대동장고』가 또 하나의 동일 계통으로 분류된다는 점에서 기왕의 조선시대 명장 연구에서와 마찬가지로 두 계통으로 분류되는 문헌별 계통성을 재확인 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위 4종의 문헌 또는 두 계통의 자료에서 공통적으로 수록하고 있는 인물을 살펴보면 우선 4종의 문헌에서 모두 선정하고 있는 인물은 고대의 경우 ‘김유신·을지문덕·양만춘’ 등 3명이었고, 고려시대는 ‘유금필·양규·강감찬·윤관·오연충·김부식·조충·김취려·박서·김경손·김방경·한희유·정세운·안우·최영’ 등 모두 15명으로 전체 인원의 과반수에 달했다. 또 두 계통의 문헌, 즉 3종의 문헌에서 선정하고 있는 인물로는 고려시대만 ‘서희·지채문’ 등 2명이었다. 종합하면, 3종 이상의 문헌에 수록된 인물의 총수는 고대가 3명(16%), 고려시대가 무려 17명(57%)에

이르렀다. 그런데 이들은 모두 고대사를 대표하는 전쟁인 3국통일 전쟁 및 對隨·對唐戰爭에서 대첩을 거둔 인물이거나, 고려시대의 경우 후삼국통일전쟁, 거란·몽고·홍건적·왜구 격퇴 등에서 대승을 거둔 인물들이라는 점에서 전공·군공이 뚜렷하거나 전쟁·전투의 규모가 클수록 시대나 정파 등을 초월하여 공통적으로 선정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일반적 예상을 충족하고 있다는 점에서 조선시대 명장 분석에서 검출되었던 특성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두 계통으로 구분되는 『해동명장전』·『대동장고』와 『전고대방』·『문헌편고』에서 별개로 수록되고 있는 인물은 고대의 경우 전자가 ‘부분노·심나·소나·흑치상지·장보고·정년’ 등 6명이었고, 후자는 ‘거칠부·사기·비령자·온달·김백정(진평왕)·김춘추(태종무열왕)·계백·임강수(강수)·김인문·김암’ 등 10명이었다. 또 고려시대의 경우는 전자가 ‘이자성·원충갑·김득배·이방실·안우경·정지·송문주·최운해’ 등 8명이었고, 후자는 ‘신송겸·김락·문관·강극·척준경’ 등 5명으로서 두 계통의 문헌간에는 상호 교차적으로 수록된 인물이 전혀 없었다.

전자의 경우 모두 직접 전투를 지휘한 장수들이면서 대중국 관계에서 활약한 인물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특징을 보여주는 반면에, 후자의 인물들은 전쟁·전투를 지휘한 인물뿐만 아니라 충절이나 왕권 보호 및 외교가, 군사전략가로 활동한 인물 등 다양한 구성을 보여주었다. 이렇듯 두 계통의 문헌에서 2종 이하의 문헌에 수록된 인물들간에 전혀 교차성이 없는 까닭으로는 시대와 정파의 제약성, 즉, 기왕의 조선시대 명장 분석에서와 마찬가지로 『해동명장전』과 『대동장고』를 소론-남인계열의 명장전으로, 『전고대방』과 『문헌편고』가 서인-노론계통의 명장록에 해당하기 때문으로 추론해볼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는, 『해동명장전』·『대동장고』·『전고대방』·『문헌편

고』 등 역대의 명장전 내지 명장록도 4종·3종의 문헌에 수록된 인물들에서는 전공·군공의 대소 및 전쟁·전투의 규모와 밀접한 연관성을 기대하는 일반적 예상과 일치하였던 반면에, 두 계통으로 구분되는 2종 이하의 문헌에 수록된 인물들간에는 전혀 상호 교차성이 없었다는 점에서 하나의 시대의식을 반영하는 역사적 사례에 불과할 수 있음을 재확인하였던 셈이다. 따라서 전쟁사·군사사를 포괄하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논의에 바탕하여 고대·고려시대의 명장을 선정하는 문제 또한 오늘날 군사사 연구자들의 몫임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원고투고일: 2016.1.10, 심사수정일: 2016.2.18, 게재확정일: 2016.2.19.]

주제어 : 고문헌 자료, 역사적 방법론, 고대 명장, 고려시대 명장, 『해동명장전』, 『대동장고』, 『전고대방』, 『문헌편고』, 소론-남인계열 명장전, 서인-노론 계열 명장록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ABSTRACT>

Renowned generals of Ancient & Goryeo era in old literatures

Jeon, Ho-soo

The following study aims how 4 old literatures, 『Haedongmyeongjangjeon』 (Hong Yang-ho, 1794)·『Daedongjanggo』 (Hong Gyeong-mo, ca. 1821)·『Jeongodaebang』(Kang Hyo-seok, ca. 1910)·『Munheonpyeongo』 (Lee Jang-hun, 1923) handle the generals from Ancient to Goryeo era in figure composition and character. Upon a rating table showing included figures in each literature it reviews figure composition and characteristic in included frequency.

First, the 4 old literature, 『Haedongmyeongjangjeon』·『Daedongjanggo』·『Jeongodaebang』·『Munheonpyeongo』 contain respectively 9·7·13·13 generals from Ancient era and it is all 19 persons except repeated figures. For the Goryeo era each book contains respectively 22·24·22·22 figures and it is all 30 except repeated. With the 2(Goryeo) or 1(Ancient) differential of the included figures 『Hae dongmyeongjangjeon』 & 『Daedongjanggo』 can be seen as the same.

As the result 4 literatures are to divided two different political position : 『Munheonpyeongo』 & 『Jeongodaebang』 incline to the Soron-Namin(少論-南人), whereas 『Haedongmyeongjangjeon』 & 『Daedongjanggo』 to the Sein-Noron(西人-老論).

Second, the figures who in all 4 literatures described are for the Ancient era 3, namely 'Kim Yu-sin·Eulji Mundeok·Yang Man-chun' and for the Goryeo era 15, that are Yu Geum-pil·Yang Gyu·Gang Gam-chan·Yun Gwan·O Yeon-chong·Kim Bu-sik·Jo Chung·Kim Chwi-ryeo·Pak Seo·Kim Gyeong-son·Kim Bang-gyeong·Han Hui-yu·Jeong Se-un·An U·Choe Yeong'.

The figures noted for Goryeo era in 3 literatures are just 2 people : Seo Hui and Ji Chae-mun'. As the Ancient figures 『Haedongmyeongjangjeon』 & 『Daedongjanggo』 refer 6 persons from Ancient era : 'Bubunno · Simna · Sona · Heukchi Sang-ji · Jang Bo-go · Jeong Nyeon' while 『Jeongodaebang』 & 『Munheonpyeongo』 mention 10 : 'Geochilbu · Sagi · Biryongja · Ondal · Kim Baek-jeong(King Jinpyeong) · Kim Chun-chu(King Taejong Muyeol) · Gyebaek · Im Gangsu(强首) · Kim In-mun · Kim Am'. For the Goryeo era 『Haedongmyeongjangjeon』 & 『Daedongjanggo』 include 8 persons : 'Lee Ja-seong · Won Chung-gap · Kim deuk-bae · Lee Bang-sil · An U-kyeong · Jeong Ji · Song Mun-ju · Choe Un-hae', whereas 『Jeongodaebang』 & 『Munheonpyeongo』 5 : 'Sin Sung-kyeom · Kim Rak · Mun Gwan · Gang Geuk · Cheok Jun-gyeong'. The figure from Ancient era 'Bubunno · Jeong Nyeon' and from Goryeo era 'song Mun-ju · Choe Un-hae' are just mentioned in 1 literature.

The figures who are included in all 4 literature won the unified war of Three Kingdoms in Ancient period or fought in the Later Three Kingdoms and war against foreign powers as well in Goryeo era in common. The general expectation that these people have a lot to do with outstanding achievement in a battle matches up well.

To conclude, it is reconfirmed then again in this study that the general literature of all time such as 『Haedongmyeongjangjeon』 reflect nothing else than the awareness of time. It is therefore the task of the present-day Military Historian to select the generals of the Ancient to Goryeo era upon synthetic and systematic discussion covered War and Military history.

Key words : old literatures, historical method, renowned generals in Ancient era
renowned generals in Goryeo era, 『Haedongmyeongjangjeon』
『Daedongjanggo』, 『Jeongodaebang』, 『Munheonpyeongo』
Secin-Noron factional renowned generals who's who
Sorun-Namin factional renowned generals literature

1376년 鴻山 전투의 意義와 戰場에 대한 재고찰

임 형 수*

1. 머리말
2. 왜구의 금강 유역 침입과 홍산 전투의 전개 과정
3. ‘鴻山大捷’의 결과와 의의에 대한 재검토
4. 홍산 전투의 戰場 문제
5. 맺음말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1. 머리말

14세기 중반부터 동아시아는 日本의 南北朝 내란에서 파생된 일종의 무장 해적 집단인 倭寇로 인하여 오랜 기간 동안 극심한 침탈에 시달려야만 했다. 한반도는 지리적 특성상 3면이 바다로 되어 있어서 거의 모든 지역이 해양을 통해 내침하는 왜구의 약탈로부터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었다. 본래 왜구의 침략은 삼국시대

* 목원대학교 역사학과 강사

부터 있었던 것이지만 1350년(충정왕 2) 이후에는 역사상 유례를 찾을 수 없을 만큼 창궐하였다. 왜구는 처음에 남해안 일부 지방을 노략질하기 시작하여 점차 전국의 연해 지역으로 약탈을 확대해나갔고 심지어 수도인 開京을 압박하기도 하였다. 특히 禡王代(1374~1388)에는 침략 규모와 횡수가 이전에 비하여 크게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내륙 깊숙이 횡행하면서 온갖 만행을 저지르는 등 더욱 난폭해지는 성향을 띄었다. 당시 고려 조정은 왜구를 막기 위해서 일본에 사절을 파견하여 禁壓을 요청하거나 軍役을 개편하고 水軍을 육성하는 등 여러 가지 방책을 마련하였으며, 동시에 적극적인 무력 토벌을 단행하여 각지에서 상당한 승전을 거두기도 하였다.

종래 연구는 왜구로 인한 피해상과 고려의 극복 노력을 검토¹⁾하거나 왜구의 주체와 성격 등 존재 자체를 규명²⁾하는 데에 집중하

1) 申奭鎬, 「麗末鮮初의 倭寇와 그 對策」, 『國史上의 諸問題』 3, 國史編纂委員會, 1959. 李鉉淙, 「倭寇」, 『한국사』 8, 國史編纂委員會, 1974. 孫弘烈, 「高麗末期の倭寇」, 『史學志』 9, 1975. 羅鐘宇, 「高麗 末期의 麗·日關係—倭寇를 中心으로—」, 『全北史學』 4, 1980 ; 『韓國中世對日交涉史研究』, 圓光大學校出版局, 1996. 韓容根, 「高麗末 倭寇에 對한 小考」, 『慶熙史學』 6·7·8合輯, 1980. 閔賢九, 「高麗後期の 軍制」, 『高麗軍制史』, 陸軍本部, 1983. 車勇杰, 「高麗末 倭寇防守策으로서의 鎮戍과 築城」, 『史學研究』 33, 1984. 方相鉉, 「朝鮮前期 水軍制度」, 民族文化社, 1993. 朴宗基, 「고려 말 왜구와 지방사회」, 『한국중세사연구』 24, 2008. 이재범, 「고려 후기 왜구와 해양방어대책」, 『이순신연구논총』 13, 2010. 김보한, 「고려·조선의 對일본 외교와 왜구—13~15세기 금구(禁寇) 외교와 그 성과를 중심으로—」, 『한일관계사연구』 47, 2014.

2) 靑山公亮, 『日麗交涉史の研究』, 明治大学文学部文学研究所, 1955. 田中健夫, 『中世海外交渉史の研究』, 東京大学出版会, 1959. 中村榮孝, 『日鮮關係史の研究』 上, 吉川弘文館, 1965. 田村洋幸, 『中世日朝貿易の研究』, 三和書房, 1967. 村井章介, 『アジアのなかの中世日本』, 校倉書房, 1988. 川添昭二, 「倭寇」, 『九州の中世社会』, 海島社, 1997. 金琪燮, 「14세기 倭寇의 동향과 고려의 대응」, 『韓國民族文化』 9, 1997. 李頌, 「倭寇と日麗關係史」, 東京大学出版会, 1999. 김보한, 「中世麗·日 관계와 倭寇의 발생 원인」, 『왜구·위사 문제와 한일관계』, 景仁文化社, 2005. 이영, 『왜구와 고려·일본 관계사』, 해안, 2011. 李泰勳, 「〈삼도왜구〉의 〈삼도〉에 대한 이영 說의 재검토」, 『한일관계사연구』 43, 2012. 이영, 『팍스 몽골리카의 동요와 고려 말 왜구—동아시아의 파이렛즈(PIRATES)와 코르세어(CORSAIRS)—』, 해안, 2013.

었다. 근자에는 사료상의 왜구 침입 양상과 토벌 과정이 체계적으로 정리³⁾되는 한편, 특정 지역에서 벌어진 전투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검토⁴⁾가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이러한 연구 경향에 힘입어 본고는 고려와 왜구 간의 전투에 대하여 몇 가지 의문점을 제기하고 재검토함으로써 문헌 해석의 실증적인 측면을 강화하려고 한다. 그 일환으로 우선 왜구 토벌에서 가장 빛나는 전적 가운데 하나인 홍산 전투를 살펴볼 것이다.

홍산 전투는 1376년(우왕 2) 7월에 崔瑩이 지금의 忠淸南道 扶餘郡 鴻山面에서 왜구를 소탕한 사건을 말하며 羅世·崔茂宣의 鎭浦大捷, 李成桂의 荒山大捷, 鄭地의 南海大捷 등과 함께 소위 ‘大捷’으로 손꼽힌다. 그런데 홍산 전투와 관련된 사료를 찾아보면 전투의 규모나 전과조차 기록되어 있지 않는 등 ‘대첩’의 면모가 뚜렷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아울러 홍산 전투가 벌어진 장소로 알려져 있는 北村里 소재의 胎峰山城에 대해서도 충분한 문헌적 근거가 뒷받침되어 있지 않을뿐더러 몇 가지 석연치 않은 점이 발견된다. 이러한 두 가지 문제에 착안하여 먼저 홍산 전투가 일어난 배경과 전개 과정을 설명한 다음, ‘대첩’이라는 평가에 대해서 다시 논해보고, 차제에 태봉산성이 과연 홍산 전투의 戰場으로 타당한지를 면밀히 검토하고자 한다.

3) 崔炳鉦 외, 『倭寇討伐史』, 國防軍史研究所, 1993. 李頴, 위의 책, 1999, 240~256 쪽. 정영현, 「고려 禑王代 倭寇의 동향과 성격 변화」, 『역사와 세계』 33, 2008. 이영, 「왜구의 단계별 침구 양상과 고려의 대응」, 『동북아문화연구』 31, 2012.

4) 李在範, 「고려말 조선전기의 왜구와 사천」, 『軍史』 58, 2006. 이영, 『잊혀진 전쟁 왜구—그 역사의 현장을 찾아서—』, 에피스테메, 2007. 이재준, 「高麗 末 金成雨 부대의 왜구토벌에 관한 군사학적인 검토」, 『軍史』 80, 2011. 윤용혁, 「고려 말의 왜구와 서산 분석사」, 『역사와 담론』 69, 2014. 이정란, 「왜구의 충청 지역 침구의 시기별 추이와 고려의 대응」, 『사림』 52, 2015. 허인욱, 「고려 말 왜구의 전북지역 침입 연구—全州를 중심으로—」, 『전북사학』 46, 2015.

2. 왜구의 금강 유역 침입과 홍산 전투의 전개 과정

1374년(공민왕 23)에 恭愍王이 시해되자 우왕은 10세의 어린 나이로 守侍中 李仁任의 추대를 받아 즉위하였다. 그런데 北元은 공민왕의 對明外交에 불만을 가지고 있던 터라 瀋王 暠의 손자인 脫脫不花를 고려국왕으로 옹립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⁵⁾ 1375년(우왕 1) 8월에 瀋王 母子가 遼陽의 信州에 당도하자 고려의 혼란은 가중되었고 여러 道의 병사를 징집하여 북방으로 보냄으로써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였다. 9월에 수도의 전력이 약화된 틈을 타서 왜구는 德積島와 紫燕島(영종도)에 결집하였고 호시탐탐 개경을 침입할 기회를 엿보았다. 고려 조정은 여러 道의 병사를 다시 징발하여 최영과 이성계로 하여금 각기 東江과 西江을 방어하게 하였는데, 얼마 되지 않아 병사를 되돌려 보냈다는 기록⁶⁾이 있어서 왜구의 위협은 일단 사라진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두 섬에 결집한 왜구는 어떻게 되었을까. 이들은 개경 진입이 어렵게 되자 그 반대 방향에 있는 楊廣道 연안을 공격 대상으로 삼았다.⁷⁾ 같은 달에 왜구가 寧州(천안시), 木州(천안시 목천읍), 瑞州(서산시), 結城(홍성군 결성면)을 침범했으며 점차 남쪽으로 내려오는 경향을 띄고 있기 때문이다. 이때 양광도의 방어를 담당한 인물은 楊廣道安撫使 鄭庇와 楊廣道都巡問使 韓邦彦이었는데, 그들은 결국 10월에 憲府로부터 왜구를 막지 못했다(不能禦倭)는 탄핵을 받아 戊卒로 編配되었고 대신에 禮儀判書 朴仁桂가 楊廣道安撫使로 임명되었다. 박인계는 부임하자마자 곧바로 왜선 2척을

5) 金惠苑, 『高麗後期 瀋王 研究』, 梨花女子大學校 史學科 博士學位論文, 1999, 139쪽.

6) 『高麗史』 권133, 列傳46 辛禡 원년 9월.

7) 왜구는 2년 뒤인 1377년에도 江華에서 楊廣道에 이르는 濱海 州郡을 함락시켰는데, 그 이유는 최영이 군사를 거느리고 막으려 내려온 틈을 타서 京城을 도모하려는 것이었다(『高麗史節要』 권30, 辛禡 3년 5월).

섬멸하는 공을 세웠으며 민심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어진 장수(賢將)’로 일컬어졌다고 전한다.⁸⁾ 아울러 고려 조정은 왜구가 양광도 해안 지역을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 그에 대한 방비책으로써 12월에 判典儀寺事 金仕寶를 兵馬使로 임명하여 양광도의 濱海州縣을 노략질하는 왜구를 막도록 하였고,⁹⁾ 이듬해 4월에는 郭璇을 楊廣全羅道體察使로 임명하여 장수와 수령들의 대비 상황을 점검하게 하는 조치를 취하였다.¹⁰⁾

1376년(우왕 2)부터 왜구는 양광도 해안 지역을 침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錦江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강과 인접한 지역을 약탈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여 본격적인 내륙 침입을 감행하였다. 6월에 林州(부여군 임천면)를 침략하기 시작하여 7월에는 扶餘, 公州, 石城(부여군 석성면), 朗山(익산시 낭산면), 豐堤(익산시 용안면) 등 금강 유역의 여러 주현을 공격하고 있는 것이다.¹¹⁾ 당시 왜구의 침입 지역을 지도에 표시해보면 다음과 같다.

〈지도 1〉 1376년 6~7월 왜구의 금강 유역 침입 상황



※ 지도에 표시된 지명은 왜구가 침입한 지역이고 원 안의 숫자는 사료 상에 기재된 순서를 나타낸다.

8) 『高麗史』 권133, 列傳46 辛禡 원년 11월·2년 7월.

9) 『高麗史』 권133, 列傳46 辛禡 원년 12월.

10) 『高麗史』 권133, 列傳46 辛禡 2년 4월.

11) 『高麗史節要』 권30, 辛禡 2년 6월·7월.

위의 지도에 표시된 지역을 살펴보면 대체로 금강에 인접한 지역이 왜구의 공격 대상이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침입 순서가 반드시 금강의 상류로 거슬러 올라가는 흐름과 일치하지는 않고 있다. 이는 아마도 대규모의 왜구 집단이 이동하면서 몇 개의 그룹으로 나뉘어 인근 군현을 동시다발적으로 공략한 것으로 보인다.¹²⁾ 그리고 눈에 띄는 점은 ㉓ 鼎峴이나 ㉔ 開泰寺 같이 州縣이 아닌 경우가 있다는 사실이다. 정현은 공주시 탄천면 정터리 지역에 있는 고개이다. 우리말로 '솔고개'라고 부르며 부여에서 공주로 넘어가는 길목에 자리 잡고 있다. 왜구는 부여를 노략질하고 다음으로 공주에 침입하였는데, 牧使 金斯革이 이곳 정현에서 맞서 싸웠으나 패배하는 바람에 마침내 공주가 함락되었다고 한다.¹³⁾ 이는 왜구가 금강을 따라 내륙으로 침입하는 과정에서 수로뿐만 아니라 육로를 통해서도 다른 지역으로 이동했음을 보여준다.

마찬가지로 왜구는 석성을 노략질하고 내륙 안쪽에 위치한 連山(논산시 연산면)으로 가서 開泰寺를 공격하였다. 당시 개태사는 紅巾賊의 침입 이후 개경의 奉恩寺를 대신하여 太祖의 眞影을 봉안한 眞殿寺院으로 기능하고 있었으며,¹⁴⁾ 江華로 수도를 옮기려 할 때나 淸州에서 개경으로 還都할 때에도 개태사의 태조 영전에 가서 점을 치게 하는 등¹⁵⁾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찰이었다. 따라서 개태사가 大刹의 위상을 가지고 있었던 만큼 식량이나 재물이 많았을 것이며 그로 인해 왜구의 주요 약탈 대상이 되었으리라고 짐작된다. 이때 양광도 지역의 방어 임무를 맡은 박인계는 왜구가 석성에서 연산으로 향해 온다는 소식을 듣고 개태사를 지키기 위해서 그들과 맞서 싸우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러나 결국 박인계가 전투

12) 정영현, 앞의 글, 180쪽.

13) 『高麗史』 권133, 列傳46 辛禡 2년 7월.

14) 김갑동, 「開泰寺의 創建과 그 動向」, 『白山學報』 83, 2008, 382쪽.

15) 『高麗史』 권40, 世家40 恭愍王 11년 8월 庚戌·12년 정월 壬寅.

중에 낙마하여 피살됨으로써 개태사는 왜구의 손에 도륙되고 말았다. 이후 왜구는 남쪽으로 내려가서 (7)낭산과 (8)풍제 등 금강의 지류인 지금의 익산시 山北川 주변 지역을 약탈하였다.

한편 최영은 지난해 왜구가 양광도의 연해 주현을 침입했을 때부터 이미 한 차례 토벌을 자청한 일¹⁶⁾이 있었는데, 개태사와 박인계의 비보가 전해지자 60여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다시 직접 양광도의 왜구를 소탕하려고 하였다. 우왕과 여러 장수들은 노령을 이유로 만류하였으나 그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이유를 들어서 거듭 자신의 출정을 요청하였다. 첫째는 지금 시기를 놓치고 막지 않는다면 나중에 왜구를 도모할 수 없고, 둘째로 다른 장수는 승리를 장담할 수 없으며, 셋째는 병사들도 평소에 훈련되지 않아서 쓸 수 없다는 것¹⁷⁾이었다. 마침내 우왕이 더 이상 말리지 못하고 허락하니 최영은 麾下를 이끌고 양광도로 급히 내려갔다. 이후 홍산 전투의 전개 과정에 대해서는 아래의 기록이 참고 된다.

가. 최영이 楊廣道都巡問使 崔公哲, 助戰元帥 康永, 兵馬使 朴壽年 등과 함께 홍산에 이르렀는데, 왜구가 먼저 험하고 좁은 곳에 의거하였다(倭先據險隘). 3면이 모두 절벽이고 오직 길 하나만 통할 수 있었다. 여러 장수들이 두려워하고 겁내어 나가지 못하자 최영이 몸소 사졸에 앞서서 날카롭게 돌진하니 적은 바람에 쓸리듯 넘어졌다. 적 하나가 숲 속에 숨어서 최영을 쏘아 입술을 맞혔는데, 피가 철철 흐르는데도 얼굴빛이 변하지 않고 적을 쏘니 시위 소리와 함께 쓰러뜨렸다. 이에 화살을 뽑고 더욱 힘을 내어 싸우니 마침내 적들을 크게 패배시키고 거의 다 없애버렸다. 사람을 보내어 승첩을 올리니 최영에게 옷·술·안장·말을 하사하였다. — 『高麗史節要』 권30, 辛禡 2년 7월.

16) 『高麗史節要』 권30, 辛禡 원년 9월.

17) 『高麗史』 권113, 列傳26 崔瑩, “倭屠連山開泰寺元帥朴仁桂敗死 瑩聞之 自請擊之 禍以老止之 瑩曰 蕞爾倭寇肆暴如此 今不制後必難圖 若遣他將未必制勝 兵不素鍊亦不可用 臣雖老 志則不衰 但欲安宗社衛王室耳 願亟率麾下往擊 請之再三 禍許之”

나. 당시 왜구는 노략자를 배에 태우고 장차 돌아가려는 듯이 내보이면서 몰래 정예 수백 명을 보내어 깊이 쳐들어가 노략질하였는데, 가는 곳마다 바라보기만 하고 감히 막는 자가 없었다. 홍산에 이르자 사람들을 크게 죽이거나 잡아가는 등 기세가 매우 강성하였다. 최영이 양광도도순문사 최공철, 조전원수 강영, 병마사 박수년 등과 함께 홍산에 갔다. 전투에 앞서 **최영이 먼저 험하고 좁은 곳에 의거하였는데(瑩先據險隘)** 3면이 모두 절벽이고 오직 길 하나만 통할 수 있었다. 여러 장수들이 두려워하고 겁내어 나가지 못하자 최영이 몸소 사졸에 앞서서 날카롭게 돌진하니 적은 바람에 쓸리듯 넘어졌다. 적 하나가 숲 속에 숨어서 최영을 쏘아 입술을 맞혔는데, 피가 철철 흐르는데도 얼굴빛이 변하지 않고 적을 쏘니 시위 소리와 함께 쓰러뜨렸다. 이에 맞은 화살을 뽑고 최영이 더욱 힘을 내어 싸우니 마침내 적들을 크게 깨뜨리고 사로잡거나 베어서 거의 다 없애버렸다. 최영이 判事 朴承吉을 보내어 승첩을 올리자 우왕은 크게 기뻐하며 박승길에게 白金 50兩을 하사하였고 三司右使 石文成을 보내어 최영에게 옷·술·안장·말을 하사하였다. 또한 醫 魚伯評을 보내어 약을 가지고 가서 상처를 치료하게 하였다. —『高麗史』 권113, 列傳26 崔瑩.

위의 두 사료는 대체로 내용이 일치하고 있으나 밑줄 친 부분에서 누가 먼저 험하고 좁은 곳에 의거하였는지가 달리 기록되어 있다. 선행 연구에서는 여러 장수들이 겁내어 진격하지 못한 점을 들어서 문맥상 『高麗史節要』의 내용이 보다 논리적이며, 『高麗史』의 ‘**瑩先據險隘**’라는 기록에 ‘**瑩**’은 ‘**倭**’를 옮겨 적는 과정에서 생겨난 실수로 보았다.¹⁸⁾ 이러한 지적은 매우 타당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사료 나)를 보면 분명히 왜구가 최영보다 먼저 홍산에 당도하여 노략질을 자행하고 있었다. 더욱이 험하고 좁은 곳은 방어에 유리한 형세인데 백전노장인 최영이 굳이 그와 같은 지리적 이점을 버리고 겁을 내는 장졸들의 선두에 서서 용맹하게 돌격할 필요가 있었을까. 관련 문헌을 보면 ‘홍산 전투에서 최영과 휘하 사졸이 앞을 다투어 말을 달려서 짓밟았다’라는 기록¹⁹⁾이 있다. 여기에서 최

18) 李頴, 「홍산·진포·황산 대첩의 역사지리학적 고찰」, 『日本歴史研究』 15, 2000, 7~8쪽.

19) 『高麗史節要』 권30, 辛禰 3년 3월, “時有童子 自賊中逃還 諸將召問賊所爲 對曰

영과 함께 돌격한 휘하 사졸이 騎兵이었다는 점은 최영이 아니라 왜구가 험하고 좁은 곳에 의거하였다는 가능성을 높여준다.

이처럼 홍산 전투는 금강 유역에 침입한 왜구에 의하여 박인계가 피살되고 개태사가 약탈당한 것이 원인이었으며, 최영이 노령을 무릅쓰고 출전하여 지리적 우세를 안고서 농성하는 왜구를 맞아 용맹을 발휘함으로써 고려군의 승리로 귀결되었다. 8월에 최영이 개경으로 돌아오자 우왕은 마치 詔使를 맞이하는 예식처럼 성대한 개선식을 열어주었으며, 9월에는 전공을 논하여 최영을 侍中으로 임명하려 했으나 그가 굳이 사양하여 鐵原府院君으로 삼고 나머지 군사들은 차등 있게 제수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홍산 전투의 論功行賞은 그리 공평하지 않았던 듯하다. 위의 사료에 이름이 나타나 있지 않은 全羅道元帥 柳滌이 密直副使商議로 임명되었는데, 유영은 최영의 처조카(妻姪)로서 최영이 아꼈고 조정에서 그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자 超拜하였다는 것이다.²⁰⁾ 또한 당시 이인임과 池癩이 政房提調로 있으면서 권세를 휘둘러 종군하지 않아도 벼슬을 얻은 자가 심히 많았다는 기록²¹⁾이 확인된다. 아무튼 9월의 논공행상을 끝으로 홍산 전투는 마무리되었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3. ‘鴻山大捷’의 결과와 의의에 대한 재검토

최영의 홍산 전투는 비교적 이른 시기부터 나세 등의 진포싸움, 이성계의 황산대첩, 정지의 남해대첩 등과 함께 ‘大捷’으로 거론

賊常言所可畏者 唯白髮崔萬戶而已 曩日鴻山之戰 崔萬戶至 則麾下士卒爭先躍馬 蹴踏我衆 甚可畏也”

20) 『高麗史』 권113, 列傳26 崔瑩.

21) 『高麗史節要』 권30, 辛禰 2년 9월.

되어 40년 동안에 걸친 왜구와의 싸움에서 가장 大書特筆할 만하다고 평가되었다.²²⁾ 이러한 시각은 1960~70년대의 民族主義的 歷史觀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후 왜구와 관련된 연구나 서술²³⁾에서 그대로 답습되었고, 홍산 전투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는 점차 ‘대첩’으로 굳어지게 되었다. 주지하듯이 대첩의 사전적 의미는 큰 승리를 뜻하며 대개 다수의 적을 상대로 꺾을 만한 전과를 거두거나 전쟁의 향방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 붙일 수 있는 말이다. 기존 연구에 의하면 홍산 전투의 승리는 왜구에게 최영에 대한 공포를 심어주었고 왜구의 세력이 점차 약해지는 계기로 파악되었다.²⁴⁾ 군사적인 시각에서도 홍산 전투의 승리가 금강 연안의 내륙 지역으로 진출하려는 왜구의 기도를 저지하였을 뿐 아니라 양광도 지역 일대에 침구한 왜구의 세력을 크게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설명되었다.²⁵⁾ 최근에는 홍산 전투가 왜구 병력의 규모에 승리의 의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적의 사기를 꺾고 아군의 자신감을 회복케 한 점에서 ‘큰 승리(大捷)’로 평가될 가치가 있다고 파악하기도 하였다.²⁶⁾ 이러한 연구 경향을 반영하여 과거 고등학교 국사 교과서와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같은 교육 관련 도서는 물론이고 최근 육군본부 군사연구소에서 발간된 軍史概說書인 『한국군사사』에서도 홍산 전투는 ‘홍산대첩’으로 표기되었다.²⁷⁾

22) 金庠基, 『高麗時代史』, 東國文化社, 1961, 769쪽.

김상기는 자신의 사관이나 역사이론에 대하여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여러 논고를 통해서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비롯하여 외세의 침략에 능동적으로 저항한 역사적 사실을 부각시킨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음이 확인된다(이성규, 「김상기」, 『한국의 역사가와 역사학(下)』, 창작과비평사, 1994, 270~272쪽). 왜구와의 싸움에서 특별히 ‘대첩’을 언급한 것도 그러한 범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23) 李鉉淙, 앞의 책, 223쪽. 孫弘烈, 앞의 글, 44~47쪽.

24) 孫弘烈, 앞의 글, 45쪽.

25) 崔炳鈺 외, 앞의 책, 101쪽.

26) 이영, 앞의 책, 2007, 127~128쪽.

최영이 홍산 전투에서 왜구를 격퇴한 사실에 대하여 관련 문헌을 보면 ‘크게 깨뜨렸다(大破)’²⁸⁾ 또는 ‘크게 패배시켰다(大敗)’²⁹⁾ 등으로 결과를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문구는 자연히 ‘대첩’의 인상을 심어주기에 충분하지만, 동시대에 있었던 전투에서 그와 같은 사례는 간간히 확인된다. 홍산 전투와 시기적으로 가장 가까운 예를 들면 석달 뒤에 邊安烈, 羅世, 趙思敏 등이 扶寧(부안군)을 침입한 왜구를 ‘크게 깨뜨렸다(大破)’는 기록이 보인다.³⁰⁾ 따라서 ‘대첩’의 여부는 단순 기록만을 토대로 판가름할 수 없고 전투의 규모와 성과를 비롯하여 전세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다양한 검토가 요구된다.

먼저 홍산 전투에서 고려군이 거둔 전과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앞서 사료 나)의 첫 부분을 보면 왜구가 노약자를 배에 태우고 돌아가는 것처럼 내보이며 몰래 정예 수백 명을 보냈다는 내용이 주목된다. 그리고 언급하였듯이 금강 유역을 침입한 왜구는 일정한 방향으로 단일하게 움직인 것이 아니라 동시다발적으로 주변 지역을 약탈하였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한다면 소기 목적을 어느 정도 달성하고 노약자를 배에 태워서 돌아가는 왜구의 무리가 바로 금강 유역의 침입을 주도한 本隊에 해당하며, 홍산에 침입한 정예는 주변 지역으로 흩어져 약탈 활동을 전개한 일종의 別動隊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최영이 홍산 전투를 마치고 개선했을 때에 우왕은 주연을 배설해주었는데, 여기에서 우왕과 여러 재상들이 최영에게 적의 규모를 물어보았다. 이에 대해 최영은 적의 수를 알 수 없으나 그리 많지 않았고 만약 많았다면 자신이 살지 못했을 것이라고

27) (제6차 교육과정)『고등학교 국사(상)』, 교육부, 1996, 168쪽 지도 <홍건적과 왜구의 격퇴>.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편찬부,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25,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97쪽. 육군본부 군사연구소, 『한국군사사4 고려II』, 경인문화사, 2012, 266쪽 지도 <홍건적과 왜구의 침입>.

28) 『高麗史』 권113, 列傳26 崔瑩.

29) 『高麗史節要』 권30, 辛禡 2년 7월.

30) 『高麗史節要』 권30, 辛禡 2년 10월, “倭寇扶寧 邊安烈羅世趙思敏等 進擊大破之”

답변하였다.³¹⁾ 따라서 최영이 섬멸한 홍산의 왜구는 어디까지나 별동대에 불과하며 수백 명으로 기록되었으니 아무리 많아도 1천 명을 넘지는 않았을 것이다.³²⁾ 아울러 최영이 고전했다는 언급으로 미루어 보아서 최영의 휘하 병력도 그와 비교하여 비슷하거나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았으리라고 짐작된다.

최영이 홍산에서 격퇴한 왜구의 규모에 대해서는 ‘사로잡거나 베어서 거의 다 없애버렸다(俘斬殆盡)’라는 기록이 전부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다. 홍산 전투와 함께 ‘대첩’으로 열거된 전투 가운데 전공이 비교적 확실하게 기록된 남해대첩을 살펴보면, 鄭地는 겨우 전함 47척을 이끌고 적선 120척을 맞아 싸웠는데 적선 1척당 140명이 승선한 것을 총 17척이나 격파했다고 하였으니³³⁾ 거의 2천 4백 명을 섬멸한 셈이다. 진포대첩은 羅世·沈德符·崔茂宣 등이 1백 척의 전함을 이끌고 진포에 정박한 적선 5백 척을 화포를 이용하여 불사르니 살아남은 적이 330여 명에 불과하였다고 한다.³⁴⁾ 황산대첩은 李成桂 등이 10배나 되는 왜구와 맞서 싸워 이겼는데, 적은 겨우 70여 명만 지리산으로 달아났고 1천6백여 필의 말을 노획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³⁵⁾ 특히 이들 경우는 다소 과장된

31) 『高麗史』 권113, 列傳26 崔瑩, “及入見禍賜酒問曰 賊衆幾何 對曰 未能的知其數然不多 諸相又問曰 賊若多此老幾不生矣”

32) 홍산 전투가 있는 지 두 달 뒤인 이해 9월에 古阜·泰山 등을 침입한 왜구가 3백여 騎였으므로(『高麗史』 권112, 列傳25 柳淑 附實) 홍산에 들어온 왜구도 대략 그와 비슷한 규모가 아닐까 추측된다.

33) 『高麗史節要』 권32, 辛禡 9년 5월, “海道元帥鄭地 擊倭于南海縣 大敗之 時地所將戰艦 僅四十七艘 次羅州木浦, 賊船百二十艘大至 慶尙沿海州郡大震 … 賊以大船二十艘 艘置勁卒百四十人爲先鋒 地進攻大敗之 焚賊船十七艘 浮尸蔽海”

34) 『高麗史節要』 권31, 辛禡 6년 8월, “遣海道元帥羅世沈德符崔茂宣 以戰艦百艘追捕倭賊 … 倭賊五百艘 入鎮浦口 以巨絙相維 分兵守之 … 羅世沈德符崔茂宣等至鎮浦 始用茂宣所製火砲 焚其船 煙焰漲天 賊斃死殆盡 赴海死者亦衆 … 唯三百三十餘人 自拔而來”

35) 『高麗史節要』 권31, 辛禡 6년 9월, “遂大破之 川流盡赤 六七日色不變 人不得飲 皆盛器候澄 久乃得飲 獲馬一千六百餘匹 兵仗無算 初賊十倍於我 唯七十餘人 奔智異山”

기록일지도 모르지만 “떠 오른 시체가 바다를 덮었다(浮尸蔽海)”거나 “냇물이 온통 붉어져 일주일도 지나도 마실 수가 없었다(川流盡赤 六七日色不變 人不得飲)”라고 하는 등 왜구의 처참한 패배 상황에 대한 묘사가 첨부되어 있다. 요컨대 홍산 전투는 ‘대첩’으로 열거된 다른 전투와 달리 양측의 병력 규모나 고려군이 거둔 전과가 비교적 소략하게 기록되어 있는 편이다.

물론 홍산 전투의 관련 문헌이 조선시대에 편찬되었으므로 신왕조를 개창하는 과정에서 태조 이성계의 정적이 되는 최영에 대하여 어떠한 형태로든지 기록의 첨삭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고려사』나 『조선왕조실록』 등에 기록된 최영의 모습은 장군으로서의 활약이 주를 이루며 객관적인 역사서술 방법을 취한듯하면서도 이성계 중심에서 해석되고 있다.³⁶⁾ 이러한 문제는 당대집권자 중심의 역사서술인 正史 외에 다른 자료를 통해서 보완되어야 하는데, 관련 기록이 부족한데다가 첨삭 여부를 입증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다만 홍산 전투에서 거둔 최영의 전공이 축소 기록되었을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고 생각된다. 무엇보다도 홍산 전투는 이성계와의 관련성이 찾아지지 않고 威化島回軍으로 인해 두 사람의 정적 관계가 형성되는 시점보다도 십여 년이나 앞서고 있다. 또한 『고려사』 최영전을 보면 홍산 전투보다 앞서 벌어진 耽羅 牧胡의 亂을 최영이 진압하는 내용은 비교적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으므로 유독 홍산 전투의 전공만을 축소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음으로 검토할 것은 홍산 전투의 승리가 향후 전황에 유리하게 작용하였는지의 여부이다. 선행 연구는 홍산 전투의 승리로 인하여 왜구의 세력이 점차 약해지거나 금강 유역을 비롯한 양광도 지역

36) 백은영, 「문헌선회와 구비전승에 나타난 고려의 기억—문화적 기억 속의 최영(崔瑩)장군—」, 『한국중세사연구』 23, 2007, 101쪽.

일대의 왜구 세력을 크게 위축시켰다고 설명하였다. 실제로 양광도 지역의 왜구는 일시적이기는 하지만 한두 달 정도 잠시 소강상태에 접어들었다. 그러나 금강 유역의 남방에 위치한 전라도 서북부 지역은 오히려 홍산에서 물러난 왜구의 극심한 약탈에 시달려야만 했다.³⁷⁾ 당시 왜구의 침입 지역을 지도에 표시해보면 다음과 같다.

〈지도 2〉 1376년 9~10월 왜구의 전라도 서북부 지역 침입 상황



※ 지도에 표시된 지명은 왜구가 침입한 지역이고 원 안의 숫자는 사료 상에 기재된 순서를 나타낸다.

37) 허인욱, 앞의 글, 98쪽.

홍산 전투에서 패배한지 두 달 뒤인 9월부터 왜구는 古阜(정읍시 고부면), 泰山(정읍시 태인면), 興德(고창군 흥덕면), 保安(부안군 보안면), 仁義(정읍시 태인면), 金堤(김제시), 長城(장성군 장성읍), 臨陂(군산시 임피면) 등 전라도 서북부 지역을 맹렬하게 침입하였고 한때 全州를 함락하기도 하였다.³⁸⁾ 이로 인해 윤9월에는 서해의 뱃길이 막히게 되어 급기야 漕運을 중지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고 전라도와 양광도의 沿海州郡에 부과된 徭役을 차등 있게 감면해주는 조치를 내렸다.³⁹⁾ 왜구는 점차 북상하여 10월에 鎭浦와 韓州(서천군 한산면)를 공격하기에 이르렀으니,⁴⁰⁾ 결국 홍산 전투 이후 몇 달도 안 되어 다시 금강 유역을 침입한 것이다.

이듬해 왜구는 계속 북상하여 양광도 북부 해안의 新平(당진시 신평면), 慶陽(천안시), 平澤을 거쳐서 과감히 江華府를 침범하고 西江에 진입하는 등⁴¹⁾ 개경을 공격할 기회를 계속해서 노렸다. 이로 인해 우왕은 耆老를 모아 놓고 내지인 鐵原으로 遷都하자는 논의를 일으키기도 하였다.⁴²⁾ 당시 개경이 받았던 왜구의 압박이 얼마나 위협적이었는가를 보여주는 사례이다. 따라서 홍산 전투 이후 왜구의 침략은 전혀 위축되지 않았고 오히려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맹위를 떨치고 있는 양상이므로 이전에 비하여 전황이 크게 나아졌다고 말하기 어렵다.

이어서 고려군이 과연 홍산 전투의 승리를 바탕으로 자신감을 회복하고 왜구의 사기와 예봉을 꺾을 수 있었는지 확인해보겠다. 홍산 전투 바로 직전인 7월에 왜구가 全羅道元帥營을 침입하고 榮山(榮山浦)에 있던 고려군의 전함을 불태웠으며 羅州를 침입한 사건이

38) 『高麗史節要』 권30, 辛禑 2년 9월.

39) 『高麗史節要』 권30, 辛禑 2년 윤9월.

40) 『高麗史節要』 권30, 辛禑 2년 10월.

41) 『高麗史節要』 권30, 辛禑 3년 2월·3월·4월.

42) 『高麗史節要』 권30, 辛禑 3년 5월.

있었는데, 全羅道元帥 河乙沚가 후임자를 기다리지 않고 자신의 晉州農莊에 들어가 버리면서 방비가 소홀해진 것이 원인이었다.⁴³⁾ 그런데 홍산 전투의 승리 이후에도 고려군의 사정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9월에 하을지의 후임인 전라도원수 柳濬은 전라도 북부 지역이 왜구의 침입을 연이어 당하는 상황에서 음약과 여색에 빠져 있었고, 심지어 전주가 함락되었을 때에도 墜馬를 사칭하며 군사를 그대로 두고 싸우지 않았다. 또한 全羅道兵馬使 柳實은 자신의 관할인 泰山郡이 왜구의 침입을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토벌을 겁내어 마침내 패전을 자초하게 되었다.⁴⁴⁾ 12월에 慶尙道元帥兼都體察使 金縝은 倡妓를 모아서 매일 燒酒를 마시고 사졸들을 핍박하여 군중의 원성을 사는 바람에 경상도의 여러 주현이 왜구에게 도륙을 당하게 되었다고 한다.⁴⁵⁾ 이처럼 홍산 전투를 전후하여 그리 멀지 않은 기간 동안에 한 지역의 방위를 담당하는 지휘관들이 직무에 태만하여 왜구를 제대로 막지 못하는 상황이 자주 목격되고 있다.

위와 같이 홍산 전투의 의의에 대하여 몇 가지 사례를 들어서 기존 견해를 재검토해보았다. 그 결과 홍산 전투는 동원된 병력의 규모나 전과가 불분명하고 추후 전황에 있어서도 큰 영향을 주지 못하였으므로 ‘대첩’이라고 평가하기에는 다소 부족함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렇다면 홍산 전투가 지닌 역사적 의미는 무엇에서 찾을 수 있을까.

첫째로 군사적인 측면에서 홍산 전투의 승리는 양광도 지역의 왜구를 일시나마 물러나게 하였다. 당초 최영의 출정 계기는 왜구가 금강 유역에 침입하여 갇은 횡포를 자행했기 때문이었다. 결과적으로 최영이 홍산에서 격퇴한 왜구가 비록 별동대와 같은 존재였고 짧은 기간에 불과하다는 한계가 여전히 남아있기는 하지만, 일단

43) 『高麗史節要』 권30, 辛禡 2년 7월.

44) 『高麗史節要』 권30, 辛禡 2년 9월·윤9월.

45) 『高麗史節要』 권30, 辛禡 2년 12월.

전투를 벌여서 왜구를 응징하였고 한두 달 동안은 양광도 지역에서 왜구의 별다른 침입 흔적이 찾아지지 않고 있으므로 본래의 목적을 어느 정도 달성했다고 볼 수 있다. 최영은 양광도 지역에 남아 있는 왜구 집단을 더 이상 추격하거나 소탕하지 않았으며 홍산에서 한 차례 승리를 거두고는 개경으로 귀환하였다. 만약 최영의 출정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않았다면 그와 같은 행동을 취하지는 않았을 것이다.⁴⁶⁾

둘째로 정치적인 측면에서 홍산 전투의 승리는 朝野를 안정시키는 데에 일정 부분 기여를 하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금강 유역에 침입한 왜구가 한때 어진 장수로 일컬어진 양광도원수 박인계를 살해하고 국가의 중요 사찰인 개태사마저 도륙하였다는 소식이 개경에 전해지자 조정과 민심은 크게 흔들렸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당시 개경에서 왜구가 장차 都城을 노략질한다는 소문이 나돌자 밤중에 坊里軍을 징발하여 성을 지키게 하였고, 다시 왜구가 장차 松岳山에 오르려고 한다는 말이 들리자 僧軍을 징발하여 요해처에 나누어 지키도록 하였다는 사실⁴⁷⁾을 통해서 입증된다. 결과적으로 단지 소문에 불과한 것이었지만 왜구를 적잖이 두려워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최영이 홍산 전투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마치 詔使를 맞이하는 예식처럼 성대한 개선식을 열어줌으로써, 최영을 비롯한 장졸들을 예우함은 물론이고 왜구로 인해 동요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바로 잡는 정치적 선전 효과도 충분히 기대되었을 것이다.

46) 다만 한 가지 변수는 최영이 홍산 전투에서 부상을 입었다는 사실인데, 기록이 충분치 않아 부상 정도를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적진에 돌격하거나 차후 행적에 특별히 무리가 없는 것으로 보아서 거동에 지장을 줄 만큼의 치명상은 아닌 듯하다. 또한 최영은 내외에 무용이 널리 알려진 名將이었고 고려군의 정신적 지주였던 만큼, 이미 승리를 거둔 상황에서 구태여 무리하게 더 이상 전투를 속행할 필요는 없었다고 생각된다.

47) 『高麗史節要』 권30, 辛禡 2년 7월, “謠言倭將寇都城 夜半發坊里軍守城 又聞賊將先登松岳山 發僧爲軍 分守要害”

셋째로 상징적인 측면에서 홍산 전투의 승리는 부수적으로 왜구에게 최영에 대한 두려움을 심어주었다. 홍산 전투가 있기 전에 고려군은 각지에서 왜구를 막아내는 데에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예를 들면 양광도의 경우 양광도안무사 정비와 양광도도순문사 한방언이 왜구를 방비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사헌부의 탄핵을 받아 좌천되었고, 전라도에서는 원수 하을지가 방비를 소홀히 하는 바람에 왜구가 군영을 침략하고 전함을 불살랐으며, 마찬가지로 경상도에서도 都巡問使 曹敏修가 金海府와 大丘縣에서 패전⁴⁸⁾하여 다수의 인명 손실을 입었다. 다시 말해 고려군은 왜구와의 싸움에서 전반적으로 고전을 면치 못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최영은 직접 양광도로 내려가 왜구를 소탕함으로써 그들의 기세를 꺾고 고려군의 사기를 북돋으려고 하였다.⁴⁹⁾ 앞서 그가 출정을 자청하면서 제시한 이유 중에 “지금 시기를 놓치고 막지 않는다면 나중에 왜구를 도모할 수 없고, 다른 장수는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는 말은 필승 의지와 함께 당시 승리가 절박한 고려군의 처지가 반영되어 있다. 따라서 홍산 전투의 승리를 통하여 일종의 국면 전환을 모색했다고 보이는데, 결과적으로 전황은 앞서 살펴보았듯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대신 홍산 전투는 왜구에게 최영이라는 인물에 대한 공포를 각인시키는 상징적인 사건이 되었다. 다음해 왜구의 진영에서 도망쳐 온 어린 아이에 의하면 왜구가 “지난날 홍산의 싸움에서 崔萬戶(최영)가 오자 휘하 사졸이 앞을 다투어 말을 달려서 우리를 짓밟았으니 매우 두렵다.”라고 말한 사례⁵⁰⁾나, 왜구가 “두려운 자는 오직 백발의 최만호 뿐이다.”라고 말하면서 경계하였다는 기록⁵¹⁾ 등이 그러한 사실을 나타낸다.

48) 『高麗史節要』 권30, 辛禡 1년 11월.

49) 이영, 앞의 책, 2007, 105~106쪽.

50) 각주 19번 참조.

51) 『高麗史節要』 권30, 辛禡 3년 3월, “賊常言所可畏者 唯白髮崔萬戶而已”

요컨대 홍산 전투의 승리는 왜구의 침입이 거세지는 가운데 ‘대첩’이라고 명명할 만큼의 탁월한 성과는 없었지만, 당시 고려 조정이나 군대가 직면한 정치적 또는 군사적 상황에서 시급히 요구되는 바가 어느 정도 해결되었다는 점에서 나름 역사적 의미를 지닌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4. 홍산 전투의 戰場 문제

홍산 전투에 대한 기존 평가와 함께 전장으로 알려져 있는 장소도 몇 가지 의문점이 발견되어 자세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홍산 전투의 무대가 되는 지금의 충청남도 부여군 홍산면은 인구가 3,600명(2007년 기준)⁵²⁾에 불과한 작은 곳이다. 고려시대에는 嘉林縣(부여군 임천면)의 屬縣이었고 1175년(명종 5)에는 韓山監務가 겸임하도록 하였으며 조선시대인 1413년(태종 13)에야 비로소 縣監을 두었다.⁵³⁾ 세종대에는 348호 1,791명이 살았고 비옥한 토지가 적은 편이었다고 전한다.⁵⁴⁾

현재 홍산 전투의 전장으로 비정되는 장소는 홍산면 북촌리 산 12번지 일대에 위치하여 일명 北村里山城이라고 일컬어지기도 하는 胎峰山城이다. 태봉산(160m)에서 남쪽으로 이어진 능선의 가장 끝자락에 해당하는 해발 90m의 봉우리(다음 <사진 1>의 왼쪽 사진 참조)에 자리하고 있으며, 테외식 산성으로 75m 등고선과 나란히 축조되었고 둘레는 440m이며 2000년에 충청남도 문화재자료

52) 부여군 편, 『비홍산의 품자락』, 부여군, 2008, 11쪽.

53) 『新增東國輿地勝覽』 권19, 忠淸道 鴻山縣.

54) 『世宗實錄』 권149, 地理志 忠淸道 公州牧 鴻山縣.

당시 홍산현의 인구는 현재 부여군에 해당하는 임천군, 홍산현, 부여현, 석성현 중에서 임천군 다음으로 인구가 많았다.

제368호로 지정되었다.⁵⁵⁾ 산성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서남쪽에 조성된 약 250m 길이의 시멘트 포장도로를 따라서 올라가야 하는데 (아래 <사진 1>의 오른쪽 사진 참조), 지그재그 형태로 제법 경사가 있으며 자동차 한 대만이 겨우 지날 있는 폭이다. 산성 내부의 최정상부에는 평탄지가 조성되어 체육공원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胎峰樓라는 팔각정자와 함께 鴻山大捷碑가 세워져 있다.

<사진 1> 동남쪽(왼쪽)과 상공(오른쪽)에서 바라본 태봉산성 전경⁵⁶⁾



선행 연구도 태봉산 체육공원이 있는 야산을 홍산 전투의 전장으로 파악하고 있다.⁵⁷⁾ 이에 의하면 현재 산성으로 오르는 길이 최영이 단기로 돌격한 그 길이였는지 여부는 확실하게 입증할 수 없으나, 산성의 3면이 절벽에 가까운 경사를 이루고 있으며 정상으로 접근하는 다른 길이 없으므로 현장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다. 『고려사』에 언급된 ‘3면이 모두 절벽이고 오직 길 하나만 통할 수 있었다(三面皆絕壁 唯一路可通)’는 현장 지형에 관한 기록이 상당히 정확함을 누구라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확신하였다.

그런데 태봉산성을 홍산 전투의 전장으로 보기에는 다음과 같이

55) 부여군 편, 앞의 책, 180~181쪽.

56)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문화재연구팀, 『부여 홍산 태봉산성 문화유적 시굴조사 부여남부순환도로 개설사업부지내 문화유적 시굴조사』,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2009, 9쪽 도판 인용.

57) 李嶺, 앞의 글, 2000, 12~13쪽.

몇 가지 문제가 있다. 우선 『世宗實錄』 地理志, 『新增東國輿地勝覽』 등과 같은 조선초기의 官撰 地理志를 비롯하여 1871년(고종 8)에 간행된 『鴻山縣誌』에도 태봉산성이나 홍산 전투에 관한 언급이 일체 없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문헌상 태봉산성이 홍산 전투의 전장임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가 없다. 다음으로 2007년에 이루어진 발굴 조사에 의하면 아직까지 태봉산성에서 왜구와 접전을 벌였던 뚜렷한 고고학적 근거를 찾아내지 못하였다고 한다.⁵⁸⁾ 다만 태봉산성이 고려시대에 축성되었으며 성벽 아래층에서 성벽 이전에 존재했던 유구가 발견되고 백제시대의 유물이 출토됨으로써 어떠한 형태로든지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사용되었다는 사실 만이 확인되었다. 결국 태봉산성이 홍산 전투의 전장으로 비정되는 것에 대해서는 문헌 기록의 뒷받침은 물론이고 발굴 조사를 통해서도 확인된 바가 없다.

이와 관련하여 1977년부터 文化公報部の ‘문화재 보수 3개년 사업’⁵⁹⁾이 시행되면서 홍산대첩비가 태봉산성 정상에 세워지고 성내 지역이 산성 공원으로 조성된 일이 주목된다. 특히 홍산대첩비의 내용을 읽어보면 대체로 『고려사』 최영전의 기록에 의거하여 다소 첨삭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최영이 다른 장수들과 함께 먼저 ‘險峻하고 三面이 絶壁인 이곳 胎峯山에 陣을 치고 있을 때 數百名の 倭寇들이 鴻山 벌에 몰려들자’⁶⁰⁾라고 하는 부분이 확인된다. 다시 말해 충분한 사료적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태봉산을

58)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문화재연구팀, 앞의 책, 85쪽.

59) 이는 ‘國難克服史를 통하여 중요한 역사적 의의를 갖는 護國戰迹地와 有備無患의 민족적 결의가 담겨져 있는 重要國防史蹟地를 歷史教育道場으로 淨化한다’는 목표 하에 시행되었다(鄭基永, 「文化財 補修 三箇年 事業 推進現況(概報)——1977년~1979년—」, 『文化財』 13, 1980, 109쪽). 다시 말해 호국 유적을 중점 보수하여 국가에 대한 충성심을 함양하고 민족적 긍지를 높여려는 정부의 의도가 깔려 있었다(「金陵直指寺·黃山대첩비등 올해안에 文化財115件補修」, 『東亞日報』, 1977.1.29, 7쪽. 「文公部の 올해 施策방향」, 『경향신문』, 1977.1.31, 5쪽).

60) 홍산대첩비의 전문은 부여군 편, 앞의 책, 27~28쪽에도 실려 있다.

홍산 전투와 연관시켜서 설명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1980년대 이전에 간행된 『扶餘郡誌』와 『忠淸南道誌』에는 태봉산성과 홍산 전투를 연관시키는 서술이 찾아지지 않지만,⁶¹⁾ 1980년대 이후 간행된 『扶餘郡誌』와 『忠淸南道誌』 등에는 태봉산 정상에 홍산대첩비가 세워져 있음을 언급하거나 태봉산이 홍산 전투의 전장으로 전해지고 있다는 서술이 들어가 있다.⁶²⁾ 따라서 태봉산성을 호국 유적으로 정비하고 홍산대첩의 기념비를 세우면서 태봉산성을 홍산 전투의 전장이라고 인식하는 경우가 생산되기 시작한 것으로 의심된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태봉산성을 홍산 전투의 전장이라고 보았을까. 아마도 『고려사』와 『고려사절요』에서 언급된 ‘3면이 모두 절벽이고 오직 길 하나만 통할 수 있었다’는 설명이 태봉산성의 지형과 어느 정도 맞아 떨어지므로 그와 같은 비정이 이루어진 것은 아닐까 싶다. 태봉산성을 언뜻 보면 사료의 설명과 일치하는 점이 있기는 하지만, 면밀히 살펴볼 경우 반드시 그렇다고는 말할 수 없다. 앞에서 제시한 사료를 보면 홍산 전투의 전장은 동서남북 4면 가운데 3면이 절벽이고 남은 1면에 길이 있어서 사람이 왕래할 수 있는 지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태봉산성이 정상 가까이에 위치해 있고 경사가 있는 편에 속하기는 하나 해당 지형을 ‘絶壁’이라고 표현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리고 태봉산성의 서측이 가파른 것은 분명하지만 동측 능선은 비교적 경사가 완만하다. 다음의 <사진 2>를 보면 왼쪽 지형도에서 절벽이라고 말할 수 있는 곳은 기껏해야 포장도로가 있는 서남쪽 한 군데이며, 오른쪽과 아래쪽 사진에는 좌우 능선의 경사가 보통 산들과 비슷해 보이며 그다지 특별한 점을 찾을 수가 없다.

61) 『扶餘郡誌』, 扶餘郡誌編纂委員會, 1964. 『忠淸南道誌』 上·下, 忠淸南道誌編纂委員會, 1963. 『忠淸南道誌』 上·下, 忠淸南道誌編纂委員會, 1979.

62) 『扶餘郡誌』, 扶餘郡誌編纂委員會, 1987, 1234쪽. 충청남도역사문화원 충청학연구부, 『忠淸南道誌』 5, 충청남도지편찬위원회, 2006, 287쪽. 부여군 편, 앞의 책, 180~181쪽.

〈사진 2〉 태봉산성 지형도(왼쪽)와 동남쪽에서 바라본 모습(오른쪽과 아래쪽)



한편 봉우리 서남쪽에서 태봉산성으로 들어가는 포장도로 역시 반드시 사료에 나타난 길이라고 보기 어렵다. 무엇보다 가장 큰 이유는 서쪽이 다른 경사면에 비해서 가장 험하기 때문에 지형적으로 사료상 길이 아닌 ‘3면이 절벽’인 곳에 해당한다는 점이다. 〈사진 2〉의 왼쪽 지형도에 보이는 지금의 포장도로는 아마도 홍산면소재지 또는 밀집 주거지와 거리상 가깝기 때문에 접근 편의상 조성된 것이 아닐까 싶다. 만약 이 도로가 사료에서 언급된 ‘하나밖에 없는 길’이라면 실제로 전투 경험에 풍부한 최영이 일부러 가장 험준한 측면을 골라서 말을 타고 돌격한 셈이 된다. 요컨대 위와 같이 태봉산성을 홍산 전투의 전장으로 파악하는 것은 보류할 필요가 있다. 문헌 기록과 발굴 조사에서 모두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는 데다가 지형적으로도 기록과 일치하지 않는 면이 다분히 있다고 말할 수 있겠다.

그렇다면 홍산 전투의 전장을 어느 곳으로 비정해야 하는지 다른

대안이 요구된다. 현재 문헌 기록과 발굴 조사의 뒷받침이 마련되지 않는 한은 홍산 전투가 어디에서 벌어졌는지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다만 3면이 절벽이고 1면에 길이 있다는 기록에 착안하여 홍산 전투와 유사한 경우를 찾아보면 다음과 같은 사례가 확인된다.

다. 왜적이 智異山에서 無等山으로 도망쳐 들어가 圭峯寺 바위 사이에 나무 목책을 세웠는데, 3면이 가파른 절벽이고 오직 작은 길이 벼랑을 따라 나 있어서 겨우 한 사람만이 지나갈 수 있다.⁶³⁾

위의 기록에 등장하는 규봉사는 현재 全羅南道 和順郡 二西面 永坪里에 있는 圭峰庵을 말한다. 이곳은 무등산(1,187m)의 동남부 해발 850m 고지에 자리 잡고 있으며 우뚝 솟은 柱狀節理帶가 사찰을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는 모습으로 유명하다. 여기에서 말하는 가파른 절벽은 2~10m 높이에 달하는 주상절리대 암석을 말한다. 왜구는 무등산에서 주변 지형을 최대한 활용하여 방어 태세를 가장 극대화시킬 수 있는 곳으로 3면이 바위에 둘러싸인 규봉사를 선택하였다. 이곳은 상공에서 보았을 때 태봉산성처럼 솟아오른 봉우리가 아니라 움푹 파이거나 들어간 모습을 하고 있다. 물론 규봉암과 같은 독특한 지형을 홍산 지역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그렇다면 홍산에서 3면이 절벽이고 1면에 길이 있는 조건에 부합하면서 방어 효과가 가장 높은 지역은 어디로 볼 수 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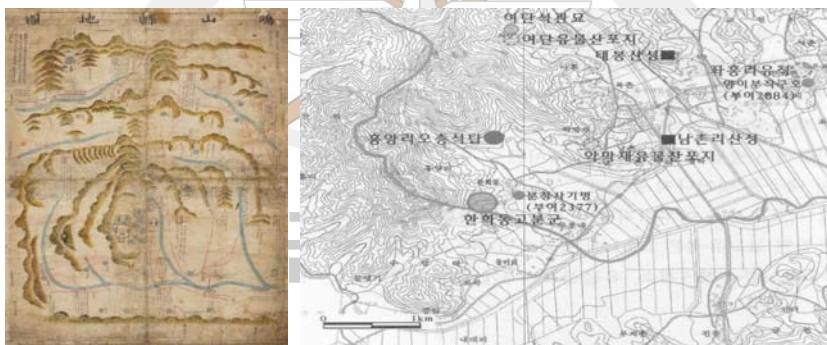
우선 홍산면의 지형적 특색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의하면 홍산의 지형은 飛鴻勢라고 하여 기러기가 나는 형국이며 홍산이라는 지명도 여기에서 비롯되었다고 전한다.⁶⁴⁾

63) 『高麗史』 권134, 列傳47 辛禡 7년 4월, “倭自智異山逃入無等山 樹柵圭峯寺巖石間 三面峭絕 唯小逕緣崖 僅通一人”

64) 『新增東國輿地勝覽』 권19, 忠淸道 鴻山縣 驛院條, “宿鴻驛 古名非雄 我太宗元年 衛者以縣有飛鴻勢 改今名”

특히 홍산의 鎭山인 飛鴻山(267m)은 그 이름처럼 기러기가 날개를 펼치며 나는 듯이 산등성이와 골짜기를 동서로 길게 늘어뜨리고 있다. 이러한 특징은 아래 <사진 3>의 「鴻山縣地圖」(1872년 제작 추정, 규장각 소장)를 통해서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무등산 규봉사처럼 주상절리대는 아니더라도 3면이 깎아지른 암석에 둘러싸인 사례는 홍산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좀처럼 찾아보기 힘들다. 따라서 홍산의 지형적 특색을 감안한다면 3면이 절벽인 데다가 1면에 길이 있다는 홍산 전투의 지형적 조건은 3면이 山谷으로 둘러싸이고 溪流를 따라서 山下로 길이 나있는 경우, 즉 다시 말해 우리나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반적인 계곡의 형태에 가까운 모습을 묘사한 것으로 생각된다.

<사진 3> 「홍산현지도」(왼쪽)와 비홍산 동남쪽의 유적 분포도(오른쪽)(65)



이와 같은 유형은 홍산 지역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방어 효과가 높은 곳은 관내에서 가장 험하다고 할 수 있는 비홍산 일대가 아닐까 생각된다. 이곳은 현재 지형이 상당히 변모되었으나 골짜기 안쪽은 경사가 가파른 편으로 3면을 산이 에워싸고 1면에 길이 있어서 사료상에 나타난 전장의 모습과 비교적

65) 부여군, 앞의 책, 162:398쪽 도판 인용.

유사한 형태를 갖추고 있다. 비홍산 동남쪽에는 고려시대 중기 이후 건립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홍양리오층석탑(충청남도 유형문화재 제29호)이 있는데, 주변에서 고려시대 기와편과 청자편이 수습되는 등 사원이 있었던 흔적이 확인된다.⁶⁶⁾ 이와 함께 고려시대 홍산현의 古邑城으로 비정되는 南村里城⁶⁷⁾도 그리 멀지 않은 위치에 있다(〈사진 3〉 오른쪽 지도 참조).

요컨대 비홍산 일대는 홍산 전투의 전장으로 비정할 수 있는 지형적 특징을 갖추면서도 왜구가 침입할 경우 주요 약탈 대상이 될 수 있는 읍치가 가깝고 사원이 자리 잡고 있었다. 현재 문헌 기록이나 발굴 자료가 근거로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홍산면의 많은 골짜기 가운데 홍산 전투의 전장으로 구체적인 장소를 비정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따라서 단언할 수는 없으나 굳이 전장으로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꼽아 본다면 비홍산 일대가 아닐까 조심스럽게 추정할 뿐이다.

5. 맺음말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이상과 같이 본고는 홍산 전투의 배경과 전개 과정을 간단히 정리하고 ‘대첩’이라는 평가와 함께 현재 전장으로 비정되는 태봉산성의 문제점을 검토해보았다. 홍산 전투는 1376년 7월에 최영이 홍산 지역에서 금강 유역을 침입한 왜구를 격퇴한 사건이며 나세의 진포대첩, 이성계의 황산대첩, 정지의 남해대첩 등과 함께 특기되어

66) 부여군, 앞의 책, 188~189쪽.

67) 남촌리성은 조선 초기에 폐성되었고 축조시기를 고려시대까지 올려볼 수 있을 만한 유물이 확인되고 있으므로(부여군 편, 앞의 책, 182~184쪽) 당시 홍산현의 읍치가 아닐까 추정된다.

이른바 ‘대첩’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런데 홍산 전투에 동원된 병력의 규모나 전과가 불분명하고 추후 전황에 있어서도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한 점을 검토하여 ‘대첩’이라고 평가하기에는 다소 부족함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덧붙여 당시 왜구로 인해 발생한 여러 문제 가운데 시급히 처리되어야 하는 현안이 홍산 전투의 승리를 계기로 일부 해결되었다는 점에서 나름의 역사적 의미를 갖는다고 파악하였다. 이어서 태봉산성을 홍산 전투의 전장으로 보는 인식은 태봉산성을 호국 유적으로 정비하고 홍산대첩비를 건립하면서 만들어진 것이며, 문헌 기록이나 발굴 조사가 전혀 뒷받침 되지 않았음을 설명하였다. 그리고 관련 기록에 나타난 지형적 특성을 근거로 삼아 홍산 전투의 전장이 비홍산 일대가 아닐까 조심스럽게 추정해보았다.

이러한 내용은 어디까지나 최영이라는 인물과 홍산 전투의 승리를 단순히 폄훼하려는 의도에서 도출된 것이 아니라, 그동안 역사적 사건이나 그것이 일어난 지역을 문헌 기록과 실제 지형에 대한 검토 없이 너무 성급하게 결론지었다는 경향이 있었음을 밝히고, 재정립할 필요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데에 목적을 두었다. 한편 비판과 함께 대안이 제시되지 않을 수 없는데, 현재 근거로 삼을 만한 자료가 부족하여 논리를 전개하는 과정에서 비약이나 억측 등 다소 문제가 있겠으나 말미에 짧은 견해를 제시해보았다.

[원고투고일: 2015.10.12, 심사수정일: 2015.11.20, 게재확정일: 2016.2.19.]

주제어 : 鴻山, 大捷, 崔瑩, 倭寇, 戰場, 胎峰山城, 飛鴻山

<ABSTRACT>

Relook on the Meaning of Hongsan Battle and its Battlefield in 1376

Lim, Hyung-soo

Hongsan (鴻山) battle was a combat which General Choi Young (崔瑩) defeated Japanese pirates (倭寇) who invaded Geum River (錦江) basin at the Hongsan region in July 1376 (2nd year of King Woo, 禡王), which is considered as one of great military victories over the course of 40-year fight against Japanese Pirates. The battle is worthy of special mention and is also assessed as a 'Sweeping Victory (大捷).' This study briefly summarizes the background and process of development happened in Hongsan Battle and reviews whether the battle could be really assessed as a 'Sweeping Victory' or not and whether the Taebong Mountain Fortress (胎峰山城) could be considered as valid battlefield.

This study pointed out that Hongsan Battle somewhat falls short of being assessed as a Sweeping Victory (大捷) in that not only the scale of military force mobilized and military accomplishments gained during the battle are unclear but also the battle did not have any significant effects on the features of the war even after the battle. And yet, the study evaluated that Hongsan Battle still holds significant historical meaning of its own in that it lived up to desperate requirements of the time to a certain degree even though it did not make accomplishments enough to satisfy expectations.

The study then examined if the recognition that the battlefield of Hongsan was Taebong Mountain Fortress is correct. This recognition was the result of establishment of Hongsan Memorial

Stone (鴻山大捷碑) in the process of designating Taebong Mountain Fortress as one of the remains of historical national protection in the late 1970s, which was a hasty outcome without the support of documentary records or excavation survey. Thus, careful comparison of geographical conditions with historical records of Hongsan Battle reveals considerable discrepancies. Although it is very difficult to assert any specific region as the battlefield of Hongsan Battle given the lack of related data available, as the result of assumption based on geographical characteristics which appeared in the historical data, there is high possibility that the battlefield was actually valleys around Bihong Mountain(飛鴻山).



Key Words : Hongsan (鴻山), Sweeping Victory (大捷), Choi Young (崔瑩), Japanese Pirates (倭寇), Battlefield (戰場), Taebong Mountain Fortress (胎峰山城), Bihong Mountain (飛鴻山)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전투력 요소로 본 이순신의 전투준비태세와 초기전투 승리요인

이 경 식*

1. 머리말
2. 이순신의 전투준비태세 분석
3. 이순신의 초기전투 승리요인
4. 맺음말

1. 머리말

본 연구는 ‘임진왜란 시 이순신이 첫 해전부터 마지막 해전까지 단 한 번의 패전 없이 승리하게 된 요인은 무엇일까?’라는 물음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서 시작하였다. 연구를 하면서 그 해답은 초기해전의 승리요인부터 찾아가는 것이 논리적일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임진왜란 발발 전 이순신의 전쟁준비부터 연구하게 되었다.

* 육군리더십센터 단장

E-mail: kslee4001@hanmail.net

이순신의 승리요인에 대한 연구결과는 상당히 많다. 나종우는 이순신의 뛰어난 지휘통솔력과 탁월한 전략전술을 승리요인으로 들었는데, 그가 제시한 전략전술은 계비책(戒備策), 정신전력의 강화, 치밀한 정보활동, 전투환경의 적절한 이용, 위계책(爲計策), 선제공격과 방화전법, 거북선의 충파전법, 진법 등 다양하다.¹⁾

김태준은 거북선이라는 새로운 무기체계의 활용, 전력의 집중을 통한 상대적 우세 달성, 지형지물을 이용한 기습공격, 다양한 전술구사 등을 승리요인으로 도출했다.²⁾

김강녕은 전선과 무기체계의 우수성, 이순신의 적절한 전략전술구사, 전황에 부합한 리더십의 발휘를 승리요인으로 분석하고 있다.³⁾

이민웅은 승리요인을 비교적 상세하게 제시하고 있다. 전쟁준비 활동으로 병력 충원, 전선 건조와 거북선의 창제, 총통류 등 무기체계의 준비, 철저한 군사훈련⁴⁾, 해전 시 이순신의 ‘결전전략(決戰戰略)’과 ‘당파전술(撞破戰術)’을 승리요인으로 들고 있다.⁵⁾

기존의 연구결과들은 해전 분석에 초점을 맞춰 승리요인을 도출하고 있고, 거의 모든 연구결과가 상당부분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일본수군보다 월등하게 우수한 각종 무기체계(판옥선·거북선, 총통)의 성능⁶⁾, 이순신의 뛰어난 전략전술과 리더십

1) 나종우, 「이순신장군의 전략전술」, 『전북사학』 제5집, 1981, 79~97쪽.

2) 김태준, 「이순신 장군의 해전승리 요인 분석」, 『교수논총』 제44집, 2007, 83~95쪽.

3) 김강녕, 「이순신의 해전: 주요 승전사례와 전쟁사적 의의」, 『군사논단』 제69호, 2012, 170쪽.

4) 이민웅, 『이순신 평전』, 성안당, 2012, 72쪽.

5) 결전전략은 일본함대를 발견하는 즉시 함대 결전을 벌여 격파하는 전략이며, 당파전술은 화포를 이용하여 적선을 파괴하고 불화살로 적선을 태우는 전술이다. 이민웅, 「임진왜란 시기 호남 수군의 활약과 전략전술」,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재)민족문화유산연구원, 2014, 61쪽.

6) 당시 조선 수군이 운용하던 거북선과 판옥선에는 고려 말부터 개량해 온 천자·지자·현자·황자·별황자 총통 등의 대형화포가 장착되어 있었다. 이러한 화포 성능의 우수성은 해전에서 조선 수군의 전술적인 우위로 나타났다. 당시 일본 수군은 중·소형

등을 공통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기존 연구자들의 연구결과에 동의하지만, 이순신이 전라좌수사에 부임하여 일본수군과 전라좌수군에 대하여 어떻게 진단하였고 실질적으로 전쟁준비를 하게 된 배경은 무엇이었으며, 화포를 탑재한 거북선을 만들게 된 이유는 무엇이었는지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이순신이 임진왜란 발발 사실을 인지한 임진년(1592) 4월 15일 이후 5월 4일 경상도 앞바다로 출동할 때까지 과정과 그 때에 출동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에 대해서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일본수군보다 우월한 무기체계가 승리요인이라고 하는데 이순신이 염두에 둔 기동조건이나 거북선과 판옥선을 통합한 화력 집중 방법을 포함하여 승리를 결정짓는 이순신만의 구체적인 싸우는 방법이 무엇이었는지, 일본수군은 왜 조직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는지

합선을 운용하였으며 조총을 주무기로 하여 배의 현을 붙이고 백병전을 위주로 전술을 편 반면, 조선 수군은 대형 선박의 전후좌우에 장착된 각종 대형 화포를 바탕으로 함포전술을 구사하였다. 특히 조선군이 사용한 화포는 일본군의 조총에 비해 사거리가 월등히 길었기 때문에 접근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적을 공격할 수 있었으므로 육전과는 다르게 조선 수군이 절대적인 우위를 점할 수 있었다. 육군본부, 『한국군사사』 권13, 육군군사연구소, 2012, 421~422쪽.

일본수군의 전선에 비해 판옥선의 우월성은, ① 전투원과 비전투원인 노군의 공간이 분리되어 노군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고, ② 판옥선이 일본수군의 전선보다 높아 일본수군이 판옥선에 뛰어들이기 어렵게 되어 있으며, ③ 판옥선에 총통을 탑재하였다는 것이다. 제장명, 「정유재란 시기 해전과 조선 수군 운용」,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14, 37쪽.

거북선의 용머리는 덮개위치보다 높지는 않았다. 용머리에서 현자총통을 쏘았으며, 돌출된 도깨비머리로 적선과 충돌할 때 사용하였고, 노는 거북선을 전후좌우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한쪽에 7개씩 14개를 사용하였다. 포는 최소 8문 이상 최대 24문, 승조원 수는 125~130명, 속도는 최소 3노트에서 최대 8노트로 추정한다. 덮개에 칼송곳을 꽂았다. 최두환, 「임란시의 원형 거북선에 관한 연구」, 『해양연구논총』 제22집, 1999, 147~148쪽.

천자총통은 대장군전(900보)과 조란환 400발, 지자총통은 장군전(800보)과 조란환 200발, 현자총통은 차대전(800~1,500보)과 조란환 100발, 황자총통은 피령차중전(1,100보)과 조란환 40발, 별황자총통은 피령목전(1,100보)과 조란환 40발을 사격할 수 있었는데, 각 총통의 조란환은 사거리가 10여리까지 도달하였다. 『화포식언해』 천자총통조, 지자총통조, 현자총통조, 황자총통조, 별황자총통조.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기존연구들을 보면 이순신의 초기해전을 분석한 것도 전투상황을 재구성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어 세부분석이 필요하며, 1차 출전과 비교하여 2차 출전에서의 발전적인 차이점도 식별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군사적으로 좀 더 깊숙하게 접근하여 이순신의 창의적인 전쟁준비 활동이 초기 해전에서 어떻게 전투력으로 발휘되었는지 심층 깊게 분석하여 승리요인을 도출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은 ‘전투력 요소’를 분석의 틀로 사용하여, 임진왜란 발발 전 이순신의 전쟁준비 활동과 이순신이 1·2차 출전하여 수행한 초기해전을 정밀하게 분석할 것이다. 그럼으로써 이순신의 초기해전 승리요인을 도출할 수 있고 누락요소 없이 다양한 시각에서 분석이 가능하다. 이 연구는 이순신의 전쟁준비와 수행한 전투에 대하여 전투력 요소로 분석하는 최초의 시도이므로, 보다 더 논리적이고 체계적이며 종합적인 분석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군사이론으로 분석함으로써 이순신 전투사의 객관성을 높이는데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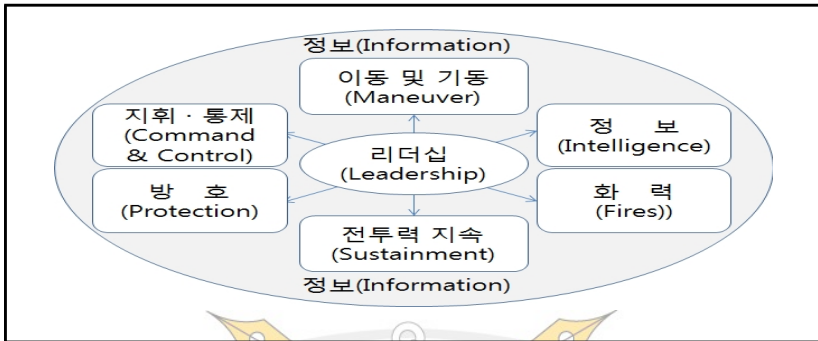
2. 이순신의 전투준비태세 분석

가. 전투력 요소

전투력은 군부대 및 조직(Military Unit and formation)이 주어진 시간에 운용할 수 있는 파괴적·건설적 능력, 그리고 정보(Information)능력의 총체적 수단을 말한다. 전투력 요소에는 <표 1>과 같이 정보(intelligence), 지휘 및 통제(command and Control), 이동 및 기동(maneuver), 화력(fires), 방호(protection),

전투력 지속(sustainment), 정보(information), 리더십(leadership)이 있다.⁷⁾

〈표 1〉 전투력 요소



출처 : Headquarters Department of the Army, 『Operations』 FM 3-0, U.S.Army, 2008, p.4-1.

전투력 요소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⁸⁾

- 정보(Intelligence)는 작전환경·적·지형·민간 고려요소에 대한 이해를 촉진하는 연관된 과업과 체계이다. 여기에는 정보, 감시, 정찰작전과 연관된 과업을 포함하고 지휘관에 의해서 이끌어 진다.
- 정보(Information)는 작전환경에 있어 강력한 수단이다. 다른 전투력 요소들을 이해하고 가시화하고 구체화하고 지시하기 위해 정보를 사용한다. 전투원들은 지속적으로 작전대상을 설득하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정보를 사용한다.⁹⁾

7) Headquarters Department of the Army, 『Operations』 FM 3-0, U.S. Army, 2008, p.4-1.

8) 위의 책, pp.4-2~4-6.

9) 'Intelligence'와 'Information'은 동일한 한글단어인 '정보'로 번역하여 사용되고 있는데, Intelligence는 정보 수집과 획득활동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Information은 수집·분석된 정보를 활용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Intelligence와 Information을 통합하여 분석하였다.

- 지휘 및 통제(Command and Control)는 지휘권과 지시를 행사함에 있어서 지휘관을 지원하는 것이다. 지휘관은 지휘 및 통제를 통해서 임무달성을 위해 모든 전투력 요소를 통합한다.
- 기동(Maneuver)은 임무를 달성하기 위해 적에 비해 지리적 이점을 달성하기 위해서 작전적 지역에서 실시하는 부대의 투입이다.
- 화력(Fires)은 적에 대한 타격체계로써 통상적으로 기동에 대해 전반적인 효과로 기여한다.
- 방호(Protection)는 지휘관이 최대한의 전투력을 운용할 수 있도록 부대를 보존하는데 관련된 과업과 체계이다.
- 전투력 지속(Sustainment)은 행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작전적 범위를 확장하며 지구력을 연장하는 지원체계로써, 군수의 공급, 인사근무, 의무근무 지원 등이 포함된다.
- 리더십(Leadership)은 다른 전투력 요소들의 효과성을 증진하고 통합한다. 확신에 차고 유능하며 지식이 충분한 리더의 리더십은 건전한 작전적 사고를 구체화하고 부대의 군기와 동기를 확고히 함으로써 전투력의 다른 요소들의 효과성을 증대한다. 효과적인 리더십은 전투력의 가장 역동적인 요소가 되기 때문에 모든 전투수행상의 결점을 보완할 수 있다. 반면에 부실한 리더십은 전투능력에 있어서 이점을 무효화할 수 있다.

위의 전투력 요소들은 통합되어 발휘될 때 승수효과를 나타낸다. 전투력은 항상 상대적인 것이다. 전투 이전에 전투력은 현실화되지 않은 잠재능력이다. 리더십을 통해서 이러한 잠재적인 능력은 행동으로 전환된다. 행동을 통합하고 증진하기 위해 ‘정보를 사용(Information)’ 한다. 정보는 다른 전투력의 요소들을 통해서 적용된다. 전투력은 숙련된 지휘관이 잘 훈련된 병력과 부대들을 이끌 때 결정적이다. 궁극적으로 지휘관은 결정적인 장소와 시간에서 우세한 전투력으로 승리를 달성한다.¹⁰⁾

위와 같은 전투력 요소가 이순신의 초기전투에서 어떻게 발휘되었는지, 이순신의 전쟁준비 활동과 어떤 연계성이 있는지 분석해 보고자 한다.

10) 앞의 책, p.4-2.

나. 전투력 요소에 의한 이순신의 전투준비태세 분석

1) 임진왜란 발발 전(前) 이순신의 전쟁준비

이순신이 철저하게 전쟁준비를 한 배경은 무엇일까? 이순신이 전라좌수사로 부임하기 4년 전인 1587년에 왜적이 전라좌수군 지역인 홍양(고흥)에 침입하여 조선수군이 대패한 사건이 있었다. 선조 20년(1587) 2월 『선조수정실록』의 기록에 의하면 ‘왜선이 홍양에 침구하였는데, 녹도 권관 이대원이 막아 싸우다가 패하여 죽었다.’¹¹⁾ 고 하였다. 그해 『선조실록』의 기록을 근거로 당시 상황을 재구성해 보면 다음과 같다.

정해년(1587) 2월 왜적선 18척이 홍양 손죽도에 침범하자 전라좌수사 심암은 녹도권관 이대원을 척후로 삼아 왜구와 싸우게 했는데, 왜구가 많고 조선수군은 적어서 대적하지 못하고 패전하였다. 이 때 조선수군은 장사(將士) 천여 명을 잃었다. 조정에서는 패전한 이유를 조사하여 관련자들을 엄벌에 처벌했다. 전라좌수사 심암은 이대원을 구원하지 않았으므로 참수되었다. 순천부사 변기는 처음부터 힘써 싸우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도망갔고, 신영은 유독 병선이 몹시 느리다고 핑계대며 즉시 나가서 싸우지 않고 바깥 바다에서 관망하다가 화살 하나 쏘지 않고 가버렸으며, 성천지 · 박인봉 · 이흥명도 힘껏 싸우지 않고 도망하였으므로 이들 모두 문책되었다. 또한 전라감사 한준도 이대원이 패하여 죽었을 당시 순천에 도착하여 적의 형세가 왕성하다는 말을 듣고 내지로 급히 돌아갔는데, 그때 노약자들이 길을 막고 붙들면서 호소했지만 돌아보지도 않고 별별 핏대 물러갔으므로 파직되었다.¹²⁾

선조가 그해 3월 7일에 지시하기를, 2월에 발생한 홍양 왜구 침입사건에 대해 ‘그 전투에서 패한 원인과 살해되고 약탈당한 인원 수, 적의 군사 형편과 장수 및 군사들의 용감하고 비겁한 정도에

11) 『선조수정실록』 21권, 20년 2월 1일 경신.

12) 『선조수정실록』 21권, 20년 2월 1일 경신; 『선조실록』 21권, 20년 2월 26일 을유; 3월 3일 임진; 3월 10일 기해; 3월 28일 정사; 4월 4일 계해; 6월 4일 임술; 8월 9일 병인 기록내용을 기초로 재구성하였다.

대하여 자세히 알아서 날날이 보고하라.’¹³⁾고 하였다. 이에 비변사에서 전라좌수사 심암의 국문을 청했고,¹⁴⁾ 선조가 전투에 패한 심암을 군문에서 참수할 것을 논의하라고 지시¹⁵⁾한 후, 4월 4일에 참수형을 집행하였다.¹⁶⁾ 이렇듯 신속하게 엄벌을 시행함으로써 군대의 기강을 잡고자 하였다.

그해 8월에는 선유어사로 오랫동안 호남에 머물다가 돌아온 조인후가 상세한 패전 이유를 보고¹⁷⁾하였는데, 관련 장수들이 전투를 회피하여 패전하게 되었으므로 모두에게 군기 문란 책임을 물어 엄벌에 처하는 강력한 후속조치를 하였다.

위의 사건은 당시 조선 군대의 기율 문란 단면을 보여주는 사건으로써, 4년 뒤인 1591년 2월에 전라좌수사로 부임하는 이순신으로 하여금 왜구의 침입에 대비하여 기율을 엄하게 하면서 전투준비태세를 철저하게 갖추게 하는 하나의 단초가 되었다고 추정한다.

이 사건 후에 선조가 지시한 내용에 대해 선조 20년(1587) 『선조실록』의 기록을 보면 다음과 같다.

- 3월 2일, 적과 맞서 응변할 적에는 마땅히 적의 용병하는 형세를 잘 알아 대응해야 된다. [……] 바깥 바다에 계속 체류하고 여러 섬에 나누어 정박하면서 오래도록 쳐들어오지 않아 그 실정을 측량하기가 어려우니, 이를 참작하여 아될 것을 비변사에 이르라. [……] 적을 방어할 모든 기구들이 이미 정리되어 있는지의 여부도 병조에 이르라.¹⁸⁾
- 3월 3일, 무릇 적병의 많고 적은 것은 따질 것이 없다. 오직 용병의 기율과 기예 및 용맹성을 먼저 알아야 한다. 좌수사 심암은 이미 적과 전투를 벌였는데도 적이 용병하는 형편과 깃발·금고(金鼓: 징과 북) 등의 일을

13) 『선조실록』 21권, 20년 3월 7일 병신.

14) 『선조실록』 21권, 20년 3월 10일 기해.

15) 『선조실록』 21권, 20년 3월 28일 정사.

16) 『선조실록』 21권, 20년 4월 4일 계해.

17) 『선조실록』 21권, 20년 8월 9일 병인.

18) 『선조실록』 21권, 20년 3월 2일 신묘.

모두 갖춰 진술하지 않았으니, 그 미혹함을 알겠다. [……] 적이 비록 잠시 물러났으나 이는 우리를 유인하는 것이다. 절대 마음을 태만히 하지 말고 더욱 전구(戰具)를 닦고 창을 베고 자면서 대비하라. 그리고 봉수(烽燧)나 요망(瞭望) 등의 일을 날로 새롭게 조사하고 단속하라.¹⁹⁾

위의 인용과 같이 선조의 지시내용에 기초하여 당시의 관심사항을 추정할 수 있으며, 선조가 지시한 사항을 포함하여 조선 조정에서 파악한 패전의 원인은 해안방어를 담당하는 모든 조선수군에게 전파되었을 것이다. 이순신은 전라좌수사로 부임한 후, 이 사건에 대해 보다 더 상세하게 분석하여 교훈을 도출했을 것이며, 그 교훈을 다음과 같이 추론할 수 있다.

첫째, 왜구함선의 대규모 침입에 대응하는 전라좌수군과 전라도 군대의 기울이 문란하여 일사불란하게 조직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부대의 기강과 기울이 바로 서 있어야 하는데, 당시 전투에 참가한 전라좌수군을 포함한 많은 부대들이 그렇지 못했고, 왜구에 대한 두려움이 만연되어 있었으며, 전투 전에 도망가거나 전투를 회피하는 장졸 때문에 크게 패했다.

둘째, 왜구의 지휘체계나 함선, 무기, 전술, 군기와 용맹성, 전투능력, 신호 및 명령체계(깃발과 金鼓) 등을 상세하게 파악하지 못했다. 왜구가 상당한 규모를 갖췄을 뿐만 아니라 바깥 바다에서 체류한다거나 여러 섬에 나누어 대기한다는 것은 지휘체계와 전투능력을 갖춘 것으로 보아야 했다.

셋째, 왜구가 언제 침략할지 가늠하기 어려우므로 상시 전투준비를 갖춰야 했다. 특히 즉각 전투에 돌입하겠다는 정신자세로 모든 전투도구를 준비하고, 적에 대한 감시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진-포구 간의 신호 및 연락체계와 상호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했다.

넷째, 왜구의 노략질을 막기 위해서는 왜구함선이 상륙하기 전에

19) 『선조실록』 권21, 20년 3월 3일 임진.

바다에서 격멸해야 했다.

위의 교훈은 이순신이 4년 후에 전라좌수사로 부임하여 전쟁준비를 할 때 중요하게 참고했을 것이다.

선조 24년(1591) 일본이 전쟁을 일으킬 것이라는 징후들이 연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었으므로 조선 조정에서는 왜란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생각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해 2월 12일에는 선조가 사헌부의 건의를 받아들여 이순신을 포함하여 이억기, 이천, 양응지 등을 남쪽 지방의 요해지로 배치하라고 지시하였다.²⁰⁾ 장수들을 새로 임명한 조치를 보더라도 전란에 대비하고 있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그해 3월 통신사들이 일본에서 돌아왔을 때, 황윤길²¹⁾이 부산에 도착하여 일본의 상황에 대하여 반드시 전란이 터질 것이라고 급보²²⁾하였으며, 윤 3월에는 일본의 사신 현소가 김성일에게 “명나라가 일본과 오랫동안 관계를 끊고 조공을 받지 않기 때문에 평수길(도요토미 히데요시)은 이것을 분하고 수치스럽게 생각하여 싸움을 일으키려고 한다.”²³⁾고 하였다.

이순신은 위와 같은 왜란 발발 정보(Intelligence & Information)에 기초하여 전쟁준비를 충실하게 하였다. 『선묘중흥지』에 ‘벌써 왜국과의 관계가 멀어졌건만 조정과 민간은 무사태평으로 지내고 이순신만이 홀로 걱정하여 크게 전함을 보수하고 군사들을 다스리는 데에도 법도가 있었다.’²³⁾고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이순신만이 전쟁준비를 매우 실질적으로 하였음을 추정할 수 있다.

조선 조정에서도 왜란 발발에 대비하여 조치를 하고 있었으나 실효성은 없었다. 선조 24년(1591) 7월 『선조수정실록』의 기록에서

20) 『선조실록』 권25, 24년 2월 12일 기묘.

21) 김성일은 이와 정반대의 의견을 피력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선조수정실록』 권26, 25년 3월 3일 갑자.

22) 『선조수정실록』 권25, 24년 윤 3월 1일 병인.

23) 『선묘중흥지』 권1, 선조 24년 7월 十三쪽.

확인할 수 있다.

7월 1일, 비변사에서 “왜구가 바다에서는 잘 싸우지만 육지에서는 맥을 추지 못하므로 육지에서 방어하는 일에 전적으로 힘을 써야 한다.”고 건의하여, 호남과 영남에서 큰 고을의 성들을 덧쌓고 수리하도록 지시하였으나, 평지에 다 쌓았고 높이도 두세 길은 넘지 않아서, 사람들은 그것이 결코 적을 막아내지 못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²⁴⁾

선조 25년(1592) 초, 조선 조정은 전국의 전투준비태세를 점검하기 위해 대장 신립과 이일에게 여러 도의 전쟁준비 상황을 돌아보게 하였다. 이일은 호서와 호남에, 신립은 경기와 해서에 갔다가 한 달 만에 돌아왔는데, 점검한 것은 활과 화살, 창과 칼뿐이었고, 고을들에서는 빈 문서들만 갖추어 놓고 법을 모면하였다²⁵⁾고 『선조수정실록』에 기록하고 있다.

즉, 위의 기록들에서 보듯이 조선은 왜란 발발 정보에 기초하여 조정의 통제 하에 전국적으로 왜란에 대비하였으나, 이순신만이 내실 있게 준비하였고 다른 지역에서는 그렇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순신의 창의적인 전쟁준비 활동은 무엇인가? 이순신은 정해년(1587) 홍양 왜구 침입 사건에서 도출한 교훈과 일본수군에 대한 정확한 정보에 기초하여 전쟁준비를 했을 것이며, 전쟁준비 중점은 전라좌수군의 취약점을 우선 보강하고 일본수군의 강점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조치들이었을 것이다.

이순신의 전쟁준비 중점을 역으로 조명해보면 일본수군의 강약점을 추정할 수 있다. 이순신이 판단한 일본수군의 강점은 ‘등선하여 육박전을 잘 한다’는 것이고, 약점은 ‘일본수군의 함선에 원거리를

24) 이때 영천, 청도, 삼가, 대구, 성주, 부산, 동래, 진주, 안동, 상주의 좌우병영에 성을 덧쌓고 참호도 설치하였다. 『선조수정실록』 권25, 24년 7월 1일 갑자.

25) 『선조수정실록』 권26, 25년 2월 1일 임진.

사격할 수 있는 화포가 없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이순신의 대비책은 조선 조정의 방왜육전론(防倭陸戰論)²⁶⁾에도 불구하고 바다에서 일본수군의 함선을 원거리에서 총통사격²⁷⁾으로 당파하여 상륙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²⁸⁾이었고, 일본군이 상륙하였을 때는 각 관·포에서 수성(守城)전투²⁹⁾로 일본군을 격멸하는 것이었다.

반면에 이순신이 판단한 전라좌수군의 취약점은 16세기 조선 군대 전반에 퍼져있는 군역의 문란³⁰⁾이나, 정해년(1587) 홍양 왜구

26) 일본군의 침입에 대하여 해상에서 해전으로 저지하는 것이 아니라, 방어체제를 갖추고 일본군이 상륙하기를 기다려 육지에서 제압한다는 지상전 위주의 수세 전략이었다. 육군본부, 『한국군사사』 제7권, 육군군사연구소, 2012, 31쪽.

27) 이순신의 1차 출전 승첩장계 「玉浦破倭兵狀」을 보면, 옥포해전에서는 ‘양쪽으로 에워싸고 대들면서 대포를 놓고 화살을 쏘아대기를 마치 바람처럼 천둥처럼 하자’라고 기록하고 있고, 적진포해전에서는 ‘총과 대포를 쏘아 맞추어 깨뜨려 불태웠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은 이순신이 총통을 이용한 원거리 사격으로 일본함선을 격파하는 전술개념으로 싸웠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이충무공전서』 권2, 「玉浦破倭兵狀」

28) 일본군이 상륙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이순신의 생각은 확고하였다. 이순신의 경상도 출전 보고 장계에 보면, ‘신의 어리석은 생각으로는, 지금 일본군의 세력이 왕성해진 것은 모두 적들과 바다에서 싸우지 않고 적들이 멋대로 물으로 올라가게 내버려 둔 때문입니다. [……] 지난날 부산·동래 연해안 여러 장수들이 만약 배와 노를 잘 정비하여 바다 가득히 진을 치고 있다가 일본수군의 배들을 들이칠 위세를 보이면서 정세와 힘을 잘 살피고 해야라서 적절히 병법대로 나아가고 물러남으로써 적들을 물으로 기어오르지 못하게 했더라면 나라를 욕되게 하는 우환이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충무공전서』 권2, 「赴援慶尙道狀(二)」

29) 임진왜란 전 수군의 방왜체제(防倭體制)는 제승방략으로 수사에게 진·포를 소속시켜 일본군 침입 시 수사가 관·포의 수군을 총동원하여 전투하는 개념이었다. 제장명, 앞의 박사학위논문, 51쪽.

따라서 일본군이 상륙했을 경우에는 수사의 책임 하에 수성전투로 격멸해야 할 임무가 있다. 또한, 수성전투에 대하여 이순신의 생각은 다음과 같다. ‘경상도의 바닷가 여러 고을들은 깊은 해자와 높은 성루로 튼튼한 곳이 많았는데, 성을 지키던 비겁한 군사들이 일본군이 쳐들어온다는 소문만 듣고서도 간담이 떨려 모조리 도망칠 생각만 품었으므로, 적이 에워싸기만 하면 반드시 함락되어 온전한 성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충무공전서』 권2, 「赴援慶尙道狀(二)」

30) 16세기 말에는 군역의 회피가 일반적인 상황이었다. 즉 군적에는 일정한 수효가 올라 있으나 실제 군역을 지는 병력은 거의 없었다. 이민웅, 앞의 책, 75쪽.

침입사건 때 나타난 것처럼 기율을 엄하게 세워야 하는 상태³¹⁾, 왜란이 곧 발발할 것이라는 여론에도 형식적인 전쟁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 등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그나마 각종 총통을 탑재한 판옥선은 조선수군의 강점이었다.

따라서 이순신이 염두에 둔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전쟁준비는 전라좌수군의 지휘통제체계(Command and Control)를 확립하는 것이었다.

먼저, 엄격한 기율을 확립하기 위한 이순신의 조치를 임진년(1592) 『난중일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임진년(1592) 『난중일기』에도 병역 기피자를 색출하기 위한 활동이 있는 것은 군역문란을 반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광양현감이 수색 검토(병역 기피자를 색출하기 위한 활동)에 대한 일로 배를 타고 왔다가 [……], 『난중일기』 임진년 4월 9일.

- 31) 정해년(1587) 홍양 왜구 침입사건 후 관련 책임자들 모두를 엄벌하여 기율을 확립시킨 조정의 조치가 있었는데, 심암 다음으로 전라좌수사가 된 이천 재임 시에도 전라좌수군의 분란은 계속되었다. 이천이 수토(搜討)할 일로 전라좌수군 예하장수들을 집합시켰는데, 늦게 도착한 순천부사·보성·낙안·홍양·평양 수령들을 장형으로 벌하였다. 이 때 장형을 맞은 보성군수 이흠이 즉사하였다. 이 사건 후 이천이 인심을 잃었다고 전라감사 윤두수가 보고하였고, 비변사가 이천의 체차(교체)를 청한 다음, 선조가 체차를 승인하였다. 사간원에서는 전라감사 윤두수를 능멸한 전 수사 이천의 파직과 우후를 무단 벌한 감사 윤두수의 추고를 청하였으며, 윤두수가 이천의 장계에서 자신을 지척하였다고 사직을 청하였으나 거부되었다. 선조가 방어사 신립에게 이천이 이흠을 형장한 일에 대해 지휘계통을 조사하라고 지시하였는데, 조사결과 이천은 방어사 신립이 작성한 이흠의 지체사유 문건을 묵살함으로써 상관의 명령을 무시한 죄로 장 80대를 맞고 직첩 3등을 빼앗겼다. 『선조실록』 21권, 20년 6월 1일 기미, 7월 21일 무신, 7월 23일 경술, 7월 24일 신해, 7월 30일 정사, 8월 1일 무오, 8월 26일 계미에 실린 관련내용을 종합하였다.
- 이민응은 이 사건에 대해 신임 수사가 전라좌도 수군의 군기를 엄정하게 유지하려고 노력했다고 보고 있다. 이민응. 앞의 책, 71쪽.

〈표 2〉 이순신의 기강확립을 위한 조치(1592년)

일자	잘못한 인원	죄 목	처 벌
1. 16.	방답 군관과 색리	병선 수리하지 않음.	곤장
	토병 박몽세	이웃집 개에게 피해	곤장 80대
2. 15.	석공들	해자 구덩이 많이 무너짐.	벌을 주고 다시 쌓게 함.
2. 25.	사도 군관과 색리/ 첨사/교수	전쟁준비에 결함 많음.	죄를 처결/ 잡아 들임/파직
3. 4.	우두머리 승려	승군들 돌 줍는 일 불성실	곤장
3. 5.	색리, 궁장, 감고	활, 갑옷, 투구, 화살통, 환도가 대부분 깨지고 훼손	논죄
3. 20.	순천부사 대장(代將) 색리, 도훈도	순천부사가 탐색할 일을 기한에 마치지 못함.	추궁하여 따짐.
	사도첨사, 홍양현감	탐색한 일 조사 목적	공문 보냄
3. 23.	사환 소국진	널빤지가 제때에 오지 않음.	곤장 80대
4. 18.	병방	군사들을 인도하지 않음.	잡아 가둠.
5. 3.	여도수군 황옥천	왜적의 소식을 듣고 집으로 도망	목을 베어 군중 앞에 효시

출처: 『난중일기』 임진년 1월 16일, 2월 15일, 2월 25일, 3월 4일, 3월 5일,
3월 20일, 3월 23일, 4월 18일, 5월 3일에서 발췌.

이순신은 위의 〈표 2〉와 같이 전쟁준비 책임을 다하지 않았거나 잘못하고 기율을 무너뜨리는 행위를 했을 때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문책함으로써 기강을 확립하였다.

또한, 편성된 부대에 대해 주기적으로 병력을 점고하여 지휘체계를 확인하였다. 임진년(1592) 1월 3일에는 별방군, 1월 19일에는 각 부대, 2월 16일에는 친구번 군사들, 3월 1일에는 별방군과 정규 군병과 하번군, 4월 1일에는 별조방을 점고했다.³²⁾

이순신의 현장 지휘통제의 백미는 전라좌수사로 부임한 지 1년이

32) 『난중일기』 임진년 1월 3일, 1월 19일, 2월 16일, 3월 1일, 4월 1일.

지나면서 <표 3>과 같이 예하 5관 5포³³⁾를 8박 9일 동안 현장에서 전비태세를 검열한 것이었다. 현장에서 직접 검열하는 가장 큰 장점은 현실태를 적나라하게 확인할 수 있고, 검열결과에 따라 신상필벌을 시행함으로써 가장 즉시적이고 효과적으로 지휘통제체계를 확립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본수군에 비해 조선수군의 가장 큰 강점은 함선에 화포를 탑재하고 있으므로 일본수군의 함선을 원거리에서 격파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임진년(1592) 『난중일기』 기록을 보면, 이순신은 판옥선의 각종 대포(천자·지자·현자·황자총통 등)의 사격과 거북선의 대포 시험 사격을 확인하였으며, 거북선에 직접 탑승하여 대포 사격을 확인하는 등 함선의 화력(Fires)이 제대로 성능을 발휘하는지 상당한 관심을 두었다.

<표 3> 전투준비태세 현장 검열(1592년)

일 자	검열 지역
2. 19.	여도 검열
2. 20.	늦게 홍양 도착
2. 21.	홍양 검열
2. 22.	녹도 검열
2. 23.	발포 검열
2. 24.	사도 검열
2. 25.	사도 군관/색리/첨사/교수 처벌
2. 26.	방답 검열
2. 27.	방답 검열 후 전라좌수영 복귀

출처: 『난중일기』 임진년 2월 19일~27일.

2월 22일, 그 길로 녹도로 가서 [……] 대포 쏘는 것도 보느라 촛불을 한참동안 밝히고서야 자리를 파했다.

3월 27일, 거북선에서 대포 쏘는 것을 시험했다.

4월 12일, 식후에 배를 타고 거북선에서 현자·지자 대포를 쏘아 보았다.³⁴⁾

그러나 판옥선에 탑재하여 원거리를 사격할 수 있는 총통과 같은 강력한 화력이 있었지만 바다 위에 떠있는 함선에서의 사격은 명중

33) 5관은 순천, 낙안, 보성, 광양, 홍양(고흥)이고, 5포는 방답(여수시 돌산읍 군내리), 사도(고흥군 영남면 금사리), 녹도(고흥군 도양읍 녹동), 발포(고흥군 도화면), 여도진(고흥군 점암면 여호리)이다. 『이충무공전서』 권2, 「赴援慶尙道狀(一)」

34) 『난중일기』 임진년 2월 22일, 3월 27일, 4월 12일.

물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순신의 고민이 여기에서 깊어졌을 것이다. 명중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본 함선과 가까운 거리에서 사격해야 하는데, 일본수군의 강점인 등선을 거부하면서 일본수군 함선에 최대한 가깝게 접근하여 사격하기 위한 방법을 찾던 중 거북선을 만들었을 것으로 추정한다.³⁵⁾ 거북선은 일본수군의 등선육박전술(登船肉撲戰術)³⁶⁾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거북선 등판에 칼송곳을 꽂았는데,³⁷⁾ 이는 일본수군의 강점을 회피하고 조선수군의 강점인 화력을 가장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최상의 무기체계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일본군의 침입에 대한 이순신의 대비책은 먼저 일본수군이 상륙하지 못하도록 바다에서 일본 함선을 격침하는 것이며, 상륙했을 때에는 수성전투로 격멸하는 것이었다. 이순신은 일본군의 상륙에도 대비하여 방호(Protection)태세를 철저하게 확인하였다. 임진년(1592) 『난중일기』를 보면 전라좌수군 진(陣)의 방호태세를 점검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2월 4일, 해자 구덩이를 돌아보았다.

3월 25일, 새로 쌓은 성을 돌아보니 남쪽이 아홉 발 쯤이나 허물어짐.

3월 27일, 배를 타고 소포(여수 동쪽 포구)로 가서 쇠사슬을 가로 걸어 매는 일을 감독하고 하루 종일 기둥나무 세우는 것을 보았다.³⁸⁾

35) 제장명도 필자와 유사한 견해를 갖고 있다. 일본군이 포구 깊숙이 주둔하고 있을 때 원거리에서 발포할 경우 명중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근접하여 포를 발사해야 한다. 이 경우 판옥선은 일본군들이 포구 입구의 언덕에서 쏘는 화포 공격에 취약하다. 따라서 적의 화포 공격에도 인명 피해 없이 적선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두꺼운 판자로 등 부분을 장갑한 구조의 전선이 필요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제장명, 앞의 박사학위논문, 37쪽.

36) 일본식 표현은 ‘키리토리(切り取り)’라고 하며, ‘(배에 올라타서) 사람을 쳐죽이고 물품을 빼앗다.’라는 의미이다. 이민웅, 앞의 책, 104쪽.

37) 『선조수정실록』 권26, 25년 5월 1일 경신.

38) 『난중일기』 임진년 2월 4일, 3월 25일, 3월 27일.

일본군의 상륙공격에 대비하여 성곽과 주변 해자를 점검하고 보수하는 활동을 직접 감독하였으며, 전라좌수영 포구를 통한 적의 기습을 방지하기 위하여 포구에 쇠사슬을 설치하였다. 모든 방비를 싸우고자 하는 방법에 따라 대비하였다.

또한, 전투력 지속(Sustainment) 지원태세 유지를 위한 이순신의 노력을 임진년(1592) 『난중일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 4〉 임진년(1592) 1~4월 『난중일기』에 기록된 전투력 지속 활동

1월	3월
1일 : 장전, 편전 받음. 3일 : 별방군 점검 16일 : 병선 수리 19일 : 각 군대 점검	1일 : 별방군, 정규병, 하번군 점검 2일 : 승군 돌 주웠음. 6일 : 군기(활, 갑옷, 투구, 화살통, 한도) 점검 12일 : 경강선 점검 20일 : 탐색한 일 검토 24일 : 탐색 복귀 27일 : 거북선, 대포 시험
2월	4월
8일 : 거북선에 쓸 돛배 받음. 11일 : 새로 뽑은 군사 점고 13일 : 큰화살대, 중간화살대, 쇠 보냄. 16일 : 신병과 임무를 마친 군사들 검열 20일 : 전선, 무기점검 22일 : 배, 대포 점검 24일 : 전선 점검 25일 : 전쟁 준비 26일 : 무기, 장전, 편전, 전투선 점검	1일 : 별조방 점검 9일 : 수색 검토 11일 : 배뚫 만들. 12일 : 거북선, 지자·현자포 사격

출처: 『난중일기』 임진년 1월, 2월, 3월, 4월14일까지 내용에서 발췌.

위의 〈표 4〉에서 보듯이 이순신은 전투력 지속 지원능력을 유지시키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음을 알 수 있다. 이순신의 관심은 병력, 전선, 거북선, 총통, 활과 화살, 창, 칼 등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장비와 물자에 집중되어 있었다.

이순신은 병력 확보를 위해서 정규군에 해당하는 상·하번 정병 외에도 별방군·별조방군 등 다양한 형태의 병력을 징발해 전쟁에 대비했다. 16세기 말에는 군적에는 등록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복무하지 않는 군역의 회피가 일반적인 상황이었었는데, 이순신은 본영과

휘하의 5관 5포의 병력 유지를 규정대로 철저히 감독했던 것이다.³⁹⁾

또한 함선의 기능유지 여부와 전투에 긴요한 각종 무기를 점검한 활동도 활발하게 하였다. 임진년(1592) 『난중일기』 기록내용이다.

1월 16일, 방답의 병선 담당 군관과 아전들이 병선을 수선하지 않아 곤장 때림.
3월 6일, 무기를 검열해 보니 칼, 갑옷, 투구, 전통, 환도 등이 깨지고 헐어서
아전과 공장(활 만드는 기술자), 감고(검열관)들을 벌줌.
3월 12일, 경강의 배를 점검하고⁴⁰⁾

위의 기록에서 보듯이 이순신은 전함과 각종 무기류의 보수와 기능 발휘 등을 점검하여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였다.

효과적인 리더십(Leadership)은 다른 전투력 요소들을 통합하여 전투력을 상승시키는 승수효과로 나타난다. 이순신의 리더십은 모든 전쟁준비 활동으로 귀결되었다.

이순신은 전라좌수군이 전쟁에 대비하여 일본수군과 싸울 수 있는 능력과 역량을 갖춰야하는 임무에 초점을 맞춰 리더십을 발휘하였다. 임진년(1592) 『난중일기』의 기록에서 찾아볼 수 있다.

〈표 5〉 임진년(1592) 1~3월 『난중일기』에 기록된 리더십 관련 활동

구 분	세 부 내 용
전쟁준비에 집중한 현장 점검	• 별방군 점검(1.3), 각 부대 점고(1.19), 봉화대·해자 점검(2.4), 신병 점고(2.11), 별방군과 정규군 점고/하변군 점고(3.1), 해자·성벽 점검(3.4), 무기 검열(3.6), 배 점검(3.12), 순천 관내 수색검토 하는 일 점검(3.20), • 2.19~27(8박 9일간)까지 5관 5포 현장 순시 전비태세 검열
원칙적인 책임 추궁	• 방답 병선 담당 군관과 아전 곤장(1.16), 석수 박물세 곤장 80대(1.16), 석수 벌줌(2.15), 승군 우두머리 매를 때림(3.4), 순천 대장·아전·도훈도 문책(3.20)

출처: 『난중일기』 임진년 1월, 2월, 3월 내용에서 발췌.

39) 이민웅, 앞의 책, 75쪽.

40) 『임진일기』, 1592년 1월 16일, 3월 6일, 3월 12일.

위의 <표 5>에서 나타난 것처럼 임진왜란 발발 전의 이순신은 전쟁준비를 해야 하는 임무에 지향한 현장 중심의 원칙적인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다.

2) 임진왜란 발발 직후 이순신의 상황판단과 조치

전란이 발발했다는 소식을 접한 이순신은 어떠한 상황판단과 조치를 하였는가? 이순신의 『난중일기』와 「장계」를 종합하여 왜란 발발 시부터 1차 출전까지 이순신의 주요활동을 정리하면 <표 6>과 같다.

<표 6> 이순신이 임진왜란 발발 인지 후 1차 출전까지 주요활동

4. 15.	- 경상우수사(원균), 경상좌수사(박홍), 경상관찰사(김수)로부터 왜란이 발발했다는 공문 접수 - 인왜경대변장(1)(因倭警待變狀(一)) 보고, 순찰사(이광)와 병마사(최원)에게 보고, 전라우수사(이억기)에게 전파, 군사와 전선 정비
4. 16.	- 경상우수사 공문 접수, 因倭警待變狀(二)·(三) 보고, 경상전라총청도에 공문 발송 - 모든 전투장비 갖추도록 지시, 병사 보충 등 모든 것을 사변 대비 체제로 전환
4. 17.	경상 우병마사(김성일)의 공문 접수, 전·후번 수군을 방비처로 오도록 함.
4. 18.	경상우수사의 공문 접수, 순천 군사를 거느린 병방(兵房)이 군사를 인도하지 않아 잡아가둠.
4. 19.	품방(品防)⁴¹⁾에 해자를 파는 일 독려, 상격대 순시, 신병 700명 점고 및 사역
4. 20.	경상 관찰사(김수) 공문 접수(전황 및 구원해 오도록 장계로 청했다고 알림.)
4. 21.	성두군(城頭軍)(성 위의 궁수들)을 벌려 세울 일로 과녁 터에 앉아서 명령 내림.
4. 22.	탐망하고 부정한 일을 적발하기 위해 군관들을 예하부대로 보냄, 품방 사역시킴.
4. 26.	물길을 따라 적선을 습격하라고 명령하는 유서(命 從水路 激襲敵船 諭書) 접수
4. 27.	- 원균과 함세하여 적을 치라고 명령하는 유서(命 與元均合勢攻賊 諭書) 접수 - 부원경상도장(1)(赴援慶尙道狀(一)) 보고
4. 29.	원균의 회답공문 접수(전라좌도 전선으로 당도 앞바다로 구원요청)
4. 30.	赴援慶尙道狀(二) 보고
5. 1.	전라좌수영 예하 함선이 모두 전라좌수영 앞바다에 모임.
5. 2.	바다에서 진을 치고 여러 장수들과 함께 의논
5. 3.	5월 4일 새벽에 출전할 것을 약속, 출동 장계 작성, 탈영한 수군 황옥전을 효수
5. 4.	赴援慶尙道狀(三) 보고, 새벽에 출동(1차 출전, 미조항 앞바다에서 다시 한 번 약속

출처: 『난중일기』 임진년 4월 15일~5월 4일; 『이충무공전서』 권2, 「因倭警待變狀(一), (二), (三)」; 「赴援慶尙道狀(一), (二), (三)」

41) ‘품(品)자 모양으로 구덩이를 파서 적의 침입을 막도록 만든 곳이다. 노승석, 『중보 교감완역 난중일기』, 도서출판 여해, 2014, 76쪽에서 재인용.

이순신은 임진년(1592) 4월 15일 전란이 발발했다는 공문을 경상우수사, 경상좌수사, 경상관찰사로부터 접수하면서 가장 우선적인 조치는 전란상황의 전파와 일본군에 대한 정보(Intelligence) 수집 활동이었다.

이순신은 전란상황을 전라우수사(이억기)에게 전파하였고, 전라도 겸관찰사(이광), 전라도 병마절도사(최원)에게 보고하였으며, 조정에 장계를 올렸다. 아울러 전라 좌수영 예하 각 고을과 포구에도 동시에 공문을 돌려 전황을 알려주고 일본군의 침입에 대비하여 군사와 전선들을 정비하여 바다 어귀에서 대비⁴²⁾하도록 하는 우선적인 조치를 취했다.

전란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면서 전라좌수영을 전란대비체제로 전환하였다. 일본군이 전라좌도로 쳐들어올 수 있으므로 군사와 전선을 정비하여 바다 어귀에서 사변에 대비하면서, 탐망 활동을 활발히 하고 모든 전투장비를 준비하였다.⁴³⁾ 특히 병력 보충에는 시간이 걸리므로 동원된 군사들을 수성 군사와 수전 군사에 우선 보충시켜 대비하면서 추가적으로 수군을 보충시켰다.⁴⁴⁾

여기에서 4월 20일에 경상관찰사 김수로부터 전라좌수군으로 원군해줄 것을 조정에 요청했다는 공문을 받은 이순신의 판단과 조치가 어떠했는가를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경상우수사 원균도 경상관찰사 김수의 공문을 동시에 받았을 것이므로 원군을 요청한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당시의 기록을 통하여 이순신의 판단과 조치를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순신은 제승방략(制勝方略)⁴⁵⁾에 따라 우선적으로 전라

42) 『이충무공 전서』 권2, 「因倭警待變狀(一)」

43) 『이충무공 전서』 권2, 「因倭警待變狀(二)」

44) 『난중일기』 임진년 4월 17일, 4월 18일, 4월 19일.

45) 임진왜란 발발 시기의 수군방어체제는 제승방략이었다. 을묘왜변 이전에 수군 방어체제는 세조 3년(1458)에 제편한 진관체제(鎭管體制)였다. 이는 도 단위로 수사가 임명되어 지휘관으로서 부여된 책임지역의 해안을 방어하였다. 진관체

좌수군의 책임지역을 지키기 위해 대비조치를 하고 있었다. 일본수군의 침입에 대응하기 위해 함선들을 예하 관·포 어귀에 대기시키고 있는 가운데, 병력 보충 및 충원,⁴⁶⁾ 일본수군의 상륙에도 대비하여 4월 21일에는 ‘성위에 군사를 줄지어 세우는 일로 과녁 터에 앉아서 명령을 내렸다.’⁴⁷⁾고 했고, 4월 22일에는 ‘품방에서 일을 시켰다.’⁴⁸⁾고 하였다. 위의 기록으로 추정해 볼 때 일본군과의 해전과 육전을 동시에 준비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경상도 지역 바다로 출전하라는 조정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었다. 제승방략에 의하여 일본군의 침입규모에 따라 군사를 집결하여 대응할 수 있으므로 조정의 명령이 있으면 타도(他道)로 출동할 수 있었다. 경상관찰사 김수가 공문을 보내 전라좌수군으로 구원해 주기를 원하는 요청이 있었지만, 책임지역 밖으로 부대를 이동시키기 위해서는 조정의 출동명령이 있어야 하므로,⁴⁹⁾ 이순신은

제에서의 해양방위의 특징은 수사가 관할하여 자전자수(自戰自守)하는 지휘권과 작전권이 독립된 지역방위체제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진관체제로 유지되어 오다가 을묘왜변 이후 제승방략(制勝方略)으로 발전되게 되는데, 이는 수사에게 해상방어 요새지의 진관을 소속시켜 평시에는 제진(諸鎭)을 방어하다가 적의 침략이 예상되면 군사요새지에 군사를 집결토록 하여 적의 침입에 대응하는 수군방어체제였다. 나중우, 「조선 수군의 무기체계와 전술 구사」, 『조선관계사연구』 10호, 1998, 86~89쪽에서 핵심내용을 발췌하여 정리하였다.

46) 전라좌수영의 병력 보충 및 충원활동의 기록은 『난중일기』 임진년 4월 17일의 전·후번 수군을 방비처로 오도록 한 것, 4월 18일의 순천 군사를 전라좌수영 본영으로 인도하게 되어있는 것, 4월 19일의 신병 700명 점고 등의 활동이다. 『난중일기』 임진년 4월 17일, 4월 18일, 4월 19일.

이순신의 2차 출전 후 승전장계에 등장하는 전·사상자를 기초로 분석해 보았을 때, 조선수군은 정규 수군에 추가하여 다양한 신분의 군사들이 전투에 참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병(正兵: 육군), 보인(保人: 당번 수군이 유고 시에 보인이 근무), 토병(土兵: 비정규군, 그 고장에서 출생·성장하여 지리에 밝은 자), 포작(鮑作: 평소 해산물 채취하는 사람), 노비(奴婢) 등이며, 가용한 모든 인원을 총동원한 것으로 추정된다. 제장명, 앞의 박사학위 논문, 24~32쪽.

47) 『난중일기』 임진년 4월 21일.

48) 『난중일기』 임진년 4월 22일.

49) 당시에 부대를 출동시키기 위해서는 조정의 비밀병부를 침부한 명령이 있어야 가능했는데, 다음의 내용이 이를 증명한다. 조정에서는 대신들을 불의에 불려

조정의 명령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이순신의 임진년(1592) 4월 27일 장계[赴援慶尙道狀(一)]를 보면 경상관찰사(김수)가 구원을 요청한 공문(4월 20일 도착)의 내용과 4월 26일 애매한 조정의 지시(命 從水路 激襲敵船 諭書)를 접수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순신은 “나아가 같이 싸우라는 조정의 명령을 엿드려 기다리면서, 소속 수군과 각 고을 및 포구에는 전선을 정비하여 주장(主將)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으라는 내용으로 급보를 띄웠으며, 본도의 감사 및 병마사와도 의논을 하였다.”⁵⁰⁾고 보고하고 있다.

여기에서 원균의 구원요청을 이순신이 묵살했다는 주장에 대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순신의 「장계」에 의하면 원균은 4월 29일이 되어서야 구원요청을 하였다.⁵¹⁾ 이순신은 전황을 접수하면 공문에 그대로 명시하여 전파하거나 조정에 보고하였다. 이순신의 장계

들일 때 뜻밖의 변고가 생길 것을 우려하여 비밀 병부(兵符) 세 짝을 새로 만들어 한 짝은 대신에게 주고 두 짝은 대궐 안에 보관해 두었다가 불의에 불리 들었을 때 병부를 맞추어 대조해 보게 하였다. 병조판서와 8도의 감사, 병사, 수사에게도 주었다. 『선조실록』 권24, 23년 2월 11일 갑신.

50) 『이충무공전서』 권2, 「困倭警待變狀(一)」

51) 1592년 4월 29일 이전에 원균의 구원요청을 기록한 임진왜란 당시의 문서는 없다. 다만 임진왜란이 끝난 뒤에 기록된 문서는 있다. ① 『선조수정실록』의 기록은 이순신의 「장계」 내용과 일치한다고 평가된다. 『선조수정실록』에 의하면, 원균이 그 계책을 따라 울포만호 이영남을 보내어 이순신에게 구원을 청하게 하였다. [……] 이영남의 말을 듣고 여러 장수들이 대부분 말하기를 “우리는 우리 지역을 지키기에도 힘겨운데 어느 겨를에 다른 도에 가겠는가.”라고 하였으나, 오직 녹도만호 정운과 군관 송희립만은 의분심에 넘쳐 눈물을 흘리면서 이순신에게 일본수군을 치러 나가자고 권하면서 [……], 이순신이 대단히 기뻐하였다. 『선조수정실록』 권26, 25년 5월 1일 경신.

② 그러나 『정비록』의 기록은 이순신의 기록과 일치되지 않으므로 논란의 여지가 있다. 『정비록』에 의하면, 원균은 그 말이 옳다고 여겨서 이영남으로 하여금 이순신에게 가서 구원병을 청하게 하였다. 이순신은 이에 대하여, “각각 분담한 경계가 있으니 조정의 명령이 없으면 어찌 함부로 경계를 넘어갈 수 있겠는가?”하며 거절하였다. 원균은 이영남으로 하여금 다시 가서 청하도록 하여 대여섯 차례나 계속 왔다 돌아가곤 했는데, 늘 이영남이 돌아갈 때마다 원균은 뱃머리에 앉아서 바라보며 통곡하였다. 유성룡, 『정비록』 권1.

기록에 의하면 4월 29일 이전에 원균으로부터 전황에 관련하여 3회의 공문을 접수하였는데, 그 공문에는 구원을 요청하는 내용은 언급되지 않았다. 또한 이순신이 경상도 바다로 출전하기 위해 전라좌수군의 모든 함선을 4월 29일까지 전라좌수영 앞바다로 집결시켜 4월 30일에 출발하려고 한 당초 계획은 4월 20일 경상관찰사 김수의 구원요청과 4월 27일 조정의 승인에 의한 것이지 원균의 뒤늦은 구원요청에 의한 것이 아니었다.⁵²⁾

그러나 이순신의 출전 시기는 전라좌수군의 집결일자가 늦어져 이들이 지연되었고, 전라 겸관찰사 이광의 지시에 따라 전라우수군의 합류를 기다리느라 3일을 더 소비하다가 ‘육지의 왜군이 서울로 접근하려 하므로,⁵³⁾ [……] 칼날을 무릅쓰고 나아가서 죽기 아니면 살기로 일본군들을 맞아, 그 돌아갈 길을 끊어놓고 그 배들을 쳐부순다면, 일본군들은 뒤가 염려되어 곧바로 되돌아올 수도 있을 것’이기에, 5월 4일 새벽에 전라좌수군 단독으로 출동⁵⁴⁾하게 되었다. 이순신은 바다에서 일본수군을 격멸함으로써 조정의 안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전라우수군은 뒤따라오도록 하고 출전을 서둘렀던 것이다.

위에서 분석해 본 바와 같이, 전라좌수군이 경상도 앞바다로 출전할 때 이순신의 의도적인 지연출동은 없었다. 그러나 훗날 선조 29년 병신년(1596) 『선조실록』의 기록에 의하면, 아래 인용과 같이 원균의 구원요청에 이순신이 신속하게 출전하지 않았다고 보고하는 중신들이 있었는데, 이러한 주장은 ‘~했다고 합니다.’라고 전해들은 내용을 주장하는 것에 불과했다.

52) 『이충무공전서』 권2, 「赴援慶尙道狀(二)」

53) 실제로 일본군은 임진년(1592) 5월 2일 서울에 입성하였다. 『선조실록』 25년 5월 3일자를 보면, “선조: 적이 이미 강(한강)을 건넜는가? 신잡·이상홍: 어제 저녁에 이미 입성했다고 합니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선조실록』 권26, 25년 5월 3일 입술.

54) 『이충무공전서』 권2, 「赴援慶尙道狀(三)」

6월 26일, 김응남이 말하기를 “원군이 처음에 사람을 보내 이순신을 불러도 이순신이 오지 않으므로 원군이 통곡했다고 합니다. 원군이 이순신에게 군사를 요청했는데 성공은 도리어 이순신의 차지가 되었기 때문에 그 일로 두 장수 사이가 서로 막혀졌다고 합니다.”⁵⁵⁾

11월 7일, 이덕열이 말하기를 “이순신은 (원군이) 열댓 번 부른 후에야 비로소 나가 적선 60척을 깨뜨리고 먼저 자기 공로를 보고했다고 합니다.”⁵⁶⁾

당시 원군을 요청할 때는 조정에 건의해야 하고, 조정의 출동명령이 있어야 했다. 임진년(1592) 4월 20일 경상관찰사 김수가 전라좌수군의 원군을 요청할 때도 조정에 건의하는 절차를 따랐다. 그러므로 위의 인용에서 언급한 원군의 직접적인 원군요청은 가능하지도 않았는데, 어전에서 위와 같은 대화를 나눴다는 것은 다른 저의 때문이라고 추정할 수밖에 없다.

이순신이 경상도로 출전하기 전에 조정에 보고한 장계[赴援慶尙道狀(一), (二), (三)]는 조선 조정의 피난으로 선조에게 보고되지 못했으니 지금 생각해도 아쉬움이 있다.

셋째, 이순신은 경상도 바다로 출동(Maneuver)을 준비하고 있었다. 위 이순신의 장계에서 확인할 수 있는 출동준비 사항은, ① 전라좌수영 본영과 예하 5관 5포는 모든 전선을 정비하고 제반 전투기구를 잘 손질해 놓고 명령을 기다리라고 했으며, ② 경상도로 구원 나가기 위해 4월 29일까지 모든 전함들은 출동준비를 갖춰 전라좌수영 앞바다로 집합하도록 했다. 또한, ③ 경상도 순변사(이일) · 관찰사(김수) · (경상)우도수군절도사(원균)에게 경상도의 물길 사정, 두 도의 수군이 모일 장소, 적선의 수 및 그들이 현재 정박해 있는 곳과 여러 가지 전략에 관한 일들을 전부 급히 회답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고, 경상도로 구원 나갈 계획을 통보

55) 『선조실록』 권76, 29년 6월 26일 임술.

56) 『선조실록』 권82, 29년 11월 7일 기해.

하였다.⁵⁷⁾

넷째, 이순신은 경상도 바다로 출전할 세부계획을 수립하였다. 이순신은 자기 관할지역이 아닌 경상도 바다로 출전하기 위해 세부 계획을 수립하여 임진년(1592) 4월 30일 장계[赴援慶尙道狀(二)]로 보고하였다.

경상우수사(원균)로부터 일본함대의 상황, 경상우수영의 아군 상황, 당포 앞바다에서 만나자는 공문이 4월 29일에 접수되었습니다. 출동부대와 잔류부대를 편성하였고, 출동예정 시간은 4월 30일 새벽 4시경이며, 인접한 경상도 수군을 첩입군(疊入軍)⁵⁸⁾으로 운용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첩입군으로 운용할 미조항, 상주포, 곡포, 평산포 등 네 진 모두 왜적선이 오기도 전에 달아나버려 경상도의 물길에 험한지 평탄한지 알 수 없고, 물길을 인도해 줄 배도 없으며, 작전에 호응해줄 장수도 없습니다. 또한 전라좌도수군 함선규모가 총 30척이 안 되는 것을 고려하여 전라 겸관찰사(이광)도 전라우수사(이억기)에게 이순신과 힘을 합쳐 구원하라고 지시하였으므로, 전라우수영 함대가 오기를 기다렸다가 경상도로 나갈 계획입니다.⁵⁹⁾

위의 장계를 보면, 전라좌수군 함대가 첫 출전하는데 이순신이 고려하는 기동조건을 알 수 있다. ① 적에 관한 상세한 정보(규모, 위치, 활동 실태, 사기, 군량 등)가 파악되어야 하고, ② 전투할 지역의 아군 상황도 면밀하게 확인되어야 하며, 물길 안내 배와 호응하는 아군부대도 있어야 한다. ③ 전투할 작전지역 환경인 뱃길의 특징과 운항에 미치는 영향이 정밀하게 분석되어야 하며, ④ 전투를 해야 할 일본군 함대규모가 경상도 지역에 500여 척 이라고 하니 가용한 배를 모두 합쳐서 함대의 규모를 최대한으로 증가시키는

57) 『이충무공전서』 권2, 「因倭警待變狀(一)」에서 발췌.

58) 첩입군: 공동관할지역의 군대. 공동관할지역이기 때문에 전라수군 쪽에서도 군사적 요구나 작전권을 행사할 수 있다. 박기봉 편역, 『충무공 이순신 전서』 제1권, 비봉출판사, 2006, 161쪽.

59) 『이충무공전서』 권2, 「赴援慶尙道狀(二)」에서 발췌 요약.

것 등을 기동조건으로 고려하였다.

그러나 이순신이 출전하기 전에 위의 기동조건은 어느 한 가지도 충족되지 못했다. 위의 조건 ①, ②, ③은 출동 후에 원군의 경상우수군과 협조하고 탐망활동으로 충족시킬 수 있지만, 조건 ④는 출동 전에 반드시 갖추고 싶었던 이순신의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급박한 상황에서도 전라우수군을 기다려서 합류한 후 출동하고자 했다.

다섯째, 일본수군과 어떻게 싸울 것인가에 대한 복안을 구체화하고 있었다. 이순신의 장계에서 그의 구상을 알 수 있다.

신의 어리석은 생각으로는 지금 일본군의 세력이 왕성해진 것은 모두 적들과 바다에서 싸우지 않고 적들이 물으로 올라가게 내버려 둔 때문입니다. [……] 만약 배와 노를 잘 정비하여 바다 가득히 진을 치고 있다가 왜적의 배들을 들이칠 위세를 보이면서 정세와 힘을 잘 살피고 헤아려서 적절히 병법대로 나아가고 물러남으로써 적들이 물으로 기어오르지 못하게 했더라면, 나라를 욕되게 하는 우환이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⁶⁰⁾

위의 장계와 같이, 이순신의 전투 목표는 배에 타고 있는 일본수군을 바다에서 격멸하여 물으로 올라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었고, 이순신이 구상한 세부적인 싸우는 방법은 다음과 같이 추론해 볼 수 있다. ① 적극적인 탐망활동으로 일본수군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강·약점을 파악한다. ② 공격진형을 유지하여 함대의 위용을 일본수군에게 보여준다. ③ 아군 및 적군의 현재 상태, 작전지역의 지형과 기상, 바다 물길 등을 활용하고 병법대로 진퇴하여 반드시 승리한다. 그리하여 궁극적으로는 바다에서 일본수군을 격멸함으로써 육지의 일본군을 약화시키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한다는 의도였다.

60) 『이충무공전서』 권2, 「赴援慶尙道狀(二)」

3. 이순신의 초기전투 승리요인

가. 이순신의 1차 출전 전투 분석

이순신이 1·2차 출전하여 수행한 전투에 대해 전투력 요소를 분석의 틀로 활용하여 이순신의 해전에 대한 구상이 어떻게 전투력으로 발휘되어 승리하였는지 정밀하게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순신의 전라좌도수군 함대는 임진년(1592) 5월 4일 새벽 2시경(丑時)에 경상도 앞바다로 1차 출전을 하였다. 출동규모는 판옥선 24척, 협선 15척, 포작선 46척⁶¹⁾으로 편성하였다. 5월 4일 전라좌수영(여수)을 출발하여 소비포에서 밤을 지내고, 5일에는 당포, 6일에는 송미포를 거쳐, 7일에는 옥포해전과 함포해전, 8일에는 적진포해전을 하고, 9일에 전라좌수영으로 복귀하였다.⁶²⁾

옥포해전은 임진년(1592) 5월 7일에 있었다. 옥포 선창에 정박해 있으면서 분탕질하고 있는 왜선 30여 척에 대하여 양쪽으로 에워싸고 대포와 화살을 쏘아 26척을 분멸하였다.

이순신의 장계에 기록된 전투행동을 전투력 요소별로 분류하면 <표 7>과 같다.

<요도 1> 이순신 1차 출전 상황도



출처: 현충사관리소, 『충무공 이순신과 임진왜란』, 2011, 134쪽.

61) ‘포작선’은 고기잡이배로써, 전력이 약해 보일 것을 우려해 출동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민웅, 앞의 책, 124쪽.

62) 『이충무공전서』 권2, 「玉浦破倭兵狀」

〈표 7〉 옥포해전에서 전투력 발휘

전투력 요소	전투력 발휘 활동
정 보	• 원균에게 적선의 수/정박해 있는 곳/접전한 과정을 상세히 파악 • 척후 운용, 옥포 선창에 왜선 50여 척이 정박해 있는 것을 발견함.
지휘통제	• 포작선 46척을 편성, 두 도의 여러 장수들에게 두 번 세 번 거듭 약속을 분명히 함. • 척후장이 신기전을 쏘아 올려 번고를 알림.
이동/기동	• 포구 앞바다로 줄지어 나란히 들어감, 양쪽으로 에워싸고 대들었음.
화 력	• 대포를 놓고 화살을 쏘아대기를 마치 바람처럼 천둥처럼 함. • 왜적의 배 26척을 총통으로 쏘아 맞아 깨뜨리고 불태웠음.
방 호	• 날도 이미 저물어 영등포 앞바다로 물러나와 머물러 함.(계획)
전투력 지속	• 군사들을 시켜 나무도 하고 물도 길어오게 하여 밤을 지내려고 하였음.(계획)
리더십	• “함부로 움직이지 말고 산같이 정중하라.(勿令妄動, 靜重如山)”

출처: 『이충무공전서』 권2, 「玉浦破倭兵狀」

이순신의 승전장계에 나타난 전투행동을 기초로 옥포해전을 분석해 보면, 이순신은 일본수군과의 첫 전투에 임하면서 매우 신중했음을 알 수 있다. 함대에 포작선을 46척이나 편성한 것은 기발하고 창의적인 지휘통제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함대의 규모를 크게 보이려고 한 조치로 추정된다. 또한 원균으로부터 전황을 상세하게 파악하는 활동이나 전투에 임하기 전에 함부로 움직이지 않도록 상기시키는 등의 활동은 이를 반증한다.

일본함대를 찾기 위해 원균으로부터 정보를 획득하고, 이를 근거로 척후를 운용하여 일본함대를 먼저 발견하였다. 전라좌수군과 경상우수군이 처음으로 연합함대를 구성하므로 두 도의 장수들에게 두 번 세 번 거듭 약속하였다고 하였는데, 이는 작전계획, 싸우는 방법, 신호체계 등에 대해 토의하고 명령을 하달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신기전 신호, 나란히 줄지어 이동하는 대형 유지, 일본함선을 에워싸고 공격한 행동은 사전에 충분히 약속되지 않으면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없는 행동들이다.

일본함선들이 선창에 정박해 있는 것으로 보아 조선수군의 공격을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조선수군은 일본함선을

표적으로 삼아 양쪽으로 포위하여 총통과 화살공격을 퍼부은 것은 포위의 기동으로 일본함선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면서 화력을 집중하는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었다.

전투 후 영등포 앞바다로 물러나 머물려고 하거나 군사들을 시켜 나무도 하고 물도 길어오게 하여 밤을 지내려고 한 계획은 전투력 지속을 염두에 둔 이순신의 계획이었다.

특히, 리더십 측면에서 각 전투력 요소에 부합되는 전투행동들을 세심하고 신중하게 통합 운용함으로써 첫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 전투 후 거제도도 도망가는 일본함선을 추격하고 싶은 마음 간절하였지만, 작전지역·적 상황·기상 등의 정보를 고려하여 조선 함대를 위험에 빠뜨리지 않겠다는 현명한 판단을 하였다.

옥포해전 후 오후 4시경 일본함선 5척이 멀지 않은 바다에서 지나간다는 보고를 받고 추격하였는데, 일본수군은 합포(마산)에 함선을 버리고 도주하였다. 이순신 함대는 합포해전에서 일본수군 대선 4척, 소선 1척을 분멸했다. 합포해전에서 전투력발휘는 〈표 8〉과 같다.

〈표 8〉 합포해전에서 전투력 발휘

전투력 요소	전투력 발휘 활동
정 보	• 오후 4시경(申時)에 왜적의 큰 배 5척이 지나가고 있다는 척후장의 보고
이동/기동	• 여러 장수들을 거느리고 쫓아가서 웅천 땅 합포(마산) 앞바다에 이르니, 왜적들은 배를 버리고 물으로 올라갔음.
지휘통제	• 전투 중에도 척후를 운용
화 력	• 왜적의 배를 활을 쏘아 [……] 모조리 깨뜨려 불태움.
방호/전투력 지속	• 노를 재촉하여 창원 땅 남포 앞바다에 이르러 진을 치고 밤을 보냄.
리더십	• 옥포해전후 영등포에서 밤을 지내려고 했으나, 왜적선 발견 보고를 받고 즉시 추격

출처: 『이충무공전서』 권2, 「玉浦破倭兵狀」

합포해전은 무엇보다도 이순신의 지휘통제와 리더십이 돋보인다. 옥포해전 전투 중에도 척후를 운용하여 이동하는 일본함선을 발견한 것이라든지, 발견 즉시 추격하여 격멸하는 것은 이순신의 정확한 상황판단과 신속한 결심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적진포해전은 임진년(1592) 5월 8일에 있었다. <표 9>의 전투력 발휘활동과 같이 진해 고리랑에 일본수군의 배가 정박해 있다는 보고를 받고 출발하여, 고성 적진포에서 일본함선 13척을 발견하고 대포를 쏘아 불살랐다.

〈표 9〉 적진포해전에서 전투력 발휘

전투력 요소	전투력 발휘 활동
정 보	• 이른 아침 진해 고리랑에 왜적의 배가 정박해 있다는 보고 받음. • 안팎의 섬들을 협공하고 수색 • 고성 적진포에 왜적의 큰 배와 중간 배 13척이 바다 어귀에 정박해 있었고, 왜적들은 민가를 분탕질하다가 우리 군사들의 위세를 보고 겁을 내어 산으로 올라감.
이동/기동	• 보고를 받고 곧 출발하여 [.....] 고성 땅 적진포에 이르니 [.....]
지휘통제	• 전투 후 천성·가덕·부산 등지의 왜적 배들을 섬멸해버릴 생각도 하였으나, 지형이 좁고 바닷물이 얕아 판옥선 같은 큰 배로 싸우기가 어렵고, 전라우수영 함대가 합류하지 않아 형세가 외롭고 위태로우므로 원군과 상의하여 계책을 논의함.
화 력	• 총과 대포를 쏘아 맞추어 깨드려 불태웠음.
전투력지속	• 전투 후 군사들에게 명령하여 아침밥을 먹고 쉬게 하였음.
리더십	• 지형, 왜적, 조선 수군 상태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함대 운용 결심

출처: 『이충무공전서』 권2, 「玉浦破倭兵狀」

적진포해전은 일본수군이 정박해 있다는 보고를 받고 수색활동으로 찾아낸 다음 격멸시킨 정보 전투력 요소가 최대로 발휘된 전투였다. 조선수군의 공격을 전혀 예측하지 못한 채 정박해 있는 일본수군의 배에 대해서 임무를 분담하고 협력하여 격멸시켰다.

1차 출전에서 이순신은 전라좌수영 판옥선 24척과 경상우수영 판옥선 4척 등 총 28척으로, 일본함대와 3차례의 전투를 실시하여 44척을 분멸하는 전과를 올렸다. 임진왜란이 시작된 후 최초의 승전이며 조선수군에게 싸워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을 안겨 주었을 뿐만 아니라 제해권을 장악하기 시작한 역사적 의의가 있다.⁶³⁾

나. 이순신의 2차 출전 전투 분석

이순신 함대는 임진년(1592) 5월 29일에 2차 출전을 하였다. 출동규모는 판옥선 23척과 거북선⁶⁴⁾이었고, 경상우수영(원균)의 함선 3척이 노량에서 합류했다. 6월 4일에 전라우수군(이억기)의 함대 25척이 합류하여 당항포해전부터 참전하였다. 이순신 함대는 5월 29일 사천해전을 하였고, 6월 2일에는 당포해전, 5일부터 6일까지 당항포해전, 7일에는 울포해전 후 6월 10일에 전라좌수영으로 복귀하였다.

2차 출전에서 일본수군과 4차례의 해전을 벌여 전과는 일본수군 함선 72척을 격파하였고, 일본수군의 머리 88급을 베었으며, 137명을 사살하였다. 특히, 적장 구루시마 미

〈요도 2〉 이순신 2차 출전 상황도



출처: 현충사관리소 『충무공 이순신과 임진왜란』, 2011. 136쪽.

63) 이민웅, 「임진왜란 초기 해전 연구 I」, 『해양연구논총』 제39집, 해군사관학교 해군해양연구소, 2007, 121쪽.

64) 이순신은 「唐浦破倭兵狀」에서 거북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앞에는 용머리를 설치하여 그 입으로 대포를 쏘고, 등에는 쇠못을 꽂았으며, 안에서는 밖을 내다볼 수 있으나 밖에서는 안을 볼 수 없게 했다. 그래서 수백 척의 적선 속이라 하더라도 돌진해 들어가서 대포를 쏠 수 있게 하였다. 『이충무공전서』 권2, 「唐浦破倭兵狀」

치유키(來島通之)의 목을 베는 큰 전과를 얻었다. 조선 수군의 피해는 전사 13명, 부상자는 이순신(전라좌수사)·나대용을 포함하여 36명이었다.⁶⁵⁾

사천해전은 임진년(1592) 5월 29일에 있었다. 사천포에 일본수군 함선 12척이 정박해 있었는데, 이순신 함대가 포구에 최초 진입 시에는 썰물이어서 접근이 곤란하였다. 밀물이 되자 거북선을 먼저 투입하여 적에게 타격을 입힌 후 함선을 번갈아 투입하여 모두 격멸하였다.

사천해전은 <표 10>과 같이 전투력 요소가 잘 통합되어 발휘되었음을 알 수 있다.

〈표 10〉 사천해전에서 전투력 발휘

전투력 요소	전투력 발휘 활동
정 보	• 원균의 공문에 적선 10여 척이 이미 사천포와 곤양 등지에까지 쳐들어왔다 함. • 원균을 만나 적정에 대해서 자세히 물어봄. • 곤양에서 사천포 방향으로 이동하는 왜선 1척을 추격하여 격멸 • 왜적의 배 12척이 사천포 바닷가에 줄지어 정박해 있음. • 왜적이 높은 곳에 장사결진을 편성하여 지세적으로 불리 • 썰물 때문에 판옥선 진입 불가, 날도 저물어감. • 이순신 함대의 배가 1리도 못 나왔을 때, 왜적이 진에서 내려와 반은 배를 지키고, 반가량은 언덕 아래에 모여서 총을 쏘며 날뛴.
이동/기동	• 밀물이 시작되어 판옥선 진입이 가능해져 노를 재촉하여 적의 배를 공격 • 거북선을 적선 속으로 돌진시키고, [……] 모든 배들이 번갈아 드나들면서,
지휘통제	• 왜적을 찾아내 목 베는 일을 못하도록 지시하고, 일부러 작은 배 몇 척을 남겨두어 적을 유인한 다음 모조리 잡아 없앨 계획을 세움.
화 력	• 거북선의 천·지·현·황자총통 등 각종 대포 사격 • 여러 장수들도 일제히 구름처럼 모여들어 철환·장령전·피령전·화전 및 천자·지자 대포들을 비바람이 몰아치듯이 쏘아 대었음. 왜선 전부를 부딪쳐 깨뜨리고 불살라버림.
방 호	• 밤을 타서 사천 땅 모자랑포(경남 읍남면 주문리)에서 진을 치고 밤을 지냄.

65) 『이충무공전서』 권2, 「唐浦破倭兵狀」

전투력 요소	전투력 발휘 활동
전투력 지속	• 정오에 고성 땅 사랑 앞바다까지 와서는 머물러 군사들을 쉬게 하고 위로
리더십	• 원군의 전황 전파에 따라 계획보다 빨리 출동 결심 • 왜적들이 물에서 진을 치고 있고 썰물로 판옥선 진입이 제한되자 유인하여 격멸 • 거북선을 먼저 돌진시켜 적을 혼란에 빠뜨리고, 이어서 좁은 포구 때문에 판옥선을 교대로 투입하여 왜적선을 분멸시킴. • 신은 더욱 분하여 노를 재촉하여 앞으로 나가서 적의 배를 공격하자 여러 장수들도 일제히 구름처럼 모여들어 [……], 맞붙어 싸울 때 적의 총알이 신의 왼편 어깨에 맞아서 [……]

출처: 『이충무공전서』 권2, 「唐浦破倭兵狀」

일본수군에 관한 정보는 원군이 확인해 주기도 하였지만 사천포 방향으로 이동하는 일본수군의 배를 추격하면서 확실해졌다. 조선 수군의 공격에 전혀 대비하지 않고 포구에 정박해 있는 일본수군의 배를 공격해야 하지만 높은 지세에 장사진을 형성하여 방어중인 일본군 때문에 불리할 뿐만 아니라, 썰물로 인해 판옥선 진입이 불가하자 일본수군의 배를 큰 바다로 유인하여 격멸하려고 한 것은 적·지형·조석 현상 정보까지 종합하여 싸우는 방법을 구체화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순신의 예상대로 일본수군이 정박해 둔 배로 돌아오고, 밀물로 바뀌면서 판옥선 진입이 가능해 지자, 거북선을 먼저 투입시켜 일본함대를 혼란시킨 후 판옥선을 차례로 투입시키는 기동과 각종 총통과 화살 공격을 집중시키는 화력의 통합으로 일본함선을 격멸하였다. 특히 각종 총통을 탑재한 거북선이 최초로 투입되었고, 다양한 무기들이 사용⁶⁶⁾된 것은 화력의 운용에서 주목할 일이다.

지휘통제 측면에서 적의 목을 벤 숫자로 전공을 평가하던 당시에 목을 베지 못하게 하고 전투에 집중하도록 한 조치나 작은 배를

66) 장계에 등장하는 무기들은 거북선에 탑재된 천자·지자·현자·황자총통과 판옥선에서 일본함대에 사격한 철환·장편전·피령전·화전, 천자·지자대포 등이다.

남겨두고 적을 유인하여 잡도록 한 조치 등은 오로지 전투에 승리해야 한다는 본질에 충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투 후에 전장을 이탈하여 모자랑포에 정박하는 방호활동이나 장졸들에게 사랑 앞바다에서 휴식을 부여하는 조치는 다음 전투에 대비한 전투력 지속 유지 활동이었다.

사천해전의 승리는 모든 전투력이 발휘되도록 하는 이순신의 리더십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전황의 변경에 따라 조기 출전하는 판단력과 결단력, 일본함대를 유인 격멸하는 계획, 거북선을 투입한 후 판옥선들이 집중 공격하는 전투 지휘, 전투에 임했을 때 진두에서 지휘하는 술선수범하는 용기 등의 리더십이 있었다.

당포해전은 임진년(1592) 6월 2일에 있었다. 당포에 일본수군 함선 12척이 정박해 있었는데, 거북선을 먼저 투입하여 들이받고 각종 포를 쏘아 적선을 깨뜨린 후 함선의 포탄과 화살공격을 퍼부어 왜선을 모조리 불태웠다.

〈표 11〉 당포해전에서 전투력 발휘

전투력 요소	전투력 발휘 활동
정 보	• 왜적의 배가 당포 선창에 정박해 있다는 말을 듣고 가보니, 왜적선 12척이 선창에 나뉘어 정박해 있었음.
이동/기동	• 먼저 거북선으로 총루선 밑을 곧바로 들이받고, [.....] 뒤쪽의 판옥선들이 교대로 쏘아대게 했음.
지휘통제	• 당포해전 후 왜적선 20척을 발견했다는 보고에도 지형이 전투에 불리하므로 바다로 유인하여 격멸하고자 했음.
화 력	• 거북선의 용의 입으로는 현자포 철탄을 치쏘고, 또 천자·지자 대포로 대장군전을 쏘아서 그 배를 깨뜨리게 했으며, 뒤쪽에 있던 판옥선들은 포탄·살탄과 화살들을 교대로 쏘아대게 했음.
방호/ 전투력지속	• 진주 땅 창신도에 머물면서 밤을 지새움.
리더십	• 당포해전 후 왜적선 20여 척이 정박해 있다는 탐색선의 보고가 있었으나, 당포는 지형이 협착하여 맞붙어 싸우기가 마땅치 않으므로 바깥 바다로 유인하여 쳐부수려고 노를 재촉하여 바다로 나왔음.

출처: 『이충무공전서』 권2, 「唐浦破倭兵狀」

당포해전도 타 해전과 유사하게 전투가 진행되었다. 일본함선은 조선수군의 공격을 예측하지 못하고 당포 선창에 정박해 있었고, 이순신은 일본함선이 있다는 정보에 기초하여 탐색으로 일본함선을 발견한 다음, 거북선으로 충루선을 먼저 공격하여 적을 혼란시킨 후 판옥선을 교대로 투입시켜 격멸했다. 전투 후에는 전투지역에서 이탈하여 창신도에 정박하는 방호대책을 강구하였다. 추가적으로 일본함선 20여 척을 발견하였지만 당포의 불리한 지형 때문에 바다로 유인하여 격멸하겠다는 계책과 판단력의 리더십을 발휘하였다.

당항포해전은 임진년(1592) 6월 5일에 있었는데, <표 12>과 같이 복잡하게 전투력을 운용하는 과정을 거쳐 승리할 수 있었다.

<표 12> 당항포해전에서 전투력 발휘

전투력 요소	전투력 발휘 활동
정 보	• 5일 아침 안개가 짙게 끼어 늦게 걸렸음. • 향화인들이 “당포에서 쫓겨 간 왜적의 배들이 당항포에 정박하고 있다”고 함. • 당항포 어귀의 지형 거리는 10여 리 정도 되는데 폭이 넓어서 배가 들어갈 수 있다고 하므로, 먼저 전선 서너 척을 보내 지리를 살펴보게 함. • 탐색 보낸 전선들이 곧 바다 어귀에서 배를 돌려 나오면서 신기전을 쏘아 왜적이 있으니 속히 오라는 신호를 보내왔음. • 왜적선은 판옥선만한 것이 9척, 중간 배 4척, 작은 배 13척이 해안을 따라 정박해 있었음.
이동/기동	• 먼저 전선 서너 척을 포구 안으로 들여보내, 왜적선을 유인하고, 주력부대는 몰래 잠복해 있으면서 적을 격멸할 계획을 세움. • 전선 4척을 바다 어귀에 매복시키고, 주력부대는 들어가서, 여러 배들이 일렬로 일제히 나아가 선수와 선미가 서로 이어져 소소강 서쪽 기슭에 도달함. • 여러 전선들은 포위한 채 있고 거북선으로 돌격시킴. 여러 전선들이 번갈아 드나들며, [.....] • 물러나 한 쪽을 열어주었더니, 큰 왜선이 과연 터놓은 길을 따라 나오는데, [.....] 다른 배들도 총각 배를 날개처럼 끼고 호위하면서 노를 재촉하여 바다 가운데로 나오니, 우리 전선들이 사방으로 포위하여 재빨리 협공, 거북선은 총각 배 아래를 들이받고, [.....] • 왜선 4척이 북쪽으로 달아날 때, 여러 장수들이 배를 나누어 적들과 맞붙어 싸워서 모조리 포위해버리니, [.....] 전부 불태웠음. • 6일 새벽, 방담첨사 이순신은 새벽녘에 몰래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고는 그가 거느리는 배를 이끌고 바다 어귀로 나가서 그들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결국 그 배들을 전부 다 잡았음. • 왜적들이 허겁지겁 어쩔 줄 몰라 하다가 도망치려고 하여 갈고리(要鉤金)를 걸어 바다 가운데로 끌어내니, 왜적들은 절반 넘게 물에 빠져 죽었음.

전투력 요소	전투력 발휘 활동
지휘통제	• 당항포해전 1일 전 전라우수군(이억기) 함대가 합류하여 왜적들을 쳐부술 계획을 의논 • 신기전으로 왜적 발견 신호
화 력	• 거북선의 천자·지자 대포를 쏘아 적의 큰 배를 꺾었게 했음. • 화살과 대포를 쏘아대기를 마치 폭풍이 불고 천둥이 치듯 하였음. • 거북선이 또 충각 배 아래를 들이받고 총통을 치쏘아서 충각을 깨뜨려 버렸음. • 여러 배들이 또 불화살 등을 쏘았는데, 적선의 비단장막과 돛을 쏘아 맞혔음. • 한 배에 타고 있는 놈들이 거의 백여 명이나 되었는데, 우리 배가 먼저 지자·현자 총통을 쏘고, 장편전·철환·질려포·대발화포 등을 연속 쏘고 던지자 [……]
방 호/ 전투력 지속	• 당항포 앞바다로 배를 옮겨서 진을 치고, 군사들을 쉬도록 한 후 저녁에 고성 땅 말우장 바다 가운데로 옮겨서 밤을 지냈음.
리더십	• 만약 적이 추격하면 짐짓 물러나서 그들을 유인해 오라고 지시함. • 적이 만약 형세가 궁해져서 배를 버리고 물으로 올라가 버린다면 모조리 섬멸할 수 없을 것이므로 우리가 짐짓 군사를 물리고 포위를 풀어 진을 거두는 것처럼 보인다면 저놈들은 틀림없이 그 틈을 타서 배를 다른 곳으로 옮길 터이니, 그때 좌우에서 그 꼬리를 들이친다면 몰살시킬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함. • 배 1척만 남겨두어 돌아갈 길을 열어 놓고, [……] 어귀에서 진을 치고 기다림.

출처: 『이충무공전서』 권2, 「唐浦破倭兵狀」

당항포에 일본함선 대선 9척, 중선 4척, 소선 13척이 정박해 있었다. 이순신 함대와 이억기 함대가 일본함선을 포위하고 있는 가운데, 거북선을 먼저 투입하여 대장선을 타격한 후 다른 여러 함선들을 교대로 투입하여 일본함선들을 타격했다. 일본함선들이 물으로 도망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물러나 유인하여 사방으로 포위한 후, 일본수군이 도주하도록 1척 만을 남겨두고 모두 분멸시켰다. 다음날 새벽, 남겨둔 1척을 타고 도주하는 일본함선마저 격멸하고 적장(구루시마 미치유키⁶⁷⁾)의 목을 베었다.

당항포해전은 조선수군의 전투력이 통합되어 발휘된 전투였다. 일본함선이 조선수군의 공격에 대비하지 않고 당항포에 정박하고

67) 도쿠토미 이이치로(徳富猪一郎), 『近世日本國民史 豊臣氏時代』 丁編, 1921, 646쪽; 구루시마 미치유키는 豊臣秀吉의 직속 수군이었고, 伊予의 유명한 해적 출신인 구루시마 형제의 한 사람으로 일본 측 기록에는 활복자살이라 하였지만, 실제로는 해전 중에 사살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민웅, 『임진왜란 해전사』, 청어람미디어, 2004, 308쪽.

있을 때, 조선수군은 일본함선이 정박해 있다는 정보에 의해 당항포로 접근하였다. 폭이 좁은 포구로부터 당항포까지 10여 리나 되므로 치밀하게 탐색선 서너 척을 먼저 들여보냈고, 일본함선이 정박하고 있다는 정보를 전달할 때 신기전을 쏘게 하는 지휘통제 수단을 사용하였다.

기동면에서 매우 복잡하고 정교한 운용을 보여주고 있다. 먼저 ① 좁은 포구를 차단당하면 곤란하므로 판옥선 4척을 포구에서 매복하도록 하고, ② 주력함대는 일렬로 진을 형성하여 당항포로 접근한 후, ③ 일본함선을 포위한 상태에서 거북선으로 큰 함선을 공격하고, ④ 이어서 판옥선들을 차례로 번갈아 투입하면서 격멸하다가, ⑤ 일본수군이 물로 도망갈 수 있으므로 포위하고 있던 한 쪽을 터주자 일본함대 충각선을 포함하여 몇 척이 바다 가운데로 나오므로, ⑥ 재빨리 포위하여 거북선과 판옥선이 충각선을 불태우는 도중에, ⑦ 일본함선 4척이 도주할 때 모조리 포위하니 많은 적들이 물로 뛰어들고 산으로 도주하였다. ⑧ 일본수군 도주용으로 1척만 남기고 모두 불태운 후 조선함대는 바다 어귀로 나와서 진을 치고 밤을 새웠다. ⑨ 예상대로 새벽에 일본함선 1척이 도주하려다가 매복하고 있던 방답첨사 이순신에 붙잡혀 일본수군들은 물에 빠져 죽거나 사살 당하였고, 일본수군 장수의 목을 베는 등 완벽한 승리를 거두었다.

지휘통제 면에서 이익기의 전라우수군 함대까지 합류하여 지휘체계가 복잡한 연합함대지만 구체적으로 임무를 분담하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무엇보다도 용병술에 관한 이순신의 리더십을 높게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어귀에서 당항포까지 좁고 긴 수로의 위험을 극복하기 위해 탐색선을 먼저 보낸다거나, 주력부대가 진입할 때 어귀에 전선 4척을 매복시키는 조치, 일본함선을 공격하다 도중에 포위망 한 쪽을

터주고 일본함선들이 도주할 때 다시 포위하고, 물으로 도주한 적들을 바다에서 격멸하기 위해 일본함선 1척을 남겨 놓았다가 새벽에 도주하자 다시 붙잡아 불태우는 등 상황판단과 결단력, 치밀한 조치 등 이순신의 리더십이야말로 결정적인 승리요인이었다.

울포해전은 임진년(1592) 6월 7일에 있었다. 정오경에 울포에서 나와 부산 쪽으로 도망가는 일본수군의 대선 5척, 중선 2척을 발견하고 추격하여 대선 3척을 나포하고 나머지 전선은 모두 분멸시켰다. 울포해전은 <표 13>에서 보는 것과 같이 도망가는 일본함선을 추격하여 붙잡은 다음 일본수군의 목을 베고, 일본함선을 불태워 버린 전투였다.

〈표 13〉 울포해전에서 전투력 발휘

전투력 요소	전투력 발휘 활동
정 보	영등포에 이르니 왜적 큰 배 5척, 중간 배 2척이 울포에서 부산방향 도망 중.
이동/기동	- 쫓아가, [……], 바다 가운데서 완전히 잡아, [……] - 협력하여 왜의 배 1척이 상륙하려 할 때 쫓아가 불살랐고, [……] - 작은 배를 타고 뚫고 쫓아 들어가, [……] 빈 배 1척은 바다 가운데서 불살랐음.
방호/ 전투력 지속	초저녁에 거제도의 온천량 송진포에 도착하여 밤을 지냈음.

출처: 『이충무공전서』 권2, 『唐浦破倭兵狀』

울포해전에서는 조선수군의 기동이 매우 뛰어났다. 조선수군과 일본함선이 조우했을 때는 약 5리 정도 떨어져 있었는데, 역풍임에도 불구하고 추격하여 붙잡았다는 것은 조선수군의 함선이 일본함선 보다 더 빠르게 기동하였기 때문이었다.

여기에서 이순신의 1차 출전과 2차 출전의 다른 점을 몇 가지 식별할 수 있다. 먼저 2차 출전 시에 이순신은 마음의 여유와 전투 승리에 대한 자신감이 있었다. 1차 출전과 달리 2차 출전 때는

포작선을 출전함대에 편성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출전기간 중에도 난중일기를 기록⁶⁸⁾하였다.

두 번째는 이역기의 전라우수군(판옥선 25척)이 합류하여 연합함대를 구성함으로써 조선 수군 함대의 규모가 배로 늘어났다.

세 번째는 거북선이 최초로 투입되었고, 이로 인해 싸우는 방법이 바뀌었다는 것이다. 거북선이 일본함대의 대장선이나 층루선을 향해 돌격하여 각종 총통을 쏘아 적의 지휘체계를 무너뜨린 후⁶⁹⁾ 판옥선을 교대로 투입하여 화력을 집중하였다.

네 번째는 사상자가 1차 출전에 비해 많이 발생했는데⁷⁰⁾, 일본 수군의 조총 위력을 실감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며, 조선수군의 사상자 발생을 줄이면서 일본함선을 격멸할 수 있는 전술도 고민했을 것이다.

다. 이순신의 초기 전투 승리 요인 분석

이순신은 임진왜란 발발 전의 전쟁준비를 기초로 경상도로 1·2차 출전한 해전에서 완벽한 승리를 거두었다. 『난중일기』와 이순신이 전투 후에 조정에 보고한 승첩장계인 ‘옥포파왜병장(玉浦破倭兵狀)’과 ‘당포파왜병장(唐浦破倭兵狀)’의 내용을 기초로 앞의 ‘2장 및 가·나항’에서 분석한 내용을 종합하여 초기 전투에서 승리한 요인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68) 이순신은 2차 출전 기간인 임진년(1592) 5월 29일부터 6월 10일까지 매일 난중일기를 기록하였다.

69) 일본함대의 대장선을 먼저 공격함으로써 전투 초기에 적의 지휘체계를 마비시킬 수 있다. 임원빈, 「충무공 이순신의 병법연구」, 『해양연구논총』 제20집, 해군사관학교해군해양연구소, 1998, 189쪽.

70) 1차 출전 때는 일본수군의 화살에 맞은 가벼운 부상자가 1명 발생하였는데, 2차 출전 때는 전사자가 13명이나 발생하였고 부상자는 이순신과 나대용을 포함한 36명이나 발생하였다.

첫째, 일본수군에 관한 정보(Intelligence) 획득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쳤고, 확인된 정보를 최대한으로 사용(Information)하여 전투를 하였다.

왜란 발발 전에는 왜란이 곧 있을 것이라는 정보에 따라 실질적인 전쟁준비를 하였고, 왜란이 발발하자 일본수군이 경상도 지역에서 전라우수군 책임지역으로 침입할 것에 대비하여 모든 함선을 즉각 출동 가능하도록 바다 어귀에 대기시킨 상태에서 방어시설을 점검하는 등 방어준비를 하였다.

전투 시에 일본수군에 관한 정보는 원군, 척후, 탐색선, 향화인, 피난민 등 다양한 수단⁷¹⁾을 활용하여 소상하게 파악하였다. 즉 적의 위치·규모·상태·활동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맞춤형으로 기습하는 전술을 구사하였다.

특히 전투행동 개시 전에는 반드시 지형정보를 활용하였다. 특히, 사천포, 당항포 해전에서는 조선 수군에 불리한 지형정보에 따라 일본수군을 유인하여 격멸하고자 하는 전술을 펼쳤다.

이순신은 명확하게 상황을 판단하고 결단하여 시행하기 위해 정보 수집활동을 활발하게 하여 수집된 정보를 기초로 맞춤형 전투활동을 하였던 것이다.

반면에 일본수군들은 조선 수군의 존재를 아예 무시하여 탐망선 등을 운용하지 않았다.⁷²⁾ 이순신의 1·2차 출동 전투 시에 일본수군들은 대부분 선창가에 정박해 있다가 조선 수군의 공격에 완패하였다.⁷³⁾ 일본수군들의 함포 대응 또한 전혀 없었다. 위의 사실들을

71) 함대가 기동할 때는 좌·우 척후장을 운용하였고, 탐망군·별망군·소선, 향화인 등 다양한 정보원을 활용하였다. 김세양, 「이순신 제독의 전략·전술에 관한 연구」, 경남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8, 47~48쪽.

72) 정진술, 「조선수군의 입란 초기대응에 관한 연구」, 『해양연구논총』 제25집, 해군사관학교 해군해양연구소, 2000, 45쪽.

73) 이순신의 1·2차 출전 해전 시 일본함대가 선창에 정박해 있다가 조선수군의 기습을 받았던 해전은 옥포해전, 적진포해전, 사천해전, 당포해전, 당항포해전

고려하여 추론해 보면, 임진왜란 초기 조선수군의 저항이 없었기 때문에 조선수군의 공격을 전혀 예상하지 못함으로써 조선 수군과의 해전을 고려하지 않았고, 함대를 구성하여 조직적으로 해전을 하겠다는 개념도 발전시키지 않았다.⁷⁴⁾

둘째, 명확한 지휘·통제(Command and Control)체계가 확립되어 연합함대의 전투력이 발휘되었다.

전투에서 일사불란한 지휘통제만이 승리를 보장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순신은 동급의 수사 2명의 함대와 함께 전투를 하면서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다.⁷⁵⁾ 통신 수단이 발달하지 못한 당시로서는 내용 전달에 장기간이 소요되었으며, 반드시 서로 만나서 협의해야만 했다. 어디서 만나고, 어떻게 임무를 할당할 것이며, 특히 전투 간에 일사불란한 협조된 전투행동은 어떻게 할 것인가 등은 매우 어려운 문제임이 분명했다.

이러한 제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전투 간에는 함대를 일사불란하게 지휘통제하기 위해 다양한 신호와 명령 수단을 사용하였다.

『재조변방지』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 전투 간에 사용한 ‘소라, 깃발, 북’등이 등장하는데, 이순신은 각종 신호수단을 사용하여 명령을 하달하고 함대를 지휘통제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었다. 함포해전, 율포해전은 도주하는 일본함선을 쫓아가서 격멸시킨 전투였다.

74) 일본군은 임진왜란을 준비하면서부터 해전을 통한 조선수군을 격파하거나 해로 장악에 대한 목표는 없었고, 단지 상륙과 축성을 통해 교두보를 마련하고 조선의 내륙 지방을 탈취한다는 육전의 개념만 생각했던 것이다. 이민웅, 앞의 책, 106쪽.

임진왜란 초기 일본수군이 완패한 것은 그들이 조선수군을 경시했기 때문이다. 이미 조선 침공 개시 단계에서부터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조선수군의 존재를 아예 무시하고 수군장들을 육상의 수비에 가담시키는 우를 범하고 있었다. 정진술, 「조선수군의 임란 초기대응에 관한 연구」, 145쪽.

75) 당시의 지휘체계는 종적명령체계로 되어 있어 횡적인 인접부대와의 협조체계는 매우 어렵게 되어 있었으므로 재량권과 융통성이 부족하였다. 김일상, 「충무공 이순신과 넬슨 제독의 해전 비교연구」, 『군사논단』 제8호, 한국군사평론학회 한국군사학회, 1996, 236쪽.

사천 바다 가운데로 쫓아가니, [……] 곧 소리를 불고, 기를 휘둘러 후퇴하였다. [……] 이윽고 좁고 험한 곳에 다다르자 이순신이 북을 한 번 크게 쳐 여러 배가 일제히 돌아서서, [……]⁷⁶⁾

또한 아래 인용과 같이 다양한 신호수단을 활용하여 명령함으로써 함선을 지휘통제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었다.

임란기 조선 수군의 전술 운영은 먼저 함대가 출전할 때 세 차례의 나발 신호로 군사들의 행동을 구분하였는데, 이순신으로부터 시작된 이러한 세 차례의 나발 운영은 조선 후기의 수조(水操)에서도 계속 운용되었다. 임란기에 함대의 전투진형은 학익진과 장사진이 운용되었고, 함대가 출전하여 정박할 경우에 해상에서의 결진 형태는 주로 방진(方陣)이 이용되었다. 또 신기전을 이용하여 탐방선으로부터 적선에 대한 발견보고를 입수하였다. 그리고 함선의 신호용구로는 초요기, 대장기, 휘, 흑대기, 독, 요령, 나발(角), 징, 북이 사용되었다.⁷⁷⁾

모든 명령을 육성과 악기 및 깃발 등 신호로 해야 하는 조선시대의 지휘체계는 어려움이 많을 수밖에 없다. 피나는 훈련을 하지 않았다면 결코 나타날 수 없는 결과인 것이다.⁷⁸⁾

셋째, 전장환경과 적 상황을 고려한 기동(Maneuver)으로 우세한 전투국면을 조성했다. 이순신의 기동은 전투를 할 때 대략 3단계로 이루어졌다. 일본함대에 접근하기 위한 이동 - 전투할 때의 기동 - 전투를 마치고 임시 정박을 위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표 14〉에서 보듯이 1차 출전 간 옥포해전 시에는 일렬로 접근하여 양쪽으로 에워싸서 적을 격멸한 후 영등포 앞바다까지 이동하여

76) 신경, 『재조변방지』, 권2.

77) 정진술, 「조선수군의 전술신호 체계에 대한 연구」, 『학예지』 제15집, 육군사관학교육군박물관, 2008, 117쪽.

78) 나승균, 앞의 글, 85쪽.

정박했다. 합포해전에서는 일본수군을 추격하고 붙잡아 격멸한 후 남포 앞바다로 이동하여 정박했다. 적진포해전에서는 포구 안으로 접근하여 총통과 불화살로 분멸하였다.

2차 출전부터는 거북선이 처음 투입되면서 기동전술이 약간 바뀌었다. 함대가 일본함선에 접근한 뒤, 거북선을 먼저 적진의 대장선으로 돌격시켜 혼란에 빠지게 한 다음 판옥선을 교대로 투입하여 격멸하였다. 그리고 전투가 진행됨에 따라 포위하고 있는 한 쪽을 열어주고 다시 포위하기도 하고 추격하여 붙잡기도 하는 등 자유자재로 기동하였음을 알 수 있다.

〈표 14〉 이순신 1·2차 출전 전투간 기동전술

구 분	옥포해전	합포해전	적진포해전	
1차 출전	줄지어 들어감. 양쪽으로 에워쌌.	쫓아감.	섬들을 협공하고 수색하여 적진포에 도달	
구 분	사천해전	당포해전	당항포해전	울포해전
2차 출전	유인, 거북선 돌격 후 일제 공격	사시(10시경)에 도착 거북선 돌격 후 후방 판옥선 사격	안개 걷힌 후 당항포에 도착, 先 탐망선 운용, 4척 매복, 일렬로 왜적선으로 이동, 포위 後 거북선 돌격, 이어서 판옥선 교대공격, 포위망 한쪽 열어줌, 재포위, 매복	영등포에 도달함. 도망하는 왜적 배 쫓아감. 붙잡아 격멸함.

출처: 『이충무공전서』 권2, 「玉浦破倭兵狀」; 「唐浦破倭兵狀」

지금까지 연구결과는 일본수군 안택선의 속도가 3노트 이상이며, 조선 수군의 판옥선은 3노트 정도로 안택선이 더 빠르다고 나타나고 있다.⁷⁹⁾ 그렇다면 도주하는 일본함선을 판옥선이 어떻게 붙잡을 수 있었을까? 이는 속도를 결정짓는 노와 돛의 숫자에서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일본수군의 안택선은 1노에 1명 또는 2명의 노군이 운용되었으나 판옥선은 1노에 4~5명의 노군이 운용되었으며,

79) 제장명, 앞의 박사학위논문, 41쪽.

돛은 안택선이 대부분 1개였으나 판옥선은 2개를 운용하였다.⁸⁰⁾ 거기다가 이순신의 1, 2차 출전 기간 동안 일본수군은 선창에 정박해 있거나 약탈한 물자를 함선에 적재함으로써 속도를 낼 수 없었다. 이런 이유로 일본수군은 도주할 때도 조선 수군에게 붙잡혔다.

원래 일본함선의 장점은 조선 수군의 판옥선보다 경쾌한 속력으로 기동할 수 있었지만, 일본수군들은 약탈한 물자를 함선에 대량으로 적재함으로써 함선의 기동력을 떨어뜨렸다. 막상 전투에 임해서는 속력을 증가시키기 위해 약탈한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기 바빴다.⁸¹⁾

넷째, 판옥선과 거북선에 탑재된 월등하게 우수한 각종 총통과 다양한 무기를 통합 운용하여 화력(Fires)을 집중하였다.

조선수군은 판옥선과 거북선에 강력한 화포를 탑재하여 이동하면서 일본함선을 당파(撞破)할 수 있었다. 적을 타격하는 화력은 조선 함대가 일본수군 보다 압도적으로 우세하였다. 일본수군은 함선에서 사거리 50~200m의 조총과 화살로 조선 수군에게 대항⁸²⁾했지만 조선 수군은 판옥선에 탑재된 사거리 1km 이상의 총통을 이용하여 일본함선을 격파하고 인원을 살상시켰다.⁸³⁾ 또한, 일본수군과의 거리와 표적에 따라 다양한 화기를 사용함으로써 파괴와 살상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었다.⁸⁴⁾

화력은 기동과 통합될 때 효과가 배가 되는데, 조선 수군이 장비한 총통은 그 종류가 다양하고 사거리도 비교적 길었지만 정확한

80) 정진술, 「한산도해전연구」, 『임란수군활동연구논총』, 해군군사연구실, 1993, 169쪽.

81) 정진술, 「조선수군의 임란 초기대응에 관한 연구」, 145쪽.

82) 이순신의 승전장계에 나타나는 조선 수군의 사상자들 보면 일본수군은 조총과 화살을 사용했음이 드러난다. 2차 출전 간에 사망자 13명 중 10명은 조총에, 2명은 화살에 맞아 사망하였다. 부상자 중 15명은 조총에 맞았으며, 21명은 화살에 맞았다. 『이충무공전서』 권2, 「唐浦破倭兵狀」

83) 정진술, 「한산도해전연구」, 169쪽.

84) 이순신의 승전 장계에 등장하는 피사체는 철환·대장군전·장편전·피령전·화전·질려포·대발화포 등이 있다. 『이충무공전서』 권2, 「玉浦破倭兵狀」; 「唐浦破倭兵狀」

조준사격이 제한되었으므로 명중률이 낮았다.⁸⁵⁾ 그래서 피해 없이 일본함선에 접근할 수 있는 거북선을 만들었고, 거북선이 일본함선에 근접하여 사격함으로써 명중률을 높일 수 있었다. 또한, 판옥선을 적절하게 기동시키고 진을 형성시킴으로써 당시 정확도가 낮은 화포의 명중률을 제고시켰다.⁸⁶⁾

그렇다면 화력은 어떻게 집중시킬 수 있었는가? 조선수군은 일본함선에 접근한 다음 거북선을 일본함대의 지휘함선에 돌격시키면서 총통으로 사격하여 혼란에 빠지게 만들고, 이어서 판옥선들이 협력하여 총통의 사거리에 맞춰 진을 형성하면서 교대 및 순차적으로 간단없이 집중 사격함으로써 분멸시켰다. 거북선과 판옥선의 기동으로 화력운용의 여건을 조성하고 거북선과 판옥선의 화력을 통합시킨 것이야말로 승리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승리요인이 되었다.

다섯째, 철저한 부대 방호(Protection)로 조선 수군의 전투력을 보존하였다.

이순신의 방호태세는 최고수준이라 할 수 있다. 군호(軍號)를 사용하여 피아를 구분하였다.⁸⁷⁾

전라좌수영 본영을 떠나 경상도로 출전할 때는 본영을 지키는 책임 장수를 지정하여 본영의 방비에도 만전을 기했다. 2차 출전을 하면서 “군관 전 만호 윤사공을 본영에 남아서 지키는 책임 장수로 삼고, 수군 조방장 정걸에게는 본도의 수군이 출동하면 전라좌도 관내의 각 진과 포에 지휘할 사람이 없으므로 홍양 고을에 주둔하면서, 만약에 사태에 대비하도록 엄하게 지시해 두었습니다.”⁸⁸⁾는 기록에서 보듯이, 본영과 전라좌수영 책임지역을 대리 지휘할 잔류

85) 제장명, 앞의 박사학위논문, 45쪽.

86) 정진술, 『한산도해전연구』, 170쪽.

87) 『난중일기』에 군호를 ‘용호(龍虎)’, 북명은 ‘산수(山水)’로 정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난중일기』, 임진년 5월 2일.

88) 『이충무공전서』 권2, 「唐浦破倭兵狀」

책임자를 임명하여 방호태세를 확고하게 하였다.

전투를 위해 이동을 시작할 때는 <표 15>에서 보듯이 새벽이나 이른 아침에 출발함으로써 함대이동의 은밀성을 유지하였다.

<표 15> 이순신 함대 출동 시간

구 분	1차출전	옥포해전	적진포해전	당포해전	당항포해전	당항포해전 후	울포해전 전	2차출전 복귀 전
출동시간	새벽2시	새벽	이른 아침	오전8시경	안개 걷힌 후	새벽	이른 아침	이른 아침

출처: 『이충무공전서』 권2, 「玉浦破倭兵狀」; 「唐浦破倭兵狀」

그리고 <표 16>와 같이 전투 후에는 반드시 전투 장소에서 벗어나 진을 치고 정박함으로써 일본수군으로부터 기습을 방지하는 방호조치를 취했다.

<표 16> 조선 수군의 전투장소와 정박장소

구분	옥포해전	합포해전	적진포해전	사천해전	당포해전	당항포해전	당항포해전 다음날	울포해전
전투장소	옥포	합포(마산)	적진포(통영)	사천포	당포	당항포	당항포 어귀	울포
정박장소	.	남포(창원)	복귀	모자랑포	창신도	당항포 어귀	말우장 바다	송진포

출처: 『이충무공전서』 권2, 「玉浦破倭兵狀」; 「唐浦破倭兵狀」

여섯째, 전투력 지속(Sustainment) 능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였다. 앞의 ‘2장 나항’에서 분석했다시피 이순신은 왜란 발발 전에 전쟁을 할 수 있는 인원, 물자, 장비를 끊임없이 준비하고 점검하였고, 출동하여 전투를 할 때도 전투력 지속 능력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해왔다.

이순신의 1차 출전 기간은 1592년 5월 4일 출발하여 5월 9일 복귀할 때까지 6일간 이었다. 적진포해전을 마쳤을 때 선조의 피난 소식을 접하고 종일 통곡하다가 진을 파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임금이 백성을 버리고 피난을 간 소식을 듣고 전투의지가 저하된 이유도 있겠지만, 군량미, 포탄, 화약, 화살 등을 보충해야 하고 군사들에게 휴식도 부여할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 이순신은 1차 출전 승리를 보고하는 장계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임금의 어가가 관서로 피난가신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놀랍고 분통함이 그지 없어서 온 간장이 다 찢어질 정도로 하루 종일 서로 붙잡고 소리 내어 울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각각 돌아가기로 하여 9일 정오 때 모든 배들을 거느리고 무사히 본영으로 돌아왔습니다.⁸⁹⁾

이순신의 2차 출전은 1592년 5월 29일 출발하여 6월 10일 복귀함으로써 11일간 본영을 떠나 있었다. 한 번 출동 시 약 10일을 전후한 분량의 군수물자를 준비하여 출전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2차 출전을 마치고 복귀할 때 이순신은 다음과 같이 장계에서 보고하고 있다.

연일 대적을 만나 바다 위를 돌아다니며 싸우느라 군량이 벌써 떨어지고 군사들도 지칠 대로 지쳤으며 부상자들도 많이 생겨서, 지친 우리 군사들로 편히 쉬 적들을 상대하여 싸우는 것은 실로 군사상 좋은 계책이 아니라고 생각되었습니다.⁹⁰⁾

전라좌도 병력이 자기 진영을 떠난 지 10여 일이 넘어 전선과 무기 상태 등 군수 분야를 점검해야 하고, 여러 차례 해전을 거친 수병들이 고단한 상태로 적진 가운데 오래 머무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고 판단했을 것이다.⁹¹⁾

이순신은 전투 간 중간 중간 군사들에게 휴식도 부여하여 전투력을

89) 『이충무공전서』 권2, 「玉浦破倭兵狀」

90) 『이충무공전서』 권2, 「唐浦破倭兵狀」

91) 이민웅, 앞의 책, 138~139쪽.

유지하도록 노력하였다. 옥포해전 후 함포해전 전에 ‘군사들을 시켜 땀감과 식수를 마련하며 밤을 지내려고 하였다.’든지, 적진포해전 후 ‘군사들에게 아침밥을 먹고 쉬게 하였다.’라는 장계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다.

또한 전투 승리 후 일본함선에서 노획한 품목들 중 ‘우리가 먹을 만한 쌀 3백여 섬은 여러 전선의 배고픈 격군들과 사부들의 양식으로 나누어주고, 의복과 무명 등의 물건들도 군사들에게 나누어주어, 적을 쳐부순 후 전리품을 바라는 마음을 자극하였습니다.⁹²⁾’라는 내용을 볼 때 전투력 지속 능력이 고갈되지 않으면서 사기를 올릴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당시 전선부대는 군수물자(군량과 탄약, 탄환, 궁시 등)의 재보급을 받을 곳이 없었고, 자급자족에 의해서 출항⁹³⁾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리품의 분배는 중요한 보급수단이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일곱째, 승리에 초점을 맞춘 이순신의 전장 리더십(Leadership)이 있었다.

이순신의 리더십을 몇 마디로 정의할 수는 없지만 전쟁을 준비하고 전투를 하면서 승리와 귀결되어 나타난 몇 가지를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① 전쟁에 대비하는 임무 지향적 현장 중심 원칙적인 리더십을 발휘하였다. 전쟁에 대비해야 하는 임무를 게을리하거나 기울이 문란한 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처벌했으며, 지휘관으로서 반드시 현장을 확인하는 원칙적인 지휘를 하였다.

② 임진왜란이 발생하여 초기 해전에서 보여준 이순신의 리더십 중 돋보이는 것은 ‘결단’이라고 할 수 있다.

임진년(1592) 5월 3일, 경상도 앞바다로 출전 1일 전, 이순신은

92) 『이충무공전서』 권2, 「唐浦破倭兵狀」

93) 김일상, 앞의 글, 238쪽.

자기 집으로 도망간 여도 수군 황옥천을 잡아다가 목을 베어 군중에 높이 매달았다.⁹⁴⁾ 일본수군과의 전투를 앞두고 군령의 지엄함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이다. 생각이 여기에 미치자 일벌백계의 의미를 담아 처형하여 본을 보이는 결단을 하였던 것이다.

출동시기도 과감하게 결단하였다. 이순신이 임진년(1592) 5월 4일, 1차 출전할 때 전라우수영의 이억기 함대와 함께 출동하는 계획을 세웠었다. 이순신은 이억기 함대도 4월 30일에 출발하겠다고 하므로 5월 3일까지 기다렸으나, 도착하지 못하자 속히 달려오라고 급보를 띄우고 전라좌수영의 함대만을 지휘하여 출전했다. 일본수군과의 첫 전투이므로 신중에 신중을 기한 이순신이었지만, 일본수군을 하루라도 빨리 격멸시켜 기세를 꺾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단독출전을 결심했다.

또한 2차 출전할 때도 이순신은 출전 일자를 임진년(1592) 6월 3일로 정해서 전라우수사 이억기와 약속했다. 그런데 5월 27일 경상우수사 원균이 공문을 보냈는데, “적선 10여 척이 이미 사천포와 곤양 등지에서 쳐들어와서 남해 땅 노량으로 배들을 옮겼다.”고 하였다. 만약에 전라우수사와 만나기로 약속한 6월 3일까지 기다려서 출동한다면, 그 사이에 일본수군들은 자기 무리들을 끌어들이고 형세가 더욱 불어나게 될 염려가 있기⁹⁵⁾ 때문에 5월 29일에 출동하기로 결단하였다.

즉, 상황을 판단하여 꼭 실행해야 하는 올바른 당위성이 있다고 판단할 때는 과감하게 결심하여 행동으로 옮겼다.

③ 전투간에는 치밀하고 신중한 상황판단에 기초한 융통성 있는 전술을 구사하는 리더십을 보였다. 첫 해전인 옥포해전에서 ‘함부로

94) 『난중일기』, 임진년 5월 3일.

95) 『이충무공전서』 권2, 「唐浦破倭兵狀」

움직이지 말고 산같이 정중하라.’고 지휘한 것, 옥포해전 후 영등포 앞바다에서 밤을 지내려고 했으나 일본함선을 발견하고 즉시 추격하여 함포해전을 한 것, 사천해전과 당포해전에서 일본함선을 유인하여 격멸한 것, 당항포해전에서 유인-포위-포위 해제-일본함선 1척을 남기고 도주하는 일본함선을 붙잡아서 분멸하는 전술을 구사하는 등, 적·지형, 조석현상, 조선 수군 상태 등 전투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소들을 고려하여 상황을 판단하고 가장 적합한 전술로 승리하는 리더십을 보였다.

④ 지휘관으로서 ‘용기’를 숭선하여 실천했다. 이순신은 사천해전 중 진두에서 지휘하다 일본수군의 총탄을 맞기도 하였다. 전장에서 지휘관에게 가장 요구되는 덕목은 적과의 전투에서 물러서지 않는 용기라고 할 수 있는데, 이순신은 이를 숭선하여 실천하였다.

⑤ 전투 유공자에 대한 ‘공정’한 논공행상을 하였다. 이순신은 전투가 끝난 후 장계를 보고할 때 전공이 있는 사람의 직책과 이름, 세부 전공을 기록하여 응당한 표창과 보상을 받게 하였다. 특히 적의 목을 벤 숫자로 전공을 평가하던 당시에, 전투에 집중하도록 목을 베지 않더라도 죽을 힘을 다해 싸운 자를 으뜸 공로자로 삼겠노라고 약속하여, 장계에 별도로 전공을 등급으로 기록하여 보고하였다.

⑥ ‘군사와 백성을 아끼는’ 실질적인 조치를 하였다는 것이다. 전투 후에는 일본함선에서 획득한 쌀, 의복, 무명 등을 군사들에게 나누어 주었으며, 죽은 자는 고향에서 장사지내게 해주고 그 처자들은 구휼하는 법에 따라 시행하도록 했으며, 부상을 입은 군사들에게는 약품을 주고 충분히 치료하도록 조치했다. 이와 같은 리더십으로 군사들의 군기와 사기를 유지할 수 있었고, 전투에 임하여는 필승의 신념으로 승리를 달성할 수 있었다.

4. 맺음말

지금까지 전라좌수사로 부임한 이순신의 전쟁준비 배경과 전쟁준비 활동, 임진왜란이 발발한 후 이순신의 상황판단과 대응 조치, 경상도 바다로 출전하게 되는 과정, 1·2차 출전한 초기 해전에서 전투력을 어떻게 발휘시켜 승리하였는지 등을 전투력 요소로 분석해 보았다.

이순신의 내실있는 전쟁준비 배경에는 정해년(1587)의 홍양 왜구 침입사건이 있었고, 그 때의 교훈을 기초로 기율을 유지시키고 지휘체계를 확립한 가운데 창의적이고 원칙적인 전쟁준비 활동을 하였다. 이순신의 가장 창의적인 전쟁준비 활동은 당시 조선 사회에 널리 퍼져있는 왜란 발발 정보(Information)를 활용하여 일본수군의 등선을 거부하면서 최대한 근접하여 일본함선을 화포로 명중시킬 수 있는 거북선의 제작과 현장 전비태세 검열이라고 할 수 있다. 이순신은 전쟁준비에 필요한 함선, 각종 무기, 방비 시설 등 모든 것을 직접 눈으로 보고 현장에서 철저하게 확인하였다. 물론 이순신의 승리 배경에는 조선 초기부터의 전국적으로 추진한 군선과 화기의 개발 및 수군 조직, 16세기 중반의 왜구 침략 대비를 위해 개발된 판옥선과 각종 총통⁹⁶⁾ 등이 있었다.

이순신은 임진왜란이 발발했을 때, 접수되는 전란 상황과 전란 대비 조치를 예하 관·포와 전라우수영에 전파하였고, 전라 관찰사·병마사 및 조정에까지 동시에 보고하였으며, 제송방략에 따라 일본수군의 침입에 대비하기 위해 총동원 방식의 병력 충원, 함선 출동 대기, 진의 방비를 점검하였고, 경상도 바다로 출전을 준비하면서 조정의 출동명령을 기다리고 있었다.

96) 이민웅, 앞의 책, 196쪽.

이순신은 원균·이억기 함대와 함께 전투를 해야 하므로 지휘통제(Command & Control)체계를 확고하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였다. 이순신은 전투에 임함에 있어서 엄격한 지휘체계를 확립하였고, 원균·이억기 함대와 공조를 통한 협조된 작전체계를 유지하였다.

또한 일본수군과 전투할 때는 정보(Intelligence), 기동(Maneuver), 화력(Fires), 방호(Protection)가 통합된 작전을 하였다. 먼저 일본수군을 찾고, 보안이 유지된 새벽 또는 이른 아침에 함대의 기동을 통한 접근, 거북선의 돌격과 판옥선의 일제 기동 및 사격(① 일본함대 대장선을 표적으로 거북선 돌격으로 일본함대의 지휘체계 마비, ② 판옥선들을 총통사거리를 고려하여 진을 갖춰 교대로 기동, ③ 간단없는 화력집중)으로 일본함대 격멸, 전투 후에는 전투 지역을 이탈하여 정박함으로써 방호태세를 갖춰 일본수군의 기습에 대비하였다. 즉, 일본수군의 현재 상태와 포구의 지형과 모양, 조석현상 등을 고려하여 유인, 포위, 추격, 매복 등 다양한 기동전술을 구사하면서 거북선과 판옥선의 화력을 통합시킴으로써 승리를 완성시켰다.

전투력 지속(Sustainment) 능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병력, 함선과 각종 무기류를 주기적으로 검열하여 손상필별하였고, 전투 간에는 노획물을 병사들에게 분배하여 사기를 진작시키기도 하였다.

가장 중요한 승리요인은 이순신의 승리 지향적 전장 리더십(Leadership)이라고 할 수 있다. 이순신의 리더십 특징은 임무 지향적 현장 중심의 원칙과 결단, 신중한 상황판단에 기초하여 융통성 있는 전술을 구사하는 능력 및 용기, 공정, 백성 및 군사들과 함께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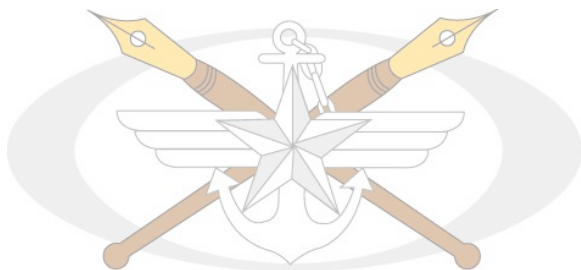
이순신이 초기전투에서 승리한 요인은 임진왜란 발발 전에 잘 준비한 전투력을 전투에서 통합하여 발휘시켰기 때문이었다. 이순신

이 바로 승리요인이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순신의 해전을 전투력 요소로 분석함으로써 군사사적으로 객관성을 더했다고 자부할 수 있다. 하지만 제한된 사료로 400여 년 전의 해전을 분석해야 하므로 한계나 미흡함이 노정되는 아쉬움도 있었다.

[원고투고일: 2016.1.4, 심사수정일: 2016.2.13, 게재확정일: 2016.2.19.]

주제어 : 임진왜란, 정해년 사건, 초기 전투, 이순신, 난중일기, 전투력 요소,
1·2차 출전, 승리요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ABSTRACT>

The victory factors for General Lee's initial battles and combat readiness from the view point of combat capabilities.

Lee, Gyeong-sig

This study focuses on how General Lee achieved continuous victories in the beginning of Japanese invasion. Unlike previous studies that focused on the victory factors on the water, this study focuses on analyses of General Lee's combat preparation and emphasized combat capability during initial stages of battles, which defeated Japanese forces.

The background of General Lee's substantial war preparation came from the battle of Japanese invasion led by Hong-Yang in the Year of Jeong-Hae (1587). By developing the foundation for discipline and commanding system based on the past experience, Lee focused on creative, yet stuck to the basic war-preparation. One of Lee's creative works was that he collected information of Japanese combat style to create his battle strategies: to deny enemy's climbing up the warship, but to be close enough to target enemy ships with turtle ships, and to inspect the war preparations. For the war preparations, Lee inspected ships, various weapons, and defense system on the field. But most importantly, Lee's victorious background originated from his nationally scaled propulsion for increasing the number of war-ships, development of cannons specially designed for battles against Japanese forces.

When the actual Lim-Gin Japanese invasion occurred, Lee was fully prepared to go to the war against Japan by utilizing the effective reporting system, which reached to Right naval HQ located in Jeon-Ra provinces, observatory posts, and central government in a very short time. Lee also prepared for all possible routes of Japanese incomings and settled his navy on sea of Gyeong-Sang waiting for the imminent battle command from the government.

In order to execute Command & Control system in the battle at the sea of Gyeong-Sang, Lee required strict command system, and hierarchy with Won-Gyun and Uk-Gi Lee's fleet, which allowed well-coordinated strategic system. Also, strategy integrated intelligence, maneuver, fires, and force protections against Japanese Force. First, spot the enemy, approach with fleets during earl dawn when security is assured, then charge with turtle ships and full-on assailment of cannons with Pan-Ok ships to defeat Japanese Navy. After such strategy, Lee quickly ran away from the battle scene in order to prepare for the possible ambush attacks and buy some maintenance time for his navy. In summary, Lee achieved the victory via analyzing Japanese Navy's current status, geography, water current, surround and attack strategy, ambush attacks, and effective maneuvers, which integrated with turtle ships and navy's fire power. He also inspected his forces, fleets, and other weapons to sustain his combat capabilities. He distributed loots from the battles to his soldiers to alleviate their fear and fatigue.

The most important victory factor would be Lee's victory oriented leadership. His leadership highlighted field focused operations, principles, executions, and keen discernment, which contributed to flexible strategies, all with courage, fairness, people and his navy.

In order to win the war, combat capability had to be performed at its best, and Lee's victories at the initial battles exemplify preparation for the war and successful coordination of combat capability with his leadership in the naval battles.

Key Words : General Lee, Japanese Invasion, Early battle, First and Second naval battle, Combat components, Factors of the victory

조선의 왕권과 숙종초기 도체찰사부

김 중 수*

1. 머리말
2. 조선시기의 왕권과 병권
3. 평시·전시체제와 도체찰사부 운영
4. 숙종초기 도체찰사부의 설치와 해체
5. 맺음말

1. 머리말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조선시기 왕권에 대하여 지금까지 발표된 글들을 보면 한결같이 왕권이 신권에 비해 약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시대의 왕권」이라는 글에서는 “한국은 신라 통일 이후에 한 번도 정복 왕조가 들어선 적이 없었고, 귀족들의 특권이 그대로 온존되어 왔기 때문에 국왕의 전제권이 확보될 수 없었다. 따라서 양반귀족들의 이해와 동의 없이는 국왕도 될 수 없었고, 국왕의 자리를 유지할 수도 없었다.”¹⁾라고 단언하였다. 또 「조선왕조의 유교정치와 왕권」이

* 군산대학교 인문대학 사학과 교수

1) 李成茂, 「朝鮮時代의 王權」, 『東洋 三國의 王權과 官僚制』, 국학자료원, 1999, 84쪽.

라는 글에서는 “전근대 정치사에서 왕권은 변함없는 존재가 결코 아니었다. 정치의 수행자나 참여층이 변하면서 왕권의 성격도 변동을 겪었다”라고 하면서 ‘신권 측의 정치기반의 변동에 따라 왕권의 위상과 성격’이 변한다고 보았다.²⁾ 즉, 왕권은 신권의 종속변수라는 것이다. 이에 ‘조선왕조는 이씨 왕실의 국가이기에 앞서 신하인 사대부·사림이 그들의 영원성을 보장하기 위한 체제로서 운영되는 국가’라고 하고, ‘신권 중심의 명분론이야말로 조선왕조의 국시(國是)이자 정치·사회운영의 원리’라고 주장되기도 하였다.³⁾

이와 같이 조선시기에는 군약신강(君弱臣強)하였다는 것이 거의 통설화되었는데, 이러한 시각은 병권(軍權)에 대한 이해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병권이 국왕이 아니라 신하에게 있었다는 것이다. 즉 앞에서 인용한 『조선시대의 왕권』에서는 “어영청과 수어청은 인조 반정공신들의 사모군(私募軍)을 군영으로 만든 것으로 공신들의 군사권을 보장해 주는 사병적인 성격이 강한 군대였다”라고 하고, “조선후기에는 전기와는 달리 병조의 군영에 대한 통제가 약화되는 반면 군영의 독립성이 강해진 것도 군약신강의 당쟁 정국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라고 하면서 조선후기에는 병권이 신하에게 있었다고 보고 있다.⁴⁾ 또 조선후기 군제사 연구의 기념비적인 책인 『조선후기의 정치와 군영제 변천』에서도 “중앙군사력으로서의 군영이 특정한 정치세력의 정치권력과 밀착되는 것은 적어도 조선왕조에서는 이제까지 볼 수 없던 새로운 현상으로, 그것은 이 시기의 「붕당정치」라는 특수한 정치형태와 유관한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⁵⁾라고 주장하면서 인조반정 이후 정치

2) 李泰鎮, 「朝鮮王朝의 儒敎政治와 王權」, 『韓國史論』 23, 1990, 216쪽.

3) 金尊錫, 「1. 탕평책 실시의 배경」, 『한국사32-조선후기의 정치』, 국사편찬위원회, 2003, 26~27쪽.

4) 李成茂, 앞의 글, 79쪽.

5) 이태진, 「一章 17세기 朋黨政治의 전개와 中央軍營制의 발달」, 『朝鮮後期の 政治와 軍營制 變遷』, 韓國研究院, 1985, 84쪽.

주도권을 장악한 서인이 병권을 확보하자, 이에 남인들도 병권 쟁취에 부심하는 등 붕당정치가 전개되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래서 1680년(숙종 6)에 발발한 경신환국은 남인이 병권을 독점하여 정국의 주도권을 완전히 장악하려고 시도하자, 서인 훈척 집단이 이에 반발하여 일어난 사건으로 이해되기도 하였다.⁶⁾

지금까지의 왕권과 병권에 대한 이러한 이해 방식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조선이 국왕 중심의 왕조국가라는 것을 고려하지 않고, 또 국왕의 권력은 병권의 독점에서 나온다는 평범한 진리에도 관심을 두지 않은 것 같다. 왕조국가 국왕이 왕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국왕이 병권을 독점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만약 신하에게 병권이 있다면 신하들은 자신들이 장악하고 있는 군대를 가지고 경쟁하다가 가장 센 자가 현 정권을 무너뜨리고 왕위에 오를 것이다. 태봉의 멸망과 고려의 건국, 고려의 멸망과 조선의 건국을 비롯하여 중국 전한의 멸망과 신(新)의 건국, 후주의 멸망과 송의 건국 등 수많은 왕조의 멸망과 탄생은 이러한 과정 속에서 이루어졌다. 이에 정변을 방지하고자 왕조국가 국왕들은 사활을 걸고 병권 통제에 부심하였다. 이것은 조선시기도 마찬가지였다. 병조의 공문이 없으면 장군이라도 말단 군인 1명을 마음대로 부릴 수 없었고⁷⁾, 군인을 동원하여 사직을 위협하게 한 반역죄는 10악(惡) 중에서도 으뜸의 죄에 해당하였다.⁸⁾ 따라서 조선후기에 서인과 남인이 국왕과 독립하여 병권을 장악할 수도 없었고, 또 감히 병권을 차지하고자 다룰 수도 없었다.

본 논문은 지금까지의 왕권과 병권에 대한 이해 방식에 문제가

6) 홍순민, 「4. 붕당정치의 동요와 환국의 빈발」, 『한국사30-조선 중기의 정치와 경제』, 국사편찬위원회, 1998, 178쪽.

7) 『世宗實錄』 66, 세종 16년 10월 27일(庚午) “無兵曹公文 雖一隊副 護軍不得擅發”

8) 『大明律直解』, 名例律, 十惡 “一曰 謀反 謂謀危社稷”

『肅宗實錄』 9, 숙종 6년 5월 6일(甲午) “王者之刑 莫嚴於叛逆之罪”

있다고 생각하여 이에 대하여 다시 살펴보고자 한다. 즉 조선시대 국왕은 지금까지의 이해와는 달리 절대 권력을 지니고 있었고, 이것은 병권의 독점 때문에 가능하였음을 밝히려 한다. 국왕의 병권 독점을 위해 주지하는 바와 같이 태종 때 사병제(私兵制)를 혁파하고 공병제(公兵制)를 확립하였다. 그런데 공병제만으로는 국왕의 병권 독점을 확고하게 할 수 없어, 조선은 다시 평시체제와 전시체제를 분리·운영하였다. 전시에는 평시체제의 군대 지휘관이 군대를 통솔할 수 없고, 국왕이 별도로 임명한 지휘관에 의해 통솔하도록 한 것이다. 이와 같이 전시에 국왕이 별도로 임명한 지휘관을 도체찰사(都體察使)라 한다. 도체찰사는 전시에 부체찰사, 찬혁사를 비롯하여 수많은 장교와 군인으로 형성된 도체찰사부(줄여서 都體府, 體府라고도 함)를 이끌고 전시체제에 임하였다.⁹⁾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때에도 도체찰사부가 설치되어 활동하였는데, 병자호란 이후 도체찰사부가 해체되었다가 숙종 초 중국에서 삼번의 난이 일어나자 다시 도체찰사부가 설치되었다. 그런데 숙종 초의 도체찰사부는 설치와 해체를 반복하다가 결국 경신환국으로 완전히 해체되게 된다. 1680년의 경신환국은 도체찰사부로 인해 발생한 사건이었다.¹⁰⁾ 경신환국은 서인 훈척이 남인들이 도체찰사부를 통해 병권을 장악하려 하였다고 무고하고, 국왕이 이에 동조하여 발생한 정변이었다. 숙종 초기 도체찰사부의 설치와 해체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조선시기의 왕권과 병권의 실체를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9) 조선초기의 도체찰사에 대해서는 金順南, 『조선초기 體察使制 연구』, 景仁文化社, 2007.이 참고 된다.

10) 『肅宗實錄』 27, 숙종 20년 10월 3일(丁酉) “禮曹參判閔鎮長上疏曰 … 夫體府一節 爲庚申之獄大關振”

2. 조선시기의 왕권과 병권

조선은 중앙집권적 왕조국가로서, 국가의 모든 권력은 중앙에 집중되었고, 그 중앙의 핵심에 국왕이 있었다. 이에 국왕은 국가 내에서 최고의 권위와 최대의 권력을 지닌 존재였다. 『시경(詩經)』에 나오는 “넓은 하늘 밑에 왕의 땅 아님이 없고, 온 땅 안에 왕의 신하 아님이 없다.(普天之下 莫非王土 率土之濱 莫非王臣)”라는 말은 조선에서도 그대로 적용되었다. 조선의 하늘 밑에 왕의 땅이 아닌 땅이 없고¹¹⁾, 왕의 신하 아닌 사람이 없었다. 그래서 모든 농민들은 왕의 땅에 농사짓는 대가로 국가에 세금을 내야 했고, 모든 백성들은 왕의 신하로서 역(役)을 지고 국가에 봉사해야 했다. 정도전은 「조선경국전」 첫째 장에 있는 ‘정보위(正寶位)’에서

성인의 큰 보배는 왕위(王位)이다. ... 천자(天子)는 천하 모든 사람의 받들을 누리고, 제후는 지역 내 모든 사람의 받들을 누리니, 부귀가 지극한 사람이다. 현능(賢能)한 사람은 지혜를 바치고, 호걸은 힘을 바치며, 백성들은 분주하게 각각 맡은 역(役)에 종사하되, 오직 인군(人君)의 명령에만 복종할 뿐이다. 그것은 왕위를 얻었기 때문이니, 왕위야말로 큰 보배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¹²⁾

라고 왕위에 대하여 설파하고 있다. 현능한 사람들이 지혜를 바치고, 호걸들이 힘을 바치며, 백성들이 각각 맡은 역에 종사하는 것은 오로지 임금의 명령에 따르는 것(惟人君之命是從焉)이라는 것이다. 정도전은 여기서 왕위(왕권)의 존엄성과 전제성, 절대성을 주장하고 있다.

11) 조선시기 王土 사상에 대해서는 최윤오, 「조선후기 토지개혁론과 토지공개념」, 『역사비평』 2004년 봄호, 참조.

12) 『三峰集』 13, 「朝鮮經國典」 上, 正寶位.

기존 연구에 의하면 정도전은 “왕은 관념상으로만 절대권을 가지고 그 권한은 재상을 선택·임명하는데 그치며, 정치 운영의 실권은 재상이 쥐고 통솔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신권의 우위성, 재상 중심의 정치를 지향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주장은 이후 한국사학계에서 일반적인 통설로 받아들여져 왔다.¹³⁾ 그러나 정도전이 재상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을 곧장 신권의 우위, 왕권의 약화와 결부 짓는 것은 문제가 있는 해석이라고 생각한다. 오히려 이것은 왕권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왕을 보좌하는 재상의 역할과 책임이 중요하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조선왕조와 같은 전제 왕조 국가에서 신권을 왕권 위에 놓는다는 것은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일이다.

1680년(숙종 6) 3월 28일 영의정 허적은 그의 아버지가 시호(諡號)를 받고 또 그 자신이 궤장(几杖)을 받은 것을 축하하는 연시연(延諡宴)을 베풀었다. 그런데 그날 허적이 국왕의 허락도 없이 궁중에 있는 유악(油幄: 기름먹인 장막)을 갖다 썼다고 하여 국왕이 화를 내고¹⁴⁾, 이후 경신환국이 일어나 허적은 영의정 직에서 물러난다. ‘일인지하(一人之下) 만인지상(萬人之上)’이요 ‘만조백관의 우두머리’인 영의정이 궁궐에 있는 장막 하나를 국왕의 허락 없이 마음대로 가져다 썼다고 하여 국왕이 화를 내고 이것을 빌미로 환국이 일어날 만큼 신권은 왕권 앞에 허약하였다. 또 1680년(숙종 6) 9월 우의정이었던 오시수(吳始壽)는 6년 전 역관이 ‘조선은 신하가

13) 이러한 주장은 대체로 정도전의 정치사상을 본격적으로 다룬 최초의 연구라고 할 수 있는 한영우의 『정도전사상의 연구』(서울대학교출판부, 1973)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이후 한국사학계에서 거의 대부분의 학자들은 한영우의 설과 같이 정도전이 신권 우위, 재상 중심의 정치를 지향하였다고 보고 있다. 그런데 최근 정치학계에서는 이러한 통설에 대해 재검토를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박홍규·방상근, 「정도전(鄭道傳)의 ‘재상주의론’ 재검토」(『대한정치학회보』 15집 3호, 2008년 2월) 참조.

14) 『燃藜室記述』 34, 肅宗朝故事本末, 庚申大黜陟.

강하다’라는 말을 잘못 전하였다고 하여 사사(賜死)되었다.¹⁵⁾ 우의정인 오시수가 사사된 이유는 역관이 말하지도 않은 ‘신강설(臣強說)’을 지어냈다는 것이지만, 아무튼 ‘신강(臣強)’이라는 단어는 입에 올리기조차 금기시되는 말이었다. 그런데 정도전이 신권의 우위, 재상 중심의 정치를 주장했다고 하는 것은 조선의 실상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보인다.

정도전은 위에서 제시한 인용문과 같이 모든 사람이 각자 자신의 일을 하는 것은 ‘오직 임금의 명에 따르는 것’이라고 못 박아 두었다. 신권의 우위, 재상 중심의 정치가 아니라 왕권의 절대 우위, 국왕 중심의 정치를 분명히 표명한 것이다. 그런데 국왕 한 사람이 국가의 모든 일을 혼자서 처리할 수는 없다. 이에 문무백관을 두어 국왕을 보좌하게 하였다. 정도전은 「경제문감」에서

대개 임금은 머리(原首)이고, 재상은 임금을 위하여 가부를 결정하니 임금의 복심(腹心)이며, 대간(臺諫)과 감사(監司)는 임금을 위하여 규찰(糾察)하니 임금의 이목(耳目)이다. 부병들이 호위하고, 수령이 왕의 교화를 널리 전하니 임금의 조아(爪牙)요, 수족(手足)이 아닌가?¹⁶⁾

라고 하면서 국가를 인체에 비유하여 국왕은 머리(원수)이고, 재상은 배와 심장이며, 대간·감사는 눈과 귀이고, 군인·수령은 손톱과 수족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즉 재상, 대간, 감사, 군인, 수령 등 모든 문무백관들은 머리(원수)인 국왕을 위해 봉사하는 몸체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정도전이 재상 중심의 정치를 주장하였다고 한다면, 그가 인체에서 머리보다 배와 심장을 더 중시했다는 말인데, 이것은 머리와 정신의 중요성을 무시한 해석이다.

사실 조선시기 내내 대부분의 유학자들은 국왕의 절대성과 전제성을

15) 김우철, 「숙종 6년(1680) 吳始壽 옥사의 검토」, 『역사와 담론』 66집, 2013.

16) 『三峰集』 10, 「經濟文鑑」 下, 識.

인식하고, 이러한 절대적 권한을 가진 국왕의 마음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조광조는 모든 정치의 근본은 임금의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강조하였고¹⁷⁾, 이언적 역시 “임금의 마음이 바르면 천하의 일이 바르지 않은 것이 없고, 임금의 마음이 바르지 않으며 천하의 일이 모두 그릇되게 되는 것이 자연의 이치이다. 임금은 역조창생의 위에 있으면서 세상 만물을 다스린다.¹⁸⁾”라고 주장하였다. 송시열도 “천하의 일은 그 선악을 불문하고, 국왕의 마음에 근본하지 않는 것이 없다.”¹⁹⁾라고 주장하고, ‘임금과 신하의 분한(分限)은 하늘과 땅이 서로 넘지 못하는 것과 같은 이치’²⁰⁾라고 강조하였다. 허목 역시 “임금은 하늘을 대신하여 만민을 다스리고 만물로 하여금 각기 제 자리를 얻도록 하는”²¹⁾ 지위로서, “군위(君位)는 지극히 높고 군례(君禮)는 지극히 엄한 것”²²⁾이라고 단언하였다. 이러한 인식이 보편적이었던 조선왕조에서 신권 우위를 주장한다는 것은 참월(僭越)한 것으로서 당시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다.

조선시대의 국왕은 관념상으로만 절대권을 가진 것이 아니었다. 국왕은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 등 국가 통치의 3권을 모두 장악하고 있었다. 1428년(세종 10) 11월 상정소(六典詳定所) 제조(提調)인 이직(李穡) 등이 『육전(六典)』을 편찬하여 올린 글에서 “우리 태조께서는 하늘의 명을 받아 나라를 창조하시매, 잠시도 한가로운 겨를이 없으셨고, 법을 세우고[立法], 제도를 정하셨습니다.”²³⁾라고 하여 국왕에 의한 입법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 사실 조선시대에

17) 『靜菴集』2, 對策, 謁聖試策. “故古之明王 以知千變萬化之無一本於人主之心者 莫不正其心而出其道也 正其心而出其道也 故爲政而仁得焉”

18) 『晦齋集』8, 「進修八規」

19) 『宋子大全』5, 「己丑封事」(8월) “天下之事 不問善惡 無不本於人主之一心”

20) 『宋子大全』8, 「論事劄」(戊午 12월 10일) “君臣之分 如天地之不可踰越”

21) 『記言』62, 續集, 「春秋災異跋」 “人君代天理物 使萬物得所”

22) 『記言』別集 4, 「以禮進戒劄」 “君位至尊 君禮至嚴”

23) 『世宗實錄』42, 세종 10년 11월 29일(丁丑)

국왕이 내린 명령은 ‘교(敎)’라 하여 법에 해당하였다. 각 관청에서 국왕의 명령을 받은 것을 수교(受敎)라 하는데, 각 관청에서는 왕명을 모아 ‘각사수교(各司受敎)’라는 법령집을 편찬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조선시대에 국왕은 입법권을 장악하고 있었다. 한편 국왕은 문무 관리의 임명과 해임을 비롯하여 행정기구의 개편, 외교와 국방, 중앙과 지방의 재정, 조세 부과 등 국가의 모든 행정에 대한 최종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국왕이 행정권을 장악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조선시대의 국왕은 최고의 재판관이었다. 국왕만이 유일하게 각종 범죄에 대한 최종판결권, 사형 결정권, 사면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²⁴⁾ 이와 같이 조선시대의 국왕은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 등 국가통치의 3권을 장악하고 있었다. 기존 연구에 의하면, 조선시대에는 양반의 이해와 동의 없이는 국왕도 될 수 없었고, 국왕의 자리를 유지할 수도 없었으며, 이에 국왕의 전제(專制)는 용인되지 않았다고 하는데²⁵⁾, 이것은 조선시대의 왕권을 지나치게 저평가한 것이다.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데에 임금의 뜻이 아님이 없다”²⁶⁾라는 말처럼, 조선시대의 국왕은 관념적으로나 실질적으로나 절대권, 전제권을 가지고 있었다.

조선시대의 국왕이 이와 같이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을 수 있었던 것은 국가 내에서 무력[兵權·軍權]을 독점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무력이야말로 실질적인 권력의 원천이다. 왕권은 병권의 독점에서 나왔던 것이다. 아무리 똑똑한 자라도 무력 앞에서는 무릎을 꿇기 마련이고, 아무리 어리석은 자라도 병권을 독점하면 왕이 되는 것이다. 1400년(정종 2) 6월 20일, 당시 세자였던 이방원은

24) 沈載祐, 「『審理錄』研究-正祖代 死刑犯罪 처벌과 社會統制의 변화-」,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05, 16쪽.

25) 李成茂, 「朝鮮時代の 王權」, 『東洋 三國의 王權과 官僚制』, 국학자료원, 1999, 84쪽.

26) 『桐巢漫錄』 권2. “其廢其立 其生其殺 莫非天意”

병권의 중요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태상왕께서 병권을 잡았기 때문에, 고려 말에 능히 화가위국(化家爲國) 할 수 있었던 것이고, 무인년(1398) 남은(南問)·정도전(鄭道傳)의 난에 이르러서도 우리 형제가 만일 군사를 가지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사기(事機)에 응하여 변을 제어할 수 있었겠는가? 박포(朴苞)가 회안군(懷安君)을 쫓는 것도 또한 병권이 있었기 때문이다.²⁷⁾

이방원은 이와 같이 병권이야말로 권력의 원천임을 간파하고 있었다. 태조 이성계가 이씨 집안을 국가로 만드는 화가위국(化家爲國)을 할 수 있었던 것도 병권을 잡고 있었기 때문이고, 1·2차 왕자의 난 역시 자신과 박포가 무력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발발하고 또 제어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권력의 속성을 간파한 이방원은 왕위에 오르자 국왕의 병권 독점을 공고히 하기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였다. 만약 다른 사람이 병권을 장악하면 또 다시 언제 역성혁명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이다. 이에 이방원은 사병제 혁파 조치를 통해 고려 무신집권 이후 무려 230년 동안 지속되어오던 사병제적 군사지휘체계를 없애고, 공병제적 군사지휘체계를 확립하였다.²⁸⁾ 개인이 아니라 국가 기구를 통해 병권이 운용되도록 한 것이다. 이후 다시 그는 세부적으로 장군과 군인 간에, 군인과 군인 간에 사적 관계를 철폐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였다.

즉, 태종은 군인들이 무신의 집을 왕래하는 분경(奔競)을 금지하고²⁹⁾, 지휘관들이 군인들을 거느리고 사냥하는 것조차 금하였다.³⁰⁾

27) 『定宗實錄』4, 정종 2년 6월 20일(癸丑)

28) 태종의 사병제 개혁에 대해서는 金鍾洙, 「朝鮮初期 府兵制의 改編」, 『歷史敎育』77집, 2001; 金鍾洙, 「朝鮮初期 中央軍制의 整備와 私兵制 改革」, 『朝鮮의 政治와 社會』, 집문당, 2002. 참조.

29) 『太宗實錄』1, 태종 1년 5월 20일(戊申) “命三軍府禁武臣家奔競者”

30) 『太宗實錄』9, 태종 5년 3월 20일(乙卯); 『太宗實錄』13, 태종 7년 4월

군사소집 시에는 반드시 국왕의 승인을 증명하는 직문추우기³¹⁾와 호부(虎符)를 지참하게 하였으며³²⁾, 수시로 취각령(吹角令)을 발동하여 비상소집 훈련을 실시하였다. 심지어 갑사(甲士)들이 모여서 술 마시는 것까지 금지하였다.³³⁾ 그리고 1408년(태종 8)에는 병조와 의흥문(義興府)의 명문(明文) 없이 사사로이 군사를 소집하는 자는 모두 모역으로 논한다는 법이 반포되었다.³⁴⁾ 이에 따라 병조의 공문이 없으면 장병권(掌兵權)을 가진 호군(護軍: 장군)이라도 말단 군인인 대부(隊副) 1명을 마음대로 부릴 수 없게 되었다.³⁵⁾ 이러한 정책으로 국왕의 병권 독점은 확고해졌고, 국왕 이외에는 아무도 병권을 장악해서는 안 된다는 관념이 조선 사회에 깊숙이 뿌리내렸다.

국왕의 병권 독점은 조선후기에도 마찬가지였다. 조선후기에는 임진왜란 이후 태종 때 철폐되었던 사병제가 부활하여 지휘관이 휘하 군인을 선발·훈련하고, 또 지휘관과 군인은 연대책임을 지게 되어있어 이들의 관계는 조선전기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긴밀하였으나³⁶⁾, 국왕의 병권 독점은 여전하였다. 예를 들어 1638년(인조 16) 구굉(具宏)은 국왕 인조의 외삼촌으로서 훈련대장, 병조판서, 총융대장을 겸하고 있었다. 구굉 자신이 ‘일국(一國)의 병권이 모두 신(臣)에게 모였습니다.’³⁷⁾라고 말할 정도로 국가의 병권을

7일(辛卯)

31) 織紋驪虞旗: 三軍의 軍旗. 朱雀과 靑龍·白虎를 수놓아 만들었는데, 中軍은 朱雀, 左軍은 靑龍, 右軍은 白虎임. 略하여 織紋旗, 驪虞旗라고도 함.

32) 『太宗實錄』 18, 태종 9년 10월 27일(乙丑)

33) 『太宗實錄』 21, 태종 11년 3월 20일(辛亥) “司憲府上疏 請禁甲士群飲 從之”

34) 『太宗實錄』 22, 태종 11년 11월 26일(癸未) “無兵曹義興府明文 私聚軍士者 皆以謀逆論”

35) 『世宗實錄』 66, 세종 16년 10월 27일(庚午) “無兵曹公文 雖一隊副 護軍不得擅發”

36) 임진왜란 이후 사병제의 부활에 대해서는 金鍾洙, 「제3장 訓練都監의 설립과 都監軍의 구성」, 『朝鮮後期 中央軍制研究』, 해안, 2003; 김종수, 「훈련도감 설치 및 운영의 동아시아적 특성」, 『장서각』 33, 2015. 참조.

37) 『仁祖實錄』 38, 인조 17년 2월 14일(壬寅)

총람(總覽)하였다. 그런데 동년 6월 호랑이가 인경궁(仁慶宮) 안으로 들어왔다는 소문이 돌아 국왕은 훈련도감으로 하여금 이것을 포획하도록 명한 일이 있었다. 이에 구굉은 국왕에게 별도로 계품(啓稟)을 올리지 않고 즉시 훈련도감 군인 400명을 발병(發兵)하여 궁내를 수색하도록 하였다. 그러자 인조는 “발병은 국가의 대사(大事)인데 계품하지 않고 마음대로 처리한 것은 심히 부당하다.”라고 하교(下敎)하였다. 이후 사헌부에서 구굉을 추고(推考)하라는 요구가 잇따르면서 국왕은 구굉에게 추고 처분을 내렸다.³⁸⁾ 비록 훈련대장이라고 하더라도 마음대로 훈련도감 군인을 발동시킬 수 없는 것이 당시의 군법이었다.³⁹⁾ 구굉은 비록 국왕의 외삼촌이요 병권을 총람하고 있었으나 이러한 군법을 어긴 죄로 처벌받았던 것이다.

조선시기에는 국왕만이 발병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누구도 국왕의 허락 없이는 군인을 출동시킬 수 없었다. 1683년(숙종 9) 정월 훈련도감 장교 중 한 사람이 말을 잃어버리자 훈련대장 신여철(申汝哲)은 국왕에게 계품(啓稟)을 올리지 않고 즉시 군사를 동원하여 말을 수색하여 사로잡은 일이 있었다. 이때 좌의정 민정중(閔鼎重)은 “연하(輦下)의 친병(親兵)은 비록 1명이라도 마음대로 발동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훈련대장의 치죄(治罪)를 요청하였고 숙종은 이에 신여철을 파직시켰다.⁴⁰⁾ 그리고는 20일 후 숙종은 신여철을 다시 훈련대장으로 임명하고 있다.⁴¹⁾ 국왕의 승인 없이 군인들을 발병할 수는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1678년(숙종 4) 8월 훈련대장 유혁연(柳赫然)은 용산에 위치한 훈련도감의 별영(別營)이 비좁아 군인들이 급료를 받는데 불편하므로 이것을 확장하려고 하였을 때, “도감 군인을 하루씩 교대로 사역시키면 3~4일이면 확장

38) 『仁祖實錄』 36, 인조 16년 6월 5일(丙申)

39) 『承政院日記』 81, 인조 20년 3월 4일 “軍令至嚴 訓練之兵 雖大將 亦不敢擅發”

40) 『肅宗實錄』 14, 숙종 9년 1월 5일(丁未)

41) 『肅宗實錄』 14, 숙종 9년 1월 26일(戊辰)

공사를 끝낼 수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국왕에게 병력 동원을 승인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계품을 올리고 있다. 이때 유혁연은 “군병을 내어 쓰는 것은 아래에 있는 자가 감히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와 같이 계품을 올립니다.”라고 말하고 있었다.⁴²⁾ 이처럼 군인의 동원은 국왕의 결재 사항으로서 군대 지휘관이라 하더라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즉, 조선시대에는 국왕만이 병권을 독점하고 있었고, 이로 인해 국왕은 절대 권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것이다.

3. 평시·전시체제와 도체찰사부 운영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조선시기에는 국왕의 병권 독점을 확고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사병제를 혁파하고 공병제를 확립하였으며, 또 장군과 군인 간에, 군인과 군인 간에 사적 관계를 철폐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사병제 혁파와 공병제 확립, 그리고 장군과 군인 간의 사적 관계 철폐만으로는 국왕의 병권 독점을 확신할 수 없었다. 태조 이성계처럼 지휘관이 전시에 출동한 군대를 거느리고 회군(回軍)하여 현 정부를 전복시킬 가능성이 항상 있기 때문이다. 이에 조선 정부에서는 군대를 평시체제와 전시체제로 구분하고, 평시체제 군대 지휘관과 전시체제 군대 지휘관을 분리하여 운영하였다. 즉 평시체제의 지휘관은 전시에 자신이 평소 선발하고 훈련한 군대를 지휘할 수 없고, 전시에선 중앙에서 별도로 임명한 지휘관으로 하여금 군대를 통솔하도록

42) 『承政院日記』 266, 숙종 4년 8월 14일. “係是出用軍兵之事 自下不敢擅便 敢此仰稟”

하였다. 이로써 전시체제 지휘관은 전시에 자신이 전혀 알지 못하는 군인들을 데리고 전장에 나서게 되었다.⁴³⁾ 그리고 또 전시체제 지휘관에는 대체로 국왕이 가장 신임하는 문관이 임명되었다.

군대를 이와 같이 평시체제와 전시체제로 분리하여 운영하는 것은 신라와 고려 때에도 있었던 일이다. 신라는 삼국통일 이후 군대를 평시체제와 전시체제로 구분하여 운영하였다. 일반적으로 통일 신라 시기의 군대라고 인식하고 있는 6정·9서당·10정 등은 전시체제(행군조직)였다. 이들 군사조직은 평시체제의 중앙군과 지방군이 유사시 재편성되는 전시체제로서, 7세기 후반에 진행된 군제 개편 작업을 거치면서 새롭게 만들어진 것이다. 즉, 신라 군제는 중앙군과 지방군으로 이루어진 평시체제와 이것이 재편성된 전시체제로 구분되었다.⁴⁴⁾

고려의 군제 역시 평시체제와 전시체제로 구분되었다. 중앙의 2군 6위와 지방의 주현군은 평시체제이고, 3군(軍) 혹은 5군은 전시체제이다. 고려시기에는 평시에 2군 6위와 주현군에 소속된 군인들이 전시에 3군(5군)으로 재편성되어 출동하였는데, 이때 3군(5군)의 지휘관은 주로 문신을 임명하였다.⁴⁵⁾ 고려전기의 명장으로 알려진 강감찬(姜邯贊)·윤관(尹瓘)이나, 묘청의 난을 진압할 때 최고 지휘관이었던 김부식(金富軾) 등은 과거에 급제한 문신이었다. 문신들은 유학자로서 국왕에 대한 충성심이 무신들에 비해 월등하였으며, 군인들과의 인적 관계도 적어 반란의 위험이 없었던 것이다.

43) 『宣祖實錄』 74, 선조 29년 4월 10일(丙午). “備邊司啓曰 凡兵家之事 在於將卒相得 平時既有操練之人 則臨急又以此人用之 然後有益於戰守 否則離散其部伍 換易其所屬 軍心叛渙 雖精鍊之兵 變成烏合之卒 此可慮之大者也” 비변사에서는 이와 같이 전시에 지휘관이 자신이 훈련한 군사들은 데리고 출전해야 전쟁할 때 유익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런데 당시는 그렇지 못하였던 것이다.

44) 金鍾洙, 「新羅 中代 軍制의 구조」, 『韓國史研究』 126, 2004.

45) 이에 대해서는 邊太燮, 「高麗朝의 文班과 武班」, 『高麗政治制度史研究』, 一潮閣, 1971, 참조.

한편 전란이 종식되면 “군사는 군부로 흩어지고, 장수는 조정으로 돌아온다.(兵散於府 將歸於朝)”⁴⁶⁾라는 부병제의 이념에 따라 군사들은 평시 체제로 돌아갔으며 지휘관들은 조정에 복귀하는 것이 원칙이었다.⁴⁷⁾

그런데 고려 중기에 무신정권이 수립된 이후 『고려사』 병지, 서문에서 “권세 있는 신하들이 국권을 잡고, 병권이 신하에게로 내려갔다.”⁴⁸⁾라고 하듯이 병권은 국왕이 아니라 무신 집권자들에 의해 장악되었다. 무신 집권자들은 자기 마음대로 군인들을 소집·동원하였고, 군대는 이들의 집권 도구로 이용되었다. 이러한 사정은 원간섭기나 고려 말에도 마찬가지였다. 예를 들어, 1303년(충렬왕 29) 8월에 홍자번(洪子藩)과 재상들이 군인들을 거느리고 왕궁을 포위하여 국왕을 협박하면서 폐행(廢幸) 오기(吳祁)를 내놓을 것을 요구하였고⁴⁹⁾, 1379년(우왕 5) 9월에 최영(崔瑩)과 경복흥(慶復興), 이인임(李仁任) 등은 군대를 대대적으로 집결시키고 국왕을 협박하면서 당시 물의를 일으키고 있던 왕의 유모 장씨(張氏)를 내놓을 것을 요구하였다.⁵⁰⁾ 군사의 동원이 국왕의 뜻에 반(反)하여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사병제적 군사지휘체제로 인한 것이었다.⁵¹⁾ 사병제 하에서는 평시체제와 전시체제가 분리되지 않고 하나로 통합되어 운영되었다. 지휘관들이 평상시 자신들이 훈련하던 휘하군인들을 전시에 그대로 데리고 출전하였던 것이다. 이성계의 위화도 회군과 정권 장악은 이러한 사병제적 군사지휘체제를 배경으로 나타날 수 있었다.

조선시기에 들어와 정부에서는 국왕의 병권 독점을 확고하게 유지

46) 『太宗實錄』 24, 태종 12년 7월 25일(戊申)

47) 金鍾洙, 「高麗時期 府兵制의 運營과 그 原則」, 『歷史教育』 73집, 2000.

48) 『高麗史』 81, 兵 1, 序文, 中冊, 775쪽. “權臣執命 兵柄下移”

49) 『高麗史節要』 22, 忠烈王 29년 8월, 581쪽.

50) 『高麗史節要』 31, 禔王 5년 9월, 776쪽.

51) 金鍾洙, 「朝鮮初期 府兵制의 改編」, 『歷史教育』 77집, 2001.

하기 위하여 사병제를 혁파하고 공병제를 수립하였을 뿐만 아니라, 군대를 평시체제와 전시체제로 분리하여 운영하였다. 평시체제 하에서 군대는 중앙군과 지방군으로 나뉘었고, 전시체제에서는 이러한 중앙군과 지방군이 통합되어 출정군으로 편성되었다. 조선전기를 예로 들면, 평상시에는 갑사, 별시위, 파적위, 팽배, 대졸, 번상정병 등 여러 병종(兵種)의 군인들이 오위(五衛)에 소속되어 중앙군으로서 각각의 군무를 담당하였고, 또 각 지방의 진관체제에 속해 있는 군인들은 지방군을 이루어 고유의 임무를 담당하였다. 그런데 유사시에는 이러한 중앙군과 지방군이 통합되어 출정군으로 편성되었고, 이 출정군의 지휘는 봉명사신(奉命使臣)인 체찰사(體察使)가 담당하였다. 즉, 조선전기에는 체찰사가 야인 정벌이나 왜구 토벌 등 외적을 진압하기 위한 출정군 지휘관 역할을 담당하였다.

체찰사제 형성 이전부터 외적 정벌을 위한 출정군 지휘는 도통사(都統使)나 도선무처치사(都宣撫處置使) 등 왕명을 받아 중앙에서 파견된 사신들에게 위임되었다.⁵²⁾ 그런데 세종 대에 체찰사제가 성립된 이후에는 이러한 역할이 체찰사에게 위임되었다. 총사령관으로서 체찰사는 관할 군사에 대한 처결권을 가지고, 군사 활동을 총지휘했다. 그런데 성종 대에는 체찰사에서 도원수(都元帥)가 분리되어 직접 군사들을 지휘하여 출정하는 역할[專征於外]은 도원수가 담당했고, 체찰사는 정벌이 이루어지는 배후에서 전쟁 수행을 위한 군사 업무나 백성을 보살피고 정세를 시찰하는 업무[運籌於內]를 담당하게 되었다.⁵³⁾ 그리고 1488년(성종 19)에 체찰사의 등급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었다.

52) 『太宗實錄』 19, 태종 10년 6월 1일(丙申); 『世宗實錄』 4, 세종 1년 5월 20일(甲子)

53) 『李忠定公章疏』 권3, 「進所論時務冊子仍請以韓浚謙爲體察使疏」
金順南, 『조선초기 體察使制 연구』, 경인문화사, 2007, 182쪽.

이조에서 아뢰기를, “조종조(祖宗朝)에서는 명을 받들고 사신으로 나가는 재상은 정1품이면 도체찰사라 부르고, 종1품이면 체찰사라 부르고, 정2품이면 도순찰사라 부르고, 종2품이면 순찰사라 불러 그 직질(職秩)의 높낮이에 따라 달리 불렀는데, 세조 때에 이르러 체찰사라는 칭호를 없애고서 직질을 논하지 않고 다 순찰사라 불렀으나, 이름이 차등이 없으므로 일의 체모에 적당하지 못하니, 조종조의 전례에 따르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⁵⁴⁾

위 규정에 따라 1488년(성종 19) 이후 체찰사는 정1품이 파견되면 도체찰사(都體察使), 종1품이 파견되면 체찰사(體察使), 정2품이 파견되면 도순찰사(都巡察使), 종2품이 파견되면 순찰사(巡察使) 등으로 각기 다르게 부르게 되었다. 그리고 이 규정은 1491년(성종 22)에 제정된 『대전속록(大典續錄)』에 명문화되었다.⁵⁵⁾

이와 같이 조선전기의 군대는 평시체제와 전시체제로 분리하여 운영되었다. 평상시 5위와 진관체제에 소속되어 있던 군인들은 유사시에는 출정군으로 재편되어 국왕이 별도로 임명한 체찰사의 지휘를 받았던 것이다.⁵⁶⁾ 이렇게 군대를 평시체제와 전시체제로 분리·운영하는 것은 통일신라시기 이후 1000년에 걸쳐 내려오는 군사적 전통이었다. 그런데 임진왜란 중 영의정 유성룡이 전시에 군대를 평시체제에서 전시체제로 개편하는 것을 제승방략(制勝方略)이라고 일컬으면서 오해가 발생하였다. 1594년(선조 27) 3월 영의정 유성룡은 진관법(鎭管法)의 복구를 청하면서 다음과 같이 상계

54) 『成宗實錄』 220, 성종 19년 9월 5일(乙丑)

55) 『大典續錄』 1, 吏典 官職條. “奉命宰相 正一品則都體察使 從一品則體察使 正二品則都巡察使 從二品則巡察使 三品則察理使 隨品稱號”

56) 국지적인 전투나 임진왜란과 같이 전국에서 동시에 수많은 전투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진관체제가 그대로 이용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진관체제의 군사운용은 道 단위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道 이상의 군사 지휘체계는 체찰사의 지휘를 받아야 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논문 참조.

서태원, 「壬辰倭亂에서의 地方軍 指揮體系」, 『역사와 실학』 19·20합집, 2001.
張學根, 「制勝方略이 지닌 兵力運用的 價値-壬辰倭亂 初期戰鬪를 중심으로-」, 『軍史』 64호, 2007.

(上啓)하였다.

국초에는 각도의 군병(軍兵)을 모두 진관에 분속시켰다가 위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진관이 속읍을 통솔하여 잘 정돈하고 있으면서 주장(主將)의 호령을 기다렸습니다. … 그런데 지난 을묘년 변란 이후 김수문(金秀文)이 전라도에 있으면서 처음 분군법(分軍法)을 고쳐 도내의 여러 고을을 순변사(巡邊使)·방어사(防禦使)·조방장(助防將)·도원수(都元帥) 및 본도의 병사와 수사에게 나누어 소속시키고 이를 제승방략(制勝方略)이라고 하였습니다. … 그리하여 혹시라도 위급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 반드시 원군이 함께 동요하게 되고 장수가 없는 군사들은 들판에 먼저 모여 천리 밖에서 올 장수를 기다려야 할 형편이 되었습니다. 장수가 채 이르기도 전에 적병이 먼저 쳐들어올 경우 군사들의 마음이 먼저 동요될 것이니, 이는 반드시 패배할 방도입니다.⁵⁷⁾

윗글에서 유성룡은 유사시 도내 여러 고을의 군인들을 순변사·방어사·조방장·도원수 등에게 나누어 소속시키는 것을 제승방략이라 부른다고 하고, 이것은 을묘왜변 이후 제주목사 김수문에 의해 만들어진 것으로서 전투에서 패배하기 쉬운 전술이라고 주장하였다.⁵⁸⁾ 그러나 이것은 영의정 유성룡의 오해였다. 평시체제와 전시체제를 구분하지 못한 것이다. 진관체제는 평시체제이고, 유성룡이 말하는 제승방략은 전시체제로서, 이 둘은 전혀 차원이 다른 제도인데, 유성룡은 진관체제가 변하여 제승방략이 되었다고 인식한

57) 『宣祖修正實錄』 25, 선조 24년 10월 1일(癸巳); 『宣祖實錄』 49, 선조 27년 3월 29일(丁未)

위 인용문은 『선조수정실록』에 있는 기록으로서 유성룡의 啓文 내용이 잘 축약되어있다. 그런데 유성룡의 이 啓가 올라간 시기가 『선조수정실록』에는 선조 24년으로 되어 있으나 이것은 오류로 보이고, 『선조실록』에 기재된 선조 27년이 정확하다고 생각한다.

58) 유성룡은 정3품 제주목사 김수문이 정2품 도원수, 종2품 순변사·방어사, 정3품 조방장 등에게 分軍하는 제승방략을 만들고, 군인들을 이들에게 소속시켰다고 말하였는데, 이와 같이 정3품 제주목사가 이런 제도를 만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또 방어사 등은 을묘왜변(1555: 명종10) 때 처음 파견된 것이 아니라 삼포왜란(1510: 중종5) 때에도 파견되고 있었다. 제승방략에 대한 설명은 영의정 유성룡의 오해로 판단된다.

것이다. 이러한 유성룡의 오해로 인하여 지금까지 일반인들은 물론 이요 대부분의 연구자들도 을묘왜변 이후 진관체제가 변하여 제승방략이 되었다고 잘못 인식하고 있다.⁵⁹⁾ 임진왜란 당시 영의정이자 도체찰사로서 활약한 유성룡의 말은 누구도 의심할 수 없는 권위를 지니고 있지만 역사적 진실을 찾기 위해서는 유성룡의 말도 의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조선의 군사체제는 평시체제와 전시체제를 분리하여 운영하였다. 임진왜란이 발발했을 때에도 조선 정부는 즉시 평시체제에서 전시체제로 전환하여 중앙에서 재상 중심으로 이루어진 도체찰사 및 도원수를 임명하고⁶⁰⁾, 또 무장 출신의 도순변사, 순변사, 방어사, 조방장 등을 파견하여 전쟁을 수행하는 비상체제를 갖추었다. 이와 같이 최고 지휘관인 도체찰사와 도원수를 모두 문신으로 임명한 것은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국왕의 병권 독점을 확고하게 유지하기 위해 조선왕조가 문신 중심의 군사지휘체제를 견지한 결과였다.⁶¹⁾ 특히 도체찰사는 전시체제에서 최고 군령권자였다. 도체찰사는 전란이 있을 때마다 정1품 의정(議政)중에서 임명되었으며 “체찰의 임무에 국사(國事)의 성패가 달려있다”⁶²⁾라고 할 만큼 중시되는 직책이었다. 조선왕조에서는 “자고로 전쟁이 일어나면 반드시 대신이 전제(專制)한 다음에야 모든 일이 제대로 되었다”⁶³⁾라고 인식할

59) 제승방략에 대해서는 許善道, 「制勝方略」 研究(上, 下)(『震檀學報』 36·37, 1973·1974)에 자세하게 분석되어 있다. 그러나 許善道는 유성룡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 을묘왜변 이후 진관체제가 제승방략 체제로 변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이 주장은 이후 학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60) 『宣祖實錄』 37, 선조 26년 4월 26일(庚戌). “但分遣宰相 或文官督戰事 則既有都體察使·都元帥 隨賊所往 在陣後節次節制”

61) 심승구, 「壬辰倭亂期 軍事指揮權의 推移와 性格」, 『임진왜란과 권율장군』, 전쟁기념관, 1999.

62) 『宣祖實錄』 34, 선조 26년 1월 26일(辛巳)

63) 『宣祖實錄』 43, 선조 26년 10월 22일(壬寅)

정도였다.

임진왜란이 일어난 1592년(선조 25) 6월, 국왕 선조는 의주로 피난하여 명나라에 원군을 요청하는 한편 정철을 하삼도 도체찰사로 임명하여 후방의 인심을 수습하고 전력을 가다듬고자 하였다.⁶⁴⁾ 그런데 도체찰사는 최고 군령권자로서 1명만 임명하는 것이 관례였으나 선조는 임진왜란 중 도체찰사 수를 계속 늘려나갔다. 1592년 11월에는 강화에 있던 우의정 유흥을 도체찰사로 임명하였고⁶⁵⁾, 또 동년 12월에는 풍원부원군 유성룡을 평안도 도체찰사로 임명하여 명 장수와의 연락, 군량 수송 등의 임무를 담당하게 하였다.⁶⁶⁾ 이어서 호서 지방에 있던 판부사 심수경을 도체찰사로 임명하여 의병을 규합하여 평양 수복에 참여하게 하였다.⁶⁷⁾ 즉, 임진왜란 초기 도체찰사는 정철, 유성룡, 유흥, 심수경 등 모두 4명으로 확대되었다. 선조가 도체찰사를 이처럼 다수 임명한 까닭은 도체찰사는 국가의 최고위층 관리로서 이들이 가야 그나마 백성을 움직일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⁶⁸⁾, 또한 병권을 분산시키고 도체찰사들 상호간의 견제와 경쟁을 통해 왕권을 공고히 하고자 하는 측면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도체찰사가 4명이나 되자 군사 지휘 체계의 혼란을 가져와 군령권의 일원화가 시급한 문제로 대두되었다. 1592년 12월 좌부승지 이괄은 “유흥·정철·심수경 등이 모두 도체찰사가 되어 군령이 여러 곳에서 나오므로 일에 반드시 장애가 있을 것입니다. 그 명호(名號)를 정하여 하나로 귀일(歸一)시켜야 합니다.”라고 주장하였고, 동부승지 심희수 역시 “한 곳에 세 명의 대장(大將)이 있어

64) 『宣祖實錄』 28, 선조 25년 7월 29일(丙戌)

65) 『宣祖實錄』 32, 선조 25년 11월 17일(癸酉)

66) 『宣祖實錄』 33, 선조 25년 12월 4일(庚寅)

67) 『宣祖實錄』 33, 선조 25년 12월 13일(己亥)

『宣祖實錄』 35, 선조 26년 2월 24일(己酉)

68) 심승규, 앞의 논문, 38쪽.

호령이 여러 곳에서 나오니 참으로 이곽의 말처럼 서로 견제되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라고 이곽의 말에 동의하였다.⁶⁹⁾ 이에 평양성 탈환 이후 도체찰사는 유성룡에게 귀일되는 1인 중심의 도체찰사 체제로 정비되었다. 그러나 1인 도체찰사제는 다시 1595년(선조 28) 10월 이후 북방의 여진족의 위협을 이유로 상사도(上四道: 평안·황해·함경·강원)와 하사도(下四道: 경기·충청·전라·경상)의 2인 도체찰사가 이끌어가는 남북도체찰사체제로 전환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남북도체찰사제는 전란 이후까지 계속되었다.⁷⁰⁾ 이와 같이 임진왜란 중 군사 지휘 체계는 문신 중심의 중층적, 분산적, 상호규제적인 특징을 지니고 있었다. 이것은 전란 중에도 결코 병권이 국왕 이외에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왕권 지상주의의 발로로 보인다.

선조대에 이어 광해군대와 인조대에도 도체찰사부가 설치되었다. 점증하는 후금의 위협으로 인해 도체찰사 중심의 비상체제가 계속 유지된 것이다. 광해군은 즉위 초 좌의정 이항복(李恒福)을 서북 4도 도체찰사에 임명하고, 그에게 서북지역의 군사 지휘는 물론 수령 천거권까지 부여하였다.⁷¹⁾ 이와 같이 광해군의 절대적 신임을 받던 이항복은 반대 세력의 탄핵을 받아 1613년(광해군 5) 도체찰사에서 물러났으며, 이때 도체찰사부도 혁파된 것으로 보인다. 이후 도체찰사의 재임명 기록이 보이는 것은 1618년(광해군 10)에 이르러서이다. 이 해는 명의 요구로 조선의 군사들이 후금에 맞선 전쟁에 동원되었던 때이다. 후금과 직접적인 교전을 피하려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 버린 데 대한 부담 속에서 다시 비상 지휘 체제가 갖추어지고 있었다.⁷²⁾ 이에 따라 박승종이 우의정 겸 도체찰사에

69) 『宣祖實錄』 33, 선조 25년 12월 23일(己酉)

70) 심승구, 앞의 논문, 62~63쪽.

71) 『光海君日記』 21, 광해군 1년 10월 23일(辛未)

『光海君日記』 29, 광해군 2년 5월 5일(己酉)

임명되어 삼남을 제외한 나머지 5도 지역을 관할하게 되었으며, 부체찰사로는 장만(張晩)이 선임되었다.⁷³⁾ 이와 같이 전란에 대비한 도체찰사 중심의 지휘 체계는 광해군대 이후 지속적으로 유지되었다.

인조대에도 도체찰사와 도원수 중심의 비상 지휘 체제를 계속 운영하였다. 반정 초기 인조는 후금이 침입할 경우 일선에 나가 직접 군사를 독려하겠다는 의욕을 보이며 도체찰사로 국구(國舅) 한준겸을 임명하였다.⁷⁴⁾ 이에 앞서 장만을 도원수, 이괄(李适)을 부원수로 임명하여 서북 지역에서 후금의 방어에 전념하게 하였다.⁷⁵⁾ 그런데 1624년(인조 2) 평안병사 겸 부원수였던 이괄이 반정의 논공행상에 불만을 품고 반란을 일으키자, 정부에서는 즉시 영의정 이원익을 도체찰사에 임명하고 이시발·정엽을 부체찰사로 삼아 도원수 장만과 함께 반란을 진압하게 하였다.⁷⁶⁾ 도원수 장만이 이끄는 군대가 안현(鞍峴) 전투에서 이괄 군을 격퇴하여 가까스로 이괄의 난이 진압되자 인조는 장만에게 진무공신(振武功臣) 1등의 호를 내리고⁷⁷⁾, 팔도도체찰사에 임명하였다. 이때 장만은 팔도(八道)의 호칭이 부담스러우니 사도(四道) 도체찰사로 고쳐 임명해줄 것을 요청하기도 하였다.⁷⁸⁾

1627년(인조 5) 1월 17일 정묘호란이 일어나자 장만은 상사도(上四道) 도체찰사에, 이원익은 하사도(下四道) 도체찰사에 임명되었다.⁷⁹⁾ 그런데 정묘호란이 패전으로 끝나자 장만은 패전의 책임

72) 권내현, 『조선 후기 평안도 재정 연구』, 지식산업사, 2005, 46쪽.

73) 『光海君日記』 129, 광해군 10년 6월 8일(乙丑)

74) 『仁祖實錄』 3, 인조 1년 11월 14일(庚午)

75) 『仁祖實錄』 1, 인조 1년 3월 25일(乙卯); 『仁祖實錄』 2, 인조 1년 8월 17일(乙亥)

76) 『仁祖實錄』 4, 인조 2년 1월 24일(己卯)

77) 『仁祖實錄』 5, 인조 2년 3월 8일(壬戌)

78) 『仁祖實錄』 7, 인조 2년 11월 22일(壬申) “都體察使張晩上筭 請亟去八道之號 只兼四道 以便公私”

79) 『仁祖實錄』 15, 인조 5년 1월 17일(乙酉)

때문에 여러 차례 탄핵을 받게 된다. 헌납 이행원(李行遠)은 장만이 4년간 도체찰사로 근무했으면서도 변방의 방어가 제대로 되지 못했다고 하면서 장만의 원찬(遠竄)을 주장하기도 하였다.⁸⁰⁾ 결국 장만이 도체찰사에서 물러나고, 부체찰사 김류(金瑬)가 팔도도체찰사에, 평안감사 김기종(金起宗)이 부체찰사에 임명되어 정묘호란 이후의 전시 지휘 체계를 이끌어나갔다. 그러나 김류는 명의상 팔도도체찰사이자, 삼남 군병은 통솔하지 못하는 등 제한이 있었다.⁸¹⁾ 인조대는 이와 같이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 군사 지휘권을 분산시키고, 외세의 침략에 대한 방어 체계 구축보다는 왕실을 지키는 병력의 증강에 치중하면서 병자호란에서의 패전을 자초하였다. 병자호란 패전의 책임을 지고 도체찰사 김류는 파직되고 도체찰사부는 해체되었다.⁸²⁾ 이후 효종과 현종 대를 지나 숙종 초에 이르기까지 도체찰사부는 운영되지 않고 있었다.

4. 숙종초기 도체찰사부의 설치와 해체

병자호란 이후 조선에서는 청나라에 대한 복수설치(復讐雪恥) 여론이 고조되었다. 남한산성에서 만주족에게 당한 굴욕은 신분과 계층, 당색과 학연을 초월한 조선사회 전체의 공분(共憤)이었으며, 청에 대해 복수하자는 주장은 누구도 이의를 달 수 없는 국시(國是)였다. 인조에 이어 왕위에 오른 효종은 이러한 여론에 부응하여

80) 『承政院日記』, 인조 5년 5월 12일

81) 『仁祖實錄』 17, 인조 5년 8월 7일(庚子)

『承政院日記』, 인조 9년 11월 22일 “在前 都體察使 有兼四道之時 亦有兼八道之時 而議者多以體察號令 不及於下三道 而虛帶八道之號 爲未妥云”

82) 『承政院日記』, 인조 15년 7월 23일(己丑)

북벌 정책을 적극 추진하였다.⁸³⁾ 효종은 훈련도감의 확대, 어영청·수어청의 개편, 금군의 확장 등 중앙군문의 강화 조치와 더불어 영장제 실시, 강화도의 군비 확충, 노비추쇄사업 등을 정력적으로 추진하였다. 그러나 1659년 효종의 승하와 1662년 남명의 멸망으로 인해 북벌론은 소강상태에 접어들게 된다.

그런데 현종 말, 숙종 초에 다시 한 번 북벌론이 제기되었다. 이 시기에 전개된 북벌론은 중국 정세의 변화, 즉 삼번(三藩)의 난에 따른 것이었다. 청이 중원을 점령하는 과정에서 한인(漢人)으로서 큰 공을 세운 오삼계(吳三桂), 상가희(尚可喜), 경중명(耿仲明) 등은 그 대가로 각기 번부(藩府)를 설치하도록 허용되어 군사·재정권을 갖는 독립적인 세력으로 존재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들의 존재는 청의 중국 지배체제 확립과는 배치되는 것이었다. 청의 강희제가 상가희의 은퇴를 핑계로 철번(撤藩)을 명하자 평소 불안과 불만을 품고 있던 오삼계가 이를 기회로 1673년 11월 반란을 일으켰다. 이에 경중명의 손자 경정충, 상가희의 아들 상지신이 호응하였으며, 각지의 반청세력이 이에 동조하여 한때 양자강이남 일대와 사천, 섬서 지역을 장악할 정도로 세력을 떨쳤다. 한편 대만의 정금(鄭錦)도 자신의 부(父) 정성공(鄭成功)에 이어 명조 부흥의 명분하에 기병하여 대륙의 오삼계와 보조를 맞추었다.⁸⁴⁾

조선 정부는 삼번의 난이 발생한 지 4개월 후인 1674년(현종 15) 3월 연경사행(燕京使行)을 통하여 이 소식을 접하게 된다.

83) 효종 대의 북벌 정책에 대해서는 다음 글 참조.

車文燮, 「朝鮮朝 孝宗의 軍備擴充」 上·下, 『史學雜誌』 1·2, 1967·1968. (『朝鮮時代軍制研究』, 檀大出版部, 1973. 所收)

李京燦, 「조선 효종조의 북벌운동」, 『淸溪史學』 5, 1988.

禹仁秀, 「朝鮮 孝宗代 北伐政策과 山林」, 『歷史教育論集』 15, 1990.

吳恒寧, 「朝鮮 孝宗代 政局의 變動과 그 性格」, 『泰東古典研究』 15, 1993.

송양섭, 「효종의 북벌구상과 군비증강책」, 『韓國人物史研究』 7호, 2007.

84) 송양섭, 앞의 논문, 2007, 186쪽.

그런데 난의 결과를 예측할 수 없어 관망하는 자세를 보였다. 그해 5월 유생 나석좌, 조현기 등이 서로 잇달아서 상소를 올려 북벌을 준비하자고 아뢰었음에도 현종은 비밀 누설을 염려한다는 이유로 비답조차 내리지 않았다.⁸⁵⁾ 그런데 7월 윤휴(尹鑄)가 현종에게 「갑인봉사소」를 올려 명 신종(神宗) 황제가 임진왜란 때 조선을 구해준 은혜를 강조하며 대만 정씨세력과 연합하여 수륙방면에서 청을 공격하자고 건의했다.⁸⁶⁾ 그러나 정부에서는 청과의 전면전은 고사하고 이 사태로 인해 청이 군대를 요청할까봐 전전긍긍하는 형편이었으므로 윤휴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여지는 거의 없었다. 현종의 급서(急逝) 이후 즉위한 숙종 역시 그해 12월에 올린 윤휴의 밀봉 책자에 대해서 ‘화를 부르는 말’이라고 백안시하였다.⁸⁷⁾

윤휴는 청이 혼란한 이때가 북벌을 실행에 옮길 적기라고 판단하고 북벌대의를 명분으로 출사(出仕)하여 정책 입안에 주력하였다.⁸⁸⁾ 즉 그는 북벌을 위하여 총부랑(摠府郞)의 설치, 만인과(萬人科) 실시, 수레[兵車] 제작, 지패제(紙牌制)와 오가작통법 실시 등의 개혁안을 제기하였다. 특히 그는 1675년(숙종 1) 9월 6일 북벌수행의 중추기관으로서 도체찰사부를 설치하자고 주장하였다. 도체찰사부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병자호란이 끝나고 나서 해체된 이후 이때까지 설치되지 않고 있었다. 윤휴의 도체찰사부 설치 주장에 대해 정부 대신들은 대체로 반대 의사를 표명하였다. 영의정 허적은 “청인(淸人)들의 의심을 살까 두렵다”고 말하였고, 좌의정

85) 『顯宗實錄』 22, 현종 15년 5월 16일(己卯)

86) 『顯宗實錄』 22, 현종 15년 7월 1일(癸亥); 『白湖集』 5, 疏, 7月 初1日, 甲寅封事疏.

87) 『肅宗實錄』 1, 숙종 즉위년 12월 1일(庚寅) “挑禍之言”

88) 윤휴의 북벌론에 대해서는 다음 논문 참조.

韓祐勛, 「白湖 尹鑄 研究(三)」, 『歷史學報』 19, 1962.

洪鍾泌, 「三藩亂을 前後한 顯宗·肅宗 年間の 北伐論-특히 儒林과 尹鑄를 中心으로」, 『史學研究』 27, 1977.

이선아, 「윤휴의 북벌론과 그 추진정책에 대한 검토」, 『한일관계사연구』 18, 2003.

권대운은 ‘선실후명(先實後名)’할 것을 강조하였다. 국구(國舅)인 광성부원군 김만기 역시 “대신들이 비변사에 앉아 도체찰사부의 일을 하면 되지 굳이 그 명칭을 달 필요는 없다”라고 하면서 ‘유명무실(有名無實)’은 나라에 해만 된다고 주장하였다.⁸⁹⁾

그러나 윤희의 북벌에 대한 의지는 집요하였다. 그는 병자호란 이듬해인 21세 때에 속리산 복천사(福泉寺) 앞에서 송시열을 만나 국왕이 남한산성에서 나와 오랑캐에게 항복했다는 말을 듣고 통곡하고는 다시는 과거에 응시하지 않겠다고 맹세하고 집에서 독서만 한 사람이다.⁹⁰⁾ 효종·현종 대에 여러 차례 관직에 제수되었으나 때가 아니라고 출사하지 않다가⁹¹⁾, 숙종 1년 청에서 삼변의 난이 일어나자 북벌의 때가 왔다고 생각하고 59세의 나이에 출사하였다. 즉, 그는 병자호란이 끝난 지 40년 만에 출사하여 북벌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건 사람이다. 1675년(숙종 1) 9월 23일 윤희는 또다시 도체찰사부 설치를 건의하고는 국왕 앞에서 “신의 마음은 초조합니다.”라고까지 말하였다.⁹²⁾ 이러한 윤희의 행동에 대해 영조 때 『숙종실록』을 편찬한 노론계 사관들은

이때 윤희가 병권을 잡으려고 도모한 지 오래 되었으나, 김만기·김석주·신여철 등을 갑자기 쫓아내기 어려워서 그 당류(黨類)들과 도체찰사부를 설치하고자 꾀하고, 먼저 허적을 도체찰사로 삼고 자기는 부체찰사가 되려고 하였다. 또 도체찰사부를 청탁하여 허적으로 하여금 밖에 나가 지키게 하고 자신은 조정 정권을 오로지 잡고 중병(重兵)을 안에서 통솔하려고 밤낮으로 몰래 모여서 은밀하게 의논하였으나, 사람들이 그 하는 짓을 헤아리지 못하였다.⁹³⁾

89) 『肅宗實錄』 4, 숙종 1년 9월 6일(辛卯)

90) 『白湖集』 附錄, 年譜.

91) 윤희는 1656년(효종 7) 侍講院 諮議에 제수된 이후 宗簿寺 主簿, 工曹 佐郎, 侍講院 進善 등을 계속 제수 받았고, 현종 때에도 司憲府 持平에 제수되었으나 출사하지 않았다.(『白湖集』 附錄, 年譜)

92) 『肅宗實錄』 4, 숙종 1년 9월 23일(戊申)

93) 위와 같음.

라고 사론을 썼다. 윤희가 병권을 잡기 위해 도체찰사부 설치를 주장했다는 이런 식의 사론은 노론계의 악의적인 해석이다. 윤희는 이 사론과는 달리 병권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는 오로지 북벌의 실행에만 관심이 있었다. 그런데 윤희가 병권을 노리고 도체찰사부 설치를 주장했다는 노론계의 사론은 실록 도처에서 계속 되풀이되고 있다.

윤희의 도체찰사부 설치 건의 이후 우부승지 이동규(李同揆), 부제학 오정창(吳挺昌) 등도 도체부 설치를 주장하였다.⁹⁴⁾ 이에 대해 허목, 목창명 등 일부 신료들은 반대하였다. 특히 목창명은 지금의 군사제도로도 충분히 변란에 대처할 수 있는데 50년 동안 없었던 관명(官名)을 왜 설치하여 사람들을 놀래고 두렵게 하나면서 강경한 어조로 도체찰사부 설치에 반대하였다.⁹⁵⁾ 그런데 10월 10일 숙종은 청이 오삼계 군에게 크게 밀리고, 관리들의 부패로 인해 국가를 유지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사은사(謝恩使) 창성군 필(佖), 이지익(李之翼), 민암(閔黯) 등의 보고를 받았다.⁹⁶⁾ 이와 같이 청나라가 지탱하기 어렵겠다는 사신들의 보고가 올라오자 숙종은 도체찰사부 설치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즉, 윤희의 계속되는 도체찰사부 설치 요구에 대해 영의정 허적에게 체찰사에 취임하라고 하거나⁹⁷⁾, 사신이 돌아오면 곧 도체찰사부를 설치하겠다고 대답한 것이다.⁹⁸⁾ 그리고 결국 1675년(숙종 1) 12월 15일 허적을 5도 도체찰사에 임명하였다. 청나라 사람들이 의심할까봐 평안, 황해, 함경 3도를 제외한 5도에 한정된 것이지만 병자호란 이후 40년 만에 전시 군사체제가 수립된 것이다.⁹⁹⁾

94) 『肅宗實錄』 4, 숙종 1년 10월 22일(丙子) ; 11월 5일(己丑)

95) 『肅宗實錄』 4, 숙종 1년 11월 12일(丙申)

96) 『肅宗實錄』 4, 숙종 1년 10월 10일(甲子)

97) 『肅宗實錄』 4, 숙종 1년 11월 8일(壬辰)

98) 『肅宗實錄』 4, 숙종 1년 11월 27일(辛亥)

99) 『肅宗實錄』 4, 숙종 1년 12월 15일(戊辰)

그런데 도체찰사부 설치 이후 군사지휘권 관할 범위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어났다. 1676년(숙종 2) 4월 2일 숙종은 체찰사 허적에게 다음과 같이 유시하였다.

도체찰사의 활동 여하에 따라 국가가 편안해지기도 하고 위태로워지기도 한다. 이제 옛 법에 따라 새로이 막부(幕府)를 열어 원수(元帥)를 호령하고 팔도(八道)를 통할(統轄)하게 하니, 부탁함이 가볍지 않다. 훈국(訓局)과 어영(御營)을 홀로 둘 수 없으므로 나누어 둘로 하였으니, 또한 마땅히 함께 절제(節制)해야 할 것이며, 곤내(閫內)와 곤외(閫外)를 경에게 부탁한다.¹⁰⁰⁾

즉, 숙종은 도체찰사가 훈련도감과 어영청을 포함한 중앙과 지방의 모든 군사에 대해 지휘권을 갖는다고 유시한 것이다. 이 유시는 김덕원(金德遠)의 말을 쓴 것이라고 실록에 특별히 부기(附記)되어 있는데, 병조판서 김석주가 이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였다. 훈련도감과 어영청 등 중앙군은 도체찰사부에 소속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자 국왕과 영의정 허적은 평상시가 아닌 전시에는 중앙군도 도체찰사의 지휘를 받아야하는 것이 아니냐고 반문하였다. 김석주는 그러면 도체찰사부의 권한이 너무 강하게 된다고 하면서 중앙군이 도체부에 소속되는 것을 강하게 반대하였다.¹⁰¹⁾ 이에 대해서도 노론계 숙종실록 사관들은 허적이 종친(宗親)인 복창군(福昌君) 정(楨)과 복선군(福善君) 남(楠)을 위해 국내의 모든 병권을 장악하려고 하는 것을 김석주가 우려하여 이렇게 반대한 것이라는 악의적인 해석을 달고 있다.¹⁰²⁾ 사실 병권에 민감한 것은 외적인 김석주이지 허적 등 남인이 아니었다. 남인들은 병권에 관심이 없었고, 또 감히 관심을 둘 수도 없었다. 그런데 이러한 노론계 사론에 의해

100) 『肅宗實錄』 5, 숙종 2년 4월 2일(甲寅)

101) 『肅宗實錄』 5, 숙종 2년 5월 20일(辛丑)

102) 『肅宗實錄』 5, 숙종 2년 4월 13일(乙丑) “時 體府之議 蓋以爲楨·楠 總重權之計 而必欲令積成統中外者 以積爲柵輩外援故也 錫胄內懷深憂 方陰圖積等故爭之如此”

지금까지 서인과 남인 모두 병권을 차지하기 위해 다투었다는 양비론적인 역사인식이 통설화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도체찰사부 설치 이후 만과(萬科) 출신자들을 여기에 소속시켜 군인으로 삼고¹⁰³⁾, 송도 천마산에 대흥산성(大興山城)을 쌓아 그 근거지로 삼았으며¹⁰⁴⁾, 이천(伊川)·평강(平康)의 둔전을 이속시키고¹⁰⁵⁾, 각 읍의 모곡(耗穀)으로서 상평청(常平廳)으로 보내야 할 것을 5년 기한으로 도체찰사부에 보내게 하는 등의 조치로 재정 기반을 확립하면서¹⁰⁶⁾ 도체찰사부는 점차 군영의 모습을 갖추어갔다. 또 국왕은 수시로 도체찰사부에 궁시(弓矢)와 갑옷, 조총 등을 내려 보내어 관심을 보이고¹⁰⁷⁾, 각도의 낙강(落講) 교생들이 내는 면포도 도체찰사부에서 수납하게 하면서 도체찰사부의 군사와 재정 규모는 확장일로에 있었다.

그런데 1677년(숙종 3) 3월 18일 정사 오정위, 부사 김우석 등이 연경에서 돌아와 왕보신(王輔臣)과 경정충(耿精忠)이 청에 항복하고, 오삼계도 더 이상 진군하지 못하여 청의 정국이 안정되고 있다고 보고하고, 또 청인(淸人)들이 “조선에서 만과(萬科)를 시행하여 장사(壯士)들을 모으고 성지(城池)를 수축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묻고는 “지금 우리의 세력이 약하다고 여겨 이를 가지고

103) 『肅宗實錄』 5, 숙종 2년 2월 12일(甲子)

104) 『肅宗實錄』 5, 숙종 2년 4월 25일(丁丑). 대흥산성의 축성은 체찰사 허적과 훈련대장 유혁연의 주도하에 이루어졌다. 축성과정에서 軍丁은 訓局의 別隊 5천여 명과 各色工匠 1천1백 명이 동원되었고, 군량은 강화 쌀 6천여 석이 소요되었으며, 공사 감독은 허적과 유혁연이 맡아 3월 5일부터 50일 만에 공사를 마쳤는데, 대략 1천5백31堞과 주위가 4천3백37把였다. 숙종은 공사를 마친 후 該曹로 하여금 소와 술을 갖추어 농게 하였으며 中使와 史官을 보내어 군사를 위로하고 犒饋하였다. 그리고 유혁연에게 말을 하사하였다.

105) 『承政院日記』, 숙종 2년 10월 7일(丙辰)

106) 『備邊司謄錄』 32, 숙종 2년 5월 27일.

107) 『肅宗實錄』 5, 숙종 2년 10월 2일(辛亥)

『承政院日記』, 숙종 2년 11월 28일(丙午) “以備忘記 … 曰今下鳥銃五十柄 送于體府”

탐시(探試)하려고 하는 것은 결코 허락할 수 없다”라고 말하였다고 보고하였다.¹⁰⁸⁾ 즉 청에서는 지금 조선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두 알고 있으니 경거망동하지 말라는 경고를 보낸 것이다. 이 소식이 전해오자 도체찰사부 폐지론이 급격히 거론되었다. 4월 1일 대사간 심재(沈粹)가 도체찰사부 해체를 주장하고¹⁰⁹⁾, 4월 3일 좌의정 권대운은 도체찰사부의 혁파를 주장하는 제신(諸臣)들의 의견을 전하였다.¹¹⁰⁾ 5월 11일 허적은 도체찰사부가 이미 기능을 상실하였다고 하면서 자신의 도체찰사직을 면하게 해달라고 상차(上劄)하였다. 이런 가운데 5월 19일 대사간 이원정이 도체찰사부는 이제 실효가 없으니 마땅히 폐지해야 한다고 상소하면서¹¹¹⁾, 결국 5월 28일 도체찰사부는 해체되었다.¹¹²⁾ 연행사들의 보고가 있는 지 70여 일만에 군영 모습을 갖추어가던 도체찰사부가 서둘러 해체된 것이다. 윤희가 도체찰사부 해체에 반발하여 사직 의사를 피력하였지만 소용이 없었다.¹¹³⁾

그런데 1678년(숙종 4) 8월 20일 청에서 돌아온 서장관 안여석(安如石)이 오삼계가 경정충·정금과 더불어 연결하여 청의 7성을 함락시키고, 황제를 칭하여 국호를 대주(大周)라 하였으며, 청나라 군대는 계속 패하고, 청나라 황제는 황음무도하여 국내가 소연(騷然)하다는 문견사건(聞見事件)을 올렸다.¹¹⁴⁾ 청이 존폐의 위기에 몰리고 있다는 사신의 보고가 올라오자 조정이 다시 한 번 요동쳤다. 윤희는 변란에 대처해 장수를 선발해 두어야 한다고 상소하였

108) 『肅宗實錄』6, 숙종 3년 3월 18일(甲午)

109) 『肅宗實錄』6, 숙종 3년 4월 1일(丁未)

110) 『肅宗實錄』6, 숙종 3년 4월 3일(己酉)

111) 『肅宗實錄』6, 숙종 3년 5월 19일(甲午)

112) 『肅宗實錄』6, 숙종 3년 5월 28일(癸卯) “罷體府 武科出身分屬各道兵使 作隊伍如體府時 使之操鍊”

113) 『肅宗實錄』6, 숙종 3년 6월 4일(己酉)

114) 『肅宗實錄』7, 숙종 4년 8월 20일(戊子)

고¹¹⁵⁾, 김석주는 도체찰사부를 다시 설치해 만과(萬科) 출신 무사들을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¹¹⁶⁾ 특히 병조판서인 김석주가 도체찰사부를 다시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자 반향이 매우 컸다. 대사헌 이원정이 김석주의 주장에 동조하여 도체찰사부를 복설하자고 상소하였고, 국왕 역시 지난번 도체찰사부를 경솔히 혁파한 것을 후회한다고 하고는 마땅히 다시 의논하여야 한다고 말하였다.¹¹⁷⁾ 대신들의 도체찰사부 복설 건의와 윤희의 계속되는 요구 속에서 결국 1678년(숙종 4) 12월 23일 국왕은 도체찰사부를 복설하라는 특명을 내린다.¹¹⁸⁾

그런데 1679년(숙종 5) 3월 7일 숙종은 북평군 이연으로부터 오삼계가 죽었다는 별단을 받고¹¹⁹⁾, 또 청병(淸兵)이 반란군들을 추격하게 크게 물리쳤다는 보고에 접하면서¹²⁰⁾, 도체찰사부 복설에 다시 주저하게 된다. 숙종은 중국이 안정되어간다면 도체찰사부를 다시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것이다. 또 숙종은 북벌론을 주장하는 신하들 앞에서 내놓고 표현은 못했지만, 내심 중국이 안정된 이후 청으로부터 도체찰사부 복설 이유에 대해 추궁 받을 것이 두려웠을지도 모른다. 이에 숙종은 도체찰사부를 복설하라는 특명을 내린지 10개월이 지나도록 후속 조치를 마련하지 않고 있었다. 1679년 9월 윤희가 절목(節目)을 제정하는 등 후속 조치를 빨리 취하라고 재촉하였고¹²¹⁾, 영의정 허적도 10월 9일에 “도체찰사부를

115) 『肅宗實錄』7, 숙종 4년 9월 10일(戊申)

116) 『承政院日記』, 숙종 4년 9월 13일(辛亥) “錫胄曰 … 前者體府之罷 物議皆以爲不可 今若更設 則雖無禁旅加數之弊 而武士自有歸屬處矣”

117) 『肅宗實錄』7, 숙종 4년 9월 15일(癸丑)

118) 『肅宗實錄』7, 숙종 4년 12월 23일(己丑). 『承政院日記』의 同日字 기록에는 “鑄曰 體府復設 幸甚幸甚”이라 하여 윤희가 도체찰사부의 복설을 매우 기뻐해 하는 모습이 나타나 있다.

119) 『肅宗實錄』8, 숙종 5년 3월 7일(壬寅)

120) 『燕行錄』28, 「燕行日記」, 숙종 5년 2월 2일.

121) 『肅宗實錄』8, 숙종 5년 9월 25일(丁巳)

애당초 복설하지 않았으면 모르겠지만 이미 복설한 뒤에 절목조차 아직까지 마련하지 않으니, 이것은 이름만 있고 실상은 없는 것입니다. 도체찰사부를 복설한 이유가 무엇입니까?”¹²²⁾라고 하면서 숙종을 힐난하는 말을 하였다. 이때 숙종은 자신의 심중을 헤아리지 못하는 영의정에게 반감을 품은 것 같다. 또 중국에서 삼번의 난이 끝나 가는데도 계속 북벌론을 주장하는 남인 정권에 대한 불안감도 싹텄을 것이다. 1680년 3월 28일 유악(油幄) 사건으로 인하여 경신환국이 발발할 때 즉시 국왕을 만나 일을 수습하라는 유명천의 말에 허적은 “작년 10월 중순부터 상(上)께서 나를 싫어하고 박대하는 기색이 있었으니 지금 비록 들어가 면대한다 하여도 소용이 없을 것이다.”¹²³⁾라고 대답하고는 이후 축출당하는 길을 걸었다. 즉, 국왕 숙종은 1679년 10월 중순부터 도체찰사부 복설의 후속조치를 강요하는 남인 정권에게서 마음이 떠난 것으로 보인다.

남인 관료들이 도체찰사부 복설의 후속조치를 빨리 취하라고 재촉하자, 1679년 11월 3일 숙종은 도체찰사부 절목 제정¹²⁴⁾과 부체찰사 차출을 명하였다. 도체찰사부 복설이 결정된 지 1년만의 일이었다. 도체찰사는 영의정 허적이 당연직으로 임명되었으므로 부체찰사의 선발이 주요 문제로 제기되었다. 영의정 허적이 국왕에게 김석주, 윤희, 이원정 3사람 중 1사람을 부체찰사로 선발할 것을 아뢰자, 국왕은 김석주를 부체찰사로 결정하였다. 그러자 윤희는 “김석주는 병조판서이고 어영대장인데 지금 또다시 부체찰사까지 겸하게 된다면 권한이 너무 무겁게 됩니다.”라고 이의를 제기하자 국왕은 발끈하여 “경(卿)의 이름도 거론되었는데, 경의 이 말은

122) 『肅宗實錄』8, 숙종 5년 10월 9일(庚午)

123) 『燃藜室記述』34, 肅宗朝故事本末, 庚申大黜陟許堅之獄

124) 실제 도체찰사부 절목은 12월 5일 제정되었다. (『備邊司謄錄』 35, 숙종 5년 12월 5일, ‘體府應行節目’)

혐의적인 것이 아닌가?”라고 하면서 불쾌해하였다.¹²⁵⁾

윤휴의 이 말은 후에 그가 사형 당하는 빌미가 되었다. 즉, 경신 환국 이후 병조판서 김석주는 윤휴가 도체찰사부를 복설하여 부체찰사가 되어 병권을 장악하려 하였다고 비난하였고, 국왕도 “부체찰사를 차출할 때에 제가 되지 못한 것에 노하여 어전에서 기뻐하지 않는 기색을 드러냈으며, 심지어 성내는 말까지 했으니, 그 패역한 실상은 신하된 자로서 차마 할 수 없는 일이다.”라는 전교를 내렸다.¹²⁶⁾ 윤휴는 이러한 비난에 대하여 “만약 내가 스스로 (부체찰사를) 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다면, 어찌 여러 사람들 가운데서 이런 혐의적인 말을 발설했겠습니까?”¹²⁷⁾라고 해명하였지만 결국 사형에 처해지게 된다.

윤휴의 말대로 그는 병권의 장악에는 관심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는 국왕이 병권을 장악하여야지¹²⁸⁾, 외척의 손에 병권이 들어가는는 안 된다고 누누이 강조하였다.¹²⁹⁾ 윤휴는 역대 중국사를 연구하면서 외척 정치의 폐해를 누구보다도 절감한 사람이었다. 충성스럽고 어진 군자들이 모두 외척들의 음모술수로 죽었다고 한탄하였다.¹³⁰⁾ 윤휴는 이렇게 외척 정치를 경계하였지만 그 역시 외척 김석주의 음모로 인해 죽음을 당하게 된다.

1679년 11월 도체찰사 허적, 부체찰사 김석주가 임명되고, 12월에 절목이 발표되어 도체찰사부가 복설되었지만, 도체찰사부는 경신환국으로 4개월도 안 돼 다시 해체된다. 1680년 3월 28일 이른바

125) 『肅宗實錄』 8, 숙종 5년 11월 3日(甲午)

126) 『肅宗實錄』 9, 숙종 6년 5월 15日(癸卯)

127) 『肅宗實錄』 9, 숙종 6년 5월 12日(庚子)

128) 『肅宗實錄』 8, 숙종 5년 9월 25日(丁巳) “上亦自總兵柄”

129) 『肅宗實錄』 9, 숙종 6년 4월 10日(己巳) “尹鑄 陳於榻前曰 主少國疑 何可付兵權於外戚乎”

130) 『白湖集』 24, 雜著, 漫筆 下, “忠賢君子 卒駢死於嶺海之間 是誰之致也 蓋陰居陽位 女干男事 實天地之大變也 氣類相感 凶孽乘之 其禍敗之烈 至於如此”

유악(油幄) 사건으로 시작된 경신환국은 4월 5일 정원로와 강만철이 허건의 역모를 고변하고¹³¹⁾, 이날 김석주가 도체찰사부 소속 둔군(屯軍)의 작대(作隊) 사건을 날조·보고하면서¹³²⁾ 도체찰사부와 관련된 남인 인사들이 극형에 처해지게 된다. 정원로의 고변에 의해 추국을 당한 허건은 1679년 정월 복선군(福善君)과 같이 정원로의 집에 모여 병이 잦은 왕이 승하할 경우 서인들이 임성군(臨城君)을 추대하면 화를 예측할 수 없으니 도체찰사부를 복설하여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야 한다고 의논하고는 이러한 뜻을 윤휴와 이원정에게 전하여 그들의 협조를 요청했다고 자복하였다.¹³³⁾ 이에 따라 도체찰사부 복설은 허건의 역모를 뒷받침하기 위해 추진된 것으로 꾸며져, 전 영의정 허적, 전 이조판서 이원정, 전 좌찬성 윤휴, 전 훈련대장 유혁연 및 종친이었던 복선군 형제를 비롯하여 수많은 남인 인사들이 극형을 당하였다.

도체찰사부 복설을 제일 먼저 건의한 것은 김석주였는데, 이원정은 도체찰사부 복설을 주장하였다고 사형되었고¹³⁴⁾, 도체찰사부 복설을 준비하던 허적과 유혁연은 대흥산성에서 국왕의 허락도 없이 둔군(屯軍)을 편제하여 훈련시켰다는 이유로 사형되었다.¹³⁵⁾ 허적은 영의정을 3번씩이나 역임한 고명대신(顧命大臣)이고, 유혁연은 훈련도감과 어영청의 대장을 연달아 26년 동안이나 맡았던 인물이다.¹³⁶⁾ 후에 김덕원(金德遠)이 “유혁원은 훈련대장인데 만일 역모를 꾸몄다면 (훈련도감 군인 같은 정예병을 놔두고) 어찌 이런 구질구질한 둔군을 가지고 했겠습니까?”¹³⁷⁾라고 반문하듯이, 이들이

131) 『肅宗實錄』 9, 숙종 6년 4월 5일(甲子)

132) 『承政院日記』, 숙종 6년 4월 5일(甲子)

133) 『肅宗實錄』 9, 숙종 6년 4월 9일(戊辰)

134) 김문택, 「숙종대 李元禎의 정치활동과 被禍」, 『역사와 실학』 38, 2009.

135) 김우철, 「柳赫然의 大興山城 경영과 庚申換局」, 『韓國人物史研究』 20, 2013.

136) 李裕元, 『林下筆記』 24, 文獻指掌編, 將臣久任.

137) 『肅宗實錄』 21, 숙종 15년 7월 18일(壬子)

역모를 꾸밈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말이었다. 그러나 이런 저런 이유로 남인에 대한 탄핵이 계속되어 무려 100여 명 이상의 남인들이 갖가지 형벌로 화를 당하였다.¹³⁸⁾ 그리고 그해 5월 영의정 김수항과 병조판서 김석주는 남인을 처벌한 ‘토역전말’을 청에게 알리자고 건의하였다.¹³⁹⁾ 서인 정권은 도체찰사부 설치 등 북벌론의 책임을 모두 남인에게 돌리고, 청에게 이들을 처벌했다고 보고하면서 북벌론으로 야기된 대청 긴장 관계를 완화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경신환국은 국왕과 서인에게 북벌 정국에서의 출구를 마련해준 셈이다. 숙종초기에 설치와 해체, 복설(復設)을 반복한 도체찰사부는 경신환국으로 해체되어 다시는 우리 역사에 나타나지 않게 된다. 그리고 도체찰사부의 군사와 재정, 물자 등은 신설된 관리청(管理廳)으로 이속되어 병조판서 김석주가 관리하였다.¹⁴⁰⁾

『연려실기술』 권34, 「숙종조 고사본말」의 첫째 항목에 ‘경신대출척’에 대한 기사가 나온다.¹⁴¹⁾ 이 기사에 의하면 경신년(1680) 3월 28일 국왕은 다음과 같이 전교(傳敎)하였다.

재앙과 이변이 자주 일어나며, 위태하고 의심스러움이 여러 가지이며, 유언비어가 물 끓듯 하니, 궁궐을 호위하는 친병(親兵)을 거느리는 장수의 직책은 왕가(王家)의 지친(至親)으로서 지위가 높은 사람에게 맡기지 않을 수 없다.

숙종은 이 말과 함께 훈련대장 유혁연을 해임시키고, 자신의 장인인 김만기를 훈련대장에 임명하였다. 조선시기에 병권은 국왕이 독점하고 있는 것이어서 훈련도감과 어영청 대장 직을 26년 동안

138) 이희환, 「제1부 제2장 경신환국」, 『조선후기당쟁연구』, 국학자료원, 1995, 36쪽.

139) 『肅宗實錄』 9, 숙종 6년 5월 7일(乙未) “領議政金壽恒 兵曹判書金錫胄請對言 今茲討逆顛末 不可不奏聞北京”

140) 『肅宗實錄』 9, 숙종 6년 4월 3일(壬戌); 『肅宗實錄』 15, 숙종 10년 10월 7일(己亥)

141) 『燃藜室記述』 34, 肅宗朝故事本末, 庚申大黜陟 許堅之獄.

맡았던 유혁연이라도 왕명이 내려지자 즉시 훈련대장 직에서 물러나야 했다. 이것을 잘 알고 있었던 유혁연은 앞에서 인용하였듯이 훈련도감 건물을 확장하기 위해 군인을 동원하는데도 “군병을 내어 쓰는 것은 아래에 있는 자가 감히 마음대로 할 수 없으므로 계품을 올립니다.”¹⁴²⁾라 하여 국왕의 병력 동원 승인을 요청하고 있다. 즉, 병권은 신하들이 감히 넘볼 수 없는 영역이었다. 그런데 근래 도체찰사부 복설을 앞세운 남인 측의 병권 독점 시도가 경신환국 발생의 깊은 원인이라고 추정하는 견해가 통설로 통용되어 왔다.¹⁴³⁾ 그러나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도체찰사부와 관련하여 남인 측은 병권 독점을 시도하지도 않았고, 또 시도할 처지도 아니었다. 남인들은 중국 정세의 변동 속에서 도체찰사부를 설치하여 북벌을 실현하려다가 숙종과 외척의 음모에 의해 축출된 것이다.

5. 맺음말

지금까지 조선시기의 왕권과 병권, 평시 군사체제와 전시 군사체제, 도체찰사부의 운영 등에 대하여 알아보고, 또 숙종초기 도체찰사부의 설치와 해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조선시기의 왕권에 대하여 지금까지 발표된 글들을 보면 한결같이 왕권이 신권에 비해 매우 미약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시대에는 양반의 이해와 동의 없이는 국왕이 될 수 없었고, 국왕의 자리를 유지할 수도 없었으며, 이에 국왕의 전제는 용인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조선시기에 병권은 국왕이 아니라 신하에게 있었다고 주장되고

142) 주42)와 같음.

143) 李泰鎭, 『朝鮮後期の 政治와 軍營制 變遷』, 韓國研究院, 1985, 189~198쪽.

있다. 특히 조선후기 봉당정치는 각 정파에서 병권을 장악하고, 더 많은 병권을 쟁취하기 위해 치열하게 전개된 것이라고 이해되고 있다. 이러한 왕권과 병권에 대한 이해 방식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조선이 국왕 중심의 왕조국가라는 것을 고려하지 않고, 또 국왕의 권력은 병권의 독점에서 나온다는 평범한 진리에도 관심을 두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조선에서는 정도전이 『조선경국전』 첫째 장에서 ‘모든 사람이 각자 자신의 맡은 일을 하는 것은 오직 임금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라고 말한 것처럼 신권 우위, 재상 중심이 아니라 왕권의 절대 우위, 국왕 중심의 정치가 시행되었다.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데 임금의 뜻이 아님이 없다”라는 말처럼 조선의 국왕은 관념적으로나 실질적으로나 절대권, 전제권을 가지고 있었다. 국왕이 이처럼 절대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병권을 독점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즉, 조선시대에는 국왕 이외에는 누구도 병권을 장악할 수 없었다. 장군이라고 해도 말단 군인 1명을 마음대로 부릴 수 없었다. 이것은 태종대에 사병제를 혁파하고, 이후 장군과 군인 간에, 군인과 군인 간에 사적 관계를 철폐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 결과였다.

그런데 사병제 혁파와 공병제 확립, 장군과 군인 간의 사적 관계 철폐만으로는 국왕의 병권 독점을 확신할 수 없었다. 태조 이성계처럼 전시에 출동한 군대를 거느리고 회군하여 현 정부를 전복시킬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조선 정부에서는 군대를 평시체제와 전시체제로 구분하고, 평시체제 군대 지휘관과 전시체제 군대 지휘관을 분리하여 운영하였다. 즉, 평시체제 지휘관은 전시에는 자신이 선발하고 훈련한 군대를 지휘할 수 없고, 전시에는 중앙에서 별도로 임명한 지휘관으로 하여금 군대를 통솔하도록 한 것이다. 그리고 전시체제 지휘관에는 대체로 국왕이 가장 신임하는 문관이 임명되었다.

이러한 전시체제의 지휘관을 체찰사라 부른다. 체찰사는 품계에 따라 다양한 명칭으로 불렸는데, 도체찰사는 정1품 의정(議政) 중에서 임명되었다. 그런데 도체찰사는 최고 군령권자로서 통상 1명만 임명되는 것이 관례였으나 임진왜란 중에는 무려 4명이 동시에 임명되기도 하였다. 임진왜란 중 군사지휘 체계는 문신 중심의 중층적, 분산적, 상호규제적 특징을 지니고 있었는데, 이것은 전란 중에도 병권이 결코 국왕 이외에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왕권지상주의의 발로로 보인다. 임진왜란 이후에도 도체찰사부는 존속되다가 병자호란 패전으로 해체된 이후 효종·현종 대를 지나 숙종 초까지 운영되지 않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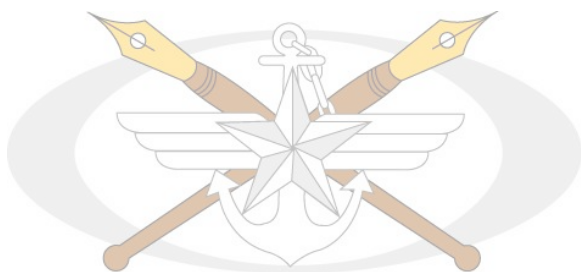
숙종 초 중국에서 삼변의 난이 일어나면서 동아시아 정세에 변동이 발생하였다. 윤희는 이때가 북벌대의를 실행에 옮길 적기라고 주장하면서 북벌을 위한 정치, 경제, 사회 개혁안을 제기하였다. 특히 윤희는 도체찰사부를 설치하여 국가를 전시체제로 전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후 도체찰사부는 중국 정세의 변화에 따라 설치와 해체를 반복하였다. 1675년(숙종 1) 12월 청이 오삼계 군에게 크게 밀리고 있다는 사신의 보고가 올라오자 도체찰사부가 설치되고, 1677년(숙종 3) 5월 청이 오삼계 군을 물리치고, 청에서 조선에게 경거망동하지 말라고 경고하자 도체찰사부를 해체하였다. 이후 1678년(숙종 4) 12월 청이 오삼계 군에게 계속 패배하고 있다는 사신의 보고가 올라오자 도체찰사부를 복설하고, 1680년(숙종 6) 3월 경신환국으로 도체찰사부가 해체되었다. 이후 도체찰사부는 다시는 설치되지 않았다.

경신환국은 서인 외척세력이 남인들이 도체찰사부를 통해 병권을 장악하려 하였다고 무고하여 발생한 사건이었다. 남인들은 중국 정세의 변동 속에서 도체찰사부를 설치하여 북벌을 실현하려다가 숙종과 외척의 음모에 의해 축출된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

조선시기 국왕의 전제성, 절대성을 확인할 수 있고, 조선시대에는 국왕 이외에는 그 누구도 병권을 장악할 수 없다는 평범한 진리를 재확인할 수 있다.

[원고투고일: 2015.9.11, 심사수정일: 2015.11.20, 게재확정일: 2016.2.19.]

주제어 : 왕권, 병권, 전시체제, 평시체제, 도체찰사, 도체찰사부, 삼번의 난, 북벌론, 경신환국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ABSTRACT>

Royal Power in Joseon and Dochechalsabu(都體察使府)
in the Early Reign of Sukjong(肅宗)

Kim, Jong-soo

Kings in Joseon Dynasty seized the absolute power. The reason why Kings of Joseon dynasty could have the absolute power is that they seized national military power. Kings' monopolization of military power in Joseon was the result of making restless efforts to reform sabyeongje(私兵制) which noble class including generals owned their own soldiers and then abolish the systems between generals and soldiers in the reign of Taejong(太宗).

But only with the reformation of sabyeongje, kings could not be sure of their monopoly of military power. Like Taejo(太祖) Lee Seong-gye, someone could command the forces mobilized in wartime and withdraw to topple the current government. Therefore, Joseon government divided the forces into two parts of a peace footing and a war footing, and as the commander of a war footing, the mungwan(文官) trusted the most by the king was appointed.

The commander of a war footing is called 'chechalsa(體察使)'. Normally, only one dochechalsa was appointed as a chief military commander, but during Imjinwaeran (壬辰倭亂: Japanese Invasion of Korea in 1592), four were appointed all at the same time. The military ruling system during Imjinwaeran was characterized by multi-layered, dispersive, and inter regulatory aspects centering around munsin(文臣), and this seems to have been attributed to regal power supremacism that even in wartime, military power should never be taken over to somebody else other than the king.

In the early stage Sukjong(肅宗)'s reign, Revolt of the Three Feudatories broke out in China, and it altered the political situations in East Asia. Saying that it was the right moment to conduct northern expedition, Yun-hyu(尹鑄) established Dochechalsa-bu and insisted them to put the country into a war footing. After that, Dochechalsabu repeated installment and dismantlement according to the change of political conditions in China. In December, 1675(Sukjong 1), as the envoys reported that Qing was being defeated severely by the forces of Wu Sangui(吳三桂), and Dochechalsabu was installed. And in May, 1677(Sukjong 3), when Qing overcame the forces of Wu Sangui and warned Joseon not to act rashly, they dismantled Dochechalsabu. Later, in December, 1678(Sukjong 4), as the envoys reported that Qing was continuously losing in the war against Wu Sangui, they again installed Dochechalsabu, and in March, 1680(Sukjong 6), Dochechalsabu was again deactivated due to Gyeongsinhwanguk(庚申換局). After that, Dochechalsabu never came to be activated again.

Gyeongsinhwanguk was an event that took place after the maternal relatives of seoin(西人) falsely accused that namin(南人) intended to seize the military power through Dochechalsabu. Namin attempted to actualize northern expedition by installing Dochechalsabu within the change of political situations in China but got expelled by Sukjong and the conspiracy of maternal relatives. With this event, however, we can reconfirm the absoluteness of kings in Joseon and it was natural truth that in Joseon, no one other than the king could seize the military power.

Key Words : Regal Power, the military power, a war footing, a peace footing, dochechalsa(都體察使), Dochechalsabu(都體察使府), Revolt of the Three Feudatories, northern expedition, Gyeongsinhwanguk(庚申換局)

해유문서를 통해 본 18세기 서북진의 군비 실태

김효경* · 이해은**

1. 머리말
2. 해유문서의 구성과 내용
3. 서북진의 군비 실태
4. 맺음말

1. 머리말

해유((解由)란 관원이 교체될 때 후임자에게 그 사무(事務)와 소관물건(所管物件)을 인계하고 재직 중의 회계와 물품관리에 대한 책임을 면하는 일을 말한다. 따라서 해유는 재정(財政), 현물(現物), 군기(軍器)에 관계되는 것으로 호조와 병조의 소관이었고 해유를 받지 못하면 전직(轉職), 승진(昇進), 녹봉(祿俸)에 제약을 받았다. 해유의 절차와 이에 따르는 문서를 보면 지방관일 경우 먼저

* 국립중앙도서관 학예연구사

** 숙명여자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전임관이 후임관에게 보내는 ‘해유이관(解由移關)’이 있고, 전임관의 ‘해유이관’에 이상이 없을 때 후임관이海道 관찰사(該道觀察使)에게 올리는 ‘해유첩정(解由牒呈)’이 있다. 그리고 관찰사가 ‘해유첩정’을 첨부(添付)하여 호조 또는 병조에 ‘이관(移關)’을 하면, 호조·병조에서 관찰사의 ‘이관’(첩정을 첨부한)을 검토하여 이상이 없으면 해유를 하면서 해유 사실을 이조에게 통고하게 된다.[이관], 이러한 절차가 다 끝나면 이조에서 해관원[전임관]에게 조홀(照訖, 解由證)을 발부하게 되면 공식적인 해유절차는 끝이 나게 된다. 보통 조홀을 받으면 해관원으로서 정상적인 대우를 받으면서 관직 생활을 계속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해유문서는 조선시대의 인사제도, 지방행정, 재정 등을 연구하는데 귀중한 사료이다.¹⁾ 이러한 자료적 가치에도 불구하고 현존하는 해유문서는 약 100건 정도로 추산되며, 특히 무관직(武官職)의 해유문서는 모두 7건으로 그 수량이 극히 적은 상황이다.²⁾

한편, 조선은 전란을 겪으면서 국가적 위기를 통하여 국방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17~8세기를 지나면서 중앙 군영에 집중되었던 군사력은 점차 북방 지역 군사력을 정비하는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1)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 서울: 지식산업사, 1995, 201쪽.

2) 현재까지 알려진 무관직 해유문서는 모두 7건이다. 병마 4건, 수군 3건인데 병마 4건은 자세한 내역은 아래 도표와 같다.(조미은, 「해유문서의 현황과 특징」, 『조선시대 해유문서』, 분당: 한국학중앙연구원, 2012, 32쪽)

구분	작성연도	해유대상	비고
병마	1600년	박의장 경상좌도별마절도사	
	1842~1846년	류억 평안도병마우후	조홀 ×
	1833년	류억 공충도병마우후	조홀 ×
	1791년	최경신 만포진병마첨절제사	조홀 ×
수군	1633년	최진립 경기수군절도사	
	1884~1885년	김용래 부산진수군첨절제사	조홀 ×
	1796년	김경혁 위도진수군동첨절제사	

방향으로 변화하게 된다.³⁾ 특히 정조는 즉위부터 국방력의 강화를 강조하였다. 1778년(정조 2년) 6월 영조의 삼년상을 마친 정조는 첫 조참(朝參)을 받고 4개의 대고(大誥)를 선포한다. 민산(民產), 인재(人材), 용정(戎政), 재용(財用)으로 즉, 백성이 풍요롭게 살며 인재를 키우고 군사제도를 강화하여 국방력을 키우고 재정을 확충하는 것이 그것이다. 정조는 “문치(文治)로 나라를 세우고 무략(武略)도 갖추었었으나 왜적(倭賊)을 방어하는 방법에 있어서 방도를 다하지 못했고 더구나 사방 국경(國境)에 있어서 혹시 모를 일을 미리 대비하여야 한다”고 강조하며 ‘군자는 싸움을 하지 않을지언정 싸움을 하면 반드시 이긴다’고 자신의 의지를 드러낸다.⁴⁾ 그러나 실제로 이러한 정책의 실행 여부나 논의를 확인할 수 있는 북방 지역의 국방 체제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역사서나 읍지(邑誌), 지지(地誌)류를 통한 간접적인 사료에 의존해 왔다. 물론 17세기에서

3) 조선 후기 국방체제의 변화 양상은 다음의 논문을 참고하였다.

강석화, 「조선후기 평안도지역 압록강변의 방어체제」, 『韓國文化』 34,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04, 167-199쪽.

강석화, 「조선후기 함경도 육진지역의 방어체제」, 『韓國文化』 36,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05, 297-337쪽.

강석화, 「1712년 朝·淸 定界와 18세기 朝鮮의 北方經營」, 『진단학보』 79, 진단학회, 1995, 135-165쪽.

강석화, 「英·正祖代의 咸鏡道 地域開發과 位相強化」, 『규장각』 18, 규장각한국학연구원, 1995, 27-67쪽.

고승희, 「조선후기 함경도 内地鎭堡의 변화」, 『韓國文化』 36,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05, 339-374쪽.

김우철, 『조선후기 지방군제사』, 서울: 경인문화사, 2000

노영구, 「중앙 軍營과 지방군을 통해 본 조선 후기 국방체제의 변화 양상」, 『장서각』 33, 한국학중앙연구원, 2015, 60-84쪽.

裴祐晟, 「17·18세기 淸에 대한 인식과 북방영토의식의 변화」, 『한국사연구』 99·100호, 한국사연구회, 1997, 305-327쪽.

정해은, 『조선후기 국토방위전략』, 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2

차문섭, 「조선후기 군제와 국방」, 『동양학』 27(1),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1997, 325-332쪽.

4) 『정조실록』, 권5 1778년(정조 2) 6월 4일 임진

18세기의 해유문서나 중기(重紀) 등 고문서 자료를 토대로 한 군비에 대한 실태 연구⁵⁾가 있으나 평안도 지역의 해유문서 1종을 제외하고 모두 한강 이남, 즉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지역에 대한 군비 실태를 파악한 것이다.

이 연구는 1785년(정조 9)에 작성된 함경도(咸鏡道) 서북진병마첨절제사(西北鎭兵馬僉節制使) 윤빈의 해유문서를 통하여⁶⁾ 길주목 서북진 진영에서 보유하고 있었던 군비의 종류와 수량을 파악해 보고, 특히 중요시 되었던 화약병기류의 보유량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연구의 대상이 되는 고문서가 함경도 지역에서 작성된 현전하는 유일한 해유문서로서 이를 토대로 조선후기 북방지역의 군비실태를 보다 실증적으로 확인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2. 해유문서의 구성과 내용

서북진(西北鎭)은 함경도(咸鏡道) 길주목(吉州牧) 소속의 진영으로 양산진(陽山鎭)이라고도 하였다. 석축의 둘레는 1,542척(尺)으로 원래 만호(萬戶)를 두었다가 1673년(현종 14)에 함경감사 남구만이 올린 상소(上疏)에 따라 장군파(將軍波)·사하북(斜下北)·덕만동

5) 이현수, 「18세기 말 慶尙道 玄風縣의 軍備 實態」, 『學藝誌』 제4집, 육군사관학교 육군박물관, 1995, 505-530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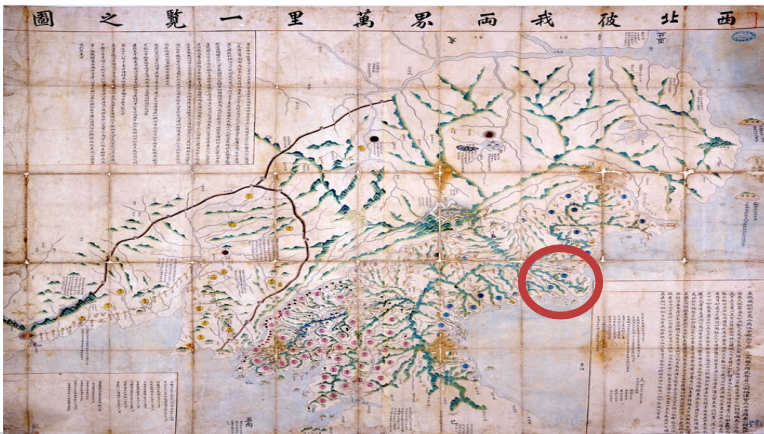
이현수, 「鴻山縣監 解由文書를 통해 본 18세기말 忠淸道 鴻山縣의 軍備 實態」, 『고문서연구』 23, 한국고문서학회, 2003, 121-161쪽.

박진철, 「1693년 重記를 통해 본 全羅道 羅州 牧의 軍備 實態」, 『동국사학』 46, 동국사학회, 2009, 1-33쪽.

박진철, 「고문서로 본 17세기 조선 水軍 戰船의 무기체계」, 『영남학』 16,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2009, 449-489쪽.

6) 국립중앙도서관에서 2014년에 구입한 고문서로서, 크기는 세로 80cm 가로 686.5cm 이다. 상세한 서지사항은 2장 해유문서의 구성과 내용에서 참조하기 바란다.

(德萬洞) 등 3개보(堡)의 군병을 모두 소속시키고 진으로 승격하여 첨사(僉使)를 두었다. 이후 1681년(숙종 7)에 큰 수해(水害)가 있어서 성이 무너질 염려가 있으므로 1749년(영조 25)에 패적교(敗賊橋)의 좁은 목으로 옮겨 설치했다.⁷⁾ 이후 1799년(정조 23) 함경감사와 함경북도병마절도사가 서북진의 좁고 협소한 지형과 모래와 자갈이 많은 토질로 인하여 경작을 해도 수확하기 어려운 형편과 우물이 없어 거주하기 힘든 상황을 정조에게 보고하여 서북진을 장군파보로 옮기게 되었다.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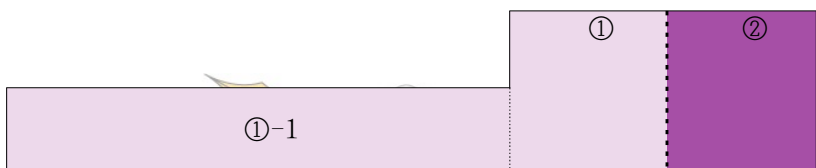


〈그림 1〉 서북피아양계만리일람지도⁹⁾상의 길주목 위치

7) 『만기요람』, 「군정편」 <관방>. 【吉州】 邑城。周一千一百八十五丈。西北鎮。一名陽山鎮。石築。周一千五百四十二尺。置萬戶。顯宗癸丑。將軍坡，斜下北，德萬洞三堡軍兵並屬于此。陞置僉使。辛酉。大有水害。將有城崩之慮。英宗己巳。移設于敗賊橋陋口。; 『현종실록』 권21, 1673년(현종 14) 12월 30일 을축

8) 『정조실록』 권52, 1799년(정조 23) 11월 29일 계미. 命移西北鎮於將軍坡古堡。咸鏡道觀察使具廣、北道兵馬節度使李潤謙狀啓言：“西北鎮基，地勢隘狹，土品沙磧，耕播失利，且無泉井，汲來於數百步外川水，居民見存僅爲三四戶，及今移鎮，不容少緩。將軍坡古堡，關防及農作炊汲，比今鎮基，利害不翅霄壤，且相距爲五里許，則移鎮之役，不至大費民力。今鎮基之高峰、西山、東峰三處烽臺，皆自鎮後山外不見處，轉達呂烽。今若移鎮，則新設南山一烽，西應高峰，北應東山，東應崔世峰，傳準呂烽。則西山烽是疊設，革彼西烽設此南烽，無烽軍加設之弊。” 左議政沈煥之覆奏曰：“道帥臣所論，儘有意見。關防形便既未詳知，輕議移改，非不重愼，而論其事勢，合宜變通。” 右議政李時秀、兵曹判書李在學、將臣申大謙・李漢豐等，皆言其便，從之。

이 문서의 외형적 특징을 살펴보면 우선 크기와 내용이 다른 두 장의 문서가 점련(粘連)되어 있는 형태로 전체 크기는 세로 80cm, 가로 686.5cm이고 관인이 다수 날인되어 있다. 연결된 두 건의 문서는 내용적으로는 두 단계의 해유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즉 ①과 ①-1은 후임관이 전임관의 해유를 위하여 함경북도병마수군절도사에게 올린 해유첩정이고, ②는 함경북도병마수군절도사가 병조에 올린 해유첩정이다. 문서 각각의 크기는 ①은 세로 80cm, 가로 40cm, ①-1은 세로 40.3cm, 가로 606cm이며 ②는 세로 80cm, 가로 40.5cm이다.



〈그림 2〉 해유문서의 구성과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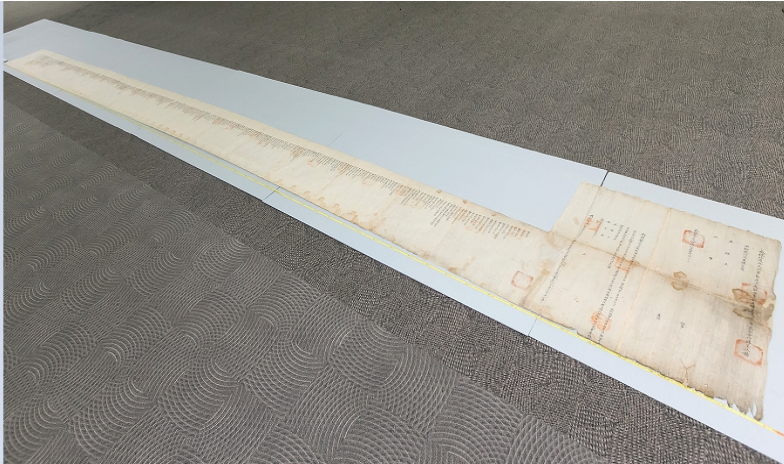
- ① 1785년(정조 9) 7월 26일 후임관 김세휘 → 함경북도병마수군절도사 解由牒문
 ② 1785년(정조 9) 8월 초1일 함경북도병마수군절도사 → 병조 解由牒문

〈그림 3〉 해유문서의 전체 형태

- 9)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된 보물 제1537-1호(청구기호 한貴古朝61-77). 1장으로 된 채색 필사본 지도로, 크기는 세로 162.2cm 가로 191.4cm이다. 압록강과 두만강 너머 만주지역까지 자세하게 군사적 정세를 나타낸 관방지도이다.

해유문서에 담긴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1785년(정조 9) 7월 26일 | 후임관 김세휘 → 함경북도병마
수군절도사 | 解由牒呈



行西北鎮兵馬僉節制使爲解由事 今准前僉使禦侮將軍尹鑣 乾隆四十八年十二月二十八日
政除授 甲辰正月初三日拜辭 同年二月
初六日到任 乾隆五十年七月二十六日遞代 今將仕月日 雜凡緣故 該管物件 逐一開坐 備
細昭詳 解由 得此將本員姓名及實歷職掌
圓僉磨勘 照數叩數明白 另擬于後 爲此 合行牒呈 伏請
照驗施行 須至牒呈者
右 牒 呈
節 度 使
乾隆五十年七月二十六日 行僉使金<着名><署押>
解由

後前僉使尹鑣 去癸卯十二月二十八日政本職除授 甲辰二月初六日到任 乙巳七月二十六日
遞去 實歷仕元五百三十日是乎事

印信壹
兵符壹
鐵頭口貳部
(중략)
除

(西北鎮僉使印 33個)

전임관 윤빈은 1753년(영조 29)에 단봉문(丹鳳門) 수문장(守門將), 1754년(영조 30)에 무겸(武兼), 1755년(영조 31)에 훈련원(訓練院) 주부(主簿), 1781년(정조 5)에 수문장을 거쳐 1783년(정조 7) 12월 28일에 서북첨사(西北僉使)에 임명되었다.¹⁰⁾ 1784년(정조 8) 1월 3일에 임금을 뵈고 하직인사를 올렸다. 한 달여 뒤인 1784년(정조 8) 2월 초6일에 서북진에 부임하였다. 이후 1785년(정조 9) 7월 26일에 체직되었다. 『경국대전』에 따르면 가족을 데리고 가지 않는 첨절제사와 만호의 임기는 900일로 규정되어 있는데 윤빈이 실제 근무한 일수는 530일로 약 2년 6개월 동안 서북첨사의 직책을 수행하였다.

전임관 윤빈이 체직되기 한 달 전쯤인 1785년(정조 9) 6월 24일에 후임관 김세휘(金世徽)가 서북첨사로 임명되었다.¹¹⁾ 1785년(정조 9) 7월 26일자로 전임관 윤빈이 체직되자 후임관 김세휘는 곧바로 직속상관인 함경북도병마수군절도사에게 해유첩정(解由牒呈)을 작성하여 전임관의 해유 사실을 보고한다. 이때 전임관 윤빈으로부터 인수인계 받은 내용을 후록하여 함께 첨부하였는데 그 내용은 군기(軍器)와 관련된 항목으로 인신(印信) 1개, 병부(兵符) 1개를 비롯하여 주로 각종 무기류의 품목과 수량이 열거되어 있다. 각 항목은 ㉠기준에 서북진에서 소관하고 있던 군기(軍器), ㉢‘將軍坡來上·斜下北來上·德萬洞來上’이라고 하여 장군파보(將軍坡堡), 사하북보(斜下北堡), 덕만동보(德萬洞堡)에서 관리하던 군기, ㉣‘庚子(1720년)別備·乙巳(1725년)別備·丙午(1726년)別備·丁未別備(1727년)·壬子(1732년)別備·乙酉(1765년)別備’라고 하여 해당 시기에 새로

10) 『승정원일기』, 영조 29년(1753) 4월 28일 계축; 『승정원일기』, 영조 30년(1754) 12월 28일 임신; 『승정원일기』, 영조 31년(1755) 11월 28일 정유; 『승정원일기』, 정조 5년(1781) 7월 30일 경오; 『승정원일기』, 정조 7년(1783) 12월 28일 을유

11) 『승정원일기』, 정조 9년(1785) 6월 24일 신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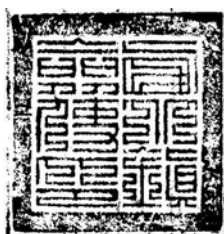
구비한 군기, ④'軍資倉還上實留庫·賑恤廳還上實留庫·常平廳還上實留庫·營置簿還上實留庫·乙亥賑餘還上實留庫·交濟倉還上實留庫·軍餉穀秩'이라고 하여 군자창, 진휼청, 상평청, 교제창 등에 실재 남아 있는 환곡과 군량곡의 수량이 기재되어 있다.

소관 물품 가운데 전적류는 『小學』 4卷, 『經國大典』 1卷, 『續錄』 1卷 등 경서나 법전서를 비롯하여 각종 병서(兵書)가 『陣書』 2卷, 『方略』 1卷, 『行軍須知』 1卷, 『兵將圖說』 1卷 등이 포함되어 있다. 조선 전기 중앙군 조직인 오위(五衛)의 부대 편성과 군사 훈련의 기본을 밝힌 『병장도설』, 군사들이 평상시 또는 전투상황에 직면했을 때 알아두어야 할 공격과 방어에 관한 군사지식을 정리한 『행군수지』, 북방 야인의 침입을 대비하여 유사시에 북도의 병마절도사를 중심으로 도내의 전체 병력을 동원하는 체제의 방어 전술을 정리해 놓은 『제승방략』 등 군사를 훈련하고 전략을 익히는 병학서가 있다. 그리고 『新傳煮取放』 1卷, 『新傳火砲式』 1卷, 『火砲式齊藥煮取放』 1卷과 같이 17세기에 편찬된 화약 제조법과 각종 총을 쏘는 방법을 정리한 기술서도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아직까지 현존본이 확인되고 있지는 않지만 명조대 황달과 학질의 처방에 관한 내용을 담은 『痘虐易解放』 1卷이 있다.

또한 문서 전면에는 '西北鎮僉使印'이라는 서북진의 관인이 찍혀 있다.



〈그림 4〉 후임관→절도사 해유첩정



〈그림 5〉 西北鎮僉使印¹²⁾

② 1785년(정조 9) 8월 초1일 | 함경북도병마수군절도사 → 병조 | 解由牒呈

咸鏡北道兵馬水軍節度使爲解由事 粘連牒呈是置有良尔 合行牒呈 伏請

照驗施行 須至牒呈者

右 牒 呈

曹 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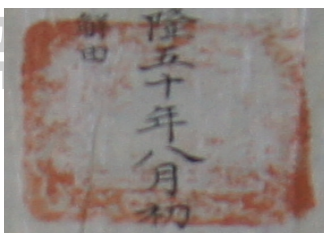
評事

乾隆五十年八月初一日 節度事閔<着名><署押>

虞侯

(咸鏡北道兵馬節度使印 3個)

절도사 민의혁은 관할 지역인 서북진의 후임관 김세희가 올린 해유첩정을 접수하여 그 내용을 검토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확인한 후 1785년(정조 9) 8월 초1일에 해유첩정을 작성하여 병조에 보고하였는데 후임관이 올린 해유첩정을 함께 첨부하였다. 당시 함경북도병마수군절도사는 1784년(정조 8) 8월 11일에 본직에 임명된 민의혁(閔義赫)이다.¹³⁾ 절도사가 병조에 올린 해유첩정에는 ‘咸鏡北道兵馬節度使印’이 찍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 6〉 절도사→병조 해유첩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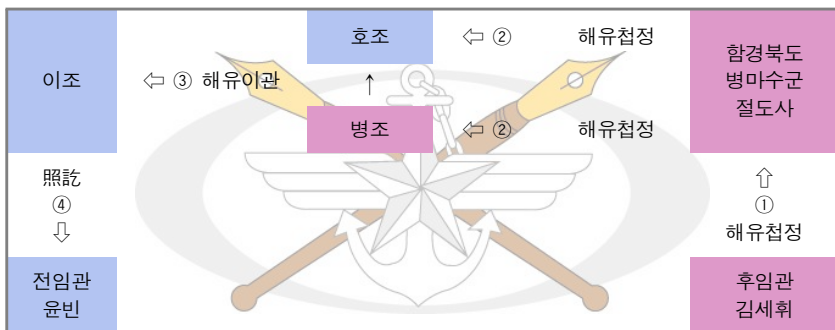
〈그림 7〉 咸鏡北道兵馬節度使印¹⁴⁾

12) 『印信謄錄』 2에 따르면 1818년(순조 12) 11월 초10일, 윤빈의 해유문서에 찍힌 인장은 1818년 이전에 사용하던 ‘西北鎮僉使印’

13) 『정조실록』 권18, 1784년(정조 8) 8월 11일 갑오

14) 『印信謄錄』 3권

조선시대 지방 관원의 해유절차에 따르면 당시 함경북도병마수군절도사가 호조에 올린 해유첩정과 호조에서 이조에 보고한 해유이관 문서가 함께 작성되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아직까지 확인된 사례가 없고 후임관→절도사→병조에 보고한 해유문서 사례만 남아 있는 상태이다. 본 자료를 통해 본 서북첨사의 해유절차는 ‘후임관→함경북도병마절도사→병조’까지의 과정을 살펴볼 수 있지만 현존하는 지방의 무관직 해유문서 사례를 통해 ‘후임관→함경북도병마절도사→병조·호조→호조→이조’까지의 해유절차를 추정해 볼 수 있다.



〈그림 8〉 1785년 서북진병마첨절제사 윤빈의 해유절차

3. 서북진의 군비 실태

1785년(정조 9)에 서북첨사 김세휘가 전 서북첨사 윤빈이 체직되면서 그로부터 인계받은 물목은 모두 335건¹⁵⁾이다. 앞 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물목이 기재된 문서는 전체 약 686.5cm 중에서

15) 해유문서에 기재된 군수품에 대한 상세내역은 실제 기록 순서대로 <부록>에 수록하였다.

606cm로 문서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물목이 기록된 전체적인 사항을 보면 서북진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먼저 기재되어 있고 이어 장군파보·사하북보·덕만동보에서 각각 관리해 오던 물목, 그리고 경자(1720)·을사(1725)·병오(1726)·정미(1727)·임자(1732)·을유(1765)별비(別備)라고 하여 해당시기에 별도로 마련한 물목이 기록되어 있고 마지막에는 군자창·진흥청·상평청·교제창 등에 실제 남아 있는 군량미를 기록해 놓았다.

제일 먼저 기재된 사항은 인신(印信)과 병부(兵符)이다. 인신은 관인을 말하고, 병부는 군대를 동원할 때에 표지로 쓰이던 명령서 형식의 부절(符節)을 말한다. 한 면에 ‘발병(發兵)’이라 쓰고 또 다른 한 면에 길이로 관찰사·절도사·진호(鎭號) 등을 기록하여 한 가운데를 찢개어 오른쪽은 그 책임자에게 주고 왼쪽은 임금이 가지고 있다가 군대를 동원할 때 임금의 교서와 함께 그 한 쪽을 내려 주면 지방관은 한 쪽을 맞추어 보고 틀림없다고 인정될 때 군대를 동원하였다.¹⁶⁾ 즉, 군대를 동원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물건인 까닭에 이관목록을 기재함에 있어서 가장 앞에 작성하였다.



〈그림 9〉 병부주머니¹⁷⁾



〈그림 10〉 병부와 병부갑¹⁸⁾

16) 세종대왕기념사업회, 『한국고전용어사전』, 2001, 925쪽.

17) 육군박물관, 『육군박물관 소장 군사복식』, 2012, 35쪽.

18) 육군박물관, 위의 책, 35쪽.

해유문서 이관목록에 기재된 군비는 크게 궁시류, 화약병기류, 무기류, 신호장비류로 분류해 볼 수 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각 군비에 대해서 살펴해보도록 하겠다.

가. 궁시류

1) 활(弓)

『윤빈의 해유문서』에 기록되어 있는 활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黑角弓 玖張
備局黑角弓 貳拾玖張
常角弓 拾壹張
交子弓 柒拾壹張

〈장군파래상(將軍坡來上)〉에 기록되어 있는 활과 관련된 기록은 다음과 같다.

黑角弓 貳張
交子弓 壹百拾肆張
常角弓 拾陸張

〈사하북래상(斜下北來上)〉에 기록되어 있는 활과 관련된 기록은 다음과 같다.

交子弓 玖拾張
黑角弓 陸張

〈만덕동래상(德萬洞來上)〉에 기록되어 있는 활과 관련된 기록은 다음과 같다.

黑角弓 參張

常角弓 參張

交子弓 陸拾柒張

이 기록들을 살펴보면 서북진에는 먼저 흑각궁은 49장이 있었다. 흑각궁은 물소뿔로 만든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활이지만, 흑각은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지 않았고, 다른 재료로 만든 보조적인 활이 필요했다.¹⁹⁾ 교자궁은 이러한 필요성에서 사용된 활이라고 볼 수 있다. 교자궁은 합성 목궁의 일종으로서, 각궁이 부족하거나 혹은 날씨가 습하여 각궁을 쓰기 어려운 경우에 그 대용으로 사용했다. 교자궁의 공력은 비록 각궁에 비해 떨어지지만, 귀한 물소뿔을 사용하지 않고 저렴하게 제작할 수 있는데다가 날씨와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조선 후기에 오군영과 각 지방에서 대량으로 사용되었다.²⁰⁾ 서북진의 교자궁도 수량면에서 342장으로 흑각궁과 상각궁에 비해 보유 수량이 월등히 많았다. 상각궁은 30장이 있었다. 상각궁은 물소뿔 대신 황소뿔을 써 만든 활로서, 흑각궁에 비해 저렴²¹⁾했다고 한다. 그러나 서북진의 경우는 오히려 상각궁보다 흑각궁의 보유 수량이 조금 더 많음을 알 수 있다.

19) 민승기, 『조선의 무기와 갑옷』, 가람기획, 2004, 40-42쪽.

20) 박진철, 「1693년 중기를 통해 본 전라도 나주 목의 군비 실태」, 『동국사학』 46, 2009, 8쪽.

21) 박진철, 「고문서로 본 17세기 조선 수군 전선의 무기체계」, 『영남학』 16, 2009, 471쪽.

〈표 1〉 활 보유 현황

	본진	장군파	사하북	만덕동
흑각궁	38	2	6	3
상각궁	11	16	0	3
교자궁	71	114	90	67

2) 화살

『윤빈의 해유문서』에 기록되어 있는 화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長箭 陸拾肆部拾貳介

備局長箭 陸拾伍部

別大長箭 貳拾捌部

細長箭 壹千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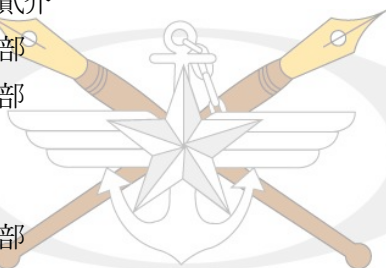
片箭 伍拾部

木片箭 壹百拾伍部

備局片箭 伍拾部

桶兒 參百柒拾貳介

備局桶兒 伍拾介



군사편찬연구소

〈장군파래상〉에 기록되어 있는 화살과 관련된 기록은 다음과 같다.

長箭 貳百貳拾捌部拾介

備局長箭 拾伍部

別大長箭 肆部

木長箭 玖部

片箭 壹百柒拾伍部拾貳介

木片箭 參拾伍部

桶兒 貳百陸介

〈사하북래상〉에 기록되어 있는 화살과 관련된 기록은 다음과 같다.

長箭 壹百伍拾肆部貳拾參介

備局長箭 拾參部

別大長箭 拾壹部

片箭 壹百參拾部貳拾伍介

桶兒 壹百肆拾壹介

〈만덕동래상〉에 기록되어 있는 화살과 관련된 기록은 다음과 같다.

長箭 壹百伍拾捌部貳拾貳介

片箭 壹百拾伍部拾玖介

桶兒 壹百貳拾伍介

위 기록을 통해 보면 장전의 전체 수량은 749부 67개이다. (세장전 1000개 제외) 장전의 한 묶음의 단위인 부(部)가 화살 30개이므로²²⁾ 이를 반영해서 다시 계산해보면 751부 7개이다. 장전은 조선시대에 전투용으로 널리 쓰인 화살이다. 다음으로 편전이 있었다. 편전의 전체 수량은 671부



〈그림 11〉 편전과 통아¹⁾

22) ‘박진철, 「1693년 중기를 통해 본 전라도 나주 목의 군비 실태」, 『동국사학』46, 2009, 8쪽위의 논문, 11쪽에서 장전 한 묶음의 단위인 부가 화살 30개를 의미한다고 밝혔다.

26개이다. 편전²³⁾은 짧고 작은 화살로 우리나라에서 독자적으로 개발된 이름난 화살이다. 화살대의 길이 1척 2촌(37cm)이며, 사정 거리는 300~350보(270~315m) 정도로 활로 쏘는 화살로는 가장 멀리 날아갔다. 서북진이 보유한 편전의 수량을 보면 장전의 수량과 거의 비슷할 정도도 많은 양이다. 그만큼 서북진에서는 편전의 활용이 많았음을 알 수 있다. 한편, 편전은 길이가 짧기 때문에 통(筒), 혹은 통아라는 기구에 끼워 발사해야 한다.²⁴⁾ 서북진에는 894개의 통아가 있었다.

〈표 2〉 화살 보유 현황

	본진	장군파	사하북	만덕동
장전(부)	157부 12개 (세장전 1000개)	256부 10개	178부 23개	158부 22개
편전(부)	215부	210부 12개	130부 25개	115부 19개
통아(개)	422	206	141	125

나. 화약병기류

임진왜란 당시 화포류는 천자총통, 지자총통, 현자총통, 황자총통, 별황자총통 등이 있었다고 한다.²⁵⁾ 그렇다면 임진왜란 이후

23) 편전은 통전(筒箭), 변전(邊箭), 동전(童箭), 애기살이라고 불리는 짧은 화살이다. 편전의 화살대 길이는 조선 초기의 『오례의』에는 주척(周尺)으로 1척 2촌(25센티)이라고 했으나, 나중에는 점차 그 길이가 길어져서 현종 13년에는 포백척 8촌(32센티)의 길이로 정해졌다. 편전은 길이가 짧기 때문에 활만으로는 쏠 수가 없으며, 통아라고 불리는 반으로 쪼갠 나무 대롱에 넣어야 발사할 수 있다.(민승기, 앞의 책, 63-64쪽)

24) 통아의 길이는 일반 화살의 길이와 비슷하고 구조는 반쪽을 쪼개어 속을 비워 이곳에 편전을 넣어서 쏜다. 통의 한쪽 끝에 구멍을 뚫어서 작은 끈으로 팔에 매어 둔다. 통을 통과해 시위를 벗어나면 빈 통은 손등을 향해 오게 되어 있다.(한국학중앙연구원편, 『민족문화대백과사전』, “화살”)

25) 박재광, 「임진왜란기 조선군의 화약병기에 대한 일고찰」, 군사』 제30호, 1995, 95쪽

18세기 함경도 북방지역 조선 육군의 주력 화기(火器)는 과연 무엇이였을까? <표 3>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듯이, 서북진에는 임진왜란 때처럼 규모가 큰 화포류는 대질려포(大疾黎砲) 2위(位)²⁶⁾를 제외하고는 사용이 되지 않았고, 승자총통 또는 조총과 같은 소총류²⁷⁾가 주로 화기로 사용되었다. 질려포는 임진왜란 이전에 개발된 포류(砲類)로 임진왜란 중 질려포가 사용된 기록은 찾아볼 수 없으나 『화포식언해(火砲式諺解)』에 수록된 사실을 미루어 보아 이용되었을 가능성이 많으며,²⁸⁾ 질려포가 『윤빈 해유문서』에 2위가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서 서북진에서도 나름대로 효능을 지니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1) 승자총

휴대용 화기인 승자총통²⁹⁾은 김지(金墀)³⁰⁾가 언제 만들었는지 알 수 없으나 현존 유물³¹⁾로 보아 선조 10년(1577) 이전에 개발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승자총통은 종래의 소화기(小火器)보다는 성능이 개량된 것으로 화기를 보유하지 못한 야인들의 격퇴에는 큰 위력을 발휘하였다.³²⁾ 서북진에만 가지고 있는 승자총 계열은 7종

26) 질려포의 단위가 ‘위(位)’라는 점도 눈여겨 볼 만하다.

27) 천자총통·지자총통과 호준포(虎蹲砲), 불랑기 등을 대포로 분류하고, 조총과 쌍안총, 백자총, 대·소승자총 등은 총으로 분류하였다.(유승주, 『조선후기 총포류 연구』, 『군사』 제33호, 1996, 118쪽)

28) 유승주, 앞의 논문, 125쪽.

29) 승자총통은 종전의 총통에 비해 총열이 길기 때문에 사거리가 길고 명중률도 높았다. 『화포식언해』에 승자총통은 가죽 깃이 달린 나무 화살을 쏘면 600보가 나간다고 했고, 철환은 15개를 한 번에 발사한다고 했다. 승자총통은 주물로 간편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조총이 전래된 이후에도 보조적인 화기로 널리 사용되었다.(민승기, 앞의 책, 221쪽)

30) 『선조실록』17, 선조16년 6월 11일 신유

31) 현재 경희대박물관에 선조 10년(1577)에 주조된 소승자총통, 육군박물관에 선조 14년(1581)에 만들어진 승자총통이 전해오고 있다.

32) 박재광, 『임진왜란과 화약병기』,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4, 11쪽.

류³³⁾이며 수량은 62자루이다. 함경도지역은 선초부터 화기 이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며³⁴⁾, 승자총통과 같은 소총류가 정조대까지도 꾸준히 주조되어 북변에 배치되었던 것이다.

〈표 3〉 승자총의 명칭과 수량

총통 명칭	수량(병)
대승자총통(大勝字銃筒)	9
차승자총통(次勝字銃筒)	27
소승자총통(小勝字銃筒)	16
소백자총통(小百字銃筒)	6
별양자총통(別樣字銃筒)	1
주자총통(宙字銃筒)	1
쌍자총통(雙字銃筒)	2
총계	62

승자총과 함께 살펴볼 것이 수철환(水鐵丸)이다. 수철환은 총통에 사용된 무쇠탄환을 말한다. 서북진 본진에 보유하고 있는 수철환은 모두 3,380개, 장군파는 150개, 사하북은 4,224개, 만덕동은 4,480개이다.

2) 조총

본진과 장군파, 사하북, 덕만동에 있는 조총 관련 기록은 다음과 같다.

鳥銃 貳百參拾捌柄

33) 차승자총통은 승자총통보다 구경(口徑)이 적은 총통이고, 소승자총통은 기존의 승자총통과는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화기도감의궤(火器都監儀軌)』(서울대 규장각 소장)에 그림이 나와 있다. 쌍자총통은 승자총통 두 개를 병렬로 붙여 놓은 것과 같은 형태이다.

34) 『세종실록』68, 세종 17년 4월 기유, 『세종실록』77, 세종 19년 6월 정묘

貳拾肆柄

貳拾陸柄

拾捌柄

拾肆柄

肆拾玖柄

조총은 1550년경 포르투갈 상인에 의해 일본으로 전래되었던 화기로써, 조선은 임진왜란 이듬해인 1593년에 처음으로 제작에 성공하였다.³⁵⁾ 1599년(선조 27) 2월에 훈련도감은 『기효신서(紀效新書)』의 속오분군법(東伍分軍法)과 삼수병제(三手兵制)에 따라 임시기구이기는 하지만 하나의 어엿한 군영으로 정식으로 발족하게 되었다. 훈련도감의 창설로 조선군의 전술은 종래의 궁시 위주에서 포(조총 포함)·살(창검) 위주로 바뀌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서 조총을 포함한 각종 화약병기의 개발이 크게 촉진되었다.³⁶⁾ 서북진에도 이를 반영한 듯 본진에서 보유한 조총은 238자루이고, 장군파, 사하북, 덕만동에서 각각 50자루·32자루·49자루가 반입되어 실제 서북진이 보유한 조총은 모두 369자루이다. 『윤빈의 해유문서』 자료에 나타난 조총의 보유 현황은 <표 4>와 같다.

<표 4> 조총 보유 현황

본진	장군파	사하북	만덕동
238	50	32	49

조총과 함께 살펴볼 것은 조총의 탄환인 연환(鉛丸)과 화약이다. 1720년 즉, 경자년부터 ‘별비’라고 해서 1725(을사)·1726년(병오)·1727(정미)·1732년(임자)·1765년(을유)까지 모두 6차례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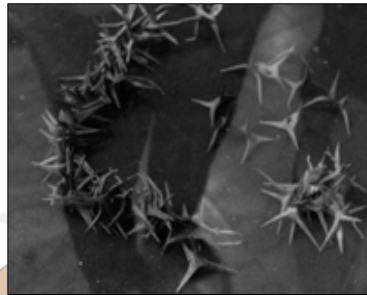
35) 민승기, 앞의 책, 257쪽.

36) 박재광, 앞의 석사논문, 52쪽

걸쳐 군비가 추가 되었다. 추가된 군비 중에서 주목되는 사항이 바로 연환과 화약이다. 연환은 기존에는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가 병오·정미·임자년에 각각 1651개, 2980개, 5000개 각각 추가되었다. 화약의 경우도 만덕동에서 반입되어 온 44근만 있었는데 병오·정미·임자년 3해에 걸쳐 화약 277근이 증강되었다.

3) 무기류

무기류는 검과 창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검은 다양한 종류 중에서 서북진의 경우는 환도(環刀)³⁸⁾만 보유하고 있었는데, 수량은 138자루이다. 창(槍)의 경우는 검에 비해 6가지 종류를 보유하고 있었다. <표 5>를



<그림 12> 마름쇠[능철]³⁷⁾

통해서 볼 수 있듯이, 창(槍)의 종류는 창(槍)·왜창(倭槍)·당파창(鎗鈔槍)³⁹⁾·

구창(鉤槍)⁴⁰⁾·협도곤(俠刀棍)⁴¹⁾·거마창(拒馬槍)⁴²⁾ 등이 있었다. 서북진에는 창은 114자루, 왜창은 30자루, 당파창은 19자루, 구창은 24자루, 협도곤은 82자루를 각각 보유하고 있었다. 거마창의 경우는

37) 육군박물관 소장

38) 조선시대에는 긴 외날을 가진 단병기는 대부분 환도라고 하였다.(민승기, 앞의 책, 108쪽)

39) 임진왜란 당시에 조선이 청계광의 『기효신서』를 받아들이면서 도입한 병기이다. 길이는 7척 6촌(159.6cm)이고 무게는 5근(3.2kg)이다. 『무예도보통지』에 중국식 당파와 조선식 당파가 그려져 있는데, 조선식은 좌우의 날을 별도로 만들고 그 가운데에 긴 날을 끼워서 제작했다.(민승기, 앞의 책, 175쪽)

40) 갈고리가 달린 장병기로써 구철(鉤鐵)이라고도 한다.(민승기, 앞의 책, 179쪽)

41) 타격 무기인 곤방에서 비롯된 무기로서, 자루의 길이는 7척, 날의 길이는 5촌(10.5cm)이다.(민승기, 앞의 책, 178쪽)

42) 기마병을 막기 위해 창을 비스듬히 세우고 횡목(橫木)에 꿰어 만든 울타리로, 전쟁 때 성문 밖이나 요해처(要害處) 등 중요한 군사 거점에 설치하여 적의 기병들이 쳐들어오는 것을 막는데 사용하였다.(세종대왕기념사업회, 『한국고전용어사전』 1, 2001, 209쪽)

보유한 수량은 208총인데, 창(槍)의 종류로 분류하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기병의 공격을 막기 위해서 울타리로 만든 것으로 다른 창과 달리 수량을 헤아리는 단위가 총(叢)이라는 점도 눈여겨 볼만하다. 한편, 타격기의 한 종류인 나무 몽둥이인 대봉목(大捧木)도 700개를 보유하고 있었다.

그리고 적의 접근을 막기 위해 성의 주변이나 적이 오는 길목에 뿌려놓는데 사용하는 능철(菱鐵, 마름쇠라고 함)⁴³⁾이 4,998개가 있었다. 같은 시기 길주목이 보유하고 있던 능철이 8천개였는데⁴⁴⁾, 길주목에 소속된 진보(鎭堡) 중 가장 큰 곳답게 서북진이 절반 이상 능철을 보유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표 5〉 무기류 보유 현황

	본진	장군파	사하북	만덕동
환도	111	10	8	9
(장)창	41	41	4	28
왜창	30	-	-	-
당파창	16	-	3	-
구창	16	3	3	2
협도곤	20	17	35	10
거마창	124(叢)	20총	28총	36총

43) 여철(菱鐵)·질러철(疾菱鐵)·철질러(鐵疾菱)이라고도 한다. 끝이 뾰족하며 어떠한 상태로 놓아두어도 한 쪽 끝은 위로 향한다. 도둑이 다니는 길목이나 진지에서 적이 침범해 올 때에 뿌려두면 말에 찢리어 걸어 다닐 수가 없고, 적의 말발에도 찢리면 말이 달릴 수가 없다.(박진철, 「1693년 重記를 통해 본 全羅道 羅州 牧의 軍備 實態」, 『동국사학』46, 동국사학회, 2009, 20쪽 주석 42번 참조)

44) 18세기에 편찬된 『여지도서』에서 함경도 부분은 31책에서 35책까지인데, 그 가운데서 길주목은 32책에 수록되어 있다. 길주목 읍지 33개의 항목 중 「창고(倉庫)」 항목에서 군기고에 수록된 능철의 수량은 8,000개였다.

라. 신호장비류

신호장비류는 군사 신호에 사용되는 것들로, 『손자병법(孫子兵法)』에서는 이를 ‘형(形)⁴⁵⁾과 명(名)⁴⁶⁾’이라고 하였다.⁴⁷⁾ 『병학지남(兵學指南)』에도 “눈으로 보는 것을 ‘형’이라 하고 귀로 듣는 것을 ‘명’이라 하여 기는 색으로 신호하는 것이고 북은 소리로써 신호하는 것으로, 장수와 군사들은 귀로 악기소리를 듣고 깃발로 방향과 색깔을 볼 것이다”라고 하였다. 전장에서의 통신수단이 발달되지 않았던 고대의 전투에서는 깃발과 북, 징 등이 유일한 명령 전달수단이었으며, 따라서 보다 잘 정비된 신호체계를 지닌 부대가 전력을 집중적이고 효율적으로 발휘할 수 있었다.⁴⁸⁾

1) 군기[軍旗, 形]

군기는 각부대장의 소속과 직위를 구분표시하고 장수를 부르고 명령을 내리며 명을 받고 복명할 때 사용하였다.⁴⁹⁾ 서북진이 보유하고 있었던 군기를 보면 다음 <표 6>과 같다.

<표 6> 군기 보유 현황

본진	각색기(各色旗) 43면
장군파	일부사통기(一部四銃旗) 11면 사면문기(四面門旗) 4면 치총기(雉總旗) 8면 사면성장기(四面城長旗) 6면
사하북	각색기 15면 수성조련시각방색기(守城操鍊時各方色旗) 16면 기총기(旗總旗) 1면 대장기(隊長旗) 4면
만덕동	중오방신기(中五方神旗) 5면 오방고초기(五方高招旗) 5면 사방각기(四方角旗) 8면 표미기(豹尾旗) 1면

45) 형은 형체, 즉 눈으로 볼 수 있는 부대표지, 깃발 등에 의한 신호를 말한다.

46) 명은 소리, 즉 북, 나팔, 종 등의 악기에 의한 신호를 말한다.

47) “孫子曰凡治衆如治寡 分數是也 鬪衆如鬪寡 形名是也”(『孫子兵法』, 「兵勢篇」)

48) 민승기, 앞의 책, 391쪽.

49) 육군박물관, 『조선 군사신호체계 形名』, 2014, 7쪽.

경자별비	방방사주순시기(藍紡紗紬巡視旗) 1쌍 남방사주영기(藍紡紗紬令旗) 1쌍 삼승순시기(三升巡視旗) 1쌍 삼승영기(三升令旗) 1쌍
병오별비	남대단순시기(藍大段巡視旗) 1쌍 남대단영기(藍大段令旗) 1쌍
임자별비	오방신기(五方神旗) 5면 각기(角旗) 8면 고초기(高招旗) 5면 표미기(豹尾旗) 1면
을유별비	오방신기 5면 각기 8면 고초기 5면 표미기 1면

서북진에서 보유하고 있던 군비 중 군기류(軍旗類)가 많은 것도 하나의 특징이다. 해유문서에는 별비로 추가된 것을 포함하면 171점에 달하는 각종 군기를 보유하고 있다. 기존에는 각색기 58면을 비롯해서 일부사통기 11면, 문기 4면, 치총기 8면, 성장기 6면, 수성 조련 때 사용하는 각방색기 16면, 기총기 1면, 대장기 4면, 중오방신기 5면, 오방고초기 5면, 사방각기 8면, 표미기 1면이 마련되었다. 그러나 1720년 ‘경자별비’부터 군기가 순시기와 영기가 새롭게 제작되었던 것 같다. 서북진에서 구비하고 있는 여러 종류의 군기의 구체적인 형태나 크기, 그리고 사용 방법 등에 대해서는 이미 알려진 것도 있지만 별도의 연구가 필요한 것도 있다고 생각된다. 현존하는 군기 중에 [그림 13]과 같이 육군박물관에는 순시기를 비롯해서 영기, 고초기, 표미기가 소장되어 있어서 군기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

서북진에서 갖추고 있던 군기를 보면 보군(步軍)을 지휘하는 데 사용하였던 홍(紅)·남(藍)·황(黃)·백(白)·흑(黑) 등 5색의 중오방 신기(神旗)를 비롯해서 권위와 기운을 상징하는 표미기⁵⁰⁾와 순

50) 표범의 꼬리가 두 구비로 꺾어진[折] 것을 그린 것으로, 길이가 7척이며, 깃대의 높이는 9척. 영두(纓頭)·주락(珠絡)·치미가 있다. 일정한 자리에 세워 두어

시기, 명령을 전달하는 영기 등 군사의 지휘에 필요한 군기들이 갖추고 있다.

아울러 군기류의 단위는 주로 ‘면(面)’을 사용하였는데, 순시기와 영기에 대해서만 ‘쌍(雙)’을 사용한 점도 유의할 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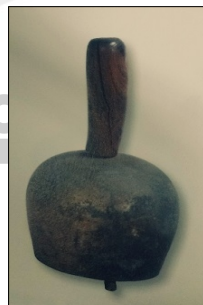
〈그림 13〉 순시기⁵¹⁾



〈그림 14〉 문기⁵²⁾

2) 악기[名]

접전에서 나아감과 물러남, 진퇴의 중요한 움직임을 신호하는 것은 바로 악기이다. 그 중에서 북은 군사들에게 전진을 명령하거나 전투에 임하도록 명령하는 역할을 하므로 악기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서북진에는 중고와 소고 두 종류의 북이 있었으며, 행군 시 말을 타고 치는 북인 비고(鼙鼓)⁵⁴⁾도



〈그림 15〉 솔발⁵³⁾

마음대로 출입을 허락하지 않으며, 기한을 정하여 밖에 나아가게 하고, 기한보다 늦게 들어오는 자를 행형(行刑)하도록 함.(『萬機要覽』「軍政篇」1 形名制度)

51) 육군박물관, 앞의 도록, 43쪽.

52) 육군박물관, 앞의 도록, 29쪽.

53) 육군박물관, 앞의 도록, 74쪽.

54) 육군박물관, 앞의 도록, 65쪽.

2좌를 가지고 있었다. 징은 기본적으로 정지를 명하는데 사용되었는데, 서북진에는 중징[中鐙]과 소징[小鐙] 두 종류가 있었다. 한편, 대형을 통제하는 악기로 나팔(喇叭)⁵⁵⁾과 솔발(棒鉞)⁵⁶⁾이 있는데 서북진 역시 나팔 2쌍과 솔발 2개를 보유하고 있었다.

4. 맺음말

이상에서 함경도 서북진에서 작성된 해유문서를 통하여 18세기 실제 서북진 진영에서 보유하고 있던 군비의 실태를 살펴보았다. 그 내용을 정리하면서 결론에 대신하고자 한다.

해유문서 물목에 기록한 순서는 서북진의 보유 물목이 먼저 기재되어 있고 이어 장군파보·사하북보·덕만동보에서 각각 관리해 오던 물목, 경자(1720)·을사(1725)·병오(1726)·정미(1727)·임자(1732)·을유(1765) 별비(別備)라고 하여 해당시기에 별도로 갖추어 놓은 물목, 그리고 군자창·진홀청·상평청·교제창 등에 실제 남아 있는 군량미순이었다.

서북진 보유 목록은 가장 먼저 인신(印信)과 병부(兵符)이다. 군대를 동원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물건인 까닭에 이관목록을 기재함에 있어서 가장 앞에 작성하였다.

해유문서 이관 목록에 기재된 군비는 궁시류, 화약병기류, 무기류,

55) 나팔은 길이가 긴 금속 관악기로서, 철절(鐵笛)이라고도 한다. 길이는 5척이고 밑은 가늘며 끝은 넓다. 아침에 나팔을 한 번 불면 군사들에게 기사를 하여 밥을 지으라는 뜻이고, 두 번 불면 식사를 하고 각자의 구역으로 집결하라는 것이며, 세 번 불면 장수가 담당 구역으로 나간다는 뜻이다.(박진철, 앞의 논문, 23쪽)

56) 솔발은 대오를 정리하고 원으로 분리하며 단과개의 직선분열에 반대되면 특히 살수의 신호에 쓰였다.(육군박물관, 앞의 도록, 74쪽)

신호장비류를 중심으로 그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궁서류는 활과 화살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활은 흑각궁, 상각궁, 교자궁 3가지 종류가 있으며, 수량면에서는 교자궁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었다. 화살은 장전과 편전 두 종류를 가지고 있는데, 장전은 세장전 1000개를 제외하고 751부 7개를 구비하고 있었다. 편전은 671부 26개를 보유하고 있는데, 서북진이 보유한 편전의 수량을 보면 장전의 수량과 거의 비슷할 정도로 많은 양이어서 함경도 전방에도 편전의 활용도가 높았다.

함경도지역은 선조부터 화기 이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진 지역이며 승자총통과 같은 소총류가 정조대까지도 꾸준히 주조되어 북변에 배치되었는데, 서북진의 경우도 『해유문서』를 분석해 본 결과 화약 병기류는 승자총과 조총과 같은 소총류가 주요 화기로 사용되었다. 아울러 승자총에 사용된 무쇠탄환인 수철환, 조총의 탄환인 연환과 화약의 수량도 함께 기록이 되어 있었다. 연환과 화약의 경우는 기존에는 보유하고 있는 양이 많지 않다가 이후 ‘별비’를 통해 추가되어 새롭게 증강되었다.

무기류는 검과 창이 중심을 이루고 있었다. 검은 환도만 보유하고 있었으며, 창은 창에 비해 6가지 종류를 구비하고 있었다. 그리고 적의 접근을 막기 위해 성의 주변이나 적이 오는 길목에 뿌려놓았던 능철의 경우는 4,998개를 보유하고 있어서, 같은 시기 길주목이 보유하고 있는 능철이 8천개였는데, 길주목에 소속된 진보 중 가장 큰 곳답게 서북진이 절반 이상의 능철을 보유하고 있었다.

군사신호를 위하여 사용되는 신호장비류는 서북진에는 다양한 색깔의 기를 비롯하여 순시기(巡視旗)·영기(令旗)·오방신기(五方神旗)·각기(角旗)·고초기(高招旗)·표미기(豹尾旗)·문기(門旗) 등 171점에 달하는 많은 수량의 군기를 보유하고 있었고, 소리로 신호하는 악기로는 북·징·나팔·솔발 등을 구비하고 있었다.

현존하는 조선시대 해유문서는 100여 건 정도이고 이 중 지방 무관직 관원의 해유문서는 7건으로 매우 적은 수량이다. 연구의 대상이 된 자료는 지방의 무관직 관원의 해유문서 사례이고 더욱이 현전 유일한 함경도 지역의 해유문서 사례로서 18세기 함경도 서북진 지역의 군비 실태를 살펴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사료이다. 이 연구를 통하여 조선시대, 특히 18세기 북방 지역의 군기 현황과 규모, 군비 실태를 실증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원고투고일: 2015.10.11, 심사수정일: 2016.2.12, 게재확정일: 2016.2.19.]

주제어 : 북방지역, 군수품, 함경도, 서북진, 18세기, 해유문서, 해유절차, 첩정, 무관직, 윤빈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부록〉 해유문서에 수록된 물품

	보유물목	수량
1	印信	1
2	兵符	1
3	鐵頭口	2部
4	鐵甲	5部
5	各色頭口	35部
6	黑角弓	9張
7	備局黑角弓	29張
8	常角弓	11張
9	交子弓	71張
10	長箭	64部12介
11	備局長箭	65部
12	別大長箭	28部
13	細長箭	1000介
14	片箭	50部
15	木片箭	115部
16	備局片箭	50部
17	大勝字銃筒	3柄
18	木藥升·木鐵釘·木鎗	各1介
19	皮翎箭	100介
20	水鐵丸	1975介
21	次勝字銃筒	13柄
22	木藥升·木鐵釘·木鎗	各1介
23	水鐵丸	900介
24	小勝字銃筒	6柄
25	木藥升·木鐵釘·木鎗	各1介
26	水鐵丸	300介
27	鳥銃	238柄
28	小百字銃筒	6柄
29	木藥勝·木鐵釘	各1介
30	水鐵丸	205介
31	吐虎箭	70介
32	各字水箭	498介
33	大發火	17介
34	大疾黎砲	1位
35	各字水鐵丸	3861介
36	藥線	96沙里10條5寸半
37	鐵藥升	1介
38	環刀	111柄
39	槍	41柄
40	倭槍	30柄
41	拒馬槍	124叢
42	鎗鉈槍	16柄

43	鈎槍	16柄
44	俠刀棍	20柄
45	各色旗	43面
46	蠡	1坐
47	中鼓	2坐
48	中鈺	1介
49	小鼓	2坐
50	小鈺	4介
51	鉦鉦	1介
52	鼙鼓	1坐
53	桶兒	372介
54	備局桶兒	50介
55	木吹羅	5柄
56	掩心甲	11部
57	陵鐵	2740介
58	軍器鎖金	1介
59	貳盆入里釜子	1坐
60	壹盆入里釜子	1坐
61	鼎子	1坐
62	柳羅韜長箭家俱	30部
63	防牌接圓井	300立
64	陣書冊	2卷
65	小學	4卷
66	痘虐易解放冊	1卷
67	震天雷放炮式冊	2卷
68	經國大典冊	1卷
69	續錄冊	1卷
70	方略冊	1卷
71	行軍須知冊	1卷
72	兵將圖說冊	1卷
73	軍餉造米	1石3斗
74	田米	41石7斗
75	太	5石13斗
76	布弓家	130條
77	軍營	5間
78	鉗鐵	300介
79	膳牌	3立
80	大捧木	300介
81	軍額	791名
82	烽軍	47名
83	哨官旗隊長旗竹	8介
84	帳幕伍浮黃色	長15尺20幅付
85	鐵鋒	30介重12兩式
86	弓絃	136條

87		火繩	361沙里
88		喇叭	1雙
89		伍拾稱子	1介
90		柒斤稱子	1介
91		參斤稱子	1介
92		帳幕	21浮
93	將軍坡來上		
94		黑角弓	2張
95		交子弓	114張
96		常角弓	16張
97		長箭	228部10介
98		備局長箭	15部
99		別大長箭	4部
100		木長箭	9部
101		片箭	175部12介
102		木片箭	35部
103		桶兒	206介
104		柳羅韜	20部
105		藥線	20沙里16條半
106		鎗火箭	23介
107		大勝字銃筒	2柄
108		水鐵丸	150介
109		皮翎箭	10介
110		鐵甲	2部
111		鐵頭口	5部
112		長槍	41柄
113		環刀	10柄
114		鳥銃	24柄
115		備局鳥銃	26柄
116		小勝字銃筒	4柄
117		次勝字銃筒	8柄
118		軍餉田米	35石2斗5刀
119		小鎗	1介
120		防牌	7立
121		貫革	1立
122		小鼓	1坐
123		中鼓	1坐
124		木吹羅	4柄
125		鉦鉞	1介
126		陵鐵	517介
127		一部四銃旗	11面
128		四面門旗	4面
129		雉總旗	8面
130		藤牌	1立

131		鈎槍	3柄
132		俠刀棍	17柄
133		拒馬槍	20叢
134		大捧木	200介
135		四面城長旗	6面
136		帳幕	4部
137		弓絃	132條
138		布弓家	132條
139		燭籠燈	20介
140		喇叭	1雙
141		小隱藏箭	5介
142		伍拾斤稱子	1介
143		柒斤稱子	1介
144		參斤稱子	1介
145	斜下北來上		
146		交子弓	90張
147		黑角弓	6張
148		長箭	154部23介
149		備局長箭	13部
150		片箭	130部25介
151		別大長箭	11部
152		鐵頭口	12部
153		環刀	8柄
154		桶兒	141介
155		吐虎箭	1部12介
156		大勝字銃筒	1柄
157		水鐵丸	625介
158		次勝字銃筒	4柄
159		水鐵丸	1890介
160		小勝字銃筒	1介
161		水鐵丸	1000介
162		別樣字銃筒	1柄
163		水鐵丸	40介
164		馬上銃	4柄
165		宙字銃筒	1柄
166		水鐵	412介
167		雙字銃筒	1柄
168		水鐵丸	257介
169		藥線	130沙里
170		連鎖陵鐵	200介
171		槍	4柄
172		錚	4介
173		鐵甲	6部
174		軍餉田米	23石2斗3升

175	(軍餉)栗	10石
176	(軍餉)牟	18石
177	中鼓	1坐
178	小鼓	2坐
179	各色旗	15面
180	木吹羅	2柄
181	拒馬槍	28叢
182	柳羅韜長弓箭家俱	20部
183	鉛丸櫃·火藥櫃并	9坐
184	布弓家	98條
185	弓絃	98條
186	俠刀棍	35柄
187	鎗鉤槍	3柄
188	鉤槍	3柄
189	大捧木	100介
190	藤牌	2立
191	倭槍	15柄
192	鳥銃	18柄
193	備局鳥銃	14柄
194	守城操鍊時各方色旗	16面
195	旗總旗	1面
196	隊長旗	4面
197	砲手帳幕	3浮
198	喇叭	1雙
199	百斤稱子	1介
200	伍拾斤稱子	1介
201	柒斤稱子	1介
202	三斤稱子	1介
203	德萬洞來上	
204	鐵甲	14部
205	鐵頭口	16部
206	黑角弓	3長
207	常角弓	3張
208	交子弓	67張
209	長箭	158部22介
210	片箭	115部19介
211	掩心甲	6部
212	桶兒	125介
213	防牌	30立
214	吐虎箭	18介
215	中錚	1介
216	小錚	4介
217	中鼓	1坐
218	小鼓	3坐

219	各字銃筒水鐵丸	1432介
220	大勝字銃筒	3柄
221	水鐵丸	1080介
222	木藥升木鐵釘	各1介
223	次勝字銃筒	2柄
224	水鐵丸	860介
225	木藥勝木鐵釘	各1介
226	小勝字銃筒	5柄
227	水鐵丸	968介
228	鐵釘	3介
229	木鐵釘	2介
230	木藥升木鎚	各1介
231	藥線	85沙里8條7寸
232	旗麾	14立
233	槍	28柄
234	鉤槍	2柄
235	環刀	9柄
236	大疾藜砲	1位
237	陵鐵	541介
238	金子	2坐
239	鉸鉸	1介
240	勝字水箭	100介
241	木釘	15介
242	雙字銃筒	1柄
243	水鐵環	140介
244	釵鐵	1100介
245	木吹羅	6柄
246	喇叭	1雙
247	鼎子	1坐
248	鼗鼓	1坐
249	馬鐵	5部
250	柳羅韜	10部
251	拒馬槍	36叢
252	布弓家	73條
253	俠刀棍	10柄
254	大捧木	100介
255	藤牌	1立
256	鳥銃	49柄
257	帳幕	3浮
258	弓絃	73條
259	帳布	36幅付1浮
260	軍糧田米	25石3斗1升8勺
261	(軍糧)太	5石5斗7刀
262	(軍糧)粟	4石8升

263		伍拾斤稱子	1介
264		柒斤稱子	1介
265		參斤稱子	1介
266		鉛環	5901介
267		中五方神旗	5面
268		五方高招旗	5面
269		四方角旗	8面
270		豹尾旗	1面
271		大鼓	4坐
272		大鐃	1介
273		三穴銃	3柄
274		中發火	4柄
275		火藥	44斤11兩8錢5分
276		大鉦鉞	1介
277		新傳煮取放冊	1卷
278		弓弩	40介
279		藥線桶	60介
280	庚子別備		
281		火藥鉛丸入盛櫃子	36坐
282		陵鐵	1000介
283		藍紡紗紬巡視旗	1雙
284		藍紡紗紬令旗	1雙
285		三升巡視旗	1雙
286		三升令旗	1雙
287		軍牢紅氈笠	1雙
288		軍牢所着紅衣	1雙
289	乙巳別備		
290		新傳火砲式冊	1卷
291		手弩	60介
292		勝字機械木	13介
293	丙午別備		
294		手弩弓	40介
295		火藥	88斤1兩8錢
296		藍大段巡視旗	1雙
297		藍大段令旗	1雙
298		軍牢紅氈笠	1雙勇字俱
299		鉛丸	1651介
300	丁未別備		
301		火藥	89斤11兩7錢5分
302		鉛丸	2980介
303		手弩弓	60介
304		南象桶	60介
305	壬子別備		
306		火藥	100斤

307		入盛布袋	2介
308		火藥入盛櫃子	2坐
309		鉛丸	5000介
310		鉛丸入盛櫃子	1坐
311		五方神旗	5面
312		角旗	8面
313		高招旗	5面
314		豹尾旗	1面
315	乙酉別備		
316		五方神旗	5面
317		角旗	8面
318		高招旗	5面
319		豹尾旗	1面
320		火炮式劑藥煮取放冊	1卷
321		喇叭	1雙
322	軍資倉還上實留庫		
323		田米	3石8斗5刀1合9夕9里9分
324		牟	104石1刀6合3里3分
325		稷	38石10斗4刀4合1夕2里7分
326	賑恤廳還上實留庫		
327		田民	15石9斗5刀2合7夕8里6分
328		粟	18石3斗1合9夕9里7分
329	常平廳還上實留庫		
330		耳麥	49石12斗6刀7夕6里
331	營置簿還上實留庫		
332		田米	
333		粟	
334		牟	
335	乙亥賑餘還上實留庫		
336		田米	
337		粟	
338		稷	
339		牟	
340		耳麥	
341	交濟倉還上實留庫		
342		田米	
343		牟	
344		太	
345		粟	
346	軍餉穀秩		
347		田米	
348		造米	
349		太	
350		粟	
351	際		

<ABSTRACT>

Understanding the Military Supplies of Northern Territory in the 18th Century through historical manuscript

Kim, Hyo-kyoung, Lee, Hye-eun

This study was conducted to survey the munitions history of the northern territory and to investigate the military preparedness of that time through haeyu documents of North Hamkyoung Province, written in 18th Century.

It contains the military supply list of the army in the northwestern region, munitions of *bo*, separately secured munitions called *byeolbi*, and rice.

The first items of the military supply list of the army in the northwestern region are *inshin* and *byeongbu* and they seemed to be recorded first because they are the most important military supplies when mobilizing the army. According to the list of items transferred recorded in the haeyu documents, they possessed three types of bows (*heukgakgung*, *sanggakgung*, and *gyojagung*) and two types of arrows (*jangjeon* and *pyeonjeon*). Considering that the amount of *pyeonjeon* owned by the army of the northwestern region was similar to the amount of *jangjeon*, the frontal Unit North Hamgyoung Province is assumed to use *pyeonjeon* a lot. As for explosive weapons, they possessed 62 guns of seven types including *daeseungja-chongtong*. Firearms were widely used in North Hamgyoung Province since the early Joseon Dynasty. It was found that rifles such as *seungja-chongtong* were made and supplied to the northern territory until the era of King Jeongjo. Critical weapons including swords and spears were found to be very small in quantity, compared to bows, arrows and explosive

weapons. As for signal equipments used for military signals, the army of the northwestern region was found to have flags of various colors and musical instruments for sound signals such as drums, gongs, and bugles. In case of defensive equipments, they had shields and caltrops (caltraps). According to the haeyu documents, the army of the northwestern region had 4,998 caltrops which account for more than half of the total quantity of 8,000 caltrops owned by *giljumok*. In addition to weapons, the haeyu documents contain records of clothes, weapon materials, and military books.

Approximately 100 items of the haeyu documents of the Joseon Dynasty are still remained. Among them, only seven documents of regional officials are existed. In this study, the haeyu documents of regional officials, which are very significant materials as the haeyu documents of Hamkyoung Province, were surveyed. This study is significant because the military status, scale, and military preparedness of the northwestern region of the Joseon Dynasty, especially in the 18th century, could be empirically investigated.

Key Words : Northern Territory, Military Supplies, Munitions, Inventory Document, 18th Century, Military officer, Military post, Hamkyoung Province, certificate of discharge, haeyu

1 · 28 상하이사변과 윤봉길의거의 한중공동항전

이 재 령*



1. 들어가는 말
2. 윤봉길의 상하이의거 배경
3. 상하이사변과 윤봉길의 상하이의거
4. 맺음말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1. 들어가는 말

20세기 전반, 한국과 중국은 일본제국주의의 침략을 받았다는 공통점이 있고, 식민지 혹은 반식민지 상황을 탈피하려는 노력도 공유하였다. 이 시기의 한중관계는 지리적 역사적 긴밀성과 문화적 연대감의 바탕 위에 반외세투쟁이란 공통과제를 수행하려는 독립

* 단국대학교 문과대학 중국현대사 전공

운동과 항일전쟁을 매개로 삼아 우호, 협력, 연대의 관계로 발전하였다. 특별히 중국의 인적 물적 지원과 협력은 한국의 독립운동 추진에 큰 힘이 되었다. 그렇지만 중국내 한국독립운동세력에 대한 국민당정부의 이중적 대응이나 임정승인의 보류, 한국광복군의 예속화 등은 우호적인 언론과 물질적 도움에도 불구하고 그 진정성을 의심하게 만들었다.¹⁾ 따라서 겉으로 드러난 한중관계의 이미지보다 일본침략에 맞서 함께 싸운 경험을 통해 그 실상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한국독립운동은 독립전쟁, 무장투쟁, 의열투쟁, 외교활동, 실력양성 등 다양한 방식으로 세계 곳곳에서 이루어졌다. 그 가운데 독립군을 직간접으로 양성하고, 동원하여 일본군과 싸운 무장투쟁과 일제의 침략 원흉을 암살하거나 식민통치기구를 파괴하는 의열투쟁은 중국 관내와 만주지역에서 큰 성과를 거두었고, 중국의 외교·경제·군사 등의 지원과 협력으로 가능하였다. 이 글은 한국독립운동사에서 대표적 의열투쟁인 1932년 4월 29일 윤봉길 의사의 상하이의거를 중심으로 그 배경과 목적, 성격, 의의 등을 검토함으로써 일제강점기 한중 공동항전의 실상을 규명하려고 한다.

한국독립운동사 연구에서 윤봉길의거는 안중근, 이봉창의 의열투쟁과 함께 많은 성과들이 축적되었다. 주로 윤봉길의사의 수학과정과 항일독립론,²⁾ 의거 이전의 농민운동 활동,³⁾ 윤봉길의거의 기획과 실행, 결과 등의 진상을 밝히고, 동시대 언론보도와 의거 후의 현양 자료를 분석하였다.⁴⁾ 이를 통해 윤봉길의사의 생애와 의거의

1) 이재령, 「항전시기(1937~1945) 국공양당의 한국관 - 중앙일보·신화일보를 중심으로-」, 『中國學報』 제56집 (한국중국학회, 2007. 12), 343쪽.

2) 金祥起, 「尹奉吉의 修學과정과 항일독립론」, 『한국근현대사연구』 제67집(2013년 겨울호).

3) 박용옥, 「윤봉길의사의 농촌운동」, 『梅軒學報』 제1집, (매헌윤봉길의사기념사업회 매헌연구원), 2010; 김형목, 「윤봉길의 현실인식과 농촌계몽운동」, 『충청문화연구』 제7집.

전체상을 밝히고 그것의 현실적 의미와 역사적 의의를 부여하는 작업들이 진행되었다.⁵⁾

한국학계는 일반적으로 윤봉길의거가 1931년 만보산사건 이후 악화일로로 걷던 한중간의 불편한 관계를 해소하고 공동항전의 의지를 재확인한 것과 침체의 늪에 빠진 국내외 독립운동을 다시 회복시킨 전환점으로서 큰 의의를 두고 있다.⁶⁾ 한편 중국학계는 신민주주의혁명사의 시각으로 상하이사변을 기술하면서 윤봉길의거에 대해 국제적 우호세력의 지원 중 하나로 이해하였고, 그 과정에서 중국의 기획과 역할을 강조하였다.⁷⁾ 또 다른 중국연구자들은 의거의 준비, 계획단계부터 중국인들이 깊숙이 관련하여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주장하며, 이를 ‘중조우의(中朝友誼)’의 차원에서 크게 부각시키고 있다.⁸⁾ 중국연구자들이 ‘중국역할론’의 근거로 제시한 주요 내용은 중국인 왕야차오(王亞樵)가 한인애국단을 재정적

4) 한상도, 「해방정국기 윤봉길 의거의 현양과 계승의식」, 『梅軒學報』 제1집, 2010; 김상기, 「윤봉길의 상하이의거에 대한 일본 언론의 보도」, 『한국독립운동사연구』 제32집, 2009; 한시준, 「윤봉길의사의 홍구공원의거에 대한 중국신문의 보도」, 『한국독립운동사연구』 제32집, 2009.

5) 윤봉길의거의 개요 및 의의는 윤병석, 「윤봉길의사의 상하이의거와 가나자와 순국」, 『梅軒學報』 제1집, 2010; 신용하, 「윤봉길의사의 상하이의거와 그 역사적 의의」, 같은 책; 신주백, 「상하이사변 전후의 한국민족운동과 윤봉길의거」, 같은 책; 조범래, 「한인애국단과 윤봉길의사」, 같은 책; 신용하, 「윤봉길의사의 상하이의거와 그 역사적 의의」, 같은 책, 참조.

6) 신용하, 위의 글, 60쪽.

7) 李新·陳鐵健, 『中國新民主主義革命史長編 抗日潮流의起伏 1931~1935』, 上海人民出版社, 1993. 219쪽.

8) 중국학계의 연구 성과로는 沐濤·孫科志, 『大韓民國臨時政府在中國』, 上海人民出版社, 1992; 華永正, 「中韓義士巧計炸日首」, 『志苑』, 安徽省地方誌 編纂委員會, 1993; 潘石英 主編, 『深厚的友誼』 世界知識出版社, 1993; 石源華, 「尹奉吉義士與虹口將學」, 『韓國反日獨立運動史論』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98; 沈立行, 「一二八事變後的虹口公園爆炸案」, 『百年紀實』, 2005; 李充陽, 「尹奉吉義舉의歷史性」, 『梅軒學報』 제1집, 2010; 邵雍, 「朝鮮志士與中國社會—尹奉吉義舉爲中心」, 같은 책 등이 있다. 윤봉길의거의 중국측 ‘역할’에 관해서는 金光載, 「尹奉吉의 上海義舉와 ‘중국측 역할」, 『한국독립운동사연구』 33, 1996. 참조.

으로 지원하였고, 의거 전부터 일본 특무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떠돌리는 활동을 했기 때문에 거사가 성공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또한 의거 후 김구 등이 일본경찰의 추격과 포위를 피해 쿤산(昆山)에 있는 왕야차오의 근거지로 도피하여 보호받은 것을 들고 있다.⁹⁾ 그러나 기존 연구에 따르면 한인애국단은 김구의 주도로 조직되었고, 상하이에서 또한 주로 김구, 김홍일, 윤봉길 등의 활동으로 밝혀졌다.¹⁰⁾ 현재 윤봉길의거를 김구 및 한인애국단의 독자적인 투쟁으로 보는 것이 한국학계의 보편적인 시각이다.

이런 견해 차이는 윤봉길의거의 기존 연구가 ‘한중 연대의 회복과 강화’란 결과만을 강조하고, 의거가 기획, 준비되어 실행에 옮겨지는 동안 중국의 내부 상황 및 현실 배경에 관한 총체적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1930년대 한중공동항전의 출발점인 윤봉길의거를 정확히 이해하고 중국의 ‘역할’을 파악하려면 그 시기 중국의 내부모순 및 한국독립운동의 상황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¹¹⁾

본 연구는 기존 성과를 토대로 윤봉길의거의 배경이 된 만보산사건, 한국에서의 중국인배척폭동, 만주사변, 상하이사변의 내용 및 그것이 한중관계와 한국독립운동에 미친 영향을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상하이에 머물며 의열투쟁을 주도한 김구나 여기에 호응하여 사생취의(捨生取義)의 길을 가려던 윤봉길에게 일본의 침략행위와 중국의 대응이 직간접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검토할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윤봉길의거를 통해 한중간의 상호인식과 연대관계가 어떻게 변하였는가를 추적할 것이다. 요컨대 상하이의거의 배경과

9) 華永正, 위의 글, 7~8쪽; 石源華, 위의 글, 270쪽; 沐濤·孫科志, 앞의 책, 79~80쪽.

10) 金九나 한인애국단 자료에 王亞樵의 이름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중국논문에서 주장하는 王亞樵와 김구의 관계는 王亞樵와 남화한인청년연맹의 관계로 판단하고 있다.(김광재, 위의 글, 38쪽)

11) 신용하, 앞의 글, 37쪽.

실행 및 거사 이후의 반향을 정리하여 윤봉길의거가 갖는 한중 공동항전의 실체와 의미를 이해할 것이다.

2. 윤봉길의 상하이의거 배경

가. 윤봉길의 중국망명

윤봉길은 1908년 5월 19일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시량리에서 부친 윤항(尹瓊)과 모친 김원상(金元祥) 사이에서 3남 2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7살이 되던 해에 큰 아버지 윤경(尹炯)에게 『천자문』·『동몽선습』·『소학』 등 한문을 수학하였다. 그는 11살이 되던 1918년 향리에 있는 덕산공립보통학교에 입학하여 신학문을 배우기 시작했다. 그가 이 학교를 다니면서 일제의 식민교육에 회의를 느낄 무렵 3·1운동이 일어나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예산에서도 3월 3일 독립만세운동이 일어났고, 윤봉길은 덕산장터에서 3·1만세운동을 직접 목격한 이후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결국 그는 식민지교육이 강요되는 공립보통학교 생활을 포기하고 부모님의 양해 하에 최병대(崔秉大)선생 문하에서 다시 한학을 배웠다. 아울러 3·1운동 이후 일제의 기만적인 ‘문화통치’ 아래 부분적인 언론 자유가 허용되면서 간행된 《동아일보》·《조선일보》등의 신문과 『개벽』 잡지 등을 통해 신학문에 대한 갈증을 해결하였다. 윤봉길은 새로운 학문에 대한 열정으로 돈을 아껴 예산 읍내에서 새로운 잡지 등을 구해 정독하는가 하면, 동생 남의(南儀)에게 수시로 부탁하여 새로운 서적을 구해 오도록 하여 정독하였다. 14살이 되던 1921년부터 윤봉길은 오치서숙(烏峙書塾)이라는 서당에서 한학을 배웠다. 그는 유학자 매곡(梅谷) 성주록(成周錄)의 문하에서 사서삼경, 고문

진보, 국조명신록 등을 배우고 익히며, 세상을 보는 새로운 눈을 뜨게 되었다.¹²⁾ 이렇듯 윤봉길의 유년기 학습활동은 식민지 제도권 교육에서 벗어난 자유로운 분위기 아래 한학과 신학문을 병행하였다. 특히 그는 신문·잡지와 각종 서적을 통해 현실을 보는 새로운 눈을 뜨게 되었다.

윤봉길은 17살이 되던 1924년에 서당의 훈장이 되어 어린 아이들을 가르쳤고, 아울러 농촌계몽운동을 추진하였다. 그는 고향 시량리에서 문맹퇴치를 위한 야학을 시작으로 점차 농촌계몽운동과 농촌부흥운동을 전개하는 등 농민운동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 이 과정에서 농민운동의 교재를 저술하고, 월진회나 독서회 등을 운영하며 고향의 청년·농민들에게 민족의식을 고취시키고자 노력하였다. 이런 활동은 일제의 주요 감시대상이 되었고, 식민지 조국의 현실을 고민하던 중 마침내 1930년 3월 농민운동의 결실을 보려면 먼저 조국의 독립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결심을 하고 망명길에 올랐다.¹³⁾

윤봉길은 중국망명을 결심하면서 스승 성주록의 권유로 가입했던 유교부식회 회원들이 다수 참여하고 있던 상하이 임시정부를 목적으로 삼았다.¹⁴⁾ 1930년 3월 6일 윤봉길은 “사내 대장부는 집을 나가 뜻을 이루기 전에는 살아서 돌아오지 않는다(丈夫出家生不還)”란 글을 남기고 망명길에 올라 이틀 뒤 선천(宣川)에서 피검되어 10여 일가량 구금되었다가 3월 31일 압록강을 건너 안동에서 기선을 타고 4월 상순 중국 칭다오(靑島)에 도착하였다. 이곳에서 한인이 경영하는 음식점인 송죽당(松竹堂) 주인의 소개로 평텐(奉天)로 중원세탁점에서 일하였다. 이듬해 1931년 4월 3일 윤봉길은 칭다오에서 상하이로 떠나 한 달가량의 긴 여정 끝에 5월 8일 상

12) 윤봉길의사의 학습 및 활동이력은 조범래, 앞의 책, 159~163쪽 참조.

13) 조범래, 위의 책, 185쪽.

14) 김상기, 앞의 글, 8~10쪽.

하이에 도착하여 곧 프랑스 조계의 대한인교민단 사무소를 찾아 가서 김구·김동우 등과 만나 독립운동에 참여할 뜻을 전하였다.¹⁵⁾

윤봉길은 상하이로 가는 도중 모친에게 보낸 안부편지를 통해 일제의 탄압 속에서 시들어가는 조국강산의 동포를 보고만 있을 수 없어 사랑하는 부모와 처자를 두고 상하이를 향해 떠난다고 밝히고 있다.¹⁶⁾ 그는 17, 8세부터 신문·잡지를 열독하였는데 “조선은 고유의 문화를 가지고 있으며, 자력으로 훌륭하게 통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째서 일본에게 복종하고 그 통치 아래 있어야 하는가? 세계 문명이 진보하는 오늘날 타국에 합병되어 있는 것은 치욕이라는 생각을 품기에 이르렀다”고 하여 이 무렵부터 독립운동의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 그 후 자신이 추진하고 있던 농민운동의 한계를 느끼고 신문지상에서 상하이에 독립운동 기관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그곳으로 가서 한국독립을 위하여 활동하려고 중국으로 떠났다.¹⁷⁾ 청년시절부터 윤봉길은 주로 신문·잡지를 통해 국내외 정세와 사회현실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임시정부가 상하이에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되어 망명을 단행한 것이다.

윤봉길은 상하이에 도착한 후 생활을 위해 먼저 교포 박진(朴震)이 경영하는 중국종품공사(中國鬐品公司)에 취직하였다. 이곳은 말총으로 모자나 생활용품 등을 만드는 공장인데 윤봉길은 한인 노동자 17명으로 한인공우친목회(韓人工友親睦會)를 결성하고 회장으로 활동하였다.¹⁸⁾ 그가 이곳에 근무하는 동안 매주 1회씩 공장을 찾아온 김구를 중심으로 다른 노동자들과 함께 시국문제에 대해 토론하였다. 그뿐 아니라 윤봉길은 사적으로 김구와 수차례 만나 서로

15) 內務省保安課, 「上海=於ケル尹奉吉爆彈事件顛末」(昭和 7年 7月), 매헌윤봉길전 집편찬위원회 편, 『매헌윤봉길전집 제2권 상하이의거와 순국』, 매헌윤봉길의사기념사업회, 2012. 524쪽.

16) 매헌윤봉길의사기념사업회, 『매헌충의록』, 1982. 123쪽; 조범래, 위의 책, 188~89쪽

17) 「上海=於ケル尹奉吉爆彈事件顛末」(昭和 7年 7月), 위의 책, 519쪽.

18) 조범래, 위의 책, 191~94쪽.

이야기를 나누면서 자신이 상하이에 온 목적을 밝히고, 이봉창 의사의 도쿄의거와 같은 일이 필요할 때 자신이 담당하겠다고 자원하였다.¹⁹⁾

나. 만보산사건과 한국에서의 중국인배척폭동

윤봉길이 상하이에 도착한 1931년 5월은 마침 일본이 만주침략을 실행하기 위하여 구실을 만들고자 일으킨 만보산사건이 시작된 시기였다.²⁰⁾ 만보산은 창춘(長春)시 북쪽 30km에 위치한 창춘현 3구지역으로 중국정부가 완전하게 관할하고 있는 땅이었다. 그런데 1931년 4월에 장농도전공사(長農稻田公司)의 지배인인 하오용더(郝永德)가 만보산지구의 땅 500경을 10년 동안 빌리기로 한 후 현정부의 허락도 받지 않고, 이 땅을 한국인들에게 빌려주어 농사를 짓게 하였다. 약 180여 명의 한국인들은 이 땅을 경작하기 위하여 만보산 부근의 이통허(伊通河)에 독을 쌓고 폭과 깊이가 3장, 길이가 약 20여리 되는 수로를 파게 되었다. 이 때문에 중국인들이 이미 일구어 놓은 땅을 갈라놓게 되고, 또한 많은 땅을 점거하게 되었으며 만일 수로가 범람하면 중국 농민의 농토가 수몰될 위험에 놓이게 되었다. 이에 중국 농민들은 대표를 현정부에 보내 창춘현정부가 나서서 한국인들의 불법적인 활동을 중지시켜 주도록 요청하였다.

현정부는 분규를 피하기 위하여 창춘 주재 일본영사관과 교섭을 벌여 이미 파놓은 곳을 메우고 독 쌓는 일을 중지시켜 주도록 요구하였다. 그러나 일본영사는 이를 거절하였을 뿐만 아니라 더욱 많은 한국인들을 끌어들였고, 이 일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5, 60여 명의

19) 「上海=於ケル尹奉吉爆彈事件顛末」(昭和 7年 7月), 앞의 책, 518쪽.

20) 만보산사건의 개요는 신승하, 『중국현대사』, 대명출판사, 1992. 292~93. 참조.

사복 경찰을 동원하였다. 결국, 7월 1일 만보산일대의 농민 500여 명은 공사가 다 끝나가는 것을 보고 자발적으로 만들어진 수로를 메우기 시작하여 쌍방은 충돌하게 되었다. 이 때문에 중국 농민들이 다수 부상당하고 일본은 이 충돌을 이용하여 북만주지역으로 출병하는 기회를 만들고자 하였다. 그러므로 일본은 한국의 각 신문에 이 사실을 확대 과장하여 보도하게 함으로써 국내에서 중국인 배척폭동이 크게 일어나 많은 중국인이 살해되고 부상당하였다.²¹⁾

이후 중국에서 만보산사건과 한국에서의 중국인배척폭동은 주요 현안으로 사건배경, 사태추이, 처리방안 등을 놓고 논란이 뜨거웠다.²²⁾ 국민당은 만보산에서 처음 발생한 충돌과 희생에 대해 소극적이었지만 한국에서의 중국인배척폭동은 신속히 대응방안을 모색하였다. 국민당은 이 사건을 중국인과 한국인 사이에 나쁜 감정을 조장하여 중국인배척폭동을 일으킨 일본의 의도된 도발행위로 보았다.²³⁾ 난징정부는 배일여론을 수용하면서 원만한 사태해결을 위해 국제법에 의한 외교적 항의와 교섭절충 및 경제단교 등의 외교조치를 신속히 취하였다.²⁴⁾

공산당은 일제의 계획적 조직적 음모로 인식했지만 그 목적이 단순한 대륙침략에 있기보다 중국에서 급속히 발전해 가는 반제투쟁을 진압하고 한국인과 중국인 사이의 적대적 민족 감정을 조장하여

21) 만보산사건과 한국에서의 중국인배척폭동은 朴永錫, 『萬寶山事件研究』, 아세아문화사, 1978; 閔斗基, 「萬寶山事件(1931)과 韓國言論의 對應-相異한 民族主義의 時角-」, 『東洋史學研究』 제65집(1999. 1), 참조.

22) 이재령, 「남경국민정부시기 중국의 한국인식 - 만보산사건에 관한 여론동향을 중심으로-」, 『중국사연구』 제31집 (중국사학회, 2004. 8), 270~74쪽.

23) 「蔡委員元培在中央黨部紀念週對萬寶山事件及朝鮮排華慘案之重要報告」, 『萬寶山事件及朝鮮排華慘案』, 中國國民黨中央執行委員會宣傳部印, 南京, 1931, 2쪽; 「中央宣傳部對萬寶山事件及朝鮮排華慘案宣傳大綱」 같은 책, 12쪽.

24) 「哈爾濱黨務特派員辦事處通電」, 『萬寶山事件及朝鮮排華慘案』, 77쪽.

양자의 반일 공동투쟁전선을 파괴하는데 있다고 보았다.²⁵⁾ 민간단체들도 곧바로 일본배척운동을 전개했는데 주요 도시마다 상인·학생·문화인을 중심으로 조직된 각계반일원교구국회(各界反日援僑救國會), 대일원교위원회(對日援僑委員會) 등이 앞 다투어 배일성명을 발표하였고, 경제단교가 가장 일반적 수단으로 동원되었다.²⁶⁾

중국신문들은 이미 1931년 6월 중엽부터 만보산지역의 만주이주한인과 중국농민들 사이의 갈등을 보도하기 시작하였다. 본래 만보산 일대는 좋은 농지조건으로 만주한인과 중국농민의 관심이 쏠렸기 때문에 충돌이 잦아 일찍부터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²⁷⁾ 결국 7월 1일 만보산지역에서 무력충돌이 발생하고, 곧이어 터진 한국에서의 중국인배척폭동은 7월 한 달 동안 중국의 주요 신문지면을 채웠다.²⁸⁾ 1931년 5월 8일 상하이에 도착한 윤봉길은 중국신문 및 거류한인과의 교류를 통해 만보산사건에 관한 소식을 접하였고,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였다.²⁹⁾

중국신문의 만보산사건에 관한 기사 내용과 논조는 운영주체와 정치성향에 따라 달랐다. 먼저 국민당 관영지인 《중앙일보》는 책임

25) 孫乘會, 「萬寶山事件과 中國共產黨」, 『東洋史學研究』 제83집, 22쪽.

26) 『外交部稿萬寶山案』 373-1 20(目錄統一編號 172-1 案卷編號 1072) · 『外交部稿萬寶山案』 373-1 第6冊(目錄統一編號 172-1 案卷編號 1072-6), 臺灣國史館 所藏.

27) 長春韓人占種案始末, 《中央日報》(1931.6.22).

28) 국민당의 해외기관지인 少年中國晨報도 만보산사건에 관하여 7편의 논설과 100여 건의 기사를 썼다. 주요 논설로는 「萬寶山事件及中韓人交惡之解釋」(1931.7.13)·「日本帝國主義者與萬寶山案」(1931.7.15~16)·「國民應急起監視對日外交」(1931.7.30~31)·「日人侵略東北之急進」(1931.8.1)·「哀朝鮮」(1931.8.21) 등이 있다.

29) 당시 중국의 주요 신문은 국민당기관지인 中央日報, 《民國日報》와 上海에서 발행된 《申報》·《時事新報》·《新聞報》·《時報》, 天津의 《大公報》 등이 있었다. 민영언론 중 《대공보》와 《신보》의 역사가 오래되고 영향력도 컸다. 《대공보》는 친국민당 성향인 반면 《신보》는 비관적이었고 판매지역이 전국적으로 가장 넓어 독자층이 광범위하였다. 《신문보》는 상공인 독자층이 두터웠고, 《시보》는 상하이에서 판매부수가 가장 많았으며, 《시사신보》는 비관적 성향이 강하여 학생독자의 환영을 받았다. 袁殊, 「上海報紙之批評」, 張靜慮, 『中國現代出版史料』 乙編, 北京: 中華書局, 1959. 131쪽.

소재와 관련하여 “사건의 원흉은 음흉하고 표독한 일제이고 한국인은 여기에 이용당한 허수아비임으로, 형법으로 말한다면 한국민족은 비록 직접 참여한 정범이지만 일본사람은 뒤로 숨은 원흉”이라고 규정하였다. 그리고 한국민족은 이미 일본에 있어서 “소나 말과 다름없는 자유를 잃은 몸”이기 때문에 이번 사건의 원흉은 일제이지 자유를 잃은 한국민족이 결코 아니라는 주장을 폈다.³⁰⁾ 즉, 현실적으로 식민지 상태인 한국의 암울한 상황과 한계를 지적하면서 일본에 모든 책임을 묻고 있다.

또한 《중앙일보》는 “조선농민들에 대해 역사상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어 조선을 배척할 마음이 없음으로 일을 크게 벌이지 말고 화해하자”라고 하여 공개적으로 타협의지를 표명하였다.³¹⁾ 아울러 일제의 의도된 침략정책에 도구로 혹사당한 한국인에게 연민과 동정을 표시하였고,³²⁾ 다음과 같이 한중 우호관계를 깨트리려는 일본의 책략을 경계하였다.³³⁾

우리는 알고 있다. 조선과 중국이 몇 천 년의 역사관계를 갖고 있고, 문화·풍습·습관 등이 모두 동일하며, 일본은 조선민족이 중국민족이며 조선문화가 중국문화라는 것을 깊이 알고 있다. ……일본은 이 기회를 이용하여 조선인과 중국인 사이에 반감을 일으켜 조선인이 우리를 원수로 생각하게 만드는 것으로, 이번 참사는 바로 일본의 음모가 성공한 것이다.³⁴⁾

《중앙일보》는 식민통치를 받고 있는 한국과 반식민지 상태의 중국은 역사적으로 한 전선에 서있으며 공동투쟁의 동지로 보았다. 즉 “영국·독일·이탈리아·일본·러시아 등이 백색제국주의라면

30) 「哀朝鮮」, 《中央日報》(1931.7.31).

31) 中央社吉林九日電, 《中央日報》(1931.7.11).

32) 「日人欲重演濟南慘案耶?」, 《中央日報》(1931.7.7).

33) 朝鮮暴動已止 政府派汪使赴鮮慰問僑胞, 《中央日報》(1931.7.11).

34) 「打倒日本帝國主義先應充實我們的實力—樓桐孫在南京市黨部的講演」, 《中央日報》(1931.7.21).

중국·한국·안남(베트남)·터키 등은 모두 도마 위의 고기로서 누구에게나 유린당하고 있다”는 것이다.³⁵⁾ 이처럼 중국과 한국은 일본의 압박을 받는 ‘형제의 나라’이기에 한국의 적은 곧 중국의 적이며, 서로의 도움과 협력이 유일한 공존공생의 길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만보산사건은 일종의 집안싸움으로 일본에게 침략의 기회를 주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이해하였다. 그런데 극소수의 우매한 한국인들이 적군과 아군도 분간하지 못한 채 일본의 이간질에 속아서 두 민족 간의 혈육을 희생시키고 있다는 것이다.³⁶⁾

만보산사건 이후 중국의 대한인식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과거 속국이었던 한국인에게마저 무시당하고 폭력대상이 된 것에 대한 당혹감과 자괴감이다. 아래와 같은 텐진(天津)시당부 대표의 발언에서 그런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³⁷⁾

오늘 우리는 침통하게 생각해 봐야 한다. 현재 우리의 환경이 제국주의의 학대를 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동종인의 학대까지 받아야 하는가. 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가. 이번에 한국인은 일본제국주의의 꼬드김에 넘어가 우리 중국인을 2천명 이상이나 참사하였다. ……우리나라 영사관까지 한국농민에 의해 파괴되었다. 이렇게 큰 치욕에 대해 우리나라 국민들은 매우 가슴 아프다.

이 시기의 중국인들은 일본이 한국을 식민지화한 것이나 자신들을 끊임없이 침략하는 것에 대해 국가적 자존심과 위신에 심한 상처를 입었다. 그런 까닭에 중앙일보는 한국민족의 폭력적인 화교배척운동에 대해 이해하면서도 너무나 무의식적으로 불행한 사태를 일으킨 한국인들에 대해 격한 분노와 더불어 깊은 연민을 나타내며 사실상 일본 식민지정책의 선봉대란 인식이 중국인의 보편적 여론

35) 張元, 「由韓人排華問題說到赤白色帝國主義的聯合對華政策」, 《中央日報》(1931.7.19).

36) 「哀朝鮮」, 《中央日報》(1931.7.31).

37) 津市黨部爲萬韓兩案開市民極代表大會 劉不同報告, 《中央日報》(1931.7.20).

이었다.

만보산사건과 관련하여 당시 대표적 민영일간지인 《대공보》나 《신보》의 논조는 관영언론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 국민당에 우호적이던 《대공보》는 의례적 보도에 그치지 않고 사건의 원인규명과 해결방안을 구체적으로 모색하였다.³⁸⁾ 무엇보다 사건배경과 관련해서는 일본의 침략성을 강조하면서도 관영언론과 달리 중국 내부의 문제점 곧, 동북정권의 일관성 없는 한인정책이나 지방 관리의 무능력 등을 심각하게 제기하였다.³⁹⁾

한편 《신보》는 사건배경과 관련하여 일제의 대륙침략정책이란 외부 요인을 지적하면서도 《대공보》와 마찬가지로 내부 요인에 상당한 비중을 두었다. 해결방안도 난징정부의 혁명외교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지만 자국 문제에 관한 치밀한 조사와 연구를 통한 자기 검증으로부터 찾고 있다.⁴⁰⁾ 이런 점은 《중앙일보》가 일본의 침략의도를 반복 거론함으로써 외부요인을 부각시킨 것에 비하여 내부요인을 중시한 것이다.

또한 관영언론은 일본의 만주침략에 따른 정치적 군사적 의도를 강조하였지만 《신보》는 한국의 화교경제에 주목하였다. 즉, 한국화교의 과도한 경제력을 시기 질투한 한국인들이 이미 오래전부터 마음속으로 몰아낼 생각을 하였고, 일본 식민당국에 의해 조장된 측면이 있다고 본 것이다. 따라서 만보산사건과 한국에서의 중국인 배척폭동은 표면상 연루관계에 있지만 실제로는 각각 별도로 배태된

38) 관련논설로는 「東北對外關係之前途」(1931.7.1)·「知彼知己」《大公報》(1931.7.7)·「緊急善後與根本考慮」(1931.7.11)·「再論日本大陸政策」(1931.7.12)·「日本答覆朝鮮排華案抗議」(1931.7.15)·「幣原認禍源在宣傳」(1931.7.18)·「朝鮮案與寧案韓案比較觀」《大公報》(1931.7.28) 등 모두 14편이 있다.

39) 「萬寶山案究竟如何」《大公報》(1931.8.5).

40) 「嗚呼滿蒙」, 《申報》(1931.7.10); 「人侮與自侮(1)」, 《申報》(1931.7.14); 「研究東北(1)」, 《申報》(1931.7.16).

요인이 있다는 것이다.⁴¹⁾ 그런 가운데 《신보》는 이 사건으로 인한 모든 처벌과 배상은 일본에게 따질 것이므로 한국인은 사건 전말에 관한 증거를 공개하여 중일교섭의 근거로 삼을 수 있도록 협조해주기를 바랐다. 또한 무식한 폭도들을 지도, 교육함으로써 사건의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⁴²⁾

《신보》는 당시 유행하던 한국인의 만주 이주에 대하여 일본의 힘만 믿고 탈법행위를 저지르며 중국농민을 협박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더욱이 불량한 한국인들은 공산당을 이용하여 국경을 어지럽히고 토비세력까지 이용하여 상인을 약탈하며 중국인을 협박하고 있다면서 식민지란 이유만으로 한국인이 압박받는다고 동정할 필요는 없다고 주장하였다.⁴³⁾ 이처럼 만보산사건을 둘러싼 《신보》의 한국관에는 부정적 인식이 매우 강하였고, 만주거류 한국인은 외교 및 경제적으로 중국 농민과 갈등, 충돌을 일으키는 분쟁요인의 이미지가 강하였다. 그러므로 《신보》와 《대공보》는 정도의 차이일 뿐 한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강하였다. 만보산사건 이후 중국 언론은 항일투쟁이란 현실적 필요에 의해 우호와 연대를 내세웠지만 식민지 한국과 한국인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크게 확산된 것이다.

만보산사건의 처리를 위해 난징정부는 일본과 외교교섭을 하면서 최저 요구가 관철되도록 민간조직을 주축으로 경제단교를 실행하고, 동북지역에 대한 일본의 특수 권익을 취소시키려 했지만 모두 무산되었다. 애당초 일본은 무력에 의한 만주·몽고지역의 진출계획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외교절충으로 조용히 사태를 마무리 지으려던 국민당의 대응은 무기력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과정에서 일제의 대륙침략 수단으로 이용된 만주이민의 당사자이며 중국인배척

41) 「再論萬寶山案」, 《申報》(1931.7.7).

42) 「告朝鮮民族」, 《中央日報》(1931.7.14).

43) 「異哉所爲被壓迫」, 《申報》(1931.7.8).

폭동의 가해자인 한국인에 대한 중국정부와 중국인들의 인식은 과거와 사뭇 다른 양상을 띠었다.⁴⁴⁾ 더욱이 일제가 만보산사건을 조작하여 한국에서의 중국인배척폭동을 유발시킴으로써 한국과 중국 양 민족을 이간시키는데 성공하여 한국에 대한 중국인의 나쁜 감정과 적대적 행동이 확산되었다. 당시 중국인의 험한 감정은 상하이거류 한인이 겪은 아래와 같은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⁴⁵⁾

당지(상하이-인용자) 거주 한인 김재훈(金在勳)이란 자가 본년(1932년-인용자) 1월경부터 상하이시 고담로 일본고등여학교 부근에 공장을 설치하고 오로지 중국 상대로 한국 개성인삼의 상거래를 하고 있었던 바, 본인이 말하는 바에 의하면 거래 계약중인 중국인 단골처로부터 시상회의 협정에 의해 부득이 하다고 하며 본월 14일 계약을 파기하고 상거래를 거절해 온 것이 8건에 달해 상당한 손해를 입었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만보산사건과 한국에서의 중국인배척폭동의 여파로 한중관계가 크게 악화되었을 뿐 아니라 중국인들 사이에서 한국인에 대한 증오와 적대행동이 만연하게 되었다. 당시 국외 한국독립운동의 가장 큰 거점은 만주와 중국 관내로, 중국 당국과 중국인들의 묵인과 이해, 협조 없이는 활동이 곤란하였다. 그런데 만보산사건 이후 중국인들의 한국독립운동에 대한 묵인이나 협조는 기대하기 어려웠고, 오히려 한국인들을 극도로 증오하게 되었다. 이런 분위기에서 중국내 한국독립운동은 거의 불가능하게 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다. 만주사변과 중국의 대응

일제의 의도대로 만보산사건이 한중 공동연대에 심한 균열을

44) 이재령, 앞의 글(2004), 378쪽.

45) 『韓國民族運動史料(中國篇)』, 대한민국국회도서관, 1976, 688쪽.

가져온 후 곧바로 9·18 만주침략이 발생하였다. 난징정부의 초공전에 맞서 공산당 홍군의 저항이 한창이던 1931년 9월 18일 야간에 평톈 선양(瀋陽) 북쪽의 남만주철도 류타오거우(柳條溝) 부근의 노선이 폭파된 것을 계기로 관동군은 일제히 북대영(北大營) 및 그 밖의 동북변방군에 대한 공격을 개시하였다. 중국측이 저항 없이 철수했기 때문에 이튿날 19일에는 관동군이 선양시 전체를 점령하였다. 이로부터 불과 1주일 이내에 일본군은 30여 곳을 점령하고 랴오닝(遼寧省)·지린성(吉林省)의 대부분이 일본의 수중에 들어갔다. 관동군은 공격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11월에는 헤이룽지양성으로 진공하여 성정부 주석 마잔산(馬占山) 군대의 저항을 물리치고 성을 점령했으며, 1932년 1월 초에는 금주도 점령했다. 이렇게 하여 러허성(熱河省)을 제외한 만주 전토가 거의 일본의 지배하에 들어갔다.⁴⁶⁾

9월 22일 일본관동군 참모부는 참모장 미야케 코지(三宅光治)의 획책아래 만주에 독립 국가를 세워 통치하려는 「만몽문제해결안」을 작성하였다. 그리하여 “우리나라(일본)의 지지를 받고 동북 4성 및 몽고를 영역으로 하며 선통제(宣統帝)를 영수로 하는 중국 정권”을 수립하기로 결의하였다.⁴⁷⁾ 이후 관동군은 세이온 이타가키(板垣征四郎) 참모를 중심으로 각지의 특무기관과 일부 대륙낭인들을 이용하여 정략적인 모략을 전개하며 만주 각 지역에서 괴뢰정권을 수립하였다. 일본은 1932년 1월 6일 「중국문제처리방침요강」을 제정하고 각 성의 괴뢰정권을 병합하여 일본의 조종 아래에 둘 수 있는 새로운 통일정권을 수립하기로 하였다.⁴⁸⁾ 그리고 2월 16일 동북 3성이 선양에서 연석회의를 소집하여 동북행정위원회를 성립시키고 국민당정부와 결별 및 동북지역의 완전 독립을 선포하였다. 2월

46) 姫田光義・阿部治平 外著, 『中國近現代史』, 일월서각, 1985. 284쪽.

47) 유신순 지음 신승하 외 옮김, 『만주사변기의 중일외교사』 고려원, 1994, 265쪽.

48) 유신순, 같은 책, 272쪽.

25일에는 정식으로 푸이(溥儀)를 집정으로 하는 정부를 수립하여 만주국이라 국호를 정하고 대동(大同)이란 연호와 창춘을 수도로 정하였다. 그런데 일본인이 고문이나 중요 요직을 맡고 있어서 모든 일을 일본인이 처리하였다.⁴⁹⁾

만주사변은 일본의 중국대륙 침략을 알리는 것으로, 반장세력 및 공산당과 싸우고 있던 난징정부에 큰 타격을 주었다. 동시에 중국인의 위기감과 애국심을 자극하였으며, 중국내 한국독립운동세력에게는 위기이자 항전의 새로운 기회였다. 대외적 위기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난징정부는 장제스의 ‘선안내후양외(先安內後攘外)’정책으로 대응하며 초공전과 내정 개혁에 주력하였다. 일본군에 대해서는 저항하지 않고 직접 교섭도 하지 않으며 정면충돌을 피하였다.⁵⁰⁾ 만보산사건의 후유증으로 중국내 대한감정이 악화되었고, 일본의 만주침략이후 대응책을 놓고 중국내 여론이 분분하던 때 윤봉길은 중국에서 직접 목격하거나 신문을 통해 상황을 상세히 알 수 있었다.

당시 중국 언론의 반응은 각양각색으로, 정부정책을 옹호하여 ‘안내’를 강조한 부류와 ‘양외’에 치중하여 즉시 항일을 주장하는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다. 관영언론은 당연히 전자에 속하였고 민영일간지 중 《대공보》가 대표적으로 정부정책을 지지하며 협조관계를 유지하였다.⁵¹⁾ 후자를 대표한 민영신문으로는 《신보》를 들 수 있는데 만주사변 개시부터 항일여론을 주도하여 발행인 스량차이(史量才)가 암살당할 때까지 계속되었다.

발행부수가 가장 많던 《신보》는 만주사변이 발생하기 전인 8월부터 이미 일본의 동북지방 침략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그 요지는

49) 신승하, 위의 책, 297~98쪽.

50) 장제스는 만주의 만보산사건 이후 「국민에게 고하는 글」을 발표하고 “攘外는 먼저 安內를 하여야 가능하며, 썩은 것을 제거하여야 해독을 막을 수 있다”고 하여 이른바 先安內後攘外정책을 처음으로 표방하였다. 『蔣總統言論彙編』第21卷, 臺北: 正中書局, 1957, 14쪽.

51) 「今日何日」, 《大公報》(1931.11.16)

일본이 전통적으로 중국 대륙을 차지하려는 정책을 가졌는데 먼저 동북 3성을 빼앗은 후 화북으로 진입할 것이라면서 일본의 침략을 저지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주장이었다. 마침내 일본 침략군이 동북 지역으로 들어오자 《신보》는 마잔산 군대의 용감한 저항을 대대적으로 보도하는 한편 장제스의 부저항정책을 비판하고, “현재 정부의 당면과제는 첫째, 어떻게 남의 나라로부터 모욕을 막아낼 것인가? 둘째, 어떻게 국내의 평화를 이룰 것인가”라고 하여 ‘적극 대응론’을 폈다.⁵²⁾

《신보》는 사건 진상을 빠르고 적극적으로 보도하면서 가장 먼저 ‘내전중지’를 촉구하고 공동항일의 중요성을 언급하였다.⁵³⁾ 또한 항일구국을 위해서는 민권의 제고, 청렴한 정부의 건설, 민중의 무장, 실업계획의 실행, 교육개혁, 재해지역의 부흥 등이 필요하다면서 “최근 당권이 민권을 초월하여 민권을 진압하고 차츰 당권과 민권의 다툼이 형성되고 있다.”라고 하여 국민당 일당지배의 혼정체제를 비판하고 나섰다.⁵⁴⁾ 그리고 만주문제를 국제연맹에 맡기려는 국민당의 타협적인 양보정책을 비판하면서 민중들의 항일활동을 적극 지지, 보도하였다. 이처럼 《신보》는 만주사변 이후 국민당의 부저항정책과 항일운동 탄압에 반대하면서 정치적으로 비판 성향을 강하게 띠었다.

한편 텐진에서 발행된 《대공보》는 만주사변 직전에 일어난 제남 사건, 만보산사건, 대수해, 나가무라(中村)사건 등을 보도하면서 이미 일본의 침략 가능성을 여러 차례 경고하였다.⁵⁵⁾ 실제로 만주사변이 터지자 《대공보》는 일본의 침략행위와 국민당의 준비 부족을

52) 「中央發表 告全國同胞書」(1931.9.23), 蔣主席 接見請願學生, 《申報》(1931.9.30).

53) 一致對外究待何時, 《申報》(1931.10.5.).

54) 「抗日救國六大主張」, 《申報》(1931.10.10).

55) 「東北對外關係之前途」(1931.7.1); 「萬寶山事件之嚴重化」(1931.7.5); 「空前水災中之外交危機」(1931.9.4); 「中村事件」, 《大公報》(1931.9.10).

함께 비판하면서 신중한 대처를 주장하였다.⁵⁶⁾ 사변발생 후 3일 만에 장지환(張季鸞)·후정즈(胡政之)는 편집회의를 소집하고 중일 문제는 하루아침에 일어난 것이 아니므로 쌍방의 역량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국민들에게 “부끄러움을 알려주어 싸우도록 한다[明耻敎戰]”는 방침을 내세웠다.⁵⁷⁾ 이러한 언론방침은 과거 일본의 중국침략사와 대일전쟁에 필요한 구체적인 준비상황을 밝히는 것으로 《대공보》 지면에 ‘60년 이래 중국과 일본’이란 제목으로 오랜 기간 연재되었다.⁵⁸⁾ 또한 즉각적인 대일결전에는 반대하고 “참고 견디며 장기간에 걸쳐 준비한 후 지구전으로 적을 쳐부수자”라는 ‘항일 준비론’을 주장하였다.⁵⁹⁾ 그러나 만주사변 이후 중국 여론은 보편적으로 국민당의 소극적인 부저항정책에 비판적이었고, 일본의 본격적인 침략을 우려한 가운데 항일여론이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갔다.

중국내 한국독립운동 조직들은 만보산사건과 만주 침략에 뒤이은 만주국 성립으로 활동여건이 더욱 불리하게 되었다. 중국인의 ‘혐한(嫌韓)’ 감정뿐만 아니라 만주사변으로 중국여론이 분열된 상황에서 일제 침략의 선봉대처럼 행동한 한인에 대한 중국의 독립운동 지원과 협조는 기대할 수 없었다. 만보산사건과 만주사변 이후 악화된 한중관계와 극도로 침체된 한국독립운동의 상황에 대해 김구는 『백범일지』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⁶⁰⁾

56) 「望軍政各方大覺悟」, 《大公報》(1931.10.6).

57) 「明耻敎戰」, 《大公報》(1931.10.7).

58) 이 글은 王藝生이 썼는데 1932년 1월 11일부터 2년 반 동안 계속 연재되었고, 나중에 단행본으로 출간되었다. 王芝琛, 「大公報史略」, 王芝琛·劉自立, 앞의 책, 18쪽.

59) 「轉禍爲福在共同努力」, 《大公報》(1931.11.26). 항일 준비론의 내용은 첫째, 정치 개방으로 국민역량을 통합할 것. 둘째, 정치·외교 강령을 확정할 것. 셋째, 정부와 국민의 自中之亂에 주의할 것 등 모두 내부 결속을 다지는데 주력한 것이다. 「論政治大計」, 《大公報》(1932.1.15).

60) 김구 저, 도진순 주해, 『백범일지』, 돌베개, 1997, 327쪽.

1년 전부터 우리 임시정부에서는 운동이 매우 침체한즉, 군사공작을 못한다면 테러공작이라도 하는 것이 절대 필요하게 되었다. 그런데 왜놈이 중한 두 민족의 감정을 악화시키기 위해 이른바 ‘만보산사건’을 날조하여, 조선에서 중국인 대학살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다. 인천·평양·경성·원산 등 각지에서 조선인 무뢰배가 일본인의 사주를 받아 중국인을 닥치는 대로 타살하였다. 또한 만주에서는 1931년 왜가 9·18만주사변을 일으켜 중국이 굴욕적으로 왜와 강화하였다. 이 전쟁 중에 한인 부랑자들이 왜의 권세를 빌려 중국인에게 극단의 악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중국인의 무식계급은 물론 유식계급 인사들까지 종종 민족감정을 말하는 자를 보게 되었다. 사태가 이에 이르니 우리 정부에서는 지극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김구를 중심으로 한국독립운동조직은 자신들의 존재감을 보여줌으로써 중국과의 공동항전을 이끌어내야 될 필요성이 절박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만보산사건과 한국에서의 중국인배척폭동, 만주사변으로 이어진 일본의 이간질 및 중국 침략행위를 끊을 방책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들이 동원할 수 있는 투쟁역량은 무장투쟁이나 외교독립이 아닌 최소의 희생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의열투쟁뿐이었다. 이처럼 열악한 조건에 맞서 임시정부가 모색한 새로운 대응책은 1931년 11월 한인애국단의 창립이었다. 임시정부는 독립운동을 고양시키고 만보산사건으로 야기된 중국인의 반한 감정의 해결과 일본군의 만주침략으로 조성된 ‘새로운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 항일특무부대를 조직한 것이다. 당시 일본정보당국은 9·18사변 이후 임시정부의 동향을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다.⁶¹⁾

소화 6년 9월 만주사변 후 한국임시정부에서는 누차 국무원 회의를 개최하고 협박의 결과 임시정부의 퇴세(頹勢)를 만회하고 중국민중의 항일기세가 오른 것을 기회로 특무대라는 기관을 설(設)하고 불원 북경여행의 예정이었던

61) 『櫻田門外 및 新公園投彈義舉에 대한 供述概要』, 국사편찬위원회 편, 『韓國獨立運動史』 資料 2, 臨政編 II, 1971. 256쪽.

내전(內田) 만철총재를 암살하기로 결정하고 김구를 대장으로 임명하고 차(此)의 계획 병(並) 실행의 일절(一切)을 일임함과 께히 임시정부 자금수입의 반액을 특무대에 지급하기로 하고, ……

만주사변 이후 임시정부는 어떤 형태로든 중국의 대일항전을 도와 공동연대를 확고히 보여줄 필요가 있었다. 그렇게 조직된 한인 애국단의 특무활동은 강대한 일제에 맞서기 위한 약자의 선택이었으며, 독립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장기간의 침체국면을 맞이하여 군사력 양성과 전쟁비용을 조달할 수 없었던 임시정부의 유일한 방략이었다.⁶²⁾ 그리고 김구는 아래와 같이 임시정부로부터 일인 고관의 처단, 관공서 파괴 등 특무활동에 대한 전권을 부여받았다.⁶³⁾

상하이의 길거리에서도 중·한 노동자들 간에 종종 충돌이 일어나던 때, 나는 정부 국무회의에서 한인애국단을 조직하여 암살·파괴 등의 공작을 실행하게 되었다. 공작에 사용하는 돈과 인물의 출처에 대해서는 일제의 전권을 위임받았고, 다만 성공·실패의 결과는 보고하라는 특권을 얻었다.

이러한 배경과 사정으로 결성된 한인애국단은 첫 번째 거사로 1932년 1월 8일 이봉창의사의 도쿄의거를 결행하였다. 이 의거는 단발성 투쟁이 아니라 임시정부가 선택한 여러 방략 가운데 하나였다. 그 후 의열투쟁은 1932년 2월 12일 상하이 주둔 일본군사령부 폭파계획, 3월 3일의 상하이 일본 비행장 폭파 계획 등이 연이어 기획되어 실행에 옮겨지거나 혹은 좌절되었다.⁶⁴⁾

62) 김광재, 앞의 글, 40쪽.

63) 김구, 위의 책, 327쪽.

64) 김희곤, 『이봉창의사 의거와 상하이사변』, 『이봉창의거의 진실과 왜곡』, 이봉창의사기념사업회, 2006. 94~95쪽.

3. 상하이사변과 윤봉길의 상하이의거

가. 상하이사변과 중국의 항전

이봉창의거가 터진 다음 날, 중국 각 도시의 신문마다 크게 보도되기 시작하여 12일까지 집중적으로 기사화되었다. 난징정부의 기관지 성격을 띤 상하이판 《민국일보》와 《중앙일보》를 비롯하여 상하이의 대표적 민영지인 《신보》·《시사신보》 등은 일왕이 처단되지 못한 결과를 아쉬워하거나 이봉창의사를 ‘지사(志士)’, ‘의사(義士)’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매우 우호적인 논조를 취하였다.⁶⁵⁾ 이런 중국 언론의 태도에 불만을 가진 일본은 격렬하게 항의하고 사과와 정정보도, 그리고 책임자 처벌까지 요구하였다.

의거 직후 열흘 정도 지나면서 사태는 진정국면에 접어들었는데 또 다른 사건이 발생하였다. 1932년 1월 18일 오후 일본의 일련중 승려 아키라마수 텐사키(天崎啓升)와 미즈카미 히데오(水上秀雄)가 신도 3명과 마옥산로에 있던 삼우실업사에 나타나 공장노동자들이 의용군을 조직하여 훈련받고 있는 곳을 기웃거리며 간첩인양 염탐하는 모습을 연출하였다. 그러다가 ‘일본 군부에 고용된 중국인 무뢰배’들이 일본승려 일행을 공격하여 사상자가 발생하였다.⁶⁶⁾ 본래 이 사건은 일본관동군 참모 타나카 류키치(田中隆吉), 헌병대위 켄분 시게토(重藤憲文)가 공모하여 일으킨 사건이었다.⁶⁷⁾

이후 일본측은 부상당한 승려 한 명이 일본의원에서 죽었다고 소문을 퍼뜨렸다. 일본은 이 사건을 더욱 확대시키고자 특무기관에서

65) 김희곤, 위의 글, 99쪽.

66) 「日人焚燒三友實業社之經過(1932.11), 上海市檔案館編, 『日本帝國主義侵略上海罪行史料檔編』上編, 上海人民出版社, 1997, 9쪽.

67) 田中隆吉, 「上海事變はこして起された」, 『秘められた昭和史』, 河出書房, 1956. 182~83쪽.

일부 난인들을 규합하여 삼우실업사의 공장을 불태우고 중국 경찰을 살해하였다. 또한 일본인들을 선동, 시위를 전개하면서 폭력행위를 일삼았다. 1월 24일에는 일본인들 스스로 일본공사 시게미츠 아오이(重光葵)의 공관을 불태우고 중국인들의 소행이라며 중국인들을 무고하였다.

일본 측은 20일에 상하이 일본영사의 이름으로 국민당의 상하이 시정부에게 사과, 범인의 징계, 배상, 항일운동의 단속 등을 요구하였다. 그러면서 48시간 이내에 만족스러운 답을 하지 않으면 일본군이 자유행동에 들어가겠다고 엄포하였다. 상하이 시정부는 난징정부의 뜻을 받들어 일본의 요구를 전부 받아들이기로 하였다. 그러나 일본군은 일본 교민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중국 군대가 즉각 철수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리고 답도 기다리지 않고 일본육전대가 1월 28일 심야에 계획대로 20여 량의 장갑차를 출동시켰다. 당시 상하이에 있던 일본군 병력은 군함 30여 척, 비행기 40대, 장갑차 수십 량, 육전대 6천 명이었다. 중국은 19로군이 주둔하고 있었는데 9·18사변과 달리 일본군의 공격에 즉각 대응하였다.⁶⁸⁾

아편전쟁 이후부터 상하이는 열강들이 중국을 침략하는 거점으로 투자를 많이 하고 있었다. 1930년 상하이의 외국투자규모는 일본 3억 8천만 량, 영국 5억 3천4백만 량, 미국 1억 6천3백만 량, 프랑스 1억 3백만 량이었다. 무역액은 일본 1억 7천2백만 량, 미국 2억 5천7백만 량, 영국 2억 9천8백만 량이었다.⁶⁹⁾ 이처럼 서구 열강과 일본은 상하이에 막대한 식민지 권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만주사변 이래 고조된 중국의 반일, 반침략 투쟁을 경계하며 자신들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공동의 운명이었다. 일본 관동군이 다른 지방도 아니고 상하이에서 무력도발한 원인도 이러한 지역적

68) 이를 1·28松滬事變 또는 上海事變이라 부른다. 신승하, 위의 책, 299~300쪽.

69) 外務省 編, 『日本外交文書・滿洲事變』第2卷 第1冊, 160쪽.

특징을 이용한 것이었다.⁷⁰⁾

상하이사변을 일으킨 일본의 의도는 중국이나 열강의 간섭 없이 만주국을 수립하기 위해 이들의 시선을 다른 곳, 곧 상하이로 분산시키는 것이었다.⁷¹⁾ 이 때문에 상하이사변은 만주사변과 달리 전면전을 고려하지 않아 발발 당일부터 정전문제가 거론되었고, 특히 열강은 자신들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중일 양군의 정전을 희망하여 교섭에 적극 개입하였다.

한편 난징정부는 상하이사변을 만주사변의 연속, 확대로 보고 일본군이 상하이·난징 및 창지양(長江) 유역까지 점령하기 위한 군사행동이라고 판단하였다. 특히 수도 난징에 대한 위협을 강하게 느끼고 1월 30일 중앙기관을 뤼양(洛陽)으로 이전하기로 결정하였다.⁷²⁾ 사변이 발발한 다음날 장제스는 ‘일면교섭, 일면항쟁’의 방침을 정하였고 행정원장 왕자오밍(汪兆銘)도 같은 방침을 주장하였다. 난징에서 정부와 군사의 총지휘를 담당하고 있던 군정부장 허잉친(何應欽)은 1월 29일 중앙의 방침대로 각성에 “한편으로는 정당한 자위에 힘써 조금의 토지라도 내주지 말 것이며 또 한편으로는 여전히 외교 방식을 통하여 각국이 그 조약상의 책임을 집행하도록 한다.”라고 통고하였다.

당시 상하이는 난징정부의 19로군이 일선을 지키고 있었다. 이들은 1월 23일 군장교의 긴급회의를 소집하여 일본침략에 대응하는 작전 준비를 갖추었으며, 군장 차이팅카이(蔡廷鍇)도 「상하이·오송 민중에게 알리는 글」을 발표하여 일본의 침략에 저항할 결심과 군에 대한 시민들의 지원을 호소하였다. 19로군은 이와 같은 준비를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세 차례 걸친 일본군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었다. 그러나 난징정부의 저항은 철저하지 못하였다. 일본이 1월

70) 유신준, 앞의 책, 179~80쪽.

71) 유신준, 위의 책, 188쪽.

72) 秦孝儀 編, 『中華民國重要史料初編-對日抗戰時期緒編』 1, 433쪽.

23일 제11사단과 제14사단을 상하이에 급파하기로 결정하고 3월 1일부터 네 번째 대공세를 준비하고 있었다. 난징정부는 이를 사전에 알고서도 아무런 대책을 강구하지 않았다. 그 주요 원인은 공산당 홍군에 대한 위초(圍剿)작전으로, 이 무렵 난징정부는 제3차 위초작전에 열중하고 있었다. 여기에 동원된 국민당정부군이 30개 사단에 이르고, 상하이에는 5개 사단의 병력이 배치되어 있을 뿐이었다.⁷³⁾ 그 결과 상하이에서의 저항은 표면적으로 적극적인 저항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교섭을 위한 저항이었으며 일본의 침략을 군사적으로 격퇴하고자 저항한 것은 아니었다.

난징정부의 소극적인 저항 속에는 일본군과는 싸워도 진다고 하는 패전론이 깔려 있었다. 장제스는 동시에 대일과 대공산당의 양동작전을 피하고 자신의 군사력을 보존하여 공산당 홍군에 대한 위초작전을 진행시키려는 의도가 있었다.⁷⁴⁾ 그러므로 19로군이 초기에는 완강히 저항했지만, 난징정부가 전면전을 원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정부군의 항전의욕은 갈수록 떨어졌고 군수보급도 부족하였다. 다만 국민정부군이 상당기간 버틸 수 있던 데에는 민중의 전폭적인 지원과 동참이 있었기 때문이다. 19로군의 대일항전이 시작되자 상하이는 물론 전국 각지의 의용군이 전투에 참전하였다.⁷⁵⁾ 상하이 각 대학 항일구국회가 청년의용군을 조직하여 훈련을 실시하였고, 상하이시민연합회의용군도 활동을 개시하였다. 이처럼 무장자위의 열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상하이의 주요 지역마다 의용군판사처가 개설되었고, 수많은 단체들이 의용군을 조직하여 시내 곳곳에서 일본군과 전투를 폈다. 통계에 따르면 19로군의 송호항전에 기록된 참전의용군의 수는 50여 단체에 2만여 명으로

73) 유신순, 앞의 책, 246~48쪽.

74) 유신순, 위의 책, 261쪽.

75) 李新·陳鐵健 主編, 위의 책, 195~96쪽.

작전부대 총병력의 절반을 차지하였다.⁷⁶⁾

국내 및 해외교포들의 지지와 성원도 뜨거웠다. 송호항전이 발발한 이를 뒤부터 상하이 각계항일단체는 의연금을 모아 19로군을 지원하였다. 상하이시상회, 상하이지방유지회, 주상하이외국영사관 중국직원 등이 1월 30일 하루 동안 모금한 금액이 10만 원에 이르렀다.⁷⁷⁾ 상하이각계 및 전국 각 방면의 위문품과 위로금이 끊이지 않았고 이를 토대로 19로군은 항전을 계속할 수 있었다. 한편 상하이 문화계의 루쉰(魯迅), 마오둔(茅盾), 예성야오(葉聖陶), 위다푸(郁達夫), 후스(胡適), 저우위통(周予同) 등 43명의 저명인사들은 연합으로 ‘세계에 알리는 글’을 발표하고 전 세계에 일제의 중국침략 야심을 폭로하면서 중국 민중의 반제투쟁을 지원해 주도록 호소하였다. 2월 7일에는 리다(李達), 양한성(陽翰笙), 저우구청(周谷城) 등 저작가 129명이 공동선언을 발표하고 일제의 상하이침공에 따른 만행을 폭로하면서 전국 민중의 총파업과 수업거부에 의한 농민, 공인, 상인, 학생, 군인의 일치단결을 호소하였다. 또한 《문예신문》은 2월 3일 전시특간으로 『봉화』를 발행하여 13기까지 출판하였다. 여기서는 19로군의 용감한 항전 소식을 대대적으로 보도하여 국내외 각계의 큰 호응을 얻었다.⁷⁸⁾

《신보》는 1932년 1월, 일본군이 상하이를 공격하자 “상하이에서의 전쟁은 상하이만의 전쟁이 아닌 전민족의 생사가 걸린 전쟁”이라면서⁷⁹⁾ 항일여론을 고취시켰다. 특히 장광나이(蔣光鼐)·차이팅카이 등이 정부의 부저항 훈령을 거부하고 19로군 및 상하이의용군을 통솔하여 일본군과 싸우고 있는 사실에 큰 의의를 두었다.

76) 『“一二八”抗戰中上海人民的鬭爭』, 上海人民出版社, 1960, 25쪽.

77) 19로군 駐滬辦事處 主任 范志陸이 蔡廷鍇에게 서면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당시 모인 위로금은 약 9백여만 원이었다. 『蔡廷鍇自傳』 上, 300쪽.

78) 李新·陳鐵健 主編, 위의 책, 199~204쪽.

79) 「敬告國民」, 《申報》(1932.1.31).

이후 《신보》의 관련보도는 19로군의 지원활동에 동참을 촉구하고,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상하이 금융시장과 민심을 안정시키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다.⁸⁰⁾ 《신보》의 논조는 일관되게 항일무장의 당위성을 강조하면서 적극적이며 신속한 대일항전을 촉구하였다.⁸¹⁾ 아울러 만주국 수립과 관련하여 《신보》는 제대로 된 정부의 대일방침이나 자구책이 없이 국제연맹에 의존하거나 외부의 도움을 기대하는 것에 대해 신랄히 비판하였다.⁸²⁾

상하이사변 이후 발표된 《대공보》의 논설도 19로군의 항전을 적극 지지하였다.⁸³⁾ 대일항전만이 세계의 동정여론을 불러일으켜 외교적으로 난국을 타개하는데 필요한 수단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⁸⁴⁾ 또한 전략전술상 대일전쟁은 단기전보다 지구전이 유리한 것으로 보고 장기전을 주장하였다.⁸⁵⁾ 《대공보》는 국민당의 정국대응을 논평하면서 만약 상하이정전협정이 체결되어 동북 3성을 잃고서도 무력회복의 준비를 하지 않는다면, 이후 정치상 모든 문제는 “항일어모(抗日禦侮)”의 이름 아래에 논할 수 없게 된다고 보았다.⁸⁶⁾ 이처럼 일본군의 상하이 침략에 19로군이 항전으로 맞서자 상하이는 물론 전국의 민중들이 조직적으로 19로군을 지지 후원하였으며, 그런 사실들이 언론을 통해 널리 알려졌다.

이 무렵 상하이 거류 한국인들도 신속히 항일활동을 개시하였다.⁸⁷⁾ 상하이거류 한국교민단은 위로대를 조직하고 면포 200포와

80) 「愛護金融」, 《申報》(1932.2.7).

81) 「追悼滬戰殉國將士」, 《申報》(1932.5.28).

82) 「對日交涉方針之質疑」, 《申報》(1932.6.27).

83) 轟毀上海之極端的暴行(1932.1.31.), 「全國同胞只唯一條路」, 《大公報》(1932.2.2).

84) 「上海戰事之重要性」, 《大公報》(1932.2.9).

85) 「興亡岐路生死關頭」, 《大公報》(1932.2.20).

86) 「論保障政治自由之亟務」, 《大公報》(1932.4.30.). 실제로 정전협정이 체결된 후 《대공보》는 집권세력의 무능과 부도덕을 비판하면서 난징정부의 분발을 촉구하였다. 「願國民清夜自問」, 《大公報》(1932.5.7).

87) 石源華 編著, 『韓國獨立運動與中國』, 上海人民出版社, 1994. 189~91쪽.

의약품 등 약 1천 원에 해당하는 구호품을 마련하여 제19로군을 지원하였다. 2월 1일에는 독립당 특무대가 「상하이동포에 고하는 글」을 발표하여 중국을 원조하고 일본에 타격을 주자고 호소하였다. 2월 27일 상하이에 있는 한인 단체들은 대만인 단체와 함께 일본의 상하이침략을 고발하는 한편, 군벌과 제국주의를 몰아내고 민주국가를 실현하며, 피압박민족인 한인과 대만인이 함께 공존공영과 세계평화에 이바지하자는 내용의 유인물을 비행기를 이용하여 살포하였다. 또한 사회주의 성향의 상하이한인반제동맹은 2월 18일에 『삼일전선』을 창간하였고, 그 직후 『반제전선』으로 다시 고쳐 반제국주의운동을 선전하였다.⁸⁸⁾

19로군의 송호항전에는 상하이 한인유학생들도 대거 동참하였는데 복단대학·기남대학 등 상하이의 각 대학생들이 항일의용군을 조직하여 주로 선전, 교육활동을 담당하였다.⁸⁹⁾ 당시 복단대학에 유학중이던 안병무는 학생의용군 일원으로 중국 학생들과 함께 전 시복무공작 기구를 만들고 위로·통신·운수·교제·문서의 다섯 부문으로 나누어 일주일 이상 활동하였다.⁹⁰⁾ 김석(金皙)은 상하이 학생연합회가 조직한 중국구국학생의용군에 가입하여 19로군을 위한 의연금 모금활동을 전개하였다.⁹¹⁾ 한인학생들은 구호대를 조직하여 전선에서 부상당한 중국 군인들을 치료하였고,⁹²⁾ 박시창(朴始昌)·오명(吳明) 등은 전선으로 직접 나아가 중국군과 함께 싸웠다.⁹³⁾ 이렇게 상하이거류 한인과 유학생들은 일본군의 침략을 계기로 촉발된 19로군의 대일항전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강력한 연대 의식을 발휘하였다.

88) 신주백, 위의 글, 121~22쪽.

89) 「一月光華 旦復旦兮」, 『復旦大學志 第一卷』, 21쪽.

90) 안병무, 「상하이전쟁에 참전한 한국청년」, 『사상계』, 1965년 1월호, 264쪽.

91) 손과지, 위의 책, 261~63쪽.

92) 「不逞鮮人金皙檢舉」, 『日本外務省特殊調査文書』 26, 727~728쪽.

93) 안병무, 위의 글, 251~59쪽.

당시 상하이에 거류하고 있던 윤봉길은 상하이사변이 발발하자 어머님에게 보낸 편지에서 간략하지만 상하이사변의 의미와 전황, 열강의 반응, 난징정부의 대응 등에 대한 자신의 느낌을 전하고 있다.⁹⁴⁾ 윤봉길은 상하이 현지에서 일본군의 침략행위를 직접 경험하였으며, 그만큼 중국의 시국상황과 열강의 대응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졌다.

같은 시기 상하이에서 한인애국단을 조직한 김구는 중국과 공동항일전선을 통해 침체된 독립운동의 국면을 전환하고 약화된 한중연대를 일거에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게 되었다. 앞에서 지적했듯이 만보산사건과 한국내의 중국인배척폭동으로 야기된 중국인의 ‘혐한’ 분위기는 만주사변으로 더욱 팽배해졌고, 상하이사변을 계기로 최고조에 달하였다. 이런 참담한 상황은 김구의 회고록에서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⁹⁵⁾

왜구의 중한 양 민족에 대한 ‘감정악화 정책’의 일환으로 ‘만보산사건’이 터졌다. 이를 기회로 중국 상인과 노동자들에 대한 감정이 폭발하여 조선 곳곳에서 한인 무뢰배들이 총동원되어 그들을 만나는 대로 때려죽이는 소동이 벌어졌다. 중류 이상의 중국인들은 만보산사건이 왜구의 간계임을 간파하였지만, 하류계급 사이에서는 “고려인이 중국인을 때려죽인다.”는 악감정이 동경사건(이봉창 의거) 이후에도 좀체 사그라지지 않았다. 게다가 1932년 1·28 상하이 전쟁으로 왜병이 민가에 함부로 불을 지를 때 최영택 같은 악한을 사주하여 중국인 집에 들어가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재물을 약탈하게 하는 일들이 허다하게 일어났다. 이로 인해 주로 자동차와 전차의 한인 검표원들이 중국인 노동자들에게 아무 이유 없이 구타당하는 일이 종종 발생하였다.

상하이에 위치한 대한민국임시정부도 내부적으로 어려운 국면에 처해 있었다. 임시정부는 초창기와 달리 1923년 국민대표회의가

94) 「상하이사변에 즈음해 어머니에게 보낸 편지」(1932년 1월 31일), 『매헌윤봉길 전집』 제2권, 794~96쪽.

95) 김구, 위의 책, 340쪽.

결렬된 이후 현저히 악화되었다. 1920년대 후반에 가서는 해외동포들의 헌금도 거의 중단되고 독립운동가들도 대부분 상하이를 떠나버려 소수의 임시정부 고수파들이 외롭게 임시정부의 간판을 지키고 있었다. 특히 1932년에는 일본군의 상하이사변과 상하이점령으로 연초부터 프랑스조계 안에 있던 임시정부는 완전히 일본군의 포위 안에 든 것이나 다름없이 고립되어 더욱 어려운 처지에 떨어지고 말았다.⁹⁶⁾ 이러한 임시정부의 위기상황과 연일 신문을 통해 보도되고 있던 중국인들의 항일 열기는 상하이에 머물며 독립운동에 헌신할 기회만 찾고 있던 윤봉길을 크게 고무시켰다.⁹⁷⁾

나. 상하이의거와 중국의 반향

만주사변과 상하이사변으로 중국의 국난상황이 최고조에 이를 무렵 윤봉길은 임시정부의 김구를 찾아가 독립운동을 숙의하고 있었다. 이때는 상하이사변이 끝난 뒤였으나 아직도 중일 간의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다. 그는 한국의 광복을 위한 길이라면 목숨까지 바쳐서라도 싸울 것을 각오했노라고 자신의 심경을 아래와 같이 김구에게 토로하였다.⁹⁸⁾

제가 채소바구니를 등 뒤에 메고 날마다 홍콩 방면으로 다니는 것은 큰 뜻을 품고 천신만고 끝에 상하이에 온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중일전쟁도 중국에서 굴욕적으로 정전협정이 성립되는 형세인즉,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마땅히 죽을 자리를 구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선생님께서서는 동경사건과 같은 경륜이 계실 줄 믿습니다. 저를 믿으시고 지도하여 주시면 은혜는 죽어도 잊지 못할 것입니다.

96) 신용하, 「윤봉길의 상하이홍구공원 의거」,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80주년 기념논문집』(하), 국가보훈처, 1999. 175쪽.

97) 김구는 일기에서 19로군의 항전상황과 일본군의 만행에 관해 상세히 기술하며 항전의지를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 김구, 위의 책, 328~29쪽.

98) 김구, 위의 책, 331쪽.

상하이에서 윤봉길과 김구의 만남은 몇 차례 중일간의 충돌을 거친 직후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일본군은 상하이를 무력 점령한 후 승리에 도취하여 1932년 일왕의 생일 경축일인 천장절(天長節)을 일본군의 상하이 점령 전승경축식과 겹쳐서 외국인 공동조계인 홍코우공원에서 거행할 예정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상하이 일본영사관은 《일일신문》에 “4월 29일 홍코우공원에서 천장절 축하식을 거행한다. 그날 식당에는 물병 하나와 점심으로 도시락, 일본 국기 하나씩을 가지고 입장하라”고 포고하였다.⁹⁹⁾

김구와 윤봉길 의사는 이 행사를 일제에게 결정적 타격을 가하고 독립운동을 크게 고양시킬 수 있는 일대 반전의 특공작전을 감행할 절호의 기회라고 판단하였다. 왜냐하면, 이날의 전승경축식에는 상하이 주둔 일본군사령부의 총사령관 이하 군·정 수뇌들이 모두 모일 것이기 때문이었다. 만일 이 작전이 성공하기만 한다면 중국군이 막대한 희생을 내면서 항전하고도 이기지 못해 상하이를 내어준 일본침략군 총사령부 전체를 폭파시켜 버리는 것과 동일한 전과를 낼 수 있는 것이었다.¹⁰⁰⁾ 또한 이를 계기로 그동안 소원해진 한중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대일 공동전선을 한층 강화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판단하였다.

이전부터 이봉창의사와 같은 ‘사생취의’의 신념을 김구에게 밝혔던 윤봉길은 곧바로 한인애국단에 가입하고 1932년 4월 26일 한인애국단 단장 김구 앞에서 혈서로 아래와 같은 선언문을 써서 자신의 의지를 표명하였다.¹⁰¹⁾

나는 적성(赤誠)으로써 독립과 자유를 회복하기 위하여 한인애국단의 일원이 되어 중국을 침략하는 적의 장교를 도륙(屠戮)하기로 맹세하나이다.

99) 김구, 앞의 책, 332쪽.

100) 신용하, 앞의 글, 49쪽.

101) 「한인애국단 가입 선언문」, 『매현윤봉길전집』 제5권, 793쪽.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윤봉길은 자신의 의거가 조국의 독립과 자유를 회복하기 위한 투쟁이며, 동시에 중국을 침략하는 일본군의 장교를 죽이려는 것으로 곧 한중 공동항전의 초석이 되겠다는 생각이었다. 한편 윤봉길이 의거에 사용한 폭탄은 김구가 중국군 장교로서 제19로군 병기창 주임으로 복무하고 있던 김홍일(金弘壹, 중국명 王雄)에게 부탁하여 중국인 기술자 왕보어시우(王伯修)의 지도 밑에서 특별히 제조한 고성능 폭탄으로 실질적인 한중연대의 결과물이었다.¹⁰²⁾

윤봉길 의사가 결행한 홍콩우공원의 폭탄 투척은 대성공을 거두어 일본 거류민단장 가와바다 테이지(河端貞次)는 즉사하고, 상하이 파견군사령 요시노리 시라가와(白川義則) 대장은 중상으로 입원했다가 5월 26일 죽었다.¹⁰³⁾ 또한 일본공사 시게미쓰 아오이는 왼쪽 다리가 절단되었으며, 제3함대 사령관 노무라 키치조(野村吉三郎) 중장은 실명하였고, 제9사단장 우에다 켄키치(植田謙吉) 중장과 상하이총영사 무라이 쿠라마츠(村井倉松), 거류민단 서기장 토모노 성(友野盛) 등 단상에 있던 군·정 수뇌 7명이 모두 사망하거나 중상을 당하였다.¹⁰⁴⁾

윤봉길의거는 1932년 4월 29일 오후 1시경 뉴스로 보도되기 시작하여 각국의 주요 신문들이 일면에 대대적으로 보도하면서 세계를 경악케 하였다.¹⁰⁵⁾ 의거 당일 상하이의 석간신문 《시사신보》가 “오늘 홍콩우공원에서 일본인들 천장절 기념식 시게미쓰, 시라가와, 무라이, 노무라 등 부상 열병 도중 돌연 비가 내림과 동시에

102) 김구, 앞의 책, 332쪽.

103) 「上海=於ケル尹奉吉爆彈事件顛末」(昭和 7年 7月), 『매현윤봉길전집』 제2권, 492쪽.

104) 「上海=於ケル尹奉吉爆彈事件顛末」(昭和 7年 7月), 『매현윤봉길전집』 제2권, 532~36쪽.

105) Bomb at Shanghai wounds 5 High Japanese Officials; Shirakawa and Uyeda Hit, *The New York Times*, 1932.4.29.(『매현윤봉길전집』 제2권, 816쪽)

폭발물 폭발”이란 제목으로 첫 보도를 한 이래,¹⁰⁶⁾ 《시보》·《신보》·《상하이보》·《대만보(大晚報)》·《중앙일보》등이 윤봉길의사의 의거를 대대적으로 보도하였다. 이러한 신문 보도는 6월까지 두 달여 동안 거의 매일 계속되었다.¹⁰⁷⁾

일본당국이 철저히 보도통제를 하였지만 중국 신문들은 그와 상관없이 첫날부터 매우 구체적으로 보도하였다.¹⁰⁸⁾ 주요 내용은 홍코우공원의 기념식장 모습 및 폭탄투척 상황, 윤봉길의사의 체포와 심문, 일제요인의 사망 및 부상, 안창호와 한인의 체포 등 윤봉길의거와 관련된 모든 소식을 기사화하였다. 우선 윤봉길의거에 대해 중국인들이 보인 반응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공동항전의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¹⁰⁹⁾

이번에 일본제국주의의 요인들을 제거하기 위해 폭탄을 투척한 이는 망국민인 한국인이다. 세상 사람들을 놀라게 한 그의 장거는 누구의 청탁이나 애월에 의한 것이 아니다. 동아의 평화를 파괴하는 인간 말종들을 깨끗이 청소하고, 조선의 독립을 회복하기 위해 의연히 일어난 것이다. 9·18사변 이후 우리는 온갖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여 국제연맹에 도움을 애걸하였다. 그 결과는 어떠한가? 우리가 얻은 것은 무엇인가? 조선인이 던진 폭탄 하나만도 못하지 않은가! 이 조선인은 물론 중국의 복수를 위해 폭탄을 던진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그의 장거는 조선인과 중국인이 공동의 적을 향해 똑같은 적개심을 지니고 있음을 표시한 것이다. 우리와 똑같은 죽을 향해 우리와 똑같은 적개심을 가진 피압박국가야말로 대일관계를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마땅히 외교적 동맹군으로 끌어들여야 할 존재이다.

특히 상하이파견군 사령관 시라카와 대장의 사망과 일왕의 애도에

106) 今日虹口公園 日人慶祝天長節 重光白川村井野村炸傷 閱兵時天忽下雨同時飛來炸彈, 『時事新報』 (1932.4.29).

107) 윤봉길의거에 관한 중국신문의 반응은 한시준, 『윤봉길의사의 홍구공원의거에 대한 중국신문의 보도』, 위의 책, 43~86쪽 참조.

108) 「上海爆彈事件ニ關スル件」(1932.4.30), 『매현윤봉길전집』 제2집, 725쪽.

109) 「日要人被炸吾人應有之認識」, 『上海日報』 (1932.5.1).

관하여 상세히 보도하였다. 퇴역했던 시라카와는 1932년 1월 상하이사변이 발발하자 상하이파견군 사령관으로 임명되어 다시 군복을 입고 송호전쟁을 총지휘하였다. 이 때문에 그는 일본군의 상하이침공을 상징하는 핵심 인물로 그의 부상정도와 병세부터 사망하여 일본으로 유해가 되어 돌아갈 때까지 낱낱이 보도하고 있다. 중국 신문은 시라카와의 사망 소식을 접한 중국인들이 폭죽을 터뜨리며 환호하였다고 전하며,¹¹⁰⁾ 시라카와의 죽음에 대한 보복으로 윤봉길을 사형에 처할 것 같다고 보도하였다.¹¹¹⁾ 실제로 윤봉길의사를 곧바로 사형에 처한 것은 아니지만,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윤봉길의사에게 사형을 선고하였다.

의거이후 중국 신문들은 안창호 체포와 함께 프랑스조계에 거주하는 한인들에 대한 일제의 대대적인 수색과 체포 소식도 전하고 있다. 그 내용은 일제 측에 한인들을 수색 체포하도록 허락한 프랑스조계 당국의 조처를 비난하고 한인 보호를 요청하는 것이었다.¹¹²⁾ 중국신문의 보도를 통해 당시 중국당국과 중국인들의 윤봉길의거에 대한 이해와 반응을 확인할 수 있는데 하나같이 동병상련의 연대감에 입각한 공동항전의 의지를 강하게 표시하였다.

19로군의 송호항전은 굴욕적인 패배로 끝났지만 윤봉길의사의 상하이의거로 일제침략의 원흉들을 섬멸하게 되자 중국인들은 큰 감동을 받았다. 그래서 김구는 “4·29사건으로 인하여 중국인들의 한인들에 대한 감정은 놀랄 만큼 호전되었다.”라고 밝혔다.¹¹³⁾ 상하이의거는 위기에 처한 한국독립운동세력이 중국과의 갈등을 해소하고 공동항전의 연대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훌륭한 방책이었음을 입증한 것이다.

110) 「白川死亡之街談巷議」, 『上海報』(1932.5.25).

111) 「日人將殺 尹奉吉句葬白川」, 『上海報』(1932.5.31).

112) 「關於逮捕韓人事件 法租界當局之聲明」, 『時報』(1932.5.13).

113) 김구, 앞의 책, 340쪽.

윤봉길의사는 상하이의거 뒤 체포된 바로 직후 일본헌병대의 심문에서 자신의 행동의 성과와 의의를 다음과 같이 응답하였다.¹¹⁴⁾

현재 조선은 실력이 없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일본에 반항하여 독립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만약 세계대전이 발발하여 강대국이 피폐해지는 시기가 도래하면 그때야말로 조선은 물론이고 각 민족이 독립할 수 있다. 현재의 강국도 나뭇잎처럼 자연히 쇠락하는 시기가 오는 것은 필연적이며, 우리들 독립운동가는 국가 성쇠의 순환을 앞당기는 것이 그 역할이다. 물론 한 두 명의 상급 군인을 살해한다고 해서 독립이 쉽게 될 리는 없다. 따라서 이번 사건과 같은 것도 독립에 직접적인 효과가 없다는 것은 충분히 알고 있으며, 단지 기대하는 것은 이로 인하여 조선인의 각성을 촉구하고, 나아가 세계로 하여금 조선의 존재를 명료히 하는데 있다. 현재 세계지도에 조선은 일본과 같은 색으로 칠해져 있어서 다른 나라 사람은 조선의 존재를 조금도 인식하지 못하는 상황에 있으므로, 이러한 때 조선이라는 관념을 이들 모두의 뇌리에 깊이 새겨 넣은 것이 장래 우리의 독립운동에 관하여 결코 헛된 일이 아닐 것임을 믿는다.

여기에서 윤봉길의사는 비록 자신의 투쟁이 지극히 작고 미미한 것이지만 세계의 다른 나라와 함께 투쟁하면 반드시 독립이 이루어질 것이요, 이것을 앞당기기 위해 자신은 독립운동의 작은 불씨가 되어 한국인을 각성시키고 세계인에게 한국의 존재를 각인시킨다는 것이다.

더불어 상하이의거는 만보산사건이라 나빠진 중국인의 대한감정을 해소하고 한중연대에 의한 한국독립운동의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려는데 목적이 있었다. 의거가 끝난 십여 일 후 김구는 「홍코 우작안의 진상」이란 성명서를 발표하고, 자신이 의거를 일으킨 이유와 명분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¹¹⁵⁾

114) 「上海=於ケル尹奉吉爆彈事件顛末」(昭和 7年 7月), 『매헌윤봉길전집』 제2권, 143~44쪽.

115) 『매헌윤봉길전집』 2, 97쪽.

일본은 강력한 힘으로 한국을 병합하고 이어서 만주를 정복하고 나아가 이유 없이 상하이에 침입함으로써 동양 및 세계의 위협이 되었다. 그러므로 나는 세계 평화의 적, 인도와 정의의 파괴자에 대해 복수할 결심을 한 것이다. 맨 처음으로 나는 이봉창을 동경에 파견하였고, 그는 1월 8일에 일왕을 습격했다. 이어서 나는 일본 군대 장관 등을 살해하기 위해 윤봉길을 4월 29일 홍구공원에 보냈다.

김구는 일제의 침략행위가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적이요, 인도와 정의를 파괴하는 세력임으로 이를 징벌하기 위해 이봉창과 윤봉길을 내보냈다는 주장을 폈다.¹¹⁶⁾ 여기서 일제 침략에 맞선 김구의 반침략적 항전의지가 잘 드러난다. 또한 1932년 12월 1일 출판된 『도왜실기』에 실린 「홍코우작안의 진상」이란 글에서 홍코우공원 의거의 극적 장면을 이렇게 묘사하였다.¹¹⁷⁾

이는 실로 일본제국주의의 몰락을 선고하는 조포이었고, 살인방화의 흥분을 징벌하는 벽력이었다. 이 우렁찬 소리를 듣고 소리 높여 통쾌를 부르짖은 사람이 어찌 삼천만 한인뿐이었으랴? 사역의 중국인도 당연히 똑같은 감격을 느꼈을 것이다.

이 글에서 김구는 윤봉길의사의 쾌거로 느끼는 감격을 한국인만이 아니라 중국인 모두가 함께 갖는 것이라면서 공동항전의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당시 중국의 최고지도자였던 장제스는 자신의 일기에 의거 당일의 느낌에 대해 “비록 병력을 동원하며 전쟁을 탐하는 자라도 깨달은 바가 있을 것”이라고 적었다.¹¹⁸⁾ 그는 윤봉길의사의 상하이의거를 일본의 침략정책에 대한 경중으로 인식하였고, 한국독립운동에 대한 이해와 협조를 강화하는 계기로 삼았다. 윤봉길

116) 김희곤, 「윤봉길 현양 자료를 통해 본 상하이의거의 역사적 의미 - 광복 이전 자료를 중심으로-」, 『한국독립운동사연구』 제43집 참조.

117) 『매헌윤봉길전집』 2, 71쪽.

118) 「先總統 蔣公有關大韓民國獨立運動日記摘錄」, 『매헌윤봉길전집』 6, 811쪽.

의사의 의거는 불편해진 한중관계를 일거에 회복시켰을 뿐만 아니라 이제까지 형식적 선언적으로만 이루어진 대일 공동항전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결정적 계기가 된 것이다.

4. 맺음말

윤봉길의사가 독립운동의 결의를 품고 중국 상하이에 도착한 1931년 5월부터 홍코우공원에서 의거를 실행한 1932년 4월 29일까지 중국에서는 일본의 모략적인 침략행위가 계속되고 있었다. 1931년 7월의 만보산사건은 일제가 만주침략의 빌미를 만들기 위해 한국인을 내세워 중국농민들과 갈등을 조장하고, 한국에 왜곡 보도함으로써 중국인배척폭동을 유발시킨 계략이었다. 당시 중국신문의 보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이 사건을 계기로 중국인의 대한 감정은 극도로 악화되었고, 한중 관계도 균열되어 중국내 한국독립운동은 침체국면에 빠졌다. 곧이어 일본의 무력행사를 수반한 만주사변과 상하이사변은 중국의 국가적 위기의식과 항일열기를 고조시켰다. 특히 상하이사변은 19로군을 주축으로 중국민중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며 장기간 저항했지만 결국 패함으로써 중국인들의 분노와 원성이 높았다.

이 시기 상하이에 머물며 독립운동의 의지를 다지고 있던 윤봉길의사는 자신이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한 일제의 중국침략에 일격을 가하고, 한국독립을 앞당길 수 있는 방책으로 홍코우공원 의거를 결행하였다. 이 의거는 한국의 독립·자유를 위한 항일투쟁으로서 김구와 윤봉길에 의해 기획 단계부터 한중 공동항전이란 대의를 가지고 시작되었고, 중국측의 협조를 얻어 실행되었다. 의거준비단계

에서 중국인이 한인애국단에 거사자금을 지원하고, 김홍일을 통하여 상하이병공창의 중국인으로부터 고성능폭탄을 제공받은 사실로 중국측의 협조가 확인된다. 그러나 의거의 기획, 준비, 실행, 사후 처리 등 전 과정이 김구와 윤봉길의 주도로 이루어졌으며 ‘중국의 역할’은 제한적이었다.

상하이의거가 한국독립운동사와 한중공동항전에 미친 현실적 역사적 의의는 매우 크다. 우선 이 의거는 중국을 침략한 일본 상하이파견군 총사령관을 비롯한 군·정 수뇌들을 죽이거나 부상당하게 함으로써 일제에 큰 타격을 주었다. 이후 상하이 주둔 일본군은 더 이상의 확전을 단념하고 1932년 5월 5일 중국과 정정협정을 체결하였다. 중국인들과 열강의 여론은 대부분 정정협정이 체결되어 일본군이 상하이로부터 철수할 것을 원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윤봉길 의사는 일본의 침략행위에 결정적 타격을 가하여 패배감에 사로잡힌 중국인들의 항전의지를 다시 고조시켰다.

한 달 이상 계속된 항전에도 불구하고 상하이를 점령당한 중국인들은 윤봉길 의사의 의거로 침략을 주도한 일본의 군·정 수뇌들이 궤멸되자 크게 기뻐하였다. 이렇게 하여 만보산사건 이후 나빠진 중국인의 대한감정은 완화되었고, 한국인에 대한 감사와 협조로 급반전되어 중국내의 한국독립운동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해 주었다.¹¹⁹⁾ 특히 장제스는 “중국의 백만 대군이 하지 못한 일을 한국의 한 청년이 해냈다”며 윤봉길의거를 매우 높이 평가하였다. 또한 그의 배려로 중국군관학교에서 백여 명의 한국청년들이 군사훈련을 받고 조선의용대 및 한국광복군의 핵심세력이 되었다.¹²⁰⁾ 이렇듯 윤봉길의거는 한국독립운동의 오랜 숙원인 중국과의 반일연합전선을 형성할 수 있는 중대한 계기를 제공함으로써 1930년대 한중

119) 「日本要人昨午被炸」, 《申報》(1932.4.30).

120) 김구, 앞의 책, 355~57쪽.

공동항전의 본격적인 서막을 열었다.¹²¹⁾

윤봉길의거는 그동안 침체되었던 임시정부의 독립운동을 활성화 시키는데도 크게 기여하였다. 이 의거로 고무된 국내외 동포들이 임시정부의 중요성과 독립운동을 다시 인식하여 재정적 정신적 지원을 재개하였다.¹²²⁾ 그뿐 아니라, 난징정부와 각 민간단체의 재정 지원과 편의 제공도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임시정부는 새로운 부흥의 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이를 통해 임시정부는 한국독립운동의 중심세력으로서 위상을 굳힐 수 있게 되었다. 전체적으로 3·1운동 이후 일제의 간교한 문화통치로 희석된 한국인의 독립정신을 다시 일깨워 국내외 독립운동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어 준데 큰 의미가 있었다.

국제적으로도 윤봉길의거는 한국인의 항일독립의지를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상하이사변을 열강이 주시하는 가운데 외국인 공동조계 내의 홍코우공원에서 열린 전승기념행사에 한인청년의 의거로 일본침략군 수뇌들이 치명상을 입었다. 이것은 전 세계를 놀라게 하였으며, 한국독립운동이 매우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음을 효과적으로 세상에 알리는데 성공하였다.¹²³⁾

무엇보다 윤봉길의거는 1930년대 들어서 본격화된 일본의 중국 침략에 가장 강력히 맞선 의열투쟁이자 적극항전이었다. 곧 난징정부의 ‘부저항노선’이나 ‘일면교섭 일면항전’의 제한적 대응과 비교되는 것으로, 대일항전의 물꼬를 튼 점에서 한중공동항전의 선도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실제로 윤봉길의거 이후 소원해진 한중관계가 곧바로 회복되고 김구와 장제스 사이에 공동항전의

121) 김광재, 앞의 글, 39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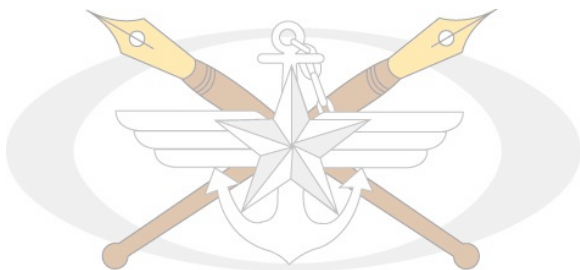
122) 김구는 의거 이후 미주·하와이·멕시코·쿠바 등지의 한인교포들의 임시정부에 대한 성원이 대단하였다고 밝혔다. 김구, 위의 책, 341쪽.

123) ‘Some strange phases of the bombing incident’, *The China Weekly Review*(Vol. 60 No.10), 1932.5.7. p.316.(『매한윤봉길전집』 제3권, 715쪽)

실질적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다.

[원고투고일: 2015.12.30, 심사수정일: 2016.2.16, 게재확정일: 2016.2.19.]

주제어 : 윤봉길의거, 만보산사건, 만주사변, 상하이사변, 대한민국임시정부,
김구, 장제스, 홍콩우공원, 한인애국단, 한중공동항전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ABSTRACT>

Yoon Bong Gil's patriotic deeds, and Korea and China's Joint Resistance after Shanghai Incident in 28th of January

Lee, Jaeryoung

This paper will uncover the truths behind Korea and China's joint resistance against the Japanese colonial era through examining the background, objective, characteristic, and significance of Yoon Bong Gil's patriotic deeds, one of the most representative Korean Independence movement in April 29th, 1932, during the Manchurian Incident.

From May, 1931, when Yoon Bong Gil arrived in Shanghai, China, with the resolve to take part in Korea's independence movements, to April 29, 1932, when he carried out his patriotic deeds at Hongkou Park, Japan's planned acts of aggression continued. The Wan Bao Shan Incident was manipulated by Japan as an excuse to invade the Manju area. The Japanese aggravated conflict between Koreans and Chinese farmers, and through releasing distorted reports in Korea, induced boycott riots against the Chinese. This incident created emotional rifts between the two nations, and Korean Independence movements within China fell into stagnation. The subsequent exertion of military force by the Japanese during the Manchurian and Shanghai incident awakened China's national awareness of crisis and aroused resistance against Japan throughout the country. Especially, the eventual defeat of resistance forces coordinated around the 19th Chinese Rogun greatly enraged the Chine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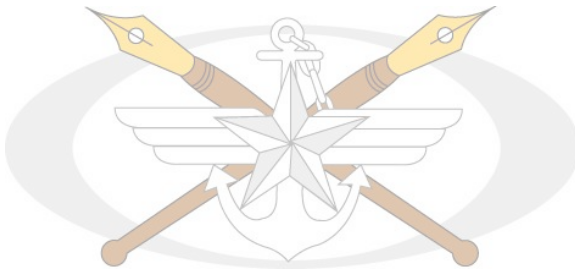
Yoon Bong Gil, who was honing his burning soul for independence

movements during this period, chose patriotic deeds as his means of sabotaging Japan's invasion of China, and ultimately hastening the independence of Korea. Yoon Bong Gil's patriotic deeds were kinds of resistances against Japan to achieve Korea's independence and freedom, and were planned from beginning stages with Kim Gu with ambitions of Korea and China coordinating their powers to start a Korea-China Joint Anti-Japanese War. With the cooperation of China, his plans were able to be executed. During preparation stages, the Chinese supported the Korea Patriotic Party, and through the help of Kim Hong Il, Yoon was able to receive high explosive bombs from the Chinese. However, except that Chinese influence on this matter was limited. The preparation, execution, after management, and all other affairs related to Yoon Bong Gil's patriotic deeds were mainly coordinated by Yoon Bong Gil and Kim Gu.

The practical and historical impact Yoon Bong Gil's patriotic deeds had on Korean independence movements are substantial. His patriotic deeds first heavily damaged the Japanese empire by killing or injuring military and government leaders including expeditionary force lieutenant Yoshinori Shirakawa. The Chinese, who felt a sense of defeat, once more forged their wills for resistance. Furthermore, negative emotions the Chinese held towards Koreans after the Wan Bao San incident rapidly changed to appreciation and cooperation, creating favorable conditions for Korean independence movements in China. Also, the patriotic deeds invigorated the independence movements of the provisional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which were in stagnation. Inspired compatriots within and out of the country, re-enlightened on the importance of the provisional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its independence movements, resumed financial and

psychological support. Overall, Yoon Bong Gil' s patriotic deeds created an opportunity for Korea's independence movement's long cherished wish, a united front with China, to develop, opening Korea/Chinese joint resistance against Japan in the 1930s.

Key Words : Yoon Bong gil's patriotic deed, Wan Bao Shan Incident, Manchurian Incident, Shanghai Incident, Provisional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n, Kim, Gu, Jiang Jie Shi, Hongkou Park, Korea Patriotic Party, Korea and China's Joint Resistance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1950년대 한국군의 미국 군사유학 시행과 그 영향*

김 민 식**



1. 머리말
2. 미국의 한국군 '표준화' 구상과 방안
3. 한국군의 유학생 선발과 '특별반' 이수
4. 한국군의 유학 이수자 활용과 그 영향
5. 맺음말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1. 머리말

제2차 대전 이후 독립국가들은 국가수립 과정에서 군대의 필요성을 자각하였으며, 자국 군대를 증강하고자 강대국의 군사교육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였다. 그리고 이는 군사제도뿐만 아니라 다양한

* 본고는 고려대학교 한국사학과 석사학위논문 「1950년대 한국군의 미국 군사유학 시행과 군사교육 체제의 재편」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 육군사관학교 군사사학 강사

지식·기술·이념이 전파되는 과정으로, 전후 독립국가들의 정치·사회 변화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¹⁾

한국의 국가수립 과정도 이 경우와 맥락을 같이한다. 1950년대 한국 정부는 북한에 대한 군사·경제적 우위를 달성하기 위하여 미국의 군사원조를 수용하면서 한국군의 인적·물적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그리고 미국 정부는 냉전이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자유진영 국가들로부터 위신을 확보하고 동아시아에서 자국의 이익을 보장하고자 한국에 대한 군사원조를 확대하면서 한국군 운영에 지속적으로 개입하였다.

특히 6·25전쟁 시기 한국군 증강 문제가 대두하면서 한·미 양국 정부는 한국군 장교단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대규모 군사유학 시행을 합의하였다.²⁾ 이때 한국 정부는 미국의 선진 제도와 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통로로써 군사유학에 주목하였다. 반면 미국 정부는 군사유학을 통하여 미국이 추구하는 가치와 이념을 한국 사회에 전파하고자 하였다. 즉, 1950년대 한국군의 미국 군사유학 시행은 한국 정부에게는 국가존립과 발전, 그리고 미국 정부에게는 냉전정책의 성패와 맞물려 있는 중요한 사안이었다.

기존 역사학계에서는 1950년대에 한국군이 강력한 정치세력으로 성장하는 요인으로 군사유학에 주목하였다.³⁾ 그리고 군사사(軍事史)학계에서는 한국군의 ‘미국화(Americanization)’ 측면에서 군사유학을 다루었다.⁴⁾ 그러나 이상의 연구들은 미국의 대한정책

1) 대표적인 연구로는 John J. Johnson, *The Role of the Military in Underdeveloped Countries*(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2) 참조.

2) 본 논문에서 ‘한국군’은 ‘대한민국 육군’에 한정됨을 밝혀둔다. 미국은 1950년대 한국군을 지상군 위주로 편성하고자 육군 장교에 집중하여 군사유학을 제공하였다.

3) 노영기, 「5·16쿠데타 주체세력 분석」, 『역사비평』 57호, 2001; 도진순·노영기, 「군부엘리트의 등장과 지배양식의 변화」, 정용욱 외, 『1960년대 한국의 근대화와 지식인』, 선인, 2004.

4) Jong-nam Na, “Making Cold War Soldiers: The Americanization of the South

이라는 거시적인 구조를 강조하였기 때문에 한국 측의 입장은 적극적으로 평가하지 못하였다. 이에 반해 주체와 한국 사회의 사회·문화적 측면까지 포괄한 연구는 한국군 연구에서 미국의 영향력과 더불어 한국 측의 대응에 주목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환기(喚起)하였다.⁵⁾ 본 논문은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1950년대 한국군의 확대·재편과정을 한국 정부의 국방정책 측면에서 분석하고, 한국군의 능동적인 역할을 규명하기 위하여 군사유학에 주목한다.

본론에서는 먼저 미국이 군사유학을 제공한 본질적인 의도를 살펴 본다. 군사유학은 동맹국 군대를 미군과 동일한 기준으로 만들고자 하였던 미국의 ‘동맹국 군대 표준화 구상’의 핵심 정책이었다. 군사유학을 매개로 이것이 한국군에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확인한다. 그리고 유학생 선발 과정과 한국군 장교들에게 제공된 ‘동맹국 장교 특별반 과정(Special Allied Officers Course, 이하 ‘특별반’)'을 검토하여 군사유학의 절차와 내용을 규명한다. 마지막으로 군사유학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방침을 분석하여 1950년대 한국 정부가 한국군 증강과 더불어 한국 사회 재건과 부흥이라는 국가운영의 차원에서 군사유학을 시행하였다는 사실을 규명한다.

본 논문에서 활용한 주요 사료는 미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 문서 집단의 사료 중 주로 주한미군사고문단(U.S. Military Advisory Group to the Republic of Korea, 이하 ‘고문단’) 부관과(Adjutant Section)에서 생산한 문서들을 이용하였다. 고문단 부관과가 한국군 교육훈련과 군사유학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책 전반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한국 정부의

Korean Army, 1945~1955”(Ph.D. diss.,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2006); 박동찬, 『주한미군사고문단(KMAG)의 조직과 활동(1948~'53)』, 한양대학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11.

5) 허은, 『미국의 헤게모니와 한국 민족주의: 냉전시대(1945~1965) 문화적 경계의 구축과 균열의 동반』,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08.

구상을 확인하기 위하여 국가기록원 대통령 기록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이승만 대통령의 국방 관련 지시사항을 중점적으로 활용하였다.

1950년대 한국군이 생산한 문서는 육군 기록정보단으로 이첩되었으나 군사유학 관련 문서는 보존되어 있지 않아 그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구술사료를 활용하여 문헌사료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주요 구술대상은 육군사관학교(이하 ‘육사’) 10기와 생도 2기 출신 가운데 선정하였다. 이들은 일제 강점기 일본군과 중국군에서 복무한 경험이 없어 군사유학을 통하여 제대로 된 군사교육을 처음 경험하였다. 그리고 1950년대 군사유학의 중점인 ‘특별반’ 과정에 주요 대상자들로서, 그 내용을 확인하는데 적합하다.⁶⁾

2. 미국의 한국군 ‘표준화’ 구상과 방안

가. 군사원조와 동맹국 군대 ‘표준화’ 구상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은 소련의 팽창주의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봉쇄정책을 추진하였다. 1947년 3월 트루먼 대통령은 소련의 동부 지중해 진출을 계기로 그리스와 터키에 대한 군사원조계획을 발표하고, 자유진영 국가들에 군사원조를 제공하기 시작

6) 구술 대상자는 황규만(육사10기, 1952년 미 보병학교 초등군사반 수료), 신위영(육사10기, 1952년 미 보병학교 초등군사반 수료), 박경석(생도2기, 1953년 미 보병학교 초등군사반 수료), 박보희(생도2기, 1952년 미 보병학교 초등군사반 수료), 장정열(생도2기, 1954년 미 보병학교 초등군사반 수료), 정우봉(생도2기, 1953년 미 보병학교 초등군사반 수료), 김운용(연락장교, 1953년 미 보병학교 초등군사반 수료)으로 총 7명이다. 구술을 허락하고 연구 활용에 동의해주신 대상자들에게 감사드린다.

하였다.⁷⁾ 미국의 군사원조는 1949년 중국 공산화와 소련 핵 실험 성공으로 크게 진전되었고, 같은 해 ‘상호방위원조법(Mutual Defense Assistance Act)’이 제정되면서 북대서양조약기구뿐만 아니라 아시아 지역에도 군사원조를 제공하였다.⁸⁾ 그리고 이 법에 근거하여 ‘상호방위원조계획(Mutual Defense Assistance Program)’을 시행함으로써 본격적으로 집단 방위체제를 구축하기 시작하였다.

상호방위원조계획은 군사장비와 무기의 직접 이관, 군수물자 생산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 군사장비와 무기에 대한 기술교육 및 각종 군사훈련 등 크게 세 가지 양상으로 구분되었다.⁹⁾ 이때 이 계획이 장기적으로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원조 대상국들이 미국의 군사교리를 이해하고 스스로 미국이 제공한 군사장비와 무기를 운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였다. 따라서 상호방위원조계획의 가장 근간이 되는 사항(primary emphasis)은 동맹국 장교에게 미국의 군사교리와 장비, 무기에 대한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었다.¹⁰⁾

7) 미국은 1947년 5월 그리스·터키 원조 법안(Greek-Turkey Aid Bill)을 마련하여 군사 장비를 이관하기 시작하였다. 그리스·터키에 대한 미국의 개입은 미국 세계정책의 근본적인 전환을 야기하였으며, 이에 대해서는 Howard Jones, “A New Kind of War”: America’s Global Strategy and the Truman Doctrine in Greece(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89), Ch.1~3을 자세히 볼 것.

8) 박동찬, 앞의 논문, 2011, 25쪽. 군사원조 대상국들은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세 그룹으로 구분되었다. 제1그룹은 북대서양조약기구의 회원국들로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이 있었으며, 제2그룹은 그리스와 터키, 제3그룹은 한국, 이란, 필리핀이 포함되었다. 상호방위원조법 전문은 앞의 논문 <부록 3>을 참조.

9) Lyman L. Lemnitzer, “The Foreign Military Aid Program”, Proceedings of the Academy of Political Science, Vol.23, No.4, (1950), p.438. 램니처 소장은 1949년부터 1년간 미 국방부장관실 내의 군사원조실장을 역임하였다. 미 국방부는 상호방위원조계획의 집행 부서였으며, 군사원조실은 군사원조 업무 전반을 검토하였다.

10) Robert H. Connery and Paul T. David, “The Mutual Defense Assistance Program”,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XLV, No.2, (1951), pp.328~329.

미국은 크게 세 가지 형태의 군사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였다. 군사학 교관을 양성하기 위하여 전문가로 구성된 훈련팀을 현지로 파견하는 경우가 있었고, 군사장비와 무기 운용방법을 교육하기 위하여 기술자를 제공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가장 대표적인 프로그램은 동맹국 장교들을 미국 현지 군사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정규 교육 과정을 제공하는 군사유학이었다.¹¹⁾

군사유학은 미국의 동맹국 군대 ‘표준화(standardization)’ 구상에 핵심이면서, 상호방위원조계획의 성패(成敗)에 중요한 전제가 되었다. 표준화 구상은 군사훈련과 군사작전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미군의 조직과 절차, 기술을 기준으로 동맹국 군대를 재편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동맹국 군대가 미국식 무기와 군사장비에 의존하게 만들어 미국이 제공하는 군사원조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데에 있었다.¹²⁾

특히 6·25전쟁을 계기로 미국의 대외 군사원조 정책이 크게 확대되면서 동맹국 장교들의 군사유학은 군사적 목적을 넘어서 미국의 대외정책 전반을 증진시킬 수 있는 정책으로서의 위상을 확립해 나갔다. 1954년 미 군사원조실장 대리를 역임한 윌슨(James K. Wilson, Jr.) 대령은 군사유학을 동맹국 정부의 대표자들과 장교단에 미국인들의 사고와 방식을 경험하게 만드는 과정으로서 ‘진정한 미래 이익을 위한 씨앗(seed of real future benefit)’으로 설명하였다.¹³⁾ 즉, 미국은 군사유학을 통해 동맹국 장교단과 긴밀한 관계를 구축하고자 하였고, 이것은 동맹국에 미국의 대외정책을 지속적으로 관철시키기 위한 ‘귀중한 통로(valuable channel)’를

11) James K. Wilson, Jr., “Development of Requirements for the Mutual Defense Assistance Program”(Washington, D. C: Industrial College of the Armed Forces, 1954), p.18.

12) Lyman L. Lemnitzer(1950), op. cit., pp.439~440.

13) James K. Wilson, Jr.(1954), op. cit., p.14.

확보하는 과정이었다.¹⁴⁾

이와 같이 트루먼 독트린 이후 미국의 세계 정책은 점차 소련에 대한 군사적 봉쇄에 중점을 두고 동맹국에 군사원조를 확대하는 것으로 전환되었다. 1947년 당시 한반도는 미 합참의 극동방위선에서 제외되었고, 미 합참은 한반도에서 소련과 전면전 시 공군 중심의 핵무기 의존전략을 채택하고 있었다. 그리고 같은 해 9월 한반도 문제를 UN에 상정한 이후 주한미군 철수를 전제로 대한정책을 재검토하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1948년 4월 포병화력과 중화기를 제외한 5만 명 수준으로 국방경비대를 증강하는 NSC 8이 채택되고 9월부터 주한미군의 철수가 시작되면서, 한국군 육성에 대한 논의는 자연스럽게 철군의 대안으로써 군사원조에 주안점을 두게 되었다.

한국 정부는 일방적으로 군사력 증강을 추진하면서 미국에 대규모 군사원조를 요청하였다. 그러나 미국의 군사원조는 NSC 8에 의한 수준으로, 1949년 6월 10만 명으로 급속히 팽창한 한국군은 무기와 군사장비가 매우 부족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직접 트루먼 대통령에게 추가 원조를 요청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¹⁵⁾

미국은 주한미군 철수에 대한 보완조치로써 대규모 군사원조 보다는 최소한의 개입정책의 일환으로서 한국군의 군사교육과 훈련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에 주목하였다. 따라서 한국에 군사고문단을 설치하여 한국군의 조직·훈련 및 무장에 관여하였다.¹⁶⁾ 그리고

14) Ernest W. Lefever, "The Military Assistance Training Program", Annals of the 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 Vol.424, (1976), p.92.

15) "The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Korea(Rhee) to President Truman", Aug 20 1949, FRUS, 1949, Vol.VII, pp.1075~1076; "President Truman to the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Korea(Rhee)", Sep 26 1949, FRUS, 1951, Vol.VII, pp.1084~1085.

16) 고문단의 구성과 기능에 대해서는 조이현, 「1948~1949년 駐韓美軍의 철수와

소수의 한국군 장교들에 군사유학을 제공함으로써 한국군의 훈련과 더불어 한국군이 미국식 군대의 골격을 갖추도록 만드는 데에 집중하였다.¹⁷⁾

그러나 1949년 후반 미국의 대외정책이 재무장과 적극전략으로 선회하면서, 미국 내 정책결정자들 사이에서는 일본의 부흥을 위해서 한국의 방위가 중요하다는 ‘일본 중심의 동아시아 재편론’이 강조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1950년 1월 한·미 상호방위원조협정의 체결로 추가 원조에 대한 법제적인 조건이 마련된 상황에서 한국의 전략적 가치에 대한 재평가는 대한 군사원조가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였다. 따라서 1950년 6월에 접어들면서는 한국에 대한 추가지원계획이 사실상 확정되었다.¹⁸⁾

나. 한국군 증강 논의와 군사유학의 확대

6·25전쟁은 미국의 대한 군사원조 정책에 일대 전환을 야기하였다. 미국은 개전 초기 미군 병력만으로 북한군을 상대하기 역부족이라 판단하였기 때문에 현실적인 차원에서 한국군의 병력을 충원하고 무기를 지원하였다. 그러나 1950년 10월 중공군 개입 이후 한국군은 급속히 붕괴되었고, 이는 유엔군 전선 전체에 심각한 부담으로 작용하였다. 그리고 1951년 5월 NSC 48/5로써 미국의 전쟁 전략이 ‘휴전’으로 기울면서, 미국은 38도선을 확보하는 선에서 휴전협정을 체결하고 외국군을 철수하며 북한의 남침에 대비하여 한국군을 증강한다는 새로운 종전정책을 채택하게 되었다.

駐韓美軍事顧問團의 활동」,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석사학위논문, 1995 참조.

17) 1948년 8월 최초로 6명의 한국군 장교들이 미 보병학교에 파견되었다. 이들은 10개월간의 군사교육을 이수하고 한국군 지휘관들에게 미국식 무기사용과 미군 편제, 전술을 교육하였다. 그리고 1950년 4월에는 33명의 장교들이 미군부대의 행정과 훈련을 시찰하기 위하여 주일 미군기지로 파견되었다.

18) 박동찬, 앞의 논문, 2011, 141~142쪽.

한국 정부는 휴전협정 체결이라는 미국의 종전정책에는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았지만 한국군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군사지원의 확대가 시급하다는 입장은 같았다. 실제 이승만 대통령은 1951년 3월부터 공군 증강을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있었다. 그는 미 제5공군에서 최소한 30대의 T-6 훈련기를 지원하고, 주일 미 공군기지와 미국 군사교육기관에서 한국 공군 장교들에게 위탁교육을 제공할 것을 요청하였다.¹⁹⁾ 이는 공군 중심의 군사력을 확충하여 미국으로부터 더 많은 군사원조를 획득하고자 하였던 의도였다.

그러나 한국 정부의 입장과는 달리 미 8군은 육군의 전투효율성을 향상시켜 빠른 시간 내에 눈에 두드러진 전과를 달성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육군의 화력을 증강하는 방안과 교육훈련 체계를 보강하기 위하여 육군 장교들의 군사유학을 재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하였다.²⁰⁾ 미국 내에서도 이승만 대통령의 공군증강 계획보다는 육군 중심의 군사력 건설이 현실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었으며, 한국 공군에 대한 지원은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²¹⁾

이와 같은 미국의 구상은 1951년 5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한국군 제3군단의 현리전투 패전을 계기로 미 8군사령관이 한국군의 작전통제권을 장악하면서 한국군 증강안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지도 제한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군의 증강은 미 8군의

19) Headquarters, Fifth Air Force, to the John J. Muccio, 'Request of President Syngman Rhee', 17 Mar 1951, RG 330, Records of the Office of Military Assistance, Entry 18, Project Decimal File, Box 68, Korea 091.3-400, 1950.

20) 6·25전쟁 중 육군의 재편성과 증강 정책에 대해서는 나중남, 「한국전쟁 중 한국 육군의 재편성과 증강, 1951~'53」, 『軍史』第63號, 2007, 228~249쪽 참조.

21) Major General S. L. Scott, Director, Office of Military Assistance, to the Director, International Security Affairs, Department of State, 'MDA Training of South Koreans', 29 May 1951, Undated, RG 330, Records of the Office of Military Assistance, Entry 18, Project Decimal File, Box 68, Korea 091.3-400, 1950.

주도 하에 육군에 집중하는 방안으로 시행되었으며, 군사유학은 한국군 증강 정책이라는 전체 구도 속에서 재개되기 시작하였다.

이때 미국은 보다 장기적인 측면에서 군사유학에 주목하였다. NSC 48/5 채택 이후 미국의 종전정책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었던 점은 6·25전쟁의 확전을 방지하고, 자유진영에서 위신을 확보하는 것이었다. 미국 정부는 이러한 의도를 달성하기 위해 한국의 국방 정책과 한국군 운영에 보다 깊숙이 개입할 수 있어야 하였다. 따라서 앞 절에서 살펴본 동맹국 군대 표준화의 측면에서 한국군 장교들의 대규모 군사유학 시행은 미국이 한국군에 장기적으로 영향력을 관철시킬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데 적합한 정책이었다.

군사유학이 재개되고, 확대 시행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이것이 미국의 입장에서 상당히 중요한 사안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1951년 5월 한국군 교육훈련 개선의 담당자로 임명된 참페니(A. S. Champeny)는 육군 작전참모부장 테일러(M. D. Taylor)와 한국군 장교들을 위한 ‘특별반’ 개설 문제를 논의하였다. 이때 교육 인원으로서 미 보병학교에서는 150명을, 포병학교에서는 100명을 제안하였고 이는 계획에 그대로 반영되었다.²²⁾ 이때 참페니가 한국에 귀국한 날짜가 7월 1일이므로 테일러와는 늦어도 6월 중에 만났다고 볼 수 있다. 채 한 달도 되지 않아 250명에 대한 교육계획을 수립한 것이다.

그리고 미 극동사령부는 대규모 군사유학의 성과를 들며 군사원조실에 이와 같은 교육을 지속적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²³⁾ 이에 대해 군사원조실은 회계연도 1953년의 군사유학 시행에

22) Brigadier General A. S. Champeny, AUS, to Commanding General, Eighth Army, 'Agreements Relative to Groups of Koreans Going to the United States for Attendance at Service Schools', 24 July 1951, RG 554, A. G. Decimal Files, 1948~'53, Box 57.

23) Brigadier General, GS, Deputy ACofS, G-4 for Foreign Military Aid, to the Director, Office of Military Assistance, Secretary of Defense, 'Training of

소요되는 자금을 인도차이나 의료계획(Indochina Medical Program)에서 전환한다는 결론을 내렸다.²⁴⁾ 이는 6·25전쟁 이전 주한 미 대사와 상호방위원조계획 조사단의 지속적인 요청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대한 군사원조가 현실화되지 못하였던 것과 비교할 때, 미국의 대한 군사정책이 명확하게 달라졌음을 보여준다.

이렇듯 대규모 군사유학은 미국의 주도 하에 추진되었다. 그러나 당시 한국 정부도 군사유학 시행에 상당히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었다. 1951년 5월 22일 이승만 대통령이 국방부장관과 육군참모총장에게 하달한 ‘장교 훈련에 관한 건(국방 제44호)’을 살펴보면, 이 시기 한국 정부는 UN군 사령부에 육군 장교 만여 명을 훈련시키는데 필요한 미 8군 장교들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을 알 수 있다.²⁵⁾ 즉, 이승만 대통령은 언젠가는 한국군 스스로 국방을 담당해야 한다고 생각하였으며, 육군 장교들에 대한 군사교육과 훈련을 매우 중요한 현안으로 취급하였다.

그리고 5월 22일과 30일 사이 UN군 측은 이승만 대통령에게 장교 50명에 대한 군사유학 시행을 처음으로 제안하였다. 이에 대해 이승만 대통령은 능력 있는 장교들을 선발하여 군사유학을 보내야 한다는 점을 당부하면서 국방부장관에게 이 제안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지시하였다.²⁶⁾ 이렇듯 대규모 군사유학의 시행은 한·미

ROKA Officers in ZI Service Schools Under Auspices of MDAP’, 18 Nov 1952, RG 330, Records of the Office of Military Assistance, Entry 18, Project Decimal File, Box 69, 111 FY 52 Korea.

24) Major General G. H. Olmsted, Director, Office of Military Assistance, to the Director for Mutual Security Executive, Office of the President, ‘Attendance of ROK Army Officers at U. S. Army Service Schools’, 9 Dec 1952, RG 330, Records of the Office of Military Assistance, Entry 18, Project Decimal File, Box 69, 111 FY 52 Korea.

25) “將校 訓練에 관한 件(大秘指 國防 第44號, 1951. 5. 22)”, AA0000360,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 사료.

26) “將校 米國麴에 派遣의 件(大秘指 國防 第47號, 1951. 5. 30)”, AA0000364,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 사료.

양국 정부의 공감대가 형성되어있었기 때문에 보다 신속히 재개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승만 대통령은 군사유학의 효과를 군사안보적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전후 부흥사업과도 연계하고 있었다. 전쟁 기간 군사유학은 전투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보병, 포병 등 전투 병과 교육을 중심으로 시행되었다. 그러나 점차 공병, 의무, 부관, 병기, 병참, 수송과 같이 사회 재건사업 일반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행정병과 교육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확대되었다. 일차적으로 이러한 변화는 한국군의 규모가 확장되면서 부대 관리와 군수 지원의 소요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쟁으로 인하여 사회 재건이 시급한 국가시책으로 대두하면서, 한국 정부는 군사유학 이수자들을 보다 광범하게 활용하고자 그 분야를 확대시켜 나갔던 것이다.²⁷⁾

한국 정부의 구상은 당시 민간 유학생에 대한 정부의 방침을 살펴보면 보다 명확하게 알 수 있다. 한국 정부는 민간 유학생들이 인문학 보다는 자연과학에 더 치중하면서 장차 부흥사업에 역점을 둘 것을 지시하였다.²⁸⁾ 그리고 유학생을 ‘공적 사명을 가진 해외여행자’로 간주하여 한국 사회 발전을 위한 다양한 건의사항을 포함한 귀국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²⁹⁾ 이렇듯 한국 정부는 1950년대 제한된 인적·물적 자원을 극복하는 데에 있어서 유학 이수자들을 매우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하였다.³⁰⁾ 특히 1950년대는 도미

27) 이에 대해서는 The Adjutant General's Office, Department of the Army, 'Brochure for General James A. Van Fleet', 17 May 1954, RG 330. Records of Other Special Assistants, Entry 185, Van Fleet Files, Box 14, Korea-Proposed Infantry Division 참조.

28) “獎學金 留學生 派遣에 關한 件(大秘指 文外 第7號, 1952. 9. ■)”, AA0000471,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 사료.

29) “海外派遣 公務員 等 公的 外國旅行者의 歸還報告書 作成에 關한 件, 1953. 4. 25”, AA0000737,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 사료.

30) 특히 이승만 대통령은 유학에 소요되는 비용을 전적으로 미국 정부가 부담하

(渡美) 유학 장교의 수가 민간 유학생 5,029명을 상회하는 10,026명에 달하였으므로,³¹⁾ 유학생 활용에서도 군사유학 이수자들에 보다 주안을 두고 있었다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다.

3. 한국군의 유학생 선발과 ‘특별반’ 이수

가. 유학생 위임선발과 고문단의 관여

미국이 제공하는 군사유학은 입교 대상자의 계급에 따라 미 지휘참모대학과 병과학교의 고등군사반 및 초등군사반 과정으로 구분된다. 지휘참모대학과 고등군사반은 한국군 장군과 영관장교들을, 초등군사반은 위관장교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1950년대 군사유학의 ‘확대’는 한국군 위관장교들을 대상으로 한 초등군사반에서 주로 이루어졌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초등군사반 유학생 선발 과정을 통하여 군사유학의 목적과 의미를 살펴보기로 한다.

우선 유학생 선발과 검증의 책임은 현지에 주둔하는 미군에 주어졌다. 미 육군부 정보처는 외국군 장교 선발 지침 및 입교 안내문을 해외 각국에 전달하였다.³²⁾ 안내문은 유학인원 보고 일정, 입교 및 수료일, 입교 복장과 필요한 장비 및 물품을 소개하는 내용을

여 한국 정부의 재정에 부담이 되게 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民軍 留學生 雜費 問題의 件(大秘指 財務 第14號, 1952. 12. 26)”, AA0000488,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 사료; “留學 將校 私用費 援助 獲得의 件(大秘指 國防 第5號, 1953. 3. 20)”, AA0000507,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 사료).

31) 조성훈, 『한미군사관계사의 형성과 발전』,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8, 161쪽.

32) Director of Intelligence, to Chief, US Military Advisory Group to the ROK, ‘Training Foreign Nationals at U.S. Army Schools, 1 Jan 1950 to 30 June 1950’, 6 Dec 1949, p.1(Incl 2), RG 338, KMAG, Adjutant General, Decimal File, 1948~’53, Box 11.

담고 있다. 한국의 경우,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공식적으로 주재하게 된 군사고문단이 책임을 지고 있었다. 그러나 실제 한국의 육군본부가 고문단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시험은 3단계로 진행되었다. 1단계는 필기시험으로 육군본부에서 각 사단, 군단 및 지구별로 시험관을 파견하여 국어, 영어, 수학, 국사 과목을 평가하였다.³³⁾ 필기시험에 합격한 장교들은 2단계인 구두시험 및 신체검사 실시를 위하여 육군본부에 집결하였다. 구두시험은 ‘민주주의가 무엇이며, 영어로는 어떻게 표현하는가’와 같이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이해와 함께 영어 수준을 확인하는 방식이었고, 신체검사로 X-Ray 촬영을 실시하였다.³⁴⁾

미 보병학교 유학생의 경우 최종적으로 150명을 선발하였는데, 2단계 시험을 통해 대략 170명 정도를 선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육군본부로 재집결하였으며, 한국군 방첩대의 신원조회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선발될 수 있었다.

사상검증은 지나쳤고, 약간 한 걸로 알고 있어. 내가 인민군 포로가 되었다 왔거든. 그래서 내가 처음에 안 되었어. 내가 합격했는데도 빠져서 항의하니까 방첩대에서 뭐가 넘어왔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인민군한테 부역한 것도 아닌데 나를 빼다니 말도 안 된다. 그래서 처음에 빠졌어. 그래서 사상검증이란 말은 지나치지만은 한국군 방첩대에서 리스트가 올라오면 빠지는 것은 사실이야. 일부 있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었어. 내 사례로 봐서.³⁵⁾

사상검증은 170명을 전부 스캐닝 해. 서류상으로. 경력, 과거의 일, 학교 다닐 때 어떻게 했는가. 말하자면 조사를 해. 그 조사는 말하자면 정보적인 조사지. 뒤에 숨어서. 나중에 와서 ○○○ 대위 나오시오, ○○○ 소령 나오시오

33) 신위영(육사10기, 1952년 미 보병학교 초등군사반 수료) 구술; 장정열(생도2기, 1954년 미 보병학교 초등군사반 수료) 구술.

34) 김영선, 『백마고지의 광영』, 팔복원, 1997, 114쪽; 정우봉(생도2기, 1953년 미 보병학교 초등군사반 수료) 구술.

35) 박경석(생도2기, 1953년 미 보병학교 초등군사반 수료) 구술.

하고 방첩대에서 데려가. 그러고는 오지 않아. 나중에 알고 보니 학교 다닐 때 조금 좌경에 가담했던 인원들을 걸러냈어. 그래서 150명이 된 거지.³⁶⁾

특무부대에서 신상정보 조사한다고. 다 써내라고 한다고. 그래서 사상이니 집안에 뭐 반 한국인 사람들이 있는지 조사한다고.³⁷⁾

신원조회를 통해 20여 명을 불합격시켰다는 사실은 신원조회가 비교적 철저히 실시되었다는 점을 보여준다. 비록 군사유학 지원자들이 장교 신분으로 전쟁에 참전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경력이나 반공의식 등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검증의 과정을 거쳐야 하였다.

신원조회까지 합격한 인원들은 육군본부 보충대대에서 소양교육을 받았다. 교육은 귀국한 유학생 및 통역관 등 도미 경험자들이 실시하였다.³⁸⁾ 교육 내용은 미국의 역사와 문화, 식사에절과 수세식 변소의 사용법 등 미국 사회와 미국인들의 생활양식이 중점이었고, 생활 및 군사 영어도 교육되었다.³⁹⁾ 이들은 소양교육 기간에 미 8군으로부터 합격 증명서와 같은 ‘초청여행명령(Invitational Travel Order)’을 발급 받았으며, 명령을 참고하여 유학 준비를 완료하였다.⁴⁰⁾

이와 같이 한국군 육군본부에서 선발 시험을 주관하였지만 그것은

36) 정우봉(생도2기, 1953년 미 보병학교 초등군사반 수료) 구술.

37) 장정열(생도2기, 1954년 미 보병학교 초등군사반 수료) 구술.

38) 이치업, 스티븐 엠·팔프 공저, 『Call Me “Speedy Lee” 번개장군』, 원민, 2001, 168쪽.

39) 백행걸, 『미완성의 성취』, 팔복원, 1994, 87쪽.

40) 명령의 내용은 차량 소지와 가족동반, 급여지급 기준, 입·출국 시 주의사항 정도였다.(1st Lt. Harold L. Durrett, Asst. Adjutant General, KMAG, to Individuals indicated in this order, ‘Individual Orders to the ZI’, 26 Sep 1953, RG 319, Records of the office of the Assistant Chief of Staff, G-3, Operations, Academic Training Records of Individual Foreign Nationals, 1952~’54, Box 11).

고문단의 업무를 일선에서 대신 수행하는 수준이었다. 고문단은 미 병과학교에 대한 한국군의 각종 요청 사항들을 검토하고 결심하여 미 육군부에 요청하였다. 그리고 군사유학과 관련된 모든 기록을 유지하고 진행 상황을 월간 보고서 형태로 육군부에 제출하였다.⁴¹⁾

특히 고문단은 유학생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한국군 장교들의 보직과 인력 순환을 고려하여 인원을 할당하였다. 예를 들면 포병학교가 100명의 인원을 한국군에 할당하면 고문단은 할당된 100명을 한국군 포병학교 교관 14명, 야전부대 인원 63명, 포병학교 졸업 예정자 23명으로 세분화하였다.⁴²⁾ 그리고 한국군 인사 담당자와 협의하여 유학생들이 교육을 마치고 복귀한 직후 교육 효과를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직책에서 근무하도록 배치하였다. 1952년 미 포병학교 초등군사반 과정을 이수한 이연호의 증언은 고문단 차원에서 군사유학 이수자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구상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해준다.

대위로 교육받았다고 작전주임을 하게 되었고 같이 교육 갔던 소위 중위들도 대대로 가서 작전관을 해서 부대마다 전화하면서 잘 통하게 되었다. (중략) 아마도 Mayor 대령이 지시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우리 포병을 전방에 배치하면서 포병의 고문관으로 Mayor 대령이라고 인사권까지 갖고 있었다. 포병감은 행정처리만 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교육과 기술을 지도하였다.⁴³⁾

이는 고문단이 한국군의 교육기관과 야전부대 사이의 장교인력 순환을 비롯하여 한국군 장교의 양성(養成) 및 보수교육(補修教育)과

41) Headquarters, United States Military Advisory Group to the Republic of Korea, "Advisor's Procedure Guide", 21 June 1956, p.19, RG 334, Records of the U.S. Military Advisory Group to the Republic of Korea(KMAG), Entry 204, USMAG Korea.

42) G3, Adv. to C/S, KMAG, 'Student Officers to US Schools', 22 Aug 1951, RG 338, KMAG, Adjutant General, Decimal File, 1948~'53, Box 40.

43) 육군본부, 『포병과 6·25전쟁 증언록』, 2012, 298쪽.

보직 등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비록 한국의 육군본부가 고문단으로부터 유학생 선발 업무를 위임받았지만, 그것은 고문단의 영향력이 관철되는 구조 속에서 시행된 것이었다. 그리고 고문단은 이를 통해 한국군 장교단의 인사·교육 업무 전반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구조를 만들 수 있었다.

나. 미국식 군대개념과 문화의 수용

유학생 선발에 최종 합격한 인원들은 6개월 간의 초등군사반 교육을 이수할 수 있었다. 1950년대 군사유학의 실질적인 확대가 초등군사반 교육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이를 확인하는 것은 미국이 군사유학을 제공한 본질적인 의도와 더불어 미국이 군사유학을 통해 한국군 장교단에게 요구하였던 것은 무엇인지, 나아가 한국군 운영에 대해 어떤 구상을 하고 있었는지 등을 확인하는데 중요하다.

〈표 1〉 미 포병학교 유학단 인원 규모 및 계급 구성 (단위: 명)

구분	제1차 (‘51.10~’52.3)	제2차 (’52.4~9)	제4차 (’53.3~9)	제5차 (’53.11~’54.4)	제6차 (’54.4~’54.8)	제8차 (’55.10~’56.3)
위관	91	92	116	105	104	123
영관	7	17	7	8	7	5
계	98	109	123	113	111	128

출처: Final Processing Roster(Artillery Students, US Schools), 6 Sep 1951, RG 554, A.G Decimal Files 1948~53, Box 40; U.S. Artillery School, 1953a; 1953b; 1954a; 1954b; 1955, *US Artillery School Allied Officers Course*(渡美留學記) 참조.

주 1) ()는 유학단별 교육기간이다.

주 2) 도미유학기는 미 포병학교 유학단 기수별로 제작한 앨범이며, 미 포병학교 전자 도서관(Morris Swett Library Digital Collections & Archives)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현재 2, 4, 5, 6, 8차 유학단의 앨범이 탑재되어 있다.

먼저 한국군 장교들에게 제공되었던 교육의 정식 명칭이 ‘초등군사반’이 아닌 ‘동맹국 장교 특별반 과정(Special Allied Officers

Course, 이하 ‘특별반’이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별반 과정은 미군 장교들에게 제공되는 초등군사반 과정과 비교하였을 때 소대 지휘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교육이라는 점에서 그 교육 목적은 동일하였다. 그러나 미국은 군사유학의 의도를 보다 효과적으로 관철시키고자 초등군사반 과정을 일부 수정한 ‘특별반’ 과정을 한국군 장교들에게 제공하였다.

구술을 토대로 특별반 과정을 유추해보면, 이는 화기학, 전술학, 학술 분야로 구분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먼저 화기학에서는 수류탄, M1·카빈·브라우닝 소총, 기관총, 박격포에 대한 이론교육과 기록 사격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전술학은 분대~대대급 공격·방어전술과 공병, 기갑 등 보병 이외의 병과에 대하여 교육하였고, 소대 지휘능력 배양에 중점을 두었다. 마지막으로 학술은 군대 예절, 통솔법, 응급처치, 차량학 등의 기초 과목과 대대급 인사·정보·작전·군수 업무를 가르치는 참모학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 내용은 1954년을 기준으로 작성한 것으로, 교육내용은 1951년 군사유학이 재개된 이래 점차 한국군의 실정에 맞게 조정되었다. 이때 교육 내용의 변화 양상은 그것이 미국의 군사유학 제공 의도를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1차로 특별반을 수료한 황규만과 5차로 특별반을 수료한 장정열의 구술 내용을 비교해보면 처음에는 미군 장교들의 초등군사반 과정이 한국군 장교들에게 그대로 제공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미군 교리는 순 제2차 대전 당시 유럽의 평지에서 쓰던 교리를 가지고 우리를 가르쳤으니까. (중략) 그냥 과거에 미군 장교들 초등군사반, 고등군사반 가르치던 스케줄 가지고 그냥 가르친 거야.⁴⁴⁾

맨 처음에 1기서부터는 한국 실정을 다 모르니까 미국식으로 가르친 것 같더라고.

44) 황규만(육사10기, 1952년 미 보병학교 초등군사반 수료) 구술.

우리 때는 한국의 편제, 한국의 장비능력, 전투능력 같은 거 다 알고 거기에 맞춰서 교육시켰다고.⁴⁵⁾

이후 몇 번의 유학을 거치면서 교육 내용은 조정되었다. 이는 2차로 특별반을 수료한 박보희와 4, 5차로 특별반을 수료한 박정석, 장정열의 증언을 검토하여 확인할 수 있다.

M1소총부터 시작해서 기관총, 기관포, 박격포, 105밀리 야포까지. 사격은 직접 훈련하고. M1소총은 다 가지고 있었으니까. (중략) 기관총이나 박격포는 직접 사격하지 않고. 다 내어 놓고 현장에서 배웠습니다. 한국군이 가지고 있던 화기도 많이 있었고 무반동총처럼 미처 못 가지고 있었던 화기도 소개하고 그랬습니다. (중략) 군대예절은 한국에서의 초보 교육에 의해 맡겨졌기 때문에.⁴⁶⁾

리더십은 굉장히 심층까지 가르치더라고.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실습도 하고. 어느 지휘관이 어떤 경우에 어떻게 대처를 실습했는데, 우리는 그런 게 없어. 단순한 원칙론 정도. 응용 및 실습이 없었어. 우리는 이론, 미국은 실습이 많아. 다른 과목들도 실습위주로 되어 있어. 그게 특징이라고. 굉장히 실용적인 교육이구나. 당시에는 상상을 못했던. 그 넓은 지역에서 실질적으로 전부 다 해.⁴⁷⁾

맨 처음 배운 것이 군대예절서부터 배운 것 같아. (중략) 경기관총은 직접 나와서 쏘는 거야. 우리나라에 편제되어 있는 거야. 로켓도 직접 쏘본다고. (중략) 중대 전술훈련까지는 전부 직접 실습을 한다고.⁴⁸⁾

구술을 통해 한국군의 실정에 맞게 정비되는 내용에서 두 가지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유학생들은 점차 한국군에 편제된 장비와 화기에 대해서만 교육을 받게 되었다. 그리고 둘째, 본격적인

45) 장정열(생도2기, 1954년 미 보병학교 초등군사반 수료) 구술.

46) 박보희(생도2기, 1952년 미 보병학교 초등군사반 수료) 구술.

47) 박정석(생도2기, 1953년 미 보병학교 초등군사반 수료) 구술.

48) 장정열(생도2기, 1954년 미 보병학교 초등군사반 수료) 구술.

군사학 교육에 앞서 군대예절, 리더십 등 장교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소양과 관련된 과목이 추가되었다. 이는 특별반 과정이 초등 군사반 과정에 장교후보생 과정(The Infantry Officer Candidate Course)을 접목한 것임을 짐작하게 해준다.

군대예절은 장교후보생 과정에서 훈육관(Tactical Officer)들이 후보생에게 가르치는 기초 과목으로 병영에서 질서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예절을 의미하며 명령과 복종, 군인의 용모 및 언행, 상호 인사 및 경례, 군 기강, 병영 내 공공시설 사용법 등을 포함한다. 따라서 미국이 한국군 장교들에게 요구하였던 것은 단순한 군사지식의 습득이 아닌 기본적인 행동과 마음가짐에서부터 미군 장교단의 관례와 규범을 체득하는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⁴⁹⁾

이러한 사실은 미국이 군사유학을 통해 한국군 장교들에게 군사 지식뿐만 아니라 미국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한국의 군대가 ‘미국식 군대개념’을 수용할 수 있도록 의도 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해준다.⁵⁰⁾ 이것은 한국군의 교리, 조직, 문화가 미군의 기준과 가치를 따르도록 유도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미국은 일본 군대를 경험하지 않고, 해방 이후 단기간이지만 미국식 교육을 받은 젊은 위관장교들을 군사유학의 주요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교육 내용도 이를 고려하여 편성하였던 것이다.

49) 미 장교후보생 과정에서 훈육관은 교육 대상자들에게 미 육군의 본보기(example)를 제공하고, 그들이 동질적인 팀(homogeneous team)이라는 느낌을 갖도록 만드는 역할을 하였다(The Infantry School, Fort Bennin, Manual For Tactical Officers, 1953, pp.1~7). 이에 대해 구술자들은 공통적으로 미 교관과 고문관들을 보며 장교의 본모습을 느낄 수 있었다고 술회하였다.

50) 이에 대해 나종남은 군사유학이 한국군 장교단의 미국화를 위한 패키지 플랜(Package Plan)이었다고 평가하였으며, 한국군이 ‘미군에 의해 통제될 수 있는’ 군대가 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았다(Jong-nam Na(2006), op. cit., pp.201~202). 그리고 허은은 미 본토에서 실시하는 한국군 교육 계획을 한국군 장교들에게 ‘미국의 이해가 관철되는 정치 전개를 거스르지 않는 군대상’을 주입하는 과정으로 평가하였다(허은, 앞의 책, 2008, 210쪽).

군사유학은 한국군 장교에게 군사 교육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미국 사회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우선 유학 장교들은 공식 일정으로서 견학이나 초청 행사를 경험하였다. 제1차 유학단의 경우, 미 육군부가 워싱턴 D.C.의 알링턴 국립묘지, 백악관, 국방부를 방문하는 일정을 제공하였다.⁵¹⁾ 미 병과학교에서는 지역주민의 자택을 방문하거나 교회 예배 참석을 공식화하기도 하였으며, 간혹 지방 방송국과 지역 신문사의 인터뷰를 주선하기도 하였다.⁵²⁾ 그리고 공식 일정 외에도 주말과 연휴 기간에는 개별 여행을 통하여 미국 사회와 접촉할 수 있었다.⁵³⁾

그러나 이와 같은 군사유학을 통해 모든 장교들이 미국 사회와 미군에 대하여 동일한 인식을 가졌던 것은 아니다. 이들의 인식은 개인의 특정한 경험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형성되었다. 예를 들면 같은 사건에 대해 황규만, 박경석의 인터뷰 내용은 상반되었다.

그때 대구 육군본부 강당에서 잘 때, 전부 작업복밖에 없잖아. 그거 다 벗어던지고 카키복으로 새 옷을 두 벌씩 줬다고. 근데 왼쪽 가슴에 S자 도장이 찍혀 있었어. 그리고 오른쪽 엉덩이 부분에도 S라고 도장이 찍혀 있었어. 처음에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몰랐어. 새것이니깐 좋아서 입은 거야. 근데 샌프란시스코 도착해서 미국 기자들이 막 몰려오잖아. 그런데 개네들이 봐도 이상하잖아. 군복에 S자가 박혀 있으니깐. 그러니까 우리도 응급적으로 대답한 것이 South Korea야.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Salvage였던 거야. 구호품. 그러니까 미군 이놈들이 소 귀에 Earmark 찍는 것처럼 도장을 찍어 놓은 거야. 그러니까 자존심 상했지. 그냥 주지 말아야. 소도 아니도. 그래서 미 보병학교 피엑스에서 그 옷은 다 내버려버리고 새 군복으로 다 샀다고. 그 사건 이후로 전부 반미주의자가 되었어. 전부.⁵⁴⁾

51) Colonel Frank Dorm, Chief, PI Division, to Deputy Chief of Staff for Operations Administration, 'Itinerary for ROK Officers', 21 Sep 1951, RG 319, Chief of Staff, Decimal Files, 1951~'52, Box 742.

52) 이계홍, 『장군이 된 이등병』, 화남, 2005, 221~223쪽.

53) 채명신, 『死線을 넘고 넘어』, 매일경제신문사, 1994, 291~293쪽; 이견영, 『敗者の勝利』, 進明文化社, 1996, 54~56쪽.

미국 보병학교에서는 미국 장교들과 똑같이 대우했어. 똑같은 식당에서, 똑같이 150달러(유학 기간 중 미국이 한국군 장교에게 지급한 한 달 급여 - 인용자 주). 그러니 감동한 거지. 당시 한국군이 샌프란시스코 부두에 내렸을 때는 구경거리였지. 군화도 없어서 정복에 워커구두. 그런데 놀라울 정도로 차별을 안두더라고. 나도 S자 붙은 거야. 근데 그거야 할 수 없지 뭐. 난 뭐 그냥 받아들였다고. 고맙다고 생각했어.⁵⁵⁾

한국군 위관장교들이 군사유학을 통해 갖게 된 미국 사회와 미군에 대한 감정은 매우 다양하였으며, 모두 친미주의자가 되었던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⁵⁶⁾ 그러나 이들은 공통적으로 군사유학이 한국군 초기 발전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에 공감하였다. 그리고 미국 사회와 미군에 대한 개인적인 인식과는 별개로 미국에서 배운 교육 내용을 상당히 신뢰하였으며, 미군의 방식이 ‘합리적’이라는 생각을 가졌다.⁵⁷⁾ 유학 이수자들의 이러한 인식은 이들이 귀국한 뒤 미국의 군사교육 내용을 한국군에 적극적으로 적용해 나가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되었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54) 황규만(육사10기, 1952년 미 보병학교 초등군사반 수료) 구술.

55) 박경석(생도2기, 1953년 미 보병학교 초등군사반 수료) 구술.

56) 군사유학을 이수한 한국군 장교들의 다양한 대미 인식과 이와 관련된 각종 사례에 대해서는 그렉 브라진스키 지음·나종남 옮김, 『대한민국 만들기, 1945~1987: 경제 성장과 민주화, 그리고 미국』, 책과함께, 2011, 160~167쪽 참조.

57) 이와 관련해서 1954년 미 보병학교 고등군사반 과정을 이수한 정승화는 ‘그들의 합리적인 사고방식과 생활화된 민주주의적 태도는 우리에게 생소한 것이어서, 그런 점을 많이 배웠다. (중략) 이 차이를 우리는 피부로 느끼고 많이 배웠다’고 회고하였다(정승화 지음, 이경식 정리·대필, 『대한민국 군인 정승화』, Human & Books, 2002, 235쪽).

4. 한국군의 유학 이수자 활용과 그 영향

가. 유학 이수자 배치와 군 조직개편

한국군은 유학 이수자들을 활용하여 미국식 군사교육을 빠르게 도입해 나갔다. 한국군은 한국 정부의 관심과 지원 아래 유학 이수자들을 중용(重用)하였다.⁵⁸⁾ 유학 이수자들은 계급에 비해 상위 보직에 임명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1952년 미 포병학교 초등군사반을 이수한 김춘배는 ‘교육 후 나는 다시 제50포병대대로 복귀해서 중위인데도 미국 교육받았다 해서 대대 작전장교 임무수행을 하였다.’고 술회하였다.⁵⁹⁾ 대대 작전장교는 대위 보직으로서, 김춘배는 자신의 계급보다 한 단계 높은 계급이 수행하는 보직을 맡았던 것이다. 박경석의 경우 1953년 미 보병학교 초등군사반을 수료하고 소령으로 진급하였으며, 이때 보직은 중령이 담당하도록 되어 있는 제2훈련소 작전과장과 감사과장 자리였다.⁶⁰⁾

이와 같은 한국 정부의 관심과 한국군의 지원이 있었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유학 이수자들 스스로 미국의 군사교육을 매우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였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초등군사반 교육의 가장 큰 소득이 ‘교수법(教授法)’이었다는 황규만, 신위영, 김운용의 증언은 중요한 의미를 내포한다.

58) 당시 한국 정부는 군사유학의 성과를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1955년 6월 한국 정부는 유학을 마친 젊은 장교들을 ‘한국군 증강의 핵심체’로 보면서, 미 지휘참모대학, 보병학교, 포병학교 교장에게 무공훈장을 수여할 계획을 추진하였다. (“미포병학교 ‘윌리엄’ 소장 외 2명에 대한 무성태극훈장수여의 건 품 의”(국무원 사무국장, 1955. 6. 8)”, AA0001549,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 사료); 이는 한국 정부가 미 군사교육기관들의 역할을 6·25전쟁에 참전한 야전부대들의 전과와 동등한 의미로서 평가하였다는 것을 보여 준다.

59) 육군본부, 앞의 책, 2012, 123쪽.

60) 박경석(생도2기, 1953년 미 보병학교 초등군사반 수료) 구술.

미국에서의 가장 큰 소득은 교수법이야. 이게 가장 큰 재산이야. 그 전에는 교수법이라는 것이 없었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가르치는가 그게 없었거든. (중략) 교안이든 교재든 다 가져왔지. 교재 거기서 쓰던 거 몽땅 다 가져왔지. 그래서 그때 처음 강의록도 작성하는지 알았어. (중략) 예를 들면 화기학에서 그 전에는 기관총, 소총 있으면 다 진열해 놓고 기관총이면 기관총 설명하고 소총이면 소총 설명하고 이런 식이었던 말이야. 근데 미국 가서 보니까 지금 딱 설명하는 것 외에는 보자기로 다 가려놓고 내가 지금 설명하는 것이 소총이면 소총만 딱 벗겨놓고 설명하였다고. 왜냐면 학생들이 소총에만 집중하겠지. 다 그런 것들까지 배웠다고. 그러니까 학생들이 궁금하지.⁶¹⁾

교육 방법이 아주 좋아. 통역관을 대동했잖아. 예습교재를 한글로 통역관들이 2~3일 전에 내줘. 교관이 지껄이면 통역관이 통역을 하니까. 바로 통역관이 있으니까 불편한 점이 없지. 교육 방법이 좋아. 그렇지 교수법이지. 예습교재를 주고 꼭 시범을 먼저 시키고, 마지막에는 토론을 하고. 그런 것이 당연한 거지만 그 방법이 좋구나 하는 것. 그런 것 느꼈지.⁶²⁾

교수법도 조금 하고. (중략) 아까 얘기한 강의·시범·실습·시험. 시험도 멀티 플 초이스라고 다수 선택형하고, OX 두 가지. 한국에서는 내 초등군사반 다닐 때는 그렇게는 안했었어.⁶³⁾

이처럼 군사유학 이수자들은 강의·시범·실습·시험으로 이어지는 미 병과학교의 교수법이 매우 합리적인 방식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교육 내용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었다. 한국의 젊은 장교들은 대부분이 별도의 군사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었고, 일부 인원들이 한국에서 군사교육을 받았다 해도 그것은 김운용의 회고에서처럼 획기적으로 인식될 정도는 아니었다. 그들은 미국식 교수법을 대단히 효과적이라고 보았으며 군사교육에 있어서의 표준으로 받아들였다. 따라서 귀국 후 군사교육기관에 배치된 인원들의 경우, 가장 먼저 교수법과 강의록부터 미국식으로 수정하기 시작하였다.

61) 황규만(육사10기, 1952년 미 보병학교 초등군사반 수료) 구술.

62) 신위영(육사10기, 1952년 미 보병학교 초등군사반 수료) 구술.

63) 김운용(연락장교, 1953년 미 보병학교 초등군사반 수료) 구술.

이때, 앞서 김춘배의 증언에서 알 수 있듯이 군사유학 이수자들은 주로 야전부대 작전 업무를 담당하는 보직에 임명되었다. 유학 이수자들의 보직 현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면, 1952년부터 1954년까지 한국군은 유학 이수자들을 주로 야전부대와 군사교육기관에서의 교육 업무에 배치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표 2>는 1952년부터 1954년까지 미 보병학교 및 포병학교 초등군사반 이수자들의 귀국 후 보직을 정리한 것이다.

<표 2> 1952~1954년 미 보병·포병학교 초등군사반 이수자 귀국 후 보직

계급/성명	미 보병학교 이수 후 보직	계급/성명	미 포병학교 이수 후 보직
중령 이○영	사단 작전참모	중령 정○완	포병학교 전술학 과장
소령 박○식	5군단 작전과장	대위 이○호	1포병단 작전주임
소령 박○인	제1훈련소 교관	대위 최○원	5사단 26포병대대 작전·정보주임
소령 양○식	제2훈련소 화기학과 부과장	대위 동○균	5사단 26포병대대 작전주임
소령 최○택	보병학교 정보 교관	대위 한○진	7사단 93포병대대 작전주임
대위 정○봉	5군단 교육과장	대위 최○석	12사단 66포병대대장
대위 신○영	수도사단 1연대 1대대 작전교육관	대위 문○구	포병학교 전술학과 교관
대위 김○동	5사단 35연대 작전과장	대위 김○돈	육군사관학교 전술학과 교관
대위 김○배	27사단 작전처 교육과장	소위 고○환	1포병단 51포병대대 작전주임
대위 김○용	27사단 79연대 정보과장 *주 1)	중위 신○균	1포병단 작전보좌관
대위 이○환	28사단 연대 작전과장	중위 김○영	20포병단 작전보좌관
대위 김○현	제1훈련소 전술학과 공격 교관	중위 강○영	6사단 27포병대대 작전장교
대위 탁○길	제1훈련소 화기학과 M1소총 교관	중위 한○진	7사단 93포병대대 작전주임
대위 박○석	제2훈련소 정보교관	중위 김○배	8사단 50포병대대 작전장교
대위 김○영	제2훈련소 교관	중위 박○억	11사단 20포병대대 작전주임
대위 장○열	보병학교 전술학과 방어 교관	중위 오○창	포병학교 통신교관
대위 함○영	보병학교 전술학과 교관	중위 이○구	포병학교 교도대대 작전보좌관
대위 황○만	보병학교 화기학과 기관총 교관	소위 전○식	9사단 30포병대대 작전주임
대위 이○우	보병학교 화기학과 자동소총 교관		
대위 김○진	하사관학교 교관		
중위 백○걸	7사단 작전처 작전교육 과장		
중위 안○준	28사단장 전속부관		
중위 임○재	제1훈련소 전술학과 분대방어 교관		
중위 김○오	제2훈련소 화기학과 사격술 교관		
중위 유○호	제2훈련소 정보 교관		
중위 박○희	보병학교 화기학과 M1소총 교관		

출처: 미 보병학교 이수자들의 보직은 인터뷰 결과와 박정인, 『풍운의 별』, 홍익출판사, 1994, 215~217쪽; 백행걸, 앞의 책, 1994, 89쪽; 이건영, 앞의 책, 1996, 59쪽을 참조하였으며, 본 연구자가 김운용과의 인터뷰 간 확인한 1953년 4차 미국 유학 이수자들의 모임인 '4미회(四美會)' 회원 16명과의 통화 내용을 반영하였음. 미 포병학교 이수자들의 보직은 문용구, 『나의 軍 나의 삶』, 서문당, 1993, 318쪽; 육군본부, 앞의 책, 2012를 참조.

주 1) 김운용은 실제 사단 작전처에 파견되어 작전 및 통역 업무를 담당하였다.

〈표 2〉를 참조하면 한국군은 군사유학 이수자들을 대략 세 가지 분야에서 활용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먼저, 한국군은 이들을 야전부대의 작전 참모로 임명하였다. 작전 참모는 군사작전 수행과 교육훈련 업무를 총괄하는 장교로서, 유학 이수자들은 한국군의 작전 수행능력을 향상시키고 새로 창설되는 부대의 교육훈련을 전담하기 위해 야전부대 작전 참모로 보직되었을 것이다.

다음으로 한국군은 유학 이수자들을 군사교육기관의 정비와 확충을 위하여 각종 군사교육기관의 교관으로 편성하였다. 이들은 신병양성을 위한 제1·2훈련소 및 사단 신병교육대 교관부터 장교 양성 및 보수교육을 위한 육군사관학교, 보병학교 및 육군대학의 교관까지 육군의 전 교육기관으로 배치되었다.⁶⁴⁾

마지막으로 한국군은 이들은 부관 혹은 연락장교로 배치하였다. 유학 이수자들 중 영어 능력이 뛰어난 인원들은 사단장급 이상 지휘관의 부관으로 선발되어 통역업무를 전담하였으며, 연락장교로 파견되어 한국군과 미군 사이의 업무를 조율하였다.⁶⁵⁾

그러나 1953년 7월 휴전협정이 체결되고 1954년 12월 한국군의 증강 및 재편성이 완료되면서 유학 이수자들은 대부분이 군사교육기관의 교관으로 임명되었다. 그리고 이를 육군규정에 반영하여 보다 제도적인 차원에서 뒷받침하였다. 유학 이수자들이 습득한 지식과 기술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는 보직이 바로 군사교육기관의 교관이었기 때문이다. 미 참모대학과 병과학교 교육 이수자는 각각 육군대학과 해당 병과학교 교관으로 최소 2년 이상 근무해야 하였다.⁶⁶⁾ 그리고 교관 임무를 수행하지 않는 인원들도 교육기관의

64) 張昌國, 『陸士卒業生』, 中央日報社, 1984, 363쪽.

65) 김운용(연락장교, 1953년 미 보병학교 초등군사반 수료) 구술.

66) 「장병유학규정」 제40조(육규 600-22, 1964. 6. 15). 이 규정은 1950년대 「육군 유학 장병규정」과 「외국 군사학교 이수자 인사관리 규정」을 통합한 것이다. 현재 「외국 군사학교 이수자 인사관리 규정」의 내용을 확인할 수는 없다. 다만, 구술을 통해서 「장병유학규정」에 반영되어 있는 유학 이수자 보직관리에 대한

주요 행정 실무자로 보직된 것으로 보아,⁶⁷⁾ 1950년대 중반부터는 군사교육기관의 확충에 주안을 두고 유학 이수자들을 활용하였다고 생각된다.

이처럼 1950년대 중반부터 한국군이 군사유학 이수자들을 병과 학교에 중점적으로 배치하기 시작한 것은 이 시기 한국군이 직면한 상황과 그에 따른 군 조직의 변화와도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 전후 한국군은 대규모로 확장된 군대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필요성에 직면하면서 점차 지원임무(supporting mission)에 중점을 두기 시작하였다.⁶⁸⁾ 따라서 한국군의 조직 역시 건설, 의료, 통신, 행정 분야 등 지원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재편되기 시작하였다.

한국군은 1954년 9월 기존 교육총감부를 교육총본부로 개편하면서 전투병과학교뿐만 아니라 기술 및 행정병과학교를 교육총본부 예하로 조정하여 군의 기술, 자재 활용 및 교육발전 업무를 통합하였다.⁶⁹⁾ 그리고 후방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해 1954년 10월 대구에서 2군사령부를 창설하고 그간 미 후방기지사령부를 통해서 지원받아오던 후방지원 일체를 독자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⁷⁰⁾ 이에 따라 한국군은 기술 및 행정병과의 군사유학을 확대하여, 유학 이수자들을 기술 및 행정병과 확충에 따른 교관과 주요 행정 실무자로 활용하면서 조직 재편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확보해 나갔다.

내용들이 1950년대 그것과 동일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를 참조하였다.

67) KMAG, 'Country Statement of Korea', June 1951, p.5(Section C), RG 319, "KMAG in Peace and War", Box 8.

68) Headquarters, Republic of Korea Army, 'Recommendations', Undated, '2. Enhancement of Military Training', RG 330, Records of Other Special Assistants, Entry 185, Van Fleet Files, Box 12, Recommendations.

69) 陸軍本部, 『육군발전사 제2권: 1953. 7. 27~1962. 12. 31』, 1970, 139~144쪽.

70) 김증기 편저, 『한국 군사사』, 경남대학교 출판부, 2011, 304쪽.

〈표 3〉 1952~1954회계연도 미국 군사유학 이수 및 1955~1956회계연도 요청 인원

(단위: 명)

회계연도 과정	1952회계연도 참석인원	1953회계연도 참석인원	1954회계연도 참석인원	1955회계연도 요청인원	1956회계연도 요청인원
지휘참모대학	2	6	15	15	20
시찰	-	9	6	14	18
보병학교	300	336	360	368	320
포병학교	201	248	289	274	164
기갑학교	14	14	17	24	62
공병학교	6	93	98	145	131
통신학교	12	15	20	50	95
항공학교	-	-	10	15	-
군의학교	4	64	28	48	48
부관학교	6	4	6	6	6
경리학교	-	2	4	5	5
병참학교	4	12	12	17	29
헌병학교	2	8	8	12	10
병기학교	5	8	12	54	95
정보학교	-	1	-	5	10
심리전학교	58	-	-	-	-
수송학교	2	2	4	3	18
화학학교	5	5	7	10	10
계	621	827	886	1,050	1,041

출처: The Adjutant General's Office, Department of the Army(1954. 5. 17), op. cit의
Tab M 'Summary of MDAP Training' 재정리.

실제 기술 및 행정병과가 확충되면서 장병들이 전문적인 기술력을 습득할 수 있는 다양한 군사교육 과정들이 개설되었다. 예를 들면, 부관학교는 1954년에 인사행정반 및 필생 기술반, 1955년에 영어반, 1956년에는 한글 타자반을 개설하여 문서행정, 인쇄학 및 제본학, 영어 등을 교육하기 시작하였다. 병기학교에서는 1953년 차량수리반, 1954년에는 용접 및 다이아반, 1957년에는 샤시제생반, 기계공작반, 엔진재생반을, 병참학교에서는 1955년 피복수리반과 군화수리반을 개설하였다.⁷¹⁾

71) 1950년대 기술 및 행정병과학교에 개설된 교과 과정에 대해서는 교육총본부, 『교총사』 제1집, 1958의 제5편 제8장~제12장을 참조; 당시 군대의 교육이 한국 사회 전반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백종천·온만금·김영호 공저, 『한국의 군대와 사회』, 나남출판, 1994, 7장; 권자경, 「한국전쟁·전후복구와 자원동원: 국방 분야 인적자원추출제도의 형성과 제도화」, 『한국거버넌스학회보』 제18권 제2호,

이러한 교육 과정들이 개설되면서 한국군이 미군으로부터 도입한 각종 기술 및 행정은 한국 사회 전반으로 전파될 수 있었다. 이처럼 1950년대 한국군 장교들의 미국 군사유학은 한국군이 군 조직을 개편하고, 재건 사업을 지원하는 등 국가시책에 앞장설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나. 장교 교육의 표준화와 주체의식 제고

1950년대 중반 한국군은 한국군의 질적인 향상을 위해서는 군사유학을 확대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평가하고 있었다.⁷²⁾ 그러나 한국군이 유학 이수자들의 역할을 강조하고 이들을 주요 보직에 임명하면서 한국군 내 미국의 영향력은 점차 높아졌다. 본 절에서는 이와 같은 관점에서 미국의 동맹국 군대 표준화 구상이 한국군에 적용되는 과정을 살펴보고 그 영향을 평가할 것이다.

대규모 군사유학의 결과 한국군의 장교 보수교육 체계는 미군을 기준으로 표준화되었다. 1950년대 미군 장교의 교육제도는 사관학교 교육에서부터 국방대학까지 5단계로 분류할 수 있다.⁷³⁾

〈표 4〉를 보면 군사유학을 통해 2, 3단계에 해당하는 한국군 병과학교 교과 과정이 미국의 병과학교를 기준으로 정비되고 있음을

2011을 참조.

72) Headquarters, Republic of Korea Army(Undated), op. cit., '7. Increase of Service Units.'

73) 1단계는 사관학교 교육으로 장교로서의 기본적인 지식과 교양을 배운다. 2단계는 초등군사반으로 중대급 이하 부대의 지휘와 전술을 배운다. 3단계는 사단급 이하 지휘관과 참모가 구비해야 할 군사지식 습득을 위한 고등군사반이며, 4단계는 지휘참모대학과 연합참모대학으로 사단급 이상 부대의 이해와 합동작전에 필요한 타군의 성격과 기술을 제공한다. 5단계는 군사전략을 국방에 통합시키는 원리를 연구하는 국방대학과 각 군 대학원이다. 한국군은 4단계 연합참모대학과 5단계 각 군 대학원이 없다. 이를 제외하고는 미군과 동일하였다.(대위 박원구, 「통합 교육훈련에 대한 소고」, 육군본부, 『교육월보』 제60호, 1961, 161~162쪽).

알 수 있다. 1953년 한·미 포병학교의 교육과정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표 4〉 1953년 한국과 미국 포병학교 교과 과정

구 분	교 과 과 정
한국 포병학교	고등군사반, 초등군사반, 자동차장교반, 차량정비반, 간부후보생반,
	촉지장교반, 화포정비, 통신장교반, 통신반장반, 무선통화반,
	항공기조정반, 항공기정비반, 항공전술반, 탄도기상반
미국 포병학교	고등군사반, 초등군사반, 자동차장교반, 차량정비반, 간부후보생반,
	촉지장교반, 화포정비, 통신장교반, 통신반장반, 무선통화반,
	항공기조정반, 항공기정비반, 항공전술반, 탄도기상반, 자동차 정비 감독반,
	촉지고급과정, 관측장교반, 기상장비 정비, 대 박격포/ 포대 레이더, 섬광 측정

출처: 육군포병학교, 『육군포병학교사』, 2013, 3~30쪽; Fort Sill, *Guide for Student Officers*, 1952, p.23에서 재정리.

주 1) 강조는 1952년부터 편성되었던 과정이다.

또한 정우봉, 박경석의 **술회**는 한국과 미국의 초등군사반 교육의 유사성을 말해 준다.

유학 전 보병학교 교관을 했기 때문에 보병학교 커리큘럼을 잘 아는데, 미국 가서 보니 똑같아. 미국 포트베닝(미 육군 보병학교를 의미 - 인용자 주)의 것을 똑같이 가져왔어. (중략) 일반 참모학, 화기학, 전술학, 통신, 화학. 미 육군 보병학교와 똑같아. 내용도 별 차이가 없어.⁷⁴⁾

우리 초등군사반 교육하고 미국 초등군사반 교육이 똑같아. 내가 27기를 나오고 미국을 갔다 왔거든. 그런데 과목은 똑같아. 그간 우리나라 교재를 미국 교재로 다 바꿨기 때문에.⁷⁵⁾

이와 같은 유사성으로 인하여 군사유학은 해외 위탁교육을 통한 ‘보충’의 의미를 넘어서 동급의 한국군 군사교육을 ‘대체’할 수 있는

74) 정우봉(생도2기, 1953년 미 보병학교 초등군사반 수료) 구술.

75) 박경석(생도2기, 1953년 미 보병학교 초등군사반 수료) 구술.

것으로 여겨졌다. 한국군 장교들은 규정 상 국내 초등군사반만 수료하면 유학생 선발 시험에 응시가 가능하였고, 미 병과학교의 군사교육을 이수한 장교는 동급의 국내 병과학교를 수료한 것으로 인정받았다.⁷⁶⁾ 이는 1950년대 한국군이 미 병과학교의 교과 과정을 그대로 도입하면서 동아시아에서 미군을 중심으로 하는 군사력 운영의 부분으로서 위치하게 되는 구조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4단계 교육인 육군 대학은 개교 시 교관이 모두 미군 장교였다.⁷⁷⁾ 이후 고문단은 미 지휘참모대학 과정을 이수한 한국군 장교들으로써 육군 대학의 교과 과정을 정비하고자 하였다. 1956년 고문단은 미 지휘참모대학을 이수한 한국군 장교들이 육군대학 교관으로 근무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⁷⁸⁾ 그리고 이러한 의견은 육군 규정에 그대로 반영되어 지휘참모대학 이수자들은 귀국 후 육군대학 교관으로 최소 2년을 근무하게 되었다.⁷⁹⁾

5단계 교육 기관인 국방대학원의 경우 교과 과정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교수진과 참모들이 ‘파일럿 코스(Pilot Course)’를 진행하였다. 이들은 4개월 동안 미군 장교들의 강의를 통해 19개 과목을 이수하였다.⁸⁰⁾ 국방대학원의 창설과정을 통해서도 한국군 군사교육기관의 교과 과정은 동급의 미국 군사교육기관을 참고하여 편성하였으며, 미군 장교들에 의한 사전 시험 과정을 거쳤다는 사실을

76) 「육군장교 군사교육 관리규정」 제4장(육규 350-2, 1955. 6. 1).

77) 국사편찬위원회, 『한국군 초기 역사를 듣다: 군사영어학교 출신 예비역 장성의 구술』, 2012, 334쪽.

78) Colonel, James G. Holland, JR., Senior Advisor, ROKA CGSC, to the Chief, KMAG, ‘Final Report to the Chief’, 12 July 1956, pp.5~6, RG 319, KMAG in Peace and War, Box 9.

79) 「육군대학 학생선발 규정」 제4조(육규 600-23, 1959. 12. 1).

80) Headquarters, United Nations Command, Far East Command, ‘Command Report(RCS CSGPO-28(R1)) 1st Quater FY 57, July - September 1956’, Undated, pp.33~34, RG 550, Records of HQ, US Army Pacific Military History Office Classified, Organizational History Files. Box 84.

알 수 있다. 1955년 국방대학원이 설치되면서 한국군 장교단의 교육 체계는 최 상위 단계까지 미군을 기준으로 표준화되었다.

이러한 장교 교육 체계뿐만 아니라 군사교리에 있어서도 표준화를 확인할 수 있다. 미국으로부터 원자전 교리를 도입하는 과정은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한국군은 고문단의 요청으로 1955년 원자무기 연구위원회를 설치하였다. 위원회는 군사유학을 통해 사전에 원자전 과목을 교육 받은 8명의 교관들로 구성되어 교범을 번역하고 강의를 실시하였다. 이후 고문단은 충분한 교관요원이 확보되었을 때 한국군의 각 교육기관에 원자전 과목을 편성할 것을 요청하였다.⁸¹⁾ 이에 따라 한국군 포병학교는 1958년부터 초 등군사반의 전술학 분야에서 원자전 과목을 편성하였고,⁸²⁾ 1959년부터는 과목 시간을 12시간에서 48시간으로 확대하면서 교리 수용을 제도적으로 정착시켰다.⁸³⁾

고문단은 원자전 교리를 한국군으로 도입하는 과정에서 한국군은 미군이 제공하는 내용 이외에 원자학에 대한 추가적인 자료를 요청할 수 없다고 제한하였다.⁸⁴⁾ 즉, 새로운 교리는 미국이 판단하는 한국의 전략적 가치에 따라 제한적으로 제공되는 것이었다. 무엇보다 교리의 표준화가 지니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이것이 무기 체계의 혼용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단계라는 점이다.

결국 미국의 군사유학 제공의 핵심적인 의도는 한국군의 군사제도를 미군을 기준으로 표준화하기 위한 첫 단계로서 장교 교육 체계를 표준화하는 것이었다. 표준화를 통해 미국은 한국군 장교들에게 미국 군사제도의 합리성을 각인시켜, 한국군을 미국의 이해관계가

81) Major General, Carl F. Fritzsche, KMAG, 'KMAG Position Relative the Continuation of ROKA Atomic Warfare Training', 23 August 1956, RG 319, KMAG in Peace and War, Box 9.

82) 교육총본부, 앞의 책, 1958, 209쪽.

83) 육군본부, 『교총사』 제2집, 1960, 149쪽.

84) Major General, Carl F. Fritzsche, KMAG(1956. 8. 23), op.cit.

관철될 수 있는 군대로 만들고자 하였다. 다시 말해, 군사 관계에 있어서 종주국으로서의 지위를 강화하고자 하였던 것이다.⁸⁵⁾

이와 같은 미국의 의도는 초기 한국군의 형성과정과 성격 형성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한국군 장교들의 전문성이 향상되면서 이들은 미국의 군사제도를 보다 비판적으로 수용하기 시작하였다.⁸⁶⁾ 이러한 한국군 장교들의 인식은 미국이 제공하는 군사교육과 한국군에 적합한 군사교육 사이에 차이가 존재하였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리고 미국의 군사유학 제공 의도와 한국군의 수용 사이에 지속적인 균열을 야기하였다. 결국, 1950년대에 제도상에서는 미국의 동맹국 군대 표준화 구상이 한국군에 전적으로 관철되는 듯 보였으나, 군사적 종주국으로서의 위상은 확고한 지위를 확보할 수 없었다.



5. 맺음말

본 논문은 1950년대 한국군의 형성과정을 한국 정부의 국방 정책 측면에서 이해하고 이 시기 한국군의 능동적인 역할을 드러내기 위한 소재로서 한국군의 미국 군사유학 시행에 대해 살펴보았다. 연구를 통하여 규명하고자 하였던 내용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85) 고문단은 육군본부 군수참모부 군사 원호처를 통해 군사유학 이수자들이 유학 기간 중 지원받았던 세부적인 내용들을 확인하도록 하였다. 미국의 군사원조로 어떤 혜택을 받았는지 개개인들이 직접 재확인하도록 조치한 것이다(정우봉(생도2기, 1953년 미 보병학교 초등군사반 수료) 구술). 미국의 방식이 ‘합리적’이라는 인식의 이면에는 이와 같은 지원자와 수혜자의 관계를 명확히 구분하고자 하였던 미국의 의도도 상당히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인다.
- 86) 송택구 중령(육군본부 작전참모부 교육계장), 「육군교육의 전망」, 육군본부, 『교육월보』 제54호, 1959; 대령 김종구 외(육군대학 학술연구단), 「육군대학 교육과 관련성 있는 육군의 당면문제」, 陸軍大學, 『軍事評論』 第24號, 1963.

첫째, 군사유학은 미국의 ‘합리성’을 보다 쉽게 수용할 수 있는 한국의 ‘젊은 장교’들을 주요 대상으로 삼았다. 교육 내용 역시 이러한 의도를 반영하여 장교 양성 및 보수교육을 접목한 ‘특별반’ 과정을 제공하였다. 미국은 이 계획을 통해 한국군을 미국의 지적·도덕적 지배가 관철되는 ‘미국식 군대’로 만들고자 하였다.

둘째, 군사유학을 통하여 한국군에 지적·도덕적 헤게모니를 구축하고자 한 미국의 의도는 궁극적으로 성취할 수 없었다. 대규모 군사유학 시행으로 한국군 장교 교육체계는 미군을 기준으로 표준화되었다. 그러나 1950년대 후반, 군사유학을 제공한 미국의 의도와 이를 수용하는 한국군 장교들의 인식 사이에는 차이가 존재하였고, 이는 미국이 군사적 종주국으로서 그 위상을 확고히 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의미한다.

셋째, 한국 정부는 한국군의 증강과 전후 사회 재건을 고려하여 군사유학을 시행하였고, 이를 각종 선진제도와 행정 및 기술력을 획득하는 기회로 활용하였다. 즉, 1950년대 한국 정부는 한국군의 역할과 위상을 북한에 대한 군사적 우위 달성이라는 군사안보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경제 성장과 사회 부흥이라는 국가운영 차원에서 포괄적으로 고려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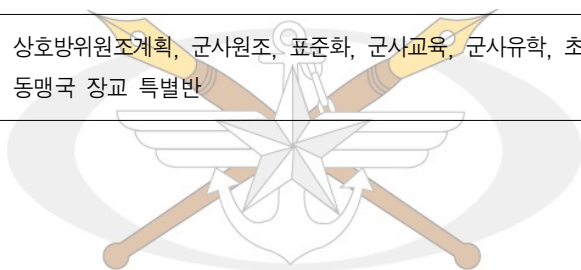
한국군의 형성과정에서 1950년대는 매우 중요한 시기였다. 이 시기 한국군은 독립국가의 군대로서 조직과 제도를 이제 막 만들어가기 시작하면서, 동시에 전쟁으로 인하여 매우 급격한 확대·재편의 과정을 겪었다. 이때 미국은 군사유학을 매개로 한국군 운영 전반에 개입할 수 있고, 한국군의 탈식민화는 미국이 주도하는 질서로 편입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한국 정부와 한국군은 주도적으로 국방정책을 이끌어가고자 노력하였고, 인적·물적 자원의 제한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방편으로서 군사유학을 적극적으로 시행

하였다. 한국군이 군사교육 체계를 정비하고 장교단의 전문성을 향상시켜 나갈수록, 유학을 제공하는 미국의 의도와 그것을 수용하는 한국군 장교들의 인식에는 점차 균열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는 1950년대 한국군의 형성과정을 미국의 국가만들기(nation-building) 측면이 아닌 한국 정부와 한국군의 능동적인 대응이라는 관점으로 분석해야 한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비록 이 시기 미국의 영향력은 압도적이었으나, 한국 정부와 한국군은 미국의 체계모니에 순응과 갈등을 반복하며 주체로서 이를 수용해 나갔다.

[원고투고일: 2015.10.10, 심사수정일: 2016.2.16, 게재확정일: 2016.2.19.]

주제어 : 상호방위원조계획, 군사원조, 표준화, 군사교육, 군사유학, 초등군사반, 동맹국 장교 특별반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ABSTRACT>

The Republic of Korea Army Officers'
Military studying-abroad in United States and
Its Effects during the 1950s

Kim, Min-sik

Since the end of WWII, in order to prevent the USSR's expansion, the U.S. government had provided military assistances to Free World countries. With a view to maximizing the effects of the military assistance, the US government intended to 'Standardize' the allied countries' military systems. Specifically, the military education programs at the U.S. military institutions was considered as an important prerequisite for the success of the military assistance. Meanwhile, in 1951 the Korean War had entered into the phase of a cease-fire agreement. The U.S. government was interested in preventing the Korean War from expanding to WWII and establishing its dignity in Asia and for this purpose was in need to intervene in the operation of the Korean military. Simultaneously, the Korean government was in dire need to import the advanced U.S. military system in a short period. Likewise the massive dispatch of Korean Army officers to U.S. military institutions was undertaken in furtherance of the mutual interest.

The U.S. government arranged the Korean Army officers to participate in the Special Allied Officers Course, an amended education program based on the Officer's Basic Course. The Special Allied Officers Course included basic studies on military etiquette, commandership, leadership etc. In sum, the U.S. government provided that the young Korean Army officers would learn not only the military knowledge but also the customs and norms of

the US officer corps, thereby embodying the ‘American style military concept’. The Korean Army officers who participated in the program aforesaid understood that the teaching methods of the US military education system are ‘reasonable’. And the Korean military appointed those officers to positions in charge of education and training thereby inducing them to propagate the knowledge and techniques. And their technological and administrative know-hows and skills were introduced to the Korean military’s branch education, and subsequently propagated into the Korean society.

The massive military education in the United States had resulted in the standardization of the Korean military system based on the U.S. system. As the Korean officers’ expertise grew further in late 1950s, however, they began to perceive that the U.S. military education system may not perfectly capture the requirements of the Korean military education suited to local characteristics. In the Korean military history, this was a time marked with overwhelming American influences and yet the Korean government and military was recognizing their initiative roles as shown in their responses repeating accommodation and struggles vis-à-vis the intellectual and moral hegemony of the United States.

Key Words : Mutual Defense Assistance Programs, Military Assistance, Standardization, Military education, Military studying-abroad, Officer’s Basic Course. The Special Allied Officers Course

1950년대 전시납북자 귀환 교섭과 한국정부의 대응

황 선 익*

1. 머리말
2. 서울수복 후 납북문제 인식과 정부의 초기 대응
3. 휴전협상시 전쟁포로 교환 논의와 납북자 귀환 교섭
4. 1952년초 납북자 귀환 교섭의 결렬과 '의용군' 출신 억류자 석방
5. 휴전협정 후 '실향사민' 상호귀환 협상과 북한의 파기
6. 맺음말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1. 머리말

분단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6·25전쟁은 여전히 큰 상처로 남아 있다. 전쟁은 수많은 사람의 목숨을 앗아갔으며, 삶의 터전을 무너트렸다. 그리고 수많은 가족을 離散시켰다. 전쟁으로 인한 군사적 경계는 민족적 분단에 그치지 않고, 가족의 斷絶로 이어졌다. '전시납북' 문제는 전쟁이 남긴 수많은 유산 중 여전히 풀리지

* 고려대 한국사연구소 연구교수

않은 과제이다. 전쟁기간 남한지역에 거주하던 많은 이들이 북한에 의해 전쟁에 동원되거나, 북한지역으로 납치되었다. 통상적으로 ‘납북자’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북한지역에 강제로 끌려가서 억류된 민간인을 말하는데, 그 수는 약 8~10만 명으로 추산된다.¹⁾

납북문제는 1950년 9월 서울수복 후부터 중대 문제로 인식되어 조사되었지만, 전쟁이라는 특수한 환경으로 인해 온전히 파악하지 못했고, 해결되지도 못했다. 휴전협상 과정에서 포로 상호교환과 민간인 억류자 석방이 논의되며 납북자 귀환 교섭이 진행되었지만, 결국 그들은 돌아오지 못했다. 이후 납북문제는 수십 년간 봉인되었다가 수기 및 증언집, 르포 등을 통해 실상이 점차 알려졌다. 그러나 학술적 차원에서의 연구는 뒤늦게 이뤄졌다.

1990년대 6·25전쟁 연구가 심화되고 확장되면서, 전쟁기 포로 처리에 대한 연구도 본격화되었다. 그러면서 남한 출신으로 유엔군에 수용된 민간인 억류자 처리문제를 다룬 연구가 발표되었고,²⁾ 비슷한 시기 미국의 포로협상정책을 분석한 연구도 나왔다.³⁾ 이들 연구는 국군포로 및 납북자 송환 교섭 연구로 이어졌고, 이를 통해 휴전회담시기 포로교환 협상과 납북자 귀환 교섭에 대한 시론적 성과가 이뤄졌다.⁴⁾ 이로부터 촉발된 납북자 연구는 납북자 실태 파악을 위한 명부조사와 사회운동, 학술연구가 함께 진척되며,⁵⁾ 다양화

1) 납북자 수에 관해서는 관련 명부의 분석결과에 따라 상이한 추정이 있어 왔으나, 2004년 김명호에 의해 납북자명부간 교차분석 및 중복자 추출이 시도된 결과로 96,013명이 제시되었고, 이것이 대체적인 추산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김명호, 「6·25전쟁 납북자 실태분석과 정책적 대응방안 모색」, 『사회과학연구』4-1, 2004.

2) 조성훈, 「한국전쟁 중 민간인억류자의 처리에 관한 연구」, 『군사』32, 1996.

3) 서주석, 「미국의 대북한 포로 및 유해 송환 정책」, 『군사』35, 1997.

4) 조성훈, 「한국전쟁 중 공산측의 유엔군 포로정책에 대한 연구」, 『한국군현대사연구』 6, 1997; 서주석, 「국군포로 및 납북자 송환문제 연구」, 『북한조사연구』 21, 통일정책연구소, 1998.

5) 납북자 가족을 중심으로 설립된 한국전쟁납북자건자료원은 납북 관계 사료를 집대성하여 『한국전쟁납북자건자료집』을 발간했는데, 이는 연구 활성화에 크게

되었다. 대체로 2000년대 이후 납북자 관련 연구는 각종 명부 분석을 통한 납북자 추산과⁶⁾ 정책적 대응방안에 집중되었다.⁷⁾

전쟁기간 납북자 문제는 사회적으로 중대하게 여겨졌다. 사회 각계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납북되거나 행방불명된 가운데 이들에 대한 관심은 사회 전반에 걸쳐 표출되었다.⁸⁾ 한국정부와 각종 정당, 사회단체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시도했지만, 휴전협상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그런 사이 유엔군은 북한과의 회담을 이어가기 위해 수차례의 원칙 수정을 하였고, 납북문제의 책임을 따지지 못한 채 ‘실향사민’이라는 모호한 용어를 사용하며 협상에 임했다. 이러한 ‘타협’은 결과적으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⁹⁾

그럼에도 불구하고 휴전회담 시기는 납북자 귀환 교섭에 있어 가장 중요한 轉機가 될 수 있었다. 한국정부는 비록 협상의 주체가 될 수는 없었지만, 유엔군과의 공조체제를 기반으로 나름의 요구를 해나갔다. 또한 각계 각층의 사람들도 납북문제 해결을 위한 공론을

기여했다.(1권 2006년, 2권 2009년)

- 6) 김명호, 「6·25전쟁 납북자 실태분석과 정책적 대응방안 모색」, 『사회과학연구』 4-1, 2004; 허만호, 「전시·납북자와 거제도 포로수용소 석방자 대조 명단」, 『휴전체제의 전환과 전시(戰時)민간인 납북자』 (한국전쟁납북사건자료원, 2010); 허만호, 「6·25전쟁 민간인 납북: 통계로 본 북한정부의 의도성」, 『코리아정책저널』 18, 2013.
- 7) 제성호, 「국군포로 및 납북자문제 해결방안」, 『국가전략』 7-1, 2001; 윤여상, 「납북자 실태와 해결방안」, 『統一問題研究』 37, 2002; 「6·25 전쟁 납북자 문제의 성격과 해결 방안」, 『한국정치학회보』 38-2, 2004; 조성훈, 「6·25전쟁 휴전협상 중 남한출신 의용군 문제 누락 배경과 해결 방안」, 『統一問題研究』 23-1, 2011 등.
- 8) 특히 주요 납북인사는, 독립운동가이자 정치가로서 김규식·안재홍·조소앙 등과 교육계를 대표하는 손진태·정인보·최규동·현상윤, 문학계의 김동환·이광수 등이었으며, 백관수·이길용·장인갑 등의 언론인 또한 사회적으로 주목되었다.
- 9) 김미영, 「휴전협정 체제에서의 납북 민간인 송환 실패의 원인과 과정」, 『납북자 문제의 기원·확산·해결』 (북한에 의한 납치문제 해결 국제연합대회, 2010); 김보영, 「휴전협정 제59조 ‘실향사민(失郷私民, displaced civilians)’ 조항을 통해 본 전시 민간인 납치문제의 쟁점과 귀결」, 『역사와 현실』 87, 2013.

모아갔다. 그러나 이는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과 정보의 제약 속에서 때로는 오해를 낳고, 한편으로는 정제되지 못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1950년대 남북자 귀환 교섭의 추이와 이에 대한 한국정부의 대응, 그리고 한국사회의 인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귀환 교섭과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는 국내에 수집된 미국문서와 정부문서 등을 활용했으며,¹⁰⁾ 아울러 정책과 성과가 일반에 어떻게 전파되고 인식되었는지를 사실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당대 신문자료를 적극 활용하였다.

2. 서울수복 후 남북문제 인식과 정부의 초기 대응

북한에 의한 민간인 전선동원과 납치는 전쟁 초기인 1950년 6월 말부터 9월말에 집중되었다. 북한은 낙동강전투가 장기화되자 민간인을 강제동원하여 ‘의용군’으로 전선 배치했으며, 점령지역 내에 있는 정치인·공무원·기술자 등을 비롯한 각계 인사를 북한지역으로 끌고 갔다. 이러한 납북의 정황은 9월 28일 서울 수복 후 자세히 파악되기 시작했다. 민간인 피해가 극심했던 서울·경기 지역의 전쟁 피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납북의 경위와 피해 실태가 알려진 것이다.

서울수복 초기 신문지상에는 ‘양민’들에 대한 납치와 살해의 정황이 구체적으로 전해졌는데, 서울에서만 최소 3천명이 살해되고, 8천명이 납치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었다.¹¹⁾ 그리고 서울-개성-

10) 납북 관련 미국문서 중 상당수는 국사편찬위원회,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 전쟁납북진상규명위원회 등이 수집한 바 있다. 또한 『한국전쟁납북사건자료집』에는 다양한 1차자료를 수록하고 있어 크게 참조할 수 있다.

11) 「軍 수사기관 맹활동 - 애국지사 2,000여 명 구출」, 『서울신문』, 1950년 10월

평양을 거친 남북 경로와 납북인사들에 대한 개별적 사실이 계광순에 의해 일반에 알려지며, 자세한 경위 또한 파악되었다. 학살과 납치 문제의 심각성에 주목한 각 언론은 자체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며 납치, 학살의 실상을 보도했다.¹²⁾

전시상황에서 한국정부는 전쟁 수행과 함께 행정력을 복원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갔다. 먼저 납북으로 인한 행정적 공백을 파악하고자 조사에 착수했는데, 10월 9일 이승만 대통령은 전쟁 발발 후 각 부처 공무원의 납치 피해 실태를 상세히 조사하여 보고하도록 지시했다.¹³⁾ 이에 따라 정부 각 부처의 3급 이상 고위공무원 현황이 먼저 파악되었다. 이와 함께 입법부와 사법부의 납북 피해조사도 이뤄졌다. 10월 초까지 국회사무처에 의해 파악된 ‘행방불명’의원은 최소 16명이었다. 그리고 이외에 20여 명의 의원이 ‘北行’한 것으로 분류되었다.¹⁴⁾ 한편 사법부의 납북 피해도 매우 컸다. 11월말

4일자; 「애국지사 만여 명 소식 묘연 - 잔인한 공비의 발악」, 『동아일보』, 1950년 10월 4일자.

- 12) 현장증언을 바탕으로 작성된 기사에서는 3,500명의 ‘애국투사’를 데리고 북행하다가 38선 경계에서 절반 가까운 사람을 학살한 일, 의정부형무소에 수감했던 인원 중 50여명을 학살한 일 등 구체적인 납북, 학살 실상이 보도되었다. 서울수복 후 발표된 기사들은 주로 경기 북부, 강원도에서의 학살, 납북 실상이 다뤄졌다. 「酸鼻의 잔인 만행 - 의정부 방면 납치인사」, 『서울신문』, 1950년 10월 9일자; 「애국자를 無數 학살 - 패주 괴뢰군, 원주 등서 만행」, 『동아일보』, 1950년 10월 10일자 등.

1950년 10월 중순 이후에는 평양을 비롯한 이북지역에서의 납북, 학살문제가 보도되기도 했다. 「폭로된 괴뢰 만행 - 납치된 남한인사는 擧皆가 피화」, 『서울신문』, 1950년 10월 26일자.

- 13) 대통령 비서실, 『각 부처의 피해 상황 및 동태에 관한 건』, 1950년 10월 9일, 국가기록원 소장문서(AA0000142)

- 14) 그러나 ‘행방불명’과 사실상 월북을 의미하는 ‘북행’ 사실 여부가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상황임을 고려할 때 이러한 구분은 모호한 것이었다. 국회사무처의 조사에 따르면 10월 초까지의 ‘행방불명 의원’은 “윤기섭, 김경배, 김철성, 김현식, 박영래, 정인식, 박민기, 여영복, 목흥균, 홍길선, 정순조, 변광호, 최윤희, 김홍용, 김정기, 김병진”, ‘北行’ 의원은 “원세훈, 장연송, 이종홍, 김웅진, 조종승, 박철규, 김용무, 조규설, 양제하, 오하영, 조소양, 안재홍, 백상규, 구덕환, 조원영, 신용훈, 이상하, 최내주, 엄상섭, 박성우”이었다. 「행방불명 16명 - 판명된

조사에 따르면, 전체 212명의 판사 중 38명이 행방불명 상태였는데, 특히 서울지방법원 판사는 40명 중 19명의 신원이 확인되지 않고 있었다.¹⁵⁾

초기 납북문제는 주요 요인들의 행적 문제라는 인식과 함께, 인구 격감의 주요 원인으로 받아들여졌다. 특히 서울시 인구가 24만 명이나 격감한 원인이 ‘학살, 납치, 피신’에 있다고 분석한 언론들은 납치문제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보도하기 시작했다.¹⁶⁾ 이에 서울시는 각 동회 단위에서부터 인구조사를 실시하기 시작했고, 전국적 민간인 납치 및 행방불명에 대한 조사가 본격화되었다.¹⁷⁾ 최종적으로 공보처 통계국에 작성된 조사명부에는 피살 976명, 납치 2,438명, 행방불명 1,202명이 집계되었다.¹⁸⁾

그런 가운데 대한적십자사는 11월 1일부터 미국적십자사의 지원을 받아 ‘행방불명자 조사’를 시작하였다. 이때 조사대상은 ‘포로·납치·체포·피살·기타’ 등 소위 ‘6·25 이후 행방불명’된 자였다. 적십자사는 서울 및 대도시(인천·개성·춘천·청주·대전·전주·광주·대구·부산·진주·제주)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고 군-관-민 공조체제로 조사를 진행하였다. 이때 주목할 것은 실종자의 자세한 경위 파악을 위해 성명, 연령, 직업, 주소 등의 기본정보와 함께 “실종 종별”이라는 사유를 기재하게 되어 있었는데, 해당 항목은 ①행방불명 ②납치 ③체포 ④피살 ⑤포로 ⑥소위 의용군(자진·강제)으로 구성되어 있었덤 점이다.¹⁹⁾ 실종자 문제가 다양한 경위로 발생했으며, 이에

국회의원 소식, 『동아일보』, 1950년 10월 4일자.

15) “원래가 부족한데” 생사불명 판사 38명, 『동아일보』, 1950년 11월 22일자.

16) 「동아 학살? 납치? 피신? - 戰後의 서울 인구 격감」, 『동아일보』, 1950년 10월 7일자.

17) 「인명피해 보고는 오는 26일까지」, 『동아일보』, 1950년 10월 23일자.

18) 공보처 통계국, 『서울특별시 피해자명부』, 1950.12.1. 국회도서관 소장본.

19) 「대한적십자사의 행방불명자 조사사업 착수에 관하여」, 『동아일보』, 1950년 11월 9일자.

대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1950년 12월 중순 들어서는 ‘행방불명 국회의원’에 대한 입법 활동이 이뤄지기 시작했다. 즉, 행방확인이 되지 않는 국회의원의 자격처리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논의된 것이다. 1950년 12월 13일 국회는 행방불명 국회의원에 대한 특별조치법을 가결했다. 본래 특별조치법은 “1950년 10월 8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국회에 등록하지 못한 국회의원은 자격을 상실한다”는 원안으로 출발했으나, 이러한 조치는 위헌의 소지가 있으며, 현실적으로도 가혹하다는 여러 의원의 반대를 거쳐 “국회에 다시 등록할 때까지 재적의원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수정되었다.²⁰⁾

이렇듯 1950년 말까지 정부는 각계 인사의 납북 사실을 전방위적으로 조사하며 납북문제에 대응해 나갔다. 대체로 전쟁 초기 민간인 납치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남한 출신으로 인민군에 징집되었던 ‘의용군 포로’ 석방과²¹⁾ 북한으로 압송되어 생사조차 확인되지 않는 남한 출신 인사의 귀환문제로 집중되었다. 1950년 10월 11일 정부는 두 가지 사안에 대한 구체적 대응방안을 내놓기 시작했다. 신성모 국방부 장관은 소위 의용군 중 ‘강제로 끌려간 자’는 구별하여 수용할 것이라고 밝혔으며,²²⁾ 임병직 외무부 장관은 북한에 대해 “억류인사를 즉각 석방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그러나 전시 대치 중인 상황에서 납북민간인의 귀환과 의용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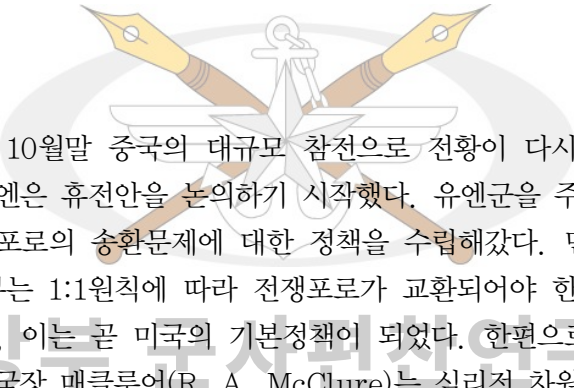
20) 「不明의원 조치에 兩論」, 1950년 12월 12일자; 「실종의원은 不算 - 행방불명 의원 조치법 등 가결」, 『조선일보』, 1950년 12월 13일자; 「행방불명 의원 특별 조치법 공포」, 『동아일보』, 1950년 12월 23일자.

21) 인민군에 강제로 편입된 민간인은 ‘의용군’으로서 전선에 배치되었다. 이들 중 상당수는 인천상륙작전 이후 유엔군 포로가 되어 각지 임시 수용소에 흩어져 있다가, 부산수용소를 거쳐 1951년 초 거제도로 이송되었다. 조성훈, 「한국전쟁 중 민간인억류자의 처리에 관한 연구」, 『군사』 32, 1996, 289쪽.

22) 「부역자 적발에 주력 - 이북에 활발한 정훈공작을 계획 중」, 『경향신문』, 1950년 10월 11일자.

포로의 석방은 한국정부의 의지와 노력만으로는 실행될 수 없었다. 1951년 4월 한국 정부는 의용군 포로에 대한 심사결과 3만명을 석방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미 제8군사령관에게 전달했다. 이에 미군 측은, 의용군 석방 등은 유엔군 총사령관의 승인, 나아가 유엔 본부의 승인이 있어야만 실시할 수 있는 ‘국제성을 띤 문제’라고 답변했다.²³⁾ 결국 납북된 민간인 귀환 논의는 1951년 7월 휴전협상이 시작되면서 본격적으로 다뤄지기 시작했다.

3. 휴전협상시 전쟁포로 교환 논의와 납북자 귀환 교섭



1950년 10월말 중국의 대규모 참전으로 전황이 다시 역전되는 와중에 유엔은 휴전안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유엔군을 주도하던 미국은 전쟁포로의 송환문제에 대한 정책을 수립해갔다. 먼저 미 합동참모본부는 1:1원칙에 따라 전쟁포로가 교환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는 곧 미국의 기본정책이 되었다. 한편으로 미국 육군 심리전국장 매클루어(R. A. McClure)는 심리전 차원에서 전쟁포로 본인의 희망에 따라 송환지를 결정하자는 안을 제시하였고, 이 또한 중요 원칙이 되었다.²⁴⁾ 이후 미국은 포로의 1:1상호교환과 포로 본인 의사에 따른 자발적 송환을 기본 원칙으로 내세우며 휴전협상에 임했다. 한국정부가 휴전에 공개적으로 반대하며 협상에 참여하지 않는 가운데 유엔군 협상대표단은 전적으로 미국이 주도하였고,²⁵⁾ 이에 따라 미국의 두 가지 원칙은 포로 송환과 납북자

23) 「남한 출신 포로석방도 국련 승인 얻은 후래야」, 『동아일보』, 1951년 4월 6일자.

24) 서주석, 「미국의 대북한 포로 및 유해 송환 정책」, 『군사』 35, 1997, 215~216쪽.

귀환을 결정짓는 중요한 기제가 되었다.

휴전협상에서 가장 난제는 포로문제였다. 유엔군과 공산군 측은 포로의 수와 송환 원칙 등에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었다. 1951년 12월 13일 유엔군 대표 리비(R. E. Libby) 제독은 북측이 국제적 십자사에 공식적으로 보고한 포로 수는 110명에 불과하여 신빙할 수 없으므로, 포로명부의 제출과 포로수용소 시찰을 요구하였다.²⁵⁾ 결국 양측은 12월 18일 수용 중인 포로 명부를 교환하였는데, 유엔군이 수용하고 있는 공산군 포로는 13만 2,474명이었으며,²⁶⁾ 공산군 측 포로는 1만 1,559명으로 나타났다.²⁸⁾ 포로명단이 교환되며 협상이 진전될 것으로 보였으나, 이는 오히려 총체적 문제점을 드러냈다. 즉, 공산 측이 제시한 포로인원수가 지금까지 생포했다고 발표한 수에 크게 미치지 못했으며,²⁹⁾ 유엔군이 파악하고 있던 실종자 인원 99,500명(한국군 88,000명, 유엔군 11,500명)과도 큰 간극을 보이고 있었다. 결국 명부상의 포로 수를 비교해 보면 양측은 12:1의 포로수용 상황인 셈이었다. 유엔군은 즉각적으로 항의했으나, 공산군 측은 ‘의용군’ 출신 민간인 억류자가 명단에 빠져있다고 하며 도리어 반박하고 나섰다.

유엔군 주도로 포로교환 논의가 이뤄지는 가운데, 한국정부는 북한 측의 주장에 강한 불만을 표하며 한국군 포로송환 및 민간인 납

25) 김보영, 「한국전쟁 휴전협정과 전쟁의 유산」, 『역사와 현실』 80, 2013, 350쪽.

26) 「포로명부 제출 전 교환문제 불(不)토의」, 『조선일보』, 1951년 12월 15일자.

27) 공산군 포로 구성은 북한인 95,531명, 중국인 20,700명, 남한 출신자 16,243명이었다.

28) 유엔군 포로의 국가별 인원은 다음과 같았다. 한국 7,142명, 미국 3,198명, 영국 919명, 터키 234명, 필리핀 40명, 프랑스 10명, 오스트레일리아 10명, 남아프리카공화국 4명, 일본 1명, 캐나다 1명, 그리스 1명, 네덜란드 1명.

29) 공산 측은 전쟁 초기 전과를 부풀리기 위해 전쟁 발발 후 9개월 동안만도 65,368명의 포로를 붙잡았다고 발표해 왔다. 이에 의거해도 포로 수는 20%도 되지 않는 것이었다. 조성훈, 「한국전쟁 중 공산측의 유엔군 포로정책에 대한 연구」, 『한국근현대사연구』 6, 1997, 253쪽.

북자의 귀환을 요구하고 나섰다. 1951년 12월 19일 휴전회담 한국 측 대표 이형근 소장은 포로교환 문제에 4가지 원칙을 밝혔다. 먼저 포로는 1대 1로 교환할 것, 그리고 한국군 및 청년 중 납치되어 북한군 및 의용군에 강제편입되어 포로가 된 자는 즉시 석방하고, 계속 전투 중인 자는 포로로서 즉시 송환할 것, 마지막으로 납치된 일반 시민은 즉시 한국으로 송환할 것을 요구했다.³⁰⁾ 22일 이형근 대표는 앞서 4개 항목이 반드시 관철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개인적으로는 포로문제보다 납치된 민간인 귀환에 더욱 관심을 갖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³¹⁾ 이처럼 한국정부는 포로교환 못지않게 민간인 납북자의 귀환을 중요한 의제로 여기고 있었다.³²⁾

그러나 정부로서는 여러 가지 고민 속에서 협상에 대응할 수밖에 없었다. 예컨대 민간인 납북에 대한 근거로 피랍자명부 제시가 논의되었지만, 명부에 누락된 이들의 반발을 살 수 있다는 점과 명부 전달시 피랍자에게 불이익이 처해질 수 있다는 우려 속에서 결국 보류되기도 했다.³³⁾

한편 사회 일반에서는 휴전회담이 개시된 이래 납북자 귀환이 이뤄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고조되었다. 1951년 8월초 월남인이 중심을 이루고 있던 조선민주당은 부산에서 납북자 귀환과 의용군 석방을

30) 「납치자 송환도 주장 - 李 소장, 국군포로 제외설 일축」, 『조선일보』, 1951년 12월 22일자.

31) 「납치인 교환을 강력 주장! - 실현 안 될 시엔 탈퇴도 불사」, 『조선일보』, 1951년 12월 24일자.

32) 이러한 한국정부의 방침을 미국 정부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 미국 측은 전쟁포로 협상 과정에서 민간 외국인의 귀환을 함께 논의하면서, 한국인 논의가 배제되는 데 대한 한국 정부의 항의를 우려하기도 했다. 김미영, 「휴전협정 체제에서의 납북 민간인 송환 실패의 원인과 과정」, 『북한에 의한 납치문제 해결 국제연합대회: 납북자문제의 기원·확산·해결』, 2010, 57쪽.

33) 「민간인 피납치자 귀환에 관한 건 보고」, 휴전대책연구회, 1953년 9월 20일(『한국전쟁사료 99』, 육군본부 군사연구실 편, 1991).

요구하는 국민대회를 개최하며,³⁴⁾ 납북자 가족들과 연대해 갔다. 납북자 가족 또한 ‘가족총회’를 열어 납북문제 해결을 위한 조직적 운동을 전개해갔다.³⁵⁾ 12월 15일에는 민주국민당이 성명서를 통해 의용군 포로교환 반대와 납북자 귀환을 요구하고 나섰다.³⁶⁾ 그러나 12월 18일 포로명부 교환 이후 정부의 잇단 발표로 일반 여론은 포로 및 납북자 귀환교섭에서 한국이 소외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기 시작했다.

먼저 12월 18일 이철원 공보처장은 “포로교환문제 교섭에 있어 아방 측 포로로서는 현재 공산군 측에 수용되어 있는 미국 등 외국군 포로만을 고려하고 있다”고 유엔군 사령부가 밝혔음을 발표했다. 한국군 포로문제가 논의에서 제외되고 있다는 이 같은 소식은 언론을 통해 증폭되었는데, 특히 동아일보는 “유엔 가맹국 포로만을 공산군 측에 요구하게 되리라는 것을 일반이 믿게 되는” 상황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유엔 측을 비판하였다.³⁷⁾ 한편 이기붕 국방장관은 한국군 포로 8만명의 귀환과 남한 출신 의용군 포로 4만명이 무난히 석방될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³⁸⁾ 포로교환 논의가 미묘하면서도 첨예하게 상충되는 상황에서 유엔군 협상단의 불분명한 태도와 정부의 오락가락한 발표는 사회적으로 국민들에게 혼동을 일으켰다.

납북자 귀환 논의에 대한 엇갈린 정보가 난무하는 가운데 갖가지 전망도 제시되었다. 조선일보는 “공산군에 끌려갔던 모든 남한인을 석방한다”는 18일자 나콜스(W. P. Nuckols) 준장의 발표를 분석하며 공산군 포로 중 의용군 석방 논의가 진행될 것임을 전망

34) 「납북자 반환 요청 국민대회」, 『경향신문』, 1951년 8월 1일자.

35) 「피랍자 가족총회 개최」, 『동아일보』, 1951년 8월 2일자.

36) 「정전 반대하나 ‘민국당 성명」, 『동아일보』, 1951년 12월 15일자.

37) 「한국군인 피랍인사 무시 부당」, 『동아일보』, 1951년 12월 28일자.

38) 「포로교환에 신국면, 강제도 동원된 전남한인을 석방!」, 『조선일보』, 1951년 12월 20일자.

했다.³⁹⁾ 한편 전쟁의 성격 규정과 국제법 적용이 포로송환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견해가 외신을 통해 국내에 소개되기도 했다. AFP는 제2차 국공내전의 사례를 볼 때 6·25전쟁의 인식차이에 따라 한국인 포로 교환의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봤다. 즉 국공내전 당시 중국공산당은 공식적으로 중국국민군 포로를 한 명도 인정하지 않았는데, 이러한 사례가 6·25전쟁 때도 반복될 수 있다고 예견한 것이었다. 그런 속에서 국내 언론도 납북자 귀환문제가 궁극적으로 전쟁을 국제전 혹은 내전으로 규정할 것인지와도 연계된 것이라 전망하였고, 한국만의 문제가 아닌 “국제적 사례(事例)이자 후대에 재론될 사례(史例)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⁴⁰⁾ 언론에서 제기한 여러 가지 전망과 의문은 이후 대부분 현실로 나타났다.

1952년 새해 벽두부터 휴전회담 논의 방향과 합의 전망이 전 언론에서 거의 실시간으로 보도되면서 포로교환에 대한 유엔 측의 기본 입장이 일반에 알려졌다. 1월 2일 유엔측은 포로의 1대1 교환이라는 대전제 하에 포로 교환 및 민간인 송환에 관한 6개조안을 제시했다. 이는 “(1)포로는 전원을 교환할 때까지 1대1 원칙에 의하여 교환되어야 할 것, (2)상대측에 억류되어 있는 외국시민 및 상대 측 통치지역 내에 있으며 귀환을 요청하는 시민 등의 귀환을 1대1 원칙에 의거하여 교환할 것, (3)귀환을 요청하지 않는 전쟁포로는 석방될 것, (4)휴전협정이 조인될 때 상대측 통치 지역 내에 있는 쌍방의 잔여 시민은 그들의 선택에 의하여 송환될 것, (5)귀환

39) 앞의 기사.

40) 중국공산당은 중국국민군 포로에게 고향으로의 귀환, 중공지역에 정착, 공산군 자원만을 선택케 하였다. 이는 국공내전을 ‘내란’으로 규정한 공산당 및 국민당의 전략에 따른 것이었다. 이러한 중국공산당의 전례를 비춰볼 때, 한국군 포로는 내전이나 국제전쟁이냐의 성격에 따라 포로로 규정되어 송환대상이 되거나 아예 포로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었다. 때문에 전쟁의 성격 규정은 남한 출신자의 귀환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견되었다. 「국제법 적용되나, 한국전의 성격 - AFP기자 관측」, 『경향신문』, 1952년 1월 1일자.

선택이 정상적으로 수행되었는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국제적십자사 대표는 포로 및 휴전협정 조인 당시 쌍방 통치 하에 있는 전 시민을 인터뷰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야 할 것, (6)쌍방의 시민 및 기타 인사는 1950년 6월 25일 현재 대한민국 및 통치 하의 주민을 의미하는 것으로 규정짓는다”는 내용이었다. 즉, 전시 상태에서의 포로 및 외국인, 시민의 귀환은 1대1 원칙에 따라 귀환하며, 귀환 여부는 개인의 선택에 따른다는 것, 휴전협정이 조인되면 나머지 인원도 모두 선택에 의해 송환하되, 국제적십자사가 실행여부를 직접 확인한다는 것을 골자로 했다.⁴¹⁾

유엔군과 공산군 간의 포로 및 민간인 송환 논의에 대해서는 낙관적인 전망이 일반에 소개되기도 했지만, 실제로 유엔군 측 대표들의 인터뷰는 미묘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먼저 리비 제독은 “우리는 매우 이상하다 할 정도로 매우 우호적인 회담을 가졌다”며, 공산 측이 대부분의 요구를 받아들였다고 전언했다. 한편 조이(C. T. Joy) 제독은 NBC 방송국과의 인터뷰에서 “유엔군 측은 행방불명 중인 모든 포로에 대하여 행방을 계속 요구할 것이며, 우리가 성취하고 싶은 것에 제한이 있을지도 모르나 현재 적 수중에 있는 우리 군대와 최후의 1인까지 찾아오는데 의연한 노력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⁴²⁾ 조이의 인터뷰는 결국 제한적 의미에서의 포로 교환이 있을 것임을 암시하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언론은 납치된 민간인 명부를 교환하자는 유엔군 측의 제안에 공산군이 동의했다며 민간인 송환에 긍정적 전망을 내놓으면서도, “그런데 공산군 측이 동의한 민간인이라 함은 외국인에 한한 것이라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다”며 암울한 단서를 달기도 했다.⁴³⁾

41) 「국련군측 6개조 신제안」, 『동아일보』, 1952년 1월 3일자.

42) 「억류된 민간인 석방 - 5만 포로정보 제공도 적 동의」, 『서울신문』, 1952년 1월 3일자.

43) 「납치인사들 교환에 합의 - 우리 동포도 포함되나?」, 『서울신문』, 1952년 1월

국내 언론은 포로교환 협상이 미묘한 파장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엔군 측의 성명을 중심으로 회담의 진전 상황을 일반에 알려왔다. 그러나 주로 신문을 통해 알려진 것은 “유엔 포로군을 공산군에 편입하는 것은 전쟁 조례를 위반하는 인권 유린”이라는 비난 성명,⁴⁴⁾ 1:1 포로 교환을 논의하는 중에 “공산 측은 유엔 측이 억류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소수의 포로를 억류하고 있다”고 호도하고 있다는 비판,⁴⁵⁾ “민간인과 군대의 석방은 별개의 문제”이며, 송환대상자에게 “어느 편에 속하겠는가를 선택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는 북한 태도에 대한 지적 등⁴⁶⁾ 일부 논의만이 취사선택되어 일반에 알려지곤 했다. 남북자 송환이 과연 이뤄질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기사가 발표되는 등 송환 논의 전망은 매우 어두운 상태였다.⁴⁷⁾ 그런 가운데 북한은 유엔군 포로수용소에 수용 중인 1만 6,000명의 포로와 4만 여명의 의용군 출신자를 북측으로 송환할 것을 집요하게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한국군 협상 대표 이형근은 “부당한 요구는 절대로 수락되지 않을 것”이라고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면서 협상이 쉽게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었다.⁴⁸⁾

1952년 1월 3일 공산 진영은 포로교환에 대한 유엔 측 제안을 공식적으로 거부하였다. 이때 북측이 내세운 반대 이유는 크게 다음과 같았다. (1)포로의 석방과 귀환을 별개로 하자는 것을 거부한다.

3일자. 이러한 논조의 배경이 인터뷰 과정에서의 실수나 오류인지, 신문 보도 과정에서의 왜곡 혹은 과장인지 등은 파악되지 않는다. 그러나 어찌됐던 서울 신문에 실린 리비의 입장발표는 실제 회담 경과와는 차이가 있는 것이었다.

44) 「“포로 편입은 인권 유린”- 유엔군 측, 신제안 이유를 설명」, 『경향신문』, 1952년 1월 4일자.

45) 「자원하는 자만 1 대 1로 송환 - 국련군 대표, 포로교환 신제안」, 『서울신문』, 1952년 1월 4일자.

46) 「신포로교환안을 공산측에서 거부시」, 『조선일보』, 1952년 1월 4일자.

47) 「과연 11만을 석방할 것인가? 막연한 납치인 한계, ‘전부교환’동의를 관심 집중」, 『조선일보』, 1952년 1월 3일자.

48) 「북한 납치인사 송환 절대 불양보 - 한국휴전대표 이형근 소장 특별성명. 국군 위주의 포로교환이어야 한다」, 『동아일보』, 1952년 1월 4일자.

(2)포로를 민간인과 교환하자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 (3)국제적십자사 등의 중립기구가 포로의 귀환여부선택을 확인하는 것과 포로 순시단 편성을 거부한다. (4)포로를 북한군에 강제복역시킨 사실이 없다.⁴⁹⁾ 즉 의용군 등 포로 동원을 당초 부인하며, 포로의 선택권을 무시하는 등의 행태를 보인 것이다. 그러면서 북한 측은 남쪽에서 북한 시민 50만명을 남한으로 송치했다는 주장을 해나갔다.⁵⁰⁾

그러자 유엔군은 1월 8일 다음과 같은 수정안을 북측에 제시하였다. 첫째 귀환을 희망하는 포로는 교환하되 동일한 수로 정한다.(1:1교환), 둘째 1950년 6·25 전쟁 당시와 달리 이동된 외국인, 민간인은 자유의사에 의해 송환할 수 있다.(민간인 송환), 셋째 남북간 이동은 북한 및 중공군, 유엔군 모두 이를 허용한다(상호교환), 넷째 모든 포로와 민간인의 자유의사를 확인하고 상호간 협력을 위해 국제적십자사가 역할을 한다(국제적십자사에 의한 쌍방절충)는 것이었다.⁵¹⁾ 이러한 제안은 결국 포로의 1:1상호교환과 민간인 송환 등을 골자로 하고 있었지만, ‘시민’, ‘민간인’의 정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포로와 민간인의 경계에서 논의되고 있어 논쟁의 여지가 있는 것이었다. 즉 납북된 민간인이 그 자체로 억류되어 있기도 하고, 군이나 혹은 다른 영역에 이미 동원되어 민간인 신분이 아닌 경우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예컨대 민간인으로서 북에 억류된 북한 의용군과 같은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결국 북측은 포로의 의사를 존중하는 송환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고, 민간인 송환은 ‘정치적인 문제’라고 거부하였다.

1952년 1월말부터 공산권 측은 다소 미묘한 입장의 변화를 보이기

49) 「敵, 7항목 반대 표」, 『조선일보』, 1952년 1월 6일자.

50) 「북한 시민 50만 납치해 갔다고 - 공산측 허위 비난」, 『조선일보』, 1952년 1월 7일자.

51) 「민간인의 송환 원칙을 명시 - 거부된 포로교환 6개조 수정안」, 『서울신문』, 1952년 1월 10일자.

시작했다. 먼저 1월 26일 중국의 北平방송을 통해 북한군 총사령부 대변인은 “안전을 위해 외국 민간인 약간 명을 억류하고 있다”면서 “휴전협정이 조인되는 대로 외국 민간인 전부를 즉시 무조건 석방하고 이들을 송환할 작정이다”라고 발표했다.⁵²⁾ 그리고 한편으로 협상석상에서는 유엔군이 “현재 억류하고 있는 공산군 포로 및 민간인 보다 많은 수를 억류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포로로 식별하다가 민간 억류인으로 재구별한 3만 7,000명의 남한출신 의용군을 정식 포로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요구하기 시작했다.⁵³⁾ 즉 북한 측은 협상의 여지가 있는 것처럼 한 쪽으로 대화 용의를 보이면서 포로 교환협상의 고지를 점하기 위해 의용군 문제와 남쪽의 억류 문제를 끌어들이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태도는 논리적으로 성립되기 어려운 것이기도 했지만, 어쨌든 유엔군 측과 협상을 이어나가려는 모습으로 해석될 수 있었다. 때문에 유엔군 측에서도 “오늘도 아무런 진전이 없었다”는 리비의 발표와 함께 “개념적인 것보다 특정한 것에 대하여 토의하려는 태도로 나왔다”는 나콜스 준장의 다소 엇갈린 평가가 공존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포로 및 민간납치인의 석방교환 및 송환’ 협상이 난항을 거듭한 중요한 배경은 유엔군과 공산군이 수용하고 있는 포로수의 절대적 차이, 유엔군의 포로 자원귀환 원칙과 공산군의 강제 일괄송환 원칙의 대립, 유엔군의 1:1포로교환과 공산측의 거부로 요약될 수 있다. 특히 한국정부는 1:1포로교환 원칙에 동의하는 대신 부족한 포로 수만큼을 납북자로 충원하여 귀환시킬 것을 줄곧 주장했다. 그러나 북한 측은 이에 절대적인 거부를 고수하였다.⁵⁴⁾ 유엔군은 포로

52) 「휴전되면 석방 - 외국 민간인 억류에 적측 발표」, 『조선일보』, 1952년 1월 27일자.

53) 「의용군 포로 취급 - 적 대표, 불합리한 요구」, 『서울신문』, 1952년 1월 27일자.

54) 「포로문제엔 2점 미해결 - 민간인과의 교환은 적 반대」, 『조선일보』, 1952년 1월 17일자.

및 민간인 납북자의 송환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할 것까지 검토했지만,⁵⁵⁾ 결국 납북자 문제가 포로송환을 비롯한 휴전협상 전반을 지연시킬 것이라 우려하며 이를 도외시켰다.⁵⁶⁾ 이러한 배경에서 결국 민간인 납북자의 귀환은 회담석상에서 사실상 논의가 되었다.

4. 1952년초 납북자 귀환 교섭의 결렬과 ‘의용군’ 출신 억류자 석방

1952년 1월 말부터 외국국적 민간인 석방에 대한 의향을 보이던 공산군 측은 2월 3일 포로교환에 대한 9원칙을 제안하며 포로 송환과 휴전협정 후 민간인 귀환에 대한 방침을 전달해 왔다.⁵⁷⁾ 위와

55) ‘Measures to Achieve a Korean Armistice on present UNC Terms and Alternatives thereto’(1952.1.25), “Records of the Director of the Office of Northeast Asia Affairs(NA) (U. Alexis Johnson), 1945~’53”, RG 59.

56) 조성훈, 「휴전협상시 남한출신 의용군 문제 누락 배경과 그 영향」, 『북한에 의한 납치문제 해결 국제연합대회: 납북자문제의 기원·확산·해결』, 2010, 57쪽.

57) 「납치민간인은 송환 - 북한 및 중공적십자 초청」, 『조선일보』, 1952년 2월 6일자. 민간인 귀환에 관한 제9항에는 다음과 같은 부연조문이 뒤따랐다. (A) 유엔 측은 본래 現 군사한계선 북방에 거주하였던 민간인으로서 휴전협정 발효 전에 現 군사한계선 남방으로 납치한 자의 本家 귀환을 허용하고 원조하여야 할 것이며 북한 및 중공군은 본래 現 군사한계선 남방에 거주하였던 민간인으로서 휴전협정 조인 발효 전에 現 군사한계선 북방으로 납치된 민간인의 본가 귀환을 허용 원조한다. (B) 쌍방 최고 군사령관은 자기 지배지역에 前記 납치 민간인 송환에 관한 협정 취지를 널리 보도하여 쌍방의 민사 행정기관에서 송환을 원하는 전기 전 민간인에 대하여 필요한 원조와 안내를 할 것. (C) 휴전협정 조인발효 직후 쌍방은 각 영관급 장교 2명으로서 납치민간인 송환원조위원회를 구성하고 군사휴전위원회의 감독 명령 하에 전기 납치민간인이 귀환하는데 있어서 비무장지대의 통과 및 기타 문제를 취급하도록 할 것. 만약 이 임무 수행에 있어서 동 위원회에서 합의에 도달치 못할 경우에는 군사휴전위원회에 회부하여 결정을 짓도록 한다.

같은 북측의 제안은 포로 송환에 대한 구체적 의견을 제시한 것이었는데, 유엔 측 대표 리비는 “나는 우리가 포로문제의 난점을 해결할 수 있다고 처음으로 생각했다. 우리는 세목을 작성하기 위하여 1~2일 이내에 참모장교들에게 이 문제를 회부할 용의가 있다”며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⁵⁸⁾

2월 6일에는 포로수용소 시찰과 포로 송환 원조를 위한 합동 국제적십자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양측이 합의했지만, ‘납치 민간인’의 송환에 대한 안전보장책을 포로교환협정에 포함하고, 이들의 송환을 결정 감시하기 위한 중립적 방문단 파견을 공산군이 거부함으로써 아슬아슬한 줄타기 협상이 이어졌다.⁵⁹⁾

그런 가운데 2월 7일 협상에서 유엔군 측이 포로들의 송환희망 여부에 대한 선택권 부여방침을 고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이 결국 1:1포로교환을 포기하려는 유엔군의 입장 변경이라는 분석이 뒤따랐다.⁶⁰⁾ 한국 정부와 사회여론은 현재 수용된 포로의 수적 차이가 크기 때문에 1:1포로 교환 대상에 남북민간인을 포함하여 귀환시키는 방안을 계속 주문했으나, 유엔군 측은 ‘의용군’ 출신으로 수용중인 민간인의 석방과 북한에 억류된 유엔군 포로를 우선 귀환시키기 위해 1:1교환 원칙을 사실상 포기한 것이었다. 협상의 구체적 내용이 알려지지 않는 속에서 1:1교환 방식을 포기했다는 소식을 먼저 접한 언론들은 다음과 같이 유엔군 대표단을 맹렬하게 비난했다.

“유엔군 측 대표는 포로교환에 있어서 1대1로 교환하고 남은 공산군 포로와 괴뢰군이 북한으로 납치해간 남한 민간인과 교환하자는 종래의 요구를 포기

58) 「민간인 귀환을 알선 - 포로교환에 쌍방 합의 성립시」, 『서울신문』, 1952년 2월 6일자.

59) 「합동 적십자단 구성, 포로분위서 합의 성립」, 『서울신문』, 1952년 2월 8일자.

60) 「납치인 송환 요구 철회 - 휴전협정 촉구차 국련군 또 2개항 양보」, 『동아일보』, 1952년 2월 9일자.

하였다고 전한다. 이 양보는 결국 적측의 오만을 더욱 增長시켜 그들의 고집을 더욱 원조하는 길밖에 되지 않는가 하여 오인은 자못 경악치 않을 수 없다.” (「납치인 교환 요구 포기에 대해」, 『조선일보』, 1952년 2월 9일자.)

“판문점 정전회담에서 유엔군 측 대표들은 또 다시 굴욕적 양보를 하였다. 유엔군 측의 굴욕적 양보에 대하여 우리 민족은 모두 참을 수 없는 분격에 떨기하려고 하고 있으며 전체 민족의 이름으로 이 굴욕적 양보를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동시에 정부에 대하여 소위 정전회담 대표단에 파견한 한국군 대표 유재홍 소장을 즉시 소환하는 동시에 이 굴욕적 양보의 연대 책임자로서 그 전말을 전 국민 앞에 공개하라고 요구할 기운이 농후해 가고 있다.” (「굴욕적 양보에 전 국민 분노 충천!」, 『동아일보』, 1952년 2월 10일자)

“우리의 거족적 관심과 주목을 끌어 내려오던 민간 납치인사들의 교환 여부는 7일 판문점 참모장교회담에서 유엔군 측의 포기선언으로 불문에 부치고 말게 되었다 한다. 따라서 이 놀라운 양보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들을 구출할 一樓의 희망조차 끊어지고 말았으니 우리는 가슴을 두드리며 통곡을 해도 오히려 분원(忿怨)이 풀리지 않겠다. 위대한 존재인 유엔군 대표들은 도대체 어떤 것을 생각하며 또 무엇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이해하기에 곤란하다. 물론 이것은 한국인만을 의미한 것이요 겨우 20명에 지나지 못하는 미국인을 비롯한 외국민간인에 한해선 예외로 끝까지 석방을 주장할 것만은 뻔한 사실일 것이니 이것이 더욱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민족적 원한이 아니면 무엇이랴.” (「무모한 납치 민간인사의 교환 포기」, 『서울신문』, 1952년 2월 10일자)

“또다시 유엔군 측에서는 엄청난 양보를 하였다. 일전의 참모장교 회의석상 납북되어간 납한 愛國士들의 송환요구를 유엔 측이 포기하고 만 것이 곧 이것이다. 종래 유엔 측이 주장하여 온 1대1의 포로교환에 있어 괴뢰 측 포로의 나머지 머리수를 우리 애국지사들과 맞추어 찾아올 것을 요구하여 오던 중 돌연 이것을 철회하고 만데 대해 한국민으로서는 한없는 통분과 비감을 억지할 나위가 없다. 맹목적으로 휴전회담을 성공시키기 위해 한국과 한국인을 희생시키려 한다면 차라리 우리는 죽음을 택하는 것이 마땅할 줄 안다.” (「유엔 휴전대표에 충고함」, 『경향신문』, 1952년 2월 12일자)

유엔군이 남북 민간인 귀환 교섭을 사실상 중단했다고 판단한 한국인들은 나아가 휴전협정 반대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섰으며, 반미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급격히 악화되는 민심을 우려한 무초(J. J. Muccio) 주한 미국대사는 2월 22일 이승만 대통령을 예방하고 이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무초 대사는 각 신문의 2월 10일자 사설들을 지목하며, 각 언론이 “휴전협상에서 토의 중인 조항들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선동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아울러 이승만의 휴전협정 반대 태도를 언급하며 “유엔 국가들에게 한국에 대한 군대와 지원을 요청하기 어려워졌다”고 발언했다.⁶¹⁾ 휴전협상에 대한 이견과 함께 남북자 귀환교섭문제로 이승만정권과 미국간의 감정의 골은 깊어졌다.

이후 한국정부는 ‘의용군’ 출신 민간인 억류자 석방을 더욱 강력하게 촉구하였다. 유엔군 또한 휴전회담에서 1:1 포로교환과 남북자 교섭을 사실상 철회했지만, 이들 민간인 억류자 석방에 대해서는 분명한 방침을 정하고 있었다. 때문에 의용군의 포로명단 누락을 계속 지적하는 북한 측 주장에도 단호한 태도를 견지하였다. 3월 26일 유엔군 사령부 대변인 나콜스 준장은 ‘유엔 측이 수용 중인 4만 4,000명의 행방불명 포로와 5만 3,000명의 행방불명 한국군 포로에 관한 요구를 철회하자는 공산 측 제안을 유엔 측이 채택했다며, 포로논의가 급진전되었음을 알렸다.⁶²⁾ 이는 유엔군 포로로 있는 4만 4천명의 의용군 출신자 문제와 북측의 명부에서 확인되지 않는 한국군 포로 5만 3천명 문제를 더 이상 거론하지 말자는 사실상 담합이었다.

유엔군과 공산군 측의 비밀협치의 발표에 뒤이어 남한 출신 의용군

61) ‘Anti-cease fire campaign and local politics’(1952.2.23), “Korea, Seoul Embassy, Top Secret Records, 1950~56”, RG 84.

62) 「국련측, 양보에 또 양보 - 포로 강제송환에 마침내 동의」, 『동아일보』, 1952년 3월 28일자.

포로석방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3월 28일 변영태 외무장관은 국회에서 의용군 포로는 “포로명부에서 제외되어 민간인으로 취급될 것”이며, 이에 대해서는 미군 고위측과도 확인을 마쳤다고 보고했다.⁶³⁾ 실제로 미국 측은 내부적으로 민간인 억류자 석방의 시기를 조율하고 있었다. 무초 대사와 리지웨이(M. B. Ridgway) 유엔 군사령관은 이승만 대통령에게 조속한 석방이 이뤄질 것임을 인지시켜 반발을 누그러트릴 것에 동감하고 있었다.⁶⁴⁾ 이어 유엔군사령관이 된 클라크(M. W. Clark) 또한 마찬가지로 입장을 나타냈는데, 첫째 민간인 억류자 석방으로 휴전협상이 결렬 혹은 지연되는 않을 것, 둘째 이로 인해 유엔군 포로에 대한 보복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은 무시할만하다는 점, 셋째 민간인 억류자의 석방은 군수 부담 등을 덜어줄 것이라는 견해를 제시했다.⁶⁵⁾ 이후 민간인 억류자 석방은 순탄하게 추진되었다.

1952년 6월 22일 한국 정부는 영천 및 부산지구에 수용되어 있는 민간인 억류자 약 2만 7,000명이 석방될 것이며, “그들의 명부는 1951년 12월 10일 휴전협상 대표들에 의하여 교환된 전쟁포로 명부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정부는 의용군 석방문제는 포로교환의 의제가 아닌 ‘대내적 문제’라고 규정했다.⁶⁶⁾ 6월 29일부터 부산, 영천 수용소에 있던 소위 의용군 포로가 민간인으로서 석방되기 시작했다.⁶⁷⁾ 석방된 이들에 대한 서울시민증 교부, 부역사실 조사 등이 문제가 되기도 했지만,⁶⁸⁾ ‘의용군 포로’

63) 「남한 출신 4만 2,000명 교환서 제외」, 『경향신문』, 1952년 3월 20일자.

64) “Telegram CX-67296”(1952.4.22), “Korea, Seoul Embassy, Top Secret Records, 1950~’56”, RG 84.

65) “Telegram CX-69687”(1952.6.52), “Korea, Seoul Embassy, Top Secret Records, 1950~’56”, RG 84.

66) 「돌아오는 대한의 아들 - 반공포로 2만 7,000」, 『서울신문』, 1952년 6월 24일자.

67) 「직업까지도 보도 - 사회부서 억류자 석방에 만전」, 『경향신문』, 1952년 6월 28일자 등.

68) 「부역 여부를 심사 - 김 서울시장 기자회견談」, 『조선일보』, 1952년 7월 12일자.

석방은 대체로 무난히 진행되었다.⁶⁹⁾ 1차로 남한 출신 의용군이 석방되자 북한군 협상대표 남일은 “도전적인 행동”이라고 비난했지만, 특별한 이상 징후는 나타나지 않았다.⁷⁰⁾

1953년 4월말 국군 및 유엔군과 공산군 간에 상병포로 교환이 추진되었다. 이에 국회는 클라크 유엔군 사령관에게 납북된 27명의 국회의원 송환을 요청했으며,⁷¹⁾ 이러한 시기에 납치민간인 송환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터져나왔다.⁷²⁾ 그러나 유엔군 사령관조차 민간인 송환논의는 상병포로 논의와 별건이라는 뜻을 국회에 밝히는 등⁷³⁾ 납북자 송환은 제대로 다뤄지지도 못한 채 결국 실현되지 못했다. 다만 주목할 점은 북측으로 송환된 6,670명 중에 ‘공산주의 민간억류자’ 446명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점이었다. ‘민간억류자’는 본래 상병포로에 해당되지 않는 대상인데, 유엔군 측은 이들의 병상정도와 ‘송환의사’를 고려하여 송환하였다. 이에 언론에서도 “유엔 측이 자의송환의 원칙을 협의의 전쟁포로뿐 아니라 일반포로에까지 자진 적용함으로써 공산 측에서도 같은 원칙을 준수하도록 실천을 통하여 요청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하며, 북측의 추후 조치를 주목하였다.⁷⁴⁾ 그러나 결국 1명의 납북 민간인도

69) 의용군 출신자에 대한 의심과 경계의 눈길도 각종 신문기사에서 살펴 볼 수 있다. 특히 김태선 서울시장은 “돌아온 그들”에 대해 재심사를 하여 부역사실을 반드시 검증하겠다고 공표했으며, 이에 동조하는 기사들도 발표되었다. 소위 渡江派와 殘留派간의 대립 등 서울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있었던 것이다. 「‘돌아온 그들’이 던진 파문 - 석방억류자 재심에는 냉철하라」, 『서울신문』, 1952년 7월 14일자.

70) 「억류자 석방에 항의- 적, ‘해’ 중장에 각서」, 『조선일보』, 1952년 9월 27일자.

71) 「납치 민간인 무조건 송환 - 共軍포로 심사에 관여를 주장」, 『조선일보』, 1953년 4월 15일자.

72) 「납치 민간인을 귀환케 하라」, 『조선일보』, 1953년 4월 27일자.

73) 「민간인 송환 해결에 노력 - 크라크 장군, 국회에 답변」, 『조선일보』, 1953년 4월 17일자.

74) 이때 남쪽으로 귀환한 연합군 포로 총수는 국군 포로 471명을 포함하여 684명이었다. 「상병포로 교환, 3일로 종료 - 민간인 억류자 446명도 포함」, 『조선일보』, 1953년 5월 5일자.

귀환하지 못했다. 오히려 남쪽에서는 민간인 446명을 포함한 공산군 포로 6,670명을 북으로 송환했다.

5. 휴전협정 후 ‘실향사민’ 상호귀환 협상과 북한의 파기

휴전협정 조인 후 유엔 측과 공산 측은 8월 5일부터 포로 교환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와 함께 민간인 상호귀환이 추진되었다. 이는 휴전협정 제59항에 근거한 것으로, 이로써 납북자는(失郷私民, Displaced Civilians)이라 명명되었다. 휴전협정 제59항에는 “1950년 6월 24일에 이남에 거주한 전체 사민에게 대해서는 그들이 귀향하기를 원한다면 그들이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에 돌아가는 것을 허용하며 협조한다. 각방 사령관은 책임지고 본목 규정의 내용을 그의 군사통제지역에 광범히 선포하며 또 적당한 민정당국을 시켜 귀향하기를 원하는 전체사민에게 필요한 조치와 협조를 주도록 한다”고 명기되었다. 또한 동항 (ㄷ)목에는 “협조하는 조치는 본 휴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한 후 될 수 있는 한 속히 개시한다”, (ㄹ)목에는 “이 업무를 실시하기 위하여 쌍방이 각 2명씩 합 4명의 영관급 장교로 조직되는 ‘실향사민귀향협조위원회’를 설립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그러나 조항에 명기된 “그들이 귀향하기를 원한다면”의 문구와 그 주체가 되는 ‘민간인’에 대한 규정이 모호하다는 점 등의 문제가 곧바로 지적되었다.⁷⁵⁾ 즉, 송환의 전제가 되는, 귀향의사를 파악하고 전달하는 역할에 있어 북한이 얼마나 성실하고 합법적으로 수행

75) 「사설 - 민간인 송환 문제」, 『동아일보』, 1953년 7월 31일자.

할지 의문스럽다는 것이었다.

민간인 귀환 협상에 적극 대처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도 때를 함께 하며 경주되었다. 1953년 8월 28일 국회는 이종현 의원의 제의로 ‘납치인사 귀환촉진 건의안’을 토의하였다. 그는 납북된 이들은 “납치가 아니고 포로”라고 해석해야 하며, 때문에 포로교환 시 당연히 이에 대한 귀환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은 유엔에 강경하게 주장해야 한다고 역설하며 위 안의 필요성을 설명했다.⁷⁶⁾ 이에 대해 실효성이 있겠느냐는 회의적 의견도 제시되었지만, 결국 국회는 외무, 국방 양 분과위원회에 이를 일임하여 해결을 꾀한다는 안건을 채택하였다.⁷⁷⁾ 이에 따라 9월 4일 제73차 국무회의에서 외무부 내에 외무·내무·국방 3부 합동의 ‘휴전대책연구회’가 설치되었다. 연구회 위원은 3부 차관으로 구성되었고, 연구회장은 변영태 외무부장관이 맡았다.

국회는 10월 2일 납북인사 귀환에 적극 대처할 소위원회를 국회 내에 구성하였다.⁷⁸⁾ 10월 말에는 ‘납치민간인사송환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납북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을 결의하며, ‘납치 민간인사송환문제’를 정치회담 항목에 삽입케 하는 동시에 UN 각국에 이 문제를 호소할 것을 정부에 주문했다.⁷⁹⁾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11월 12일 정부 측 관계 부처와 외무·국방 위원회 중 선출 위원, 납치인사 가족대표로 구성된 ‘납치민간인사송환대책위원회’가 조직되었다. 국회는 내무부와 공보처가 납치인사의 정확한 인원과

76) 「납치인사 귀환촉진에 관한 건」, 《국회본회의 회의록》 제16회(37차), 1953.8.28.

77) 「납치인사 귀환 촉진 - 국회서 건의안 토의」, 『조선일보』, 1953년 8월 30일자.

78) 소위원회에는 국방위 소속 임흥순, 홍익표, 김문용, 윤재근, 박영출 의원과 외무위 소속 정일형, 이용설, 우문, 김양수, 장건상 의원이 포함되었다. 이후 소위원회가 ‘납치민간인사송환촉진위원회’로 개편될 때, 위 의원 외에 이종현, 서상국 의원이 추가되었다.

79) 「납치민간인사 송환 촉진에 관한 건의 이송의 건(國議 제300호)」, 1953.10.23. (《한국전쟁납북사건자료집》 1권, 752~757쪽)

실태를 파악하도록 노력하게 할 것을 정부에 주문했고, 한편으로 유엔 등을 통한 문제해결을 모색했다. 이를 위해 국회는 먼저 ‘납치 인사 송환문제’를 정치회담 항목에 삽입해 줄 것을 관계 국가들에 호소한다고 결의했다.⁸⁰⁾ 신익희 국회의장은 ‘실향사민귀향협조위원회’ 유엔 측 구성위원 2인 중 1인은 한국군 대표를 임명하도록 정부에 건의하기도 했다.⁸¹⁾ 국회가 중심이 된 납치민간인사송환대책위원회는 유족단체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유엔군 총사령부가 진정서를 전달하는 등 납북자 귀환 교섭을 계속적으로 요청하였다.

그런 가운데 1953년 12월초 북한 측은 민간인 교환협상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다. 유엔 측도 “양 측의 안이 98% 흡사하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았다.⁸²⁾ 약 8천명의 민간인이 귀환할 것이라는 보도와 함께⁸³⁾ 1954년 1월부터 양측 민간인을 교환하자는데 완전 합의했다는 조정환 외무부 차관의 발표도 뒤따랐다.⁸⁴⁾ 민간인 귀환이 드디어 이뤄진다는 기대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민간인 송환 추진에 관한 정부의 구체적 대응과 부서간 역할 분담이 일반에 공고되었다.

이에 따르면 내무·국방·교통·사회·보건 5개 부처가 귀환할 인사들의 인수준비와, 수송·수용 등의 역할을 분담하기로 했다. 남한으로 귀환하는 납북자의 귀환과 정착 과정에 대해서는, 판문점을 통해 귀환한 후 거제도에서 2개월간 ‘교화’ 교육을 받고 나서 각 지역에 정착하게 될 것이라고 발표되었다.⁸⁵⁾

80) 「납치 민간인사 송환추진에 관한 건의안」, 《국회본회의 회의록》 제16회(60차), 1953.10.20.

81) 「납치인사송환대책에 관한 건의 이송의 건(國議 제320호)」, 1953.11.14.(《한국 전쟁납북사건자료집》 1권, 758~759쪽)

82) 「납치인사 귀환은 明春? - 송환원칙에 합의」, 『경향신문』, 1953년 12월 3일자 등.

83) 「송환 거의 합의 도달 - 피랍민간인 8,000명」, 『동아일보』, 1953년 12월 6일자.

84) 「납치 민간인의 송환 - 조 차관, 완전 합의를 확인」, 『조선일보』, 1953년 12월 8일자.

85) 「인수절차를 결정 - 3월에 돌아올 민간인, 거제도 거쳐 귀향」, 『조선일보』, 1954년

실향사민교환위원회는 귀향한 인사들을 ‘교화’하기 위한 일정기간의 수용이 필요하다고 결정하고, 수용소 부지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갔다. 1월 12일 내무, 국방, 교통, 사회, 보건 등 각 부와 기획처, 공보처, 한국민사원조처 대표자들이 참석한 회의에서 거제도가 잠시 거론되었지만, 이보다 서울에서 가까운 충청남도 논산이 더욱 적합하다고 평가되었다.⁸⁶⁾ 1월 15일 각 부처 관계관의 현지조사를 통해 논산은 적합지로 판정되었고, 2천명 규모의 수용소 건립이 추진되었다.⁸⁷⁾ 그러나 불과 열흘 만에 논산 부지선정은 국방부의 요청에 의해 번복되었다.⁸⁸⁾ 수용소 부지로 거제도, 태릉 등이 다시 검토되었지만, 예산문제로 영천이 선정되었다.⁸⁹⁾ 정부는 귀향사민 인수 및 수송은 한국민사원조사령부가 맡고, 수용 업무는 영천수용소를 운용할 경상북도에 일임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⁹⁰⁾ 2월 12일 영천수용소 선정이 최종 결정되었으나,⁹¹⁾ 불과 1주일 만에 북한 측에서 교환 대상자가 없다고 밝힘으로써 수용소 건설은 중지

1월 8일자.

86) 「교화는 단시일 내에 - 실향사민교환준비위에서 협의」, 『조선일보』, 1954년 1월 4일; 「거제도행을 변경 - 본토 내서 단시일 수용」, 『동아일보』, 1954년 1월 14일자; 「'논산'으로 결정 - 실향사민임시수용소」, 『동아일보』, 1954년 1월 15일자; 「실향사민 교환에 준비 진척 - 2월 25일경에 명부 교환」, 『조선일보』, 1954년 1월 15일자.

87) 「실향사민, 논산에 수용키로」, 『경향신문』, 1954년 1월 17일자; 「논산에 14일간 수용 - 실향사민수용소 수리도 금명간 착수」, 『동아일보』, 1954년 1월 17일자; 「논산이 최적당 - 귀환사민수용소로 당국자 합의」, 『조선일보』, 1954년 1월 18일자.

88) 「태릉으로 낙착 - 납치민간인 수용 장소」, 『동아일보』, 1954년 1월 30일자; 「실향사민 태릉에 수용키로」, 『경향신문』, 1954년 1월 31일자; 「태릉설이 대두 - 귀향사민수용소로」, 『조선일보』, 1954년 2월 1일자.

89) 「영천으로 재결정 - 귀향할 사민수용지로」, 『조선일보』, 1954년 2월 8일자; 「중요 인사 귀환 무망」 - 김 사회부 차관, 실향사민 문제 연명, 『동아일보』, 1954년 2월 9일자

90) 「예산 조치도 결정 - 귀향사민 인수에 만전」, 『조선일보』, 1954년 2월 10일.

91) 「실향사민 수용지는 영천 - 관계당국서 정식 결정」, 『경향신문』, 1954년 2월 14일자.

되었다.⁹²⁾

‘실향사민’이라는 지위로 납북인사가 귀환하게 될 것이라는 데 해 각 언론은 기대와 우려가 섞인 반응을 잇달아 내놓기 시작했다. 동아일보는 계획 발표 직후, 격일로 100명씩 납북으로 송환된다는 계획이 지나치게 제한적이며, 현실적으로 이뤄질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였다.⁹³⁾ 나아가 강경한 대응과 함께 실패 경우를 대비하여 ‘보복 수단’을 마련해 뒤야 한다고 주장했다.⁹⁴⁾ 한편 조선일보는 과연 피납치인사들에게 “의사 표시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한 그들은 이것을 알고도 귀향을 원할 수 없게 될 것”이라며, 그런 점에서 ‘실향사민’이라는 지칭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했다.⁹⁵⁾

‘실향사민’ 용어문제는 정치권에서도 지적되었는데, 국회 납치인사송환대책위원회인 김용우 의원은 “적은 ‘실향사민’이라는 교묘한 어구를 연구하여 가지고 나왔다”며, “귀향을 희망하는 민간인을 널리 선전하여 모집하였으나 공산 치하에 사는 것을 만족하게 생각하며 좋아서 귀향을 희망하는 사람이 없다고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극소수로 표시하여 폐인을 귀환시킬지도 모르는 일”이므로, ‘실향사민 귀향협조위원회’가 강경하게 협상할 것으로 요구하기도 했다.⁹⁶⁾

한편 북한행을 희망하는 북한 출신 남한거주자에 대한 ‘귀환 희망 등록’에 대한 공고도 각 신문을 통해 일반에 전파되었다.⁹⁷⁾

92) 「수리공사 중지 - 실향민수용소」, 『동아일보』, 1954년 2월 21일자; 「납치인사 귀환은 기대난(難)」, 『조선일보』, 1954년 2월 21일자.

93) 「실향사민 송환에 이상 - 격일제 등 적 주장 해괴」, 『동아일보』, 1954년 1월 3일자. ‘실향사민송환협조위원회’에 의한 송환계획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① 송환인원의 판문점 도착은 매일 오전 10시로 하고 교환시간은 10시부터 16시까지로 할 것 ② 3월 1일 되어 10일 전에 송환인사의 수효와 국적을 명시한 서류를 교환하고 실제 송환인사의 명단은 그 전날 12시까지 상호 통제할 것 ③ 교환은 격일로 하고 교환장소는 판문점으로 한다는 등.

94) 「포로석방 다음의 政略」, 『동아일보』, 1954년 1월 22일자.

95) 「우려되는 피납치인사의 송환」, 『조선일보』, 1954년 1월 12일자.

96) 「논단 납치인귀환문제」, 『서울신문』, 1954년 2월 7일자.

97) 「25일부터 등록 - 북한으로 돌아갈 희망자에게」, 『조선일보』, 1954년 1월 16일

북한으로의 귀향을 희망하는 ‘실향사민’ 대상자는 “4283년 6월 24일 이전에 북한(38선 이북)에서 거주하던 자로서 동년 6월 25일 이후 4286년 7월 27일 이전에 월남(휴전선 협정에 의한 군사경계선)한 자”였으며, 희망자는 1월 25일까지 각 시, 읍, 면에 등록하도록 공고되었다. 북한으로의 ‘실향사민 등록’이 개시되자마자, 등록 현황과 희망자에 대한 인적사항이 언론을 통해 그대로 공개되기 시작했다. 특히 동아일보가 월북 희망자 보도에 가장 적극적이었는데, 신문기사에는 희망자의 이름, 북한 주소, 희망 이유 등이 상세하게 실렸다.⁹⁸⁾ 그러면서도 남한으로의 귀환을 희망하는 이들에 대해서는 “대부분 무능력자나 또는 철저한 공산주의 세뇌공작을 받은 자들이 아닌가 보여진다”며 부정적으로 보도했다.⁹⁹⁾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월북희망자와 월남귀환자에 대한 사회적 우려 또한 고조되었다. 2월초 월북을 희망하는 사람을 전국에 30명인 것으로 파악되었다.¹⁰⁰⁾ 반면 남쪽으로 귀환할 민간인에 대해서는, 유엔 민사원조사령부가 약 8천 명일 것이라고 전망했고,¹⁰¹⁾ 정부는 6천 명에서 1만 명일 것이라고 추정했다.¹⁰²⁾

1954년 2월 15일 한국으로의 귀환 희망자 소식이 처음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평양방송을 통해 “소수의 남한 사람이 이북에 있으나 남한에 다시 돌아갈 것을 신청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고 방송했다.¹⁰³⁾ 이에 조선일보는 휴전협정 제59항은 유명무실한

자; 「북한 송환 희망자 25일부터 등록」, 『경향신문』, 1954년 1월 17일자; 「월북 희망자 등록 - 금 25일부터 접수 개시」, 『동아일보』, 1954년 1월 25일자; 「귀환 희망 실향사민 25일부터 등록」, 『조선일보』, 1954년 1월 25일자.

98) 「도합 16명 - 월북희망자 등록」, 『동아일보』, 1954년 1월 30일자.

99) 「안재홍 씨 등 귀환? - 실향사민 교환 등록」, 『동아일보』, 1954년 1월 27일자.

100) 「월북희망자 전국에 30명 - 등록취소자는 18명」, 『조선일보』, 1954년 2월 4일자.

101) 「불과 8,000명? - 돌아올 실향사민수 예상」, 『동아일보』, 1954년 2월 5일자.

102) 「실향사민 명단, 26일 판명 - 교환 인원수는 18일에 쌍방 제시」, 『경향신문』, 1954년 2월 8일자; 「귀환하게 될 납치인사는? - 26일에 명단 교환」, 『조선일보』, 1954년 2월 8일자.

“있으나마나(有若無)”였으며, “분노를 금할 수 없게 되었다”고 밝혔다.¹⁰⁴⁾ 그리고 동아일보 또한 “휴전협정 제59항의 규정이 너무 미온적이었다는 것은 이미 누차 지적된 바”이기에 예측되었던 일이라며, “실향사민 이외에 공산 측이 강제로 납치한 비전투원의 송환에 대한 규정이 따로 있어야 할 것”이었는데 이것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유엔 측의 중대한 과오”를 강력하게 비판하였다.¹⁰⁵⁾

2월 20일 결국 북한은 공식적으로 “남한으로의 귀환을 희망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북한의 입장은 ‘강제납북자는 없다’, ‘월남희망자는 없다’는 기존 입장의 연장에 있는 것이었다. 결국 북한의 입장을 번복시킬 논리적 접근, 혹은 현실적 카드 없이 나선 교섭은 실패로 귀결되었다.¹⁰⁶⁾

남한으로의 납북자 송환은 사실상 봉쇄되었지만, 월북을 희망하는 ‘실향사민’ 송환은 계속 추진되었다. 북한의 사실상 상호송환하기로 실향사민 교환이 전면 중지될 것으로 전망되기도 했지만,¹⁰⁷⁾

103) 「“귀향 희망자 한 사람도 없다” - 15일, 맹랑한 평양방송, 『조선일보』, 1954년 2월 17일자.

104) 「사실 염려되는 민간인 교환, 『조선일보』, 1954년 2월 18일자.

105) 「사실 민간인 송환과 공산측 태도, 『동아일보』, 1954년 2월 19일자. “피랍민간인은 실향사민이 아니요, 非法적인 포로인 것이다. 그들은 전란에 쫓겨서 실향한 사람들이 아니요, 공산군 또는 공산경찰의 손에 체포되어 강제로 납치된 사람들이다. 비전투원을 강제 납치한 것이 국제법 위반의 만행인 것은 물론이거니와, 이런 의미에서 피랍치자는 그 신분이 전쟁포로와 조금도 다른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제네바협정에 의하여 원거주지에 자연 송환되어야 할 것이며 백보를 양보할지라도 휴전협정의 정신에 의거하여 중립국송환위원회에 이관되었어야 할 것이다. 휴전협정에 반드시 이 조목이 들어 있었어야 할 것이다”며 유엔의 협상 실패를 조목조목 비판하였다.

106) 이러한 지적은 언론 등에서도 지적되고 있었다. 협상이 한창이던 1953년 12월 8일 조선일보는, “공산당은 문자 그대로 무소불위인 만큼 이번의 민간인 송환 문제를 단순히 사무적으로만 추진하였다가는 완전히 실패에 돌아갈 가능성이 있는 것을 미리 예상해야 한다.”(「사실 - 납치된 송환과 적측 성의 여하」)고 지적하였는데, 이는 북한측이 논리여하를 불문하고 입장을 선회하지 않기 때문에 충분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었다.

107) 「공산측 성의 없다 - 실향사민 교환 중지?」, 『경향신문』, 1954년 2월 23일자.

지역별로 집결되어 있던 월북희망자 송환은 결국 재개되었다. 전국에 있는 월북희망자는 서울에 집결되어 2월 25일 용산을 출발, 판문점 중립지대로 이동되었다.¹⁰⁸⁾ 이들은 3월 1일 판문점에서 북한 측에 신원이 인도되었다.

남북 양측은 교섭을 진행하는 중에도 서로를 비난하였다. 한편으로 한국 정부는 북한의 협상 파기에도 불구하고 일부 월북희망자를 송환했는데,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되었다. 먼저 월남자들에 대한 경계의식을 노골화하였다. 남북자 귀환에 대한 업무가 분장되고, 700만환의 예산이 배정되는 구체적 업무추진이 이뤄지는 가운데, 2월 10일 향후 계획을 발표한 사회부 차관은 귀환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드러냈으며,¹⁰⁹⁾ 사회부장관 또한 “송환되는 귀향사민에 섞여서 적의 오염이 잠입할 우려”도 있기 때문에 사상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¹¹⁰⁾ 이러한 의식은 월북희망자 송환과정에서 재현되었다. 1954년 2월 26일 월북희망자에 대한 경찰조사가 진행되었고,¹¹¹⁾ 그 결과 2명의 간첩혐의자가 구속되었다.¹¹²⁾ 이후 월북희망자에 대한 신분조사가 강화되었고, 이러한 분위기는 월북희망자들에게 압박으로 작용하였다.

3월 2일, 우여곡절 끝에 월북을 희망한 ‘실향사민’ 37명이 북으로

108) 「오늘 아침 판문점으로 이송 - 실향사민 월북희망자」, 『동아일보』, 1954년 2월 25일자.

109) 「가족이 있으면 인도 - 납치인 귀환 후의 사회부 조치」, 『서울신문』, 1954년 2월 12일자. “金 사회부 차관은 왕방한 기자에게 “우리의 생각으로는 대개 허약자, 불구자, 폐인 등 결국 이용가치가 없는 사람들만이 돌아오지 않을까?” 하고 예상된다”

110) 「보호기간은 2주일 - 귀향사민의 방역 조치를 강구」, 『조선일보』, 1954년 2월 13일자.

111) 「월북사민에 대남간첩? - 경찰 돌연 윤·노 양인(兩人) 성분조사」, 『동아일보』, 1954년 2월 26일자.

112) 경찰국 및 미군 조사에 의해, 월북을 희망한 노영일·윤용성(경기도 고양군 거주자)이 1952년 월남했으며, 지명수배자였다는 것이 밝혀졌다. 「석방된 반공 청년 - 간첩 혐의의 월북사민」, 『동아일보』, 1954년 2월 27일자.

갔으며, 북한에 억류되어 있던 외국인 10명이 남쪽으로 인도되었다.¹¹³⁾ 반면 납북자는 단 한 명도 남으로 내려오지 못했다.

1954년 5월 제네바회담에 외무장관으로 참석했던 변영태는 10년이 지난 후 “아무런 결실을 얻지 못한 것을 생각하면 지금도 안타깝다”고 회고했다. 그리고 “납북인사들을 돌려보내는 문제가 판문점 정전 조인의 선결조건이었더라면 그들이 송환되지는 못했어도 생사는 알 수 있었을 것”이라며 납북자 송환문제가 휴전회담에서 선결조건으로 다뤄지지 않은 점을 한계로 지적하였다.¹¹⁴⁾

교섭을 통한 납북자 귀환이 실패하자, 정부는 국제적십자위원회 등을 통한 해결 모색을 시도했다. 외무부 정보국은 국제적십자위원회에 제출하기 위해 기존 납북자명부의 재정리와 정확한 인원 파악이 선결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¹¹⁵⁾ 정부 각 처의 공조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사회부·외무부·내무부·공보처 등 정부 각 부처와 대한적십자사, 피랍치인가족회, 휴전대책연구회 등 관련 민간단체가 모두 참석한 연석회의가 열렸다. 이 회의에서는 국제적십자사와의 교섭과정에서 제출할 명부 작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회의 결과, 말단 행정 조직체를 갖고 있는 내무부가 ‘실향사민에 관한 명부’를 작성하고, 휴전대책연구회 등이 이에 협조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¹¹⁶⁾ 이후 정부는 납북자 가족회와 연계하여 납북자 파악과 명단 작성에 적극 나섰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지 10년이 되는 1955년, 과거 패전국이었던 독일과 일본이 소련에 억류된 포로귀환을 요구하고 나섰다.

113) 「적, 우리 기자를 연금 - 2일 실향사민 교환 완료」, 『서울신문』, 1954년 3월 4일자.

114) 「“休戰協商 때 잘했더라면”- 壽府會談 참석했던 변영태 씨 회고담」, 『조선일보』, 1964년 6월 25일자.

115) 「피랍치인사에 관한 회의」, 1954.7.7. (《한국전쟁납북사건자료집》 1권, 778~779쪽)

116) 「피납치인문제 관계부처 대표 연석회의 회의록」, 1954.7.24. (《한국전쟁납북사건자료집》 1권, 793~803쪽)

이와 함께 공산권에 억류된 서방 측 국민의 석방문제와 재일동포의 북송 등이 추진되는 등 냉전질서 속에서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었다. 이에 한국 정부는 1955년 8월 3일, 외무부 장관 성명을 통해 북한에 있는 국군포로 및 피납치자 석방을 중국에 요구하였다.¹¹⁷⁾ 정부는 북한이 정상적인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는 한편, 중국 또한 휴전협정 위반에 책임이 있다며, “중공정권이 1만 9,767명의 국군포로 및 피납치자를 즉시 석방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¹¹⁸⁾ 이는 북한이 정상적인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인식과, 중국 또한 휴전협정 위반에 책임이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이뤄진 것이다. 정부는 냉전체제에서 미묘하게 감지되는 변화의 바람을 활용하며 유엔과 국제적십자사를 통해 납북자 귀환에 세계가 동참해 줄 것을 호소하였다.

1956년 대한적십자사는 뉴델리에서 열린 국제적십자사회의에 참가하였다. 여기에서 우리 대표단은 17,900여 명의 이름이 기재된 납북자 명단을 제출하고, 최소한 이들의 생사확인만이라도 이뤄질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나서주길 촉구하였다. 대한적십자사는 먼저 생사를 확인하고, 다음으로 서신을 교환한 후, 궁극적으로 사람이 돌아올 수 있게 하겠다는 장기적 계획하에 ‘피납치자 조사’를 시작했다. 그리고 6월 15일부터 2개월간 진행된 ‘피납치자 신고’를 통해 7,034명의 납북자 명단을 정리하여 국제적십자사에 제출했다. 세계여론의 동조로 북한의 조선적십자사는 생사확인에 협조할 뜻을 밝혔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337명에 대한 ‘회답서’만이 보내졌을 뿐, 한 명의 납북자로 돌아오지 못했다. 사실 국제적십자사는 재일동포북송에 반대하는 한국정부의 요구를 무마하기 위해 납북자문제 해결을 위한 중재에 나서려고 했지만, 북한을 실질적으로 압박하지

117) 「국군포로·피납치자 석방은 당연」, 『경향신문』, 1955년 8월 4일자.

118) 이때 한국 정부는 북한지역에서의 군대 철수와 국군 포로 2,263명의 송환 피납치 민간인 17,504명 송환 등을 요구하였다.

못했다. 반면 재일동포의 복송은 예정대로 진행되었다.¹¹⁹⁾

6. 맺음말

“세계 어느 전쟁에서도 평화로운 시민을 강제로 납치하여 가는 법은 없는 것이다.”

“이 전란을 내란으로 규정하던, 전쟁으로 규정하던 간에 적의 수중에 들어간 인간 문제를 어떻게 조정하느냐는 것은 후세에도 한 규범이 될 것이다. “자유와 평화를 위하여 싸우는 유엔이 자유를 그리워하는 청장년을 죽음의 함정으로 보낼 수 있을까?”¹²⁰⁾

납북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접근은 ‘납북자’를 규정한 궤적을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다. 1950년 말까지만 해도 북한군에 의해 ‘끌려간’ 사람들은 ‘행방불명’된 사람이나 ‘피해자’ 등으로 지칭되었다. 1950년 11월부터 대한적십자사에 의해 본격적으로 시작된 납북자 조사 또한 공식적으로는 “행방불명자 조사사업”이라 공표되었다. 1951년 3월 들어 북한으로 끌려간 사람들에 대해 ‘납치’라는 표현이 일반적으로 쓰이게 되었다. 1951년 4월 10일부터 순차적으로

119) 1962년 외무부는 그동안의 납북교섭 경과를 검토하여 향후 대응방안과 전망을 제시하였다. 여기에서 외무부는 납북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으로 (1)군사정전위원회, (2)국제적십자사, (3)유엔총회 등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북한을 압박하는 방안과 조선적십자사와 대한적십자사간의 교섭을 통한 방안을 제시했지만, 결국 북한이 종전의 주장을 되풀이한다면 이를 구속할 수 있는 실효성을 희박하다고 보았다. 기본적으로 북한은 납북인사가 귀환하면 북한의 실상이 폭로될 것이고, 이미 귀환희망자가 없다고 공표했으므로 이에 대한 즉각적 해결은 어렵다고 분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를 통한 계속적 문제제기로 여론을 조성해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외무부 특수지역과, 「납북인사귀환추진문제행정연구서」, 1962.2.7.(《한국전쟁납북사건자료집》1권, 830~841쪽)

120) 「곤란한 포로교환 문제」, 『경향신문』, 1952년 1월 4일자.

발표된 『6·25사면 서울시 피해자 명부』에서도 납북자는 ‘납치’된 ‘피해자’로 명명되었다. 이후 8월 들어 북한에 의해 끌려간 남한 거주민에 대한 명칭은 ‘피랍자’ 혹은 ‘납북자’로 통용되어 굳어져 갔다. 결국 ‘납북자’란 용어는 북한에 의해 강제로 납치되어 북한지역에 억류된 민간인을 지칭하는 것으로, 북한의 납치책임을 명확히 하고 피랍된 한국 민간인의 현 거주 지역을 설정하면서 고착화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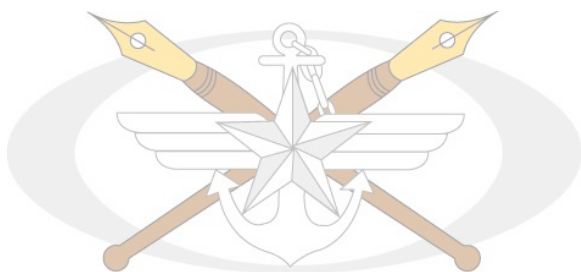
1951년 7월부터 휴전회담이 시작되면서 포로교환 협상과 함께 민간인 납치자의 귀환문제가 논의되었다. 이때 북한은 강제로 납북된 사람은 한 명도 없다고 주장하면서, 한편으로 휴전회담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문제라며 논의 자체를 거부했다. 결국 납북자 귀환 협상에서, 1950년 6월 25일 이전에 거주지와 달리 남과 북에 살게 된 이들은 통칭해서 ‘실향사민’으로 지칭되었다. ‘실향사민’이라는 용어가 갖는 문제점은 협상 당시, 그리고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즉, ‘실향’이라는 단어는 납북자들이 북한에 가게 된 배경을 전혀 설명치 못한다는 문제를 안고 있으며, 고향을 잃은 민간인으로 이들이 지칭되면 포로교환 과정에서 이들 문제를 논의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었다, 아울러 결국 이들이 강제가 아닌 자발적 의사로 북한에 가게 되었고, 남으로 갈 뜻이 없다고 호도된다면 귀환할 수 없을 것이라는 지적도 뒤따랐다. 그럼에도 유엔군 협상단은 자국민 귀환을 우선시하며 북한과의 협상을 이어가기 위해 ‘실향사민’ 용어를 계속 사용하였다. 그러나 결국 돌아온 북한 측 답변은 남으로의 귀환을 선택한 이가 없다는 것이었고, 단 한 명의 납북자도 가족에게 돌아오지 못했다.

휴전회담에서 전개된 납북자 귀환교섭은 냉엄한 국제사회 현실을 보여주었다. 유엔군은 자국민들의 귀환을 최우선시했으며, 납북자 협상을 거부하는 북한에 끌려다녔다. 한국은 이런 북한에 강경하게 대응하고자 했으나, 휴전회담에 반대하며 사실상 교섭의 주체가 되지

못했다. 그런 사이 북한은 잇달아 협상을 파기하며 민간인에게 이 중의 고통을 짊어지게 하였다.

[원고투고일: 2015.12.30, 심사수정일: 2016.2.15, 게재확정일: 2016.2.19.]

주제어 : 휴전회담, 실향사민, 전쟁포로 및 민간인 교환, 일대일 송환, 자유송환,
국제적십자위원회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ABSTRACT>

The Korean Government's response And the negotiation for the repatriation of the abductees by North Korea in the 1950s

Hwang, Sun-ik

With the result of the Korean War, many people were lost their lives and their living foundation were demolished. Moreover, a lot of families were separated by the Korean war. During the war period, many people, who lived in the South Korea, were abducted to the North Korea and mobilized for war.

After recapture of Seoul in september 1950, the Korean government and the UN forces had come to perceive the importance of the abduction by North Korea. Since then, the Korean government went to investigate damage of abductee as doing examination war damage with military and civic groups. The Korean government went pushed release of volunteer army prisoners by the North Korea and repatriation of abductees, who interned in the North Korea. Moreover, the Korean government requested cooperation about this issue to the U.S. Eighth Army. On this issue, the U.S. Eighth Army deferred answer because they claimed that this issue is 'International problem', which is needed to authorize UN headquarters. In the end, the discussions of a release of volunteer army prisoners and repatriation of abductees could be officially started after start of an armistice talks in a July 1951.

In the armistice talks, a repatriation of abductees negotiation of between the UN forces and the Red army smashed into principle and realistic aspect. The U.N. Forces claimed principle of 1 on 1 exchange by free will. However, the North Korean government

argued compulsory repatriation of all prisoner. Meanwhile The difference in the number of prisoners of war became obstacle in the negotiations. In consequence, negotiation of abductees's repatriation fell into a baffled.

During the process of armistice talks, negotiation of abductees's return ended in failure. Instead, foundation of returning abductees was laid by 'Armistice Agreement No.59 displaced civilians provision'. However, in the middle of February, North Korean government broken mutual agreement again, with arguing that "There is no person, who apply to return back to South". After all, there are no one abductees, who returned their home officially, during the war and after war.

Korean society was enveloped in shock and rage, because of repeated broken mutual agreement by the North Korean government. It come to real and it come to mecharism that worsen relationship between South Korea and North Korea. The issue of abduction by North Korea is sealed a long time, but this issue lifted from the 2,000 in the Korean society. And this issue works as an another barometer that can look back the Korean war in Korean society.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Key Words : Military Armistice Conference, exchange of prisoners of war with civilians, one-for-one repatriation, voluntary repatriation, 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

러시아 내전기 적군(赤軍) 기병의 형성과 운용*

이 정 하**

1. 서론
2. 적군 기병의 형성
3. 러시아 내전에서의 기병 운용
4. 맺음말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1. 서론

서부전선에서의 참호전 양상과 새로운 군사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제1차 세계대전 직후 많은 사람들은 더 이상 기병에게 어떠한 군사적 효용성도 없다고 생각하였다.¹⁾ 러시아 제국군에서 기병장

* 세 분의 심사위원이 주신 심사평에 감사드리며, 편집상의 문제로 반영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바랍니다. 지면상의 문제로 보다 더 자세하게 다루지 못한 연구는 후속 개별 작업을 통해 수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 서울대학교

1) 제1차 세계대전 이전 몇몇 유럽 국가들 군내에서 벌어졌던 기병에 관한 논쟁에

교였으며 러시아 내전에서 백군(白軍)²⁾으로 참전하였던 V.S. 리타우에르(Vladimir Stanislavovitch Littauer)는 제1차 세계대전에서 어떻게 기병이 “단순한 정찰임무나 패주한 적들을 뒤쫓는 임무에나 가끔 투입될 정도로” 그 역할이 축소되었는지를 훗날 회상하였다.³⁾

제1차 세계대전과 혁명 발발 이후 러시아에서 적군(赤軍)과 백군 간에 벌어진 러시아 내전은 기병과 관련해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다. 전선이 광대한 것과 아울러, 깊게 제형 편성된 방어선을 구축할 수 있을 만큼의 인적-물적 자원이 부족하였기 때문에, 양측의 전선은 언제나 방어선이 긴데 반해 중심은 매우 얇았다.⁴⁾ 이러한 전선 형태는 기동전을 수행하기에 유리하였고, 제1차 세계대전과는 달리 방자(防者)보다는 공자(攻者)에게 훨씬 유리하였다. 양측 모두에게 예비 병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방자의 방어선 중 병력의 밀도가 떨어지는 부분을 겨냥해 소수의 병력만으로 수행하는 공자의 돌파나 측면기동마저도 방자에게는 대재앙이 되기도 하였다. 러시아 내전이 양측의 대규모 기병에 의한 기동전의 양상을 띠었던

관해서는 특히 다음을 보라. Edward L. Katzenbach Jr., “The Horse Cavalry in the Twentieth Century,” Robert J. Art and Kenneth N. Waltz eds, *The Use of Force* (Boston: 1971), pp.277~297.

2) 1946년 소련군(蘇聯軍: *Sovetskaia armiia*)으로 명칭을 변경하기 전 러시아군을 일컫는 용어는 ‘노농적군(勞農赤軍: *Raboche-kres’ianskaia Krasnaia armiia*)’ 혹은 ‘붉은 군대’이다. 본고는 백군(白軍: *Belaia armiia*)과 비교하기 위해 적군(赤軍)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겠다.

3) Vladimir S. Littauer, *Russian Hussar: A Story of the Imperial Cavalry 1911-1920* (Shippensburg, PA: 1993), p.107.

4) 제1차 세계대전 당시 각 전선 1km당 평균 4,000~5,000명의 병력과 약 150대의 야포가 배치되었던 반면, 적군의 경우, 내전이 가장 치열하던 1919년 말에조차도 단지 1km당 250명의 병력과 2대의 야포만을 운용할 수 있었다. M.A. Molodsygin ed., *Iz istorii grazhdanskoi voiny i interventsii 1917-1922 gg. Sbornik statei* (Moscow: 1974), p.210. 참고, 「K.E. 보로쉴로프와 적군(赤軍) 기병대: 기술결정론(Technical Determinism)에 대한 반론」, 『서양사연구』, vol. 49 (2013), pp.130-131.

것은 바로 이러한 특징에서 기인하였다. 제1차 세계대전과 다르게 방어선의 측면이 계속 노출되는 러시아 내전에서, 기동력과 타격력을 지닌 기병의 군사적 효용성은 높을 수밖에 없었다.

내전 초기 압도적인 기병병력을 이용한 백군의 기동전으로 인해 연속적으로 패배를 경험했던 적군 지도부는 제1차 세계대전의 경험에 집착함으로써 기병의 작전능력에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고,⁵⁾ 기병 육성과 그 운용에도 극히 소극적이었다. 적군 군사인민위원장 레프 트로츠키(Lev Trotsky)는 내전 이후 적군 기병 발전의 주요 인물로 자임하였음에도, 내전 초기에는 기병이 군사적 “중요도 면에서 삼류병과”일 뿐이라고 판단하였다. 그가 보기에 “기병은 기본적으로 가장 후진적인 병과이다. 기병의 구조와 전투 방식은 지난 몇 세기 동안 거의 변하지 않았다. 예컨대, 오늘날 코사크의 습격 방식은 16세기나 17세기의 그것과 똑같다.”⁶⁾ 이는 어느 정도 볼셰비키가 가지고 있던 이념적 성향과 러시아 제국군에 대한 혐오와 함께, 트로츠키에 의해 적군에 편입되어 트로츠키의 측근에서 복무하고 있었으며 제1차 세계대전 동안 새로운 군사기술을 직접 목격하였던 제국군 출신 적군 지휘관들(즉, ‘군사 전문가들’⁷⁾)의 인식을 반영하고 있었다. 즉, 그들이 볼셰비키였든 아니면 제국군에서 장교로 복무하고 있었던 군사 전문가들이었든지와는 상관없이, 모스크바의 적군 지휘부에게 기병은 군사적인 가치가 사라진 반동적이고 구시대적인 병과로 보였다.

5) S.S. Khromov, *Grazhdanskaia voina i voennaia interventsia v SSSR: Entsiklopediia* (Moscow: 1983), p.241.

6) Leon Trotsky, *How the Revolution Armed: The Military Writings and Speeches of Leon Trotsky* (London: 1979~1981), vol. 2, p.412.

7) ‘군사전문가(Voenspets)’는 前 제국군 장교들 중 적군에 복무하고 있던 지휘관들을 의미한다. ‘군사전문가’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라. A.G. Kavtaradze, *Voennye spetsialisty na sluzhbe Respubliki Sovetov 1917~1920 gg.*(Moscow: 1988).

내전 초기인 1918년부터 지속적으로 일선 부대의 많은 지휘관들이 ‘정규’ 기병대의 창설을 요구하는 와중에도, 트로츠키는 다음과 같이 그러한 요구들을 묵살하고는 하였다. “우리에게 기병이 부족하다는 사실은 우연이 아니다. 제국군 기병대의 고향은 스텝지대였고, 코사크들은 바로 그곳에 정착했다. 스텝지대는 반(反)혁명의 온상이다. 기병은 가장 반동적인 병과이며, 가장 오랫동안 전제정을 떠받치던 병과이다.”⁸⁾ 트로츠키를 비롯한 모스크바의 적군 지휘부의 기병에 대한 이러한 태도와 인식은, 1919년 중후반 백군 기병의 전략적 운용과 이로 인한 적군 남부전선의 붕괴에 직면했을 때에야 변하기 시작하였다.⁹⁾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러시아의 사회경제적 낙후성을 강조하면서, ‘시대착오적이고 구시대적인’ 기병이 큰 역할을 하였던 러시아 내전이 이를 반증한다고 생각하였다. 결국 이러한 생각은 내전 이후 스탈린 등을 중심으로 한 일군의 기병지휘관들이 선진적인 기계화계획의 주창자들에 반대해, 심지어 그들에 대한 숙청을 자행하면서까지 군사적으로 전혀 무가치한 기병을 유지하였다는 ‘편견’으로 이어졌다.¹⁰⁾ 본고는 기병이 러시아 내전에서 핵심 병과로 재등장

8) Trotsky, *How the Revolution Armed*, vol. 2, p.412.

9) 트로츠키의 인식 변화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문건이 바로 그가 1919년 11월 11일에 발표한 유명한 “프롤레타리아여! 말에 올라라! (Proletarians, To Horse)”이다. 적군 기병대의 필요성과 확충을 요구하였던 이 글에서 트로츠키는 러시아 내전을 기동전으로 규정하고, “기동의 가장 주요한 수단이 기병”이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글은 “소비에트 공화국은 기병을 필요로 한다. 적군 기병대원들여! 전진하라! 프롤레타리아여! 말에 올라라! (The Soviet Republic needs cavalry. Red cavalymen, forwar! To horse, proletarians!)”로 끝맺는다. Trotsky, “Proletarians, To Horse,” *How the Revolution Armed*, vol. 2, pp.412-414. 1919년 중후반 이후 트로츠키를 비롯한 적군 지휘부의 기병에 대한 인식 변화에 관해서는 추후 연구를 통해 보다 자세히 논할 것을 약속드린다.

10) 기존 연구에서는 러시아 내전을 통해 군부 엘리트가 된 ‘무능하고 보수적’이었던 기병지휘관들로 인해, 새로운 군사기술의 도입을 포함한 소련방의 군사 발전이 지체되었다는 식의 주장이 지배적이다. 특히 스탈린과 개인적인 친분이 있었던 일부 기병지휘관들이 스탈린의 정치적 지원 하에 군 조직 개편이나 군

하는 과정과 그 운용상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고의 첫 부분에서는 러시아 내전에서 적군 기병이 어떻게 탄생하였는지를 살펴볼 것이며, 두 번째 부분에서는 러시아 내전에서의 적군 기병 운용상 특징을 기동과 화력의 결합, 보병과의 공조, 전략 목표에 대한 기병의 대규모 운용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2. 적군 기병의 형성

가. 1918년-적군 기병의 기원

내전 초기 적군은 P.N. 크라스노프(Petr Nikolaevich Krasnov)와 A.I. 데니킨(Anton Ivanovic Denikin)이 이끄는 백군 기병에 적절히 대응할 수 없었다. 이는 적군이 내전 초기 백군에게 군사적 주도권을 내주게 된 가장 큰 원인이었다. 특히 내전의 주요 전장이었던 남부 러시아에서 백군의 기병으로 인해 연이은

사교리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였다는 생각은 별다른 근거 없이 일반적으로 통용되어왔다. 대표적으로 다음의 연구들을 보라. John Erickson, *Soviet High Command: A Military-Political History 1918-1941* (London: 1962); Richard Harrison, *The Russian Way of War: Operational Art, 1904-1940* (Lawrence: 2001); Mary Habeck, *Storm of Steel: The Development of Armor Doctrine in Germany and the Soviet Union, 1919-1939* (Ithaca: 2003); O.S. Elizarov, *Sovetskaia voennaia doktrina nakanue Velikoi Otechestvennoi Voyny* (St. Petersburg: 2001); R. Savushkin, *Razvitie sovetskikh vooruzhennykh sil i voennogo iskusstva v mezhuennyi period (1921-iun' 1941 gg.)* (Moscow: 1989); Andrei A. Kokoshin, *Armia i politika: Sovetskaia voenno-politicheskaia i voenno-strategicheskaiia mysl' 1918-1991 gody* (Moscow: 1995); N.Iu. Kuleshova, "Voенно-doktrinal'nye ustanovskii Stalinskogo rukovodstva i repressi v Krasnoi Armii kontsa 1930-kh godov." *Otechestvennaia istoriia* 2(2001), pp.61~72. 이외에도 다음을 보라. 줄고, 「K.E. 보로실로프와 적군(赤軍) 기병대」, pp.123~127.

패배를 겪었음에도, 위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적군 지휘부는 기병 육성에 미온적이었다.

적군 기병 형성을 막은 현실적 요인도 물론 존재하고 있었다. 적군 지휘관들은 기병 부대를 조직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기병과 군마를 확보할 수 없었다. 전통적으로 과거의 제국군에게 기병과 군마를 공급하던 주요 지역인 우크라이나, 러시아 남부와 동남부 지역은 내전 초기에 백군에게 점령된 상태였고, 돈(Don) 강 인근 지역과 우크라이나 그리고 남부 우랄 지역의 코사크 기병 대부분은 이미 백군에 가담하고 있었다. 따라서 적군 기병 형성의 성패는 백군 점령 지역이었던 러시아 남부와 동남부 지역을 탈환하는 데에 달려있었다.¹¹⁾ 자연스럽게 1918년 4월 말과 5월 초 내전의 주요 격전지는 남부 러시아 지역이 되었다.¹²⁾

모스크바의 지휘부의 기병에 대한 인식과는 달리, 직접 백군에 맞서 작전을 펼쳐야 했던 일선 지휘관들에게 백군 기병은 가장 큰 골칫거리였다. 실제로 적군이 전체 병력에서 우세함에도 불구하고, 전황을 주도하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기병의 부족 때문이었다. 당시 적군 정치국(*Politicheskaiia upravlenie RKKA: PU RKKA*)의 보고에 따르면, 남부전선 예하 적군 제8군, 제9군 그리고 제10군이 도합 보병 9만 3,580명, 기병 1만 5,908명, 야포 240문, 기관총 992정을 보유하고 있었던 반면, 이에 대항하던 백군은 보병 4만 5,000명, 기병 4만 명, 야포 130문, 기관총

11) A.Ia. Soshnikov, *Sovetskaia kavaleriia: Voенno-istoricheskii ocherk* (Moscow: 1984), p.1; *Sovetskaia voennaia entsiklopediia*, 8 vols. (Moscow: 1976~1980), vol. 4, p.13.

12) 1918년 11월 8일에 열린 제6차 당 대회에서 레닌은 “남부전선을 강화하고 더 강력한 병력을 확보하는 것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절실하다”고 언급하였다. “8 noiabria. Rezoliutsiia Shestogo Vserossiiskogo Chrezvychainogo s'ezda Sovetov po dokladu V.I. Lenina o mezhdunarodnom polozhenii,” *Dekrety Sovetskoi vlasti* (Moscow: 1957~), vol. 3, p.533.

100정을 보유하고 있었다.¹³⁾ 병력과 화력의 우세를 보이고 있는 적군에게 부족했던 것은 기병이었는데, 백군의 기병은 적군의 두 배가 넘는 병력이었다. 기병의 수적 우위를 이용하여 백군은 더 신속하게 기동할 수 있었고, 대규모 기병을 적시에 자신들이 원하는 전술-전략적 지점에 배치할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적군이 예상치 못한 시간과 장소에서 타격을 가할 수 있었다.¹⁴⁾ 이러한 상황에서, 훗날 대규모 적군 기병부대로 발전하게 될 터인 몇몇 기병 파르티잔 부대가 남부 러시아에서 서서히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였다.

기병을 둘러싼 의구심 때문에 당시의 파르티잔 형태로 활동하던 기병과 그 지휘관들은 다른 ‘정규’ 병과와 달리 중앙의 계획 하에 부대와 지휘관을 양성하는 과정이나 이에 따른 행정적 그리고 보급상 지원을 받지 못하였다. 결국 이 당시의 적군 기병은 주로 남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지역에 산재해 있던 파르티잔 조직과 그 파르티잔 지휘관들에 의해 자체적으로 조직될 수밖에 없었다. 백군에 맞서 자신의 고향을 지키기 위해 자발적으로 조직된 빈곤한 코사크나 농민으로 구성된 파르티잔 부대가 훗날 적군 기병의 중추가 될 터였다.¹⁵⁾ 예컨대, 전(前) 제국군 부사관이었으며 이후 적군 기병

13) 러시아 국립 군사문서고(Rossiiskii Gosudarstvennyi Voennyi Arkhiv: 이하 RGVA로 표기), 폰드(*fond*, 이하 f. 로 표기) 9, 오피스(*opis'*, 이하 op.로 표기) 26, 델로(*delo*, 이하 d.로 표기) 160, ll. 1-6.

14) A.S. Bubnov et al., *Grazhdanskaia voina* (Moscow: 1928), vol. 3, p.262.

15) 필자가 작성한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러시아 내전 당시 적군 기병대에서 연대장(급) 이상의 보직을 맡고 있던 인물들 중 코사크 출신은 약 20% 정도에 불과하였다. 약 70%에 달하는 인물들은 주로 러시아계나 우크라이나계 지휘관들이었다. 이들은 1861년 농노해방 이후 비옥한 남부 러시아의 코사크 지역에 정착하기 시작하였던 비(非)코사크, 즉 이노고로드니에(*inogorodnie*)였다. 이들은 코사크지역에서 농업노동자 혹은 소작인으로 생활하였으며, 토지에 관한 여러 문제와 소작관계로 인해 항상 코사크와 긴장상태에 놓여 있었다. 예를 들어, 제1차 세계대전 발발 직전, 남부 러시아 인구의 절반도 안 되던 코사크가 이 지역 토지 중 약 80%를 소유하고 있었으나, 이노고로드니에의 약 94.8%는

창설에 주요한 역할을 하게 될 B.M. 두멘코(Boris Mokeevich Dumenko)는 1918년 2월 말 남부 러시아의 체르카스크(Cherkassk)에서 파르티잔 활동을 시작하였다. 이외에도 1918년 2월과 3월에 여러 파르티잔 기병대가 전선에서 자체 조직되고 있었다.¹⁶⁾ 1918년에 편성된 적군 파르티잔 부대 중 가장 대규모 부대는 살스크(Salsk) 스텝 지역에서 조직되었다. 적군 남부전선군의 보고에 따르면, 1918년 봄 동안 이 지역에서만 두멘코의 기병 파르티잔을 포함한 총 45개 파르티잔 부대가 활동 중이었고, 병력규모는 기병 1,800명을 포함한 총 6만 명이였다.¹⁷⁾

이들 파르티잔 부대가 각 지역에서 백군에 맞서 그 나름의 군사적 역할을 하고 있기는 했지만, 단일한 명령체계의 부재로 인해 소규모 기병부대들 간의 공조를 통한 효과적인 작전이 불가능하였다. 각 파르티잔 부대는 개별적으로 그리고 자체적으로 전투를 수행할

어떠한 토지도 소유하고 있지 못하였다. Konstantin A. Khmelevskii, *Krakh krasnovshchiny i nemetskoj intervetsii na Donu: Aprel' 1918-mart 1919 goda* (Rostov: 1965), pp.20~22; Vladimir A. Zolotov and Aleksandr P. Pronshtein, *Za zemliu, za voliu: Iz istorii narodnykh dvizhenii na Donu* (Rostov: 1974), p.214. 코사크의 경제적 조건이 이노고로드니에에 비해 나았다 하더라도, 코사크 또한 혁명이전 남부러시아의 급속한 산업화로 인해 경제적 분화가 심하였다. 즉, 부유한 코사크들이 남부 러시아의 백군의 군사 활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면, 당시 공화국 혁명군사위원회 정치국의 S.I. 구세프(Sergei Ivanovich Gusev)가 “적군 기병의 일부는 소비에트 정권을 따르는 빈민 코사크들을 기반으로 형성되었다”고 언급했듯이, 이노고로드니에가 적군 기병 충원의 주요한 근원이라면 빈민 코사크들은 또 다른 주요 충원기반이었다. *Voennyi vestnik*, nos. 2-3 (1921), p.16. 이노고로드니에 관해서는 다음을 참고하라. 구자정, 「러시아 內戰期 까자크 自決主義의 대두와 南部러시아 白軍運動의 형성」, 『학림』 제21호(2000), pp.161~189.

16) 이 시기 파르티잔 활동에 관해서는 다음을 보라. Khmelevskii, *Krakh krasnovshchiny i nemetskoj intervetsii*, p.40; I.V. Fotiev, *Pod ognennym stigom: Vospominaniia uchastnikov grazhdanskoi voiny* (Moscow: 1972), p.135; Dmitrii S. Babichev, *Donskoe trudovoe kazachestvo v bor'be za vlast' Sovetov* (Rostov: 1969), p.153.

17) RGVA, f. 8383, op.1, d. 26, l. 8.

뿐이었다. 하지만 점차 단일한 명령체계를 통해 전투를 수행할 필요가 파르티잔 지휘관들 사이에서 주장되기 시작하면서, 1918년 7월 10일에 파르티잔 지휘관들의 협의를 거쳐 수십 개의 소규모 파르티잔 기병대를 통합하여, 두멘코와 S.M. 부돈니(Semen Mikhailovich Budennyi)를 각각 지휘관과 부지휘관으로 하는 약 700명 규모의 기병대가 조직되었다.¹⁸⁾ 이 부대의 규모는 8월 경 약 1,800명으로 확대되었다. 이후 로스토프 지역의 다양한 파르티잔 부대들이 병합하여 I.R. 아파나센코(Iosif Rodionovich Apanasenko) 등의 파르티잔 지휘관들을 중심으로 또 다른 연대 규모의 부대를 조직하였다.¹⁹⁾

이후 스탈린그라드로 명명될, 남부 러시아의 차리친(Tsaritsyn)은 적군 기병의 형성과 관련해 매우 중요한 장소였다. 1918년 6월 적군 패잔 병력은 이후 남부전선 제10군 사령관이 될 K.E. 보로실로프(Kliment Efremovich Voroshilov)와 군량 확보를 위해 남부전선으로 파견된 스탈린이 머물고 있던 차리친으로 도주하였다. 이후 차리친에서 적군은 보로실로프와 남부전선 혁명군사위원회 위원이었던 스탈린의 지휘 하에 백군과 일련의 포위전²⁰⁾을 치르게 되는데, 이러한 전투를 거치면서 제1기병군(*Pervaia konnaia armia*)의 중핵이 될 제4 그리고 제6기병사단이 조직될 터였다. 사실, 백군이 차리친을 포위하기 이전인 1918년 1월에도 이 지역에 이미 100여 명으로 구성된 1개 파르티잔 기병대가 조직된 적이

18) RGVA, f. 4783, op.2, d. 1, l. 10, 18-19; Ivan V. Tiulenev, *Sovetskaia kavaleriia v boiakh za rodinu* (Moscow: 1957), p.50.

19) Vasilii T. Sukhorukov, *XI armia v boiakh na severnom Kavkaze i nizhnei Volge 1918-1920 gg.* (Moscow: 1961), p.40; A. Altunin and N.G. Ganotskii, *Krasnoznamennyi Severo-Kavkazskii: Ocherk istorii Krasnoznamennogo Severo-Kavkazskogo voennogo okruga* (Rostov: 1971), p.44.

20) 차리친을 중심으로 한 포위전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라. Leonid L. Kliuev, *Bor'ba za Tsaritsyn 1918-1919 gg. S 7 shemani na otdel'nykh listakh* (Moscow: 1928).

있었지만,²¹⁾ 1918년 4월부터 5월까지 수많은 파르티잔 부대가 차리친을 중심으로 대규모 기병대로 통합 재편되기 시작하였다.²²⁾

1918년 말을 기준으로, 적군은 도합 22만 6,000명의 병력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 중 오직 2만 5,000명만 기병이었다.²³⁾ 이 2만 5,000명 중 4분의 1이상이 보로실로프의 남부전선 제10군 예하에 있었다.²⁴⁾ 게다가 이후 제1기병군 제4기병사단 지휘관이 될 S.K. 티모셴코(Semen Konstantinovich Timoshenko)와 D.F. 세르디치(Danilo Fedorovich Serdich)가 각각 750명과 730명의 기병 병력과 함께 차리친에 합류하였다.²⁵⁾ 1918년 8월 I.F. 비카도로프(Issak Fedorovich Bykadorov)의 백군 기병의 포위공격에 맞서 차리친의 적군 기병은 백군 후위에 대해 약 120km에 달하는 습격을 감행하였다. 이는 적군에 의해 수행된 최초의 기병습격이었다.²⁶⁾ 그러나 여전히 적군 지휘부가 기병의 효용성을 불신한 탓에 대규모 기병대의 창설은 느리게 진행될 수밖에 없었다.²⁷⁾ 몇몇

21) Esfir' B. Genkina, *Bor'ba za Tsaritsyn v 1918 godu* (Moscow: 1940), pp.29~30.

22) 자생적인 파르티잔 부대 외에도, 전(前) 제국군 대령이었으며, 이후 제2기병군 지휘관이 될 F.K. 미로노프(Filipp Kuz'mich Mironov) 예하 제32 돈 코사크 연대도 이 시기에 차리친에 주둔한 적군에 합류하였다. 차리친 지역에서의 파르티잔 활동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라. Babichev, *Donskoe trudovoe kazachestvo*, p.152; I.M. Borokhova and A.G. Bespalova et al., *Bor'ba za vlast' Sovetov na Donu 1917-1920 gg: Sbornik dokumentov* (Rostov: 1957), p.349; Fotiev, *Pod ognennym stiagom*, pp.133~136; L.I. Bukhanova, *Iuzhnyi front (mai 1918-mart 1919): Bor'ba sovetskogo naroda s interventami i belogvardeitsami na iuge Rossii: Sbornik dokumentov* (Rostov: 1962), p.35.

23) RGVA, f.5, op.1, d.188, ll. 8-9.

24) Khmelevskii, *Krakh krasnovshchiny i nemetskoi intervetsii*, pp.83~84.

25) D.F. Serdich, "Pervaia vstrecha s Budennyim," *Pervaia konnaia v izobrazhenii ee boitsov i komandirov* (Moscow: 1930), pp.85~86; idem., "Rabochie i krest'iane Balkanskogo poluostrova v konnitsе Budennogo," *Krasnaia konnitsa*, no. 2(1935), pp.10~11.

26) Kliuev, *Bor'ba za Tsaritsyn*, p.26, 36.

27) Sergei S. Kamenev, *Zapiski o grazhdanskoi voine i voennom stroitel'stve*:

지휘관들, 특히 두멘코와 부돈니 등이 사단 규모의 강력한 기병대를 창설할 필요가 있다고 모스크바의 최고사령부에 거듭 제안했으나 이들의 청원은 묵살되었다.²⁸⁾

나. 남부전선에서의 적군 기병의 발전

1918년 11월 제10군 예하 몇몇 지휘관들, 특히 두멘코와 부돈니의 계속된 요청으로 제10군 예하에 2개 기병사단의 창설을 요구하는 보고서가 제10군 혁명군사위원회에 제출되었다.²⁹⁾ 한편, 차리친으로부터 더 멀리 남쪽에 주둔하고 있던 적군 제11군이 데니킨의 백군과 쿠반 코사크들에게 공격받았고, 이 공격에서 살아남은 제11군 병력 중 일부, 특히 아파나센코가 지휘하고 있던 연대규모의 기병대가 보로실로프의 제10군에 합류하였다.³⁰⁾ 제10군은 이러한 인적-물적 자원을 갖고 1918년 말부터 1919년 봄까지 대규모 기병대를 조직해나갔다. 그 일환으로 1919년 1월 30일 제10군 혁명군사위원회는 명령 제49호로 제1 돈 기병여단과 1개 보병사단을 통합해 별동기병사단(*Otdel'naia kavaleriiskaia diviziia*)을 창설하고 이를 두멘코와 부돈니에게 지휘토록 하였다.³¹⁾ 별동기병사단의 창설은 이후 등장할 제1기병군과 같은 전략기병의 탄생을 알리는

Izbrannye stat'i (Moscow: 1963), p.140.

28) S.M. Budennyi, *Proidennyi put'* (Moscow: 1958-1973), vol. 1, pp.105-108.

29) Andrei P. Aleksashenko, *Protiv Denikina: Sbornik vospominanii* (Moscow: 1969), p.103.

30) Sukhorukov, *XI armia v boiakh*, pp.78-79, 192-196. 이 사단은 제10군에 소속된 후인 1919년 3월 23일부로 제6기병사단으로 개칭되었다. 1919년 3월 7일 두멘코의 기병대 창설 활동과 제6기병사단으로의 재편성에 관해서는 당시 제6기병사단 정치인민위원이었던 V.I. 베를로프(Vasilii Ivanovich Berlov)의 회고록도 참고하라. V.I. Berlov, *V plameni, v porokhovom dymu: Zapiski politkommissar* (Stavropol': 1973), p.3.

31) RGVA, f. 8067, op. 1, d. 6, l. 34; f.193, op.1, d. 14, l. 1.

신호였다.

1918년 12월 이후 보로실로프를 이어 제10군을 지휘했던 A.I. 예고로프(Aleksandr Il'ich Egorov)는 강력한 기병을 보유하는 것이 백군의 강력한 기병에 맞서는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었다. 사령관으로 부임한 직후 예고로프는 제10군 예하 전체 기병병력을 이끌 지휘관으로 두멘코를 임명하였다.³²⁾ 이에 따라 두멘코의 부지휘관이었던 부돈니가 두멘코의 뒤를 이어 제4기병사단³³⁾의 지휘관이 되었다. 예하 기병병력을 백군에 대한 충공세를 위해 전략적으로 이용하고자³⁴⁾ 생각했던 예고로프는 두멘코에게 즉시 “북쪽에 있는 적의 작전 지역으로 침투하고, [볼가강 인근의] 카미신스크(Kamyshinsk)의 아군 보병부대들과 공조하여, 적 후방 깊숙이 습격을 하여 적의 보급 및 통신 기지를 파괴하라”³⁵⁾는 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제10군 기병병력들은 백군 후위로 침투하여 약 400km에 달하는 지역을 습격하고, 야포 48문과 기관총 100정 이상 그리고 장갑열차 1대를 포함한 수많은 군수물자와 장비를 노획하였다. 이 기병습격 덕분에 데니킨의 주력 기병 중 하나였던 크라스노프의 백군 코사크 기병이 격퇴되었고, 남부전선의 주도권이 잠시 동안이나마 적군으로 넘어갔다.³⁶⁾ 이로써 대규모 기병부대와 이들의 기동성이 큰 장점을 가진다는 사실이 확실하게 증명되었고, 지금까지의 소규모 전술적 임무에만 머물렀던 적군 기병의 역할이 기병사단과 보병까지 동원된 전략적 목표에

32) 제10군 혁명군사위원회의 명령 제139호는 다음과 같다. “대규모 기병을 이용할 필요를 고려할 때, 제4기병사단 지휘관 두멘코를 제10군 기병담당 부참모장으로 임명한다.” RGVA, f. 193, op. 1, d. 15, l. 171; op. 3, d. 771, l. 51.

33) 별동기병사단은 1919년 3월 14일부로 제10군 예하 제4 기병사단으로 개칭되었다.

34) Kliuev, *Bor'ba za Tsaritsyn*, p.33.

35) N.Ia. Kopylov, “K biografii Marshala Sovetskogo Soiuza A.I. Egorova,” *Istoricheskii arkhiv*, no. 1 (1962), p.203.

36) RGVA, f. 193, op.1, d. 29, l. 74.

대한 공격으로 변화하였다.

제10군과 마찬가지로 남부전선 제9군도 예하 제14기병사단 제3기병연대를 1919년 8월 13일부로 기병여단으로 재편하면서,³⁷⁾ 1919년 중반 적군은 총병력 3만 명으로 추산되는 5개 기병사단(제1, 제4, 제6, 제7, 제3 투르케스탄 기병사단)을 보유하게 되었다.³⁸⁾

다. ‘마몬토프 습격(Reid Mamontova)’과 적군의 전략기병 형성

1919년 5월 데니킨의 백군은 주력을 캅카스로 부터 차리친 인근으로 이동시켜, 남부전선에서 기병의 수적 우위를 이용한 새로운 공세를 시작하였다. 당시 백군은 9개의 기병사단과 3-4개의 기병여단을 이곳에 배치하였다.³⁹⁾ 공세 초반부터 백군 기병은 적군 제9군을 사분오열시켰고, S.G. 올라가이(Sergei Georgievich Ulagai)의 백군 기병군단은 그라베브스크(Grabbebsk) 지역으로 깊숙이 침투해 제10군 좌익을 교란하면서, 적군 남부전선의 주요 통신기지 와 보급기지를 파괴하였다. 결국 1919년 6월 9일에 데니킨의 백군은 제10군 좌익을 돌파하여, 이를 후 남부전선의 중심지인 차리친을 다시 포위하게 되었다.⁴⁰⁾ 적군 최고사령부는 남부전선의 상황이 매우 긴박하다고 판단했다. “이제 남부전선은 분해되었다. 적은 승리에 도취되었고, 엄청난 정도로 용감하고 대담해졌다. [백군] 기병은 아군 후위 깊숙이 침투해 엄청난 공포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37) A.A. Maslovskii, *Boevoi put' blinovtsev: Istoriia boev i pokhodov 5 Stavropol'skoi im. tov. Blinova kavaleriiskoi divizii 1919-1929* (Rostov: 1930), p.26.

38) P. Dmitriev, “Ispol'zovanie strategicheskikh rezervov Krasnoi Armii v vesennei kampanii 1919g.,” *Voennno-istoricheskii zhurnal*, no. 9 (1976), pp.64~65.

39) Maksim Gorkii, *Istoriia grazhdanskoi voiny v SSSR*. 5 vols. (Moscow: 1935-1960), vol. 4, p.70.

40) Mikhail A. Vodolagin, *Krasnyi Tsaritsyn* (Volgograd: 1967), p.136.

남부전선의 상황은 총체적 재앙과도 같다.”⁴¹⁾

1919년 5월까지 적군 남부전선이 보유하고 있던 기병 연대와 사단은 3-4개에 불과하였다. 기병을 이용한 백군의 공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기병대가 시급하였다. 결국, 새롭게 제10군의 지휘관이 된 L.L. 클류예프(Leonid Lavrovich Kliuev)는 부돈니의 제4기병사단과 아파나센코의 제6기병사단을 통합하여 1919년 6월 26일 제1기병군단을 창설하였다.⁴²⁾ 부상으로 인해 두멘코가 지휘관의 책무를 수행할 수 없자, 부돈니가 기병군단의 지휘관으로 임명되었다.⁴³⁾

바로 이 지점에서 중요한 사건 하나가 발생하였다. 백군 지휘부가 적군 제10군 후위에 K.K. 마몬토프(Konstantin Konstantinovich Mamontov)의 기병군단을 투입한 것이었다. 이는 내전의 전황에 큰 영향을 주었던 소위 ‘마몬토프 습격’으로 불리는 작전이었다. 마몬토프가 이끄는 제4 돈 코사크 기병군단은 기병 6,000명, 보병 3,000명, 야포 12문, 장갑열차 7대 그리고 장갑차량 3대를 이용하여, 총 거리 2,200km에 달하는 엄청난 기병습격을 수행하여 적군의 통신망과 보급선을 파괴하였다. 마몬토프의 습격에는 분명한 전략적 목표가 있었는데, 그것은 적군의 후위를 교란하고 백군의 공세에 맞서 적군이 준비하고 있던 새로운 방어계획을 저지하는 것이었다.⁴⁴⁾ ‘마몬토프 습격’으로 인해, 돈 강 우안(右岸)에 주둔하고 있던 적군 제9군은 북쪽으로 퇴각하기 시작했고, 1919년 8월 18일에 마몬토프가 탐보프를 점령하게 되면서 남부전선에서의 적군 방어선 전체가 200km나 밀려났다.⁴⁵⁾ ‘마몬토프 습격’은 대규모

41) RGVA, f. 6, op.4, d. 212, l. 39.

42) Budennyi, *Proidennyi put'*, vol. 1, pp.167~168; Khromov, *Grazhdanskaia voina*, p.279.

43) RGVA, f. 193, op.3, d. 351, l. 108.

44) *Sovetskaia voennaia entsiklopediia*, vol. 5, p.112.

45) RGVA, f. 100, op.3, d. 69, ll. 250-251.

기병 운용과 기병습격의 성격을 여실히 보여주었다.⁴⁶⁾

1919년 9월 17일 돈 강을 도하한 후 9월 19일 A.G. 쉬쿠로(Andrei Grigor'evich Shkuro)의 본대로 귀환⁴⁷⁾할 때까지 이어졌던 ‘마몬토프 습격’으로 인해 지금까지 기병에 회의적이었던 모스크바의 적군 지휘부는 큰 충격을 받았다. 레닌이 남부전선 혁명군사위원회의 위원 M.M. 라세비치(Mikhail Mikhailovich Lashevich)에게 보낸 전문에서 ‘마몬토프 습격’ 당시의 불안감이 잘 드러난다. “[우리는] 마몬토프의 성공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마몬토프는 도로와 보급기지를 파괴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에게 매우 치명적인 것이다.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있는가? [‘마몬토프 습격’에 대해 계속 보고하라!”⁴⁸⁾ 이러한 문제에 직면한 공화국 혁명군사위원회(*Revoliutsionnyi voennyi sovet respubliki: RVSR*)는 이때부터 새로운 형태의 기병, 즉 전략적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대규모 기병 창설을 결정하였다. 약 18개월의 전쟁 수행과 특히 이 시기 백군의 전략 기병운용에 충격을 받은 트로츠키를 비롯한 적군 지휘부는 기병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게 된다. 1919년 9월 15일에 공화국 혁명군사위원회는 기병 확충에 관한 명령을 내렸고,⁴⁹⁾ 약 2주 뒤인 10월 1일 국방위원회(*Sovet rabochei i krest'ianskoi oborony: SRKO*)는 기병 창설과 관련된 비용으로 20억 루블을 승인하였다.⁵⁰⁾ 적군 기병을 육성하는 일은 이제

46) Ibid., ll. 223-226; Khromov, *Grazhdanskaia voina*, p.341.

47) RGVA, f. 6, op.4, d. 179, l. 120.

48) F. Kariaeva and N.N. Azotsev eds., *Direktivy komandovaniia frontov Krasnoi armii 1917-1922 gg.: Sbornik dokumenov*, 4 vols. (Moscow: 1971~1978), vol. 2, p.321.

49) RGVA, f. 4, op.18, d. 2, ll. 117~119.

50) “Instruktsiia o mobilizatsii loshadei, nakhodiashchikhsia v rasporiazhenii sovetskikh uchrezhdenii i ikh sluzhashchikh,” *Dekrety Sovetskoi vlasti*, vol. 6, p.453. 또한 다음을 보라. V.V. Ovechkin, “Izitiie loshadei u naseleniia dlia Krasnoi armii v gody grazhdanskoi voiny,” *Voprosy istorii*, no. 8 (1999),

남부전선의 문제에서 적군 전체의 사안이 되었다.

1919년 9월 초 부상에서 회복되어 복귀한 두멘코를 지휘관으로, 남부전선 예하 제37, 제38 기병여단과 D.P. 즐로바(Dmitrii Petrovich Zhloba)가 지휘하던 별동기병여단이 통합되어 1개 기병군단이 편성되었다.⁵¹⁾ 같은 시기에 적군 제9군 사령부도 9개 기병연대로 구성된 1개 기병단(*kavaleriiskaia grupa*)을 편성하여 M.F. 블리노프(Mikhail Fedoseevich Blinov)를 지휘관으로 임명하였다.⁵²⁾ 이제 1919년 9월경 적군도 두멘코와 부돈니가 각각 이끄는 2개의 기병군단과 블리노프의 1개 기병단으로 구성된 전략기병을 보유하게 되었다.

적군은 백군의 또 다른 대규모 기병습격에 대비하고 데니킨의 백군에 맞서 남부전선의 전황을 타개하기 위한 계획에 돌입하였다. 적군 최고사령부는 남부전선과 동남부전선의 모든 적군 병력을 동원하여 백군에 대한 전면적인 공격을 가하고자 하였다. 그 일환으로 1919년 11월 중순 보병 7만 9,500명과 기병 1만 6,000명이 남부전선에 집결하였다. 이 때 집결한 병력 중에서 부돈니의 기병군단이 가장 강력하고 기동성이 높은 부대였다. 한편, 동남부전선에 있던 병력은 보병 3만 8,735명과 기병 9,750명이었다. 동남부전선에서 기동력과 타격력을 자랑하던 부대는 두멘코의 기병군단과 제9군 예하 블리노프의 기병단이었다.

바로 이 시기에 남부전선에서 제1기병군이 창설되었다. 남부전선의 상황을 논하기 위해 1919년 9월 26일에 개최된 중앙위원회총회에서 남부전선 강화를 위해 보다 대규모의 전략기병 창설이 논의

pp.114~124.

51) RGVA, f. 193, op.3, d. 352, l. 115. 화력보강을 위해 1919년 9월 말에는 기병군단에 9대의 장갑차량도 배치되었다.

52) RGVA, f. 7937, op.1, d. 95, l. 97. 기병단은 제14, 제23 그리고 제36 기병사단을 예하에 두었다.

되었고,⁵³⁾ 같은 날 공화국 혁명군사위원회는 당시 제4, 제6 그리고 제11 기병사단으로 구성되어 있던 부돈니의 제1기병군단을 기병군(*konnaia armiia*)으로 확대 재편하도록 명령하였다.⁵⁴⁾ 이 명령으로 제4, 제6, 제11 기병사단 외에도, 제9, 제12 보병 사단과 소규모 장갑차량과 항공기 그리고 장갑열차도 제1기병군에 배치되었다.⁵⁵⁾ 이러한 부대 구성은 기병군이 완전히 새로운 유형의 군사 조직이며, 보병과 긴밀하게 공조하는 강력한 제병협동에 기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⁵⁶⁾ 1920년 초 즈음 제1기병군의 병력은 기병 1만 5,000명, 야포 19문, 기관총 238정, 장갑열차 8대였다.⁵⁷⁾

제1기병군의 창설로 인해, 1919년 가을 이후 내전의 전황은 백군에게 불리하게 전개되었다. 남부전선에서 적군의 공격이 성공하자 백군 병력은 아조프해를 두고 양쪽으로 분열되었다. 부돈니의 제1기병군은 먼저 우크라이나 동부에서 그리고 11월과 12월에는 돈 지역 중부에서 백군을 몰아냈고, 이후 돈 강 유역을 탈환한 뒤 남쪽으로 이동하였다.⁵⁸⁾ 결국, 1919년 12월 말 백군 제4 돈 기병군단 지휘관 올라가이는 남부전선의 전황에 대한 보고서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전체적인 전황으로 판단할 때, 이제 우리에게 더 이상의 기병은 존재하지 않는다.”⁵⁹⁾ 비록 러시아 영토 내에

53) Gennadii A. Belov, *Iz istorii grazhdanskoi voiny v SSSR 1918~1922: Sbornik dokumentov i materialov*, 3 vols. (Moscow: 1960), vol. 2, pp.459~460.

54) 공식 창설일자는 남부전선 혁명군사위원회의 명령이 발표된 1919년 11월 17일이다.

55) RGVA, f. 6, op.4, d. 331, ll. 2~10. 이후 폴란드와의 전쟁을 위해, 제1, 제2, 제8, 제9, 제14 그리고 제19 기병사단 등이 1920~1921년 시기에 제1기병군 예하에 들어오게 된다.

56) S.M. Budennyi, “Prazdnik RKKA v krasnoi konnitsy,” *Krasnaia konnitsa*, no. 2 (1935), p.2.

57) Azovtsev, *Direktivy komandovaniia frontov Krasnoi armii*, vol. 4, p.121.

58) Gorkii, *Istoriia grazhdanskoi voiny*, vol. 4, p.290.

59) Petr N. Vrangeli, *Vospominaniia generala barona P.N. Vrangelia* (Frankfurt/Main:

서 전투는 1920년 11월경에 종결될 터이지만, 제1기병군과 같은 전략기병의 등장은 기병의 기동과 습격이 그 전투의 특징이었던 남부전선, 더 나아가 러시아 내전이 결국은 적군의 승리로 귀결될 수 있었음을 보여주었다. 1920년 봄 즈음에 러시아 내전은 사실상 종결되었다.⁶⁰⁾

3. 러시아 내전에서의 기병 운용

러시아 내전은 기병의 전쟁이었다. 1919년 7월경 데니킨 예하 백군의 전 병력이 볼가 강 유역에서 갈리시아까지 길게 늘어진 전선에 포진해 있었을 때 그 수는 10개 군단, 총 11만 명의 병력이었다. 당시 적군의 보고에 따르면, 이 11만 명의 병력 중 약 5만 8,000명이 기병이었다.⁶¹⁾ 1919년 5월 21일 로스토프의 벨리코크냐제스키(Velikokniazheskii)에서 벌어진 전투에서 백군의 P.N. 브랑겔(Petr Nikolaevich Vrangl')은 2만-2만 5,000명으로

1969), p.256.

60) 제1기병군의 창설이후에도 적군 지휘부는 계속해서 상급 기병부대의 추를 늘려갔다. 캅카스전선에서 제2기병군단(2-*i konnyi korpus*), 서부전선 제4군 예하에 G.D. 가이(Gaia Dmitrievich Gai)의 제3기병군단(3-*i konnyi korpus*), 남부전선 제13군 예하 제5기병사단과 제9기병사단을 기반으로 N.D. 카쉬린(Nikolai Dmitrievich Kashirin)이 이끄는 1개 기병군단이 창설되었다. 이후 제7기병사단이 이 기병군단의 편제에 포함된다. 결국, 1920년에 적군은 총 27개 기병사단과 수 개의 별동 기병여단들을 보유하게 되었다. 이 수치는 1920년 1월 15일 적군 서부전선, 남서부전선 그리고 투르케스탄전선의 전황보고를 기반으로 추산한 것이다. 서부전선에 관한 적군의 보고는 다음을 보라. RGVA, f. 6, op.4, d. 331, ll. 156-183. 남서부전선의 보고에 관해서는 다음을 보라. RGVA, f. 6, op.4, d. 253, l. 43; op.3, d. 4, ll. 11, 13, 78; d. 5, l. 130. 투르케스탄전선에 관해서는 다음을 보라. RGVA, f. 185, op.3, d. 639, ll. 107-116. 이외에도 다음을 참고하라. *Sovetskaia voennaia entsiklopediia*, vol. 3, p.435.

61) RGVA, f. 5, op.1, d. 188, ll. 106-107.

구성된 기병 연대 36개를 배치하기도 하였다.⁶²⁾ 적군 기병 비율도 백군에 비해 낮은 수치이기는 했으나 결코 적지 않았다. 소비에트-폴란드 전쟁이 한창이었던 1920년 10월 15일 당시 적군이 전선에 배치한 총 병력은 40만 명에 달했는데, 이 중 7만 2,000명이 기병이었다.⁶³⁾ 따라서 기병 대 보병의 비율은 약 1 대 5.5이었다. 적군 지휘부가 여전히 기병 창설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을 때인 1918년 말에, 적군 내 기병 대 보병의 비율이 1 대 9 정도였음을 감안한다면,⁶⁴⁾ 이 수치상의 차이는 매우 의미심장하다. 그러나 러시아 내전에서 기병의 의미는 단순히 수치상의 문제로만 그치는 것은 아니었다. 기병은 러시아 내전에서 군사적 효용성을 입증하였다. 한때 기병의 가치에 가장 회의적이었던 트로츠키마저도 백군 기병의 전략적 운용으로 인해 남부전선이 붕괴될 시점이었던 1919년 6월 레닌에게 다음과 같이 보고하면서, 기병의 가치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기병이 가장 중요하다. 우리는 승패가 기병의 손에 달려 있다는 점만 깨달으면 된다.”⁶⁵⁾

적군 기병은 전술적 측면에서, 적의 저항을 분쇄하기 위해 화력과 기동을 결합하여 측면 우회기동이나 적 후방 침투를 수행하였고, 전략적 측면에서, 이전의 전술적 임무를 넘어 대규모 기병을 이용한 전략적 목표에 대한 습격을 통해 기병 운용의 성격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다. 요컨대, 러시아 내전에서 적군 기병 운용의 핵심은 첫째, 기동과 화력의 결합, 둘째, 보병과의 공조, 셋째, 전략 목표에 대한 기병의 대규모 운용으로 정리할 수 있다.

62) RGVA, f. 6, op, 4, d. 641, l. 79.

63) 이 수치에 관해서는 다음을 보라. RGVA, f. 6, op, 4, d. 641, ll. 49-76; d. 694, ll. 79-80; d. 695, ll. 37-38.

64) RGVA, f. 5, op.1, d. 188, ll. 8-9.

65) Leon Trotsky, *The Trotsky Papers, 1917~1922* (Hague: 1964-1971), vol. 1, pp.530~531.

가. 기동과 화력의 결합

어떤 이는 기병이 러시아 내전에서 부활했다는 사실 때문에, 적군이 러시아 내전에서 기마전투(騎馬戰鬪)에만 집착하고 돌격만을 일삼는 과거의 전투방식을 유지하였을 것이라고 오해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적군 기병 운용에서 가장 중요했던 특징은 기병의 기동성과 습격 그리고 화력을 결합하고자 했던 시도였다.⁶⁶⁾ 적군과 백군의 기병 모두 구(舊) 제국군으로부터 파생하였으나, 전투 방식과 그 운용에서는 큰 차이를 보였다. 백군 기병은 화기를 이용한 하마전투(下馬戰鬪)를 기피했던 반면, 적군 기병은 화력과 기동을 결합한 전투 방식을 선호하였다. ‘마몬토프 습격’으로 유명한 마몬토프도 “극히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하마전투를 허용하겠다는 명령을 내렸다.⁶⁷⁾ 제1기병군 제4기병사단의 참모장이었던 I.D. 코소고프(Ivan Dmitrievich Kosogov)에 따르면, “기병 ‘돌격’에 대한 승배와 ‘도검류’에 대한 선호, 그리고 화기에 대한 혐오가 돈 코사크, 쿠반 코사크 그리고 백군 기병의 주요한 특징이었다.”⁶⁸⁾ 구(舊) 제국군 육군 소장이었으며 백군으로 내전에 참전하였던 A.K. 켈첵스키(Anatolii Kiprianovich Kelchevskii)가 보기에 돈 코사크 기병은 선천적으로 하마전투를 좋아하지 않았으며, 하마전투를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지조차 모르는 듯했다. 이러한 성격의 주된 원인을 켈첵스키는 퇴각에 실패해 적에게 붙잡히게 될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라고 평가하기도 하였다. 한 코사크 병사는 켈첵스키에게 이렇게 말했다. “말을 타지 않고 보병처럼 싸운다면 내가 아무 힘도 없는 아낙네가 된 것처럼 느껴진다.”⁶⁹⁾

66) 이에 대해서는 다음의 글도 참고하라. 줄고, 「K.E. 보로쉴로프와 적군(赤軍) 기병대」, 131~133쪽.

67) Ivan D. Kosogov, “Taktika krupnykh konnykh mass v epokhu grazhdanskoi voiny,” A.S. Bubnov et al., *Grazhdanskaia voina*, vol. 1, p.162.

68) Ibid.

이에 반해, 전선 전면에서 중(重)기관총과 야포를 이용한 집중 포화로 엄호를 하는 동시에 기병이 적의 후면이나 측면을 습격하는 전술이 적군 기병이 보여준 전형적인 전술이었다고 코소고프는 술 회하였다.⁷⁰⁾ 어떤 경우에는 기관총 사격과 포격만으로도 적군 기병이 전투를 승리로 이끌기도 하였다. “종종 일제 엄호사격만으로 적들은 전투 불능이 되었고, 우리 기병은 뒷마무리만 하면 되는 경우도 많았다.”⁷¹⁾ 기병이 투입되기 전부터 시작된 기관총과 야포를 이용한 일제 사격은 특히 부돈니가 지휘했던 제1기병군의 전형적인 공격 방법이었다. 켈체스키는 자신의 적이 펼치는 전술을 다음과 같이 평하였다. “그들[두멘코와 부돈니]은 기병전의 본질과 전투 심리를 정확히 꿰뚫어 보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기병전 수행 방식에 몇몇 중요한 수정을 가하였다.” 적군 기병의 전투 방식에 대해 그는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그들[적군 기병]은 수 개의 ‘전방 선견대(peredovyi eskadron)’에 의한 대담한 정찰을 도입하였다. 보통 백군은 1개 기병중대로 이루어진 소규모 정찰대를 보내는 반면에 적군은 여러 방향으로 2개 기병중대 심지어 3개 기병중대 규모의 정찰대를 운용하였다. 또한 이들 정찰대에는 많은 수의 타찬카(tachanka)가 배치되었다. 대규모 기병과 타찬카를 통해 적군 기병 정찰대는 정찰 임무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종종 적의 소규모 부대나 정찰대를 격퇴할 수도 있었다. [...] 강력한 정찰 부대와 함께, 두멘코와 부돈니는 수 개의 연대급 혹은 여단급 규모의 부대로 구성된 선봉 부대의 보호 하에 본대를 이끈다. [...] 원거리 포격 후, 본대는 많은 수의 야포와 타찬카에 설치된 기관총 혹은 2-4대의 장갑차량을 이용하여 우리 전선을 공격한다. 이들의 화력에 의해 백군 기병 선봉은 와해되기 시작한다. 대포와 기관총을 퍼붓는 동안, 보통 [적군] 기병사단의 선봉 연대들이

69) A.K. Kelchevskii, *Dumenko i Budennyi: Rol', znachenie i takticheskie priemu konnitsy v Russkoi grazhdanskoi voine* (1920), p.6.

70) Kosogov, “Taktika krupnykh konnykh mass,” p.174.

71) Ibid.

광범위한 전선에 전개하여 우리 선봉 부대를 가차 없이 공격한다. [...] 백군이 진퇴양난에 빠져 후퇴할 때면 그들[두멘코와 부돈니]은 수십 베르스타(versta)⁷²⁾를 맹렬히 뒤쫓는다. 처음에는 몇몇 연대에서 임시로 선발된 기병대가 장갑차량과 함께 백군을 추격하였지만, 이후에는 장갑차량을 장비한 별도 기병중대들이 백군을 추격한다. 추격은 한 방향, 또는 종종 두 방향에서 이루어지는데 때때로 그 거리가 70 베르스타에 달하기도 하였다.⁷³⁾

화력과 기동을 결합하는 문제에 있어서, 적군 기병은 거의 모든 군사적 상황에서 기병대와 함께 작전을 할 수 있는 강력한 기동 장비인 ‘타찬카’를 이용하였다. 보통 말 세 필이 끌던 타찬카는 농가에서 사용하던 수레를 개조한 이동장비로, 중(重)기관총과 탄약 그리고 세 명의 인원(마부, 기관총 사수, 보조 사수)을 싣고 다녔다. 기관총은 후면이나 측면을 향해 발사가 가능하게끔 고정되어 있었다. 도로가 없어도 신속한 이동이 가능했기 때문에 장갑차량의 운용이 불가능하였던 지역에서 타찬카는 진가를 드러냈다. 이런 식으로, 엄청난 무게와 크기 때문에 그때까지 방어 무기로만 운용되었던 중(重)기관총은 기병 공격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었다. 또한 타찬카는 아군 퇴각시 이를 엄호하는 역할을 맡기도 하면서 적군 기병의 기마전투와 하마전투 모두 용이하게 하였고, 때때로 기병끼리 교전을 벌이는 경우에 타찬카와 기관총의 지원은 기마포병의 지원임무와 유사한 역할을 하였다.

적군은 기동성을 떨어뜨리지 않으면서 기병의 화력을 높이는 방법을 통해 많은 전과를 올렸다. 예를 들어, 1919년 초 백군에 의해 교착상태에 있던 남부전선에서 당시 제10군 지휘관이었던 예고로프는 두멘코에게 예하 기병의 화력을 높이기 위해 일종의 기관총 기동돌격대를 창설하라고 명령했다. 이 별도부대는 타찬카에 장비한 중(重)기관총 16정을 장비하고 있었고, 나중에 이 부대에 2개

72) 1 베르스타(versta)는 약 1.07km이다.

73) Kelchevskii, *Dumenko i Budennyi*, pp.10~12.

보병대대가 합류하면서 부대원은 1,600명에 달하였다.⁷⁴⁾ 타찬카와 기관총 기동돌격대 등을 통해, 기병의 원초적인 약점이었던 화력의 부족을 보병 수준의 화력으로 상승시키고 이를 기병의 장점인 기동력과 결합하여 기마-하마전투를 펼칠 수 있었다. 또 다른 사례로 크림 반도를 놓고 1920년 11월 11일 우크라이나의 카르포바 발카(Karpova Balka)에서 치러진 전투를 들 수 있다. 1920년에 편성된 제2기병군(*Vtoraia konnaia armiia*)⁷⁵⁾은 기관총을 탑재한 250대 이상의 타찬카를 동원하여 I.G. 바르보비치(Ivan Gavrilovich Barbovich)가 지휘하는 백군 기병을 공격하였다. 기마전투와 돌격에 치중하던 백군 기병은 적군의 화력으로 인해 엄청난 사상자를 내면서 후퇴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우크라이나 본토와 크림 반도를 잇는 페레코프 지협에 대한 백군의 공격은 무위로 끝났다.⁷⁶⁾

나. 보병과의 공조

적군의 각 기병사단들은 일반적으로 기관총을 장비한 타찬카를 50-75대를 보유하고 있었고, 또한 각각 기관총 18대를 보유한 1,000-1,500명으로 구성된 보병대대를 보유하고 있었다.⁷⁷⁾ 어쩌면 기병부대 내에 보병이 배치되었다는 사실이 논리적 모순으로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강력한 보병의 존재는 기병의 기동을 위한

74) Ivan P. Tolmachev, *V stepiakh donskikh* (Moscow: 1959), p.26.

75) 제2기병군은 1920년 6월 16일에 창설되었다. 남서부전선의 명령에 의해 창설된 제2기병군의 창설 당시 병력은 기병 4,775명, 보병 639명, 기관총 308정, 야포 55문, 장갑차량 639대이었다. 지휘관은 제1기병군 제4기병사단의 지휘관이었던 O.I. 코로도비코프(Oka Ivanovich Gorodovikov)였다. RGVA, f. 246, op.3, d. 158, ll. 15, 18, 19, 24.

76) Soshnikov, *Sovetskaia kavaleriia*, pp.23-24.

77) Kosogov, "Taktika krupnykh konnykh mass," p.166.

필수 불가결한 요소였다. 기병부대에 배치된 보병부대는 종종 기동을 수행하는 기병이 보다 효율적으로 망치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을 한 자리에 고정시켜 놓는 역할, 즉 모루의 역할을 맡고 있었다. 가령 적이 기병의 기동을 저지한다면, 보병부대가 적을 한 지점에 고착시키는 동시에 기병은 적을 우회하여 기동을 계속 지속하는 식이었다. 문제는 보병과의 공조가 기병의 기동력을 손상하지 않은 조건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였던 방법이 타찬카를 보병의 이동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었다. 예를 들어, 한때 적군으로 내전에 참전하였던 N.I. 마흐노(Nestor Ivanovich Makhno)의 보병 분견대는 수일 동안 쉬지 않고 하루에 100km를 기병부대와 함께 이동할 수 있었다. 이러한 기동력을 이용하여, 마흐노는 1919년 9월 키예프 인근에서 수행한 작전에서 11일 만에 약 600km를 이동하여 백군 후위를 공격할 수 있었다.⁷⁸⁾ 결국 타찬카를 보병의 이동수단으로 사용한 것은 기병과 속도를 맞추고 적시에 기병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었다. 보병과의 협동을 통해, 기병의 기동이 촉진되고 기동의 모멘텀이 유지되었다. 이를 위해 보통 각각의 보병대대는 약 200여 대의 타찬카를 보유하고 있었다.⁷⁹⁾ 타찬카에 탑승한 보병의 경우 일반적으로 하루에 60~100km를 이동할 수 있을 정도로 기동성이 높았다.

한때 제10군 사령관이었으며 1919년 10월부터 남부전선 사령관으로 근무하고 있던 예고로프는 ‘마몬토프 습격’ 이후 대규모 기병을 이용한 작전에 관해 예하 기병 지휘관들에게 다음과 같이 지시하였다. “나는 충격집단(*udarnaia grupa*) 지휘관들에게 다음과 같이 분명히 명령한다.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적의 전선을 돌파하려

78) Anton Ivanovich Denikin, *Ocherki russkoi smuty*(Paris: 1921~1926), vol. 5, pp.162~163.

79) Kosogov, “Taktika krupnykh konnykh mass,” p.166.

하지 말고, 병력을 집중하여 적 주력의 양익을 공격하라. 모든 성공은 오직 대규모 습격과 기동에 의해서만 일궈낼 수 있음을 명심하라. 특히 대규모 기병대를 적의 양익에 집중시키는 동시에 반드시 보병과의 공조를 통해 적 기병의 측면과 후위를 공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⁸⁰⁾ 적군 기병이 보병과의 공조 속에서 화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전술을 펼치게 되면서, 내전 초반 적군에 대해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었던 백군 기병의 전투력은 약화되기 시작하였다. 러시아 내전의 양상이 기병간의 전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음을 염두에 둔다면 이는 곧 백군 전체의 전투력 약화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다. 전략적 목표에 대한 대규모 기병 운용

적군 기병의 또 다른 중요한 기병 운용 방식은, 기병을 대규모로 조직하여 전술 임무뿐만 아니라 전략적인 목표를 타격할 수 있는 전략기병(*strategicheskaia kavaleriia*)으로 활용하는 방식이었다. 전략기병에 의한 대규모 습격은 철도 등의 교통 요지나 보급창과 같은 전략적 요충지를 목표로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본대의 상급 작전과의 공조를 통해 이루어졌기 때문에 자연히 작전 기동적 성격을 띠게 되었다. 적군은 별동 기병여단, 기병사단, 기병군단, 기병군 등 다양한 규모의 전략 기병대를 보유하고 있었다.⁸¹⁾ 특히 제1기병군과 같은 군(*armia*) 규모의 기병대는 적군

80) RGVA, f. 6, op.4, d. 116, l. 122.

81) 1921년 당시 적군의 전략기병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별동 기병여단 (전투시 평균 1,000-2,700명으로 구성)-2,603명의 병력, 2,839필의 군마, 2개 기병연대와 야포 4문으로 구성된 1개 포병대 혹은 8문 이상의 야포로 구성된 1개 포병대대; 2) 기병 사단 (전투시 3,000-8,000명으로 구성)-3개의 기병여단 (각각 4개의 대대로 구성된 총 6개 연대), 9,499명의 병력과 1만 210필의 군마, 3개 대대로 구성된 기마 기관총연대, 60대의 타잔카, 소규모 장갑차부대, 통신

기병의 전략 기동에서 중요한 자원이었다.

‘마몬토프 습격’에 대응하기 위해 적군 지휘부는 1919년 11월 초 라트비아 보병사단⁸²⁾과 V.K. 프리마코프(Vitalii Markovich Primakov)가 지휘하는 1개 기병사단⁸³⁾으로 구성된 별동 기동 부대를 남부전선에 파견하였다. 11월 2일 라트비아 보병 사단이

대대, 공병대대; 3) 기병군단-2개의 기병사단, 소규모 항공부대, 장갑열차, 자전 거 중대, 소규모 전차부대, 1개 기술(통신과 공병을 포함한) 대대; 4) 기병군-3개에서 6개의 기병사단으로 구성(중중 2개에서 3개의 보병사단이 포함됨), 소규모 항공부대(일반적으로 6대의 정찰기로 구성), 장갑열차, 자전거 중대, 소규모 전차부대, 통신대대, 공병대대, 2개 장갑차소대. A. Pevnev, *Voiskovaia konnitsa i ee boevoe ispol'zovanie* (Moscow: 1926), pp.5-7. 1920년 폴란드로 진군하기 직전 제1기병군이 1만6000명의 기병을 보유하고 있기는 했지만, 남부전선에서 데니킨 장군의 백군과 전투를 벌였던 내전 대부분 기간 동안, 제1기병군의 기병 보유 규모는 대략 7,000명에서 1만 명 정도였다. G.D. 가이가 지휘하던 제3기병군단과 고로도비코프의 제2기병군의 기병 보유 규모는 약 3,000-4,000명 정도였다. Khromov, *Grazhdanskaia voina*, p.241.

- 82) 이 부대는 제1차세계대전 중이었던 1915년 독일군에 맞서 발트해 연안지역을 방어하기 위해 러시아 제국군에 의해 라트비아에서 창설된 병력들이다. 1916년에 ‘라트비아 보병사단’이라는 명칭이 부여되었다. 혁명이 발발하자, 라트비아 보병사단은 적군에 가담하여 소위 ‘붉은 라트비아 보병대(*Krasnye Latyshskie strelki*)’로 불리었다. 다음을 보라. B.A. Toman, *Latyshskie strelki i krasnogvardeitsy v perbyim god Sovetskoï vlasti* (Moscow: 1975); idem, “Pervoe pochetnoe revoliutsionnoe Krasnoe znamia VTsIK,” *Voenno-istoricheskii zhurnal*, vol. 22 (1965), pp.112-115; Stanley W. Page & Andrew Ezergailis, “The Lenin-Latvian Axis in the November Seizure of Power,” *Canadian Slavonic Papers*, vol. 19 (March 1977), pp.32-49.

- 83) 흔히 ‘붉은 코사크(*Chervonnoe kazachestvo*)’로 불렸던 프리마코프 예하 기병사단은 애초 우크라이나 지역의 파르티잔 부대들의 통합으로 창설된 부대이다. 1919년 5월 이후 전황이 위급해지자, 남부전선으로 이동하여 작전 중이었다. RGVA, f. 33988, op.2, d. 145, l. 198. 1919년 12월 4일 공화국 혁명군사위원회 명령 제2062/442호로 사단은 제8 ‘붉은 코사크’ 기병사단(*8-ia kavaleriiskaia Chervonnogo kazachestva*)이라는 명칭을 부여받았다. RGVA, f. 14, op.1, d. 4, ll. 18-19; V.A. Antonov-Ovseenko, *Zapiski o grazhdanskoi voine*, 4 vols. (Moscow: 1924-1933), vol. 2, p.95. 제8기병사단은 1920년 12월 13일 공화국 혁명군사위원회 명령 제2797/559호로 제17기병사단과 통합되어 제1 키예프 기병군단(*1-i Kievskii konnyi korps*)으로 재편된다. A. Martynova ed., *Chervonoe kazachestvo: Sbornik materialov po istorii Chervonnogo kazachestva* (Khar'kov: 1923-1924), pp.114-116.

백군의 방어선을 돌파하자, 프리마코프의 기병사단이 그 돌파지점으로 신속하게 진입해 나흘 동안 백군을 몰아붙였다. 작전의 최초 47시간동안 프리마코프의 기병사단이 이동한 거리는 약 125km에 달했다.⁸⁴⁾ 4일 뒤인, 1919년 11월 6일 프리마코프는 쿠르스크 지역의 파테즈(Fatezh)에 주둔하고 있던 데니킨 군대의 후위를 공격하였고, 이 작전의 결과 백군은 최소 120km 이상 후퇴하였다.⁸⁵⁾ 1919년 11월 14일에 프리마코프는 데니킨의 백군 주요 보급기지와 철도가 위치하였던 전략적 요충지인 우크라이나의 리보프(L'vov)를 습격하여 15일 이를 탈환하고 장갑열차 5대를 노획했다.⁸⁶⁾ 리보프 습격으로 백군의 방어선은 150km 이상 뒤로 밀려났다.⁸⁷⁾

프리마코프는 위의 대규모 기병습격에 대해 내전 이후 다음과 같이 술회하였다. “내전에서 적군과 백군의 후방 모두 매우 취약하였다. ... 이러한 상황에서 기병은 쉽게 적진 후위를 파고들 수 있었다. 적 후방에 대한 지속적인 교란활동뿐만 아니라 적 후방에 대한 대규모 습격이 발생하곤 하였다.”⁸⁸⁾ 프리마코프는 보병과의 공조를 통한 대규모 기병습격을 보다 구체적으로 묘사하였다. “전투 첫째 날에 보병이 적의 제1선을 돌파해 적 중심을 파고들면, 이 돌파를 통해 기병은 제1선에 밀집해있던 적 병력의 방해를 받지 않고 기동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그 후에 기병은 적의 통신망과 보급기지와 후방을 맹공격할 수 있었고 결국에는 퇴각하는 적과 교전을 벌였다. 환언하면, 기병습격이란 전투를 연속적으로 수행하는

84) Al'bert P. Nenarokov, *Vernost' dolgu: O Marshale Sovetskogo Soiuza A.I. Egorove* (Moscow: 1973), p.85.

85) G. Vasilev, “Reidy krasnykh kazakov,” *Voennyi Vestnik*, no. 2 (1968), pp.55~56.

86) Al'bert P. Nenarokov, *Vernost' dolgu: O Marshale Sovetskogo Soiuza A.I. Egorove* (Moscow: 1973), p.87.

87) Martynova ed., *Chervonoe kazachestvo*, pp.72~79.

88) *Sbornik trudov Voennno-nauchnogo obshchestva pri Voennoi Akademii*, vol. 2 (1922), p.4.

것을 의미하였다.”⁸⁹⁾

전략기병은 적 중심에 대한 타격을 통해 적의 지휘와 통제를 교란하고 적의 사기를 꺾어놓는 돌격대의 역할을 수행하곤 하였다.⁹⁰⁾ 이러한 전략기병의 대표적인 예가 부돈니의 제1기병군이였다. 제1기병군은 적 정면에 대한 공격을 회피하고 양익으로 또는 빈틈을 통해 적의 측면으로 이동하였다. 일단 적 측면이 노출되거나 와해되고 나면, 이에 대응할 예비 병력이 없는 적은 자연스럽게 진영 전체의 노출을 피할 수 없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전투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이 때 기병은 적의 통신선이나 교통요지를 공격함으로써 신속하게 초기의 승기를 이어가고 적의 저항을 분쇄할 수 있었다.

이러한 작전들 중 가장 의미 있는 작전은 폴란드군에 맞서 1920년 6월과 7월 사이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진 일련의 전투들이었다. 당시 캅카스 전선에서 남서부전선으로 배치된 제1기병군은 이 두 달 동안 키예프를 탈환하고 폴란드군을 우크라이나에서 몰아내기 위한 작전을 펼치고 있었다. 작전 개시 당시, 제1기병군은 기병 1만 8,000명, 대포 52문, 기관총 350정, 장갑열차 5대, 1개 장갑차량 분견대, 항공기 8대를 보유하고 있었다. 폴란드 제3군은 넓은 전선에 전 병력을 얹게 배치해놓았다. 즉, 폴란드군은 예비부대가 필요할 수 있는 기동전의 가능성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있었다. 적군 기병은 이런 식으로 배치된 폴란드 제3군을 손쉽게 제압하였다. 제1기병군은 6월 첫째 주 폴란드군 방어선을 돌파한 뒤 베르디치우(Berdychiv)에 대한 기병습격을 개시하였다. 이 작전에서 제1기병군은 적군 제12군과의 공조를 통해 폴란드군을 포위하고자

89) Ibid., pp.5-6.

90) Jacob W. Kipp, “Soviet Military Doctrine and the Origins of Operational Art 1917-1936,” *Soviet Military doctrine from Lenin to Gorbachev 1915-1991* (Westport: 1992), pp.104~105.

하였다.⁹¹⁾ 다음 한 달 동안 제1기병군은 리우네(Rivne) 인근에서 격전을 벌였고 7월 4일에 우회 기동작전으로 리우네를 점령하였다.⁹²⁾ 본대로부터 별다른 보급 없이 약 43일 동안 진행된 이 작전은 보병과의 제병협동작전 속에서 적군이 어떻게 대규모 기병 운용으로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였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이다.

1920년 백군을 격퇴하기 위한 마지막 작전에서, 당시 남부전선 사령관 M.V. 프룬제(Mikhail Vasil'evich Frunze) 또한 적군 기병을 전략기병으로 운용하였다. 프룬제는 먼저 제2기병군에게 드네프르 강을 도하하는 백군 기병의 습격을 저지하라는 명령을 내린 뒤, 제1기병군에게 크림반도 북쪽에 주둔하고 있는 브랑겔 휘하의 백군에 대한 포위 기동전을 펼치라고 지시하였다. 제1기병군의 포위 기동이 무위로 돌아가자 프룬제는 남부전선 예하 제6군의 보병 병력으로 브랑겔 군 정면에 대한 또 다른 공격을 시도하는 동시에 적군 기병에게 후면에서 백군의 전열과 보급기지에 대한 습격을 명령했다. 결국 브랑겔 군대의 전선을 제6군이 돌파하자, 프룬제는 패주하는 브랑겔 군대를 추격하기 위해 재차 제2기병군을 투입하였다.⁹³⁾

폴란드군 총사령관 J.K. 피우수트스키(Jozef Klemens Pilsudski) 또한 소비에트-폴란드 전쟁 초기에는 여타 군사지휘관들과 마찬가지로 러시아 내전에서 나타난 기병운용에 회의적이었다. 적군 지휘부에서 복무하고 있던 구(舊) 제국군 장교출신들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제1차 세계대전의 전투 경험에 집착하고 있던 그에게 “유목민 방식으로 기병을 운용”하는 것은 오래된 ‘타타르의 원정’을 떠오르게

91) Iu.A. Zotov, “Boi 1-i konnoi armii v raione Rovno v iune 1920g.,” *Voina i revoliutsiia*, no.2 (1929), pp.102~103.

92) Ibid., pp.104~118.

93) M.I. Vladimirov, *M.V. Frunze: Voennaia i politicheskaia deiatel'nost'* (Moscow: 1984), pp.137~147; Vasilii V. Dushen'kin, *Vtoraia konnaia: Voennno-istoricheskii ocherk* (Moscow: 1968), pp.189~206.

하는 해프닝이었을 뿐이었다.⁹⁴⁾ 하지만 소비에트-폴란드 전쟁 이후 피우수트스키는 대규모 전략기병에 의한 기병습격의 영향력에 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최악의 상황은 기병습격의 영향력이 전선 그 자체에서보다 전선을 넘어, 즉 후방에서도 감지되고 있었다는 점이다. 몇 번이고 계속해서 심지어 전선에서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후방지역에서도 그리고 종종 상급 부대의 사령부에서도 [기병 습격의] 극심한 공포가 감지되었다. 계속해서 이 공포는 점점 더 심하게 퍼져 나갔다. [...] 이 새로운 종류의 전투수단, 즉 부돈니의 기병습격은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우리에게 유례가 없는 이상한 전투 방식이었으며 믿기 어렵고 대응할 수 없는 성격의 힘이었다.”⁹⁵⁾

4. 맺음말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더 이상 가치가 없다고 여겨졌던 기병은 러시아 내전 동안 완벽하게 부활하였다. 군마와 인원이 부족했던 적군은 비교적 신속하게 백군 기병에 맞설 적군 기병을 형성하였으며, 적군 기병은 단시간에 전술적 군사 조직(소규모 파르티잔부대나 소대 혹은 중대규모의 부대)에서 상급 조직(별동 기병연대, 여단, 사단과 군단)으로 발전하였다. 내전 이후 적군의 많은 군사이론가들이 인정하였듯이, ‘마몬토프 습격’으로 대표되는 백군의 기병 운용이 기병의 중요성을 재확인시켰으며, 적군 지도부가 이러한 경험에 큰 영향을 받았음 또한 사실이다.⁹⁶⁾ 비록 적군이 백군보다

94) Jozef Pilsudski et al., *Year 1920 and Its Climax: Battle of Warsaw during the Polish-Soviet War 1919-1920* (London: 1972), p.75.

95) Ibid., p.83, 137.

뒤늦게 기병의 중요성을 인식했을지라도, 백군이 내전 초기에 보여준 대규모 기병대를 이용한 기병습격은 이내 적군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었다. 적군은 이에 더 나아가 기동을 화력과 결합하거나 보병과의 공조 등을 통해 제병협동에 대한 의미 있는 모범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러시아 내전에서의 적군 기병운용은 기병의 ‘부활’이상을 의미하였다. 적군 기병은 러시아 내전의 특성과 현대전의 기술적 변화에 적응한 새로운 형태의 군사력이었다.

이를 통해 볼 때, 러시아 내전 이후 적군 내에서 군부 엘리트층을 형성하게 될 기병지휘관들은 적어도 도검류와 기마돌격에만 집착하던 구태의연한 ‘전술 기병적’ 사고방식을 가진 인물들이 아니었다. 이들 지휘관들에게는 보병을 포함한 여타 병과와의 공조, 화력에 기반한 하마전투, 기동력과 화력의 결합, 대규모 기병의 전략적 목표에 대한 습격, 장갑차량과 같은 새로운 기술의 수용 등에 대한 거부감이나 심리적 장벽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바로 그들이 백군과의 전투를 통해 이러한 특징들을 구현해낸 당사자들이었기 때문이다. 이는 내전 이후 적군 내에서 벌어진 장차전의 성격이나 군사교리와 관련된 논의들이, 새로운 군사기술과 장비의 도입을 놓고 ‘보수적’인 인물들과 ‘혁신적’인 인물들 간의 갈등이라는 단순한 틀보다는 보다 다층적인 측면 속에서 존재하였음을 의미한다. 향후 연구는 이러한 다층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또 다른 측면에서 볼 때, 적군 기병의 등장과 그 운용은 단지 러시아 내전 시기에 국한된 주제가 아니다. 러시아 내전의 특성과 기병 운용이라는 객관적 요소 외에도, 지휘관들의 개인적 혹은 집단적 특성이라는 주관적 요소도 향후 적군의 전략과 전략 문화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이는 내전 초기의 기병 형성이 중앙의 계획에 의해서가

96) 러시아 내전 이후, ‘마몬토프 습격’이 적군 군사이론가들에게 미친 영향을 대해서는 대표적으로 다음을 보라. K. Monigetti, *Sovmestnye deistviia konnitsy i vozdušnogo flota* (Moscow: 1928), pp.92~100.

아니라 일선 지휘관들, 더 정확히 말하자면 파르티잔 지휘관들에 의해 자체적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중앙으로부터의 명령이나 여타 지원 없이 전선에서 자체적으로 인적-물적 자원을 조직하여 백군에 대항하였던 이들 파르티잔 지휘관들은 기병이 적군 내에서 공식적인 병과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내전 당시의 전공으로 내전 이후 군사교리와 군사조직에 큰 영향을 행사하게 될 군부 엘리트로 성장하게 된다.⁹⁷⁾ 지휘관들의 출신성분과 교육배경 그리고 지휘관들 내에 존재했던 인적 네트워크에 대한 분석이, 소연방의 당-군 관계뿐만 아니라 러시아 내전 이후 그리고 독소전을 거쳐 냉전시기에 이르는 기간에 소연방 군부가 보여준 일종의 ‘전략문화’를 감지할 수 있는 하나의 실마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제안해 본다.

[원고투고일: 2015.10.10, 심사수정일: 2016.2.10, 게재확정일: 2016.2.19.]

주제어 : 러시아 내전, 적군, 백군, 적군 기병, 전략 기병, 제1기병군,
마몬토프 습격, 기동, 제병협동부대 전술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97) 러시아 내전부터 1930년대 말까지 약 300명의 적군 기병 지휘관들의 전기와 경력을 모은 필자의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러시아 내전 기간에 연대급 이상의 기병대를 지휘했던 인물들의 경우 1960년대 중후반, 내전 이후인 1920~1930년대에 연대급 이상의 기병대를 지휘했던 인물들의 경우 최소 1970년대 중후반까지 군부에 남아 복무하고 있었다.

<ABSTRACT>

The Red Cavalry and Its Employment in the period of the Russian Civil Wa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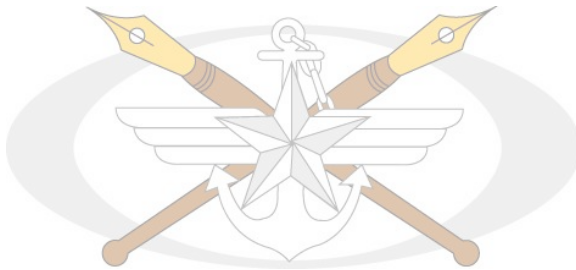
Lee, Jeong-ha

This article focuses on the course of creating massive strategic cavalry in the Red Army and on its employment during the Russian Civil War. The inept use of cavalry in the First World War and the development of military technology led to an underestimation of cavalry's military role in the European armies. Contrary to this perception, it was the Russian Civil War in which both the Red and the White Armies' cavalries played a leading role because of two primary features: immensity of its battlefield and combatants'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degradation. Long and shallow defense line, an important characters of the Civil War, stemmed from these two factors. Inevitably, the Red Cavalry was the result of those distinctive military circumstances.

The formation of the Red Cavalry went against the prevailing theory in other European armies. At the early period of the Civil War, the Bolsheviks also had a negative attitude toward cavalry, and the Red Cavalry could not get institutional and material aids from Moscow. Therefore, the beginning of the Red Cavalry was based on several partisan units organized autonomously in the fronts. Since the White Army took initiative of the Civil War by using maneuver and mobility of its cavalry, however, the Red Army had made every effort to raise the Red Cavalry and its massive strategic cavalry. The fighting methods of the Red Cavalry in the Civil War could be characterized by: 1) the combination of maneuver and firepower; 2) the cooperation with the other branches

(particularly with infantry); and 3) the massive strategic cavalry. Eventually, the Red Army won the Russian Civil War by employing the massive strategic cavalry in accordance with a new military condition.

Key Words : Russian Civil War, Red Army, White Army, Red Cavalry, Strategic Cavalry, First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미국-스페인전쟁과 미디어의 풍자 이미지에 나타난 팽창주의, 반(反)제국주의

석 화 정*



1. 머리말
2. 전함 ‘메인 호’ 폭발사건과 미디어의 호전적 애국주의
3. 개전 이후 미디어의 팽창주의 선동과 미국의 대외 정책
4. 전후(戰後) 미디어와 반(反)제국주의의 의미
5. 맺음말

1. 머리말

1898년의 미국의 대 스페인전쟁(이하 미서전쟁)의 승리는 ‘20세기를 미국의 세기’로 열게 했다. 카리브해의 푸에르토 리코, 태평양의 괌, 그리고 동아시아의 관문인 필리핀 등 중요한 새 영토가

* 공군사관학교 인문학과 역사교수

미국령이 되었다. 설탕과 담배 원료의 공급지였던 쿠바는 미국의 ‘바로 문 앞의’ 보호령이 되었다.

이 과정에서 미국의 미디어는 스페인으로부터 필리핀, 쿠바, 푸에르토 리코 등을 넘겨받아야 한다는 정치풍자화(political cartoons)를 지속적으로 게재했다. 미디어에서 반복 재생산된 풍자 이미지와 애국주의적 구호 등, 선정적인 보도의 여파는 미국 국민들에게 세계에 대한 자국의 인식에 심대한 변화를 가져왔다. 쿠바, 푸에르토 리코, 하와이, 괌, 필리핀 등과의 관계 속에서 미국의 의식을 이해해야, 오늘날 미국민의 정체성(national identity)이 어떻게 형성되고 발전했는지를 가늠할 수 있을 정도이다.¹⁾

푸에르토 리코와 괌은 현재도 미국령이며, 필리핀은 제2차 세계 대전이 끝나고 나서 미국으로부터 독립했으며, 쿠바의 관타나모항에 지금도 미국의 해군기지가 있다. 미서전쟁을 계기로 미국 역사의 지평이 확대되면서 아시아와 중남미에서 미국의 개입의 역사도 시작되었다. 그러므로 미서전쟁은 오늘날 세계 ‘경찰’로서 미국이 차지하는 위치, 전 세계 약 70개국에 산재해 있는 미군기지과 이를 위한 해외 영토 점거 문제, 범미주의(Pan-Americanism)의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패권 문제 등의 광범한 논의가 제기된 첫 계기였다.

신속하고도 별다른 희생 없이 이루어져 당시 존 헤이(John Hay) 국무장관이 “영광스런 작은 전쟁(A Splendid Little War)”이라고 불렀지만, 미국의 쿠바-스페인 전쟁 개입과 그 결과는 결코 작은 것이 아니었다. 미서전쟁을 계기로 미국의 전쟁 개입을 대단히 고귀하고 인본주의적인 것으로 묘사하는 신화가 미국역사에

1) Paul T. McCartney, *Power and Progress: American National Identity, the War of 1898, and the Rise of American Imperialism*(Baton Rouge, 2006), p.2; Louis A. Jr. Perez, *Cuba in the American Imagination: Metaphor and the Imperial Ethos*(The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2008), p.10.

구축되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 과정에서 미디어와 정부의 대외정책 결정은 어떤 상호 영향을 주고받은 것일까.

호전적인 특정 미디어가 당시 맥킨리행정부로 하여금 스페인과의 전단을 여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일반론²⁾은 주로 두 황색언론(Yellow Journalism)에 초점을 맞춘 결과였다. 미서전쟁기에 처음 등장한 ‘황색 언론’이란 용어는 허스트(William Randolph Hearst)의 〈뉴욕 저널(New York Journal)〉과 풀리처(Joseph Pulitzer)의 〈뉴욕 월드(The New York World)〉지가 나란히 황색 옷을 입은 모습으로 개전의 압력을 가했던 풍자 이미지에서 나온 것이다.³⁾ 그러나 이와는 정반대의 견해도 있다. 토마스 G. 패터슨(Thomas G. Paterson)은 ‘애국주의적인 황색언론과 여론이 미 행정부로 하여금 전쟁을 전개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본 문헌적 연구는 없다’⁴⁾며 미디어와 정부의 개전 결정의 상관관계에 대한 일반론에 선을 그었다. 1898년도에 미국 전역에서 발행된 미디어만도 2,200개의 일간지, 13,000개의 주간지, 600개의 주 2회 간행신문에 달한다.⁵⁾ 당시에 여론조사가 있었던 것도 아니므로 미서전쟁과 미디어의 역할에 대해서는 여전히 더 많은 검토와 연구 결과가 필요하다는 신중론인 셈이다.

미서전쟁 100년을 경과하며 최근에는 미디어의 풍자 이미지를

2) Bonnie M. Miller, *From Liberation to Conquest: The Visual and Popular Cultures of the Spanish-American War of 1898*(University of Massachusetts Press, 2011), pp.10-11. 주 13의 문헌 참조.

3) Stephen Hess, Sandy Northrop, *American Political Cartoons- the Evolution of a National Identity, 1754-2010*(Transaction Publishers, New Brunswick (USA) and London(UK), 2011), p.72).

4) Thomas G. Paterson, U.S. Intervention in Cuba, 1898: Interpreting the Spanish-American-Cuban-Filipino War, *OAH Magazine of History*(Spring, 1998), pp.7~8.

5) Richard F. Hamilton, *President McKinley, War and Empire*, vol.I(New Brunswick: Transaction Publishing, 2006), pp.241~42; Miller, p.11.

통해 미서전쟁과 미디어의 역할을 구명하는 연구들이 미국에서 나오기 시작했다. 미 제국의 탄생이라는 측면에서 풍자 이미지를 소개한 루 마르티네즈-페르난데즈(Luis Martinez-Fernandez)의 교안(Lesson Plan)⁶⁾, 쿠바문제를 중심으로 정치풍자화를 다룬 루이 A. 페레즈(Louis A. Jr. Perez)의 연구,⁷⁾ 1898년 미서전쟁의 풍자 문화를 본격적으로 다룬 보니 M. 밀러(Bonnie M. Miller)의 연구⁸⁾가 그것이다.

이 논문은 기본적으로 미서전쟁기의 황색언론이 정부의 정책 결정을 유도하는 여론을 형성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기존의 추정을 재확인하면서도, 한 걸음 더 나아가, 대표적인 두 개의 황색언론 외에도 몇몇 특정 미디어가 정부의 정책 형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새롭게 제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이 논문은 미 의회도서관(Library of Congress)에 디지털 형태로 등재된 1898년도 신문 약 1,900종을 검색하였다. 이를 통해 기존의 연구에서 황색언론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아 온 미디어의 헤드라인(머릿글), 중간 머릿글과 기사, 그리고 선별한 풍자 이미지 약 1,000편을 중심으로 미디어가 미서전쟁의 전개과정에 미친 영향과 그 의미를 재구성함으로써 문헌 중심의 미서전쟁 연구의 공백을 메워보고자 한다.

14편의 풍자 이미지를 중심으로 논지를 전개하고, 인용 각주에서 헤드라인과 풍자 이미지에 달린 캡션의 내용이 들어간 신문과 잡지의 발행일을 제시하여 다양한 미디어의 경향성을 분류해보았다. 제2장에서는 미디어가 미서전쟁의 전개과정과 전후(戰後) 여론 형성에

6) Luis Martinez-Fernandez, The Birth of the American Empire as Seen Through Political Cartoons(1896-1905), *OAH Magazine of History*(Spring 1998), pp.48~57

7) Perez, 앞의 책.

8) Miller, 앞의 책.

어떤 역할을 담당했는지를 살펴보고, 제3장에서는 전후(戰後)에 형성된 반제국주의 논의와 미디어 이미지가 어떤 관련이 있었는지, 1898년 11월 말에 결성된 미국 반제국주의자 연맹(American Anti-Imperialist League)의 의미와 영향력이 미디어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분석해볼 것이다. 미디어의 정치 풍자화의 보도 경향의 변화를 추적함으로써 전후(戰後)에 등장한 전쟁 책임론과 반제국주의 논의에 대한 재평가의 필요성을 제기해보고자 한다. 이 글을 통해 미디어의 풍자 이미지, 캡션, 헤드라인을 포함한 텍스트와 정부의 외교정책 결정의 상관관계, 미서전쟁의 성격, 그리고 전후 전쟁 책임론의 의미가 보다 구체적으로 드러나기를 기대한다.

2. 전함 ‘메인 호’ 폭발사건과 미디어의 호전적 애국주의

1898년의 신문과 잡지 등 미디어의 풍자 이미지에 투영된 미서전쟁은 1500년 이래 이루어진 쿠바에서의 스페인제국의 통치를 종식시킨 전쟁이자,⁹⁾ 대서양과 멕시코만, 카리브해의 제해권을 확보함으로써 세계 곳곳에 성조기를 꽂게 만든 제국주의 팽창전쟁이었으며,¹⁰⁾ 미국의 남부와 북부가 ‘하나의 조국, 하나의 깃발’ 아래 싸운 최초의 애국주의 전쟁이었다.¹¹⁾ 이 과정에서 미디어는 지속적으로 1면에 풍자 이미지와 풍자 이미지를 설명하는 캡션, 그리고 초대형 머릿글을 지면 가득히 동원하여 정부에 압력을 넣었던 것으로

9) The Saint Paul Globe., 1898.12.4/14; The Herald(LA), 1898.5.4.

10) The Herald(LA), 1898.1.23.

11) The St. Paul Globe, 1898.5.29; The Hawaiian Gazette, 1898.6.24; The Kansas City Journal, 1898.8.29; Semi-Weekly Interior Journal, 1898.12.30; Louis A. Jr. Perez, *Cuba in the American Imagination: Metaphor and the Imperial Ethos*(The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2008), p.11.

드러났다.¹²⁾

식민지 팽창에 대한 압력은 사실상 1890년대 이래 ‘쿠바는 미국의 식민지가 되어야 하며, 스페인으로부터 매입하지 못한다면, 무력으로라도 차지해야 한다’는 마한(Alfred Thayer Mahan), 롯지(Henry Cabot Lodge), 비버리지(Albert Beveridge) 상원의원 등 미 팽창주의자들의 주장이었다.¹³⁾ 스페인으로부터 쿠바를 사들 이려는 미국 정부와 전미은행 신디케이트(American Bank Syndicate)의 구체적인 매입 협상도 여러 차례 진행되었다. 그렇지만 미디어 이미지에 따르면, 적어도 1898년 1월 말까지 ‘맥킨리(William McKinley) 대통령과 월 스트리트(Wall Street) 금융가는 스페인에 대해 그리 적대적이거나 강경한 입장이 아니었다.’¹⁴⁾

그러나 2월 들어 미국이 쿠바의 대 스페인 독립전쟁을 지속적으로 예의주시하고 있을 뿐 아니라 개입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었음이 미디어 이미지에서 두드러지기 시작했다. 맥킨리 대통령을 ‘부패하고 나약할 뿐만 아니라 저급한 정치가’로 묘사한 주미 스페인대사 드 롬(Dupuy de Lome)의 사신(私信)이 <뉴욕 저널>지에 헤드라인과 이미지로 폭로된 것이 그 계기였다. 미국 언론과 대중들은 크게 분개하였고, 미디어는 노골적으로 스페인 대사를 추방(SCAT!)하라는 풍자 이미지를 게재했다.¹⁵⁾ 이 사건을 계기로 미디어에서는 쿠바-스페인문제의 개입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수면 위로 부상했다. 가령, ‘만일 쿠바에서의 반란으로 미국의 이해가 손상된다

12) Marietta Daily Leader(New York Herald), 1898.5.15; The Herald(LA), 1898.8.10/12.9; Dakota Farmers' Leader, 1898.8.26; Puck, 1898.5.25; Evening Star.(Washington), 1898.7.9/12.26.

13) Miguel A.Fernandez, *The Spanish Navy and the Spanish-American War, Theodore Roosevelt, The U.S.Navy, and the Spanish-American War*, Edited by Edward J.Marolda(Palgrave, 2001), p.20.

14) The Houston Daily Post., 1898.1.27.

15) The Times, 1898.2.11; Evening Star., 1898.2.12; The Houston Daily Post., 1898.2.15.

면.....누군가가 성조기를 내리려고 시도한다면!’이라는 캡션과 함께 미국의 대표 이미지인 잉클 샘(Uncle Sam)이 쿠바 쪽을 망원경으로 유심히 ‘예의주시하는(WATCHING!)’모습,¹⁶⁾ 또는 스페인의 잔혹한 악정을 알리고,¹⁷⁾ 가녀린 쿠바 소녀의 구원 요청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이미지 등¹⁸⁾이 그것이다.

쿠바 내 미국인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파견된 6천 톤 급의 순양함 ‘메인 호’가 1898년 2월 15일 오후 9시 40분경에 쿠바의 아바나항에서 폭발된 것은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였다. 스페인대사를 사임시키라는 여론의 압력이 가중된 지 6일 만에 ‘메인 호’ 폭발사건이 일어난 것이다. 미국 언론들은 일제히 스페인정부를 맹비난했고, 스페인의 악정에 대한 대중의 분노는 각 신문의 헤드라인과 이미지에 곧바로 투영되었다.

‘메인 호’ 사건이 일어난 다음 날인 2월 16일, 워싱턴 <이브닝 타임즈 The Evening Times>지는 ‘메인 호’의 우호적인 방문(Friendly Call)의 결과라는 캡션과, 채 발사되지 않은 여러 대의 기뢰(torpedo) 옆에 폭발된 ‘메인 호’의 이미지를 게재했다.¹⁹⁾ 누가 보아도 스페인의 기뢰로 말미암아 전함이 폭발되었음을 알리는 이미지였다. 2월 17일자 <뉴욕 저널>과 <뉴욕 월드>지는 초강경의 헤드라인과 이미지를 지면 전체에 가득 메웠다. <뉴욕 저널>지는 전함 ‘메인 호’의 폭발을 적국 스페인의 소행이라 단정 짓고 폭발범색출에 5만 불의 현상금을 거는 등 적개심을 고조시켰다. ‘전함 메인 호를 파괴한 것은 적의 소행이었다’, ‘루즈벨트 해군차관은 전함의 폭발이 우연한 사건이 아님을 확신한다’는 대형 헤드라인, ‘해군 장교들은 메인 호가 스페인의 기뢰에 의해 파괴되었다고 생각한다’

16) The Houston Daily Post., 1898.1.30.

17) New York Journal, 1898.2.4.

18) The Times, 1898.2.14.

19) The Evening Times, 1898.2.16.

는 이미지와 캡션 등이 그것이다. 〈뉴욕 월드〉지도 ‘메인호의 폭발은 기뢰나 폭탄에 의해 일어났다’는 헤드라인과 불타는 전함의 이미지를 1면 전면에 걸쳐 게재했다.²⁰⁾

이처럼 황색언론의 대표 주자인 〈뉴욕 저널〉지와 〈뉴욕 월드〉지가 대형사진, 대형 이미지, 대형 헤드라인을 8면 이상의 지면에 할애하며 호전적 애국주의를 부추겼다. 〈샌프란시스코 콜(The San Francisco Call)〉지도 ‘개전 논의가 점점 확산되고 있다’, ‘전운이 미국에 감돌고 있다’는 헤드라인과 이미지를 게재했다.²¹⁾ 미서 공동조사위원회가 아바나항에 도착(2.21)한 뒤, 증인과 생존자들의 증언, 선박을 탐사했던 잠수부들의 증언이 보도되기 시작했지만, 미국 언론은 ‘메인 호 폭발이 단순한 사고였다’는 스페인 조사위원회측의 결론을 신뢰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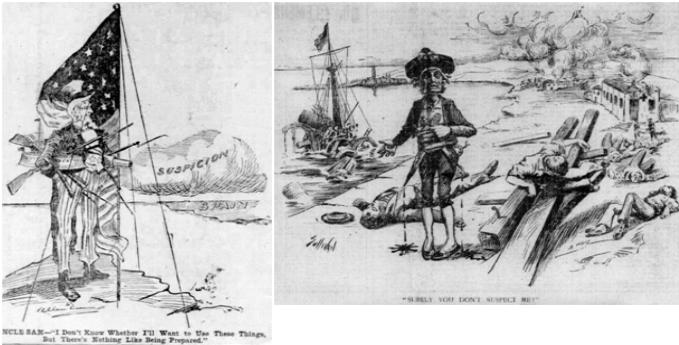
유타주의 〈솔트레이크 헤럴드 The Salt Lake Herald〉지 2월 23일자는 미국이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는 헤드라인과, 스페인정부에 잔뜩 의혹(suspicion)의 눈길을 보내는 이미지를 게재하였다. 그리고 이미지에는 성조기 옆에서 양 팔 가득 무기를 든 잉클 샘이 ‘이 무기들을 내가 사용하게 될지는 알 수 없지만, 준비하는 것이 상책이지’라고 혼잣말을 하는 캡션을 달았다(그림 1).²²⁾ 같은 날, 워싱턴 ‘타임즈(The Times)’지도, ‘설마 나를 의심하지는 않겠지요(Surely you don't suspect me)?’라며 억울해 하는 스페인인의 양 허리춤의 칼에서 피가 뚝뚝 흘러 떨어지는 이미지를 게재했다(그림 2).²³⁾ ‘메인 호’의 폭발이 스페인 정부의 소행이 틀림없다는

20) 스페인이 미 전함 메인 호를 폭파시켰다는 황색언론의 경쟁적인 선동과 허위 보도는 사실 근거가 없는 과장된 왜곡 보도였다. 1976년 미 해군제독의 보고서, 1999년 내셔널 지오그래픽, 2002년 히스토리 채널(History Channel) 등의 최종 보고서는 ‘메인 호’가 전함 내부의 보일러 기관에서 폭발한 것으로 결론지었다.

21) The San Francisco Call, 1898.2.20/22/23.

22) The Salt Lake Herald, 1898.2.23.

여론몰이가 본격화된 것이다.



〈그림 1〉 The Salt Lake Herald, 1898.2.23. 〈그림 2〉 The Times, 1898.2.23.

특히 〈샌프란시스코 콜〉지와 워싱턴 〈타임즈〉지는 가장 지속적으로 정부의 쿠바문제에의 개입을 주도했다. ‘미국은 스페인과의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 ‘미국은 준비되어 있다(America is Ready),’ ‘음모에는 무력으로 대처해야’ ‘스페인의 음모가 메인 호를 폭발시켰다,’ ‘24시간 이내에 전쟁을 선포할 수도...’ ‘스페인이 전쟁을 선포할 지도 모른다’는 등의 머릿기사와 이미지 등이 그 것이다.²³⁾

이에 비해, 다소 신중한 논조를 유지하면서도 점차 개전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미디어들도 있다. 텍사스주의 〈휴스턴 데일리 포스트 The Houston Daily Post〉지는 단순 폭발 사고였다는 스페인의 최종보고서를 받아들이고 여론의 압력 사이에서 고민하는 이미지²⁵⁾에 이어, 3월 8일자에서는 전보다 더 호전적인 이미지를 게재했다. ‘국방비로 5억 달러가 들 것’이라는 헤드라인과 함께

23) The Times, 1898.2.23.

24) The San Francisco Call, 1898.2.25/27/28/3.1/6; The Times, 1898.2.27; The Seattle Post-Intelligencer, 1898.3.6.

25) The Houston Daily Post, 1898.2.25.

전쟁이 임박했으며, 스페인은 그 폭발음을 듣게 될지 모른다’는 설명이 달린 이미지가 그것이다.

그런가 하면, 〈캔자스 시티 저널 The Kansas City Journal〉지는 처음에는 개입에 반대했다가 점점 호전적인 이미지와 헤드라인을 게재하는 것으로 그 경향성이 바뀐 대표적 미디어였다. 신중에서 개입으로 어떻게 그 논조가 바뀌어 갔는지 따라가보자. 동 신문은 2월 26일에 ‘주전론자들(Jingoes)의 선동이 매우 소란스럽다’며 호전적 언론을 경계하는 〈뉴욕 프레스 New York Press〉지의 이미지를 전재했다.²⁶⁾ 2월 27일자 일요판(The Kansas City Sunday Journal)에서는 잉클 샘이 ‘냉철함을 유지하고(Keep your head cool)’, ‘상식(Common Sense)’에 입각해서 ‘판단(Judgement)’해야 한다는 〈뉴욕 헤럴드〉의 다소 신중한 이미지를 전재했다. 호전적 애국주의의 열기 속에서 ‘상식’이라는 미국 독립혁명의 이상주의 모토가 어떻게 함께 작동했는지를 잘 보여준다. 2월 28일자에서는 ‘스페인이 메인 호를 폭파시키지 않았을지도 모르지만, 내 등 뒤에서 앞으로 그런 짓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해’라고 혼잣말을 하는 잉클 샘의 이미지를 게재하고, 3월 1일자에서는 개입을 주저하는 맥킨리 대통령의 모습을 풍자하기도 했다. 그렇지만, 3월 16일자에서는 맹견 두 마리(미 육군과 해군을 상징하는)를 앞세운 잉클 샘의 자신만만한 모습의 〈뉴욕 헤럴드〉지의 이미지를 전재했다. 〈캔자스 시티 저널〉지의 신중한 논조가 불과 3주도 안 되는 사이에 전쟁 개입을 지지하는 논조로 바뀐 것이다.

개전에 이르는 약 두 달여 동안 미국 언론의 개입과 선동은 더욱 노골적이었다. 3월에 들어서며 미디어는 266명의 미 해군이 사망한 ‘메인 호 사건’에 대해 즉각적인 개입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샌프란시스코 콜〉지는 ‘수백만 달러가 국방비로 들 것’ ‘대통령과

26) The Kansas City Journal(New York Press에서 전재), 1898.2.26.

의회가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는 도발적인 헤드라인을 게재했다(3.8). 심지어 〈시애틀 포스트-인텔리전서 The Seattle Post-Intelligencer〉지는 ‘24시간 이내로 전쟁이 선포될 수 있다’는 제목의 기사를 1면에 게재했다(3.6).

의회가 만장일치로 개전에 찬성한 3월 9일자 미디어에서는 ‘우리는 모두 미국인이며, 모두 애국자(All Are Americans All Are Patriots)’라는 지극히 선동적인 대형 헤드라인과, ‘조국의 사명이 미국의 자유민들을 불러 모을 때 정파란 있을 수 없다’²⁷⁾ 〈그림 3〉는 중간 머릿글을 게재했다. 다른 미디어에서도 일제히 ‘전쟁 개시를 지지하는 만장일치 투표’(The Salt Lake Herald), ‘준비되어 있다’, ‘단지 망설이고 있을 뿐, 준비되어 있다(The Herald(LA))’는 등 즉각적으로 전쟁을 촉구하는 내용의 헤드라인과 정치 풍자화가 신문 1면을 장식했다.

워싱턴 〈타임즈〉지 3월 11일자의 ‘전쟁이 임박했다(The coming WAR!)’는 이미지에서는, 맥킨리 대통령이 ‘자유 쿠바(Free Cuba)’, 쿠바 구입에 드는 비용(400억 달러), 그리고 미 의회가 승인한 비용인 ‘5천만 달러(Fifty-Million-Dollar Bill)’짜리의 칼을 들고 있다. 대통령이 스페인 국왕 알폰소(Alfonso)와 싸우려 하지만, 월가의 다양한 상업적 이해관계가 이를 방해하고 있다고 폭로하였다. 동 신문 3월 13일자는, 쿠바에 자유를 가져다주는데 필요한 자금이 월 가로부터는 물론 스페인-쿠바 공채 등을 통해 맥킨리 대통령에게 지원될 것이며, 어린 소녀 쿠바를 보호해야 한다며 대통령에 개전을 압박하는 이미지를 게재했다. 같은 날, 〈샌프란시스코 콜〉지도 스페인이 ‘메인 호’ 폭발을 자국의 책임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며, ‘전쟁의 암운이 점점 더 드리워지고 있다’는 헤드라인으로 전쟁을 기정사실화했다.

27) The San Francisco Call, 1898.3.9.



〈그림 3〉 The San Francisco Call, 1898.3.9.

〈그림 4〉 The Herald(LA), 1898.3.22.

〈그림 5〉 The Salt Lake Herald, 1898.4.6.

3월 18일에 조사위원회의 최종 보고서는 ‘메인 호’ 폭발을 외부에 의한 폭발로 규정하긴 했지만, 스페인에 책임이 있음을 분명하게 적시한 것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고서가 나오자마자 미디어에서는 이미 군사적으로 개입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선동적인 이미지가 증가했다. 잉클 샘이 장총을 손질하고, 대통령에게 총을 쥐어주는 이미지 등이 여기에 속한다.²⁸⁾ ‘맥킨리 대통령은 지체하지 말고 조속히 행동을 취해야 한다’ ‘의회는 맥킨리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제목의 헤드라인뿐만 아니라, 묶여 있는 쿠바 소녀를 스페인으로부터 구해내라는 이미지²⁹⁾ 등에서 맥킨리 대통령의 선택을 재촉했다.

다소 중도적으로 반전을 내세웠던 〈휴스턴 데일리 포스트〉지도 3월 19일자에서는 당파적 이해와 국가적 이해 사이에서 고민하는

28) The Houston Daily Post, 1898.3. 15; The Times, 1898.3.29; The Evening Times, 1898.4.1.

29) The Salt Lake Herald, 1898.4.6; The San Francisco Call, 1898.3.25/30.

맥킨리 대통령에게 월가의 이해를 참고하되, 초당적 이해관계의 길을 선택하라고 압력을 넣게 된다. 동 신문은 이를 뒤인 3월 21일자에서는 대형 성조기와 함께 ‘메인 호를 기억하라’는 메시지를 담은 애국주의적 이미지를 게재했다. 그리고 3월 24일자에서는 쓰러진 쿠바 여성을 구원하는 미국 독수리의 이미지와 더불어 ‘쿠바에 대한 미국의 개입이 명확해졌다’는 타 언론의 호전적 이미지를 전재하였다.

〈필라델피아 인콰이어 Philadelphia Inquirer〉지 3월 26일자는 도움을 요청하는 쿠바 여성을 스페인의 악정으로부터 해방시켜주는 것이 잉글 샘의 개입 명분으로 충분하다(Justification Enough!)³⁰⁾는 이미지를 게재하였다. 동 신문 4월 4일자에 나타난 잉글 샘은, 비록 총칼을 발밑에 내려놓고 있지만, ‘해방시켜 달라(Let Me Loose)’고 간절하게 도움을 요청하는 쿠바 여성에게 곧장 달려갈 듯한 기세이다. 미국의 조속한 개입을 촉구한 이미지이지만, 이 장면에서 잉글 샘의 양팔은 뒤에서 누군가가 잡아끌고 있다.³¹⁾ 당시 언론에서는 이처럼 전쟁에 대비하는 미국의 모습과, 개입을 주저하는 ‘난처한 대통령(unhappy president)’의 모습을 대비시키는 이미지와 헤드라인들이 난무했다. 가령, 〈헤럴드(LA)〉지의 1면 이미지는 양분된 여론을 잘 반영하였다. ‘언제 개전하는 것이 가장 적절할까(When is the Properest Time to Fight)’를 달력과 지도를 보며 곰곰이 생각하는 지도자들과, 반대로 전제는 절대 안 된다(NEVER!)고 반대하는 정치가들을 대비시킨 것이다.〈그림 4〉.³²⁾

특히 〈샌프란시스코 콜〉지는 1898년 미서전쟁기 내내 가장 호전적인 머릿기사와 이미지를 지속적으로 게재한 미디어로 주목된다.

30) Philadelphia Inquirer, 1898.3.20.

31) Philadelphia Inquirer, 1898.4.4.

32) The Herald(LA), 1898.3.22.

‘대통령의 (선전포고를 촉구하는 대 의회)메시지가 전쟁을 촉진시킬 것이다’³³⁾는 헤드라인, ‘맥킨리 대통령은 의회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캡션, 묶여 있는 쿠바 소녀를 자유롭게 하고, 스페인의 악정은 근절되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한 손에 들고 있는 맥킨리대통령을 의원들이 억지로 등 떠밀고 있는 이미지 등이 그 단적인 예이다
 〈그림 5〉.³⁴⁾

〈필라델피아 인콰이어〉지의 3월 27일자 이미지에서는 쿠바 여성이 스페인의 쇠사슬에 묶인 채 쓰러져 있는 모습을 본 잉클 샘이 억압의 사슬의 고리를 끊어주려 하고 있다. 잉클 샘은 한 손에 ‘인간애(Humanity)’라고 쓰인 도끼를 들고 있고, 다른 한 손에는 긴 칼을 쥐고 있다. 미국적 ‘상식’에 이어 ‘인간애’라는 이상주의로 쿠바 개입을 정당화할 명분이 축적된 것이다. 〈뉴욕 저널〉 4월 3일자는 양상하게 마른 두 아이를 안고 걸리고 있는 깡마른 쿠바 여성의 절박한 모습의 이미지에 ‘이제 쿠바 구원이 가시화되고 있는가(Is Help In Sight At Last?)’라는 캡션을 달았다. 쿠바의 인권, 자유를 위해 미국이 더 이상 이상주의적인 개입을 주저해서는 안 된다는 결의를 강조한 이미지는 이외에도 셀 수 없이 많다.³⁵⁾ 미디어 이미지에서 전쟁 개입을 적극 지지하는 호전적 애국주의는 쿠바를 자유롭게 한다는 이상주의로 포장되었다. 스페인이 쿠바의 독립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반응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이상주의 명분하의 개입논의는 한층 더 확산되는 경향이 있었다.³⁶⁾ 당시

33) The San Francisco Call, 1898.4.5.

34) The Salt Lake Herald, 1898.4.6.

35) 풍자 이미지에서 제국주의 식민 국가는 남성 또는 백인 여성으로, 쿠바를 비롯한 식민 대상국을 여성, 어린이, 악동, 유색인 등으로 묘사했을 뿐만 아니라, 식민정책의 전개와 ‘힘의 정치’의 세력관계에 따라 대상국의 정형(prototype)과 풍자 이미지가 계속 바뀌었다. 이에 대해서는 줄고, 「풍자 이미지를 통한 1898년의 재구성-인종주의 너머 ‘힘의 정치’로」, 『서양사론』 제126호(2015.9) 참조.

36) The Herald(LA), 1898.4.4/8; The Houston Daily Post., 1898.4.9.

미국 정부가 스페인의 반응을 곧 최후통첩장으로 간주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여론몰이는 맥킨리 대통령에게 쿠바의 독립을 스페인에 요구하고, 나아가 1895년 이래의 쿠바인들의 제2차 독립전쟁(1차는 1868-78년)을 종식시키라는 적극적인 압력이 되었다. 대통령 선거공약(1896)으로 쿠바의 독립을 내세웠던 맥킨리는 처음에는 쿠바 병합을 ‘범죄나 다름없는 침략’³⁷⁾이라고 생각했으나, 점차 전쟁에 개입하지 않으면 민주당에 정국 주도권을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위기의식을 가지게 되었다.

맥킨리는 결국 호전적 애국주의 언론의 선동과 압력에 굴복했다. 맥킨리는 4월 11일에 쿠바-스페인전쟁에 미국의 개입을 촉구하는 ‘대통령의 메시지(President’s Message)’를 의회에 전달하였다. 의회에 요청한 맥킨리 대통령 메시지의 핵심적 내용은 사실상의 개전촉구안이었다. ‘쿠바를 스페인으로부터 자유롭게 하고, 쿠바인들에 대한 야만적인 대우를 종식시키기 위해’ 대 스페인전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었다. ‘미 해군조사위원단의 보고에 입각하여, 메인 호는 외부의 폭발, 즉 기뢰에 의한 것이라는 결론이 변하지 않을 것이다.....평온을 찾는 유일한 희망은 쿠바에 강제적으로 평화를 실현하는 길밖에 없다. 인류의 이름으로, 문명의 이름으로, 위협받고 있는 미국의 국익을 위해 쿠바의 (대 스페인)전쟁은 종식되어야 한다...미국 시민들뿐만 아니라, 쿠바시민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견고한 정부가 설립되도록, 필요하다면 미 육해군을 사용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대통령에게 위임하고 부여해 줄 것을 의회에 요청한다... 이제 관건은 의회에 있다. 이것은 엄숙한 책무이다...’

37) Iyonne Marie Garcia, *Anticipating 1898: Writings of U.S. Empire on Puerto Rico, Cuba, the Philippines, and Hawaii*, Ohio State University, Unpublished Ph.D dissertation, 2008, p.326.

대 스페인 개전이 미국의 ‘엄숙한 책무’라고 규정한 대통령의 이 선전포고안이 의회에 전달되자, <뉴욕 저널>지 4월 14일 월요일자 호외는 이미지 없이 초강경의 호전적인 대형 헤드라인만으로 1면 전체를 장식했다. ‘우리는 싸워야 한다!(We Have Got To Fight!)’ ‘전쟁을 선포해야 한다(Must Declare for War)’는 메시지 등이 그것이다.

그렇지만 다른 미디어들은 여전히 주전문자와 신중론자의 두 갈래로 갈려 개입 압력과 신중한 보도 사이를 오갔다. 가령, <헤럴드(LA)>지는 여전히 개입 여부를 명확히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미 행정부와 의회에 압력을 넣는 이미지를 게재했다. 동 신문의 이미지에서 맥킨리 대통령은 칼(전쟁), 월 스트리트, 성조기, 메인호 사건 조사보고서 등 사이에서 여전히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지만, 아슬하게 외줄타기를 하며 접시(외교)를 돌리는 곡예사이다(still juggling).³⁸⁾ 반면, 다소 신중한 태도를 견지하던 <캔자스 시티 저널>지는 ‘주전문자들이 ‘대통령의 메시지’에 대해 투표하자고 울부짖어놓고, 정작 ‘메시지’에 대해서는 생각도 투표도 않고 그저 전쟁, 전쟁(War, War)만 부르짖고 있다’고 냉소적으로 표현했다.³⁹⁾

그러나 대통령의 대 의회 메시지 이후 미디어에서는 주전문자들의 선동이 훨씬 더 표면화되었다. ‘호전적인 애국주의자(Jingo)’의 분노측정기(게이지)가 네 번째 ‘분개(indignation)’의 단계를 넘어 마지막 ‘전쟁(war)’의 단계에 근접했음을 알리는 선동적인 이미지가 등장했다<그림 6>. 맥킨리 대통령이 징고이즘(Jingoism, 전쟁이 국가 정책의 도구이며, 위대한 국가 미국의 전쟁은 영광스런 것이 될 것이라는 선동적 애국주의)에 의해 끌려가고 있다는 영국의 <펀치 Punch>지의 풍자 이미지는 당시 미국 내 호전적인 분위기

38) The Herald(LA), 1898.4.13.

39) The Kansas City Journal, 1898.4.16.

를 정확하게 간파한 것이었다<그림 7>. <뉴욕 저널>은 미국이 쿠바에 대한 ‘스페인의 악정을 중단시키려 한다면 유럽도 개입하지 않을 거야’라는 내용의 이미지와 그림 설명을 첨부하며 전쟁 개입을 촉구했다.⁴⁰⁾ 대통령의 대 스페인 선전포고안이 상원에서 42 대 35로 결의되고, 하원은 311 대 6으로 통과되자(4.19), 곧바로 미디어에서는 ‘주사위는 던져졌다’는 캡션과 이미지,⁴¹⁾ ‘스페인은 쿠바에서 떠나거나 싸우거나 해야’⁴²⁾ 한다는 대형 헤드라인이 등장했다.

미 의회는 스페인군 철수와 쿠바의 독립을 보장하라는 최후통첩을 스페인에 보낸 동시에 전쟁에서 승리해도 쿠바를 병합하지 않겠다는 결의안을 채택했다(4.20).⁴³⁾ 이 사실 역시 미디어에 즉각적으로 반영되었다. ‘자, 이제 어린 소년 쿠바, 내가(영클 샘이)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Now, Little Man, I’ll see What I can Do for you),’⁴⁴⁾ 스페인은 쿠바에서 ‘손을 떼라!(Hands Off!),’ ‘미국과 스페인 사이의 전쟁은 이제 기정사실’⁴⁵⁾ ‘최후통첩장은 사실상 선전포고’, ‘스페인이 최후통첩장을 사실상 선전포고로 간주한다’⁴⁶⁾는 등의 이미지와 헤드라인이 그것이다. 맥킨리 대통령은 4월 25일에 스페인에 선전포고했다. ‘메인 호’가 폭파된 지 100일 만에 전쟁이 시작된 것이다. ‘쿠바를 자유롭게(Cuba Libre)’, ‘메인 호를 기억하라(Remember the Maine)’, ‘어찌 잊으랴(Will I ever forget?)’ ‘잊지 말아야(Lest We Forget!)’ 등의 구호는 펄럭이는

40) New York Journal, 1898.4.17; The San Francisco Call, 1898.4.17.

41) The San Francisco Call, 1898.4.19.

42) The Lebi Banner(University of Utah), 1898.4.19.

43) Rock Island Argus, 1898.4.20; The San Francisco Call, 1898.4.20.

44) New York Journal, 1898.4.20.

45) Chicago Tribune, 1898.4.19; Marietta Daily Leader, 1898.4.21; The St. Paul Globe, 1898.4.22; Anaconda Standard, 1898.4.23.

46) The San Francisco Call, 1898.4.22; The Houston Daily Post., 1898.4.22.

성조기 이미지와 함께 향후 언론에서 이를 상징하는 다양한 이미지와 함께 무수히 반복 재생산되었다<그림 8>. 47) 특히 ‘메인 호를 기억하라’는 매년 ‘메인 호’ 사건을 기억할 때마다 미디어 1면 전면에서 반복된 슬로건이자, 상징적인 이미지였다. ‘메인 호를 기억하라’는 상점과 거리의 애국주의 구호였을 뿐만 아니라, 껌 포장지, 빵 봉지, 성냥박스, 스푼, 단추 등 각종 상품 포장에까지 등장한 슬로건이었다. 48)



<그림 6> The Herald(LA)(New York World에서 전재), 1898.4.16.

<그림 7> Punch, 1898.4.16.

<그림 8> The Herald(LA) (New York World에서 전재), 1898.4.30.

47) Minneapolis Journal, 1898.2.22; The Times, 1898.3.11; The Houston Daily Post., 1898.3.21; New York World, 1898.3.12/23; The St Paul Globe, 1898.4.3; The Herald(LA), 1898.4.19/30(New York World에서 전재)/5.11/15/28; Barton County Democrat., 1898.4.28; The Anaconda Standard, 1898.5.2; The Enterprise., 1898.5.4; The Scranton Tribune, 1898.5.11; The Caldwell Tribune., 1898.5.21; The Salt Lake Herald, 1898.5.30; The Daily Kentuckian, 1898.7.29.

48) Miller, p.4; David Traxel, 1898 the Birth of the American Century(Vintage Books, 1999), p.121.

‘전함 메인호가 스페인에 의해 폭침되고, 선원들은 죽었다..... 깨어나라!
이건 꿈이 아니야. 선원들의 비명소리가 들리지 않나?.....’⁴⁹⁾

당시에 등장한 메리 엘리자베스 램의 이 노래 ‘미국이여 깨어나라(Awake United States!)’의 5절에 달하는 가사와 후렴구는 호전적이고도 선동적인 메시지 그 자체였다. 이 애국주의적인 선동가의 가사와 후렴구에는 ‘메인 호’가 스페인에 의해 폭침되었으므로 전쟁에 나가 스페인을 응징하자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 ‘메인 호’ 사건 이후 미디어의 호전적 애국주의로 말미암아 스페인과의 평화로운 해결책을 찾자는 여론의 통로는 처음부터 봉쇄되었던 듯하다. 전쟁 이외에 미국이 선택할 여지는 없었던 것이다.

3. 개전 이후 미디어의 팽창주의 선동과 미국의 대외 정책

미국은 스페인에 선전포고한 지 6일 후인 5월 1일에 첫 공격을 감행했다. 그런데 조지 듀이(George Dewey)미 해군제독이 첫 공격을 개시한 곳은 쿠바가 아닌, 정반대 쪽 필리핀 마닐라만의 스페인 함대였다. 쿠바를 자유롭게 한다는 대 스페인전쟁의 첫 전투가 필리핀에서 전개된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대 의회 메시지에서조차 맥킨리 대통령은 쿠바에서 스페인의 통치를 종식시켜야 한다는 점만 강조하였다. 미 해군이 쿠바가 아닌, 필리핀 마닐라만을 공격한 데는 무역로를 확장하고, 저탄기지, 전신선, 해군기지를 확대하기 위한 전략적인 차원에서였다고 평가된다. 그렇다면, 맥킨리 대통령은

49) Marie Elizabeth Lamb, Awake United States!(New Orleans, LA: 1898), library.duke.edu/digitalcollections/hasm_a89.

미디어의 애국주의를 활용하여 해외 팽창을 실현하려 한 것인가, 아니면 미디어의 선동에 그저 따라간 것인가. 미국학계에서 여전히 진행 중인 이 논쟁은,⁵⁰⁾ 이 논문의 범위를 넘어서는 방대한 문제이지만, 필리핀 공격으로 개시한 미서전쟁의 첫 단추는 분명 이 전쟁의 본질을 잘 말해주고 있다.

미 해군은 5월 1일의 마닐라만 공격에서 단 한 명의 사상자도 내지 않고 스페인군만 400여 명의 사상자를 낸,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⁵¹⁾ 흥미로운 사실은 어떤 미디어도 필리핀 마닐라만에서의 미 해군의 승리에 대해 그것이 왜 쿠바에서가 아니었는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 날 헤럴드는 ‘나가(SCAT)’라는 짧고 강렬한 캡션과 함께 잉글 샘이 스페인을 ‘쿠바에서’ 축출하는 이미지를 게재했다<그림 9>.⁵²⁾ ‘나가(SCAT!)’라는 짧고도 단호한 캡션은 스페인을 추방하는 수많은 이미지와 함께 가장 빈번하게 등장할 캡션이었다. 미 해군도, 미 언론도 처음부터 스페인과의 전쟁이 쿠바 이상으로 확대될 것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개전 이후 미국 미디어의 선동은 이제 해외 식민지를 확보해야 한다는 팽창주의 여론으로 이어졌다. 미 해군이 필리핀을 차지하고 나자 언론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새로운 영토에 대한 주장을 내놓기 시작했다. 그리고 새 영토에 대한 주장은 이후 여러 언론에서 타사의 이미지를 중복 전재하며 반복 재생산되었다.⁵³⁾ 아시아에서의

50) Miller, pp.13-14. 주 24 참조.

51) The Seattle Post-Intelligencer., 1898.5.1; The Houston Daily Post., 1898.5.2; The San Francisco Call, 1898.5.3/8; Marietta Daily Leader., 1898.5.5; The Herald(LA), 1898.5.5/16; Iron County Register, 1898.5.12.

52) The Herald(LA), 1898.5.1.

53) The Herald(LA), 1898.5.19; New York Herald, Marietta Daily Leader, 1898.5.19; The Bourbon News, 1898.5.20; New York World, 1898.5.20; The Salt Lake Herald, 1898.5.20.

‘영광의 5월 1일’의 승리를 필두로 자유(Liberty)를 향한 미국적 이념(The American Idea)이 쿠바와 푸에르토 리코에서 스페인제국을 압도하게 되었다는 이미지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⁵⁴⁾ 마닐라 만에서의 승리는 미국에게는 미국적 ‘상식’과 인류 보편적 ‘인간애’의 이상주의가 승리한, 영광의 전쟁이었던 것이다.

쿠바-스페인전쟁 개입을 목표했던 미서전쟁은 순식간에 동아시아에서 중미에 이르는 세계적인 전쟁으로 확대되었다. 미군은 ‘달빛 아래 피크닉’ ‘소풍같은 전쟁’으로 묘사될 만큼, 필리핀에서, 쿠바에서, 그리고 푸에르토 리코와 괌에서 신속하게 승리했다. 미 육군은 푸에르토 리코를 침입하고(5.12), 무혈전쟁으로 괌을 점령했다. 미군의 쿠바 점령은 ‘메인 호’가 폭파되었던 남쪽 아바나항의 반대편 북쪽 항구인 산티아고(Santiago)를 점령하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해군차관을 사임한 테오도르 루즈벨트(Theodore Roosevelt) 대령의 의용 특공대가 지상전에서 쿠바의 산티아고만을 점령하는 일방적 승리를 거둔 것이다(5.29~7.17). 뉴욕 <헤럴드>와 LA <헤럴드>지 등의 미디어가 앞으로 잉글 샘이 스페인으로부터 더 많은 것을 얻어내려 할 것인지(I wonder if he wants some more?) 스스로 반문하게 된 것이 이 즈음이다.⁵⁵⁾ 미국의 일방적 승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5월 중순 이후 미국 언론에 나타난 스페인제국의 이미지는 따라서 그 명예가 크게 실추하다 못해 전쟁과 국내 혁명에 직면한 이중삼중고의 참담한 모습으로 묘사되었다.

54) The Herald(LA), 1898.5.6/10; Figaro(Wien), 1898.5.7.

55) New York Herald, The Herald(LA), 1898.5.14.



〈그림 9〉 The Herald(LA), 1898.5.1.



〈그림 10〉 The Evening Times, 1898.6.3.

〈그림 11〉 The Herald(LA)(Chicago Chronicle에서 전재), 1898.6.5.

6월에 들어서며 미디어에서는 스페인제국이나 전쟁과는 상관없이 없는 하와이를 미국이 병합해야 한다는 여론이 부쩍 증가했다.⁵⁶⁾ 이미 1820년대부터 하와이에 플랜테이션 농장주의 자격으로 이주했던 미국인들은 1893년에 하와이 왕국을 전복시킨 바 있다. ‘하와이에 성조기를 다 깊이 확실하게 세우시오, 대통령!〈그림 10〉’⁵⁷⁾ ‘미스 하와이도 미스 쿠바와 함께 교실에서 책상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캡션과 이미지 등은 이미 하와이 병합을 당연시한 보도였다.⁵⁸⁾ 하와이 병합이 확실시되면서, 앵글 샘이 하와이를 포함, 지구 곳곳에 성조기를 꽂는 이미지가 등장했다.⁵⁹⁾

그러므로 6월 초 미디어에서는 앵글 샘의 야심(Ambition)은 이제 무력(총칼)을 내려놓고, 제국(Empire)의 새 왕관을 쓰는 일만 남은 모습으로 나타났다〈그림 11〉.⁶⁰⁾ 라드론 군도(Ladrone Islands-

56) The Evening Star.(Washington), 1898.6.1/7/25; The Hawaiian Star, 1898.6.3/8.

57) The Evening Times(Washington), 1898.6.3.

58) The Hawaiian Star, 1898.6.23.

59) The Herald(LA), 1898.6.11; The Hawaiian Gazette, 1898.6.24.

현 마리아나제도)가 미 독립기념일에 미국 영토가 되었다는 이미지⁶¹⁾에 이어, 그 다음은 포르토 리코(발음이 편하다는 이유로 미국인들이 푸에르토 리코를 바꾸어 부른)가 곧 함락될 것이라는 이미지가 등장했다.⁶²⁾ 독립 이래 미국 독수리가 얼마나 빨리 급성장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 독수리 날개에 수많은 주와 해외 식민지들의 이름이 새겨진 이미지,⁶³⁾ 쿠바의 산티아고를 완전히 장악한 미 육군이 칭얼대는 쿠바 어린이에게 ‘조금만 참으라(be patient)’며 ‘자유’의 죽(Liberty Porridge)’를 떠 먹여주는 이미지도 등장했다.⁶⁴⁾ 거대한 ‘용광로(melting pot)’는 자유의 나라 미합중국을 상징하는 듯하다. 쿠바가 거대한 용광로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인내하고 기다려야 한다는 메시지인 것이다.

밀러의 연구에 따르면, 민주당 지지파언론이건 공화당 지지파 언론이건 미국내 언론들은 모두 미서전쟁에 찬성했다. 밀러는 전쟁 개입에 대한 지지 여부, 제국주의에 대한 지지 여부를 중심으로 당파적 색채가 강한 43개 신문을 분석하였다. 그에 따르면, 대체로 공화당 지지파 언론은 호전적이면서 팽창주의적이었다. 민주당 지지언론도 대체로 호전적이었지만, 반제국주의 성향을 띠는 경향이 있었다. 처음엔 팽창주의였다가 반제국주의로 돌아선 미디어 네 곳(Charlestown News & Courier, Houston Post, Richmond Daily Times, Savannah Press)은 모두 민주당 지지파 언론이었다. 그런가 하면, 1898년 당시 미국내 언론 가운데 반전적이면서 친제국주의 언론은 하나도 없었다. 미서전쟁에 반대하고 제국주의에도 반대하는 신문은 세 개의 신문(Baltimore Sun, Life, New York Evening Post)뿐이

60) Chicago Chronicle, The Herald(LA), 1898.6.5.

61) The Salt Lake Herald, 1898.7.4.

62) The Wichita Daily Eagle., 1898.7.15.

63) The Evening Star.(Washington), 1898.7.9.

64) The Evening Star.(Washington), 1898.7.23.

었다.⁶⁵⁾ 밀러의 이 같은 연구 결과는 대체로 공화당과 민주당의 당파적 성향이 강한 미디어(New York Journal, New York World, New York Sun, San Francisco Examiner, New York Herald, Chicago Tribune, Chicago Record)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⁶⁶⁾

이에 비해 본 논문은 미디어의 정치적 성향 분석을 배제한 채 황색언론으로 분류되지 않았던 미디어의 헤드라인과 풍자 이미지를 대상으로 전쟁지지 여부와 반제국주의 성향 여부를 분석해보았다. 그 결과, 기존의 시각과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미국 신문이 쿠바-스페인문제에 개입할 것을 선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렇지만, 개전을 압박했던 미디어의 헤드라인과 이미지의 빈도수, 정부의 정책에 앞서 정책 결정에 압력을 넣는 선동성 여부로 분석해 보았을 때, 양대 황색 언론지를 제외하고 그 다음으로 가장 팽창주의적인 미디어들은 워싱턴 〈타임즈〉와 캘리포니아의 〈헤럴드(LA)〉, 〈샌프란시스코 콜〉지 등 세 언론이었다. 〈캔자스 시티 저널〉지와 〈뉴욕 월드〉지는 처음엔 개입 반대의 신중한 입장에서 점차 호전적인 이미지와 헤드라인을 게재하다가 결국 완전히 호전적인 여론으로 돌아섰다. 〈헤럴드(LA)〉를 비롯한 여러 신문들은 〈뉴욕 월드〉지의 풍자 이미지를 가장 자주 전재하는 경향이 있었다. 결국 흔히 알려진 양대 ‘황색 언론’뿐만 아니라, 몇몇 특정 미디어가 미국 정부의 외교정책을 이행하도록 압력을 넣는데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음이 드러난 것이다.

65) Miller, pp.261-262.

66) Miller, p.11.

4. 전후(戰後) 미디어와 반(反)제국주의의 의미

미서전쟁은 ‘메인 호’ 사건 115일 만인 5월 1일에 개시되었고, 개전 후 109일 만인 7월 16일에 모두 끝났다. 다음 날 스페인이 산티아고에서 항복하자, 미국은 며칠 뒤 곧바로 푸에르토 리코를 완전히 점령했다. 미디어 이미지에 나타난 미국은 어엿한 브라스 밴드를 구성할 정도로 필리핀, 하와이, 쿠바, 포르토 리코, 라드론 제도 등 식민지 멤버들이 늘어난 모습이다.⁶⁷⁾

스페인이 어떤 강화조건을 내걸 것인지에 미국 언론의 관심이 집중되기 시작한 것은 7월 말부터였다.⁶⁸⁾ 〈헤럴드(LA)〉지는 미국이 제시한 가혹한 강화조건을 스페인이 받아들이는 과정을 지속적으로 게재했다. 동 신문의 풍자이미지에서 스페인은 당연히 강화를 받아 들여야 하며,⁶⁹⁾ 곤경에 처한 상처투성이로 유럽 열강의 문을 두드리 개입을 요청해 보았으나 냉담한 반응밖에 얻지 못한 모습으로 묘사되었다.⁷⁰⁾ 제국의 명예가 크게 실추한 채 전쟁과 국내 혁명의 진퇴양난에 시달렸던 스페인은 이미 6월 초부터 ‘강화를 고려’했으며,⁷¹⁾ 결국 강화조약을 받아들였다.

8월 12일에 미 백악관에서 미 국무장관과 스페인정부를 대표하는 프랑스대사 캄봉(M. Jules Cambon)이 제6항에 달하는 정전협정 체결에 서명했다.⁷²⁾ 정전협정에 따르면, 스페인은 이제 쿠바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며(1항), 푸에르코 리코와 서인도제도의 다른

67) The Herald(LA), 1898.8.10; Mariette Daily Leader, 1898.8.10.

68) The Herald(LA), 1898.7.28/31; The San Francisco Call, 1898.7.29/31.

69) The Herald(LA), 1898.8.1.

70) The Herald(LA), 1898.8.2/3.

71) The Houston Daily Post., 1898.5.10; The Salt Lake Herald, 1898.6.7.

72) Evening Star., 1898.8.13; The Wichita Daily Eagle., 1898.8.13; The Salt Lake Herald, 1898.8.13; The San Francisco Call, 1898.8.13; The Herald(LA), 1898.8.14.

스페인 섬들과 라드론 제도의 섬은 미국이 선택하여 양도받게 되었다(2항). 미국은 마닐라만을 점령하고 필리핀제도의 정치, 통제권, 처분권을 가졌다(3항).⁷³⁾ 풍자 이미지에 묘사된 어느 미국 독수리의 독백처럼,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스페인 독수리는 2월 이래 계속 털갈이를 한 끝에 모든 깃털(식민지)이 빠진 앙상하고 초라한 모습이 되었다.’⁷⁴⁾

스페인과의 정전조약이 체결되자마자 다음 행보로 니카라구아 운하를 확보해야 한다는 문제를 제기한 미디어 역시 〈헤럴드(LA)〉지였다.⁷⁵⁾ 다른 미디어들도 획득한 식민지를 모두 합쳐도 텍사스주의 면적에도 못 미치니, 스페인 제국이 가진 걸 모두 내놓으라는 탐욕스런 팽창주의의 이미지를 앞다투어 게재했다.⁷⁶⁾

11월 말, 가혹한 조건의 강화조약이 파리에서 스페인에 강압적으로 체결된 과정에 대해서는 다양한 풍자 이미지가 있다.⁷⁷⁾ 스페인은 미국 강화위원회(US Peace Commission)의 강요에 따라 쿠바, 필리핀, 푸에르토 리코를 미국에게 넘기고, 라틴아메리카 쪽이 아닌 대서양 건너편 아프리카 대륙에 가까운 카나리 군도(Canary Islands)를 차지하는데 만족해야 했다.⁷⁸⁾ ‘빵 반쪽이라도 전혀 없는 것보다는 낫다(Half a Loaf is Better Than No Bread)’는 캡션이 스페인의 곤궁한 입장을 대변하는 듯하다.

필리핀 양도를 둘러싼 배상금 문제가 가시화되자, 스페인은 미국에 필리핀 양도의 대가로 4천만 달러를 요구했다.⁷⁹⁾ 그러자, 미국

73) The San Francisco Call, 1898.8.13; The Salt Lake Herald, 1898.8.13.

74) Dakota Farmer's Leader, 1898.8.26.

75) The Herald(LA), 1898.8.15.

76) The Appeal, 1898.10.8; Kansas City Journal, 1898.10.10; Marietta Daily Leader., 1898.10.29.

77) The Salt Lake Herald, 1898.11.18; The Seattle Post-Intelligencier., 1898.11.22./29/30; The Houston Daily Post, 1898.11.30; The Herald(LA), 1898.12.9/10; Richmond Dispatch, 1898.12.18.

78) The Herald(LA), 1898.11.13.

언론들은 앞 다투어 2천만 달러가 적절하다는 이미지를 지속적으로 게재하며 스페인을 압박했다. 급기야는 ‘메인 호’를 폭침시킨 스페인의 악행에 비하면 2천만 달러를 지불하는 것도 후한 것(Good pay for a bad job)이라는 설명이 달린 이미지까지 등장했다.⁸⁰⁾ 미디어 이미지에 따르면, 스페인은 필리핀 양도의 대가로 2천만 달러를 받고 말 것인가 아니면 다시 전쟁을 개시할 것인가를 고심한 듯하다.⁸¹⁾ 결국 미국은 필리핀 양도의 대가로 2천만 달러를 지불하고 스페인을 태평양에서마저 축출했다.⁸²⁾

필리핀 양도가 결정되자, 필리핀문제(Philippines Question)는 향후 앵글 색슨에게 매우 다루기 어려운 수많은 문제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미디어 이미지에 나타나기 시작했다.⁸³⁾ 마닐라만 침공 석 달 뒤인 8월 중순에 마 지상군이 상륙하자, 필리핀인들은 처음에는 미국을 해방자로 인식했지만, 곧 에밀리오 아귀날도(Emilio Aguinaldo)를 중심으로 저항하기 시작했다. 따라서 8월 말의 미디어 이미지에서는 미국의 지배에 저항하는 필리핀의 모습이 앵글 색슨에게 골칫거리 스핑크스로 비치기도 하고, 뚜껑이 열린 판도라의 상자로 묘사되기도 했다.⁸⁴⁾

11월에 이르자, 팽창의 결과로 필리핀에서 발생할지도 모르는 일들을 예상하는 이미지와 필리핀을 과격하게 다루는 앵글 색슨의 이미지

79) The Herald(LA), 1898.11.10.

80) Boston Herald, 1898.12.4; The Saint Paul Globe.(=New York Journal), 1898.12.5; Western News-Democrat., 1898.12.15.

81) The Evening Star., 1898.11.22; The Salt Lake Herald, 1898.11.23; The Herald(LA), 1898.11.26.

82) vening Star., 1898.11.22; The Salt Lake Herald, 1898.11.23; The Herald(LA), 1898.12.1; The Saint Paul Globe, 1898.12.5; The Houston Daily Post., 1898.12.9.

83) The Houston Daily Post., 1898.10.16.

84) The Richmond Dispatch, 1898.8.28; The Herald(LA), 1898.9.8; The Houston Daily Post., 1898.9.30.

등 필리핀 관련 이미지들이 증가했다.⁸⁵⁾ 이미지에 따르면, 1898년 말에 이르면서 미국은 대 필리핀 정책에 많은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고 각오하게 된 듯하다.⁸⁶⁾ <헤럴드(LA)>지의 이미지에는 정의(Justice)의 여신이 ‘문명은 국내에서 시작된다(Civilization begins at home)’며 맥킨리에게 충고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대 통령의 시선은 국내 유색인들의 인권은 외면한 채, 오로지 필리핀 군도의 지도에 고정되어 있다.⁸⁷⁾ 이 풍자 이미지는 <뉴욕 월드>지에서 전제한 것인데, 흔히 반제국주의를 대표하는 이미지로 각종 자료와 연구서에서 자리매김되었지만, 이미지 한 장으로 <헤럴드(LA)>지의 호전주의는 외면한 채 반제국주의 언론으로 평가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반제국주의 논의는 평화조약을 체결하고 난 9월 초부터 미국 정가에서 등장했고, 12월에는 정치적 이슈로 부상하기 시작했다. ‘전쟁의 영광’과 미국적 이상 사이의 갈등을 매우려는 논의들이 그것이다. 육군본부, 전시 정책, 소집 해제된 귀국 병사들의 문제, 전사자문제와 전쟁 책임론 등 ⁸⁸⁾ 전후 책임을 놓고 국내 정치권과 여론에서의 전쟁이 시작되었다. 미서전쟁의 총 전사자가 385명인데, 그보다 14배가 많은 5403명이 질병으로 사망했기 때문이다. 그림에 나타나듯, ‘전쟁의 영광(war glory)’의 뒤로, 온갖 전염병과 질병, 비위생적인 병영, 오염된 식수, 허술한 장례식 등의 문제가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다<그림 12>.⁸⁹⁾ 비위생적인 캠프, 질병, 의약품 및 간호사의 부족 문제, 외과의사 부족, 부상병들을 위한

85) The Herald(LA), 1898.11.14/20.

86) The Richmond Dispatch., 1898.12.18.

87) The Herald(LA), 1898.11.21(New York World에서 전재).

88) The Salt Lake Herald, 1898.9.1; Evening Star., 1898.9.3; The Herald(LA), 1898.9.3.

89) The Houston Daily Post., 1898.9.27; The Herald(LA), 1898.9.28; The Houston Daily Post., 1898.9.29.

간이침대 부족 문제 등에 대해 미 국방장관 또는 국방성의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이미지도 나왔다.⁹⁰⁾ 각종 전쟁 추문이 들끓었고, 결국 대통령에게 모든 수습의 책임이 있다는 압력을 상징하는 이미지도 등장했다.⁹¹⁾ 전쟁을 유도한 황색언론에 책임이 있다는 독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이미지도 등장했다.⁹²⁾



〈그림 12〉 The Herald(LA), 1898.9.28.



〈그림 13〉 The Saint Paul Globe, 1898.11.30.



〈그림 14〉 The Herald(LA), 1898.12.23.

미국의 이상주의 측면에서 반제국주의를 제기한 미디어는 미네소타주의 〈세인트 폴 글로브 The Saint Paul Globe〉지였다. ‘새들도 나는데, 나도 날 수 있어’라는 설명이 달린 이 이미지에는 ‘제국주의(imperialism)’라고 쓰여 있는 비행기 동체에, 쿠바, 푸에르토 리코, 필리핀 등의 바퀴와 엉성한 두 개의 뿔대가 달려 있다 〈그림 13〉.⁹³⁾ 비행기 동체를 날기 어려운 조잡하게 풍자함으로써

90) The Herald(LA), 1898.9.8/18; The Richmond Dispatch.(New York Herald에서 전재), 1898.9.25.

91) The Herald(LA), 1898.9.26.

92) The Kansas City Journal, 1898.9.28.

93) The Saint Paul Globe., 1898.11.30.

뚜렷한 반제국주의 색채를 드러낸 이미지이다. 버지니아 주의 〈리치몬드 디스패치 Richmond Dispatch〉지의 위대한 맥킨리의 ‘명백한 사명(Manifest Destiny)’은 멈출 수도 없고, 제지할 수도 없는 것이 되었다’는 잉글 샘의 독백과 이미지도 전후 미국의 팽창주의의 역설을 잘 드러내준다.⁹⁴⁾ 19세기 중엽 이래 프런티어 팽창과 제국주의적인 해외 팽창을 이끌어온 미 영토 확장의 주된 이데올로기였던 ‘명백한 사명’이 이제 제어 불가능한 것이 되었다는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미국 반제국주의자 연맹(American Anti-Imperialist League)은 11월 중순에 지식인 기업가 등이 중심이 되어 보스턴에서 결성되었다. 미국 반제국주의자 연맹이 결성된 근본적인 배경은, 쿠바를 병합하지 않으며, 쿠바의 독립을 규정한다는 4월 20일자 ‘텔러수정안(Teller Amendment)’으로 거슬러 올라간다.⁹⁵⁾ 텔러수정안이란, ‘쿠바에 대한 주권이나 통제권을 행사할 의도나 경향을 거부하고...사태가 진정되면, 쿠바섬과 그 국민들에게 통치와 통제권을 넘긴다’는 내용으로써, 이는 사실상 쿠바-스페인문제 개입에 반대하는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법안이었다. 더욱이 쿠바 이외 다른 식민지들, 특히 필리핀은 이 수정안에 언급조차 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텔러수정안의 영향력 밖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반제국주의자들의 레토릭을 들어 보자. 미국 반제국주의자 연맹 부의장이자 기업가인 에드워드 앳킨슨(Edward Atkinson)은 맥킨리 대통령에게 보낸 8월 25일자 서한에서, 필리핀 병합이 미국에 치명적인 영향을 가져다 줄 것이며 도덕적 분개를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⁹⁶⁾ 앳킨슨은 맥킨리에게 보낸 11월

94) The Richmond Dispatch., 1898.10.23.

95) The Herald(LA), 1898.12.22.

96) Edward Atkinson to William McKinley, 1898.8.25., Robert L. Beisner, *Twelve Against Empire-the Anti-Imperialists 1898-1900*(McGraw-Hill Book Company, 1968), p.95.

14일자 서한에서는, 제국주의로부터 가장 큰 위협이 ‘아시아인과의 성교로 감염되는’ 성적으로 옮겨지는 질병이라고 가정했다. 엠킨슨은 수만 명의 미국 군인들이 이러한 질병으로 사망하며 수만 명이 상이 부상을 입은 채 귀국하므로, 모국의 명예를 더럽히고 앞으로의 세대에 치욕을 안겨준다는 점에서 제국주의에 반대한다는 것이었다.⁹⁷⁾

엠킨슨과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반제국주의자들 역시 필리핀 병합에 반대했지만, 그 위협에 대한 평가는 각각 달랐다. 법률가이면서, 미국 술집 연합회(American Bar Association) 회장을 지냈던(1896-’97), 반제국주의자 연맹의 창단 멤버인 무어필드 스토레이(Moorfield Storey)는 필리피노를 열등한 인종으로 간주하는 사람들을 경멸하고, 맥킨리 대통령을 ‘노예사냥꾼’이라고 비난했다.⁹⁸⁾ 6월 15일 보스턴에서의 반제국주의자들의 첫 모임에서 그는, ‘쿠바인들의 동의 없이 그들을 지배하는 것은 미국의 독립 선언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뉴 잉글랜드지방의 저명한 정치가 조지 부트웰(George S. Boutwell)은 초대 반제국주의자 연맹의 의장으로서 1905년 자신이 죽을 때까지 의장을 지냈던 중요한 인물이다. 부트웰은 거주민의 동의 없이 외국 영토를 지배하는 것은 미 독립선언서에 위배된다고 보았지만, 스토레이와는 입장이 달랐던 셈이다. 그런가 하면, 후일 반제국주의자 연맹의 부의장(1901~1910)을 맡게 될 저명한 문필가 마크 트웨인(사무엘 클레멘스)은 1898년 당시에는 미국의 필리핀 획득을 지지했던 친제국주의자였다. 그는 제국주의가 자본주의와 직결되는 ‘문명의 축복’이라고 부르길 주저하지 않았다.⁹⁹⁾

미국 반제국주의자 연맹은 이처럼 다양한 측면에서 식민지 병합

97) Beisner, p.97.

98) Beisner, p.113.

99) Ivonne Marie Garcia, pp.320-21,325.

에 반대하였다. 그러나 대중들은 가장 단순한 문제에서조차 합의를 보지 못하고 의견이 분분한 반제국주의자들의 능력과 레토릭이 비효율적이라고 의심했다. 어떤 유권자들은 하와이, 필리핀, 쿠바의 열대지방 사람들이 미국 정치에 연루된다는 사고 자체를 혐오했다. 미국민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다루기에는 반제국주의자들은 너무 교육받은, 부유한 계층이었다. 결국 반제국주의자들은 자신들의 반대 진영으로부터 뿐만 아니라, 그들 내부에서 나온 여러 문제에서 분열하게 된다.

그렇다면 미디어에서 형성된 반제국주의 여론과 미국 반제국주의자 연맹의 결성은 어떤 상관관계가 있었을까. 1898년의 미디어 이미지와 헤드라인을 분석한 결론부터 말하자면, 반제국주의자들의 레토릭은 반제국주의자 연맹 결성과정이나 결성 이후에도 미디어에 거의 반영되지 않은 듯하다. 미국 반제국주의자 연맹이 탄생한 이후 반제국주의자들의 공적인 레토릭과 논의가 미디어 이미지나 헤드라인에 반영된 흔적을 거의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반제국주의자들은 주로 강연, 팸플렛 등으로 메시지를 전달했다. 1899년 4월에 반제국주의자 연맹의 강령에 처음 반영될, 쿠바 식민화에 대한 인도주의적 도덕적 반대 논의는 1898년 말의 미디어에서는 아직 그 여론이 채 형성되지 않았던 것이다. 미 대중들은 소수의 반제국주의자들의 공공 레토릭에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고 무관심했던 것으로 보인다.

1898년 11월 말에 미디어에 등장한 반제국주의의 대표적인 이미지는 몇 가지 뚜렷한 경향이 보인다. 반제국주의 논의가 주로 팽창에 드는 비용이라는 측면에서 제기되었다는 점이 그것이다.¹⁰⁰⁾ 즉 반제국주의 여론은 인도주의적 측면에서의 논의가 아니라, 미국의 무제한 팽창에 드는 경제적 비용의 측면에서 형성되었다.

100) The Herald(LA), 1898.12.22.

전쟁기에 가장 호전적인 미디어 가운데 하나였던 LA 〈헤럴드〉지는 경제적 측면에서 반제국주의 문제를 제기하는데도 앞장섰다. 팽창(expansion)에 드는 경비 때문에 몸이 과도하게 육중해진 맥킨 리대통령은 이제 벼랑 끝에 서 있다. 이제 다음에 내디딜 발걸음은 곧장 ‘정치적 망각(political oblivion)’의 낭떠러지가 될 수밖에 없다는 절박한 이미지가 그것이다(〈그림 14〉).¹⁰¹⁾ 같은 날, 〈휴스턴 데일리 포스트〉지의 ‘팽창정책’의 문이 열린 깜짝 파티에 자마이카, 바르바도스 등 수많은 중남미국가들이 줄을 서서 ‘우리도 병합하라’고 미국에 줄줄이 요청하게 될 상황을 우려하는 이미지도 팽창 비용에 대한 우려가 반영된 것이었다.¹⁰²⁾ 다른 미디어의 이미지에서도 잉글 샴의 모습은 팽창에 드는 연간 예산, 무역 수지 등이 너무 과도해서 병합 이전의 훌쭉한 모습과는 매우 대조적인, 고도 비만이 극에 달한 모습으로 그려졌다.¹⁰³⁾

그러므로 전후(戰後) 1898년의 반제국주의 논의는, 1899년 4월의 반제국주의자 강령에서 드러나게 될, 전쟁의 영광과 그에 따른 미국적 이상과의 갈등의 측면이라는 인도주의적 이상주의적 논의라고는 보기 어렵다. 1898년 말의 반제국주의 논의는 어디까지나 미국의 팽창주의 식민정책과 그에 따른 팽창 비용이라는 측면에서 제기된 것이었다. 〈뉴욕 헤럴드〉, 〈헤럴드(LA)〉, 〈워싱턴 포스트〉, 〈마리에타 데일리 리더〉지 등이 이 같은 반제국주의 논의에 앞장섰다. 다시 말해 1898년 미디어에 나타난 반제국주의 논의는 일반적으로 예상하는 바와 같은, 미국의 상식과 양심, 도덕적 이상과의 갈등, 즉 제국주의와 식민주의에 대한 인도주의적, 이데올로기적 논의보다는, 주로 해외 팽창에 들어가는 경제적 비용과 부담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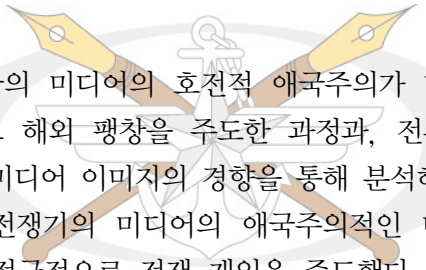
101) The Herald(LA), 1898.12.23.

102) The Houston Daily Post., 1898.12.23.

103) New York Herald, 1898.8.7; Marietta Daily Leader., 1898.12.23; Washington Post, 1898.12.23.

측면에서 제기된 것이었다. 반제국주의자 연맹의 내부에서는 분명 필리핀 지배의 도덕적인 측면이나, 자유의 이상이라는 측면에서 독립주의를 지지하는 소수의 사람들도 있었다. 그러나 반제국주의자 연맹의 레토릭이나 모토는 분명하지 않았으며, 미디어에서는 거의 주목조차 받지 못했다. 1898년 말의 미디어에서 인종주의와 미국적 이상과의 갈등이라는 이데올로기적인 논의는 아직 큰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5. 맺음말



이상으로 미국의 미디어의 호전적 애국주의가 대 스페인전쟁의 개입을 선동하고 해외 팽창을 주도한 과정과, 전후의 반제국주의 논의의 의미를 미디어 이미지의 경향을 통해 분석해보았다. 기존의 학설처럼, 미서전쟁기의 미디어의 애국주의적인 대형 헤드라인과 풍자 이미지는 적극적으로 전쟁 개입을 주도했다. 해외 영토 획득에 대한 일부 지식인들의 반대가 있었지만, 쿠바-스페인전쟁에 대한 개입 선동은 당시 거스를 수 없는 통일된 애국주의 열기였다.

1898년 미서전쟁기의 미디어 이미지의 팽창주의, 호전적 애국주의, 반제국주의 반전 여론을 분석한 결과, 미디어의 경향성은 선행 연구의 결과와 일치하지 않았다. 보니 밀러는 발행부수가 각각 100만부를 훌쩍 넘었던 〈뉴욕 저널〉과 〈뉴욕 월드〉의 양대 신문이 경쟁적으로 풍자 이미지를 게재하며, 정부가 전쟁에 개입하도록 압력을 가했다는 일반론에 동조하는 입장이다. 밀러는 특히 공화당과 민주당 성향의 신문들을 분석하여 친제국주의와 반 식민주의적 성향의 언론을 분류하였다. 밀러의 연구는 황색언론인 〈뉴욕 월드〉

지가 전쟁 개입을 주장하면서도 반제국주의 언론이었다고 분류했지만, 정작 반제국주의적인 풍자 이미지들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캘리포니아의 두 언론(The Herald, San Francisco Call)은 양대 황색언론 다음으로 가장 선정적이고 호전적이었다. 이 캘리포니아 언론들은 전쟁기 내내 1면 전체를 여러 장의 풍자 이미지와 대형 헤드라인으로 애국주의를 선동했다. 뿐만 아니라, 캘리포니아의 두 신문은 스페인과 관련한 이미지를 가장 많이 게재함으로써 전쟁이 국가 정책의 도구이며, 위대한 국가인 미국의 전쟁은 영광스런 것이 될 것이라는 징고이즘의 색채를 뚜렷하게 드러냈다. <헤럴드(LA)>지는 개전 이전 다소 중립적인 이미지를 게재하기도 하고, 종전 이후에는 팽창 비용의 측면에서 반제국주의를 표방한 다른 미디어의 이미지를 전재하기도 하였지만, <뉴욕 월드>와 <뉴욕 헤럴드>지의 호전적인 팽창 일변도의 이미지를 가장 많이 전재한 신문이기도 했다.

미국 미디어들은 전쟁이 새 국면으로 접어들 때마다 새로운 영토를 추가하라는 선동적인 여론을 주도했다. 필리핀을 차지하고 나자 언론들은 앞 다투어 새로운 영토에 대한 주장을 내놓기 시작했으며, 타 신문의 이미지를 중복 전재하며 팽창주의적 선동을 반복 재생산했다. 필리핀에 이어 하와이 병합을 확실시하라는 압력이 나왔고, 이후에는 니카라구아 운하를 확보하라는 압력으로 카리브해 진출을 선동했다. 특히 필리핀 병합문제가 야기할 문제를 제기하는 등, 미디어는 정부의 정책에 앞서 늘 애국주의적이고도 팽창주의적인 여론을 조성하였다.

반제국주의 논의와 그를 반영한 미디어 이미지는 전후(戰後) 강화조약이 체결되는 과정에서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했다. ‘전쟁의 영광’ 뒤에 도덕, 상식 등 ‘미국적 이상’과의 갈등이 야기된 측면도 있었다. 이는 전쟁의 책임문제, 전사자들의 처리, 병영시설,

각종 전쟁의 추문 등이 점차 정치적인 이슈로 등장했다는 것을 의미했다. 전쟁을 유도했던 황색 언론에 대한 반성도 나오기 시작했다. 그러나 해외 팽창과 개입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반제국주의자들도 예외가 아니었다. 1898년 11월 말에 미디어에 등장한 반제국주의는 주로 팽창에 드는 비용이라는 측면에서 제기되었다.

요컨대 1898년의 미서전쟁은 그 시작과 과정과 끝이 놀라울 정도로 연결되지 않은 모순된 전쟁이었다. 미서전쟁은 스페인의 지배에서 쿠바를 자유롭게 한다는 미디어가 조장한 애국주의와 도덕, 인간애와 같은 이상주의적 명분으로 미국민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아 전개되었다. 그러나 개전 이후에는 마치 군사전략적인 이해관계와 제국주의적인 해외 팽창이 전쟁의 목적인 듯 미디어의 압력이 정부의 팽창정책을 견인했다. 전후 미디어에서는 해외식민지 획득과 제국의 팽창, 그리고 팽창에 들어갈 비용에 대한 논의가 주류를 이루는 반제국주의 논의가 시작되었다. 반제국주의자 연맹의 도덕적, 이데올로기적 논의는 1898년 말의 미디어에서는 아직 조성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원고투고일: 2015.10.2, 심사수정일: 2016.2.1, 게재확정일: 2016.2.19.]

주제어 : 미국-스페인전쟁(미서전쟁), 황색언론, 팽창주의, 제국주의, 애국주의, 징고주의, 미국 반제국주의자 연맹, 정치풍자화, '메인 호'를 기억하라

<ABSTRACT>

The American-Spanish War and Political Cartoons in Press Media: Expansionism and Anti-Imperialism

Seok, Hua-jeong

The American-Spanish War of 1898, was initiated for the United States to step to rescue Cuba from the oppression from Spain, ended just months later with the U.S. acquisition of Spain's remaining empire, including Cuba, Puerto Rico, Guam and the Philippines. Patriotic media played a significant role in breaking out the war, identifying the key territories to be acquired prior to a deployment of military operations. Even though there were various shades of high-circulation "yellow" journalism, this article mainly focuses on the 'unexplored' press media by the including political cartoons, headlines, caption texts from newspapers in both rural and urban settings across the U.S. It elaborates to show how the nation's patriotic media campaigns mainly by cartoonists and editorialists captured the public's interest in the Cuban crisis, and to portray the U.S actions for the duration of the conflict, from liberation to conquest, and further to press the U.S acquisition new territories abroad. After the war, growing resistance to American expansionism was found expression in the media, but it was driven the consensus in terms of expansion costs, not by a moral compass as will be identified at the platform of Anti-Imperialist League of 1899.

Key Words : The American-Spanish War of 1898, Yellow Journalism, expansionism, Imperialism, Patriotism, Jingoism, American Anti-Imperialist League, political cartoons, Remember the *Maine*.

연구소 동정

1. 연구소 대외교류 및 활동

- 2016년 시무식 행사
 - 일정/장소 : '16. 1. 2(월)/연구소 회의실
 - 참석인원 : 연구소 전 직원
 - 내용 : 신규임용자 인사, 우수연구원 포상, 전군 보안기강 확립 결의 등

- 2016년 연구편찬사업 중간 검토회의
 - 대상/주관 : 연구소 전 직원 / 연구소장
 - 일정/사업(담당자)

일 정	연구편찬 사업명	담 당 자
1. 28(목)	6·25전쟁 통사	박동찬
1. 29(금)	국방편년사 6집	김진섭 등 2명
2. 23(화)	국방정책변천사 2집 등 2건	이미숙 등 2명
2. 24(수)	베트남전쟁과 북한 등 2건	이신재 등 2명
2. 25(목)	한일군사관계사료집 등 3건	양영조 등 3명

- 내용 : 사업소개, 연구방향과 내용의 적절성, 발전방안 제시
- 미국 군사 자료수집 공무해외출장
 - 기간/장소 : '16. 1. 6(수) ~ 12. 26(수) / 미국
 - 출장인원 : 육군 소령 남보람
- 2016년 국방기관업무 평가위원회 참석
 - 일시/장소 : '16. 1. 21(목) / 국방부 대회의실
 - 참석인원 : 연구소 기획운영실장 등 7명(핵심사업 담당자)
 - 내용 : 2015년 핵심사업 추진결과 설명, 2016년 평가방향 토의

- 2016년 학술교류 및 2017년 연구편찬사업 조정회의
 - 일정/장소 : '16. 1. 21(목)/연구소 회의실
 - 대상/주관 : 부실장, 주요사업 담당자/연구소장
 - 내용 : 학술교류 발표 주제·인원 선정, 2017년 사업조정 등
- 국방정책/전략연구 발간 : '15. 12월, '16. 1월

구 분	제 목	저 자
1호	남침 이후 3일간(72시간) 이승만 대통령의 행적	남정옥
2호	대반란전(COIN) 전사 연구	손석현

2. 인사이동

- 신규임용 : 국방사부장 2급 김승기 (2016. 1. 1)
국방사부 연구원 5급 최정준 (2016. 1. 1)
- 전 입 : 정보자료실장 5급 차명진 (2016. 1. 15)
- 전 출 : 기획운영실 인사/조직담당 5급 신유경 (2016. 1. 15)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자료 기증은 군사사 연구의 생명입니다.

〈정보자료실 제공〉

군 관련 자료를 소장하고 계신 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우리 연구소는 최적의 자료 보존 장비와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여러분이 제공한 자료는 생생한 역사로 기록될 것입니다.



〈자료기증안내〉

◇ 수집대상자료

- 전사자료 : 한국전쟁, 월남전쟁에 관한 피아 작전관계 문서, 지도, 사진 등 전사자료와 참전증언 자료
- 군사사 자료 : 군사적, 학술적 가치가 있는 군사문헌, 고증 자료

◇ 수집방법

- 소장자료를 아래 주소로 보내 주시거나, 전화 또는 서신으로 소장 자료 제공 의사를 알려 주시면 출장 방문하여 수령하겠습니다.

(비제공 자료는 복제 후 반환)

※ 기증해 주신 자료는 영구 보존되며 장병 및 국민들에게 공개 활용됩니다.

◇ 연락처

- 주 소 : (☎04353)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9(용산동 1가 8번지)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정보자료실
- 전 화 : (일반) 02)709-3188, 3199
(군) 900-1686, 1688

〈자료이용안내〉

◇ 공개자료 종류

- 장 서 : 역사, 군사도서 등
- 사 료 : 한국전쟁, 월남전쟁, 국방, 군사사, 수기 등
- 기 타 : 학술논문, 수기, 회고록, 간행물 등

◇ 장 소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정보자료실(전쟁기념관 4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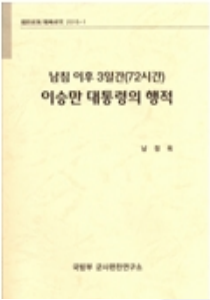
◇ 이용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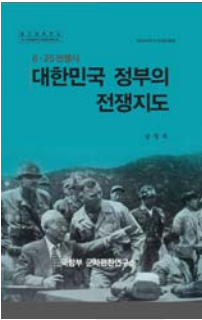
- 평 일 : 09:30~17:30
-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 : 휴무

◇ 인터넷 홈페이지 이용

- 주 소 : www.imhc.mil.kr
- 주요내용 : 소장도서목록, 연구소 역대발간서적 원문서비스,
거제도포로수용자/호국전몰용사공훈록 DB 검색 등

신간 도서 소개

구 분	내 용
남침 이후 3일간 이승만 대통령의 행적 • 남정옥 (전쟁사부) • 신국판 • 2015. 10. 21. 	본 책(국방정책/전략연구 2015-1)은 “남침 이후 3일간(72시간) 이승만 대통령의 행적”은 북한의 남침 이후 이승만 대통령의 3일간의 행적을 국내외 사료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 시간대별로 정리함으로써, 이승만 대통령이 전시지도자로서 ‘어떻게 조치했는가?’를 입증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전쟁초기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기존의 잘못 알려졌거나, 과장됐거나, 왜곡된 내용을 바로잡을 수 있게 하고, 또 전시지도자로서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함께 정당한 평가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당위성도 제공하고 있다. 이 소책자가 국방정책 및 전략업무를 수행하는 군의 고급간부들과 고위공무원들에게 유용한 역사연구서로 다소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국방편년사 • 김창규, 조성훈 (국제분쟁사부) • 4×6배판 • 2015. 11. 30. 	본 책자는 국방·안보 관련 정책·조직·제도·전력증강과 국방외교, 주요 사건·행사 등 제반 국방업무와 대한민국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북한 및 주변국의 주요 안보 관련사항 등을 망라하여 연도별·월별·날짜별로 사안이 일어난 순서대로 종합정리한 책자이다. 이 책은 1990년대의 국방역사를 이해하는 기본자료로 뿐만 아니라, 국방정책 수립과 국방업무 수행에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구 분	내 용
6·25전쟁시 대한민국 정부의 전쟁지도 • 남정옥 (전쟁사부) • 신국판 • 2015. 12. 30. 	이 책은 전쟁기간 정부가 수행한 내용들을 최대한 수록하고자 노력하였다. 건국과 국방 체제 정립으로부터 북한의 남침 이후 정부의 초기 대응, 전쟁수행 과정에서 정부의 전시체제전환과 전쟁수행체제 확립, 정부의 각 분야별 전시 활동과 조치, 그리고 전후에 대비한 정부의 노력과 성과 등 방대한 내용을 아우르고 있다. 이 책은 6·25전쟁시 대한민국 정부의 역할과 활동을 규명한 최초의 ‘전쟁지도서’로서 그 의미가 크며, 또한 전쟁수행 과정에서 국군의 역할과 활동을 재조명함으로써 이 분야의 연구에 도움을 주고자 노력했다. 이 책이 전쟁 당시 정부의 전쟁지도와 국방정책을 이해하고, 향후 정부와 군의 전쟁정책과 전략 수립에 기여하게 되기를 기대한다.
6·25전쟁과 UN군 • 조성훈 등 3명 (전쟁사부) • 신국판 • 2015. 11. 28. 	이 책은 유엔 창설 70주년을 맞이하여, 대한민국 정부 수립은 물론 6·25전쟁 시 국가 존망의 위기에서 구해주고 또 오늘의 우리가 있게 도와준 유엔과 국제사회의 역할에 대해 재조명했다. 전쟁 당시 세계의 독립 국가는 93개국, 유엔 회원국은 60개국에 불과했다. 이 가운데 공산권을 제외하고 유엔 비회원국까지 포함하는 절대 다수인 60개국이 당시 제대로 알지도 못한 낯선 나라인 대한민국의 자유를 위해 지원했다. 이러한 역사를 되돌아보고, 장래 우리나라가 현재 유엔의 지향 방향인 ‘강한 유엔, 더 좋은 세계’를 건설하는데 기여하길 기대한다.

구 분	내 용
UAE 군사협력단 아크부대증언록 ③ • 이기훈 (국제분쟁사부) • 신국판 • 2015. 12. 29. 	이 책은 국방협력의 일환으로 아랍 에미리트에 파병된 특전사 중심의 아크부대의 3진에서 8진(2002년 1월~2015년 3월)까지의 파병 장병의 파병활동에 관한 생생한 증언을 청취하여 기록하였음. 아크(아랍어로 형제의 의미)부대 증언록①(1~2진)에 이어서 열사의 땅에서 아랍 에미리트와 함께 강도 높은 특수전 훈련지원과 연합훈련을 통해서 ‘세계 최고의 특수전부대’라는 칭송 등 국위선양을 하고 있음. 유사시에 아랍 에미리트 내의 대한민국의 국민을 보호하는 특전사 장병의 생생한 모습 등 사례담을 증언에 포함하였음. 해외파병관련 정책부서와 연계한 해외파병발전을 위한 검토과제를 세부적으로 발굴하여 제시하였음.
대 반란전(COIN) 전사연구 • 손석현 (국제분쟁사부) • 신국판 • 2016. 1. 00. 	이 책은 미군이 베트남과 이라크에서 장기간의 전쟁을 수행했던 이유가 ‘대반란전’을 정확히 이해하고 준비하지 못한 데에 기인한 것이라는 시각에서 분석하였다. 따라서 미군의 베트남전과 이라크전에서 수행되었던 주요 전략과 프로그램, 전투 결과를 철저하게 대반란전 관점에서 분석함으로써 대반란전 수행에 대한 이해와 함께 교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향후 한반도에서의 대반란전 가능성을 진단하고 그 교리를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軍史』誌 投稿案内

1. 원고 내용 및 범위

- 가. 국내외 군사정책 / 전략 · 군사제도 · 전쟁 / 전투에 관한 역사적 내용
 - 나. 한국의 국방 및 안보와 관련한 정치사 · 외교사 · 軍事史 분야에 관한 내용
 - 다. 가 · 나항과 관련된 연구논문, 서평, 연구동향, 자료소개, 연구논문 번역 등
 - 라. 기타 군사편찬연구소 연구활동과 부합되는 글
- ※ 투고 논문은 다른 학술지에 발표되지 않은 것이어야 함.

2. 원고 작성 요령

- 가. 원고는 한국어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한문과 원어는 꼭 필요한 경우로 제한하고 첫 번에 한하여 괄호 안에 표기함.
- 나. 원고 분량은 각주를 포함하여 200자 원고지 150매 내외
- 다. 註는 각주를 원칙으로 하고 각주 번호는 반괄호 안에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함. 각주의 표기는 저자, 「논문」, 『게재지 또는 저서』, 발행처, 발행연도, 페이지의 순서로 함.

예 : 홍길동, 「00에 관한 연구」, 『군사』 제80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1, 99~101쪽.

- 라. 외국어로 된 경우 각주의 표기는 저자, 서명, 발행지, 발행처, 발행연도, 쪽수의 순서로 하고 서명은 이탤릭체, 쪽수는 'p', 'pp'로 표기한다.

예 : Hong Gildong, "History of Republic of Korean Army", *Military History*, Vol. 82, (2012. 3), p.40.

Hong Gildong, *Korean Military History*(New York: Mcgrow-Hill, 2010), pp.100~110.

마.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존 『軍史』誌를 참조하기 바람.

3. 투고 요령

가. 원고는 그대로 게재할 수 있는 완성된 형태의 한글 파일(000.hwp) 이어야 하며 원고 제출은 E-mail로 전송하여야 함. 단, 외국어로 작성할 경우는 MS워드 사용 가능

(군사지 편집위원회 E-mail : imhc2@mnd.go.kr)

나. 전송시 인적사항, 연락처, 논문 초록(국문·영문, 각 A4지 2매 이내), 주제어(Key Word) 10단어(국문·영문) 등이 명기된 ‘투고신청서’와 ‘저작물이용허락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양식은 연구소 홈페이지 ‘연구소 소식’ - ‘공지사항’에서 다운받아 사용)

※ 영문초록은 250~300단어 내외로 작성

다. 공동집필의 경우, 대표집필자 명의로 ‘투고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집필자는 각주에 표기함.

라. 투고 및 수정논문 제출시 한국연구재단(KCI)의 논문유사도를 검사하여 결과서를 같이 제출

마. 온라인 논문투고 및 심사시스템을 활용하여 논문 투고, 논문심사, 논문 심사결과서 확인

※ 2015년 12월부터 시험적용할 예정이며, 2016년부터 전면 시행

4. 원고 심사 및 고료

가. 원고의 게재 여부는 당 연구소에서 심의를 거친 후 결정함.

나. 접수된 원고는 게재 여부에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음.

다. 게재된 원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함.

※ 국방부 본부 및 산하기관의 공무원, 군인, 군무원에게는 소정의 격려품(기념품)을 지급함.

라. 게재된 논문의 저작권은 당 연구소에 귀속됨.

5. 발간시기 및 원고 접수기간

연간 4회 발간(3월 15일, 6월 15일, 9월 15일, 12월 15일)함. 따라서 1월 1일까지 접수된 원고는 3월에, 4월 1일까지 접수된 원고는 6월에, 7월 1일까지 접수된 원고는 9월에, 그리고 10월 1일까지 접수된 원고는 12월에 게재함.

6. 문의/연락처

가.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9(우편번호 : 04353)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軍史』誌 편집위원회

- 전화 : 02-748-1667(정정모)

- FAX : 02-709-3111

- E-mail : imhc2@mnd.go.kr

나. 연구소 인터넷 홈페이지

www.imhc.mil.kr

내용 : 연구소 소개, 소식, 정보자료실(소장도서, 인명DB검색 등),
신간안내, 회원모집

연구윤리예규

군연-예16

제정 2007. 7. 1

부분개정 2008. 12. 1

부분개정 2009. 11. 1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적) 이 예규는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 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연구 부정행위 발생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적용대상) 이 예규는 본 연구소 내 연구편찬 활동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있는 모든 연구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 3 조(적용범위) 연구윤리 확립 및 연구진실성 검증과 관련하여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예규에 의한다.

제 4 조(용어의 정의)

① 연구 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라 함은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변조·표절·부당한 저자 표시 행위 등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사료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는 연구 사료·사진·증언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

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4. “부당한 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기여를 한 연구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연구자와 동등하거나 유사한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5.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6. 타인에게 상기의 부정행위를 행할 것을 제안·강요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② “제보자”라 함은 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본 연구소 또는 연구지원기관에 알린 자를 말한다.

③ “피조사자”라 함은 제보 또는 본 연구소의 인지 여부에 의하여 부정행위의 조사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④ “예비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⑤ “본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한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⑥ “판정”이라 함은 조사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제5조(운영위원회 및 기능) 연구소 운영위원회는 연구윤리·진실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① 연구윤리·진실성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② 부정행위 제보 접수 및 처리부서의 지정에 관한 사항

- ③ 예비조사와 본조사의 착수 및 조사결과의 승인에 관한 사항
- ④ 제보자 보호 및 피조사자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 ⑤ 연구진실성 검증결과의 처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 ⑥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장 연구진실성 검증

제6조(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 ① 제보자는 기획운영실장에게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에 한하여 허용한다.
- ② 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 ③ 제보의 접수일로부터 만 5년 이전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접수하였더라도 처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예비조사의 기간 및 방법)

- ① 예비조사는 신고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착수하고, 조사 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여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 ② 예비조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실시한다.
 - 1. 제보내용이 제4조 제1항의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2. 제보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어 본 조사를 실시할 필요성과 실익이 있는지 여부
 - 3. 제보일이 시효기산일로부터 5년을 경과하였는지 여부
- ③ 예비조사는 기획운영실에서 담당하되,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 또는 별도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8조(예비조사 결과의 보고)

- ① 예비조사 결과는 운영위원회에 승인을 받은 후 10일 이내에 연구지원기관과 제보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도록 한다. 다만 제보자가 익명인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② 예비조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제보자 신원정보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3. 본 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
4. 기타 관련 증거 자료

제9조(본 조사 착수 및 기간)

- ① 본 조사는 운영위원회의 예비조사결과 승인 후 30일 이내에 착수되어야 하며, 이 기간 동안 본 조사 수행을 위한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고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 ② 본 조사는 판정을 포함하여 조사시작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하도록 한다.
- ③ 조사위원회가 제2항의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운영위원회에 그 사유를 설명하고 기간연장 요청을 하여야 한다.

제10조(조사위원회의 구성)

- ① 조사위원회는 소장이 임명(위촉)하는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조사위원회 위원은 부·실장 또는 해당 분야 전공 연구원으로 하며, 필요시 외부인사를 1인 이상 위촉할 수 있다.
- ③ 당해 조사 사안과 이해갈등 관계가 있는 자를 조사위원회에 포함시켜서는 아니된다.
- ④ 본 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에게 조사위원 명단을 알려야 하며, 제보자가 조사위원 기피에 관한 정당한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제11조(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

- ① 조사위원회는 제보자·피조사자·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 ② 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 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소장의 승인을 얻어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해당 연구자료의 압수·보관 등을 할 수 있다.

제12조(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및 비밀엄수)

- ①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직·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아니되며, 제보자의 성명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제보자 보호 차원에서 조사결과 보고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② 소장은 제보자가 부정행위 제보를 이유로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 근무조건상의 차별, 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 등을 받은 경우 피해를 원상회복하거나 제보자가 필요로 하는 조치 등을 취하여야 한다.
- ③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무혐의로 판명된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④ 제보·조사·심의·의결 및 건의조치 등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 및 기관장과 관계 직원은 조사 및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합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제13조(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 보장)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제14조(판정)

- ① 조사위원회는 이의제기 또는 변론의 내용을 토대로 조사내용 및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한다.
- ② 조사내용 및 결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표결로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 및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본조사 결과보고서의 제출)

- ① 조사위원회는 판정 후 10일 이내에 본 조사 결과보고서(이하 “최종 보고서”라 한다)를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최종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제보자 신원정보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3. 해당 연구과제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혐의의 사실 여부
4. 관련 증거 및 증인
5. 조사결과에 대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
6. 조사위원 명단

제3장 검증 이후의 조치

제16조(연구지원기관 등에 대한 자료제출)

- ① 최종 보고서는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10일 이내에 해당 연구과제를 지원한 기관에 제출하며, 상급기관 등에서 요청이 있을 경우 조사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선 조사과정 중이라도 즉시 연구지원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 법령 또는 해당 규칙을 위반한 경우
 2. 공공의 복지 또는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3. 그 밖의 연구지원기관 또는 공권력에 의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제17조(결과에 대한 조치)

- ①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해 운영위원회는 소장에게 징계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 ② 징계조치에 관한 사항은 다른 관련 규정에 의하거나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8조(기록의 보관 및 공개)

- ① 예비조사 및 본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기획운영실에서 보관하며, 조사 종료 이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② 최종 보고서는 판정이 끝난 이후에 공개할 수 있으나, 제보자 · 조사위원 · 증인 · 참고인 · 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 신원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공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예규는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예규는 2008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예규는 200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본 『軍史』誌는 한국연구재단의 등재 학술지입니다.
(’08년 선정)

 편집위원장

양영조(군사편찬연구소)

 편집위원(가나다순)

기광서(조선대학교)	김용달(독립기념관)
김종수(군산대학교)	김태국(연변대학교)
남정옥(군사편찬연구소)	서상문(군사편찬연구소)
손규석(군사편찬연구소)	신명호(부경대학교)
오영섭(연세대 이승만연구원)	이근옥(서강대학교)
이명환(前공군사관학교)	이민웅(해군사관학교)
이상호(군사편찬연구소)	이재범(경기대학교)
정용욱(서울대학교)	진석용(대전대학교)
홍규덕(숙명여자대학교)	

 편집간사

정정모(군사편찬연구소)

국방부 軍史 2016/3(第98號) 군사편찬연구소

2016년 3월 8일 印刷

2016년 3월 11일 發行

發行處 國防部 軍史編纂研究所

(우편번호 : 04353)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9

TEL : 748-1667 FAX : 709-3111

印刷處  M16020166

本誌에 실린 論文內容은 當 研究所의 公式見解가 아님.

Military History

Vol. 98. 2016. 3

Lee, Jae-joon	Military Geographical Study on Su Dingfang's Path of Attack on to Baekje in AD 660
Jeon, Ho-soo	Renowned generals of Ancient & Goryeo era in old literatures
Lim, Hyung-soo	Relook on the Meaning of Hongsan Battle and its Battlefield in 1376
Lee, Gyeong-sig	The victory factors for General Lee's initial battles and combat readiness from the view point of combat capabilities.
Kim, Jong-soo	Royal Power in Joseon and Dochechalsabu(都體察使府) in the Early Reign of Sukjong(肅宗)
Kim, Hyo-kyoung, Lee, Hye-eun	Understanding the Military Supplies of Northern Territory in the 18th Century through historical manuscript
Lee, Jae-ryoung	Yoon Bong Gil's patriotic deeds, and Korea and China's Joint Resistance after Shanghai Incident in 28th of January
Kim, Min-sik	The Republic of Korea Army Officers' Military studying-abroad in United States and Its Effects during the 1950s
Hwang, Sun-ik	The Korean Government's response And the negotiation for the repatriation of the abductees by North Korea in the 1950s
Lee, Jeong-ha	The Red Cavalry and Its Employment in the period of the Russian Civil War
Seok, Hua-jeong	The American-Spanish War and Political Cartoons in Press Media: Expansionism and Anti-Imperialism

Published by Institute for Military History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Seoul, Korea



國防部 軍史編纂研究所
 Institute for Military History.mnd

